

목차

김가람 - 5p

shadow :: 인간관계 속 나를 모노드라마로 표현하기

김단아 - 27p

제천간디학교 규칙설명 만화 만들기 :: 철렁철렁

김민석 - 59p

우리가족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간디인들과 나누기
:: 가족을 보다

김시훈 - 97p

여러 가지 조명 만들기

김은수 - 117p

어린이를 위한 철학 그림책 만들기

문서경 - 137p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

박성민 - 157p

24반무에 초보자를 위한 교본 만들기 :: 예도를 중심으로

박지담 - 209p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랩으로 표현하기

신동현 - 249p

제천간디학교의 환경파괴 문제성을 담은 영상 만들기

안상윤 - 297p

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로 도감 만들기

안효원 - 315p

3년간 나의 이야기로 춤 만들기 :: finale

오정택 - 369p

타로를 이용한 상담으로 간디인의 걱정 덜어주기

우어진 - 417p

덕산면에 적정기술 보급하기

이시은 - 443p

제천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이예슬 - 471p

가족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곡으로 표현하기

이지민 - 509p

내 생각을 담은 글 모음집 만들기

이진주 - 557p

길고양이의 문제점과 대안 알리기

정기온 - 571p

장애인 이동권 연구와 간디인에게 알리기

차한비 - 611p

용기를 주제로 소설쓰기와 작곡하기

최형서 - 699p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진로실태 연구

하늘찬 - 733p

감정들을 간디인들과 사진으로 소통하기

논문집을 마치며 - 748p

shadow

-인간관계속 나를 모노드라마로 표현하기-

지도교사: 강희석



갓 쓴 사람의 이름: 김가람

한마디:

오빠다 있따.

목차

I .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 1) 참고서적
 - 2) 참고사이트
 - 3) 설문조사
3. 본론을 들어가기 전...

5. 연극 후기

- 1) 관객 평가
- 2) 나의 평가

II . 본론

1. 나에게 인간관계란?
2. 인간관계속에서 보여지는 나
 - 1) 설문조사 취지
 - 2) 설문조사 대상과 방법
 - 3) 설문지 내용 *설문지 별도첨부
 - 4)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인간관계속 숨겨진 나
 - 1) 인간관계속 나의 어려움
 - (1)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
 - (2)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 (3) 갈등을 피한다
 - (4) 거절을 못한다
 - 2)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4. 모노드라마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 1) 모노드라마로 선택한 이유
 - 2) 모노드라마의 기획과 연출
 - (1) 모노드라마란?
 - ① 모노드라마의 사전적 의미
 - (2) 모노드라마 기획안
 - (3) 모노드라마 대본
 - (4) 무대연출

III . 결론

1. 후기&나의 변화
2. 감사합니다
3. 부록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난 처음에 논문의 주제를 ‘나의 성격 고치기’로 잡았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던 중 나도 내 주제를 헛갈려 하고 있었고 나의 ‘성격’이란 것이 너무나 방대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혀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내 논문주제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고민하던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떠올랐다. 바로 인간관계였던 것이다.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진실된 마음과는 다르게 살았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도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고 남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항상 갈등을 피했다. 이렇게 살다보니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인간관계면이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다.

평소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큰 갈등 없이 무난하게 지냈듯하지만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풀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드러내지 못한 혹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진짜 욕구가 뭔지 찾아보고 싶었다. 이 논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모노드라마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더 편한 나의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참고서적

- 나만 모르는 내 성격/ 오카다 타카시
- 자유로운 연극 독백/ 허용호
- 생각 처방전/ 박성희
- 금산 간디 중학 2기 논문집

2) 참고 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연극 [play, 演劇]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388&cid=40942&categoryId=33105>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노 드라마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8&cid=41799&categoryId=41800>
- [네이버 지식백과] 모노드라마 [monodrama]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419&cid=43667&categoryId=43667>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관계 (용어해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7394&cid=50298&categoryId=50298>

3) 설문조사

- 3학년 롱자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본론을 들어가기 전...

이 논문에서는 나의 가족관계나 내 어릴 적 있었던 트라우마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런 성향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선천적인 성향이었고, 엄마, 형, 나까지 이런 문제로 각자의 고민을 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내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전부터 꾸준히 상담을 받아온 것도 아니다. 나의 원인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논문에서 나의 어려움은 어릴 적 트라우마나 가족관계에서 생긴 어려움이 아닌 것을 밝힌다.

II. 본론

1. 나에게 인간관계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음악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예술에 혼을 바친 사람, 운동, 연애 등등 사람들 각자의 관심사가 있다. 나는 그중에도 사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다. 어른, 선배, 후배, 친구, 할 것 없이 관계를 만들기 좋아했다.

어느 날 우연히 조해리의 창 JoHari's Window ¹⁾이라는 검사를 받아 보았다. 이 검사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공개적 영역(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내 정보), 맹목의 영역(난 모르고 타인은 아는 정보), 숨겨진 영역(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정보), 미지에 영역(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검사결과 나는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예상대로 남들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고,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욕구가 뭔지 찾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보여지는 나는 어떤 모습이고 숨겨진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게 되었다.

2. 인간관계속에서 보여지는 나

1) 설문조사 취지

이 설문의 취지는 평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 지는지 알아보고자 관련된 문항을 만들어 설문을 돌리게 되었다. 이 설문결과는 작품인 모노드라마를 만들 때 보여지는 나와 내면의 나를 비교해서 나타낼 것이다.

2) 설문조사 대상과 방법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나와 3년째 같이 살고 있는 콩자반 학우를 대상으로 잡았다. 전교생을 설문대상으로 안 잡은 이유는 전교생이 나랑 그렇게 가까이 몸을 부대끼며 살지 않았고, 내 설문지에 답을 할 수 있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년 동안 같이 산 콩자반을 설문대상으로 잡았다.

콩자반 전원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3) 설문의 내용

부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는 3학년 반 인원 21명 중(나 빼고) 20장을 돌려서 19장을 걷었다.

1. 평소 가람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1번 문항에 19명중 19명 모두 답했다.

- 웃김. 그냥 좀 웃기고 은근 조용하다, 밝은 아이, 재밌고 조용하다. 착하고 활발하다, 활기차다 은근 생각이 많다, 끼가 많고 활발한 아이, 착하고 재밌는 친구, 활발하고 잘 웃고 재미있는 친구, 밝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한다. 후덕하고 재미있음, 후덕하다 잘 하는 게 많고 열심히 한다, 재미있고 활기찬 사람, 재

1) 조해리의 창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고안한 이론으로 자기계발과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팀간의 관계 구조 개선을 위해 자아를 인식, 이해하기 위한 훈련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있고 푸근, 빛과 그림자, 활기차다, 밝고 재미있는 친구, 장난기 많고 활발한 어쩔 땐 진지한, 웃기고 재미있음.

1번 질문인 ‘평소 가람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재미있다, 밝고 활발하다. 라는 대답이 대다수였고 그에 반면 은근 조용하다, 라는 대답이 있었다.

2. 가람이와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2번 문항에 19명중 6명이 ‘예’라고 답했고, 13명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2번을 ‘예’라고 답한 사람만)

2-1 갈등이 생기면 가람이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가람이의 행동

- 모르겠다, 머뭇머뭇 하다가 먼저 사과한다,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한다. 하루정도 지난 후에 사과한다, 그냥 잘 풀린다. 사과를 안 하고 화를 내던데? 그래서 무서워서 강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갔어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다시 사과 하더라.

2번 질문인 ‘갈등이 생기면 가람이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나요?’라는 질문에 가람이는 대부분 먼저 사과 한다, 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3.회의나 단체 활동 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가람이는 자기주장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요?

3번 문항에 19명중 17명이 답했다.

-의견을 내기보단 떠드는 쪽 의견 내는 걸 잘 못 봄, 말을 잘 안한다, 반회의나 고학년이 없을 때만, 자신의 말을 별로 안한다, 의사보단 질문을 많이 한다,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말을 잘 안한다, 별말 안한다, 자기주장이 많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듯 그러나 말 할 때는 잘 말함, 자기의 주장이 있는데 선 듯 내지를 않는 것 같다, 자기 의사를 재미있게 표현한다,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못 봤다, 조용히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 하지 않는다 의견을 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 하지 않는다,

3번 질문인 ‘회의나 단체 활동 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가람이는 자기주장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요?’라는 질문에 말을 잘 안한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라는 설문결과가 대다수였다.

4. 가람이에게 부탁을 해 본적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4번 문항에 19명중 15명이 ‘예’라고 답했고, 4명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4번을 ‘예’ 라고 답한 사람만)

4-1 가람이에게 부탁을 했을 때 반응

-처음에는 안 된다고 장난치다가 이후 된다고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주는 듯, 들어줌, 퇴당 그냥 한다, 싫어하는 척 하지만 해주긴 한다, 촌촌대며 결국 해준다, 먼저 장난으로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들어준다, 아~ 싫은데(장난) 그러면서 다 해줌, 장난치면서 들어준다, 거절ㅋㅋㅋ들어줬다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귀찮아 or 아, 알았어....., 그냥 해줌, ㅇㅇ,후덕스럽게 톡톡대며 다 해준다, 그냥 잘해주는 듯,

4번 질문인 ‘가람이에게 부탁을 해 본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장난이나 싫어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 다 받아준다. 라는 설문결과가 대다수였다.

5. 대중 앞에서 가람이의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프로젝트나 과제물 발표 시

5번 문항에 19명중 17명이 답했다.

- 웃김, 긴장, 잘한다, 나름 열심히 한다, 우물쭈물 하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발표를 하고나면 언제나 후회한다, 유쾌하고 즐겁게 한다, 음.. 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조금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다,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있다, 목소리가 크지 않다, 우물쭈물, 긴장한 모습, 경직돼 보인다, 수줍게...?, 그런 건 좀 우물쭈물하고 어려워한다, 막 나서지는 않는다,

5번 질문인 ‘대중 앞에서 가람이의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에 소 주제로 ‘프로젝트나 과제물 발표 시’ 라는 질문에 발표할 때 자신감이 없고 우물쭈물하고, 긴장해 보인다. 라는 설문결과가 대다수였다.

5-1연극이나 기타 공연 발표 시

5-1 문항에 19명중 19명 모두가 답했다.

-즐김, 유쾌, 잘한다 X2, 웃김, 멋있어 보임, 재미있고 당당하게, 적극적 끼가 많아 보임, 당당하고 자연스러움, 무대에서 날라 다니며 잘한다, 연기 잘함, 연극 연기 잘함, 정말 멋지게 바뀔, 자신에 역할을 다한다, 끼가 많아 보기 좋다, 자기를 직접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많은데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맘껏 분출하는 것 같다. 다 같이 하면 잘하는데 만약 혼자하게 되면 경직될 듯, 과제발표 때 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우물쭈물, 하면 잘 할 거면서 안 하려고 함,

5-1번 질문인 ‘연극이나 기타공연 발표 시’ 라는 질문에 적극적이고 무대를 즐긴다, 당당하고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3. 인간관계속 숨겨진 나

1) 인간관계속 나의 어려움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생각이 나의 언행을 지배한다. 그리고 오만가지 생각이 나를 뒤덮는다.

나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다. 난 예전부터 자존감이 낮았다. 왜 낮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자존감이 낮아서 주변사람들에게 의지를 안 하고서는 힘들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내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아 관계를 형성시켰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는 걱정예 항상 주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려고 내 속마음을 숨기며 살았다. 속마음을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 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인간관계속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결국 다 한가지로 연결 되어있다. -거절을 못한다, 갈등을 피한다. 결정을 못한다, 주관적인 생각을 안 말한다, 실수를 하면 자책한다. 등 이것들이 나의 문제다. 이 문제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탄생한 것이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나는 대안 초등학교를 다녔다. 활발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애였다. 사람들의 관심도 좋아서 무대에 나가 연극을 하는 것도 좋았다. 나는 친구들과 관계도 빠짐없이 다 좋았다. 하지만 친구가 내 집에 놀러오는 것을 싫어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내 집에 놀러오면 내가 집주인이니 신경 쓸게 많아지는 것이다. ‘혹시나 애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 밥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집에서 누가 싸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았다.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을 정말 신경 썼다. 친구가 불편한 모습이나 행동을 하면 난 당혹스럽고 걱정 되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하기 싫어했다. 내가 주인공이지만 불편하건 똑같으니까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친구를 불러 오는 걸 꺼려했다. 그래서 난 친구 집에 놀러가는 걸 좋아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신경 쓸 것은 없었으니까. 초등학생시절 관계 면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선배, 후배, 선생님까지 나쁜 관계가 없었다. 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친구들을 이끌지는 않았지만 서포터를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다운된 분위기도 올렸고 재미있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웃게 해줬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웃겨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기도 했다.

(1)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

나는 스타의식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정적 스타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틀림 없이 자신을 비웃고 거부하며 비난할거라고 단정한다.’²⁾ 나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내가 글을 쓸 때 누군가 옆에 있거나 나의 뒤쪽에서 서성거린다면 나는 글을 못 쓴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비웃을 것 같아서 나는 컴퓨터를 끄거나 창을 내리고 컴퓨터를 몸으로 가려서 내 글을 못 보게 한다. 심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갈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몸에 살집이 있는 편이다.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옷이 몸에 붙어 배 라인이 드러날 경우 손으로 옷을 잡아 몸에서 떼어낸다. 이건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살졌다고 놀릴까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지만 남이 날 어떻게 생각 할까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어서 그렇다.

주프 발표나 과제물 발표가 무서웠다. 과제물 발표를 하러 앞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것이다. 발표를 할 때 실수 같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날 비난할 것 같았고 내가 쌓아올린 관계를 한순간에 잃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에도 시선을 의식해서 더 긴장하고 더 많은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 졌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항상 24시간 동안 신경 쓰면서 살아온 이미지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2) 결정을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없다.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남과 싸우거나 경원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한테 맞추려 든다. 자기기분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사이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자기기분이 주변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³⁾

난 주관적인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렸던 적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각자 갈 길을 가버리고 나 혼자 강당에 앉아 흰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그만 울어 버렸다.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지 뭔가를 그리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선생님이 나비와 잠자리를 그려보라고 해서 그제 서야 그림을 그린 기억이 있다.

난 모든 일에 확신이 서야 일을 시작했다. 내 선택이나 주장에 항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선택이 잘 못된 것 일까봐 두려웠다. 틀리면 사람들이 날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만 같았다. 그래서 주체적인 일과 선택을 피하게 되어 버리게 되었다..

2) 박성희 지음, 생각처방전, 출판사 이너박스, 출판년도 2010년, 74p 인용

3) 오카다 타카시 지음, 나만 모르는 내 성격, 출판사 모멘토, 출판년도 2002년 5월 23일, 174p~175p 인용

나는 자기주장을 잘 말하지 않는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속에서 몇 번이고 내 의견을 곱씹지만 결국 말하지 못한다. 내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듣고 비난하거나, 반론을 내고, 나를 욕할까봐 못했다. 그리고 내 의견에 확신이 없어서 회의나 모임에서 나와 다른 주장이 있다면 나는 내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그게 어떤 것이든 꼬리를 내린다. 그 결과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조차 부모나 파트너, 친구한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1,2학년 때 주프(주제프로젝트)를 했다. 주프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깊이 조사하고, 그것을 공유 및 발표를 하는 게 주프인데, 이 과정 중에서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확신이 서지 않아 같은 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청했고 혼자 하는 일이 있으면 주변인들에게 항상 도움을 청했다.

(3) 갈등을 피한다

내가 다섯 살 때 쯤 엄마와 아빠가 싸운 적이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정말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건지는 몰라도 나는 남과 싸우는 것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갈등이 안 생기게 노력했고 그 상황을 피하기만 했다.

피하기만 하다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당하는 것도 두려워 졌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도 나의 논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드백을 받는 게 두려웠다.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했던 과정들을 다시 다른 식으로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다. 분명 선생님은 나를 조언해 준 것 이지만 괜히 나를 나무란 것 같았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았다. 만약 만나서 피드백을 받아도 조용한 공간에서 만나기를 원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보고 비웃을 것 같았고 바로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논문은 배일에 싸여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하지만 논문보다도 나의 이미지가 먼저가 되어서 피드백 받는 것을 피했다.

(4) 거절을 못한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할 수 없다. 왜 노라고 하지 못할까? 이 심리에 밑바닥에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거절하면 자기를 버리거나 경원시 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남한테 나쁘게 비춰지는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여 있어서 거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 만 상대에 요구를 받아들여 상대한테 맞추려든다.”⁴⁾

위의 말처럼 부탁은 정말 거절하기 어렵다. 남들에게는 거절이란 것이 정말로 쉬울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 그 부탁이 사소한 것부터 귀찮은 것, 곤란한 부탁까지 말이다.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보단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더 거절하기 어렵다. 장난스러운 부탁 말고, 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부탁을 받아주기 어려울지 몰라도 거의 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왜 거절하지 못하냐면 외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절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거절로 사이가 안 좋아 지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부탁을 한번 받는다고 내가 죽을 듯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나의 행동이 나를 지치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정말 피곤해서 기숙사에 쉬러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때 농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되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농구장에 나간 기억이 있다. 나의 개인적인 일로 부탁을 받아드리기 힘든 상황 이어도 1순위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되어서 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사소한 부탁이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되어서 내 진짜 마음을 숨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의 생활이 계속 되다보니 점점 몸이 피곤해졌다.

4) 저자 오카다 타카시 지음, 나만 모르는 내 성격, 출판사 모멘토, 출판년도 2002년 5월 23일, 178p~179p 인용

2)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사람을 대할 뿐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속이 빈 강정이 될 수 있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2. 모노드라마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1) 기획과 연출

(1) 모노드라마란?

① 모노드라마의 사전적 의미

모노드라마를 알아보기 전에 연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

사전적 의미로는 배우가 연희(演戲) 장소에서 희곡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관객 앞에서 몸짓과 대사로서 만들어내는 예술.⁵⁾ 이라고 나온다.

연극은 음악, 무용과 같이 공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연예술 또는 무대 예술이라고 한다. 연극의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흔히 배우, 무대, 관객, 희곡으로 4가지를 든다.

그렇다면 모노드라마란 뭘까?

모노드라마란 혼자서 하는 1인극을 말한다. 그리스어 모놀로그(독백)와 드라마의 합성어로서 시종 혼자서 만들어 가는 연극이다. 주로 배우의 명연기를 보여주기 위한 소품으로 공연 되었다. 사람은 외판장소에서 혼자서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연극의 독백은 특수한 기능을 의도한 것이다. 모놀로그의 유형에 따라 과거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모놀로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서정적 모놀로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번뇌를 제시하는 성찰적 모놀로그, 사회풍자와 비판을 주로 하는 골계적 모놀로그, 자신의 육체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곡예적 모놀로그, 명작의 내용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패러디적 모놀로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

모노드라마의 대사는 거의 독백으로 이뤄진다. 대사의 종류로는 3가지가 있다.

- 대화: 2인 이상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다.
- 독백: 무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말하는 대사.
- 방백: 배우가 상대역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객에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하여, 자기 자신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한 대사.

(2) 모노드라마로 선택한 이유

나의 인간관계속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중 많고 많은 방법들 중에 왜 하필 모노드라마를 선택 했을까? 내가 모노드라마로 정하기전에 나의 원래 주제는 '나의 성격 고치기'였다. 연구 방식으로는 글로 나의 어려움을 적는 것 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나의 성격을 고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계획서 발표 평가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연구가 아닌 프로젝트로 바꾸라는 평가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생각해보면서 연극으로 잡았다. 하지만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기에는 남들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고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보던 중 예술이의 주제인 모노드라마가 떠올랐다. 모노드라마는 1인극이다. 여우하품에서 해본적도 없는 것이고, 초보인 내가 하기엔 힘든 주제였다. 하지만 나의 얘기를 내가 표현하는 게 사람들에게 공감이 잘될 것 같았고 좀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모노드라마로 선택했다.

5) [네이버 지식백과] 연극 [play, 演劇]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388&cid=40942&categoryId=33105>

6)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노 드라마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918&cid=41799&categoryId=41800>

(3) 모노드라마 기획안

모노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모노드라마를 어떻게 구상할지 작성해 봤다.

모노드라마 기획안

등장인물

-김가람

공연 시간

-20분~25분

장소

-강당

날짜와 시간

-2014년 11월 10일

공연의 중요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인간관계속에서 내안의 어려움을 표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좋은 면도 많지만 이 논문의 맹점인 인간관계속에서 힘들어하는지만 보여준다.

연극에서 보여줘야 하는 나의 어려움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 지는지, 나서거나 남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한다.)

-거절을 못함 (관계가 멀어질까봐)

-갈등을 피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보를 하고 먼저 사과를 한다)

-결정을 못해서 주관적인 생각이 없다.(우유부단, 남들에게 끌려만 다님)

시놉시스

가람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다. 가람은 모든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가람에게 약간이라도 악감정을 가지는 것과, 조금이라도 비호감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모든 사람들 눈에 가람이 다 좋아 보일 수는 없고, 누군가 가람을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람은 사람들에게 가람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많이 쓴다. 보여 지는 가람이와, 보여 지는 가람의 속에 감춰져있는 가람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릴 것이다.

(5) 모노드라마 대본

인간관계속 나의 보여지는 모습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려움을 모노드라마 대본으로 만들었다. 대본제목은 SHADOW 이다. 연극 제목이 SHADOW 인 이유는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 나에게 그림자란 인간관계속의 나의 보여지는 모습과 숨겨진 모습이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의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따라오는 나의 숨겨진 모습도 있다는 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SHADOW

무대 위에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등장인물

김가람

상담 선생님

1장1막

암전상태

음성1: 가람이? 밝고 활발해, 그리고, 음... 아! 맨날 시끄럽고 장난만 칠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보니
보기보단 은근 조용하더라고, 의외더라.

음성2: 가람이랑 싸운 적 있냐고? 당연하지, 근데 가람이가 대부분 먼저 사과해서 일은 쉽게 풀렸어.

음성3: 가람이는.. 회의 시간 때 의견을 잘 안내요. 자신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더라고
요. 그냥 생각이 없는 건가...?

음성4: 가람...이요? 그 친구... 부탁도 잘 들어 줘요.... 약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 받아 주더라고요?
촌촌자식.

음성5: 발표할 때 가람이요...? 어우... 발표 할 때마다 불안해 보여요.. 너무 긴장하고 있고.. 연극 같
은 거 할 때는 완전히 무대에서 완전 날라다니던데... 근데 발표 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막 2장

모든 불이 꺼지고 왼쪽에서 내가 얼굴만 내민다.

(관객을 보고 흠칫 놀란다) (나온다) 뭐,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날 보러 온 거야?..... 나 완전 스타
구만? 이놈의 인기란... (거만하게) 암튼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나온 이유는.... 내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 (먼 곳을 보며) 내 나이 열여섯.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찾았거든.

그게 뭐냐면, 관계야 관계, 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
게 여기는 인간관계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럴 한번 말해 보려고.

나랑 친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난 술을 먹어도 내 얘기를 잘 안해. 음... 아! 동헌이가 잘 알텐데. 동헌
아! (관객들 중에서 동헌이를 찾는다) 어제 같이 술 마셨잖아. 그때 내가 내 얘기를 했어? 아! 기억 안
나겠다. 어제 엄청 취해가지고 막 사경을 해매고 다녔어. 토하고 막.

암튼 내 속 얘기를 듣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번기회를 영광이라고 생각해!(우쭐해
한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 좋겠지? 난 모든 사람들 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마
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악감정을 가지거나 비호감 으로 보면 그게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

근데, 매일 신경만 쓰면서 사니까 오히려 나만 피곤해지고 힘들어 지더라고, 백문이 불여일견! 말로하는것 보단 직접 보여는 드릴께.

(신세계 ost)

(하늘을 보며) 아……. 연극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음악이 점점 줄어든다)

암전

2막 1장

조명 켜짐

자, 난 타인의 눈을 정말 많이 신경 써,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느끼고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게 의식하고 좋은 이미지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옷에 신경을 많이 써.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관객에게 손을 내밀고 흔들며) 아니,옷을 멋지게 입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다보면 옷이 몸에 붙어 (배를 만진다) 라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와 너 배 봐봐 장난아니다’ ‘돼지네 돼지’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직접 보여준다)

내가 살집이 (손톱을 보여주면서) 요만큼~ 있긴 한데 남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사람들이 날 비호감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그래. 이런 상황은 또 있어.

(왼쪽으로 퇴장)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가람: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아 힘들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했어, (앉는다) (신세한탄 하듯) 매점 간 거 걸려서 노작하고, 논문 쓴다고 전산실에 빠져 있고, (바닥에 누우려고 한다) 점심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농구하고…….

조금만 잔다는 게 너무 많이 자서 밥도 못 먹고... 봐, 튼튼해 보여도 에너지가 없어(쓰러지듯 눕는다.)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자야 하겠습니다!(손만 뻗어 흔든다) 안녕~?

(사이)

어? 형. 왔어?(몸을 반쯤 일으키려다가 피곤한 듯 다시 눕는다.)

…….

농구 하자고? 어……. 미안..나 진짜 피곤해. 농구는 안 되겠어, 딴 애들 모아봐.
…….

(슬며시 일어나 앉으며)

…….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 .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어..., 우리반 애들 아마 106호에 있을 거야……. 거기 찾아봐... 아니 너무 힘들어... 미안... (오른쪽을 향해 소리치듯 하다가 말꼬리에 힘이 빠지며) 어, 재밌게 놀아…….

(다시 누워 이불 뒤집어쓰고 눕는 척 있다가 벌떡 일어나 이불 걷어내는 시늉을 하며)

(관객을 보며)설마 저 형 빠졌어?(나간 쪽을 가리킨다) 진짜 빠진거야? (한숨을 쉬며)하....(짜증)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아이....씨 아 뭐 어떡하라고~! 같이 해줘야지...

(일어나 오른쪽으로 뛰어 나가며)형! 같이 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며) 봤어? 저게 나야. 농구로 예를 든거고.

(돌변 하며 사이코처럼)거절을 하면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말이야. 어쩌다 거절을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을 가질까봐 나는 미안하다고 해. 웃기지, 웃겨, 안 웃겨? 자신이 하기 싫어도 하는 꼴이잖아. 됐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것 같아? 무대위에서 연극을 하고 있잖아. 무대에서는 그래도 자신감이 넘치지만 이걸 이때만이야 발표 같은 것을 할 때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빠른 암전

2막 2장

무대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무대 커튼안쪽, 오른쪽은 무대로 나눈다.

조명 켜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왼편에 서있다.

후.... 긴장된다... (마임으로 커튼을 잡고 무대 바깥을 보는 시늉) 아우 사람 왜케 많아? 아니 우어진 재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할 수가 있지? 장난도 치면서 말이야. 아... 이게 연극이면 좋겠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떨 텐데.

(양손을 내밀면서) 아니.....! 연기와 발표는 너무 달라. 연기는, 연기자의 정신으로!(이상한 연기를 한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되지만 발표는! 사람들에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면... 어우 그건 상상도 하기 싫어. 그리고 틀리기라도 하면 날 비웃을 것 같은 말이야.

(오른쪽을 보며) 끝났어? 벌써 내 차례야? 후...(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긴장한 표정, 웃음기 하나 없이 무대 오른쪽에 서있다.

네.. 후..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발표자 김가람 입니다.(웃을 잡아당긴다.)

(긴장된 표정)저의 논문주제는 인간관계속의 어려움을 모, 모노드라마로 알리기입니다. 논문 목차는 이렇고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아진다)동기 및 목적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더 작아진다.) 처음에는 저의 대해 써봤습니다....

(말할때마다 점점 숨을 빨리 쉰다)

(조명도 점점 어두워진다. 목소리도 점점 작아진다. 입만 병긋병긋)

조명이 짝 켜진다.

(당황& 주위를 둘러보며 안절부절) 어... 그러니까.. 이걸.. 음.. 아... 이걸 뭐라 설명 해야 하지..(표정이 굳음)(입이 마른 듯 입술을 혀로 적신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옷을 잡아당긴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왼쪽으로 이동한다) (썩은 표정)

(주위를 손으로 밀치는 행동) 아 몰라.... (머리를 쓸어넘긴다.)

(자책한다)망했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이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깊은 한숨) 아...난 발표 하나 못하는 멍청인가? 이런 것 하나 못하고...(머리를 친다) 진짜 한심하다..(손으로 얼굴을 쓸어넘기며) 부끄럽다.....

2막 3장

암전

코트를 입고 안경을 끼고 서류를 들고 등장 한다.

(왼쪽에서 들어온다) (가람이가 없는 걸 본다) 뭐야?! 가람이 없어? (관객에게) 가람이 어디갔어? 학교 갔어? 참나... (의자에 가방을 벗는다) (서류를 본다.) (잘 안보이는 듯 안경을 벗어 탁자에 놓는다.)

(안타까운 눈빛) 쫓쫓쫓... 김가람 이거, 나랑 상담을 16년 동안 매일 같이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아니, 애는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으면 지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황당한 표정) 내가 16년 동안 많은 애들을 만나봤는데 이런놈은 처음이야! 하지만, 나니까 얻어낸 게 있어! (관객에게) 듣고싶지? 듣고싶지? (일어난다) 김가람은 갈등을 피하는 성향이 있어!

(머리를 두드린다)생각해 봐, 살다가 보면 친구끼리, 가족끼리,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수도 있어, 그걸 왜 피하는거야? 친구끼리는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도 있잖아? 아! 서.. 설마... 비폭력을 지향하는 학교여서 그래? 하하하하

그래 암튼, 갈등이 생기면 친구와 멀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거지, 그래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양보나 사과로 그 싹을 미리 잘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장난을 쳐도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고 바로 ‘미안, 장난이야’ 라고 해. 반대로 장난을 받으면 그 장난이 기분이 나빠도 하지 말라고 못해.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과 사이가 어색해 질까봐 그렇거든. 그래서 그냥 어색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거야.

그리고 가람이는 이런 생각을 해. ‘아니 애들은 남 기분 생각안하고 장난치나?’ 그러다가 ‘애들이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까지 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어때? 가람이가 지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이런 상태인지 몰랐지? (자만한 표정) 나같이 16년간의 연륜이 있어야해! 상담조금 한다고 나대는 정택이처럼 말이야! 하하 하하 하하!

(오른쪽위를 본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왼쪽으로 뛰어 나간다, 다시 돌아와의자에 가방을 급하게 가져간다.) 가람이에게 안부 좀 전해줘요~. (급하게 나가느라 서류를 떨어뜨리고 나감)

퇴장

가람: (무대 밖에서) 아 수업 왜 이렇게 지루해... 진짜 너무 졸려... (들어온다) (책가방을 의자에 놓는다) (떨어져있는 서류를 본다) 뭐야 이걸? 설마 상담 쌤 오셨어? (들어 왔던 곳을 보며) 뭐라 뭐라 하고 나갔지? 그 사람 말 듣지마 상담은 정택이보다 못하면서 혼자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웃긴 사람이야.

그럼 서류나 한번 볼까~? (서류를 본다) 김가람 조사 내용. 님은꼴 두꺼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고기. 싫어하는 것 조개, 왜 먹을것만 적었어? 이상한 이미지 생기게. 좋아하는 애 잠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본다) 이 사람 날 뒷조사하나? (서류를 본다) 김가람 주제프로젝트? 하.. 주프는 너무 안 좋은 추억이야...

다들 주프가 뭔지 알지? 그럼 됐어. (일어난다)

봐봐, 이 학교에는 모순이 있어. 제천간디 학교는 공동체 학교잖아? 근데 알고 보면 혼자 하는 게 엄청 많아! 공동체면 모든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주프가 문제야! 주프를 하는 과정 중 역할을 분담해서, 혼자 조사하고,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지, 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내생각과 의견에 자신이 없었거든. 틀리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 과정을 피하기만 했고.

사실 내가 생각해도 1,2학년 땐 거의 아무것도 안했어. 잘하는 애들 뒤에 숨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 의견도 안내고, 결정도 맞기고, 조사는 남에게 의지하고 그러다 그냥 한 게 없이 3학년이 되었어. 남에게 맡길 수 도 없고 그냥 혼자 다 해야 했어. 논문이 있기 때문이지.

(오른쪽을 보며) 어진! 너 논문 주제 잡았냐? 적정기술? 뭔가 이름이 어렵다. 1차 할 것 같아.

나?... (고민하는 표정) 어... 나는 아직 주제를 못 잡았어..

(두리번거린다) 지담! 넌 주제가 랩이지? 너는 그거 할 것 같았어. 나중에 싸인이나 줘.

민석! 너도 주제 잡았냐? 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은 동지였잖아. (웃는다) 아, 가족에 대한 거? 그래 수고해...

넌? 덕산면 농사 어찌고? 뭔가 주제 바꿀 뻔이다. 뭔가.. 타로?

(왼쪽을 가리키며)너도 잡았어? (관객의 왼쪽을 가리키며) 너는?(표정이 굳는다) 너네들 다 잡았어? 뭐야, 나만 못 잡은 거야? 진짜 다 잡았어?

하... (고개를 떨어뜨린다) (낙심한다) 애들이 다 주제를 잡았네.... 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난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자에 앉는다. 앉아서 등받이에 기대고 목이 꺾일 정도로 기댄다.

하아... (고개를 숙인다) (사이) 민혜 쌤... 주제잡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제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걸 결정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논문주제가 될 수 있는지도 (고개를 들며) 제가 관심있는거요? ... 관계요. 이런 걸로 논문을 쓸수 있을까요? (표정이 밝아진다) 그래요? 아... 이번에는 혼자 하는 건데, 제가 다 알아서 해야겠죠.
(무대 밖에서 도화지와 와 팬을 가져온다)

음....어떻게 하지? (도화지 중간에 나의 성격 고치기)
(오른쪽을 보며)소영쌤. 아, 이런 식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도화지에 뭔가를 쓴다.)
(왼쪽을 보며) 아 이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도화지에 뭔가를 쓴다.)
(뒤쪽을 보며) 아, 이런거 말고 이거요? (도화지에 뭔가를 쓰고, 펜으로 지운다.)
(관객의 왼쪽을 보며) 이거 어떻냐고요? 어... 이게 더 낫지 않나? 아니 그냥 그걸로 하죠 (도화지에 뭔가를 쓴다.)
(관객의 오른쪽을 보며) 어떡할까요? 이걸 빼고 저걸 넣어요? 저건 전에 뺐 건데...(도화지에 뭔가를 쓴다.)
(다시 왼쪽을 보며) 저걸 넣고 이걸 빼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건데... 그러죠 뭐.(도화지에 뭔가를 쓰고 지운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빨라진다. 정신없이 말하고 움직이면서 뭔가를 쓴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조명이 빠르게 바뀌면서 미션 임파서블 bgm)

하 힘들다... (벽에 달력을 보듯) 벌써 여름 방학이 끝나가네? 맞다 논문! 중간 발표 정리 해야하는데.

(도화지를 본다) 뭐야! 왜 바뀐 게 논문 목차밖에 없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저 말도 맞는 말이고 나보고 어찌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논문을 맞췄더니 결국 이 모양인데... 내 논문인데... 내 생각은 어딴지?... 난 뭘 한거지? 내 논문에 나는 어디있는 거지? 방학이 끝날 때까지 뭘한거지...?

조명이 천천히 꺼진다.

3막 1장
암전 상태

무대 가운데에 의자가 놓여있다. 그곳에 앉아있다.
가운데만 조명이 켜진다.

비웃는 음성1: 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하는거 봐. 진짜 보기 싫다.

비웃는 음성2: 난 자기 좇대 없이 우유부단 하게 막 바꾸는 애 별로야.

비웃는 음성3: 결정이나 진행 하나 못하는 애랑 같이 일하기 싫어.

비웃는 음성4: 재는 거절 못하니까 맨날 시켜 먹어야지~!

비웃는 음성5: 너 생각이 있긴 하나? 남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생각 좀 해 멍청아~.

음성이 하나씩 나올때마다 현실을 믿기 힘든 듯 고개를 흔든다. 점점 머리를 쥐어 뜯는다.

음성이 끝난다.

(헛웃음) 하, 하하하... 그런 거야? 하하.. 내가 나쁜 거야? 하하하.... 이런 내 행동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미지 관리 하고 싶어서 한거 같아? 나도 함께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든다) 한 가지 물어보자.(의자에서 일어난다) 당신들도 관계에 문제가 하나씩은 있잖아.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 자유롭냐고. 정말로 관계에서 떳떳하고, 마음에 쌓아놓은 고민 없이 ‘난 당당하다!’라고 외칠 수 있냐고! 물론 나도 그러지 못해. 하지만 난 이번 기회에 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란 걸.

자신보다 남이 먼저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에 바빴던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강조하며 손을 가슴에 올린다)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였어. 그래서 (왼손을 내민다) 이 문제를 드러낸 거고.

난 관계에서 약하고 두려움이 많아, 그리고 소심한 면도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남들 앞에서 드러냈어!... 나를 드러낸 것에 후회는 없어. 이것으로 나는 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말아야.

어때?.... 나... 나 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암전.

끝

(6) 무대 연출

무대 연출은 무대에서 관객을 보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연극은 1인 2역으로 만들어져 아래의 표에 등장인물을 추가했다.

장과 막	등장인물	무대소품	조명	음향
1막 1장	김가람	X	암전 상태	암전상태에 음성 1,2,3,4,5가 흘러나온다.
1막2장	김가람	X	조명이 켜진다. 마지막 대사를 하고 신세계 BGM과 함께 암전 된다.	신세계 BGM. “직접 보여는 드릴게”라는 대사하고 조명과 함께 줄어든다.
2막 1장	김가람	무대 소품: 오른쪽에 의자와 탁자. 소품: 학생용 책가방	조명이 켜진다. 마지막 대사 후 빠르게 암전	X

2막 2장	김가람	X	조명이 켜진다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암전되다가 '팍!'하고 빠르게 켜진다. 왼쪽으로 퇴장 후 암전.	X
2막 3장	김가람, 상담 선생님	무대 소품: 오른쪽에 의자와 탁자. 소품: 코트, 안경, 서류, 도화지 펜	조명이 켜진다. 마지막 대사 후 천천히 암전	미션 임파서블 BGM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 좋아서
3막 1장	김가람	의자	마지막 대사 후 천천히 암전	비웃는 음성 1,2,3,4,5가 흘러나온다.

5. 연극후기

1) 관객평가

연극은 간디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아닌 여러 외부인의 평가도 합쳐져 있다. 모두 46명이 평가를 해 줬다.

1. 가람이가 나타난 인간관계속 어려움이 잘 전달되었나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다 좋음♡♡♡, 누구나 다 한번쯤 해봤던 고민으로 공감이 잘됐다. 대박, 나랑 비슷한 면이 있다. 뭔가 공감되어서 좋았고 연극 좋았어요. 정말 전달이 잘 되었고 공감이 많이 가고 대박 진심 멋있었다. 글로 표현 하지 못할 정도로. 차분하게 잘 설명해 줘서 공감이 잘 되었다. 잘 전달 됐다. 자신의 성격이나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표현 한 것 같다, 어려움이 잘 전달되었다, 너무 좋았다. 어... 잘 전달되었다!, 잘 전달되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고 코믹했다!. 잘 전해 졌다. 모두 훌륭했다, 완전 잘했고 모두 좋았다. 인간관계속 어려움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달이 잘됐다. 그동안 가람이가 겪었던 내적 고민이 정말 잘 전달되었습니다. 되게 솔직히 잘 표현 해 줬다. 연극처럼만 하면 짱! 의도를 잘 알 수 있었다.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직설적이게 잘 알려 줬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놀랐다!!!. 관계에 대해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잘 표현한 것 같다. 진짜 가람이가 보여서 좋았다. 연극으로 자신을 잘 나타내었다. 연기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는 좋은 연극! 가람이의 배려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란걸!' 을 떠올리며 살아가세요!. 대박 능글맞게 잘했다. 표현하고 싶은걸 다 한 것처럼 보인다, 짹짹. 긴 시간 고민한 흔적 드러나. 전달 됐어요, 보는 내내 찢렸어요.

다 좋았다. 자기 자신을 전교생에게 드러내는 것은 어른들도 못하는 건데 수고했어. 전달 된 것과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모르겠지만 멋있었다. 가람이 답지 않았다, 멋있었어, 아주. 잘 와 닿았다. 아쉬움 점은 없다. 가람이의 진실 된 마음과 속사정 잘 보고 갑니다. 가람이가 인간관계속에서 느꼈던 어려움이 잘 나타난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없다. 표현이 잘됐고 또 다른 가람오빠를 보는 것 같았다. 가람이의 장단점이 잘 나타난 것 같다. 좋은 점은 가람연기, 진솔함, 친구들 목소리. 그의 솔직한 도전, 연극 속에 잘 실어서 좋았어요.

인간관계속의 어려움은 확실히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공감도 되고 연극에 푹 빠져서 보게 된 것 같다. 중간 중간 개그를 넣은 점이 좋았고, 연극을 통해 나를 알린 것, 다시 말해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알린 것이 좋았다, 아쉬운 점 없음. 1인 다역 하면서 구분이나 그에 맞는 연기 잘 보여줘서 좋았고, 가람이가 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자신의 어려움 아픔을 보여줬다. 너무나도 좋았고 나에게 좋은 영향과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해줬고 고맙다, 가람아.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발성 짱! 완전 잘 들림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연기도 좋았다. 감정이입이 잘됨. 진짜 잘 표현해줬다. 가람이의 진짜모습을 극으로 너무 잘 볼 수 있었다. 직설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같아서 너무 멋졌다,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가족이야기가 없어서... 스토리텔링은 조금 약한 듯.. 상황 표현이 더 많았으면. 약간의 긴장 (입술마름). 너무 독백위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연극에 많이 녹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

2. 연극을 본 소감

정말 잘 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주길. 미안할 정도로 감정이 느껴졌어요. 울긴 왜 우냐 가람아ㅋㅋ 연극마지막 말처럼 너 좋은 사람 맞으니까 파이팅 해라 남은 것도 잘하고, 진짜 다 좋았어. 용기 있게 자기를 직면하고 첫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 것 같아. 축하해. 신기한 것 같다. 나는 발표는 그냥하면 되지만 연극은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렇다. 평소 관계를 극복해내면 더 좋은 것이고.

너무 재밌었다. 1인극이라서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완전 짱짱 좋았다. 한이 담겨 있는 것인가? 연기 너무 잘한다!!! 내가 눈물이 다 흐르네. 정말 인상 깊게 봤다. 완전 대박! 1차감인데... 정말 명배우다, 연기를 해서라도 오빠의 진심을 해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솔직해서 좋았다. 감동이 있습니다. 연극 완전 잘한다!. 너무 잘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잘했다. 돈 주고 서울 소극장을 느꼈다.

연기 너무 잘한 듯! 마지막에는 감동 먹어서 인지 감정이 북받쳐 그런지 모르겠지만ㅎㅎ. 조금(?)공감되었다. 정말 대단했다. 짱짱이다!! 최고!! 몽클했다.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감동!. 보면서 나도 공감됐었던 부분이 있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재미있다, 공감된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다른 연극을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한다.

그냥 공감되고 그래서 나또한 슬프기도 했다. 진짜 수고 했어요♡. 공감이 됐던 만큼 감동적? 이었다, 나를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완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듯ㅋㅋ, 감동에, 연기도 잘하고, 내용도 잘 전달되고 짱짱! 짱! 완전 멋져요.

정말 수고 많았고 감동이었어. 가람 이를 보았다! 나를 아낌없이 표현 하는 것에 대한 감동. 가람 이는 정말... 코믹 연기, 표정연기를 잘한다!. 한참 공감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연극을 한 용기가 대단했다. 자신이 다가서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고 직시하는 가람이 대견하다 너무 수고했다. 가람이 장하다! 진짜 잘 봤어!.

감동적이었다. 가람이의 연기는 정말 가람이를 잘 들어다 볼 수 있었다. 중간 중간에 드립이 재미있었고 나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람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혼자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가람이가 근래에 변했다고 생각했다, 변한모습에 놀랐지만 그래도 가람이가 논문을 통해 변했다고 생각하며 격려를 해주었다, 가람 수고했어!! 50이 가까워 오는 내 모습을 덩달아 같이 바라보았고 덕분에 나도 용기를, 힘을 얻었어.

평소에 나와 가람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는 내내 공감되고 슬펐다, 가람이의 어려움이 뻗속까지 사무쳤다, 스토리연개, 대사전달력 모두 손색이 없었다.

역시 모든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빛을 발한다, 보는 내내 울컥했고 남들이 웃는 장면에도 나는 웃었다. 평소 가람이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연극을 잘 모르지만 가람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것도 지루하지않게 재밌고 감동적이게... 앞으로도 자신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고 연출은 소질이 있고, 연기는 천상 너의 재능이다!. 아쉬운건 조명이ㅋㅋ.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연극이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자

신을 돌아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한 노력이 보여서 대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지루하다는 생각 없이 매우매우매우매우 재밌었다. 기대보다 훨씬 좋았고 돈내고 본 연극보다도 좋았다. 정말 단점이 없을 정도로 다~~좋았다.

2) 나의 평가

이 연극에 대해 내가 평가를 해보자면, 2014년은 너무나도 혼잡한 해였다. 그래서 논문 쓸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난 ‘이거는 학교에서 이해 해줘야 하는 것 아냐?’ 라고 불평을 많이 했다. 그만큼 학교는 논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난 학교에 대해서 불평만 했을 뿐 정작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연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일을 미루기도 했었다.

처음에 이 논문을 할 때 난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연출, 독백, 시나리오, 음향, 조명.. 등등 여러 가지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산들이 있었다. 난 나만 힘든 줄 알았고 너무 힘들어서 논문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대본이 여차저차 해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은 2주 뒤 발표였고 난 연습조차 안되었었다.

8쪽 정도 되는 대본을 어떻게 외울지 정말 막막했고, 연극을 할 엄두를 못 내고 대본에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서 연극 연습 자체를 못하고 대본만 고치기에 바빴다. 공연하기 몇 일전에도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거의 모든 나의 공강을 잡아먹어서 정말 원망도 많이 했다. 그래서 공연 하루 이틀 전에도 해야 할게 너무 밀려있어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바쁠수록 친구들은 내 부탁을 흔쾌히 받아 줬고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도 많이 해 주었다.

대본이 너무 길어져서 대본 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도 엄청 많다. 그리고 내 연극은 연습시간이 부족했다. 학교상황은 말이 아니었고 나의 개그움이 한몫 했다. 공연 연습을 많이 못하고 조명과 음향과 많이 못한 점,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디테일이 부족했다. 저것들이 좀더 들어갔더라면 좀더 완성된 연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연극 중 마지막 대사를 말하니 내 속안에서 이상한 감정을 나를 쫓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눈물이 나왔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내가 논문을 쓰며 힘들었던 것들과 관계 속 어려움이 드러난다는 생각, 날 도와준 부모님과 친구들, 등등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도모르게 나온 것 같다. 연극을 하기 전에는 ‘긴장된다, 그냥 하기 싫다, 대사나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극 발표를 하고 내가 눈물을 보이며 나오자 친구들과 주변 관객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멋졌다’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나의 공연은 한마디로, ‘연습시간은 부족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만족할 만한 연극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Ⅲ. 결론

1. 후기 & 나의 변화

드디어 논문이 끝났다. 1년 동안 날 괴롭힌 논문이 이제야 끝났다. 후기를 적어보자면 나의 작품인 연극 모노드라마를 몸에서 털어내니 정말 개운하다. 누구든 다 그렇지만 난 이 논문을 쓰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 논문을 쓸 때도 내안의 어려움이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다. 자기주장 없고, 귀가 얇은 나는 남들 말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기만 했다. 너무 힘들어서 화도내고 울기도 했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다. 논문의 성공은 방학 때 이뤄진다고 했는데 그 꿀 같은 여름방학을 그냥 날려 보내 버렸다. 그리고 방학 끝나기 3일전 나의 담당 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며 난 더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학교에서 큰일이 자꾸 터지면서 논문에 집중할 시간도 없어져 버렸다. 이번이 아마 간디역사상 논문쓰기 가장 안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다.

이 논문은 하기 싫지만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 논문을 쓰며 나는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논문은 나에게 내 삶에 가장 큰 도전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그러길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성인이라도 힘든 일이라고. 아직 난 내 문제

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2. 감사합니다

논문과 대본이 막혔을 때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 어머니, 내가 힘들어 할 때 자신의 얘기를 해 주신 아버지, 힘들 때 상담해주신 민혜 쌤. 지금은 없는 소영 쌤, 다가가기 힘들었던 희석쌤 내 연극을 도와준 친구들. 화려한 조명을 맡은 민석. DJ로 일해도 될것 같은 환상적인 손놀림인 음향의 형서, 날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짐꾼(?)한비.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내 연극에 목소리를 보태준 친구들. mbti로 본 내 성격유형검사를 해주신 준상이형 어머님. 그 이외에도 제 곁에 있어준 간디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3. 부록

* 인간관계속 보여지는 나 설문지

안녕하세요. 3학년 김가람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인간관계속 나의 어려움을 모노드라마로 표현하기’ 입니다.

이 설문의 취지는 평소 인간관계속 제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들에게 보여 지는지 알아보고자 관련된 문항을 만들어 설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로 보여 지는 저와 내면의 저를 비교해서 모노드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1.평소 가람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

2. 가람이와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2번을 예라고 답한 사람만)

2-1 갈등이 생기면 가람이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 갈등이 생겼을 때의 가람이의 행동

ex)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한다, 바로 사과하고 문제를 덮어버린다, 말 안하고 꾀하고 빠진다, 감정을 주체 못하고 후려친다. 감정이 올라와 그 자리에서 운다. 등등

-

3.회의나 단체 활동 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가람이는 자기주장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요?

ex)시답잖은 의견을 자주 낸다.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반대의견에 쉽게 수용한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불만이나 의견을 드러낸다. 기타 등등

-

4. 가람이에게 부탁을 해 본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4번을 예라고 답한 사람만)

4-1. 가람이에게 부탁을 했을 때 반응

-

5.대중 앞에서의 가람이의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프로젝트와 과제물 발표 시

-

5-1 연극이나 기타공연 발표 시

-

감사 합니다^^

*연극 평가지

연극 shadow 감상문

이름:

1. 가람이가 나타낸 인간관계속 어려움이 잘 전달되었나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등

-

2. 연극을 본 소감

-

제천간디학교 규칙설명 만화 만들기

-철컹철컹-

지도교사: 김수자



이름: 김단아

좋아하는 것: 그림 그리기, 만화, AENKAE♥, 집, 포크송,
산야초 닭강정, 애기동물, 과자, mp3

싫어하는 것: 삶은 야채, 생선탕, 비, 집에 가는 나를 막는 모든 것

좋아하는 노래: Fuck you, 걱정말아요 그대

한마디:

사랑해요 ♥!!!! 야호 ♥♥♥!!!!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 본론

1. 만화란?
 - 1) 교육 만화란?
 - 2) 내가 만드는 만화는?(철경철경)
2. 제천간디 학교 규칙들은?
 - 1) 학교 규칙
 - 2) 전산실 규칙
 - 3) 기숙사 규칙
 - 4) 기타 규칙들
3.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규칙
 - 1) 1학년 학생들 설문
 - 2) 법무부 인터뷰
 - 3) 생활교사, 동장 인터뷰
4. 만화(철경철경) 만들기
 - 1) 캐릭터 디자인
 - 2) 글줄거리
 - 3) 콘티
 - 4) 만화 그리기
 - 5) 편집프로그램
 - 6) 인쇄소 방문, 인쇄, 제본
5. 평가 및 반응
 - 1) 학교 사람들
 - 2) 외부 사람들
6. 제작일지

III . 결론

1. 후기
2. Thanks To♥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내가 1학년 때 법무부들이 규칙을 마구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 땐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헛갈리기 일쑤였고 실수도 많이 했었다

근데 이번 학생들은 어떨까? 규칙은 많다. 학교본래 규칙, 전산실 규칙, 도서관 규칙, 생태화장실 규칙, 기숙사 규칙 등등..자잘한 규칙들도 많은데 그런 규칙을 다 외우려면 머리도 아프고 설명해 주려면 지루하지 않을까 싶다. 파릇파릇 1학년들이나 여기 학교를 선택해 곧 들어올 신입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예전부터 만화 캐릭터를 많이 그리지 만화를 많이 그리지는 않았다.

스토리 구성, 칸 나누기, 콘티 짜기, 말풍선 놓기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스토리는 있어도 그리지를 않는다거나 그리던 도중 질려서 손을 놓는 것이 대다수였다.

솔직히 이태까지 제일 길게 만화를 그려본 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악마를 물리치는 천사’ 만화 밖에 없었다. (제일 길게 연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등장인물들이 다 졸라맨 이어서 일거다)

이태까지 배운 것도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없던 터라 그림을 잘 그리고는 싶었지만 누구한테 배우거나 학원은 가지 않았다. 학원에 가봤자 그림 실력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에게 배워도 보고 끈기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논문을 썼다.

2. 논문의 목적

우리학교에서 살아봐도 몇몇 짜잘한 규칙들은 모르기 마련이다. 그렇게 모두들 알지만 많이 어겨지는 규칙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규칙들을 많이 넣어서 만화를 그릴 것이다.

보통 규칙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만큼 지루하기도 할 텐데 만화로 보면 쉽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지루하지도 않아서 좋다.

특히 신입생들이나 여기 제천 간디학교를 선택한 학부모님들에겐 규칙들을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느낌과 학교의 일부를 이해하고 들어갈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만화를 책으로 출판한 뒤에는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고 누리빵카페, 학교 도서관, 간디센터 도서관 같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다 비치해둘 계획이다.

3. 연구방법

참고서적

- 쉽게 배우는 만화캐릭터 데생
- 쉽게 배우는 만화 배경원근법
- 선배들 논문(09오지영, 04한이정)

취재, 인터뷰

- 동장 인터뷰
- 법무부 인터뷰
- 생활교사 인터뷰

방문 및 탐방

- 애니봄 만화학원

설문조사

- 1학년들 규칙에 대한 설문조사
- 만화책 평가 및 반응

II. 본론

1. 만화란?

만화의 정의란 어떤 대상이든 그 사물의 형태나 사건의 성격을 과장된 표현 또는 생략된 표현으로 웃음의 소재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회화라고나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만화를 캐리커처라고 부르며, 영국·미국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카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장면을 연결시킨 유머만화는 코믹 스트립스 라고 부른다. 현대에서는 대체로 만화로 그린 인물화를 캐리커처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근원은 이탈리아어의 caricare(‘과장한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처음 태어난 만화는 18세기 유럽에서 한때 인기가 많았던 가두 인형극 ‘펀치와 주리’(Punch and Jury)의 펀치라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1841년 영국에서 만화잡지 펀치를 발행했다

그 후 영국인 와그만(Wagman, C.)이란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1862년 요코하마 거류지에 만화잡지 ‘저팬 펀치’를 발행했으며 여기에 유래되어 당시 일본에선 만화를 ‘펀치화(punch 畫)’라고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첫 만화는 1909년 ‘대한민보 大韓民報’에 실린 시사만화다 그 당시에는 ‘삽화(插畫)’라 불렸고 1920년에 개설된 ‘조선일보’에서는 ‘철필사진(鐵筆寫眞)’이라고 했으며 ‘동아일보’에서는 ‘그림이야기’라고 하기도 했다¹⁾

만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장르로 구분한다고 치면 판타지, SF, 순정, 액션, 추리, 개그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는 방법이나 올리는 방식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인터넷으로 올리는 웹툰과 원고에다 손으로 직접 그리는 만화가 있다. 또한 칸 수에 따라 나눈 한칸 만화, 두칸만화, 네칸만화나 여덟칸만화 등, 분량에 차이로도 나눌 수 있는 단편만화나 장편만화가 있다²⁾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한 만화가인 김규택(金奎澤)이란 사람이다 그의 작품은 ‘신동아’ ‘별건곤’ ‘조광’ 등등 수많은 단편만화와 만화·만문형식의 ‘모던춘향전’을 연재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광복 후에는 주간지 <새한민보> 표지에 시사만화를 연재했다.



[그림] 김규택 작가의 모던 춘향전 일부

1) 교육만화란?

교육만화라는 건 학습하려는 대상에게 알기 쉽게 하고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내용으로 학습할 내용을 풀어 그린 만화, 또는 교육을 돕기 위해 만화로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한 만화를 뜻한다.

만화의 교육을 중점으로 두어 교육을 접목 시켜 만든 게 교육 만화인데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³⁾

교육만화들 중에 유명한 것들 중엔 양도 많고 가장 유명하다는 ‘Why?’가 있고(대략 170권) 다른 책들은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던가 ‘보물찾기 시리즈’ ‘먼 나라 이웃나라’ ‘마법천자문’ 등이 있다.

요즘에는 이렇게 책으로 출판될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를 이용한 웹툰에서도 만날 수 있다. 웹툰을 이용해서 어떠한 대상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형식이다 이런 것들은 교육 쪽보단 광고나 홍보 쪽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보단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웹툰 쪽이

1)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만화 [漫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만화의 분류 (두산백과)

3)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학습 만화의 패러독스 (만화의 문화 정치와 산업,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오히려 내 만화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 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걸 좋아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그림이 얼마 첨가되지도 않은 글자만 뽁뽁하게 적혀진 교육 책들은 읽기 싫어하고 금방 질려한다. 하지만 학습만화는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편하고 쉽게 볼 수 있어 웬만한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아이들이 학습만화를 접할 땐 줄거리나 내용보단 그림에 집중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렇게 많이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화에 의미를 줄인 단어들을 많이 접해 표현력이나 어휘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상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일반 책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2) 내가 만드는 만화는?

내 만화는 우리 학교에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만화고 형식은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교육만화이다 에피소드란 하나의 짤막한 스토리를 말한다. 컷은 4컷 만화 형식으로 4컷씩 쪼개지거나 6컷만화 형식으로 6컷씩 쪼개진다.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닌 내가 직접 만든 캐릭터 들이 각자 있는 성격과 특징들을 넣어서 들어가고 캐릭터들은 법무부 4명 1학년과 사감쌤, 전산실 장학생은 각각 2명씩 되어있다. 그리고 캐릭터를 다 짜면 만화의 뼈대인 콘티를 그리고, 그 후에 제대로 만화를 그려서 펜선을 탄후 스캔을 뜨고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서 책으로 만든다.

2. 우리학교 규칙

1) 학교 규칙

* 평화정착위원회에서 '평화정착 활동' '폭력사건발생시 조사와 해결'을 진행

* 제천간디 건강위원회 시행세칙 *

■ : 학생들의 흡연은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흡연 자체가 가지는 청소년기의 역기능으로 인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소수지만 중독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흡연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흡연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건강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금연에 성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운영규정은 흡연에 한하도록 한다.)

1. 건강위원회 운영방안

- 1) 흡연학생은 가입절차에 따라 건강위원회에 등록한다.
- 2) 금연을 위하여 노력하고 흡연의 확산, 냄새, 쓰레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건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4) 매 학기 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건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건강위원회는 운영위원과 회원으로 나누어진다.

1) 운영위원

- 학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학부모님의 참여도 가능하다.
- 매년 새롭게 구성하되 학생은 2~3명, 교사는 1~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은 해당 년에 따라 변동가능)
- 건강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 회원

- 흡연 사실을 고백한 학생

3)

- 건강위원회 규칙이 바뀌면 그 내용을 건강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가족회의와 학부모회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다.
- 한 주간 흡연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논의하고, 금연노력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본다.
- 모임은 1주일에 1회 이상 갖는다.
- 금연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건강 프로젝트를 한다.
-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 금연노력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도움과 진단을 받는다.
- 흡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의 요인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실과 긴밀한 협조 하에 흡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하고 흡연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3. 가입절차

흡연을 하는 학생 중 스스로 금연의지를 갖거나, 타인에 의해 적발되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위원회에 가입되며 자신의 흡연현황을 알리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건강위원회 규칙 적용 절차

1) 학부모 알림

2) 매주 일 회 상담과 건강주간점검표(금연 일지) 작성 :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줄여가며 최종 금연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입 후 2주, 4주 차에 교내 소변검사

4) 건강프로젝트 - 최종 탈퇴할 때 까지 매일 운동장 5바퀴 돌기.(학생회 소속 건강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4주 차 소변검사서에서 금연을 확인받아야 한다.

6) 4주 차 소변검사서에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가족회의에 알리며 초기 가입 상태로 돌아가 처음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심한 중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와 의논해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 필리핀 체험학습과 움직이는 학교는 건강위원회를 최종 탈퇴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7일 이내에 소변검사에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특별 소집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에 따른다.

5. 건강위원회 탈퇴 규정

1) 금연을 성공하면 건강위원회를 탈퇴 할 수 있다. (4주 후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연위원회에서 친구들의 확인을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건강위원회 탈퇴 후에 다시 흡연을 할 경우 최초 흡연과 동일한 상황이 적용된다.

* 마술학교 시행세칙 *

* 음주의 특성 - 흡연과 비교해 중독성은 없는 편이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함께 행하며 음주 후 이성과 자제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접근 방향 - 강한 처벌보다는 대화와 상담으로 스스로 음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한다.

1. 1차

1) 학부모 알림

2) 술에 관한 글을 쓰고, 그것으로 상담 교사와 나누기

- 음주에 대한 기록 / 내 음주의 역사 / 나의 술버릇 / 술을 마신 후의 느낌과 내 몸의 변화
- 3) 금주위원회 위원으로 가입 및 활동 (1년 동안 음주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
- 4) 가족회의 때 상담내용과 소감 발표

2. 2차

- 1) 학부모 알림
- 2) 전체 사과문 발표와 게시
- 3) 마술학교 입학 활동 (술의 유해성에 관한 다큐 시청, 반성 노작 3시간, 청소년 금주에 관한 캠페인 3회)

3. 3차

- 1) 학부모 알림
- 2) 학부모 학교방문 - 가족 금주학교 (가정 안에서의 음주문화 토론, 가족 노작 2시간)
- 3) 가족회의 때 금주학교 내용과 소감문 발표

4. 4차

일주일 귀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옴 (금주학교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 완수- 금주에 관한 책읽기, 자기 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활동 제시)

- 알콜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
- <내 몸 대청소> 책 읽고 독후감 쓰기
- 봉사활동
- 부모님과 심층 간담회

5. 4차 이후 - 4차 규정 반복 적용

- * 위의 차시 적용은 첫 음주부터 만 1년 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 * 상황별 피해 사례에 따라 가족회의에 회부하여 가중처벌 혹은 심층 논의할 수 있습니다.
- * 근처 매점에서 구입했을 경우, 찾아가서 사과 및 협조 요청

생활규칙

*

규칙 : 교육 공간(덕산면 소재지 포함)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은 물론 소지도 금지 / 교사에게 맡기거나 주변학생 집에 맡기는 것도 금지

이유 : 공동체 생활에서 소통이 되지 않음 / 일상생활에 방해 / 중독의 문제

벌칙 : 1단계 : 학생회에서 30일 동안 무료보관, 법무부가 제안하는 주제에 맞게 자기성찰 글쓰기·게시

2단계 : 학생회에서 60일 동안 무료보관, 담임교사와 면담 후 느낀 점 글쓰기·게시

3단계 : 귀가조치(직접 핸드폰 두고 오기), 가족노작 1시간 이상, 담임교사와 가족면담.

비고 : 적발 시, 담임교사가 부모님께 알림 전화를 드린다.

현재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질 경우에도 학교로 다시 보내 위의 벌칙과 같이 적용한다.

유심 칩을 제거한 공기계의 사용도 금지. 이유는 유심 칩을 제거한 핸드폰도 핸드폰이고, 유심칩을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에.

벌칙적용 리셋기간 : 만 1년.

* 무단매점

규칙 : 학교 주변 매점 가지 않기.

: 현금소지로 인한 도난 위험 / 쓰레기 처리문제 / 식사를 거르는 문제 / 시중 과자, 음료가 건강에 안
좋음

벌칙 : 학교책임수행 1시간 / 사과문을 가족들 앞에서 읽고 게시하기/ 법무부 선정 도서 필사.

비고 : 교육공간 안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경우 매점규칙과 동일 적용.

단, 주말 덕산면 소재지는 외출공간으로 인정해 위 규칙에서 예외로 둔다.

매점에 갔지만 시중 과자, 음료 등을 먹거나 구입하지 않았어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벌칙적용. (휴
대폰 규칙과 비슷한 맥락)

단, 친환경 매장 제품은 반입 허용한다.

*

규칙 : 식사시간 외에 식당음식 및 주방창고 물품을 몰래 먹지 않기

이유 : 식당운영에 차질이 생김 / 밤늦게 내려오면 위험함

벌칙 : 사과문을 가족들 앞에서 읽고 게시하기 / 영양사쌤 지도하에 식당대청소

*** 무단외출외박**

규칙 : 학교에 알리거나 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외출하거나 외박 안하기

무단외출 : 평일 선고2구 이상, 도기이상 나가기 / 평일 저녁 9시 이후~아침 6시전에 생활관 앞 소나무 밖으
로 나가기 /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에 외출하기

무단외박 : 교사 및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 밖 공간에서 외박하기

이유 : 사고나 실종의 위험

벌칙 : 무단외출 시, 주말 외출외박 2주 금지 / 무단외박 시, 외출외박 3주 금지.

비고 : 벌칙 수행 중 무단외출외박을 또 할 시 기간이 더해진다.

평일에 공적인 사유로 외출할 경우 사전에 집행부회의에 미리 알리고 가족회의에서 동의 받는다. 전체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전교생에게 외출의 구체적인 이유와 일시,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외출한다.

여기서 뜻하는 공적인 사유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회식이나 종강 뒤풀이, 소풍 등을 뜻하며 예
외는 있을 수 있다.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출이나 학급활동 등은 법무부에게 알리고 외출이 가능하다.

주말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집행부 회의 전에 미리 담임교사와 법무부에게 알리고 전교생
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일시, 상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외출한다.

*** 전자기기 관련 규칙**

노트북 : 사용 목적, 시간, 장소 등을 밝히고 교사회, 학생회, 가족회의 동의하에 사용

스마트기기 : 식당, 수업, 기타 모임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무선인터넷, 게임, TV등의 대중매체 시청 등
의 기능을 사용.

이유 : 공동체 생활에서 소통이 되지 않음 / 중독 문제

벌칙 : 무선인터넷과 게임사용 시, 핸드폰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되 사용한 기기를 보관한다.

노트북 무단 사용 시, 가족회의에서 논의.

비고 :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보다 광범위하고 그 기능들이 노트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노트북과 동일 적용.

품목

차량 히치하이킹, 이어폰 및 헤드셋, 연애키퍼들의 애정표현

2) 전산실 규칙

※ 전산실 사용의 우선순위는 공적 사유>자리>개인입니다. 공적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것을 말하며, 숙제는 물론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계발 등도 포함됩니다.

1. 전산실 사용시간은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컴퓨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학교철학에 의거해 개인적인 사유는 **오전 오후 각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사용 외 시간에 장학생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할 경우 전산실의 출입을 열흘간, 공적인 사유로 컴퓨터를 하겠다고 장학생에게 공지한 뒤 그와 관계없는 개인 사유로 컴퓨터를 할 경우 전산실의 출입을 2주간 금합니다.(공적 사유 도중 음악 듣기는 허용)/선토도 사용 외 시간으로 처리됩니다.

※ **사용 외 시간이 저녁 10:00 정각을 지나는 경우에는 가족회의에 회부**됩니다.

3. 스캔만화, 텍본 소설 관람 및 다운 금지. 적발 시 3주간 전산실 사용 금지.

4. 각종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지**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즙을 들고 쪽쪽 맛있게 먹는데 키보드에 쏟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키보드는 망가지고 수리비는 니가 내야 됩니다. ^^ 음식물 반입 적발 시 그 자리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막대사탕은 온갖 군데에 끼기 일쑤고 과자 부스러기는 전산실 청결 불량률의 주 원인이 됩니다.

5. **토렌트, p2p 사용 금지**입니다. 전산실은 합법적인 사이버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토렌트나 p2p 쓰면 바이러스에 그리드에 온갖 악의 괴수들이 컴퓨터에 쳐들어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컴퓨터가 줄어듭니다. 적발 시 2주 금지.

6. 함부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바꾸거나 본체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7. 전산실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꿀 경우 가족회의에 올라가며, 한 달 동안 전산실 사용이 금지됩니다.

8. 전산실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 및 다운로드 하거나 게임을 실행 또는 플레이하면 그 게임의 장르와 종류와 용량크기를 불문하고 전산실 사용을 한 달간 금지하고, 발견 그 즉시 전산실에서 퇴실시킵니다.

옆에서 ‘방관’한 사람도 함께 전산실 사용을 일주일간 금지하고 전산실에서 퇴실시킵니다.

※ 이 경우 웹게임(Dragon Cave, 주니어네이버 동물농장 등)과 소셜게임(와라 편의점, 에브리타운 등), 네이버 생활의 게임, 점심먹고 노라라 등에 올라와있는 플래시 게임도 물론 포함. 지뢰찾기, 카드놀이, 프리첼, 3D핀볼 등 윈도우 게임도 안됨.

9. 전산실 개방시간동안 주변에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하거나 소란을 피울 시, 경우에 따라 전산실 출입금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3) 기숙사 규칙

-기상: 6시 45분에 기상송, 7시 기상당번이 깨운다. 7시 20분까지는 일어나야 된다.

백사리: 아침 7시에 퇴소

-퇴소: 7시 40분부터 퇴소당번이 알림, 8시 전까지는 꼭 나가야된다.

백사리: 아침 7시에 퇴소

-간식: 저녁 6시 45분까지 내야한다. 씻는 건 미리강 방에서,,

-묵학: 7시에 시작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기, 자기개발이나 숙제나 하고 싶은걸 하면 된다.

백사리: 묵학 때 미리강에게 책읽어 주기or별칙자들 끼리 책 읽고 독후감 쓰기(1~2장)

-청소: 묵학이 끝나고 9시에 시작한다.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한 뒤 청소당번에게 검사를 맡고 통과하면 된다.

백사리: 미리강이랑 청당이랑 상의해서 정한다. (EX: 중앙정원 풀뽑기, 세탁기 뒤에 부분 청소, 무지개 신발장 청소, 욕실 커튼 닦고 빨기, 화장실 슬리퍼 빨기

-소등: 10시에 방 불을 끄고 각자 가져온 스탠드를 켜다.

취침: 10시 40분에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간다. 취침 후에 씻는 건 안 된다.

백사리: 10시후 묵언 방밖에 나가선 안됨

-입소시간: 평일에는 9시까지 주말에는 7시 30분까지 이다.(늦을 것 같으면 미리강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거나 전화를 한다)

4) 기타 규칙

도서관에 음식물 반입금지

도서관에서는 정숙

3.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규칙

1) 1학년 학생들 설문

[설문지]

안녕하세요 3학년 김단아입니다

저는 이번 논문 주제인 '학교 규칙 만화 만들기' 때문에 설문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

1.처음 학교에 들어왔을때 헛갈렸거나 몰랐던 규칙이 있었나요?

①네 (18명)

②아니요 (0명)

③기타 (0명)

2.규칙을 모르고 실수로 어겼던 적이 있나요?

①네 (11명)

②아니요 (6명)

③기타 (0명)

-무응답 (1명)

2-1 있었으면 무슨 규칙이었나요?

모른다, 전산실 규칙(목학때 개인사용 금지 등), 휴대폰, 필싸 늦게 쓰면 사과,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숙사에 일반음식을 가져온것, 기숙사 규칙(목학, 취침 등)

2-2 규칙을 어겼다는 걸 어떻게 아셨었나요?

같은 방 사람들이 알려줌, 전산실 장학생이 알려줌, 가족회의에 올라가서, 혼나서, 벌칙수행으로, 친구나 선배가 알려줬다. 법무부 장관이 말해줘서, 고발, 쌤이 알려줌

3.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가는 규칙이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규칙이 있나요?

규칙을 잘 몰라서 무슨 규칙이 있는지 정확히 모름, 매점(라면) 필싸하는 것, 매점 금지, 모르겠다, 아이팟이나 갤럭시플레이어 등을 허락한것

3-1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게임도 되고 WIFI 잡히면 전화도 되는 기능들때문에, 주말에 덕산나가서 다 사먹는데 왜 여기서 먹으면 안되는건지, 별 다른 의미도 없고 몸에 안좋다고 말해주기 보단 그냥 벌칙에 불과하다, 전부다 있어도 될듯하다, 불필요해서,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

2) 법무부 인터뷰

[인터뷰 질문]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겼던 규칙은?

1-1. 왜 그런 것 같나요

2. 사람들이(신입생들이)많이 헛갈려 했거나 몰랐던 규칙은?

2-1. 왜 그런 것 같나요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7.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는 규칙이 있다면?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김소아(5학년)-법무부 장관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겼던 규칙은?

라면, 매점 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라면을 먹어서 매점별칙을 적용한 사례가 많아. 올해는 유독 식당털이, 매점, 라면 같은 먹거리 관련 규칙을 어긴 사람이 많은 듯해. 일반식품을 금지한 게 영향이 큰 것 같다. 학생회나 쌤들도 학생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들 일반식품 맛에서 벗어나기 힘든가보다.(웃음)

1-1. 왜 그런 것 같나요?

남자는 예전부터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라면을 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많이 무더진 것 같아. 반면에 여자 기숙사에선 올해 유독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저번 기숙사 회의에서 선배들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유혹에 많이 넘어갔던 것 같으면서도 고학년들이 많이 반성하기도 했지. 일반식품 반입을 금지하면서 치킨도 못 먹는데 간담회는 해야겠고. 그래서 저렴하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라면을 많이 먹게 된 게 아닐까 싶어. 사실 이걸 먹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나도 궁금해.

2. 사람들이(신입생들이)많이 헛갈려 하거나 몰랐던 규칙은?

일반식품의 범위? 법무부 하면서 힘들었던 건 뽕튀기나 밖에서 사온 떡볶이, 일반제과점 빵 같은걸 들고 와서 "언니 이걸 먹어도 돼?" 하며 매번 물어보는 것이었어. 일반식품의 범위에 대해서 가족끼리 얘기해본 적도 없고 사람마다 기준도 달라서 정하기 힘든 부분이라 쌤들도 학생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 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스스로 별칙을 처리하지 않고, 법무부에 의존하는 것. 법무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인데, 점점 바쁜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별칙을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던라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단 생각해. 그리고 나는 고학년이라 덜한데 부원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 아무래도 법무부는 쓴 소리도 해야 되고 끈대 같은 면도 있어야 하니 친구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 역으로 놀리거나 후배 법무부원 곤란하게 만드는 농담들. 간혹 '짹새'라고 불리거나 별칙을 받게끔 유도한다는 식의 오해는 정말 힘들게 해. 솔직히 우리가 일을 뭐하러 벌리겠니(웃음).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20분 정도 고민했는데, 없는 것 같아. 사고뭉치 법무부원들이 조금씩 제 나름대로 라면도 줄이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때가 기특하고 보람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위 시선 때문이라도 규칙을 꼭꼭 지키게 돼. 멋있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려나.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고등학생회장이 부탁해서. 그게 다야.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규칙을 꼭 지키게 되었어. 그리고 좀 피곤하게 살게 되는 것 같다. 기숙사에서 라면봉지나 쪽지접기한 일반과자봉지 같은거 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먹더라도 쓰레기 처리 잘하고 고백하고 깔끔하게 벌칙 처리했으면 좋겠어.

7. 왜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규칙이 있다면?

글쎄, 다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일반식품 범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절제하게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되고, 억울하게 벌칙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딱히(웃음). 근데 내가 방문열고 들어갔을 때, 과자봉지 숨기면서 모른 척 할 때 웬지 서러워. 나도 그냥 어울려 놀고 싶은데 겨우 규칙 어겼다고 나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차민경(2학년)

1.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어겼던 규칙은?

매점, 기숙사에서 일반음식 먹는 것.

1-1. 왜 그런 것 같나요?

아침, 점심, 저녁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기숙사에서도 간식이 배가 안차니까 먹는 거고.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규칙을 어긴 걸 봤을 때 참 애매모호한 감정을 느끼는데. 잡으려니 미안하고, 안 잡으려니 법무부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때 좀 힘들어.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규칙을 더 잘 지키는 듯.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사실 처음에는 법무부가 벌칙 처리하고 하는 것이 재밌어보였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들어감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규칙을 작년보다 더 잘 지키고, 책임감이란 것이 생김

7. 왜 있는건지 이해가 잘 되는 규칙이 있다면?

딱히 없는 것 같다.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

그냥 학생회로서 있는거?

유준상(5학년)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졌던 규칙은?

매점

1-1. 왜 그런 것 같나요

가장 쉽게 일반음식을 먹거나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2. 사람들이(신입생들이)많이 헛갈려 했거나 몰랐던 규칙은?

유심칩 뺀 휴대폰도 안 된다는 거

2-1. 왜그런것 같나요

-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벌칙처리 할 때 애들이 말 잘 안듣는 거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없어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매점이나 라면 등등 안 먹으면서 용돈 아끼려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고 안칠 것 같아서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확실히 규칙 더 잘 지키게 됐어

7.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는 규칙이 있다면?

다들 스마트 기기 다 똑같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엔 스마트 기기가 허용됐을때는 전교에서 2~3명밖에 안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mp3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다들 갖고다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

작년에 친한 선배끼리 있어서 수다도 떨고 재밌었어

김성혁(4학년)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졌던 규칙은?

음주

1-1. 왜 그런 것 같나요

기념일 같은 때 축하하는 의미 정도로 먹는 듯

2. 사람들이(신입생들이)많이 헛갈려 했거나 몰랐던 규칙은?

X

2-1. 왜 그런 것 같나요

X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선배들(특히 고등부) 벌칙수행 할 때 말잘 안 들었어 그래도 요즘엔 잘 들어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내가 생각해도 중등부 때 규칙을 너무 많이 어긴 것 같아서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가 생각해도 중등부 때 규칙을 너무 많이 어긴 것 같아서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규칙을 잘 지키게 된 거

7.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는 규칙이 있다면?

스마트 기기, 통화나 문자가 안되는 것 빼곤 기능이 핸드폰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

애들 벌칙먹이는 거, 통쾌해서 재밌어

남궁연(2학년)

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겼던 규칙은?

매점, 라면

1-1. 왜 그런 것 같나요

배고프니까

2. 사람들이(신입생들이)많이 헛갈려 했거나 몰랐던 규칙은?

일반음식의 범위

2-1. 왜 그런 것 같나요

X

3. 법무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

4. 법무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소속감

5. 법무부의 들어가게 된 계기

평소에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는 그만 사고 칠려고

6. 법무부에 들어간 후 자신의 변화는?

법무부니까 규칙어기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규칙을 덜 어기게 됐어

7.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는 규칙이 있다면?

X

8. 법무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

X

3) 생활교사, 동장 인터뷰

[인터뷰 질문]

1.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규칙은?

1-1. 왜 그런 것 같나요?

2. 기숙사에서 학생들이(신입생들이) 많이 헛갈려 하거나 잘 모르는 규칙은?

3. 기숙사이기 때문에 어겨지는 규칙이 있는 것 같나요?

4. 사소하게 생각해서 많이 어겨지고 지나치기 일수인 규칙이 있나요?

5.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생활교사 쌤 한테도)

문서경(3학년)-여자동장

1.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규칙은?

사제간식?

1-1. 왜 그런 것 같나요?

본능이라서?

2. 기숙사에서 학생들이(신입생들이) 많이 헛갈려 하거나 잘 모르는 규칙은?

잘 모르겠어...

3. 기숙사 이기 때문에 어겨지는 규칙이 있는 것 같나요?

딱히

4. 사소하게 생각해서 많이 어겨지고 지나치기 일수인 규칙이 있나요?

사제간식이 아닐까? 워낙 기숙사에선 배고프기도 하고, 과자 몇 개 정도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니까
법무부가 없는 한 제일 안 지켜지는 것 같아

5.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생활교사 쌤 한테도)

딱히.. 나도 학생이니까ㅋㅋ

양성민(5학년)-남자동장

1.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규칙은?

라면, 취침

1-1. 왜 그런것 같나요?

라면을 배가 고파서 먹는데 라면 먹고 잠이 잘 안오잖아

2.기숙사에서 학생들이(신입생들이) 많이 헛갈려 하거나 잘 모르는 규칙은?

목욕이 뭔지 잘 몰라

3. 기숙사 이기 때문에 어겨지는 규칙이 있는것 같나요?

기상을 못해 그리고 생활면에서 많이 어겨지는 것 같아

4. 사소하게 생각해서 많이 어겨지고 지나치기 일수인 규칙이 있나요?

고등부가 기상, 취침 거의 알아서 한다는 수준이야 중등부도 비슷

5. 학생들에게 바라는점(생활교사 쌤 한테도)

학생들에겐..놀거나 그런건 상관없는데 규칙을 잘 지켜주면서 놀면 좋겠어(특히 고등부)

수진쌤에겐 기숙사가 학교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면 좋겠어요 기숙사는 기숙사 학교는 학교

[강미리] 여사감쌤

1.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규칙은?

눈에 띄게 크게 어기는 것은 없다. 그런데 회의때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시끄러운 것... 특히 취침 시간 이후에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이 나이지질 않는다.

1-1.왜 그런것 같나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 잠자기 싫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수다아닐까.. 재미도 있고.

2.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헛갈려 하는 규칙은?(특히 신입생들)

목욕시간 뭐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학년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하는 일..

3.기숙사이기 때문에(기숙사 환경 때문에,기숙사 장소 때문에)많이 어겨진다고 생각하는 규칙은?

배고프다는 이유로 먹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런 저런 것들을 먹는일, 규칙은 아니지만 늦은밤 까지도 떠드는 사람들..

3-1.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먹지 않는다고 들었다. 기숙사에만 오면 배가 고파지니..^^ 여러사람이 모이다 보니..

되려 집에서는 좋은것들만 먹다 안좋은 먹거리를 학교 들어와서 먹었다는 아이들도 많다. 몰래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심심해서.. 재미로 수다방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다른것보다도 자는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이 가장 신경쓰인다. 잠은 보약같아서~ 잘 자야쥐..

4.학생들이 사소하게 생각해서 어겨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규칙은?

취침시작시간..취당이 힘들어한다. 제 시간에 방에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님.. 기상시간...그냥 시간맞춰 나가면되지.. 하는 것 같다. 기상송 끝나고 씻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걸보면..

5.학생들에게 바라는점

생각해보니 규칙이 많이 없다. 더 없애고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로 스스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일상을 꾸려가는 노력을 해보자~

[김수진] 남사감샘

1.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가장많이 어기는 규칙은?

라면, 사제음식, 밤매, 식당털이

1-1. 왜 그런것 같나요?

돈이 별로 없는데 맛난걸 먹고 싶으니까, 밤에 늘 배고프니까

2.기숙사에서 학생들이(신입생들이) 많이 헛갈려 하거나 잘 모르는 규칙은?

청소방법 선배들이 안하니까 후배들도 잘 안하는 것 같아 청당도 그래 (당번제도 자체가 잘 안됨)

3. 기숙사 이기 때문에 어겨지는 규칙이 있는것 같나요?

없는 것 같아

4. 사소하게 생각해서 많이 어겨지고 지나치기 일수인 규칙이 있나요?

맨 위에서 말한것처럼 먹는거 규칙과 취침, 청소, 기상

5. 학생들에게 바라는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되는데,, 좀 지켰으면 좋겠어
지킨다면 선후배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잘 지낼수 있을 것 같은데..

4. 만화(철컹철컹) 만들기

1) 캐릭터 디자인

-1학년



[유민아/여/1학년]

수줍음을 조금 타며 갓 들어온 새내기 티가 많이 난다. 살짝 덜렁이 기질,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닌다. 화를 잘 못내는 성격,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게 있으면 곧바로 물어본다.



[김현우/남/1학년]

말썽쟁이, 잘 까분다. '나댄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인 개구쟁이. 규칙을 알려줘 봤자 어차피 자기 맘대로 어기거나 할 거라서 소용없다. 키는 작지만 운동 쪽에 강해서 원숭이처럼 휙휙 날라 다닌다. 예전에 다쳐서 코에 났던 흉터를 가리기위해 밴드를 붙였다.

-법무부



[이다희/여/5학년/법무부]

법무부 장관으로써 책임감이 강하다. 엄마 같은 면모가 있고 남들을 잘 챙겨주는 성격, 하지만 공과 사는 구별하여 화가 나면 무섭다. 남하고 어울리길 좋아하고 수다를 잘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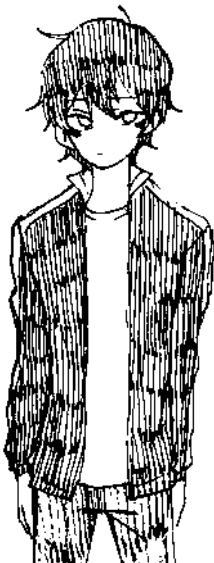
[한지연/여/4학년/법무부]

법무부면서 마술학교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왈가닥 기질이 있으며 약간의 폭력성을 보인다. 머리를 짧게 잘라서 남자로 착각 받은 경우도 있다. ‘여자 고릴라’로 불리기도 한다. 가끔씩 웃다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할 때가 있다. 뒷감당 같은 거 상관없이 쪽쪽 나가는 스타일.



[남현수/남/4학년/법무부]

매사에 별로 진지하지 않고 태평하다. 많이 긍정적, 예스맨, 헤실헤실 웃고 있다. 가끔씩 보면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헤실 거린다. 장난 끼가 있어서 가끔씩 장난을 칠 때도 있다.



[이민준/남/3학년/법무부]

귀차니즘의 결정체, 만사가 귀찮은 존재, 잠을 많이 자든 적게 자든 항상 눈 밑에 다크써클이 깔려있다. 남의 일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 까칠하다. 무슨 이유로 법무부에 들어온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법무부 일은 확실히 잘 해 나가고 있다.(하지만 다희한테 갈굼을 많이 받는다)

-그 외..



[미리강/여/사감쌤]

청각, 시각보다 후각이 월등하게 발달되신 쌤, 코 하나만으로 여자기숙사 안에서 라면과 치킨을 발견할 수 있다. 반짝이는 이마가 특징, 방으로 찾아가면 가끔씩 차를 주신다. 상담을 잘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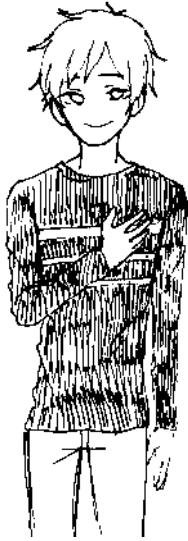
[수진쌤/남/사감쌤]

얼굴은 사근사근하게 생긴 곰아자씨 푸. 하지만 라면이나 매점 등등을 걸렸을 땐 푸의 얼굴에서 무서운 얼굴로 변한다. 꿀 배가 유독 눈에 띈다.



[한가온/남/전장]

능글거린다. 약간의 나르시시즘이 있고 멋있어 보이려고 별짓을 다한다. 컴퓨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정도로 컴퓨터 중독자. 전장이 되기 전 새컴(새벽 컴퓨터)전적도 있다.



[이승환/남/전장]

큰 키와 덩치에 비해 순하고 누구한테든 사근사근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빠 같다. 컴퓨터에 대해서 박식해서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나 청소도 잘한다. 이시대의 진정한 현모양처(?)

2) 글줄거리

-학교규칙

(음주)

민아가 현수에게 ‘마술학교’에 대해 물었다. 설명 해주기 귀찮았던 현수는 마술학교 이름이 이따 구나고 까다가 지나가던 마술학교 담당인 지연에게 일침을 당한 후 한대 맞고 옆에서 벌을 선다. 지연은 자신이 설명해주겠다며 민아에게 마술학교는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벌칙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준다(상황설명을 코믹하게 그린다). 민아는 설명을 듣고 마술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지연은 현수의 술 마셨을 때를 설명하려다가 현수가 도망친 걸 안다. 현수를 붙잡고 현수에게 ‘음주는 안돼요’를 손들고 3번 복창을 시키면서 만화가 끝난다.

(핸드폰, 전자기기)

현우는 핸드폰을 가져오고 싶었다. 그래서 가져오다 고발을 당해 1차 벌칙을 수행했다. 그렇게 30일의 보관기간을 가진 후 다시 가져온 현수는 기숙사에서 카톡을 하다 치약을 빌리러온 민준(법무부)에게 걸린다. 민준은 현수의 핸드폰을 수거하고 침대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없는 척 하고 핸드폰을 쓰던 가온(전장)까지 잡아낸다. 현우는 2차, 가온은 저번에도 저저번에도 가져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3차 벌칙을 받아야했다. 2차까지 당해 핸드폰을 60일 동안 맡겨진 현우는 정신을 차리고 mp3를 쓰지만 가온은 이번엔 태블릿 pc를 가져와서 쓰고 있다. 그리고 놀러온 친구에게 보여주다가 친구가 배신을 때려 고발을 당한다. 그렇게 가온은 가족회의에서 벌칙을 받게 된다.

(무단매점)

가족회의 고백의 시간, 이번에는 매점으로 인한 고백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걸 보고 있던 현우와 현우의 친구 진웅은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매점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면서 매점 한번 가볼까? 하는 농담도 치며 올라갔다. 그날 밤 기숙사 현우는 배고픔에 시달린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가 보지만 간식은 다 먹었고 오늘은 야식을 안 하고 유기농 과자도 없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던 현우는 결국 매점에 가버린다. 과자를 사먹고 행복한 표정으로 기숙사로 올라가던 현우는 결국 민준에게 걸린다. 그리고 벌칙수행을 하면서 현우는 왜 학생들이 매점을 많이 가는지 이유를 깨닫는다.

(라면, 일반음식)

평화로운 여자기숙사.. 그리고 그중 몇몇 방들은 라면이나 일반을 숨기고 있다. 그걸 찾아내려는 법무부

와 미리강.. 그들 만에 특별하고 은밀한 작전이 시작된다!..라는 영화 예고편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정작 시작에 비해 간단하게 간식통 라면 끓이는 법(간디IN 2014 여름호 이가원 삽화기자 참고)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엔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면 먹는 방이 걸렸음을 알게 된 일반음식 먹는 방은 과자들을 모아 놓고 절대 안 들리게 숨길 작전을 짰다 완벽한 작전이었지만 숨기기전에 법무부가 방에 들어와서 걸린다 (벌칙들은 둘 다 똑같음)

(식당털이)

한밤중,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면서 벌어지는 (간디한정)초특급 블록버스터, 평화로운 남자기숙사.. 그리고 203호는 지금 '식당에서 밥퍼오기 프로젝트' 일명 'BOB'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그렇게 방안에서 3명의 요원들이 선발되고 손전등을 들고 학교에 내려가 미션을 수행하기로 한다 사감쌤 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내려간 뒤 부식창고에서 밥과 먹을 것을 가져온다. 그렇게 한창 조심히 푸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손전등이 다가왔다. 다른 방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었다 두 팀은 서로 합심하여 밥을 푸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손전등이 오고 또 어떤 팀이 왔나 살펴보려했지만...그 손전등의 주인은 수진쌤 이었고 결국엔 모두 걸려서 벌칙을 받게 된다.

(무단외출외박)

평일 날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 덕산 으로 와서 충주로 갈려하는 민아와 희연, 둘에게는 유기농 샴푸가 없었기 때문이다.(일반 생활용품 반입이 안됨) 집 가는건 한창 축제준비로 못하고 차비도 없었고 빌리자니 눈치가 보여서 그냥 눈 딱 감고 다녀오기로 한다. 불안해하는 민아와 달리 괜찮다고 하는 희연, 둘은 버스를 타고 충주로 간 후 시내 버스를 탄다. 하지만 실수를 해서 이상한 데에 내려버렸고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한 살림을 찾았지만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사고 버스터미널로 왔지만 이미 막차는 떠났었다, 결국 둘은 울면서 쌤에게 전화를 해 가까스로 학교로 간다. 그리고 걱정한 법무부에게 외출외박2주 금지형을 받는다.

(자제품목)

법무부 장관인 이다희가 자제품목을 설명해준다. 우리학교는 히치하이킹을 자제한다, 이유는 커플들이 타면서 콩냥콩냥 하는 걸 운전자 분께서 보고 눈꼴 시려 하실까봐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헤드 셋이나 이어폰을 자제 한다. 커플들이 한쪽씩 끼면서 음악이나 듣고 다니면 눈꼴 시렵잖아 그리고 우리학교는 커플들의 애정행각이 자제다. 라면서 애정행각을 강조하며 말한다.

-전산실

(컴퓨터 사용시간)

전장인 가온은 손에 깍지를 끼고 사장님처럼 진지하게 전산실 사용시간을 말한다. “사용시간은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이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이후에는 공적사용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할 경우에는 나한테 죽....가족회의에 올라간다. “ 라는 걸 말한 후 갑자기 현우가 끼어들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지 물어보나 가온의 대답은 간단하게 “간지나잖나“ 라고 한다.

(공적사유시간에 개인적인 걸 할)

모두가 조용해지는 묵학 시간 전산실.. 갑자기 문을 열면서 “이제 개인검사 들어갑니다~” 하며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가온과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승환, 그 소리에 움찔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설렁설렁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있는 승환과 달리 깐죽거려서 한 대 치고 싶은 가온이는 남들 뭐하나 모니터 살펴보고 개인들을 쑥쑥 골라내고 있고 금방 삭제한 창이라도 방문기록을 뒤져서 발견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2주 금지를 먹는 사람들이 골라져가는 그런 묵학 이었다.

(스캔만화, 텍본 소설다운, 관람 금지)

승환은 전산실에서 인터넷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받고 있는 민아와 스캔만화를 보며 웃고 있는 현우를 본다. 승환은 사근사근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둘 다 신입생이고 규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지를 먹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뒤에서 가온이 와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며 고함을 쳤다. 승환과 민아, 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알았다며 보고 있던 것이나 다운받고 있었던 것을 껴다. 가온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칭찬해 주었지만 승환은 자신이 저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건지 생각해보며 한숨을 쉬었다.

(각종 음식물 반입 금지)

현우는 음식물을 들고 전산실에 들어가다가 가온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몰랐었던 현우는 미안하다며 반에 음식물을 갖다놓으려 한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는다. 누군가가 사과즙을 들고 먹다가 키보드에 쏟아버린 것이다. 모두가 그걸 보고 있다가 가온에 비명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다. 결국 그 흘린 사람은 가온에게 호되게 혼나고 수리비로 2만원을 내야 했다.

(게임 금지, 토렌트, p2p 사용 금지)

늦은 밤 다시 한 번 손전등 워리어 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밥을 푸기도, 매점에 가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도 아닌. 새컴, 즉 새벽컴퓨터를 하러 온 것이다. 그리곤 순서를 설명해준다. 먼저 조심히 학교 현관문을 연다. 그리고 전산실에 곧장 들어간다. 그다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아는 녀석에게 암호풀기를 부탁한다. 게임을 토렌트나 다운하는 사이트 같은 걸로 다운받는다. 그리곤 즐겁게 게임을 한다. 마지막으로 내려오신 수진쌤에게 걸린다. 그리고 전산실 한달 금지를 받는다. 추가+)낮에도 몰래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장들은 웹게임과 소셜게임, 네이버 생활의 게임, 점심 먹고 노라라 등에 올라와있는 플래시 게임도 물론 포함. 지뢰 찾기 등 윈도우 게임도 안 되니까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옆에서 ‘방관’한 사람도 함께 전산실 사용을 일주일간 금지하고 전산실에서 퇴실시킵니다.)

-기숙사

(기상)

시계가 7시를 가리킨다. 기상인 방문을 벌컥 열면서 사람들을 깨운다. 현우는 비몽사몽 하게 일어났지만 언니들은 기당이 나가자마자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기 바쁘다. 현우가 목욕용품을 가지고 씻고 방으로 들어오니 벌써 20분이라는 기당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형이 이불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30분에 현우가 나갈 때도 아직 자고 있는 형이 있었다.

(퇴소)

7시 30분 현우는 준비를 다하고 1층으로 내려와 기당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자랑을 하는 친구와 함께 학교로 내려간다. 그리고 40분 퇴당의 외침이 들려오고 슬슬 나가는 사람들과 아직까지 꾸물텅 대거나 씻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8시, 퇴소 시간이 다되고 퇴당의 ‘퇴소하세요-!’ 라는 외침이 들려오자 2층과 1층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떼를 지어 급하게 나간다. 퇴당은 불같이 화를 내며 빨리 나가라고 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8시 20분 퇴당이나 사감쌤 들도 모두 학교로 내려갔을 때, 태평하게 시간을 체크하고 나오면서 슬슬 내려가는 고등부들이 있었다.

(간식)

간식통에 대한 설명과 간식통을 씻는 곳 간식통을 내야되는 시간을 알려준다. 재미로 간식통을 내는 사람들의 유형도 알려준다..

(묵학)

민아가 나와 묵학시간에 대해 설명과 뭘 해야 하는지 묵학시간에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묵학때 떠들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청소)

9시, 묵학이 끝나고 청당이 청소를 하라면서 방마다 문을 열고 자는 사람은 깨우면서 알림을 한다. 하나 둘씩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 오늘은 쓸기만 해도 된다면 신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일 걸레도 같이 해야 된다면 힘들다는 사람도 있었고 졸려서 청소를 멎 때리며 하는 사람도 있었다. 청당에게 검사를 맡은 후엔 자유시간 이므로 회의를 가거나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등 이 있었다.

(소등)

10시 취당의 ‘소등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방들이 하나하나씩 불을 끄고 스탠드를 키는 장면을 4 컷으로 표현한다.

(취침)

10시 45분 취당이 방으로 돌아가라고 알림을 한다. 방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가끔씩 이불속으로 숨어버 리는 사람이 있지만 금방 취당에게 들켜서 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취침 전에 씻지 않아서 취당한테 들키 지 않게 몰래 씻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바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간담회를 하는 사람들(일반음 식) 등이 있다.

(입소시간)

입소시간은 각각 정해져 있다, 평일은 9시 까지고, 주말은 7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점이나 새컴은 새벽 5시까지로 상황별로 나뉘어진다.

(백사리들-여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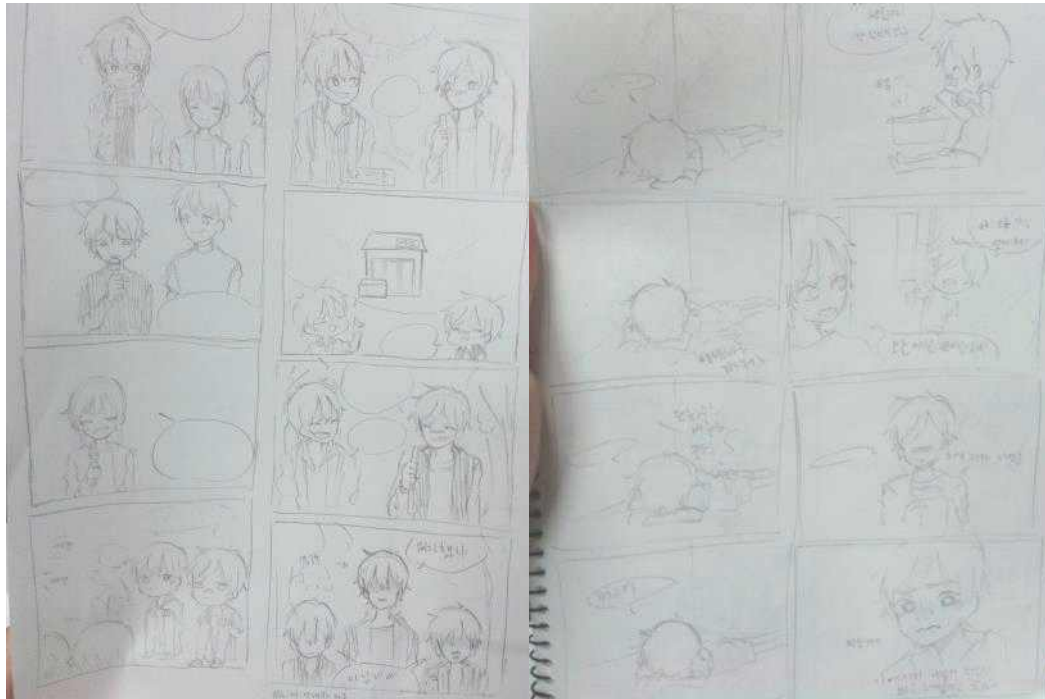
위에 만화에서와 같이 당번에 말을 잘 안 듣거나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당번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백사리를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백사리를 받은 사람들을 그에 맞게 책임 수행을 해야한다.

우선 기상과 퇴소 백사리: 50분에 기당이 깨우면서 상쾌한 아침이 아닌 캄캄한 아침을 맞는 백사리들 피곤하고 몽롱하고 부스스한 상태로 새벽이라 추워서 벌벌 떨며 학교를 간다.

묵학 백사리: 묵학 때 벌칙자들 끼리 모여서 미리강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벌칙자들 끼리 책을 읽고 독 후감을 1장이나 2장정도 쓴다. 뭔가 되게 화목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청소 백사리: 미리강방.. 미리강과 청당들이 벌칙자들의 벌칙을 정한다. 2명중 1명의 청당은 이게 어떻 겠냐면서 벌칙 아이디어를 낸다. 다음날, 기숙사에 있는 거대한 무지개 신발장은 벌칙자들이 힘들게 청소 를 하고 있다.

3) 콘티



콘티는 만화를 그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작화와 연출을 미리 그려⁴⁾ 놓은 것 이다. 열게 그리고 대충 휘갈기는 콘티가 기본적으로 많지만 나는 다른 종이에다가 옮겨서 그릴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리되 나름의 형태나 말풍선의 위치정도는 알아볼수 있게 그렸다.

4) 만화 그리기



4) [네이버 지식백과] 콘티 [conti, 네ーム(コンテ)]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12.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4용지에다가 연필로 다시 그린 후에 펜으로 깔끔하게 그려서 스캔한다. 여기서 펜선을 따는데는 정말 중요하다. 순간의 실수라도 했다면 전체를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이다. 펜은 얇고 잘 번지지 않는 것을 쓰는 것이 좋다.

5) 편집프로그램

1. 배경



마지막으로 편집 프로그램(포토스케이프)를 써서 연필자국 같은 것을 지우거나 밝기를 낮추고 보정을 하고 대사를 입력시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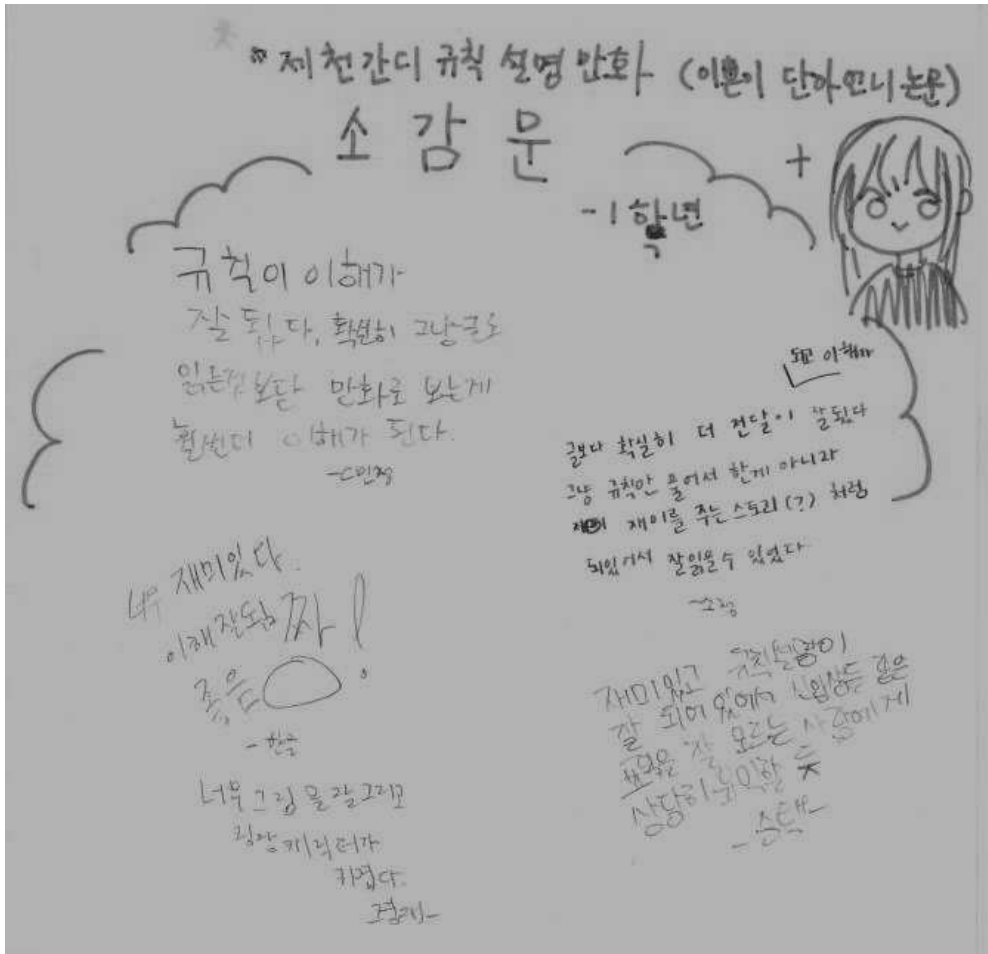


6) 인쇄소 방문, 인쇄, 제본

그 후 제본소로 찾아가 제본을 한 뒤 완성을 시킨다 제본소로는 건국대학교에 있는 조그마한 제본소를 찾아갔다.

5. 평가 및 반응

1) 학교 사람들



▲이런형식으로 평가를 받았다.

받은 사람들: 1학년, 2학년, 3학년, 쌤들

1학년

- 규칙이 이해가 잘됐다 확실히 그냥 글로 읽는 것 보단 만화로 보는게 훨씬 더 이해가 된다.
- 글보다 확실히 더 전달이 잘되고 이해가 잘됐다. 그냥 규칙만 풀어서 한게 아니라 재미를 줘서 잘 읽을 수 있었다.
- 너무 재미있다. 이해가 잘된다. 짱!
- 그림을 잘그리고 캐릭터가 귀엽다.
- 재미있고 규칙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신입생들 같은 교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할 듯

2학년

- 흐릿하고 누가누군지 모르겠다. 내용으로 뭘 전달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 너무 흐릿해서 잘 안보이고 캐릭터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인지 모르겠다. 수진쌤만 알아보겠다. 그래도 그림은 잘그렸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3학년

-만화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규칙을 잘 알고 체험한 나로서는 규칙을 잘 설명해 놓았다고 느꼈고, 남, 녀 기숙사 모두의 문화를 잘 담아낸 듯 하였다. 평소에 만화를 그리면 즐거워하던 단아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규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염려가 되었고, 캐릭터와 채색면(흑백)이 아쉽지않았나 하다 규칙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놓았으면 좋았을 듯 하다 재미있었던 만화이다.

-재밌는 만화 잘 봤습니다 재미와 규칙 설명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하지만 작은 글씨와 흐릿한 그림, 규칙설명중 갑자기 튀어나와 흐름을 끊는 개그썸 등은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씨가 작고 중간중간 학교에서 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 내용이 나와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구분이 안가요

쌤

-인쇄가 너무 흐릿해서 보기 어렵고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됨, 캐릭터가 다들 비슷함, 만화 읽는 방향을 잘 모르겠다.

-안쇄 너무 흐려요, 만화 컷 별 순서 적혀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화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에요

-인쇄가 흐렸지만 내용이 알차고 중간중간 재밌는 대사들이 워트 넘쳤음 학생들 입장에서 공감가게 잘 그린 것 같았음, 나 완전 배꼽잡고 봤는데!

-인쇄가 아쉽지만 내용이 학교에 잘 맞다고 생각함

총평

-인쇄가 아쉽고 캐릭터들이 구별이 잘 안됐던것같다. 제천간디학교 분위기나 문화를 잘 담아낸 듯 해서 제천간디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할수 있을꺼라고 했다. 그래도 만화는 확실히 재밌었다고 했다.

2) 외부 사람들

-이은홍 선생님

만화가 중간쯤 완성되었을 때 예전에 학교에서 '만화이야기' 라는 수업을 했던 은홍쌤을 찾아갔다. 은홍쌤은 내 만화를 보시고 나선 만화의 내용같은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만화를 그리는 방식을 지적하셨다. 내 만화는 손으로 직접 선을 따니까 잔선이 많아 깔끔하지 않은데 칸 까지 내 멋대로 그려버리니 만화가 더 깔끔하지 않아보인다 라고 하시면서 은홍쌤이 직접 칸을 그려서 주셨다. 이미 중간까지 스케치를 그려놨었지만 나머지 스케치들은 여기다 했다.

6. 제작일지

8월 12일: 일지를 적어논 전자기기가 고장나서 전에있던 일지들이 날라가 버렸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은 인터뷰 다 끝내고 만화학원 다닌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1주정도 남았나..? 맨날 충주에서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니까 힘들다 아침 10시에 차타고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좋지만, 어쨌든 개학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빨리 캐릭터라도 짜놓는게 좋을 듯하다.

8월 19일: 오늘 만화학원을 갔다오면서 주변에있던 도서관에서 만화캐릭터의 대한 책을 읽어 보았다. 학원에서 가르친거랑 조금 달라서 헛갈렸다. 요즘 학원에서 인체를 배우는데 빨리 배워서 캐릭터 하나라도 짜고 싶다.

8월 23일: 내일은 개학, 이태까지 한 것을 총 합하여 보자면... 인터뷰 다한 것? 학원을 간 것? 아니면 캐릭터 하나 짠 것? 음... 진짜 만화학원 간 것 밖에 없다.

8월 28일: 슬슬 캐릭터 들을 짜기 시작했다. 망했다. 방학동안 하나도 안해놓다니 난 정말 멍청이다. 게다가 캐릭터들을 내가 개성 있게 그려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가보다.. 현재 법무부와 1학년들을 짰다. 앞으로 동장, 전장, 사감쌤이 남았다.

9월 2일: 생각해 보니 옷에 개성이 없길래 진짜 옷들을 찾아보고자 인터넷에서 옷을 검색해서 각 종류별의 옷을 그렸다. 근데 애들말로는 우리하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옷 입는 패셔니스타는 없다고 몸빼나 그리랜다ㅋㅋㅋㅋ 잘못했어요...!!

9월 5일: 오늘 드디어 사감쌤과 전장을 그렸다!! 수진쌤 보고 다들 웃어서 내가 잘못그린건지 아닌것지 생각했다ㅋㅋㅋ

9월 10일: 전자기기가 다시한번 고장나서 A/S를 다시 맡겼다. 또 한번의 일지가 날라갔다. 앞으로 여기가 안적어야지

9월 12일: 슬슬 이제 발표도 한달 정도 남았으니 콘티라도 짜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렸다. 음주 규칙으로 4장이 나왔다. 이런식이라면 1차 때까지 못할지도..? 아니야 좋은생각만 하자

9월 18일: 캐릭터에 익숙해지기 위해 캐릭터 연습을 조금 했다. 그나마 이성은 바쁘다고 하는데 본능이 너무 여유롭다. 맨날 기숙사에서 그려야지~ 이러면 다시 자고 다음날 그려야지~ 이러면 또 다시자고 이러다 일지도 잘 안 쓰게 될지도

9월 20일: 오늘 내 생일! 놀았다! 미안하다!

9월 31일: 일지 너무 안쓴 것 같다. 작품이나 노는데 신경쓰다보니 그만... 이제 발표도 얼마 안남았네 빨리 하자 허위업 허위업! 수자쌤이 콘티 그리지 말고 먼저 글로 줄거리를 다 써오란다. 아직 4개 밖에 안했는데.. 언제 그리지.. 민혜쌤이 나보고 이제 달리지 말고 달려야 할때라고 했다

10월 5일: 글줄거리 지금 진행중, 아마도 나는 2차 확정인 것 같다. 만화 언제 다그려... 다다음주가 발폰데.. 집에 가면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솔직히 집은 논문 쓸 때 최적의 환경인데 왜이러는지 모르겠다 젠장

10 10일: 아 긴장된다 아 떨린다. 글줄거리 거의 다썼다! 일단 2차는 해야지 진짜 2차 안하면 뭔가 부끄러울 것 같다. 엄마 아빠 얼굴보기도 좀 그렇고... 2차때 만화 다그려야지 아..

10월 13일: 날짜는 10월 15일로 잡혔다. 순서는 두 번째 으으으 떨린다. 저번주나 이번주 동안 12시까지 다들 열심히 하면서 논문을 완성해갔다, 물론 민혜쌤과 상현쌤도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야식도 챙겨주시고 너무 고마웠다, ppt 아직 손볼데 좀 있는 것 같은데 발표때까지 한번 고쳐봐야 겠다, 대본이나 요약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막 썼다. 대본 연습 열심히 해야지!

10월 15일: 드디어 발표가 끝났다. 솔직히 쌤들 다 무섭게만 질문할 것 같아서 질문시간에 무지 긴장했는데 의외로 안무섭고 오히려 내 답변이 웃겼는지 많이 웃어줘서 긴장 안하고 질문 대답 잘 한 것 같다. 오늘 수고했다! 일단 좀 자자

10월 22일: A4용지 집에서 훑쳐서 다니면서 그리고 있다. 논문 발표 끝났다고 풀어졌나? 일주일동안 콘티 몇 개 그리고....한게 없으니까 쓸 일지도 없어진다. 풀어진다면 안돼 2차는 해야지

우리가족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간디인들과 나누기
-가족을 보다-

지도교사: 김윤하



이름: 김민석

한마디:
원래 논문집은 프로필 보는 게 꿀잼이지만 난 쓸 말이 없다.

하지만 탈 말은 있단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가족이란
 - 1) 가족의 사전적 정의
 - 2) 가족의 형태
 - 3) 나에게 가족이란
2. 나의 가족 이야기
 - 1) 가족소개
 - (1) 식구소개, 우리가족의 정보
 - (2) 우리가족의 역사
 - (3) 우리가족의 일상모습
 - 2) 내가 정리해보는 우리가족
 - (1) 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 (2) 부모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 (3) 나와 부모님의 관계
 - (4)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가족
 - (5) 내가 정리한 우리가족
 - 3) 우리가족의 문제
 - (1) 내가 생각하는 가족문제
 - (2)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족문제
 - 4) 풀어가는 과정
 - (1) 문제의 원인
3. 다큐멘터리제작
 - 1) 제작 계획
 - 2) 콘티(continuity)
 - 3) 영화의 주제와 의미

부록

1. 콘티(continuity)
2. 제작일지
3. 가족들의 평가, 정리
4. 간디인의 영화 평가
5. 외부인의 영화 평가(삼간디 영상제)
6. 감사한 분들

III. 결론

1. 문제의 해결점
(문제에 대한 가족들 의 생각)
2. 논문을 통해 공부한 가족이란
3. 논문을 마치며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학년 겨울방학 때 심리치료 상담을 다녔다. 상담을 다니면서 나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아무 문제없이 좋은 관계일 것 같던 나와 내 부모님의 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 나의 가족에 대해 생각과 고민을 해보니 가족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미디어매체, 책, 등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것은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미지인데 진짜 현실에서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내면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족의 갈등을 풀어보면서 고민해보고 우리가족을 한 번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나의 가족에 대한 문제를 나의 얘기, 부모님의 얘기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고 우리가족을 돌아본다. 그리고 우리가족을 보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이런 내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간디인들과 나눈다. 그러면서 간디인들이 자신의 가족을 한 번 짚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품논문이다.

(1) 촬영

영화를 만들기 위해 방학 동안 우리 집을 촬영했다.

(2) 취재 및 인터뷰

영화와 본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엄마 아빠를 인터뷰 했다.

(3) 참고영상 (년도 순)

1. 영화 '사복, 먼지를 묻다(2002)' 감독: 이미영
2. 영화 '가족의 나라(2012)' 감독: 양영희
3. 영화 '그리고 싶은 것(2012)' 감독: 권효
4. 영화 '마이플레이스(2013)' 감독: 박문칠
5.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2014)' 감독: 이길보라

(4) 기타

우리가족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나를 돌아보는 글과 우리가족을 돌아보는 글들을 썼다.

II. 본론

1. 가족이란

1) 가족의 사전적 정의

가족(家. 집 가. 族. 겨레 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¹⁾

여기서 혈연관계는 부모-자녀관계를 말하고 인연(姻緣)관계는 부부관계를, 입양은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경우에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인 자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다.²⁾

2) 가족의 형태

가족은 혈연관계, 인연관계를 떠나서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다. 우리학교도 같이 사니까 서로를 가족들이라고 부르고 가족회의도 하지 않나? 그리고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도 차승원씨가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차승원씨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면서 그 아이를 여느 친자식을 가진 부모들과 똑같이 애듯하게 키우고 있다. 또 차승원 씨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³⁾ 이렇듯 가족의 형태는 어떤 틀이나 답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피가 달라도 입양한 아이는 내 아이인 것이고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도 내 아이인 거다. 내 형제가 사실 배다른 형제였어도 형제인 것이고. 가족이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매일 보고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의 형태는 무한한 것 같다.

꼭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또 함께 산다는 것도 꼭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해서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방도 좋아하면 말이다.

3)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이란 말은 참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딱딱하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어디 가문, 어디 성씨 이렇게 나누는 게 내가 보기엔 웃기다. 그냥 나에게 가족이란 것은 그게 누구든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면 함께 살든 안 살든 인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따뜻하고 애뜻한 느낌이어서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게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나의 가족 이야기

1) 가족소개

(1) 식구소개, 우리가족의 정보

우리가족의 구성원은 나. 엄마. 아빠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져 있다. 엄마 아빠는 결혼 한지 20주년이 됐고 현재 우리가족은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 있다.

나는 1999년 4월14일 인천 주안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제천간디학교를 다니고 있다.

엄마는 1970년 5월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글쓰기 교사를 하고 있어서 매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있고 최근엔 인천여성회(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해서 책모임, 반찬가게, 여성회 회의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엄마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주말엔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서 티비를 보다가 잠드는 걸 즐긴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오면 잘 기억해뒀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레시피를 생각해서 만들어주기도 한다.

아빠는 1968년 음력 2월4일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다. 아빠는 불교출판사 '장경각'이라는 곳에서 김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다. 아빠는 출판사에 다니지만 책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가족」인용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4000>

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족 [families, 家族]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278&cid=46635&categoryId=46635>

3) 출처: 네이버 뉴스, 「'한밤' 차승원 "마음으로 낳은 아들, 더욱 사랑할 것"」참고

http://star.mk.co.kr/v2/view_arts.php?no=1294015&year=2014

데 그 중에선 어떤 유명한 스님의(성철스님) 100주년 기념 행사도 기획, 진행하기도 했다. 아빠는 불교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의 절을 다니기도 하고 스님들도 자주 만난다. 아빠는 밀리터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군복, 비비탄총, 밀리터리 잡지(플래툰), 전쟁영화 등 밀리터리와 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수집해놨고 지금도 수집 중이다. 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엔 서바이벌 게임도 자주 다녔다. 아빠는 인천 서바이벌 팀 '신의군'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은 해체됐지만 네이비썰⁴⁾팀에서 알파식스 역할을 했었다. 지금은 위스키에 빠져서 위스키 관련 책을 보면서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

(2) 우리가족의 역사

이 목차는 엄마 아빠의 결혼을 시작으로 이사, 출산, 나의 학교 입학, 가족구성원의 사고 등 우리가족의 겪고 우리가족에게 영향을 줬던 굵직한 사건들을 년도 별로 정리한 것이다.

1994년 12월 17일. 엄마 아빠 결혼. 친가 집에 들어가서 산다.

1996년 여름. 친가 집과 분가. 주안 5동으로 이사.

1998년 여름. 엄마, 김민석을 임신한다.

1999년 4월 14일. 김민석이 탄생한다.

1999년 여름. 현재 부천 집으로 이사.

2003년. 김민석 유치원 입학. YMCA 아기 스포츠단.

2006년. 김민석 초등학교 입학. 초등대안 열음학교.

2006년 봄. 외할머니 교통사고.

2009년. 외할머니 풍으로 쓰러지신다.

2010년 여름. 외할머니 돌아가신다.

2012년 2월 26일. 김민석 제천간디학교 입학

2013년 봄. 아빠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경상남도 진주에 간다.⁵⁾

2014년 12월 7일. 김민석 이모 결혼.

(3) 우리가족의 일상모습

우리가족의 일상모습은 평범하다. 방학 때나 가정학습 때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그럼 아침 일찍 아빠가 먼저 출근을 하고 엄마는 날마다 다르지만 주로 오전 즈음에 출근을 한다. 그리고 아빠가 먼저 퇴근을 하면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8시나 9시 즈음 엄마가 퇴근한다. 매일 이러지는 않지만 주로 우리 집의 패턴이다. 세 식구가 다 집에 있으면 함께 T.V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무언가를 많이 본다. 그리고 음식을 해서 먹고 가끔 이모를 집에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논다.

4) 네이비썰.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

5) 본문 중 '부모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아빠의 어린 시절' 참고.

엄마는 주로 아침에 빨래나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을 하고 나의 밥을 챙겨주고 일을 나간다.

아빠는 너무 일찍 나가서 잘 모른다. 내가 눈을 뜨면 집에 아무도 없든가 엄마만 있다.

우리가족이 특별하게 하는 건 없다. 정말 평범하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T.V를 본다. T.V를 좋은 걸로 바꿔서 요즘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틀에 박혀있지도 누군가가 집을 끌고 가지도 않는다.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하고 외식하고 싶으면 나가서 먹고 틀에 박힌 것 없이 자유롭다.

2) 내가 정리해보는 우리가족

앞에서 대략의 우리가족을 소개 했다면 이번 목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족의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나의 논문의 목적은 우리가족의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 안엔 꼭 가족의 문제만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족의 과거 문제,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어린 시절, 우리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우리가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가 만들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논문의 목적에 있었으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풀어보는 과정은 논문을 떠나서 우리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목차를 쓰기 위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엄마 아빠 인터뷰, 가족간담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1) 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나의 가족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옛날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의 옛날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고 정리해야 지금의 문제도 보이고 당당히 마주 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지금의 문제는 예전의 문제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왔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어린 시절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다. 이 글은 오로지 나의 기억으로만 썼다.

어렸을 때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외할머니다. 왜냐면 그 당시(지금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 둘다 맞벌이여서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보살펴줬다. 할머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날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였다. 밥도 할머니가 챙겨주고,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일 나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주셨다.

소중한 존재였던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와 단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때 난 할머니가 집에 없으면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6살쯤이었던 것 같다. 할머니와 집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만화영화를 보던 사이 할머니가 없어 진거다, 깜짝 놀란 난 할머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때 얼마나 놀랐으면 옷도 거꾸로 입었다. 할머니는 금방 찾았다. 아파트를 나가자마자 앞 장터에서 할머니를 찾았다. 그때 난 말없이 사라진 할머니에게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어디 갔었냐면서 막 화를 냈다. 근데 할머니는 옷도 거꾸로 입고 나온 날 보고 엄청 웃었다. 찢든 난 할머니가 없으면 많이 불안해했다.

난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다. 또 편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화도 자주 내고 어리광도 많이 부렸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다 받아주고 예뻐했다. 또 할머니에게 많이 의존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날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할머니는 많이 늙었고 힘도 없었다. 그래서 나까지 지키기엔 무리가 있어보였다.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있어도 난 불안했다. 지켜줄 사람이 없었니까. 어쩌면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때 난 어려서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컸다.

그렇게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날 돌봐주셨다. 난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로 다녔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멀었다. 그래서 등교할 땐 엄마가 차를 태워주고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나와 같이 집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1학년 때 할머니는 교통사고가 났다. 그 일로 난 혼자 학교를 다니고 집에 혼자 있게 됐다.

처음 할머니 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같은 동네에 사는 형과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근데 그 형이 버스 벨을 안 눌러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고 모르는 곳으로 갔다. 난 너무 놀라서 버스 안에서 엉엉 울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내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걸어서 집에 왔다.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했다. 그러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다시 왔다. 할머니와 집에선 같이 있었지만 등, 하교는 나 스스로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풍으로 쓰러졌다.

그 뒤로 난 계속 혼자였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많이 힘들었다. 매일 같이 지냈던 사람이 없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슬펐다. 처음으로 혼자 있으니 겁도 나고 불안했다. 방치된 기분이었다. 그때 많이 힘들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 엄마 아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도움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 그렇게 힘든 것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며 지냈다.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그냥 지냈다.

할머니는 정말 오래 몇 년 동안 돌아가실 때 까지 풍으로 고생하셨다. 처음 몇 년을 병원에서 간병인과 지내고 주말엔 우리 집에 왔다. 또 몇 년은 이모 집에서(아프기 전에도 이모와 같이 살았다.) 지내고 주말엔 우리 집에 와서 지냈다. 일주일 내 내 이모가 할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였다.

할머니는 풍으로 몸의 반을 못 쓰셨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매도 오시고 힘들셨다. 그런 할머니가 낯설고 무서웠다. 또 주말마다 할머니가 집에 오면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엄마는 화난 사람처럼 있고 아빠는 무능해보였다. 엄마나 할머니는 싸우거나 엄마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 모두 다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집안 분위기는 날 정말 불편하게 했고 엄청 힘들었다. 꼭 할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때 할머니가 싫고 부담스러웠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른다. 찢든 할머니가 아프고 나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 매일 화나있고 지쳐있고 힘들어 했다.

할머니는 스스로 용변을 못 보셔서 엄마가 도와줘야 일을 해결하실 수 있었다. 그러다 엄마가 할머니의 용변을 도와주다 배변 통을 거실에 떨어트려 오줌이 흘렀다. 그때 엄마가 엄청 화를 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때 할머니를 비롯해 우리 가족 모두 다 힘들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내가 5학년 때다.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다. 수술이 잘됐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할머니한테 “나 왔다고 민석이 왔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날 못 알아보셨다. 지금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난 그때 울지 않았다. 할머니의 죽음이 내겐 너무 부담이었고 정리가 안됐다. 그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장례식이나 그런 것에 바빴고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다. 너무 무겁고 힘든 얘기여서 나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 괜찮은 척했다.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고마운 존재다.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지 못할 때 할머니가 날 보살펴줬고 그로인해 할머니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래도 마음 한 쪽엔 엄마 아빠가 날 보살펴주지 않는다는 결핍과 늙은 할머니가 나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 나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나를 보살펴주지 못하게 됐고 나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됐다.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니 난 더욱 불안해졌다. 그럼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고 혼자 견뎌냈다.

나를 불안하게 했던 엄마

지금만 아니지만 어렸을 때 엄마는 많이 무섭고 강한 존재였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억지로 떠먹이고 나에게 자주 화를 냈다.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엄마에게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사실 예전 엄마의 기억은 나에게 별로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엄마가 해준 얘기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날 많이 혼냈다고 한다. 내가 장난을 치거나 때를 쓰거나 찢든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는 짓을 하면 엄마는 혼내고 많이 때렸다. 언제는 어느 단체에서 동굴로 놀러 갔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날 때렸다. 근데 동굴 안에서 때리니 그 소리의 울림이 엄청났다고 했다. 또 집에서 엄마에게 혼이나 뺨스 바람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다. 어느 집 애들이나 그런 적은 한 번쯤은 있을 거다. 그때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퇴근하면서 날 봤는데 엄청 쪽팔렸다.

엄마는 나에게 매를 자주 들었지만 때리진 못했다고 한다. 엄마가 매만 들면 내가 죽을 듯이 잘못했다고 짹짹 빌어서 안 때렸다고 했다. 부모가 매를 들면 쫄지 않고 맞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바로 잘못했다고 아주 과하게 때리지 말라고 해서 매로 맞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난 매를 무서워하고 싫어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매를 갖다 버린 적도 있었다. 그 뒤로 엄마는 나에게 매를 들지 않았다고 했다.

어렸을 때 엄마는 굉장히 강압적인 존재였다. 난 엄마를 많이 무서워했고 눈치도 많이 봤다. 맞는 걸 그렇게 싫어했으니 눈치 보는 건 당연했을 거다. 또 어렸을 때 엄마는 나를 많이 불안하게 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많이 취한 채로 자주 집에 왔다. 제대로 못 걸을 만큼 많이 마셔서 언제 나 걱정이었다. 또 새벽이 훨씬 지나도록 먹고 늦게 들어오니 난 불안해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엄마는 술을 먹고 들어와 새벽에 화장실에서 잔 적이 꽤 있었다. 그러다 내가 화장실 불빛에 깨면 엄마를 깨워서 안방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잤다. 엄마를 깨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불러도 깨지 않고 그때 내가 어렸으니 엄마를 들어서 안방에 갖다놓는 건 무리였다. 그래도 엄마를 꼭 안방에 들여놔야 내가 잠을 자니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를 깨워 안방에서 자게 했다. 그럴 때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아빠를 깨우면 화를 낼 거 같고 싫어할까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아빠가 깨지 않게 조심히 엄마를 깨웠다.

가뜩이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니 난 좋을 리가 없었다. 엄마란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마다 무섭고 보호 받지 못하고 울타리가 없어진 기분이었다.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어서 불안했다. 또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비틀대고 정신을 못 차리니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어렸을 때 엄마의 그런 모습들은 날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게 했다. 엄마가 술 먹는 게 싫었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나에게 강압적이고 무섭고 눈치를 봐야 할 존재면서 나를 많이 불안하게 했다. 그러다 엄마가 상담도 다니고 하면서 달라졌다. 엄마가 달라진 건 좋으나 엄마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나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옛날 일에 관해 대화를 한다든지 소통이 없이 달라져서 내 입장에선 좀 안타까웠다.

어렵고 무서웠던 아빠

어렸을 때 아빠와 어떤 관계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아빠는 가부장 적이지 않고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 나와 같이 잘 놀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잘 사줬다. 내가 꽤 어렸는데도 아빠는 내 눈높이에 맞게 잘 놀아줬다. 이렇게 친구 같고 잘 놀아줘도 나에게 아빠는 강하고 센 존재였다. 어렸을 땐 아빠가 나보다 훨씬 크고 힘도 셸다. 그래서 아빠가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만으로도 나에게 아빠가 강한 존재로 느껴졌다. 하지만 아빠가 더 강한 존재로 느껴진 이유는 나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거 같다. 내 기억 속에선 아빠와 대화를 하거나 내가 아빠에게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던 것 같다. 내가 아빠에게 뭘 물어보면 아빠가 잘 답해주진 기억도 없고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다. 뭔가 아빠도 날 어려워했고 나도 아빠를 어려워했다. 서로 어려우니 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했을 거고 강한 존재란 느낌에 어렵기까지 하니 더 겁을 먹고 다가가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굳어진 것 같다.

또 아빠는 자주는 아니지만 화도 잘 냈다. 내가 수학문제를 어려워하면 아빠가 가르쳐줬다. 근데 아빠가 가르쳐줘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틀리고 그러다 나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숫자를 대충 써서 못 알아보게 되면 아빠는 화를 내고 똑바로 못 쓴 숫자를 잘 쓸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고 시켰다. 문제도 어려운데 숫자쓰기 연습부터 다시 하라고 하니 나도 화나고 답답했다. 그래서 아빠와 숙제하는 게 싫고 겁났다. 그래서 숙제할 땐 글씨체에 신경을 많이 썼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를 이해 못해서 혼났던 것 보단 글씨를 휘갈겨 못 알아보게 써서 혼날 때가 많았다. 근데 난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지 글씨체를 교정해달란 게 아니라서 아빠가 짜증나고 싫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빠가 화내면 엄청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했다. 아빠를 꽤 무서워했던 거 같다.

또 언제 한번은 아빠가 술을 엄청 먹고 취해서 온 집안 물건을 부숴던 때가 있었다. 밖에서 엄마와 나,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고 헤어진 뒤 집에 가는 길에 이유는 모르는데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 물건을 넘어뜨리고 막 화를 냈다. 집에 와서도 집안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엄마

가 말려도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난 영문도 모른 채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숨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크게 화내는 걸 봤다. 처음이어서 더 놀랐고 더 무서웠다. 평소엔 날 혼내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광분을 하니 정말 무서웠다. 근데 그렇게 힘이 센 아빠가 엄청 화를 내니 우리 가족 누구도 아빠를 말릴 수 없었다. 그게 더 공포였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망쳐야겠다 생각도 들고 찢든 아무도 아빠를 통제 할 수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가 정말 강한 존재로 느껴지고 무서웠다. 그 후 아빠가 사과도 하고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도 아빠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그때 그 일은 쉽게 안 지워진다.

그래도 아빠는 날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아빠가 출장을 가서 엄마와 집에 둘이 있을 땐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했다. 강압적인 엄마지만 어렸을 때 나에게 엄만 약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기도 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엄마는 나에게 믿음직한 모습보단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아빠 없는 밤은 두려웠고 빨리 아빠가 와서 나와 엄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언젠가는 엄마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나랑 엄마 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빠에게 전화해 빨리 집에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난 아빠를 우리가족을 지켜주는 버팀목, 보호자로 느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없으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내가 다 감당하고 지켜야 된다고 느꼈고 아빠가 집에 있어야 나와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생기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어렵고 강하고 무서운 존재이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느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진 못했다.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었다. 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날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것과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아프고 그로인해 혼자가 된 일이 나에게 꽤 큰 상처와 불안이 됐다. 난 그런 것들을 혼자 견디고 감당하려 했다. 왜냐면 엄마 아빠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어렸기 때문에 힘들었고 어렸기 때문에 잘 할 수 없었다. 그런 걸 겪으며 난 나의 무능력함을 느꼈다. 그래서 어리다는 것, 잘 하지 못하는 것, 무능함이 싫어졌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화가 생겼다.

(2) 부모님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우리가족의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고 우리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나의 논문의 주제고 목적이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듯이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부모님의 삶을 만나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건 우리가족의 문제나 우리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폭을 넓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를 따로 인터뷰를 했다. 40분에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고 이제 나올 얘기는 엄마 아빠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엄마의 어린 시절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엄마를 혼자 낳았다. 그렇게 엄마는 4살 때까지 외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엄마가 태어난 날은 사월초파일이었다. 그 날 아침 외할머니는 절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통이 시작됐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절에 가지 않고 혼자서 출산준비를 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등놀이까지 하고 돌아왔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사람들은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게 딱해서 외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출산을 도와줬다. 그래도 엄마가 나오지 않아서 동네사람들이 장난삼아 돈 줄 테니까 어서 나오라고 하자 12시 무렵이 다 돼서 엄마가 나왔다.

외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재밌는 옛날 얘기처럼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슬픈 얘기라고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4년 동안 단 둘이 살았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육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더 화를 낸다든가 감정조

절을 잘 하지 못했다. 그때 엄마는 꽤 어렸을 때였지만 외할머니와 살면서 답답함과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제일 큰 결핍은 자신의 엄마와 친아버지였다. 엄마가 4살 때 나의 외할아버지가, 엄마의 새아버지로 외할머니와 결혼을 하고 들어온다. 여자 둘이 살던 집에 남자가 들어와 여러 면에서 부담은 덜어졌지만 엄마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로 인해 외할머니를 뺏기고 자신의 자리가 없어 질까봐 불안했다. 그리고 다음해 여동생이 태어났고 엄마의 불안은 두 배가 되었고 자신의 여동생을 질투하게 됐다. 그래서 엄마는 온전히 자기가 엄마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먼저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오로지 자신의 엄마하고만 소통을 했지 다른 가족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 허락을 받을 때도 아버지한테 말지 않고 엄마한테만 말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엄마는 항상 외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했다.

또 엄마는 자신에게는 친아버지가 없다는 것, 지금 저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진짜 내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마 평생의 숙제였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다. 아버지가 밉고 화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로 고집불통이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차지해서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엄마에겐 아버지란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여러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정리가 안 된 채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와 불안이 생겼고 그런 문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화를 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얘기를(어쩌면 자신의 결핍과 문제들) 들어주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 달라고 시끄럽게 굴었다. 하지만 엄마의 가족들은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어서 엄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의 아버지는 엄마보고 연구대상이라고 할 정도였다.

또 엄마는 자신과 연결된 끈이, 자신이 믿을 사람이 자신의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끈마저 놓치면 완전히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더 시끄럽게 굴었다. 그럼으로써 엄마는 자신의 엄마에게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란 생각을 했다.

엄마는 위에서 말했던 문제들로 인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안했다.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해소되지 않아서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자다가 오줌을 싼다. 외할머니는 이불 빨래를 계속 만드는 딸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고 엄마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외할머니에게 미안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괴롭고 난감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자다가 오줌을 싸지 않게 새벽에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 요강에 오줌을 누게 했다. 중간에 한 번 누고 자니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일은 없어졌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다가 오줌 싸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다지 편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엄마는 가족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를 낳고도 엄마는 계속 방황하고 술을 먹고 나와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상담치료를 받게 된다. 상담을 진행하고 엄마도 노력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기 힘들었던 가족의 감정들을 느끼게 됐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됐다.

아빠의 어린 시절

아빠는 2남2녀 중 둘째였다. 그 위로는 누나, 밑으로는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었다. 아빠의 가족은 처음엔 다 흩어져 살았다. 아빠의 남동생은 아빠의 엄마, 즉 나의 친할머니가 키웠고 누나는 증조할머니, 아빠는 큰고모님이 키웠다. 그러다 아빠가 6살이 되던 해 아빠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빠의 아버지는 다른 분과 결혼을 하시고 떠났다. 그 즈음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아빠의 가족이 인천 주안에 다 모였다. 그 뒤로 나의 친할머니는 혼자서 4남매를 키웠다.

어렸을 때 아빠의 남매들은 서로 사이도 좋고 잘 놀았다. 아빠는 남동생과 학교를 끝내고 집에 오면 라면을 끓여먹고 나가서 놀고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다.

친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빨래나 청소, 밥 같은 집안일을 아빠와 남매들이

해결해야 했고 어렸을 때 아빠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또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 그 시대 때는 이혼을 했다고 하면 이혼하는 사람이 적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했다고 했다. 아빠는 그런 게 싫어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어렸을 때 아빠는 감추는 게 싫고 힘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를 감추게 되면 또 하나를 감추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보면 거짓말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빠는 숨긴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아빠는 어렸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게 큰 스트레스였고 문제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오라는 숙제나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면 막막했고 난감했다.

감추고 숨긴 것들이 스트레스가 됐지만 아빠는 참았다. 그것들을 참았던 의식도 없이 꺾꾹 누르고 참았다. 그 화들은 오래되고 오래 묵힌 화가 됐고 너무 참아서 조금만 열어도 팍 터져버렸다. 그래서 아빠는 술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화가 올라왔다.

어렸을 때 아빠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건 아빠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빠는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이 아버지가 돼서 아빠노릇을 잘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아빠는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는 교육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이 아빠하고 했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가는 건데 아빠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 나를 어떻게 키울지가 지금도 걱정이라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혼내야하고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걱정이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도 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와 관계하는 것, 나와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했다.

2013년 봄,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자신과 가족들을 버리고 몇 십 년 동안 남으로 살아온 사람을 만나러 가는 아빠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 아빠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다. 내가 아빠였다면 화가 나서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다.

아빠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이유는 아버지가 혼자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 전에도 사회복지사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아빠는 자신과 가족들을 버리고 간 사람이니 전화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수술은 하겠으니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다가 아빠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는 혼자 남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담담했다고 했다. 몇 십 년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들 같지 않고 주말에 놀러간 사람들 같다고 했다. 그러다가 아빠는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했다. 자신이 몇 안 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지금의 모습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옛날에 아버지는 직장도 잘 다니고 그 시절 때 대학도 나오고 문화생활도 즐기실 줄 알던 멋쟁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고 남아있는 것도 없어서 아빠는 돌아오는 길이 슬펐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삶을 만나보는 건 내가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엄마 아빠가 말하기 힘들 수 있는, 평생 외면할 수도 있는 얘기를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웠다. 엄마 아빠의 삶은 뭔가 공통점도 많았고 둘이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둘 다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난 엄마가 상담치료를 한 것이, 아빠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 다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3) 나와 부모님의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너무 좋아서 서로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서로를 다 이해하고 배려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얘기도 안 하고 만날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냥 딱 완만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필요할 때 얘기도 하고 어쩔 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평범하다. 지금의 관계가 제일 안정적이고 편안하니 별다른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완만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편안하다. 엄마 아빠도 딱히 불편함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다고 했다. 다들 지금의 가족관계와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을 더 외면하거나 피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좋다.

(4)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가족

엄마는 우리 가족을 편하고 평온하다고 했다. 엄마는 자신의 원 가족이 너무 불안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족은 그런 불안과 문제도 없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고 아빠나 나도 엄마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지금의 우리가족이 굉장히 좋다고 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이 너무 학구적이라고 했다. 나와 엄마의 관계는 꼭 심도 있는 스승과 제자 같으면서 자신 같은 유머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집의 분위기가 산다고 했다. 아빠는 엄마와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자관계라고 했고 아빠와 나의 관계는 대화가 안 되는 부자관계라고 했다. 또 아빠는 자신과 엄마의 관계는 인생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했다. 서로 얘기도 잘 하고 힘든 걸 같이 풀고 돕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했다.

(5) 내가 정리한 우리가족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도 만나보고 지금 우리가족의 관계도 돌아보면서 우리가족을 정리해 보겠다.

우리가족은 각자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었다. 그것들을 참든, 외면하든, 꺼내서 보든 각자의 방법으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술을 먹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 누구 하나도 가족이 깨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족이 깨져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우린 다 노력을 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혼란스러운 가족이었지만 엄마는 상담치료를 하면서 달라지려 했고 아빠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서 아빠노릇을 두려워했지만 나와 친구같이 편하게 놀아주고 달라지려 노력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지금 쓰는 논문처럼 정리의 시간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족은 모두 다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가족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남았다. 어쨌든 내가 정리한 우리가족은 모두 상처가 있고 참 힘들고 아프게 살아왔지만 달라지고 편안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편안해졌다. 그래도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마음의 짐으로 안고 온 문제들, 외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다.

3) 우리가족의 문제

그동안 우리 가족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하지 않고 수습하는 것에 바쁜 것 같았다. 내가 담배를 뿜을 때도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단 다들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빨리 끝내려고 한 것 같았다. 나도 그랬고. 언제나 문제를 직면하기보단 살짝 보고 빨리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지금까지 가족의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다 같이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문제를 똑바로 직면하고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1) 내가 생각하는 가족문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나의 문제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난 어리다는 것, 잘 하지 못하는 것, 무능력한 것이 싫었다. 그래서 뭐든지 잘하고 싶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서 그런 어른은 아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찌질하지도 않다. 뭐든 도움 없이 혼자서든 잘 하고 언제나 완벽하다. 실수와 실패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어른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난 누가 울거나, 자신의 힘든 걸 얘기하거나, 찌질하고 속 좁게 굴면 싫어했다. 이런 걸 어린 아

이의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우는 사람, 힘든 걸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돼서 무시하거나 피했다. 난 그런 사람들을 어려워했고 그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지 못했다. 또 짜질하고 속 좁게 구는 사람을 보면 싫어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화를 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은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모습들이었다. 왜냐면 힘들 때 얘기하고 울고 속 좁게 구는 건 아이 같은 거니까. 아이 같은 건 곧 무능력한 거니까. 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저들은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부럽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더 외면하고 싫어했다.

또 내가 외면하고 싫어했던 모습들은 사실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난 울고 싶고 힘든 걸 얘기하고 싶고 짜질하다. 하지만 난 인정하기 싫었다.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니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고 외면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더 찢리고 불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쁘게 군 것 같다.

그리고 난 무능력해지지 않고 어려워지지 않으려 진짜 뭐든 잘하려고 했다. 학교숙제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어른스러워지기 위해 힘든 일, 무거운 짐 나르는 것도 먼저 나서서 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신경 쓰고 나를 인정해주길 바랐다. 근데 주변에서도 내가 뭘 하면 잘한다고 하니 좋았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서 그것을 했는지 아님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했는지 헷갈린다.

쪼든 난 잘하려고 했고 못하고 실패하는 게 싫었다. 완벽하지 않은 게 싫어서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했다. 실패하지 않으려 온갖 노력을 했고 도움도 받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오로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았다. 나 혼자하면 잘할 자신이 없었다. 실패를 피하려고 나를 믿지 않고 성장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잘하려고 했고 실패하면 그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목을 댔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 언제나 부담감이 있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도 한 몫을 하지만 나는 내가 실패한다는 걸 견디지 못했다. 실패가 두려웠고 싫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고 더 부담을 가졌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잘하려고 목매는 것도 내 안에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무능력해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의 행동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됐다.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건 나지만 이런 얘기들을,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와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화도 풀릴 것 같다.

또 다른 우리 가족의 문제는 나와 엄마가 관계된 문제, 나와 아빠가 관계된 문제가 있다. 엄마와는 과보호의 문제가 있고 아빠와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일단 엄마와의 문제부터 얘기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엄마의 문제

엄마는 나를 내 나이에 맞지 않게 과잉보호했다. 엄마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대신 해줬다. 날 꼭 여섯 살 애처럼 대했다. 예를 들면 내가 씻고 나와서 면봉으로 귀에 물을 닦으려 하면 자기가 대신 닦아줬다. 또 언제는 내 몸에 때가 많이 낀 거 같으니 때를 밀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클 만큼 커서 엄마한테 알몸을 보여주기 싫었다. 그래서 싫다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한 번만 밀자고 해서 결국 팬티를 입고 때를 밀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쪽팔렸다. 나는 싫지만 거부를 못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엄마가 하게 했다. 거부를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엄마는 정말 과잉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해줬다.

간섭도 많이 했다. 내가 입은 옷이 이상하면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땐 '뭐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등의 식으로 자주 전화를 했다. 나는 너무 잦은 전화에 귀찮고 짜증나서 몇 번 화도 냈고 그런 일로 엄마와 자주 싸웠다. 나는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도 별 상관이 없고 이제 집에 혼자 잘 있으니 힘든 것도 없었다. 오히려 혼자가 편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마가 나에게 보이는 관심이라고 해도 나한테 간섭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는 16살인 나를 16살로 보지 않고 6살인 어린 애로 봤고 그렇게 대했다. 하지만 그런 필요 이상의 행동은 날 더욱 불편하고 불만이 쌓이게 했다. 화가 많이 났다.

나는 엄마의 과잉보호가 정말 싫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없어 질까봐 두렵기도 했다. 무슨 말이라면 과잉보호가 없어지면 내가 엄마한테서 필요한 것들까지 같이 없어지고 엄마와의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엄마가 나한테 있는 이유가 이런 과잉보호 때문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엄마가 날 갑자기 확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얘기하지 못하고 거부도 못했다. 또 내 안에는 아직도 엄마의 아이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정도 컸다는 걸 얘기하는 게 두렵고 과잉보호를 거부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엄마도 자신의 문제를 알았지만 달라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엄마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난 그냥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날도 더운데 왜 이불을 덮고 있냐고 물었는데 내가 이불 덮는 게 내 마음이지 뭐 상관이나는 식으로 짜증을 냈다. 나는 그때 논문이 잘 안 돼서 엄마의 말이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냐는 식으로 들렸다. 그래서 속으로 찢려서 화를 냈다. 근데 엄마는 그냥 이불을 왜 덮고 있냐고 물었을 뿐인데 내가 화를 내니 어이가 없고 속이 상했다. 그 다음 날. 내가 사과는 했지만 엄마는 그 날 갑자기 이제 나를 떠나보내겠다고 하면서 과잉보호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나로선 어이가 없었다. 또 엄마가 예전과 같이 나와는 아무 소통 없이 변하려고 하는 게 보였다. 나는 이 과잉보호 문제를 엄마와 얘기를 통해 풀고 싶었다. 내가 그때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하고 싶었고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알고 싶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또 엄마 혼자서만 바뀌려고 하니 나는 싫었다.

엄마의 그런 태도는 날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엄마가 진짜 나한테 전화도 자주 안하고 달라지는 게 보였다. 그래도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다. 내가 그동안 뭘 느꼈고 엄마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서로가 더 이해하기 쉽고 마음 편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아빠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아빠와 소통의 어려움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빠와 얘기를 아예 안하는 건 아니다. 아빠와 얘기를 꽤 하는 편이다. 주로 하는 얘기는 둘 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얘기나 내가 살 것이 필요할 때나 그냥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힘들거나 심각한 얘기, 고민거리, 걱정거리, 자신의 속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소통의 어려움이다. 아빠와 나는 서로에게 자신의 속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화도 잘 못 내고 서운한 것, 속상한 것도 얘기 안한다.

나는 왜 아빠에게 얘기를 못하는 지 고민해봤다. 나는 아빠와 얘기를 할 때마다 웬지 아빠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고 무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마다 겁이 나고 뭔가 꺼려지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서 자주 느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빠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소통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런 것 같다. 어렸을 때 아빠와의 관계에서 느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아빠와 속 얘기를 말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서로 속 얘기를 안 해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건 속 얘기를 안 하니까 관계에 발전이 없고 제자리다. 아빠와 나는 언제나 그냥 친구 같고 편하기만 한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놔두면 나중에 가서는 바뀌기 힘들어 진다. 또 지금 내 마음 속에선 아빠와 속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아빠와 얘기해보고 관계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프시고 내가 혼자 있게 됐을 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 때, 그때가 나한테 정말 큰 불안과 상처가 된 것 같다. 그때 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있고 의지하고 소중했던 할머니가 없고 갑자기 나 혼자가 됐으니까 진짜 버려진 건 아니지만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실수를 안 하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한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가차 없이 날 버리고 떠나버릴 것 같았다. 그때동안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고 나와서 모든 관계가 원래부터 없었던 듯이 그냥 확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날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결국 난 신뢰를 잃고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사실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웠을 때 아차 싶고 겁이 덜컥 난다. 그래서 후회하고 바로 사과한다. 그래도 찝찝함은 계속 남아있고 관계에 금이 갔을까봐 걱정한다. 나와 친하고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버려질 거란 느낌이 훨씬 크다.

진짜 내가 버려지는 일은 없을 거다. 실수를 해서 한 번에 버려지는 관계였다면 만날 가치도 없다. 어쨌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선 언제나 실수를 하면 버려질 거라고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날 바로 버릴 거라는 불안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과 부담이 있고 조심조심한다. 사람을 믿기 힘들다.

어렸을 때 느꼈던 상처가 지금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은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그때의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족문제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앞에선 내가 생각한 가족문제를 얘기 했다면 이번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문제를 얘기해보겠다.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문제

엄마도 나와 같은 문제를 얘기했다. 엄마는 자신이 나를 너무 과잉보호한다면서 이제 나를 좀 놔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집에 오면 안쓰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이 했다고 했다. 학교에 가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집에서라도 쉬라고 그랬었다고 했다. 요즘은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습관처럼 내 밥을 챙기면 밥 그릇을 꺼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엄마도 나와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나에겐 꽤 반가운 일이었다.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문제

아빠 역시도 나와 같이 소통의 어려움을 문제라고 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로 나와 관계하는 걸 어려워했고 확신을 못했고 계속 걱정했다. 나는 최근 들어 아빠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빠는 나를 낳기 전부터 막막함과 걱정이 있었다. 어쨌든 아빠는 나를 키우면서 계속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는 계속 자신이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지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는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도 어려워했다. 그러니 이번 논문이 아빠의 걱정과 아빠와 나의 문제를 풀어볼 계기가 될지 모른다.

4) 풀어가는 과정

나는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을 하고 나는 버려질 것 같았다. 이건 나의 어려움이 나에게 끼친 영향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어쨌든 논문을 마치려면 가족의 문제를 얘기해야 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뚝을 들이고 뒤로 미뤘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계속 궁금해 하고 답답해했고 엄청 큰 문제일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정말 두려웠고 얘기를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아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용기가 생겼다. 엄마 아빠도 참 말하기 힘들고 숨기고 싶은 얘기일 수 있는데 날 위해 또 어쩌면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가족의 문제를 얘기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2014년 8월 20일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다.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느낀 불안, 나의 문제, 그 문제가 나에게 끼친 영향과 함께 엄마 아빠와 관련된 엄마 아빠도 똑같이 느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줬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함께 얘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도 그동안 느낀 것들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 등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해줬다.

(1) 문제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와 내가 관련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았다.

엄마의 과잉보호 원인

엄마가 나를 과잉보호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엄마의 어머니, 나의 외할머니도 엄마를 과잉보호로 키워서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랬다고 했다. 외할머니도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해줬다. 그렇다고 엄마가 정말로 바라는 정서적인 보살핌은 해주지 않았지만 외할머니는 엄마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줬고 그건 스무 살이 돼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결혼을 할 때도 밥하는 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독립을 한 적이 없다. 결혼을 하고 나를 낳고서도 우리 집 근처엔 외할머니가 살았다. 그래서 엄마가 해야 할 육아를 외할머니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어쨌든 모든 걸 해주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엄마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줬다.

또 엄마는 자신의 싫고 부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바꿔야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잘 키워서 자신이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없애고 싶었다. 사람들이 잘 자란 나를 보고 엄마에게 ‘민식이 잘해요.’ 민식이 대단해요.’ 이런 칭찬을 하면 엄마는 자신의 싫은 부분이 제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단 나를 잘 키우려고 더 노력했다. 잘 자란 내가 엄마의 싫은 부분을 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했을 거다. 나를 잘 키운 건 엄마고 그럼 엄마는 좋은 어머니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의 싫고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 했을 거다. 그래서 엄마는 늘 나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다고 했다.

아빠와 소통의 어려움 원인

아빠가 나와 소통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도 있지만 아빠가 그 이유를 핑계로 나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다. 그것을 피했던 이유는 아빠가 두려워서 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핑계에 숨어서 자신의 노력을 피했다. 아빠도 분명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빠가 분명히 피하고 외면한 부분은 있다. 어쨌든 방법을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빠는 아버지의 부재와 그 문제를 외면해서 나와 소통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아빠와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것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자체도 아빠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통하기 편한 엄마하고만 얘기를 했다. 엄마와 소통하는 게 편하니 아빠와는 멀어지고 엄마와는 가까워졌다. 나도 아빠처럼 소통의 어려움이란 문제를 피하고 있었다. 아빠와 나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둘 다 그 문제를 피하고 있었고 그걸 피할수록 문제는 더 깊어져갔다.

깊이 들어가면 원인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크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덕분에 우리가족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족의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내 탓도 엄마 아빠의 탓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다큐멘터리제작

1) 제작 계획

기획의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족이 별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상담

치료를 계기로 인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족의 문제를 알아보고 나와 우리가족을 돌아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

촬영의도

방학 때 촬영을 할 때 중요시 하고 잘 담아내려 했던 건 솔직한 우리가족의 애기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족의 일상이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선 카메라가 돌아갔다. 처음엔 아빠가 팬티만 입고 촬영을 해서 불편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찍자는 생각에 그냥 찍었고 솔직한 애기를 듣기위해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과 꾸준한 상담치료, 엄마 아빠와 1시간이 넘는 인터뷰, 그리고 내가 가족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쳤고 노력 했다.

편집의도

편집을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쓴 건 일단 우리가족의 애기는 기본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고 제일 신경 쓰고 중요시했던 건 영화의 길이와 호흡, 내가 영화에서 할 말이었다. 윤하샘이 논문을 지도해주시면서 매일 '춘천살인' 애기를 하셔서 나도 영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 애기와 메시지만 딱 담아내려고 애썼다.

너무 우리가족 얘기여서 지루할까봐 영화의 길이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편집했고 인터뷰와 내 나레이션만 있으면 지루할까봐 우리가족의 옛날 사진, 내가 초등학생 때 영어 발표를 했던 영상, 내가 술 먹고 얘기하는 영상 등 영화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시도했다.

상영의도

논문 제목에 간디인들과 나누기란 내용이 있어서 많은 간디인들과 나누려고 홍보에 신경 썼다. 그래서 주여 때 예고편도 틀고 그럴싸한 영화 포스터도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만한 식당, 생태 앞, 1층 현관, 2층 만광, 도서관 문에 붙여 놔다.

또 상영하는 날에는 어디서 몇 시에 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몸에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딱치는 대로 전단지를 붙여 놔다. 아침마다 교사회회의에 들어가서 영화를 든다는 알림도 부탁했고 간디인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학교에서 3회(점심2. 묵학1.) 상영. 기숙사에서 1회(취침1.) 상영했다. 그로 인해 쌤들 학부모님, 학생들 전부 다 합쳐서 73명의 간디인들이 영화를 봤다.

제작흐름 (영화를 완성한 상태에서 작성함.)

1학기(3월~7월초) - 논문계획서 및 촬영 계획을 세움

방학(7월~8월말)- 나를 돌아보는 작업(글쓰기)과 우리가족을 촬영함. 그 과정에서 우리가족의 일상, 인터뷰, 문제를 얘기하는 것들을 찍었고 가족들의 옛날 사진도 찾음.

2학기(8월말~ 9월 중순까지 구상)- 촬영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떤 식의 영화를 만들지 구상함. 그 뒤에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편집에 들어감.

2학기(9월말~10월초까지 편집)- 편집을 10일 동안 해서 완료. 작품 완성함.

2학기(10월초 상영)- 작품 완성 뒤 10월 6일 주여시간에 예고편을 틀고 10월 7일, 8일 간디인들에게 영화를 상영. 10월10일 삼간디 영상제에서 상영함.

2) 콘티(continuity)

영화제목: 가족을 보다

감독: 김민석

영상길이: 30분50초

콘티는 부록에 있다. 콘티와 영화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편집을 하면서 필요 없고 영화의 호흡을 위해 일부러 삭제한 것이다.

3) 영화의 주제와 의미

영화 제목을 ‘가족을 보다’라고 정한 이유는 내 영화 안에서 ‘우리가족을 본다.’ ‘우리가족의 아픔을 본다.’ ‘문제를 본다.’ ‘그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본다.’라는 뜻으로 ‘가족을 보다’라고 정했다. ‘가족을 보다’라는 뜻이 내 가족을 본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관객들 자신의 가족도 한번 돌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화의 주제는 제목의 의미와 똑같다. 영화는 그냥 우리가족을 보여준다.

영화는 나의 어린 시절 아픔, 나의 문제,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아픔, 우리가족의 문제와 갈등, 상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치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결론

1. 문제의 해결점(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

가족들과 문제에 대해 한 번 얘기를 했다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들은 있다. 난 내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하기 싫었고 못할 것 같았다. 근데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고 나니 그 전에 느꼈던 부담감과 두려움은 정말 별게 아니었다. 깨질 것 같던 우리가족 관계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버려질 것 같던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정말 별게 아니었고 오히려 속은 후련해지고 엄마 아빠에겐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앞으로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내가 어린 시절 버려졌다고 느꼈던 것, 내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것 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일들이라고 했다. 아빠는 이번 논문이 우리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엄마는 이제 버려질 거라는 걱정은 안했으면 좋겠고 날 버릴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엄마 아빠도 솔직하게 얘기해줬고 잘 들어줬다.

가족들과 서로의 아픔, 가족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엄마 아빠와 얘기를 끝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다’가 아닌 ‘이제 시작이다’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가족은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계속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 참고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아닌 이번 나의 논문에서 했던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이번 논문을 통해 나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용기 내어 얘기하면서 해결이 아닌 다른 것을 얻은 것이 더 많았다.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나는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또 우리가족은 이제 문제를 해쳐나갈 방법을 얻은 것 같다.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족은 많은 것들을 얻었고 우리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 처음으로 모든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족은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풀기위해 노력 할 것이다.

2. 논문을 통해 공부한 가족이란

정말 이 논문을 하면서 우리가족을 비롯해 가족이란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가족은 고민을 통해 깨달은 것도 있지만 논문을 하면서 우리가족을 돌아보고 우리가족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은 것 같다.

내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가족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가족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반복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고인 가족관계가 풀리지 않고 계속 묻어두면 서로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제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주고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노력하면 서로에게 더 힘을 주고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가깝기 때문에 더 안 보이고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더 살펴보고 애써야한다고 생각한다.

3. 논문을 마치며

만족스러운 점부터 얘기해보겠다. 일단 작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좋았다. 개인적으로 내 작품에 너무 만족한다. 나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로 만드는 작품이어서 잘 못 담아낼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얘기를 비웃고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근데 생각보다 작품에 내 생각을 잘 담아냈고 영상의 호흡도 괜찮았다. 또 사람들도 잘 보고 내가 바란 대로 잘 느껴줬다.

또 논문으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족을 돌아보고 엄마 아빠의 삶을 만나본 건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한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내 안에선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에선 술 술 잘 풀렸다. 엄마 아빠가 솔직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논문을 하는 과정동안 나는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 그래서 가족과 얘기하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잘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예 하기 싫었다. 근데 해냈다. 얘기를 했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것들의 내용도 나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 나는 내가 했다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나 스스로도 했다는 것에서 나는 엄청난 성취감과 많은 용기를 얻은 것 같다. 찢든 빨зит은 안 한 것 같고 하는 동안 무척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우고 얻은 게 많아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다. 영화를 만들 때 넣고 싶은 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화의 재미와 분위기, 호흡을 위해 시간을 줄인 것, 편집 구상을 하기 위해 3주 동안 머리로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버린 것이 너무 아쉽고 한심하다. 정말 편집구상을 위해 감을 잡고 구체적인 것을 짜는 것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버린 게 아쉽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찢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게 제일 아쉽다. 분명 방학 때 촬영과 가족과 얘기를 다 끝냈고 학교에 와서는 빨리 편집하고 완성하고 평가받고 본문을 썼으면 끝났을 텐데 빨리 감도 못 잡고 멍기적 돼서 지금은 발등에 불붙은 것처럼 급하게 하는 게 아쉽다. 멍기적 거렸던 또 다른 이유는 나의 가족 이야기고 3학년 과정에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여서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선뜻 시작하지 못했고 망설였다. 근데 그 긴 시간의 고민 덕에 작품이 잘 나온 것 같기도 해서 후회는 버리기로 했다. 시간 활용을 잘하고 감을 빨리 잡았어야 했다. 그게 제일 아쉽다.

부록

1.콘티(continuity)

장면	영상내용or나레이션
오프닝 #1. 검은화면	나레: 이 영화는 나의 이야기면서 우리가족의 이야기다.
#2. 옛날 가족사진	/IMG_0913/ 나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족이 별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3. 옛날 엄마 아빠 영상 or 사진	/아빠가 춤을 춘다 영상/ IMG_1009/ 나레: 왜냐하면 우리아빠는 가부장적이지도 권위적이지 않는 친구 같은 아빠였고 /IMG_0742/ IMG_0938/ 나레: 우리엄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엄마였다.
#4. 가족이 함께 있는 사 진	/SAM_0087(초등학생 때/ 나레: 우리가족은 대화도 많고 서로를 잘 이해했다. /IMG_1024/ 나레: 나는 그런 우리가족이 좋았다. /IMG_1034/ 나레: 그래서 우리가족 안엔 갈등이나 문제, 아픔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다.
#5. 중2때 사진or가족이 함께 있는 영상	/SAM_2259 나랑 가람이 이닦는거/ 나레: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나는 엄마의 권유로 상담치료를 받았다. /SDV_3334(7월23일/6분40초쯤)/ 나레: 상담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족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 게 많은 갈등과 문제,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Title #6. 가족이 함께 T.V보는 영상	/SDV_3405(8월2일/9분30초쯤)/ 나레: 그래서 나는 우리가족의 갈등과 문제 아픔을 알아 보기위해 우리가족에 관 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 다. 나레이션 끝나고 제목 나온다. (제목 아직 미정)
#7. 아빠와 저녁시간을 보	/SDV_3257/ SDV_3258/ SDV_3259(7월15일)/ 나레: 일단 나는 우리집을 무작정 찍기 시작했다.

나는 영상	나레이션 나오고 영상 소리 나온다. 영상내용: 아빠 영상 찍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한다.
#8. 엄마와 아침 먹는 영상	/SDV_3267(7월16일)/ 영상내용: 내가 어젯밤 논문이 망했다는 꿈 얘기를 엄마한테 한다.
#9. 엄마 아빠 이모와 함께 저녁 먹는 영상	/SDV_3273(7월16일)/ 영상내용: 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퇴근해 집에 온다. 김밥을 사와서 이모와 함께 먹자고 한다. 이모를 부른다. /SDV_3275(7월16일)/ 영상내용: 이모가 오고 김밥을 먹는다. /SDV_3277(7월16일)/ 영상내용: 촬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엄마아빠는 자신들의 일상이 카메라로 찍힌다는 것을 꽤 부담스러워했다. 나 역시 부담감이 있었다. 가족의 문제란 불편한 주제로 만드는 영화이니 더 신경이 쓰이고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10. 우리가족의 일상 저녁	/SDV_3331/ 영상내용: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님 /SDV_3332/ 영상내용: 저녁 먹고 있는 우리가족 /SDV_3337/SDV_3338/ 영상내용: 형광등을 갈고 있는 아빠 /SDV_3339/ 영상내용: 청소를 하고 있는 부모님 /SDV_3343/ SDV_3346/ 영상내용: 논문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족. 괴로워하는 나
나의 이야기 #11. 할머니 사진	/사진091130_002/ 나레: 어린 시절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나의 외할머니다.

#12. 부모님이 일하는 사진	/IMG_0744/ IMG_0718/ IMG_0887/ IMG_0889/ IMG_0723/ 나레: 엄마아빠는 일을 나가야 했고 엄마아빠가 없는 동안 나를 보살펴 준 건 외 할머니였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줬다.
#13. 할머니 사진	/사진100112_007_edit/사진100130_018_edit/사진100130_029 나레: 나는 할머니에게 많이 의지했고 할머니를 좋아했다. 그래서 때도 부리고 화도 잘 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날 다 받아줬다. 어린 시절 나에게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
#14. 나와 할머니 사진	/IMG_0723/SSA52276(초등학생 때)/ 나레: 그러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 할머니에게 교통사고가 났고 얼마 있다가 풍으로 쓰러지신다. 그 일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
#15.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나	/video-2014-03-09-01-39-36/ 영상내용: 어렸을 때 힘들었다란 내용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그때 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혼자가 된 것도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진 것도 소중한 사람이 아픈 것도 모든 게 날 불안하게 했고 힘들었다.
#16. 부모님 인터뷰	/SDV_3455(8월11일 1분47초~)/ 인터뷰내용: 할머니 아팠을 때 얘기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그럼에도 난 아무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다. 왜냐면 엄마 아빠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7. 옛날 엄마 사진	/IMG_0722/ 나레: 그 당시 엄마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18. 옛날 아빠 사진	/IMG_0720/ 나레: 아빠는 다가가기가 힘들고 어려웠다. 아빠는 나에게 강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19. 어릴 적 나와 가족들 사진	/IMG_외조모민석/ 나레: 그때 난 버려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의지하고 소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IMG_0793/ 나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서 /IMG_0914/

	나레: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과 함께 버려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 기분은 오랫동안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20. 중학생 때 사진	/중3친구들/ 나레: 언제나 나는 갑자기 버려질 수 있고 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중3칭칭친구들/ 나레: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나 오이든 사진/ 나레: 내가 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날 떠날 것 같았다. /물놀이/ 나레: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애썼고 깨지지 않기 위해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
#21. 엄마 인터뷰	/SDV_3455(8월11일 9분33초~11분44초)/ 영상내용: 내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게 엄마의 영향일 것 같더라는 내용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그때 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다.
#22. 어릴 적 내 사진	/IMG_0810/ 나레: 하지만 난 어렸기 때문에 힘들었고 잘 할 수 없었다. /꾸미기_SA702592/ 2006년 11월 들살이 149/ 나레: 그래도 견디려 했지만 그럴수록 난 더 나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SSA51936/ 영상 내용: 영어 발표 뒤에 나레이션과 비슷한 내용 영상나오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어리다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무능력한 것이 싫어졌다.
#23. 중학교 때 받은 상장	/입학식/ 나레: 그런 일들이 정리가 안 된 채 흘러 가다보니 난 더 반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1학년 간디인상/ 2학년 간디인상/ 3학년 간디인상/ 나레: 더 어른스럽게, 더 완벽하게, 무능력하지 않게
#24. 아빠 인터뷰	/SDV_3455(8월11일 13분35초~14분25초)/

	영상내용: 내가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했다는 얘기
#25. 자막 2014년 1학기 기말평가서 담임총평	자막: 저는 작년의 민석이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남을 배려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우리가 너무 심어줬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것에도 강박당하지 않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 안에서 말이죠. 남의 생각이 아니라 -2014년 1학기 기말평가서 담임총평 송민혜 - 자막 나오면서 나레이션 나레: 그러다보니 난 실패와 실수가 두려워졌고 실패하지 않으려 더 쉬운 길로만 찾아서 갔다.
#26. 옛날사진을 보고 있는 가족들	/SDV_3462/ 영상내용: 옛날 가족사진을 보며 그때 얘기를 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온다. 나레: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27. 어렸을 때의 사진or 지금의 나	/SSA51077/ 나레: 나는 그때동안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들을 보고 마주하니 부끄럽고 쪽팔렸다. /SSA51589/ SSA51665/ 나레: 어렸을 때의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나를, 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MVI_0497(8월20일)/ 영상내용: 지금의 나(무음) 나레: 지금의 내가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더디고 힘들었다.
#28. 가족사진	/IMG_1024/ 나레: 나를 돌아보고 나니 우리가족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IMG_1034/ 나레: 따듯하고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좋은 모습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가족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29. 엄마와 나의 사진or영 상	SAM_0086(초등학생 때) 나레: 나에게 힘과 도움을 주던 엄마는

	IMG_0950 나레: 16살인 나를 6살 아이로 보는 과잉보호하는 엄마이기도 했다. SDV_3267(7월16일 4분9초~) 영상내용: 내 손갈에 반찬 올려주는 엄마 나레: 나는 그 과잉보호가 싫었지만 관계가 깨질까봐 거부하지 못했고 IMG_0947 나레: 또 다른 마음 한편엔 영원히 엄마의 아이로 남아있고 싶어 하는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엄마를 거부하지 못했다.

#30. 아빠와 나 사진or영상	IMG_1009 나레: 친구 같던 아빠는 나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다. SDV_3357(7월27일 1분7초) 나레: 나는 아빠에게 속마음도 꺼내지 못하고 화도 못 냈다. 나는 아빠를 어려워했고 무서워했다.
#31. 엄마의 아침 일과	SDV_3316/ SDV_3324(7월23일) 영상내용: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 SDV_3320(7월23일 34초쯤) 영상내용: 빨래를 널고 있는 엄마 SDV_3326(7월23일) 영상내용: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는 엄마 한입 얻어먹는 나
#32. 엄마의 어린 시절	IMG_0761 나레: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계셨다. 그래서 IMG_0757/ IMG_0758 나레: 외할머니는 엄마를 혼자 낳았다. 그렇게 엄마는 외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IMG_0731 나레: 엄마가 4살이 되던 해 지금의 외할아버지가 새아버지로 들어온다. IMG_0774/ IMG_0773 나레: 그리고 다음해 엄마의 여동생 태어난다. IMG_0794 나레: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큰 결핍은 자신의 엄마와 아버지였다.

	IMG_0778 나레: 여자 둘이 살던 집에 남자가 들어와 여러 면에서 부담은 덜었지만 IMG_0754 나레: 엄마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로 인해 엄마를 뺏기고 자신의 자리가 없어 질까봐 불안했다.
#33. 엄마 인터뷰	SDV_3445 4분34초~5분32초 인터뷰내용: 그런 속에서 자라니까 내가 계속 가졌던 생각은 내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 끈이 엄마밖에 없다는게 있었고 동생한테 질투도 있었고 또 내가 외향적이잖아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시끄러운 애였던 거야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러는 거처럼 그랬던 이유가 찾아보니까 그래야지 내 존재감이 강해진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떠오르는 건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너무 애썼던 거 같더라고 시끄럽고 어렸을 때 불안했지
#34. 엄마의 어린 시절	IMG_0730 또 자신에게는 친아버지가 없다는 것, IMG_0783 지금의 아버지는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IMG_0853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마의 평생 숙제였다.
#35. 엄마 인터뷰	SDV_3437 3분55초~4분7초 인터뷰내용: 내 동생하고는 분명히 다른 아버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난 항상 그게 결핍이 컸던 것 같아. SDV_3438 8분47초~9분33초 인터뷰내용: 내가 이게 풀리지 않으니 계속 오줌 싸서 한 5학년 때까지 그게 미치고 나도 미치고 환장 하겠더라고 눈 떠보면 오줌이 싸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내 기억 속에선 어떻게 했냐면 화내는 거지 뭐 이렇게 욱도 하고 미친년 아주 날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애가 이불빨래 계속 내보내는데 진짜 괴롭지 그렇다고 세탁기가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나도 엄마가 괴로워하고 나도 나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괴롭지 난감함이 있어 10분22초~10분38초 인터뷰내용: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막 풀리지 않으니 오줌이라도 싸는 거 같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깐 안 그러면 죽었겠지 죽었을까? 돌아나? SDV_3438 7분4초~7분51초 인터뷰내용: 나는 애 잘 키우고 싶었거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족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더 무섭다. 왜냐면 이게 고착화 되거든 어떤 커다란 노력이나 자잘한 노력 없이 그냥 쭉가버리게 되면 상처주는 관계는 계속 상처주는 거고 부딪히는 건 계속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엄마는 어렸을 때 느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달라지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다.
#36. 다시 엄마 인터뷰	SDV_3445 6분26초~7분48초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쪽 왔으니까 많이 불안하고 실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있잖아 가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소중하고 이 따뜻한 내 가족이 있고 가족이 따뜻하고 좋고 이런 감정이 상담하면서 생겼어 (그럼 상담하기 전엔 그런 감정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틀로만 있었던 거지 그것도 뭐 노력해서 생긴 거지 (아빠랑 나도?) 그렇지 좀 그냥 어, 가족은 이래야 되만 그런 거는 그냥 뭐 가족은 피를 나눈 거고 따뜻해야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랬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막 방황하고 술도 먹고 이랬을 때 너 힘들게 한 것도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영향에서 왔지만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지 SDV_3445 11분~12분27초 그 나이 때 그 시간 때 사람들이 바쁘고 그게 아이한테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손잡고 송내역까지 데려다주고 내 마음이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버스 좀 혼자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손잡고 송내역까지 가고 송내역에서 내가 버스를 타면 손흔들어주고 몇 번을 하면 니가 스스로 엄마 나 혼자갈 수 있다고 얘길 할 거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는 하고싶은 생각도 없는 근데 이제 해야지 라고 해서 갔는데 송내역에 올라가고 보냈던 기억도 나고 너 혼자 다니게 되고 그런 노력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그때 있잖아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 송내역에서 너 손잡고 올라 가는데 내 안에서 왜 애만 해줘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 진짜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조용히해 이렇게 안해주면 너처럼 힘들어해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13분6초~13분25초 그렇게 하고 또 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내 어린 내가 그렇게 보살핌을 받고 싶었구나. 라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소중함도 느껴지고 그렇게 바뀌더라고
#37. 아빠의 일상 7월17일	SDV_3282 영상내용: 아빠 불박이장 정리를 위해 망치질을 하지만 벽이 단단해 못이 안 박힌다. SDV_3283 영상내용: 아빠 드릴을 가져온다. 벽을 뚫는다. 철 구조물을 단다. SDV_3290 영상내용: 총을 정리한다. SDV_3294 영상내용: 정리 끝~ 영상의 호흡으로 인해 삭제됨.
#38. 아빠의 어린 시절	IMG_0936/ IMG_0648 아빠는 2남2녀 중 둘째였다. 그 위로는 누나 밑으로는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었다. 아빠의 가족은 처음엔 다 흩어져 살았다. IMG_0560 남동생은 아빠의 엄마가 키웠고

	IMG_0529 누나는 증조할머니가 아빠는 큰고모님이 키웠다. IMG_0449 그러다 아빠가 6살이 되던 해 IMG_0796 아빠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빠의 아버지는 다른 분과 결혼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 즈음 작은 고모가 태어났다. IMG_0565 이혼을 한 후 4남매가 다 모인 건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다. IMG_0520 그 후 40년 동안 나의 친할머니는 홀로 4남매를 키웠다.
#39. 아빠 인터뷰	SDV_3441 6분36초~7분9초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는 게 없어 내가 깃스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으니까 아빠가 저녁에 바나나 사다준 기억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야 워낙 아빠랑 산 날이 별로 없어 그 즈음이었을 거 같아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그 몇 년 안에 이혼을 한 거 같아. 13분31초~14분8초 (그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에 결핍이나 화는 없었어?) 항상 있었지 가장 황당했던 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해 글을 써오라고 그러는데 막막하더라고 머리가 완전히 백지가 되고 막막한 느낌 뭐 어떻게 뭐가 있어야 쓰지 축구 안 해본 놈한테 축구 얘기해서 쓰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18분7초~19분19초 Q. 가족들과는 주로 무슨 얘길 했나요? 제일 중요한 건 얘길 못했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난 아빠가 없어 친구들한테도 얘기안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 안하고 그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그럼 막 손가락질했어. 이혼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이혼했다 그러면 애비없는 자식들 후레자식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이혼했다. 그러면 일단 무시치거든 그게 컸어 그 시대에는 그래서 감추는 거지 근데 그걸 감추려면 하나 감추면 계속 거짓말이 자꾸 커지잖아 그런게 힘든 거지 (감추는게) 그게 모든 형제들이 힘들었을 거야 공통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집에 친구들을 안 데려왔어 자고라도 가면 니네 아버지 왜 안 들어오냐 출장 갔다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 있잖아 21분20초~22분16초 안 풀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부숴갖고 너의 스트레스를 만든거지 뿌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된단니까 꼭꼭 누르고 참는 거지 참았던 의식도 없이 참는거지 그니까 술 먹고 그 화가 막 나는 거지 같이 있는 사람도 황당하지 갑자기 저게 미쳤나?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된 화지 오래 묵힌 화지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누르고 누르니까 조그만 열어도 펍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아빠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빠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40. 아빠 사진or 결혼식 사진	IMG_0862/IMG_0637/ IMG_0665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빠는 자신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빠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고 했다. IMG_0790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41. 아빠 인터뷰	SDV_3441 34분23초~35분21초 결혼을 해도 문제 아빠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지금도 걱정인거야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때 아빠랑 뭐했는데 난 없잖아 난 중학교 때 아빠가 없었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니가 중학생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고 그 경험이 없는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난 아빠가 맨날 때리고 그래서 맞은 기억이라도 있는데 난 맞은 기억도 없잖아 아빠있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 맨날 때리고 구박하는 아빠가 없는 게 좋지 꼭 있어야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없어본 놈한테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 35분29초~36분5초 지금 이 순간도 걱정이야 이게 관계가 없잖아 나는 부모 자식간에 그게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경험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했던 기억들 이게 자연스레 너한테 가는 건데 난 뭐 책으로 배워서 너한테 전해줘야 되나 그런 상황이잖아 나의 가장 큰 문제고
#42. 친할머니 집 마당 아빠가 보수공사	SDV_3296(0분0초~1분06초) 아빠 마당 망치질하는데 할머니 덩다고 우산쓰라고 함 SDV_3297(1분13초~4분22초) 시멘트를 만드는 아빠(할머니 잔소리 “아가야 빨리 들어와”) SDV_3298 마당에 시멘트 칠하는 아빠 SDV_3301 1분17초~3분27초 할머니 잔소리 4분57초~5분50초 우산 펴는 할머니 6분11초~6분57초 우산 씌워주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나레이션 나온다. 나레: 2013년 봄,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자신과 가족들을 버리고 몇 십 년 동안 남으로 살아온 사람을 만나러 가는 아빠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 아빠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다. 내가 아빠였다면 화가 나서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다. 아빠는 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까?
#43. 아빠 인터뷰	SDV_3441 25분23초~25분46초 (아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잖아 그때 어땠어?) 덤덤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슬펐지 상태와 상황이 26분44초~27분34초 (그럼 찾아간 이유는?) 아버지니까 혼자 남았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라도 치를까 그런 생각에 그전에 연락이 왔었어. 사회복지사한테서 우리 다 버리고 나간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마라 대신 돌아가시면 연락해라 수습은 하겠다. 사회복지사가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고 끊었어. 그래서 갔는데 같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혼자남아서 간 거지 28분10초~28분37초 (딱 만났을 때 어땠어?) 뭔가 그냥 있을 거 같은 데 뭐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별 감흥 없었고 첫말이 너희들이 웬일이냐? 이거 였어 그냥 뭐 몇십년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들 같지 않고 주말에 놀러가듯이 그런 느낌이었어. 29분54초~30분30초 그땐 너무 불쌍해서 거의 노숙자 신세였어. 아버지가 뭐 아무것도 없어 집도 누가 하나 준거야 노인이니까 그런 얘기 듣는데 마음이 아팠지 뭐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뭐 거의 노숙자처럼 집만 있었다 뿐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있지 반찬하나 놓고 물에 밥 말아 먹고 딱 그런 모습이었어. 31분7초~32분14초 그렇게 밑바닥 생활까지 하니까 계속 돈 천원에 벌 벌 떨어라고 커피 먹을 때도 너무 비싸다. 갈 때마다 너무 비싸다. 이 돈이면 며칠 먹는데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내가 얼마 안 되는 기억하고 너무 달라 무너졌다고 하나 그런 게 되게 가슴이 아팠지 가슴이 아프면 서 한편으론 나가야되는데 옷을 막 따지는 거야 이거 안 입고 길고 막 이러니까 참 저거를 삼십 년 만에 아들을 봤는데 할 얘기가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삼십년 만에 찾아온 아들한테 옷이 마음에 안든다 내 집 가서 내 옷을 찾아 입겠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아무 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때까지 그랬는데 지나면서 무너진 모습이 보인거지
#44. 엄마 아빠의 모습	SDV_3406 (20초~나레이션 끝날 때 까지 8월4일) 영상내용: 엄마 아빠 T.V보며 포도를 먹는다. 나레: 나는 우리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SDV_3401 (4분54초~5분6초/ 2분34초~2분54초/7월31일) 영상내용: 엄마 아빠 둘이서 요리하는 모습 나레: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상처를 받고 관계가 나빠져서 우리가족이 깨져버리고 나는 버려질 것 같았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기간 내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SDV_3439(8월6일 영상내용: 엄마 인터뷰 하다가 운다.) SDV_3441(8월7일 영상내용: 강

	아빠 인터뷰 영상) 영상 무음. 나레: 근데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가족들과 얘기해 보기로 했다.
#45.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가족들	MVI_0497(57초~1분17초) 얘기를 꺼내는 나 내가 말하고 있는데 서서히 소리가 없어지면서 나레이션 나레: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얘기를 시작했다. MVI_0497과 SDV_3482의 교차편집 (5분11초~6분55초) 어렸을 때 느꼈던 상처를 얘기하는 나 (버려진 것 같다는 어린 시절 아픔) SDV_3482(14분2초~1419초/ 15분30초~16분30초) 엄마의 과보호에 관한 얘기 39분0초~40분0초/ 46분0초~49분0초 아빠와 나의 소통의 어려움의 관한 얘기 40분15초~41분20초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했던 나의 얘기 18분50초~19분6초 버려질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엄마 51분5초~51분33초 평생 모를 수도 있던 가족의 문제를 알게 돼서 좋다는 아빠 51분33초~53분24초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느꼈던 나의 소감
엔딩 #46. 왕산해수욕장 (7월30일)	SDV_3385 바닷가 풍경 SDV_3386 물에 빠지는 아빠 SDV_3388 물에서 노는 부자

	SDV_3394/ SDV3395 물 밖에 나온 부자
#47. 아빠 흰머리를 뽑아주는 엄마(8월5일)	SDV_3433 흰머리를 뽑아주는 부부 영상 나오다가 소리 줄어들면서 나레이션 나래: 영화를 만들면서 외면하고 있던 나의 아픔들을 꺼내고 엄마 아빠의 삶도 만나봤다. 그러면서 마주하기 두려웠던 가족의 문제들을 가족들과 함께 얘기 해봤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은 못하겠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풀기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8. 엄마 노래부른다.	SDV_3484 엄마 노래를 부른다. 서서히 페이드 아웃
#49. 엄마 생일 파티	서서히 페이드 인 초등 생일파티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생일파티
#50.	엔딩크레딧

2.제작일지

<촬영제작일지>

학기 중 덕산 5월10일
7월15일 첫촬영 밤 아빠와 함께
7월16일 아침 엄마와 함께
7월 16일 밤 엄마아빠이모와 함께
7월17일 밤 아빠 불박이장 정리
7월19일 낮 할머니네 마당 시멘트칠
7월19일 밤 학교 선배와 엄마아빠와 답소
7월22일 밤 엄마와 저녁 여기 꽤 중요
7월23일 낮 엄마의 아침일과
7월23일 밤 엄마아빠 저녁
7월26일 낮 티비와 미오(우리집에 잠깐 왔다간 이모네 고양이)
7월27일 아침식사, 미오, 영화관
7월28일 미오와 작별
7월30일 왕산해수욕장
7월31일 토마토 샐러드 만든 저녁

8월2일 오전에 거실에서 영화 봄
 8월4일 밤 엄마아빠 포도 먹으며 tv봄
 8월5일 오후 엄마 집 청소, 흰머리 뽑기, 일상
 8월6일 엄마 인터뷰1
 8월7일 아빠 인터뷰
 8월9일 엄마 인터뷰2
 8월11일 엄마아빠 인터뷰
 8월12일 아빠 직장, 국자
 8월19일 엄마 아빠 옛날 사진 봄
 8월20일 오후 엄마 아빠 장보기 & 엄마 빨래
 8월20일 밤 엄마 아빠와 문제 얘기
 8월22일 밤 엄마 아빠 노래
 8월22일 우리집
 8월22일 우리가족 옛날사진 찾음
 9월8일 외할머니 납골당

<편집구상&편집제작일지>

9월1일부터 16일까지 큰 틀 짜기
 9월17일 엄마와의 영화에 대한 얘기로 전화함
 9월18일부터 23일까지 영화 시나리오 제작
 9월24일부터 30일까지 가편집. 윤하샘과 민혜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 받음
 10월1일부터 3일까지 마무리 편집하고 작품완성, 예고편 제작

<상영준비&영화홍보>

10월4일 가족을 보다 포스터 제작 및 상영시간표 대자보 제작
 10월6일 주여시간 때 예고편 상영
 10월7일 1차 상영
 10월8일 2차 상영
 10월10일 삼간디 영상제에서 상영

3.가족들의 평가, 정리

논문을 함께 진행해온 엄마 아빠의 얘기도 들어봤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의 문제를 얘기했던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담긴 영화는 어땠는지. 엄마 아빠의 영화평가와 그때동안 논문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들으며 논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빠의 얘기>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영화에 잘 담아냈다. 또 그렇게 많이 찍은 것을 잘 간추려 담아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고 느꼈다. 재주가 있구나 느꼈다.

논문을 하는 동안에 너무 잘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논문을 하면서 민석이의 고민을 듣고 영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일상에서 민석이의 고민이 더 잘 느껴지기도 했다.

<엄마의 얘기>

영화에 직접 내 모습이 나오니 긴장되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좀 힘들었다. 또 영화를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일상이었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민석이가 영화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니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애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논문을 하는 동안 우리 가족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다. 물론 힘들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논문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하려는 민석이를 보면서 '일을 정성껏 하는 좋은 점이 있구나.'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는 시간이었다.

4.간디인의 영화 평가

학교에서 총 4회의 상영을 했고⁶⁾ 73명의 간디인들이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감상평을 돌렸고 69명의 감상평을 받았다. 그 중 15장의 감상평을 골랐다.

전체적인 영화의 평은 호의적이었다. 잘 만들었다는 애기, 용기 있고 솔직했다는 애기, 공감이 되고 자신의 가족을 돌아봤다는 애기 등, 내가 하고 싶었던 애기들을 관객들이 잘 들어주고 이해했다.

1학년 이한결

딱히 신나는 장면 없이도 묘하게 빠져들었다. 솔직한 가족의 이야기에 내 가족도 돌아봤다.

1학년 전하진

다큐멘터리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다크에션 민석오빠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다시 해본 것 같다.

2학년 전선

가족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민석오빠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 몰랐고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다. 나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일부러 밝게 하기도 했고 그러다 화를 내면 내가 불안하기도 했다. 나도 아빠랑 같이 안 살아서 소통이 조금 어려운데 애기를 하면 될까? 라는 생각도 했다. 음... 감동적이었고 재밌기도 했다. 영상 찍은 거 다 이어서 보라고 해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짧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다. 가족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것이 좋은 것 같다.

2학년 전하성

정말 잘 만들었다. 저 형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내심은 걱정이 많은 듯하다.

3학년 최형서

진짜 잘 봤다. 민석이가 자신의 가족으로 찍은 것이지만 나의 가족 생각도 많이 났다.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영화였다.

4학년 서하린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알고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밝고 걱정없이 막무가내로 살던 김민석군에게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용기가 멋지다!! :)

5학년 양성민

무슨 영화일까 했었다. 논문? 영화? 하지만 보는 내내, 보고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민석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고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인생에서 한 번은 거쳐야 할 숙제를 이렇게 멋지고 용기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쑥스럽기도 하고 더 대단히 느껴진다.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6) 학교에서 3회, 기숙사에서 1회 상영. 번외로 논문발표 때 학부모님들께 상영.

5학년 양지훈

민석이는 부럽다. 이 다큐를 보고 좀 더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못했던 얘기를 진솔하게 할 것 같다. 민석이가 많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를 혼자서 깨닫고 행한 것이 놀라웠다. 더불어 세심한 영상의 기술들이 보는 사람들의 집중을 많이 도왔던 것 같다.

5학년 김소아

왠지 눈물이 핑 돌았다. 얌전한 민석이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런가. ㅋㅋ 통과, 불통과를 떠나서 논문을 통해 힘들지만 가족과 소통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게 부럽고 대견하다.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용기를 얻은 것 같다.

6학년 김현정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느낀 게 많았을 것이고 감독이 느낀 감정을 같이 걸은 것 같아 좋다. 가족들과의 사이가 따뜻해보여서 해피엔딩이네요.

6학년 홍지인

민석이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었다. 진짜 좋았소!

아름쌤

영상을 보니 내 어린 시절 힘들었던 고민들, 가족과의 소통이 생각나서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한 걸음 내딛었으니 더 소통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석아 고맙다!

선호쌤

진솔한 가족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학생이 만들었다기보다 전문 작가와 연출자가 만든 따뜻한 휴먼 다큐 한편을 본 듯한 느낌입니다.

손쌤

감동이다. 가족의 상처를 들어낸다는 건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상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눈물도 났다.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된다. 이 다큐를 통해 치유가 되길 바란다. 다큐적인 측면에서 스토리 전개, 구성, 화면, 나레이션. 굉장히 훌륭했다.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봤다. 민석아 넌 너무 훌륭해.

학부모님 임진미(시은이네 어머니)

제목을 그대로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민석가족을 보면서 민석가족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괜히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고 친해진 느낌입니다. 또한 민석이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이미 성장했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영화에서 민석이가 말했듯이 누군가와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말할 수 있다는 것,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을 나 자신도 깨닫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깨달은 민석이에게 화이팅을 보냅니다.

5.외부인의 영화 평가(삼간디 영상제)

10월10일 가정학습 기간에 나는 삼간디 영상제에 내 영화를 틀었다. 영화의 길이가 영상제 기준에 맞지 않아 비경쟁 부문으로 출품해 초청작으로 분류됐다. 영상제에 나간 이유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화를 보여주고 외부사람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다.

영상제에서 받은 영화의 평은 학교에서 받았던 평과 거의 비슷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든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기만 즐기는 얘기 같다. 등의 혹평도 여럿 있었다. 많

은 삼간디의 간디인들이 내 영화를 봤다. 그 사람들에게 30장의 감상평을 돌렸고 23장의 감상평을 받았다. 그 중 7장의 감상평을 골랐다.

산청간디고등학교 1학년 김민성

처음일지 마지막일지 모르는 내게 솔직한 '너'를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 영상도 재미있었고 이런 걸 다큐로 또 만들어 보고도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산청간디고등학교 1학년 정진한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줘서 좋았다. 나도 한때 들었던 비슷한 감정, 경험이 느껴져 감동을 느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어 고마운 다큐, 영화였다.

산청간디고등학교 1학년 변건희

저도 이런 아들 갖고 싶어요. 사실 한 살 밖에 어리지 않지만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조금은 대견하구요! 저도 중학교 때 논문 썼었는데 자기성찰은 어른들도 힘들 거래요. 솔직한 영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구요. 담긴 뜻 다 전달됐어요. :) 멋져요!

산청간디고등학교 2학년 이룸 비밀

주제는 무척 좋네요. 자신의 가족 돌아보기. 그걸 통해 자기성찰도 하게 된 거 같아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좀 지루해요. 편집이나 내용이 다소 아쉬워요. 잘 봤어요.

산청간디고등학교 2학년 박소현

보는 내내 흐뭇하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가족 이야기를 생중계처럼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산간디고등학교 3학년 정수연

진솔하고 우직한 자기 찾기의 과정이 담백하게 드러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외면하고픈 나의 모습을 집요하게 캐가는 과정이 힘겨웠을 텐데 결국 영상으로써 완성해낸 것에 격려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나의 고민 등이 저도 공감되고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영상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금산간디고등학교 3학년 박태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보는 내내 저의 과거가 겹쳐 보여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소통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만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내가 진심으로 내 얘기를 했고 사람들도 내 얘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줘서 참 고마웠다. 영화를 만드는 일이 참 즐겁다는 걸 만들면서도 느꼈지만 만들고 나서 상영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됐다.

6. 감사한 분들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윤하쌤. 쌤 덕에 끝까지 쪽 끌고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 논문과 영화는 완성하지도 만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만큼 힘들었을 텐데 내 짜증까지 다 받아주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잘 살아

봐요~

콩자반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신 민혜쌤 상현쌤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ㅠ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잘 이겨낸 우리 콩자반 남성동지 여성동지들도 고생 많았소!!!

빨비실 빌려주신 선호쌤 영화포스터 만들 때 도와주신 리아쌤 베가스11 깔아주고 알려준 동헌이 편집할 때 옆에 있어준 지담이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같은 방하면서 같이 놀고 나 많이 챙겨준 한새형, 그냥 무척 많이 사랑하는 하성이ㅋㅋㅋ 방 203호 완전 좋았어요.~~~ 다음에 또 방하자~~~

영화 봐주신 모든 관객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편지까지 보내주신 금산 간디고등학교 1학년 노규미씨도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편지 진짜 감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화를 보여줬지만 그 수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규미씨처럼 내 영화를 보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용기를 얻었다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나는 당신의 편지로 인해 엄청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땡스투에 이름 넣어달라던 김예현ㅋㅋㅋㅋ 학교생활 잘하고 빨리 논문 써ㅋㅋㅋ

빨간비디오 파이팅!!! 내일은 2M파이팅!!! 제천간디학교 만세~!!! 영화 '가족을 보다' 대박!!! 논문1차 예~~~~~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

논문 끝 THE END

여러 가지 조명 만들기

지도교사: 정종명



이름: 김시훈

생년월일: 1999년 9월 9일

혈액형: O형

좋아하는 것: 귀찮지 아니한 것, 껌-임,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취미활동, 입에 뭐 넣고 씹기, 커피, 빈둥대기, 누운 자세, 어둡고 조용한 나만의 공간, 정리정돈된 것들, 요리하기, 나무위키 둘러보기, 랜선과 와이파이 등등

싫어하는 것: 귀찮은 것, 강요, 파프리카, 습한 거, 비, 눈, 나의 주관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카페작업장, 트라우마 건드는 것, 게임이 렉 걸릴 때, 게임 서버점검, 랜선이 없는 공간, 기숙사에서 뜨거운 물 안 나올 때, 애매한 자세.

취미: 껌-임, 독서, 요리, 나무위키 돌아다니기, 어떻게 하면 귀찮지 않을까 생각하기

한마디:

껌-임-!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II . 본론

1. 조명이란?
2. 조명 제작
 - (1) 콜라 캔 등 만들기
 - (2) 커피 캔 등 만들기
 - (3) 아크릴 상자 등 만들기
 - (4) 아크릴 상자 등 만들기 2
 - (5) 아크릴 파이프 등 만들기
 - (6) 아크릴 상자 등 만들기 3
3. 조명 설치 및 평가
 - (1) 알맞은 장소에 설치하기
 - (2) 만든 조명 평가받기

III . 결론

1. 논문의 한계
2. 논문을 끝마치며

부록. 작품일지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나의 논문 주제는 계속 바뀌었다.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작품, 연구까지. 주제는 계속 바뀌었고, 주제들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다가나, 그 일을 할 때 즐겁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정말 난감해졌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2학기가 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쓰고 싶은 논문을 찾지 못했다. 1학기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작품논문으로 가 보자는 얘기도 종명쌤과 상의해 보았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 접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2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1차 논문 발표가 다가오고,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렇다고 놓아버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인 ‘LED를 활용한 제품과 그 작품의 활용’이라는 프로젝트 주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잘 풀리지 않는 논문과, 의욕도 바닥을 찍는 바람에 논문의 진행도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 1차 발표가 다가왔다. 1차 발표를 며칠 앞두고 어진이나 민석이, 지담이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논문을 진행하는 친구들을 보며 진행도가 바닥인 내 논문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고 정말 그 때만큼 많은 생각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 1차 발표가 끝나고 내 멘탈은 박살난 상태였다. 1차 발표가 끝난 후 1주일간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날 믿어주는 부모님, 종명쌤, 민혜쌤, 상현쌤, 콩자반 친구들. 날 믿어준 사람들에게 뭐든지 보여주지 못 할까봐,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할까봐 무섭고 두려웠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인 조명등 만들기로 주제를 바꾸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해온 논문을 집어 던지기도 못하고 무엇보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기에 주제를 바꾸는 것을 포기했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2차 발표날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1차 발표 이후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었기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했으나, 논문 진행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차 발표 전까지 내가 한 활동으로는 전구 교체 시뮬레이션과 통계, 조명 몇 가지밖에 없었고 몇몇 규칙을 어겨 가면서 논문의 진행률을 올리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2차 발표는 지나갔고, 3차 통과 밖에 남지 않았다. 3차 통과밖에 남지 않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해보고 싶은 논문은 쓰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패해도 잃을게 별로 없었기에 그 길로 종명쌤께 얘기하고 작품으로 방향을 텤다. 위의 얘기들이 이 논문의 동기이자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과정이었다.

2. 논문의 목적

주변에서 필요한 조명 기구를 만들고 설치한다.

II. 본론

1. 조명이란?

조명: 광선으로 밝게 비춤. 또는 그 광선.

조명 기구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다.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백열등, 할로겐등, LED, 마이크로 라이트, (초소형 전구)등등. 손꼽을 수도 없는 많은 종류들의 조명 기구들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또는 특수한 목적들을 위해 밝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3분의 1은 조명 기구들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일상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 조명 기구들의 본격적인 발달은 발명왕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 1892년경,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는 가스등으로 거리를 밝혔는데, 이 가스등은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어려웠다. 첫 번째로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시간당 잡아먹는 가스의 양이 엄청났다. 세 번째로는 가스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원리이다 보니 화재가 나기 쉬웠으며, 수명이 매우 짧고 소음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이런 가스등을 보면

서 에디슨은 작고 오래가며, 동시에 밝다고 생각될 정도의 밝기를 가진 조명 기구가 있다면 가정 보급이 쉬울 것이고, 여러 가지 산업면에서 다용도로 쓰일 것이라 생각해 새로운 조명 기구 제작에 착수했다. 에디슨이 현재의 백열등의 시초가 되는 전구를 만들 때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오랜 시간 탈 수 있는 필라멘트가 없다는 것이었다. 수 십 가지의 다른 재료들로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1시간을 넘기는 재료가 없었다. 이에 낙담한 에디슨은 몇 가지만 더 해보자는 생각에서 대나무의 섬유질을 끈 것을 필라멘트로 사용했고, 대나무의 섬유는 72시간을 넘게 탔다. 에디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0시간이 넘게 탈 수 있는 필라멘트의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 실험을 계속하던 에디슨은 실험한 잔해들을 정리하다 검게 굳은 타르와 몇 가지의 화합물들을 발견하고 검게 굳은 물질을 얇게 꼬아서 필라멘트로 사용했더니 128시간 이상을 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전등을 상용화했으며, 가정에서도 문제없이 전등을 사용할 수 있게 전력발전소를 지었으며 동시에 변압기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전구의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필라멘트가 훨씬 더 오래 버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전구의 발전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었다. 광산업에서는 가스등 대신 전구를 사용하면서 안전하면서도 빠른 채굴이 가능해졌고 여러가지 타 산업에서도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다른 산업들과 함께 조명 기구들도 같이 발전해나갔다. 1926년에는 백열등보다 발산하는 열이 적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색상, 소비하는 전력도 조금 줄어든 형광등이 개발되었다. 동시에 유리를 다루는 기술도 발전하면서 형광등과 백열등의 크기 조절이 쉬워졌다. 다음으로 1962년에는 밝기가 가장 밝은 할로겐 등이 발명되었다. 밝기나 빛의 세기는 형광등과 백열등은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발열량과 전력 소모량, 수명 등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에 속했다. 다음으로는 1967년에 LED가 발명되었다. 처음에 LED가 발명되었을 때에는 흰색, 적색, 녹색밖에 있지 않아 다방면에서 사용되기는 어려웠으나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청색 LED가 발명되면서 디스플레이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하는 전력이 매우 적고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각광받고 있는 LED이다. 요즘은 개발되고 있는 조명 기구인 마이크로 라이트는 극 미세 전구로, 같은 면적 및 크기로 따진다면 형광등보다 17배 이상 밝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쓰이는 곳도 용도도 매우 다른 조명 기구들이다. 이 조명 기구들은 우리가 세상을 안락하고 편하게, 또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2. 조명 제작

(1) 콜라 캔 등 만들기



조명등 이름: 콜라는 언제나 옳다

만든 날짜: 2015년 2월 15일

만든 목적: 장식등&테이블 등

제작 난이도: ★★★

제작 시간: 1시간 30분~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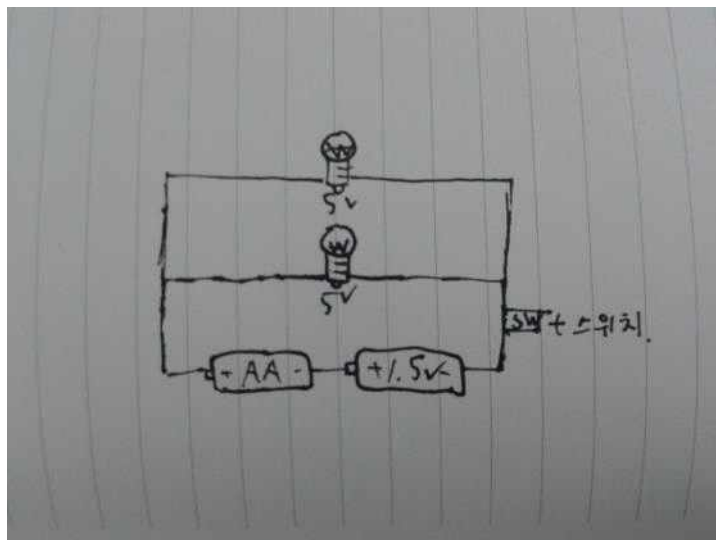
아쉬운 점: 밖으로 나온 건전지와 스위치, 잡다한 선들.

제작 비용: 5800원 (콜라 캔 2000원+전구 2개 800원+스위치 500원+전선 2500원)



이 조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주변 지인들에게 조명이 필요하진 않느냐고 물어볼때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들어왔다. 내용인즉슨 '네가 조명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어머니가 카페에서 일하신다. 카페에 어울릴 만한 조명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당장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다.

내가 기존에 조명등을 만들어 오던 방식은 조명 위를 색깔이 들어간 투명한 물체로 덮은 뒤, 색지나 한지 등을 덧붙여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명은 조명을 완전히 불투명한 캔 안에 집어넣은 후,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빛이 퍼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다. 디자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 봤으니 회로 방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보았다. 그 중 첫 번째 시도는 LED 단자를 1.5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단자들은 전압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타 버렸다. 두 번째로 시도해 본 것은 배터리와 전압이 맞는 3V짜리 꼬마전구를 구해서 병렬로 정렬한 배터리에 연결해보았다. 결과는 꽤나 괜찮았다. 빛은 약하지만 불은 들어왔다. 뒤이어서 약한 빛을 해결해보려고 전구를 하나 더 연결해보았지만 빛은 여전히 약했다. 빛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을 포기했다.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구 2개를 병렬로 배치했더니 만족할 만한 빛이 나왔다. 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꼬마전구의 빛이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사용할 만한 가치도 충분했다. 회로 문제가 해결되고 본격적인 만들기로 들어갔다.



▲ 회로도

캔과 꼬마전구를 쓴 것은 처음이라 잘 될지 걱정되었는데, 회로도를 그리고 직접 실험해보니 걱정이 조금은 사라졌다. 다음 문제는 캔과 꼬마전구가 얼마나 잘 어울려서 적당량의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였다. 캔에 구멍을 뚫고 전구들을 캔의 안으로 집어넣자 캔의 구멍들로 여러 각도에서 빛이 나왔다. 생각

했던 대로 진행되자 배선들을 정리하고 전구들을 캔 속에 고정하려는데, 콜라 캔이 자꾸 넘어졌다. 바깥으로 달려 나와 있는 건전지들에 비하여 캔이 너무 가벼운 것이었다. 캔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주변의 놀이터에서 자갈들을 주워왔으나 하나같이 크기가 제각각이라 캔의 입구로 들어가지 않았다. 몇 몇 돌은 입구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무게가 너무 가벼워 무게를 잡으려면 많은 양을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았다. 입구에 맞는 돌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무게를 잡아 줄만한 다른 물건들을 찾아보았다. 집을 몇 분간 뒤지자 나의 눈에는 바둑돌이 들어왔고, 실험 삼아 몇 개를 넣어 보자 입구의 크기에도 맞았고 무게도 적당해 무게를 아주 잘 잡아 주었다. 무게를 잡고 배선 정리까지 끝나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조명등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서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캔의 구멍을 통해 나온 빛들이 벽에 비춰졌다.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만들어 온 조명등들 중 가운데는 가장 예쁜 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캔의 구조 상 배터리와 스위치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배터리와 스위치를 깔끔하게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깔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2) 커피 캔 조명등 만들기



조명등 이름: 조지아 마운틴 에메랄드 블랙 커피

만든 날짜: 2015년 2월 16일

만든 목적: 장식등

제작 난이도: ★★

제작 시간: 1시간 30분~2시간

아쉬운 점: 약간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의 밝기

제작 비용: 6300원 (커피 캔 2700원+전구 400원+전선 1500원+스위치 500원+건전지1000원)

내가 이 조명등을 만든 이유는 참 단순한 나의 변덕 때문이었다. 막상 콜라 캔 등을 만들고 보니 밖으로 빠져나온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더 만들게 되었다. 콜라 캔과 커피 캔 등은 형제와 비슷한 관계로 보면 될 것 같다.

만드는 순서는 콜라 캔 조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캔에 구멍을 뚫고, 캔의 입구로 전구를 넣는 첫번째와 다를 것 없는 방식이었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 가장 큰 변수는 회로였다. 첫번째에 만든 콜라 캔 조명과 똑같이 회로를 만들어서 시험해보았다. 작동은 잘 되었으나 회로가 너무 약했다. 커피 캔 안에 회로를 넣자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 불량 원인을 찾아보니 캔에 회로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전구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선이 빠진 것이었다. 회로가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돼 전구를 하나 빼고 회로의 연결 부분들을 신경써서 캔 안에 집어넣었더니 그제서야 작동했다. 콜라 캔 조명은 회로도의 절반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었기에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꺼내서 수리할 수 있지만, 커피 캔 조명은 회로의 전체가 캔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상이 생겨도 바로바로 꺼내서 수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회로의 튼튼함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했다. 때문에 콜라 캔 조명에서 만들었던 회로보다 몇 배는 더 튼튼해야 했다. 혹시라도 접촉 불량이나 합선이라도 일어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와 커넥터들을 아낌없이 썼다.

회로를 완성하고 나자 전체적인 완성까지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점이 생겼다. 커피 캔 조명 특성상 모든 회로가 커피 캔 안으로 들어가지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단 하

나 있다. 바로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를 바깥으로 빼려면 커피 캔 상단의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부분에 스위치를 고정시켜야 했다. 문제점은 바로 스위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쉽게 뚫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송곳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구멍의 크기를 넓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았다.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송곳으로 구멍을 여러 개 낸 뒤 니퍼와 플라이어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생각했던 것처럼 적당한 크기의 구멍이 뚫렸고, 회로를 간단히 정리해 커피 캔 안에 넣은 뒤, 스위치를 박은 뚜껑을 달아서 커피 캔 조명을 완성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구를 하나만 사용해 콜라 캔 조명보다는 조금 어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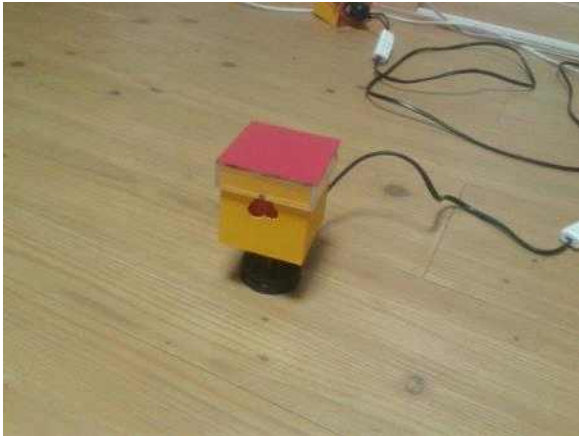
(3) 아크릴 상자 등 만들기



조명등 이름: 다담.
 만든 날짜: 2015년 1월 12일
 만든 목적: 스탠드&탁상등
 제작 난이도: ★★★★★
 제작 시간: 2시간~2시간 30분
 아쉬운 점: 아슬아슬한 무게중심
 제작 비용: 2700원
 (아크릴 상자 1500원+재활용전구0원+
 색지500원+스위치 700원)

이 탁상 등 겸 스탠드를 만든 계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월 초에 완전한 내 방이 생겨서 내 방에서 쓸 다용도 스탠드가 필요했다. 애초에 방에서 불을 끄면 핸드폰을 쓰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스탠드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조명등을 만들 때 아크릴 상자를 한번 꼭 써 보고 싶었다. 아크릴 상자가 집에 도착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첫 번째 난관은 가로 7cm 세로 7cm 높이 5cm인 상자 안에 들어갈 전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방을 옮길때 찾은 작은 전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제작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또 다른 난관을 만났는데 꽤나 심각한 문제였다. 문제인즉슨 전구 소켓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해 상자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크릴 박스가 잘리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힘을 줘서 칼을 눌렀는데 너무 힘을 줬는지 상자가 반으로 쪼개져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2개의 아크릴 상자 중 하나를 날리고 마지막 남은 상자로 다시 만들기를 계속했다. 칼로는 도저히 잘리지 않아서 톱을 한번 써 보았다. 약간 비뚤하게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쪼개지지 않는다고 소켓이 들어갈 만한 자리도 생겼다. 몇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넘기고 마무리 단계인 색지 붙이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조명의 하이라이트인 나무 그림을 파야 할 때였다. 사실 그림에는 자신이 없어서 나무 그림을 어머니께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나무를 너무 세세하게 그려주셨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X7의 정사각형 종이에 나무가 꼭 차도록 세밀하게 그려주신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저 나무를 칼로 하나하나 파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무의 밑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가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세밀해서 가지 하나를 자르는 데도 20분이 넘게 걸린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걸려서 나무를 모두 자르긴 했지만 큰 실수 하나로 가지 하나를 잃은 상태였다. 나무를 자르고 나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없어서 조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완성된 조명을 보니 꽤나 마음에 들었다. 밝기도 적당했고, 힘겹게 자른 나무도 노력한 만큼의 값을 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았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재료를 쓰지 않은 탓에 서 있지 않고 자꾸 넘어졌다. 그렇다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 디자인을 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전체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골판지로 균형을 잡았다. 조명을 완성하고 든 생각인데, 이때껏 만들어온 작품들 중에 가장 귀찮고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조명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4) 아크릴 상자 조명 만들기 2



조명등 이름: Pethero(change)
 만든 날짜: 2015년 2월 4일
 만든 목적: 독서등&탁상등
 제작 난이도: ★★★
 제작 시간: 2시간~2시간 30분
 아쉬운 점: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완성도
 제작 비용: 10700원
 (아크릴 박스 2000원+색지 500원+LED전구 6300원+
 리셉터클 1200원+스위치 700원)

이 조명은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이 조명을 만들기 며칠 전에 초등학교 시절 다녔었던 해바라기 방과후에 찾아갔었다. 방과후에서 친하신 선생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몇 몇 얘기가 오가던 도중에 방과후에서 매 주마다 한번씩 책을 읽는 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책방이 전등을 켜도 어둡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탠드를 하나 만들어줘도 되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당연히 된다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와서 재료들을 주문하고 만들기에 착수했다. 처음에 잡은 컨셉은 네모난 아크릴 상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빛은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의 조명을 만드려고 했다. 아크릴 상자의 네모난 모양을 유지하려면 속에 전구를 넣는 방법밖에 없었고 상자에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와 밝기를 갖춘 LED 단자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보낸 방과후였기에 최대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고 싶었다. LED 단자 회로를 완성하고 상자 내부에 고정시킨 후에 상자 겉면을 꾸미기 시작했다. 상자 겉면을 꾸미는 데에는 색지를 사용했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이야. 스위치를 키고 상자 뚜껑을 닫으니 밝지가 않았다. LED단자의 빛이 색지를 뚫을 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LED 단자 회로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나는 대략 정신이 멍해졌다. 몇 분 후 정신을 차리고 이미 색지를 붙인 이 상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했다. 몇 몇 방법을 생각하다 LED 단자가 아닌 LED 전구의 강한 빛이라면 색지를 어느 정도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색지를 붙인 아크릴 상자를 램프에 갖을 씌우듯이 덮어 씌웠더니 스탠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하지만 LED 단자사용을 전제로 했던 상자 꾸미기라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몇 가지 장식을 달아 보기도 했지만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 조명은 정말 스탠드의 역할에만 충실한 스탠드가 되었다.

(5) 아크릴 파이프 등 만들기



조명등 이름: This is present for you

만든 날짜: 2015년 2월 2일

만든 목적: 책상등&스탠드

제작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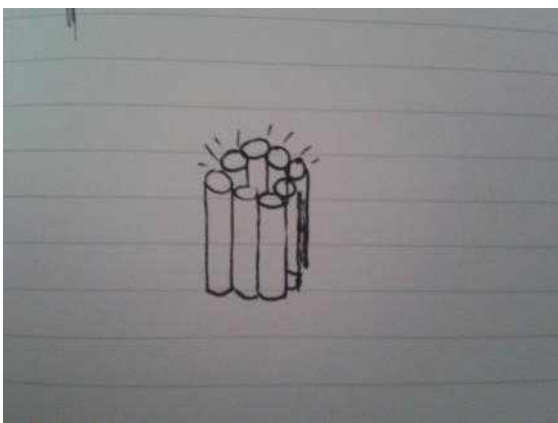
제작 시간: 2시간 30분~3시간

아쉬운 점: 제각각 다른 아크릴 파이프의 길이

제작 비용: 24300원

(아크릴 파이프 1M 2개 15000원+LED 전구 6300원+리셉터클 1500원+색지 1500원)

만들게 된 계기는 친구의 시덥잖은 말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그 친구는 밤마다 불을 켜고 자지 않으면 못 자는 성격이라 불을 키고 자는데 방의 전등을 키기에는 너무 밝아서 뭐든 선택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친구에게는 스탠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침 2월 6일이 그 친구의 졸업식이었다. 졸업식 선물로 원래 주려했던 USB 와 스탠드를 같이 만들어서 줘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만들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크릴 파이프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것이었는데 아크릴을 자를 방법은 톱밖에 없었다. 파이프를 구매한 사이트에 적힌 글에 따르면 톱으로 자국을 낸 뒤 힘을 줘서 부러트리면 톱으로 낸 자국을 따라서 부러진다고 적혀있었는데 적힌 그대로 따라한 결과 아크릴 파이프는 절대 톱 자국을 따라서 부러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8개의 파이프는 원래 의도했던 길이인 25cm에 모자라거나 길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 작업은 25cm에 가깝게 자른 파이프들을 색지로 꾸미는 작업이었다. 파이프에 색지를 두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두르게 됐다. 하나는 파이프의 바깥 쪽에 색지를 두르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프의 안쪽에 색지를 두르는 것이었다. 8개의 파이프에 색지를 모두 두른 다음, LED전구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파이프를 둥글게 붙였다. 파이프를 붙이고 작동을 확인해 보니 참 불만했다. 색지를 바깥에 붙인 파이프들은 붙인 색지의 색을 띄었고, 색지를 안쪽에 붙인 파이프는 빛이 파이프를 타고 나와 흰색의 빛깔을 띄었다. 처음에 만들 때에는 크기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더니 생각보다 부피가 컸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스탠드가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생각했던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 구상 단계에서는 파이프들의 잘린 단면이 깨끗하고, 길이도 일정해서 완성하였을 때 가지런한 모양이 나왔어야 했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파이프를 자를 때 판매처의 정보를 믿고 판매처에서 제공한 방법대로 파이프를 잘라 보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결과는 참담했다. 단면도 들쭉날쭉하고 길이도 잘 맞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었다.



◀ 구상했던 모습. 일정한 길이의 파이프들이 가지런히 전구를 둘러싼 모습이였다.

만약 구상한 대로 파이프가 잘렸다면 색지를 붙이는 작업부터 파이프를 붙이는 작업까지 모두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이 작품에 있어서는 그 점만이 유일한 결점이었고 그 결점 하나로 작품의 모양새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결과 자체는 마음에 들었고 색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6) 아크릴 상자 등 만들기 3



조명등 제목: 보시는 대로.

만든 날짜: 2015년 2월 27일

만든 목적: 취침등

제작 시간: 2시간~2시간 30분

제작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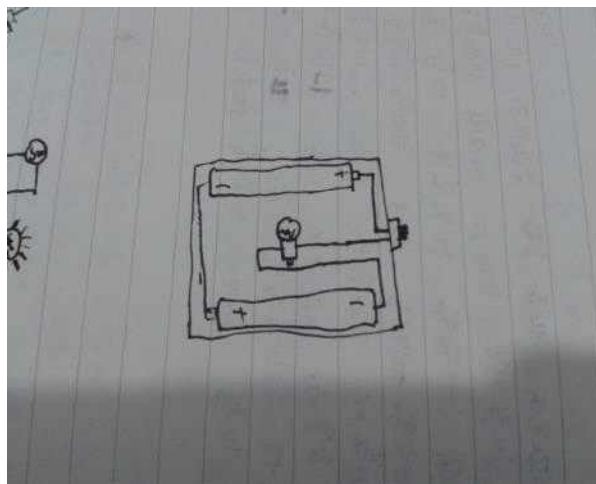
아쉬운 점: 회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제작 비용: 5900원

(아크릴 상자 2000원+전구 400원+전선 원 1500원+
건전지 1000원+색지 500원+스위치 500원)

이 조명등을 만든 계기는 참 급작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입교날까지 별로 남지 않은 2월 27일에 민혜쌤에게 문자가 한통 왔다. 문자의 내용 중에는 종명쌤의 얘기도 들어 있었다. 문자를 다 읽고 몇 가지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논문을 쓰는 1년 동안 종명쌤이 나에게 해준 것은 셀 수도 없지만 정작 내가 종명쌤께는 해 드린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종명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라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논문 주제가 조명 만들기이니 조명을 하나 만들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딱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므로 설치와 평가 면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작품에서 내가 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크릴 박스 만들기 2에서 실패했던 박스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제작에 들어가기 전부터 재료에 많은 신경을 썼고 LED 단자는 회로가 망가지기 쉽고 아크릴 상자 만들기 2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제외했고 부피가 큰 전구들도 상자 안에 집어넣을 방법이 없으므로 제외했다. 결국 남은건 꼬마 전구였고 꼬마전구를 바탕으로 회로도를 짜기 시작했다. 이 조명등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회로도였는데, 문제는 회로도 자체도 있었지만 만든 회로를 어떻게 해야 상자 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가장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다. 배터리를 양 변에 놓고, 스위치는 이미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뺀 후 전구는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이었다.



▲ 상자 안의 회로의 배치구조

그 후로는 그리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색지를 붙이고, 회로를 상자 안에 정리하여 고정시켰다. 마지막 작업으로는 뚜껑 부분의 '종명 쌤 사랑해요' 라는 글귀를 쓰는 작업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귀찮았던 것 같다. 글귀를 쓰고 나서 보니깐 글씨체가 조금 멋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한글 파일로 멋진 글씨체로 글자들을 적고 프린트한 다음 잘라서 붙이려고 하는데, 막상 자르려고 하니 난이도가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멋들어진 글씨체는 포기하고 정성을 담아서 쓰기로 마음먹고 몇 번 지웠다 적었다 반복하니 그나마 나은 글씨체가 나왔다. 그렇게 적은 글씨를 글씨의 모양대로 자른 다음 박스의 뚜껑 위에 붙였다. 그렇게 완성된 조명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만들고 보니 만들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조명을 키면 원래 뚫려 있는 하트모양 구멍을 통해서 작은 하트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조명을 천장 가까이로 들면 글씨가 천장에 비친다. (비록 반대로 비치긴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변수때문에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어려운 정도의 제작 난이도가 아니지만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은 회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였다. 회로를 처음 고정할 때에는 잘 되는 듯 싶었으나 건전지에 연결된 선이 빠져서 모든 회로를 빼내고 다시 작업해서 다시 붙였다. 두 번째로 고정시키고 난 후에 회로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제야 작동했다. 그렇게 붙였다 뗐다 하니 1시간 정도가 지나가 있었다. 실수를 한 탓도 있겠지만 회로를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쓴 이유가 큰 것 같았다. 회로를 넣는 것만 신경쓰면 정말 괜찮은 작품인 것 같다.

3. 조명 설치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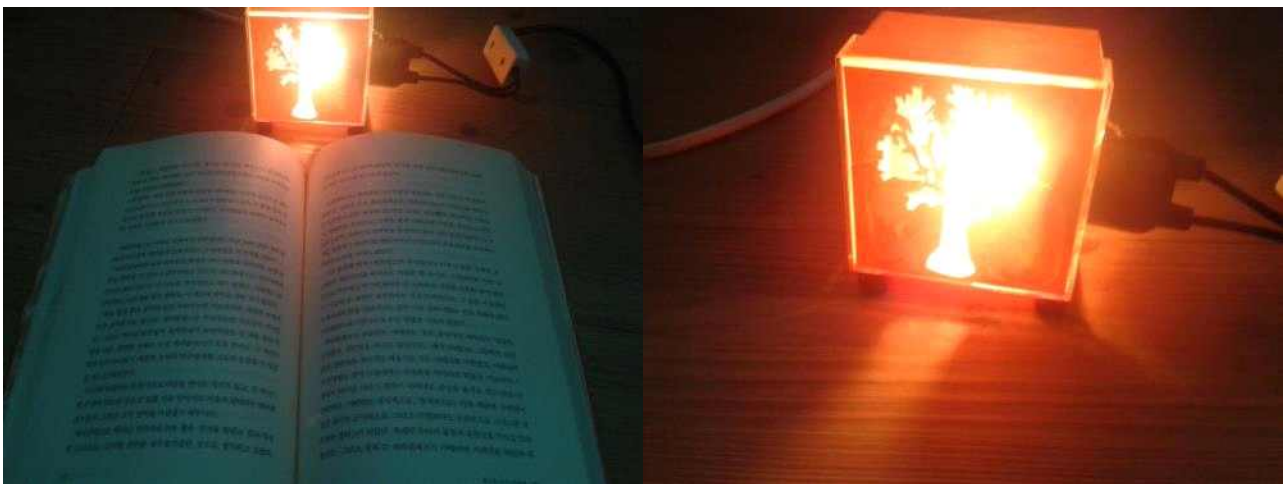
(1) 알맞은 곳에 설치하기

1. 콜라는 언제나 울다&조지아 마운틴 에매랄드 블랙 커피(콜라/커피 캔 조명등)

이 조명등은 위에서 말했듯이 친구 어머니가 카페에서 일하셔서 카페를 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막상 다 만들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카페를 그만두셔서 받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고 개학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카페 등을 알아보기는 어려웠고 결국 설치를 못하게 되었다.

2. 다담 (아크릴 상자 조명등)

설치 장소: 내 방.



이 조명등은 1월 초반쯤 내 방이 생겨서 만들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에서 불을 끄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책 등을 읽을 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설치는 1월 13일에 완료했으며 현재는 그 목적에 맞게 나의 방에서 밝은 빛을 내보내고 있다.

3. Pethero (change, 아크릴 상자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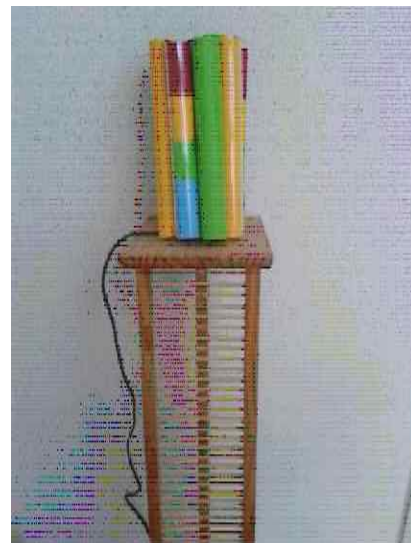
설치 장소: 해바라기 방과 후 책방



▲ 해바라기 방과후 / 책방

이 장소에 만든 조명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책방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그 대안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설치는 2월 9일에 완료했으며 설치 당시 아이들이 매우 신기해했다. 아이들이 원래 만든 목적인 책을 읽을 때 쓰기는 하지만 소꿉놀이를 할 때 더 많이 쓴다고 한다.

4. This is present for you (아크릴 파이프 조명등)



김시훈 - 여러 가지 조명 만들기

이 조명등은 친구의 시덥잖은 잡담이 발단이 되어서 만들어 졌다. 설치일은 2월 9일이며 현재는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 아이프라임에서 친구의 방을 밝히며 친구가 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 만든 조명 평가받기

1. 콜라는 언제나 울다&조지아 마운틴 에메랄드 블랙커피 평가 (콜라/커피 캔 조명)

설치하는 측에서 문제가 생겨 설치는 하지 못했지만 디자인과 실용성 면을 주변 사람들 3명에게 받아보았다. 이 두개의 작품은 전체적인 평, 디자인적인 면, 실용적인 면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받았다.

*큰 이모

-디자인: 커피 캔의 두툼한 느낌과 콜라의 슬림한 느낌이 빛을 통해서 전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커피 캔의 검정색과 콜라 캔의 빨간색이 어울려서 좋았다. 커피 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느낌인데 거기에 포인트로 빨간색 스위치가 들어가니 귀여웠다.

-실용성: 콜라 캔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각도를 잘 조절한다면 취침등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탁상등이나 아이들이 놀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무드등으로 최고일것 같다.

-고쳐야 할 점: 일단 커피 캔의 밝기가 조금 어둡다. 걸면이 어두워서 그런지 더 어둡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것 같은데 밝기가 조금 더 밝으면 괜찮을 것 같다. 콜라 캔의 뚜껑으로 튀어나온 선이 조금 거슬린다. 길이가 적당하게 길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선이 애매하게 짧아서 사용할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전체적인 면: 일단 두 작품 다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 두 작품 다 주변에서 재료를 구해서 썼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각 작품마다 한 부분씩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만 빼면 좋은 작품들인것 같다.

*대륜고등학교 재학중인 친구 정다훈

-디자인: 커피 캔은 잘 모르겠지만 콜라 캔 조명은 참 예쁜 것 같다. 전구의 색깔과 캔의 색깔이 잘 어울려서 좋다.

-실용성: 두 작품 다 천장에 설치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상 생활에서는 쓸 곳이 꽤나 있을 것 같다. 분위기 잡을때 쓰면 효과가 좋겠다.

-고쳐야 할 점: 콜라 캔은 스위치의 위치가 애매하다. 밖으로 빠져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다. 커피 캔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밝기도 좀 어두운 것 같다.

전체적인 면: 꽤나 잘 만들었다. 수고했다.

*초등학교 동기 김모군 (익명 요청)

-디자인: 콜라 캔은 날씬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커피 캔은 약간 통통한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 구멍들의 크기가 제각각인게 재밌는 포인트다.

-실용성: 뭔가 조용한 일을 할 때도 어울릴 것 같지만 뭔가 신나는 일을 할 때는 최고일 것 같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없다.

-고쳐야 할 점: 커피 캔은 약간 어둡다. 콜라 캔은 빠져나와 있는 선이 매우 불편하다. 설치할 때나 사용할 때나 불편할 것 같다.

*나의 평가

여러 가지 조명들을 만들어봤지만 만들 때 마다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만든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은 조금 포기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개의 조명은 실용성도 살리면서 디자인도 살린 작품들인 것 같다. 특히 콜라 캔 등의 디자인은 이때껏 만들어 온 작품들 중 가장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설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떤 용도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분위기를 잡는 아트 등으로 만들어서 천장에 설치한 후에 컨다면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주겠지만 그 경우도 공간이 받

쳐줘야해서 집 안에 무턱대고 설치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11어떨결에 취침등으로 몇 번 사용하게 되는데, 적당했다. 둘 다 원래의 용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획 당시에는 카페 설치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다. 두 작품 다 콘센트를 쓰는 튼튼한 회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로를 연결할 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조금 힘들었던 점이라면 콜라 캔과 커피 캔에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을 뚫으려고 힘을 주면 캔들이 찌그러져서 구멍을 뚫기 힘들었다. 이런 점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난이도도 괜찮았고, 제작 시간도 그럭저럭해서 두 작품 다 괜찮은 작품 같다.

고쳐야 할 점은 두 작품 모두 한 가지 점들이 너무 아쉽다. 커피 캔 등은 평가에서 받았던 대로 바깥이 어두워서 그런지 어두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콜라 캔에 비하면 많이 어둡다. 배터리 박스를 캔 내부로 넣는 작업에 집중해서 그런지 밝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 같다. 콜라 캔 박스는 아쉬운 면이 딱 하나다. 바로 배터리 박스가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캔에서 배터리 박스로 연결되는 선이 너무 짧다는 것. 콜라 캔은 모든 게 적당했지만 밖으로 빠져나온 선이 너무 마음에 걸렸다. 캔 안쪽으로 선을 넣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지 않았다. 두 가지 작품은 꽤나 마음에 들지만 고쳐야 할 점이 조금 큰 듯 하다.

2. 다담 평가

이 작품은 내 방에 설치했기에 평가해줄 사람이 별로 없기에 나를 포함한 2명에게 평가받았다. 다담은 사용 후기와 고쳐야 할 점으로 나누어서 평가받았다.

*고산중학교 재학중인 권오준

-사용 후기: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럭저럭이었다. 나무 모양이 멋지다. 스탠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고쳐야 할 점: 너무 잘 넘어진다. 무게중심이 잡혔으면 좋겠다. 서 있는 각도가 약간 애매해서 빛이 눈으로 바로 들어올 때가 있다.

*나의 평가

-사용 후기: 1월 초에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먼것번에 쓰던 스탠드보다 눈이 편했다. 조명의 색이 부드럽고 따뜻한 색이었고 그려 넣은 나무의 모양과 매우 어울렸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고장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줬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라도 먹으려 하면 전등을 켜야 했고 전등을 키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았으며 밖에서 자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폐를 끼쳤다. 스탠드를 만들고 나니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어 마음이 편해져서 잠도 잘 왔던 것 같다. 나무를 자르는데 고생한 만큼 나무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맛있는 스탠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나무 그림이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준 것 같다.

-고쳐야 할 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아크릴 박스의 무게가 너무 가볍고, 전구의 무게도 가벼워서 쉽게 넘어졌다. 전체적인 무게로 따져 보면 전선의 무게가 아크릴 상자와 전구보다 무거운 것 같았다. 골판지로 무게를 잡아보았지만 역시 완벽하게 무게를 잡는 것은 힘들었다. 이 점을 고친다면 완전한 스탠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3. Pethero (change- 아크릴 상자 등 2) 평가

이 조명은 해바라기 방과후 책방에 설치되었고 해바라기 방과후의 교사와 학생들 4명에게 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준은 사용 후기, 실용성, 고쳐야 할 점 3가지로 평가받았다.

*해바라기 방과후 교사 김병현 선생님

-사용 후기: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꽤나 좋은 작품 같다. 전구에 씌우는 갓 하면 둥근 형태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각형 모양의 아크릴 상자로 갓의 역할을 대신해서 참신한 면이 보였다. 아이들이 사

용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것과, 구조도 단순해 아이들이 다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인 주황색을 사용한 것도 좋았던 것 같다.

-실용성: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어둡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의도와 맞게 사용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사용하기 보다는 아이들끼리 놀 때 더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만은 확실한 것 같다.

-고쳐야 할 점: 딱히 없다. 굳이 있다면 선 길이가 조금 짧다는 점?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

*방과후 4학년 최장범

-사용 후기: 애들이랑 책상으로 집을 짓고 놀았는데 집 안에 불빛이 있으니깐 너무 좋았다. 전등 하나가 지고 여러가지 놀이를 할 수있어서 재미있었다.

-고쳐야 할 점: 코드 길이가 약간 모자라다.

*방과후 3학년 정모군 (익명 요청)

-사용 후기: 평소에 책 읽는것을 좋아하는데 책방이 약간 어두워서 어두운 그림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시훈이형이 가져다 준 스탠드때문에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쳐야 할 점: 쇼파에 올려놓으면 자꾸 쓰러진다.

*방과후 4학년 신세하

-사용 후기: 원래 주황색을 좋아하는데 흰색 전구가 주황색으로 바뀌는게 너무 신기했다. 이 전등가지고 장범이랑 많이 논 것 같다.

-고쳐야 할 점: 딱히 없다.

*나의 평가

만든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요묘한 기분이 들었다. 험하게 다뤄져도 버틸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튼튼하게 만든 것이 아이들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았다. 방과 후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도 큰 것 같았다.

이번 작품에서는 고칠 점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워낙 단순한 구조와 튼튼한 작품이어서 고칠 점이 조금 적은 것 같다.

4. This is present for you 평가받기 (아크릴 파이프 등)

이 조명은 친구의 집인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 아이프라임에 설치되었으며 사용자인 친구 1명에게 사용 후기와 고쳐야 할 점으로 평가받았다.

*덕원고등학교 재학 중인 전민석

-사용 후기: 솔직히 좀 놀랐다. 네가 이런 조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주긴 했었지만 농담으로 들었었는데 졸업 선물로 가져다 줄 줄이야. 또 2달전에 한 얘기를 기억하고 스탠드를 만들어줘서 좀 감동했다. 며칠간은 적응이 잘 안됐는데 3,4일쯤 지나자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밤에 뭐 할때 자주 쓰고 있다. 파이프를 타고 나오는 흰색이 정말 예쁘다. 밝기도 적당해서 눈에 부담도 없다.

-고쳐야 할 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파이프들이 조금 삐뚤삐뚤한게 약간씩 마음에 걸린다. 그 점만 빼면 딱히 문제는 없다.

*나의 평가

친구가 잘 써준다니 고마울 뿐이다. 파이프가 삐뚤 건 나도 정말 안타까운 점이다. 파이프 하나를 잘못 잘라서 생각했던 작품이 안나와서 많이 실망했는데 그래도 잘 써줘서 정말 고맙다.

5. 콜라는 언제나 울다&커피 캔 조명 평가

가원래 설치해주기로 했던 카페에 사정이 생겨서 설치하지 못한 두 조명을 종명쌤의 의견으로 남녀 사감쌤들에게 1주일간 사용 후 평가를 받기로 했다. 조명의 바뀐 점은 원래 일반 필라멘트 전구였던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면서 수명 문제와 배터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고, 콜라 캔 등의 경우에는 캔에서 배터리 박스까지 이어지는 선이 길어졌다. 설치 기간은 3/10일부터 3/17일까지 진행했으며, 수진 쌤 방에는 콜라 캔 등이 설치되었고 예술 쌤 방에는 커피 캔 등이 설치되었다.

*남자 사감 수진쌤

좋다! 무드등으로 딱 좋을 듯. 은은한 불빛이 좋았다.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켜다 껐다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콜라 캔이 예뻐서 장식품의 역할도 해 줬었다.

아쉬운 점들은 취침등이나 무드등이 아닌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어두웠다. 존재감이 너무 적다고나 할까. 두 번째로는 버튼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전선들이 밖으로 빠져 나와서 조금 불안하다.

*여자 사감 예술쌤

로맨틱한 무드등이다. 빛이 나오는 구멍 여러개가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요즘 인기있는 수면등 같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데 이런 재료들로 비슷한 기능을 뽑아낼 수 있는게 인상적이다.

고쳐야 할 점 몇 가지는 조명의 세기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고, 커피무늬를 좀 더 장식하거나 색을 넣을 수 있는 쉘로판 테잎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나의 평가

각 사감 쌤들 방에 설치하기 전에 약간의 수리와 개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두 작품의 전구들을 일반 필라멘트 전구에서 LED 전구로 바꾸었다. 전구를 바꾼 후에는 전구의 수명과 배터리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됐지만 해결될거라고 생각된 밝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LED 전구라 보통 전구보다는 밝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저 그랬다. 하지만 딱히 더 좋은 선택지가 없었기에 일단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콜라 캔의 선 길이가 늘어났다. 이전에는 선 길이가 정말 애매했는데, 몇 개의 전선을 더 쓰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되었다. 두 작품 모두 단 하나의 결점을 뺀다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작품 모두 밝기가 너무 고만고만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점은 배터리 전압을 올리고 전구를 왕창 연결하거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과 전구의 크기 자체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 같다.

Ⅲ. 결론

1. 논문의 한계

내가 생각하는 논문의 한계란 나의 작품들은 사회에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는 나의 작품과 비슷한 제품들이 많으며 그 제품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논문을 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사람들이 내 제품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쏟아서 만든 작품인데, 사람들이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웠다. 두 번째로는 나의 버릇이다.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생각은 하지만 만든 제품을 고칠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이 버릇 때문에 처음 구상했던 이미지에 말 그대로 '올 인' 하게 되고 중간에 생기는 좋은 생각들을 잘 체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나의 한계이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버릇이 꽤나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버릇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 같다.

2. 논문을 끝마치며

끝났다. 정말 끝났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났다. 1년동안 질질 끌어온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끝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16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16년동안 겪은 일들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조금씩 부담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 후로 학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부담감과 불안감, 두려움이 모여서 내 어깨 위에 쌓여갔고 그것들은 또다른 내가 된 것 같았다. 계획서를 쓰는 날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에 쉽게 들지 못했다.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내 머리에서 맴돌았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등. 너무 많은 생각이 내 머리를 괴롭혀서 정말 다 포기하고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고 너무 힘들 때에는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해봤다.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난 정말 12학번 친구들과 필리핀에 가고 싶었으니깐.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필리핀에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놀고 있는 12학번을 생각하니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줬다. 주변에서도 날 믿고 언젠간은 해 낼 꺼라 믿었기에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가장 후회되는 점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왜 진작 찾지 못하였고 왜 어느 주제든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입교 하루 전날 밤을 새 가면서 본문을 작성 할 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되서 평평 울었다. 왜 대체 그때 하지 않았을까. 언제까지나 후회될 일이 될 것 같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발전한다고 했던가, 정말 틀리지 않은 말인것 같다. 1년간의 힘든 시간 동안 내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 같다. 논문을 쓰기 전에는 정말 못하고 싫어했던 발표도 내 나름의 스타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대상에게 조리있고 논리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 1년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 중 8개월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머지 4개월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내가 겪은 3학년의 1년 동안의 시간 중 의미가 없는 시간은 없었다. 흘러가는 매분 매 초가 지식이며 경험이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중 하나일 것이다.

부록

작품 일지

12월 21일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중략) ...논문의 생각만 해도 힘들다. 생각만 해도 몸의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힘이 빠지면서 그냥 쉬고싶다. 게다가 요즘은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어떻게든 잘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조금 있으면 교회에 가야겠지.... (중략) ...거리에 밝혀진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보며 내 손재주를 닦는다. 저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면 자신있고 의욕있게 논문을 파바박하고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힘이 또 빠진다.

12월 28일

그냥저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방학이라 그런거 같다... (중략) ...역시 알바는 조금 무섭다.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신 공장에 1월 5일부터 알바를 하게 됐다. 가로등 컨트롤러를 만드는 공장이라는데 왠지 무섭다.

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란 생각이 자꾸 든다. 논문을 쓸 때 조금 사용했던 납땜 기술로 될까?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 참나... 나 논문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구상품 몇 가지만 내 머리 안에서 떠돌면서 나를 괴롭힐 뿐이다... 진짜 이걸 어떡하나. 졸리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심각하다.

1월 4일

그냥 그냥 눈물이 나오는 하루였다... (중략) ...내일이면 영동테크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대체 어떤 일을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그냥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공장 알바가 끝나면 클라이밍을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아르바이트도 논문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나? 기대가 되는 마음은 별로 없고 불안감만 가득하다. 논문도 슬슬 시작해야겠다. 며칠 전에 상가를 지나가다가 아크릴 상자를 꾸민 아주 멋진 작품을 발견했다. 아크릴 상자나 한번 써볼까나...

1월 6일

공장 알바 2일째다. 정말 힘들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일도 조금씩 배우고 요령도 조금씩 터득해서 한 사람의 일 정도는 할 수 있는것 같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는 않지만 출퇴근이 힘들다.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1시간 30분을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하니... 게다가 아침시간이라 사람도 많아서 평소보다 배로 힘든것 같다. 논문은 그냥저냥 똑같은 상태다. 무엇보다 가로등 컨트롤러는 딱히 논문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성 싶다.

1월 9일

성취감이 가득한 날이었다. 정말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다. 정말 내가 한 일을 했었고 그걸 끝냈다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았다. 기쁨을 만끽하던 중 문득 든 생각인데 논문을 끝냈을때의 성취감은 대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은 행복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비참해졌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것은 나의 상상에 불과한 기획과 제작일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기 뿐이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진다. 자야겠다.

1월 12일

드디어 뭔가 하기는 했다. 조약하지만 뭔가를 하기는 했다. 이모집 근처를 지나가다 본 인테리어 샵에 켜진 조명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불을 끄면 내 방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스탠드를 하나 만들었다. 다 만들고 나니 어느새 새벽 3시였다. 자야겠다.

1월 13일

아빠의 사무실에서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하고 나면 딱히 할게 없어서 일기만 주구장창 쓰게 된다... (중략) ...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장례식장과 시장을 갔다 오고 나니 뭔가 가슴 속에 뭉쳐있던 것이 풀린 느낌이 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필요한 뭔가를 위해 살아간다. 그 모습은 내가 필리핀을 위해 논문을 쓰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그냥 좀...좀... 뭐라해야 할지 모르겠다. 느껴지는 감정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다. 지금은 그냥 졸린다. 자야겠다.

1월 16일

힘들다.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학기 말에 잠깐 있었던 불면증도 다시 나타났다. 논문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만약 내 동기들이 12학번이 아니었다면 일치감치 논문을 때려쳤을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일기라도 적고 있는 이유가 12학번 때문인 것 같다. 논문도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는 진행되지가 않는다. 졸리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몸은 피곤하지만 눈은 떠져있다.

1월 18일

현재 일기를 적는 시각 새벽 3시 30분. 잠이 오지 않는다.

1월 26일

참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쓰지 않은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기록하지는 못했다...다 (중략) ...이제 1월 말쯤 되니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서야 왜 방학때 논문을 끝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된다. 지금이라도 시작 해야한다. 도박 시작이다.

1월 30일

오늘은 오랜만에 폭 잘 수 있을 것 같다. 날 괴롭히던 불면증 증세도 조금은 사라졌다... (중략) ...여러 군데를 돌며 아이디어와 조명을 설치할 곳들을 조사해 왔다. 뭔가 한 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하다. 본문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가 나지는 않는다. 근데 웃긴 것은 학기중에 쓴 논문을 읽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다. 하하.

2월 2일

...2시 30분이다. 새벽 2시 30분. 자고싶다. 친구에게 줄 파이프 등을 완성했다. 더럽게 힘들다. 망할 톱질. 예초에 파이프만 깨끗하게 잘렸어도 작품의 모양새도 깨끗했을 것이다... 힘들었지만 만드는 동안에는 즐거움도 약간 챙겼다. 하지만 판매처가 파이프 자르는 방법으로 나에게 었을 먹인 것은 참... 그냥 기분이 더럽다. 6일 이 졸업식이니 대충 포장이나 해 놔야겠다.

2월 4일

멘탈이 산산조각났다... (중략) ...뭔가 완성은 했는데 완성이 아닌 느낌이랄까. 진짜 완벽까진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그럭저럭인 작품이 나와버렸다. 10시에 작품만들기를 시작해서 쉬엄쉬엄 만들었다. 그러다 led단자로 1차적인 완성을 한게 1시쯤인데 거기서 망해버려서 결국은 2시까지 연장작업했다... 정말 LED 단자가 실패했을 때에는 그냥 다 때려치고 잠이나 자고 싶었지만 내가 벌려놓은 난장판은 정리해야되고 종특이 내가 한번 잡은 것은 웬만하면 끝을 봐야 해서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쥐어짜서 그 아크릴 박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사실 지금 일기 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참 궁금하다...

2월 9일

그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하루를 살았다고나 할까... (중략) ...어쨌거나 친구네 집과 방과후에 설치해주고 왔다. 전민석은 받았을때 이걸 진짜 만들어 주는겨? 라는 웃기는 반응이었고... 방과후는 그저 그랬달까. 뭔가를 하니깐 부담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느낌.

2월 12일

허 참... 내가 맡은 조명 제작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카페라니! 생각지도 못했다. 논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음... 잘 할수는 있을까나?

2월 15일

해 내긴 했다. 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낸 끝에 콜라 캔을 쓸 생각을 했다. 사실 방에 쳐박아져 있던 콜라 캔을 보고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음... 솔직히 내가 봐도 잘만들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작품이 예뻐다. 진짜로. 흠 잡을 부분은 진짜 딱 하나다. 캔 밖으로 선이 빠져나온거. 이거 너무 거슬린다. 내일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건전지를 꼭 캔 안에 넣어버려야겠다. 그럼 이제 쳐자야지

2월 16일

참...참 편의점이 모든걸 해결한 하루다. 입구가 넓고 디자인이 괜찮은 캔을 찾다가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딱 내가 찾던 캔이 있었다! 게다가 드럽게 긴 커피 이름을 봐서 작품 이름도 정했다. 만드는 작업도 한번 해본 작업이라 쉽게 쉽게 진행했다. 오늘도 꿀잠일려나

2월 21일

설이 끝났다... (중략) ...자 이제는 정말 본문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지만 의욕이 서질 않는다... 진짜 슬럼프인가? 생각해보니 평가도 받으러 가야 한다... 하하... 할거 더럽게 많네

2월 24일

으으... 소화불량... (중략) ...평가는 다 받았다...다 이제 해야 할 건 단 하나다... 본문이란 큰 벽... 작품 활동은 나름대로 재밌지만 이 본문은 정말... 그냥 더럽다.

2월 26일

본문을 쓰다보니 어찌어찌 작품들을 다 나열하기는 했다... 이제 일기도 못 적을 것 같다. 본문은 그냥 힘들다는 말만 나온다... 힘들어도 써야지 어찌겠냐.

2월 28일

내일은 학교에 간다... (중략) ...지금 압박감 때문에 소화가 안된다... 하 정말... 방학동안 계속했던 고민이었던 생각이다. 내 노력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를 위한 철학 그림책 만들기

지도교사: 김수진



이름: 김은수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피자, 떡볶이, 비빔밥, 돼지갈비,
아이스크림, 요거트, 김치, 칼국수

한마디:

나는 열심히 썼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자료 조사 및 공부

II. 본론

1. 철학 그림책에 대하여
 - 1) 철학이란?
 - 2) 그림책이란?
 - (1) 그림책의 정의
 - (2) 그림책의 역사
 - 3) 철학 그림책이란?
 - 4) 여러 철학 그림책들
2. 나의 철학 그림책
 - 1) 대상
 - 2) 줄거리
 - 3) 기존의 그림책과
나의 철학 그림책
 - 4)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3. 철학 그림책 만들기
 - 1) 글쓰기
 - 2) 그림그리기
 - (1) 등장인물 구상
 - (2) 그림 연습하기
 - (3) 콘티 짜기
 - (4) 그림그리기
 - 3) 편집, 인쇄하기
4. 완성 및 평가
 - 1) 완성된 그림책
 - 2) 여러 사람들의 평가
 - (1) 어린이들의 평가
 - (2) 작가들의 평가
 - (3) 나의 평가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고마운 친구들♥
3.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했다.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고 매일 따라 그렸다.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만화책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었다. 책이라곤 만화책 말고는 거의 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존 버닝햄¹⁾의 ‘사계절’²⁾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보자마자 딱 맘에 들었다. 사계절에 대한 책인데 그림이 각각 계절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다. 봄에는 정말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 오리가 물장구를 튼다던지, 새 잎이 돋는 것들이 너무 예쁘다. 글도 간결하면서 아름답게 계절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때부터 그림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혼자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물론 그림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것이었지만. 그때 한창 영어 그림책에 관심있을 때라서 글도 영어로 (대충 아는 것들로.) 썼던 기억이 난다.

1,2학년 때 논문애기를 하면 ‘넌 그림으로 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 또한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림책을 좋아한다. 이번 기회에 나만의 생각과 그림으로 신선한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난 풍자적인 것을 좋아한다. 풍자란 어떤 것의 결점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sns에 사회나 정치를 풍자한 글귀나 만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통쾌하고 마음에 딱! 하고 박히는 것 같다. 그림책에도 풍자하는 내용이 많다. 그 예로 앤서니 브라운³⁾의 ‘돼지책’⁴⁾이 있다. ‘돼지책’은 가사 일을 모두 엄마한테만 미뤄 아빠와 아이들이 돼지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에선 아빠와 아들을 돼지에 빗대서 우스꽝스럽게 풍자했다. 난 ‘돼지책’을 보고 뜨끔했다. 진짜 내가 돼지가 된 기분이었다. 예전부터 그림책 안에 담긴 세상을 풍자하는 내용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그림책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것처럼 통쾌해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그림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내 그림책으로 인해 더 넓고 풍부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2. 자료 조사 및 공부

1) 참고 서적

『창작 그림책 만들기』 (10학년 고운언니 논문)

『절대 보지마세요 절대 듣지마세요』 (변선진/바람의아이들)

『사계절』 (존 버닝햄/시공 주니어)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웅진주니어)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너머학교)

참고 서적은 거의 그림책이 많다. 여러 그림책을 보면서 내 그림책에 무엇을 반영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절대 보지마세요 절대 듣지마세요』를 가장 많이 반영한 것 같다. 이 그림책도 학생이 쓴 그림책이라 궁금하기도 했고 그림책 안에 글 배치나 그림 방식을 많이 참고했다. 『창작 그림책 만들기』는 목차를 정할때나 본문을 쓸 때 많이 반영하였다. 『생각한다는 것』은 철학 관련 책이라서 철학에 관해 본문을 쓸 때 반영하였다.

2) 참고 사이트

‘소심토끼 유유’ (blog.naver.com/gomulbox)

‘1000miles painting note’ (blog.naver.com/1000miles_/20168258729)

1) 존 버닝햄 (John Burningham). 1936년 4월 27일 (영국)/ 동화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계절』, 『지각대장 존』 등의 저자.

2) 『사계절』 존 버닝햄. 시공 주니어/1996.7.31

3) 앤서니 브라운 (Anthony Browne). 1946년 9월 11일 (영국)/ 동화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돼지책』, 『고릴라 가족』 등의 저자.

4)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 주니어/2009.4.13

‘HILLS ON’ (hillust.com/)

‘똥수니와 헤라의 Fun한 인생!’ (blog.naver.com/etdj_o/100208037425)

참고 사이트는 일러스트 블로그들이다. 무슨 재료를 사용할지,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구상할 때 많이 참고했다.

3) 방문 및 탐방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14.2.7~14.6.8/10:00~18:00/성남아트센터)

‘HILLS 18*ILLUSTRATION’ (14.5.12~14.5.18/10:00~18:00/갤러리 원)

그림책이나 그림에 관련된 것을 가보았다. 하지만 크게 내 논문에 참고한 것은 없다.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은 거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어서 놀이터 같았고 ‘HILLS 18*ILLUSTRATION’은 일러스트 전시회여서 그림 구상에 조금 참고하였다.

4) 영상 및 사진

책 ‘1cm’에 들어간 사진 1장

그림 구상할 때 참고한 사진.

II. 본론

1. 철학 그림책에 대하여

1) 철학이란?

일반적으로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⁵⁾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것 같다. 너무 넓은 범위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철학하면 엄청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이란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철학은 그리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철학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⁶⁾이란 책에선 철학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 아렌트’⁷⁾라는 철학자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느 날 그는 ‘아이히만’⁸⁾이라는 독일 관료에 대한 재판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잔인한 살인마라고 욕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지만 1960년에 체포되어 이스라엘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미국 잡지 <뉴욕>의 부탁을 받고 이 재판을 취재했다. 악마라고 불리던 아이히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놀랍게도 아이히만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그는 체격이 크지도 않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평범한 아저씨였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들 중에도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자기 생계를 도와준 유대인들을 고맙게 여기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끔찍한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을까? 그는 ‘단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성실히 해낸 일은 잔인하게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일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면 악마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5) 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6) 『생각한다는 것』고병권.너머학교/2010.03.31. 참고: p15~16

7)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년 10월 14일 (독일) ~ 1975년 12월 4일/ 작가, 철학자.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이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폭력의세기』등을 집필했다.

8) 칼 아돌프 아이히만 (Karl Adolf Eichmann). 1906년 3월 19일 (독일) ~ 1962년 5월 31일/ 정치가. 칼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 시대에 일어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사람이다.

위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히만’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가 살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2) 그림책이란?

(1) 그림책의 정의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글이 없어도 그림책은 성립되지만 그림이 없으면 그림책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림책에서 그림은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다. 보통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과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그림책을 고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림이 크고 뚜렷하게 그려진 것을 제시하여 아동의 시각적 감각의 발달을 꾀하고, 점차로 간단한 동요나 단순한 설명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는 동화나 설명이 주가 되는 것을 제시하여 아동이 글자에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화의 내용 중 반복어가 나올 때, 되풀이해서 들려주면 어린이는 ‘말’이 ‘글자’로 표현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어, 이것이 훗날 언어학습에서 ‘읽고 쓰기’를 위한 기본이 될 수 있다.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책이 나와 있으며, 펼칠 때마다 입체가 되거나 동물의 눈·코 등 특별한 부분만을 입체화한 것,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색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분화된 부분적 그림들로 되어 있어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활동사진처럼 하나의 동작이 이어지는 것, 미완성으로 되어 있어서 색칠을 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또 책 자체가 낱장으로 몇 등분으로 갈라져 있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다른 낱장을 펼쳐도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 정해진 주제를 대상으로 그린 그림들로 엮어 놓은 그림이야기책도 있다.

(2) 그림책의 역사

▶ 최초의 그림책

그림책은 근세 유럽에서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안된 그림을 담은 책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감각주의 교육의 창시자로 알려진 보헤미아의 J.A.코메니우스가 지은 《세계도회(世界圖繪)》는 사물의 명칭을 그림으로 나타낸 최초의 교과서로서, 이것이 그림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지적으로 미발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언어로써만 기술(記術)하기보다는 그림을 병행하여 기술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그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어서, 그림책이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⁹⁾

▶ 우리나라 그림책의 역사

조선시대에서 부터 1960년 까지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도서가 있는데 삽화가 들어간 목판으로 제작된 불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석씨원류, 삼강행실도가 있으며 특히 석씨원류의 경우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1648년(인조26년)에 기록한 것으로 그림삽화를 삽입하였는데 그중, 해당 삽화의 경우 조선시대 유명 걸작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사료적 가치와 예술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유명한 삼강행실도가 있으며 이는 1434년(세종16년)에 만들어진 유교의 삼강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윤리서적이라는 점에서 그림을 통해 흥미를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림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기도 하다.

9)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우리나라 그림책 생산의 시작

근대적 서적의 생산과 체제가 시작된 시기는 1920년대로 보고 있으며, 이후 계몽적인 교육열의 증가로 보통학교(현재 초등학교)의 입학률 증가가 잠재적인 독서인구의 성장을 가져왔다. 방정환이 발행을 주도한 소년잡지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그림책의 특성상 그림삽화 종류와 특징 때문에 주로 교과서나 간단한 동화책 위주로 형성됩니다.

▶ 그림책 그림의 발전

1908년 2월 이도영이 발행한 [도화임본]이라는 4권의 책에 그려진 삽화가 최초의 일러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삽화의 수요에 의해 미술가, 서예가 등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종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이후 1920년~30년에 인쇄업계 성장과 맞물려 그림책의 삽화 수준과 시장수요도 함께 성장합니다.

▶ 한국전쟁 이후 1960년~1980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가 주도아래 어린이책 보급과 독서 장려 정책덕분에 1963년에는 도서관법이 제정되어 학교 도서관이 크게 증가하였고 냉전이 극에 달하던 국제정세 속에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와 미국의 교육시스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국가적으로 잠재적 인력 육성을 위해 사회적 교육 시스템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로 유아 및 어린이 그림책 등이 상당부분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 오늘날 현재

수준 높은 일러스트와 함께 과거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등등 아동층에 기인했던 그림책들은 이제는 세계적인 수출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콘텐츠로서 그림책의 전망과 성장은 오늘날 21세기에도 꾸준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3) 철학 그림책이란?

철학 그림책은 사전에 정의되어있지 않는 말로, 철학과 그림책을 붙인 말이다. 철학 그림책은 말 그대로 철학이 담긴 그림책이다. 흔히 철학 그림책과 교훈을 주는 그림책을 헷갈려한다. 사실은 비슷하다. 철학 그림책은 작가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나 어떤 심오한 뜻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교훈을 주는 그림책은 어떤 일의 결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려는 것이다. 교훈을 주는 그림책이 좀 더 단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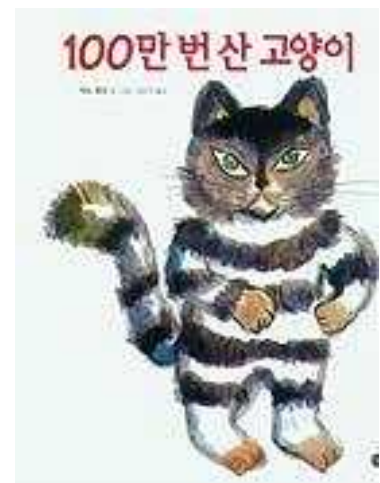
4) 여러 철학 그림책들¹⁰⁾

『백만 번 산 고양이』

글. 그림 /사노 요코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산 멋진 얼룩고양이가 있었다.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한때 임금님의 고양이기도 했고, 한때는 뱃사공, 도둑고양이, 서커스단의 고양이기도 했지만 그 고양이가 진정으로 마음에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양이는 자기만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기보다 더 좋아하게 된 하얀 고양이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고양이가 숨을 거두었다. 한 번도 울지 않던 고양이는 아침이 밤이 되고 밤이 아침이 되도록 계속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음을 멈췄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다.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



10) 참고: 네이버 책

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하얀 고양이 옆에서 숨을 거두고 나서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건 아마 하얀 고양이와의 삶이 후회 없을 정도로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 고양이를 통해 삶의 기쁨이 무엇이고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준다.

『반이나 차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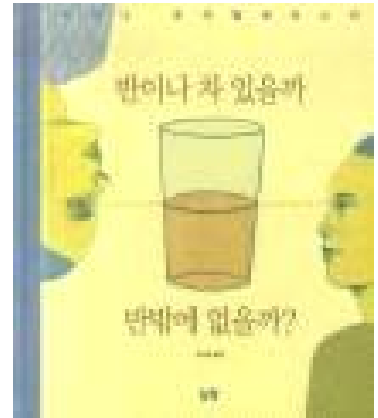
글. 그림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

작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커다란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자동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유해 보입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녀에 비해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에 비해 젊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에게는 뚱뚱하게 보이지만, 뚱뚱한 사람에게는 날씬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책은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서로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물의 상대적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단순한 글과 그림으로 ‘상대주의’라는 어려운 철학적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한 페이지에 한 구절 씩 쓰여져 있는데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그중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구절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우습고, 누군가에게는 슬프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시작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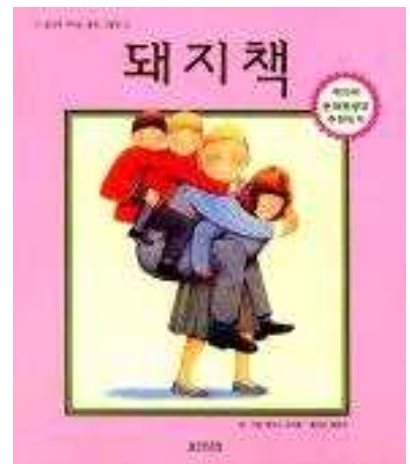


『돼지책』

글. 그림 /앤서니 브라운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곳 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늘 입을 크게 벌리고 아내에게, 엄마에게 빨리 밥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한다. 모든 집안일은 피곳 부인의 몫이다. 피곳부인은 매일 혼자 설거지, 빨래, 등의 일을 하고 그제서야 출근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곳씨와 두 아들이 집에 오니 피곳부인이 사라졌다. 이런 편지를 남긴 채, ‘너희들은 돼지야.’ 피곳씨와 두 아들은 돼지가 되어버린다. 피곳부인없이 생활을 하지만 점점 집안은 돼지우리처럼 변해간다. 그리고 피곳부인이 돌아온다. 피곳씨와 두 아들은 돌아와 달라고 빈다.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피곳씨와 아이들은 요리를 돕고 피곳부인은 차를 고친다.

집안일은 여성(엄마, 아내)만 한다는 사실을 재밌게 비꼰 그림책이다. 표지 그림에서 여성에게만 부과된 가사 노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고 있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의 일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누구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피곳씨와 두 아들을 돼지에 비유한 것과 중간 중간 유머 넘치는 그림들이 정말 재밌다.



2. 나의 철학 그림책

1) 대상

내 그림책의 대상은 6~10세 어린이. 하지만 어른이 읽어도 상관은 없다. 대상이 6~10세 어린이인 이유는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세~10세 어린이들의 심리 특징에 적합한 요소들을 그림책에 적용시켰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글자가 많은 책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글보다는 시각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글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림을 좀 더 알록달록하고 눈길을 끌게 넣었다.

2) 줄거리

한 아이가 있다. 이 아이에게는 그러면 진짜가 되는 신비한 요술연필이 있다. 아이는 이 연필로 이것저것을 그렸다. 그렇게 세상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아이의 연필을 좋아했다. 하지만 아이는 연필을 자기만 갖고 싶고 자기만 쓰고 싶었다. 결국 아이는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가 된 아이에게 사람들은 연필을 빌리기 위해 아부를 떠다. 어느 날 소녀가 아이에게 연필을 빌리러 왔다가 아이를 화나게 해 색깔을 잃는다. 사람들은 점점 색깔을 잃어가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색깔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주변에는 늘 사람들과 웃음이 많다. 결국 아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

3) 기존의 그림책과 나의 철학 그림책

기존의 그림책은 흥미 위주의 그림책, 교육을 위한 그림책, 교훈이 담긴 그림책 등 많은 것들이 있다. 흥미 위주의 그림책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준다. 교육을 위한 그림책은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위한 효과나 지식이 담겨있는 그림책이다. 교훈이 담긴 그림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나의 철학 그림책은 철학 그림책이니 내가 주고자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림이 큼직큼직하고 화려하다. 이러한 그림들은 아이들의 시각적 효과를 불러 흥미를 집중시킬 수 있다.

4)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이야기에서 ‘연필’은 권력과 소유를 뜻한다. ‘색’은 모두가 탐내는 것을 뜻한다. 주인공 아이는 처음엔 그냥 친구를 만들고 싶어 연필을 사용했다. 하지만 모두가 탐내는 연필(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 사람은 무엇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3. 철학 그림책 만들기

1) 글쓰기

생각난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다듬어가는 과정.

▶1차 이야기.(2014.5.27.)

제목: 미정

옛날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아이에게는 유일하게 연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필로 그림을 그렸지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그린 그림이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계속 그렸습니다. 어느덧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만 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해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사람이 아이의 말을 어기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발을 닦아라 했기 때문입니다! 화가나 아이는 그 사람에게서 색깔을 빼버렸습니다.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색깔을 잃어갔습니다. 색깔을 잃어간 사람들은 아이의 그림 없이 살아갔습니다.(그리고 점차 옅은 색깔이 생긴다) 나중엔 몇 명의 사람만이 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주변에는 언제나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모든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2차 이야기(2014.7.5)

제목: 색깔

옛날,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아이에게는 연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외롭던 아이는 연필로 허공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그린 그림이 별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또 별떡 일어나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술연필!? 아이는 연필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어느덧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연필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요술연필을 남들이 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연필을 빌려줄 거야!”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요술연필을 빌리러 오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참새에겐, “날 태우고 하늘을 날아!” 기린에겐,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가져와!” 등) 동물들과 사람들은 요술연필을 쓰기위해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아이에게 아픈 동생을 위해 요술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요술연필을 빌려주는 대신 자신을 업고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초조했습니다. “제발 빌려주세요.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안가면 죽을 지도 몰라요!” “가져와! 가져오지 않으면 요술연필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 세상엔 하늘을 나는 돼지 같은 건 없어요!” 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흑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녀처럼 흑백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몇 명의 사람들만이 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에게 항상 잘해줍니다. 아이는 언제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모든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 이야기와 달라진 점

일단 1차는 대강 내용만 잡은 거여서 줄거리 수준이었다. 2차는 말도 넣고 문장을 다듬고 자세하게 썼다.

▶3차 이야기(2014.8.4)

제목: 알록달록 얼룩덜룩

옛날,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아이에게는 연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외롭던 아이는 연필로 허공에 토끼를 그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그린 토끼가 별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사과를 그려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사과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요술연필!’ 아이는 연필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해님, 꽃, 나무 등 어느덧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요술연필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요술연필로, 높은 곳이 있으면 기다란 사다리를 그리고 어두운 밤엔 반짝반짝 반딧불이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요술연필을 남들이 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만 요술연필을 쓰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연필을 빌려줄 거야!”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요술연필을 빌리러 오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참새에겐, “날 태우고 하늘을 날아!” 기린에겐,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가져와!”, 토끼에겐 “네 귀를 나한테 달아줘!” 등) 하지만 아이가 시키는 일을 너무도 하기 힘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아이에게 아픈 동생을 위해 요술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픈 동생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요술연필로 그린 약이 꼭 필요했거든요. 아이는 요술연필을 빌려주는 대신 자신을 업고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초조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소녀의 동생은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빌려주세요.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안가면 죽을 지도 몰라요!” “싫어! 난 지금 당장 저 산 꼭대기에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요술연필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요. 나중에 하라는 건 다 할게요! 저 산에는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요!” “뭐라고?!” 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뽀얀 얼굴에 색이 빠지고 치마의 노란빛은 번져내리면서 잿빛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녀의 모든 것은 다 흑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녀처럼 흑백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흑백이 된 사람들은 모두 어기적 어기적 돌아다니며 색깔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색깔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아름다운 색깔과 요술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모든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2차 이야기와 달라진 점

2차는 이야기는 꽤 나왔지만 아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문장이나 단어도 덜 다듬어졌었다. 3차는 이런 부분을 다듬고 중간에 어색한 내용들을 바꾸었다.

▶완성된 이야기(2014.10.1)

제목: 알록달록 얼룩덜룩

옛날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아이에게는 연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외롭던 아이는 연필로 허공에 토끼를 그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그린 토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사과를 그려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사과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요술연필!’ 아이는 연필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해님, 꽃, 나무 등 어느덧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요술연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요술연필로, 높은 곳이 있으면 기다란 사다리를 그리고 어두운 밤엔 반짝반짝 반딧불이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요술연필을 남들이 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만 요술연필을 쓰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연필을 빌려줄 거야!”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요술연필을 빌리러 오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참새에겐,

“날 태우고 하늘을 날아!”

기린에겐,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가져와!”,

토끼에겐

“네 귀를 나한테 달아줘!”

하지만 아이가 시키는 일을 너무도 하기 힘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아픈 동생을 위해 아이에게 요술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픈 동생이 낫기 위해서는 요술연필로 그린 약이 꼭 필요했거든요. 아이는 요술연필을 빌려주는 대신 자신을 업고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초조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소녀의 동생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빌려주세요.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안가면 죽을 지도 몰라요!”

“싫어! 난 지금 당장 저 산 꼭대기에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요술연필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요. 나중에 하라는 건 다 할게요! 저 산에는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요!”

“뭐라고?!”

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뽀얀 얼굴에 색이 빠지고 치마의 노란빛은 번져내리면서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소녀의 모든 것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녀처럼 잿빛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잿빛이 된 사람들은 모두 어기적 어기적 돌아다니며 색깔만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색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색깔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는 언제나 아름다운 색깔과 요술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3차 이야기와 달라진 점

3차와 티나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장이나 단어들을 매끄럽게 고치고 이은홍 작가님의 조언으로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2) 그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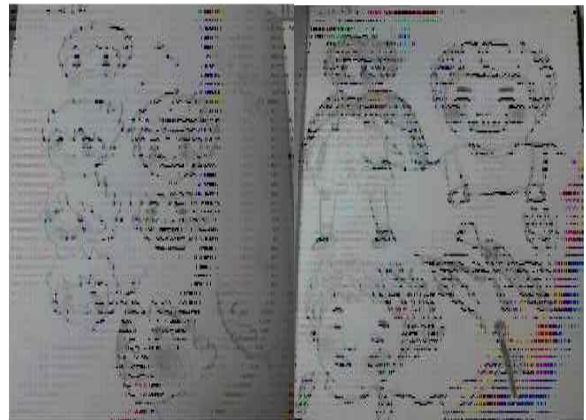
(1) 등장인물 구상

주요인물은 ‘아이’와 ‘소녀’이다. 아이와 소녀는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머리를 할지, 어떤 표정을 할지, 어떤 자세를 할지 등을 구상 했다.

아이부터 설명하자면 아이는 그림책내용에 맞게 심술긋고 뺨깡 부리는,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처럼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빨간 망토를 입히고 아이처럼 알록달록하고 귀여워 보이게 초록색 줄무늬 옷과 파란색 바지를 입혔다. 머리도 정돈되지 않게 뻗죽뻗죽 그리고 심술긋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은 뚱하게, 약간 빠진 아이처럼 그렸다.

소녀는 약하고 어려보이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정석 소녀풍을 그렸다. 양갈래 머리에 치마를 입혔다. 힘없어 보이기 위해 손을 모으고 발을 안 쪽으로 하게하고 표정도 힘없어 보이게 눈썹을 내리게 그렸다.

내 그림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같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무슨 옷을 입든 어떤 머리를 하든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좀 더 이야기가 이어지고 한 마을 속의 무리라는 느낌이 들어서 몇몇 등장인물들의 개성있게 그리고 계속 등장하게 했다. 그림책을 보면 알겠지만 토끼, 기린 등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연속으로 끝까지 나온다. 이런 등장인물들은 글로는 지목되지 않지만 그림으로는 계속 나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등장인물들은 따로 구상을 하지 않고 그림 장면에 어울리게 그렸다.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렸다. 다들 약간 익살스럽게 그렸기 때문에 구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2) 그림 연습하기

사전에 미리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림 그리면서 잘 안그려지는 표정이나 자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될 때까지 연습해보고 그렸다.

(3) 콘티 짜기

처음엔 머리 속으로 대략적인 콘티를 짰다. 그러고는 자세한 콘티 (주인공의 자세, 그림구도 등)를 종이에 그리려고 했다. 그런데 대략적인 콘티나 흐름은 생각 다 했는데 자세히 콘티를 그리려고 하니 너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막막했다. 이렇게 하다간 콘티만 그리다 방학이 다 갈 것 같아서 일단 구상이 완료된 장면들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콘티를 제대로 그리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리다가 혼란이 왔다. 페이지 수를 생각안하고 막 그린 것이다! 하루 종일 골머리 썩다가 겨우 해결하고 콘티를 그렸다. 콘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4) 그림그리기

▶ 재료

굵은 색연필(주재료), 일반 색연필, 수채화 색연필, 연필, 포스터 물감

거의 모든 재료를 색연필로 한 이유는 아기자기하고 열기설기 한 느낌을 주기위해서다. 그리고 내용 특성상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연필을 진하고 선명하게 색칠했다.

▶ 그리는 과정

1. 연필로 엄청 연하게 밑그림을 그린다. (밑그림 사진을 잘 보이지 않아 넣지 않았다.)
2. 검정색 색연필로 밑그림을 따라 그린다. (연필 자국 지워주면서.)
3. 중심 물체부터 색칠을 한다.
4. 배경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 중심 물체와 어울리게 색칠을 한다.



▶ 수채화 색연필, 일반색연필, 굵은 색연필을 사용한 그림.

소녀가 물을 맞는 장면이다.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을 주기위해 수채화 색연필로 칠하고 붓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했다. 이것을 통해 소녀가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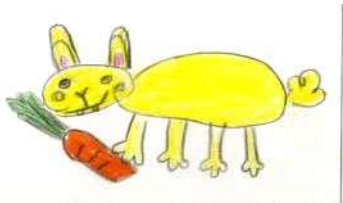
▶ 굵은 색연필과 일반 색연필을 사용한 그림.

아이가 독재자처럼 변한 장면이다. 화려하고 심술궂은 느낌을 주기위해 최대한 여러 색깔을 넣어 알록달록하게 하고 아이가 벌레들을 밟고 있게 했다. 아이가 벌레를 밟고 있는 것을 통해 아이의 무자비함을 표현했다.



▶ 굵은 색연필, 일반 색연필, 연필을 사용한 그림.

사람들이 색깔을 빼앗기고 걸어다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그림책의 느낌이 어둡게 확 바뀌는 장면이어서 삭막하고 살짝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다. 삭막한 느낌을 주기 위해 배경을 아예 흑백으로 채웠고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기위해 앞에 사람 세 명의 표정과 생김새를 무섭게 그렸다.



▶ 위에 두 그림은 내 동생이 그린 것이다. 저 두 장면이 그림책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그린 걸로 나온다. 처음엔 내가 어린애들 그림을 훔쳐내 내 그려봤는데 어린애들이 그린 것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해 그린 그림이다.

3) 편집, 인쇄하기

▶ 편집

그림을 다 그리고 충주시립도서관에 가서 스캔을 했다.

스캔한 파일을 편집,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편집은 그림을 깨끗하고 그림책이 전체적으로 잘 이어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스캔하는 과정에서 생긴 먼지나 그림자, 종이의 누런 부분들을 보정하고 그림책에 내용에 맞게 그림의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바꾸기 등을 했다.



←이 두 사진을 편집, 보정해서
이렇게!→



↓ 시범적으로 (학교에서)인쇄를 해 책처럼 엮어보았다. 제대로 된 책은 아니지만 책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보니 전체적인 구성이 대충 눈에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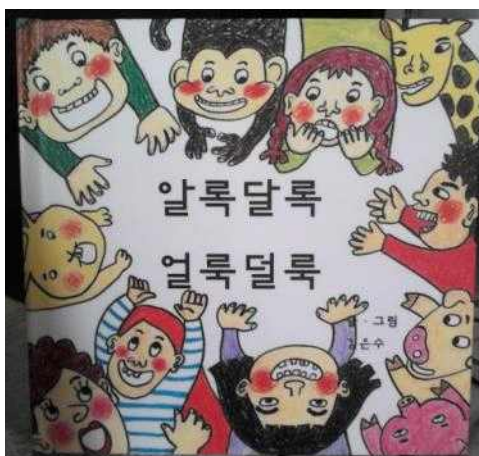


▶ 인쇄

편집을 끝낸 후 '선우카피랜드'라는 인쇄소에 맡겼다. 커버, 종이 등을 어떻게 할지 인쇄소와 이야기를 했다.

4. 완성 및 평가

1) 완성된 철학 그림책



2) 여러 사람들의 평가

(1) 어린이들의 평가

신망애 어린이집¹¹⁾과 덕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¹²⁾을 방문했다. 어린이들 앞에서 내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묻는 형식으로 했다. 선생님들에게 간단히 질문만 했다. 아래 그림은 아이들에게 인상깊었던 그림들이다.

▶신망애 어린이집(11.18.화)

어린이들 평가: 재미있다, 요술연필이 있다면 상어, 독거미, 토끼, 사과 등을 그리겠다, 아이가 무섭다, 꽃이 예쁘다. 재미없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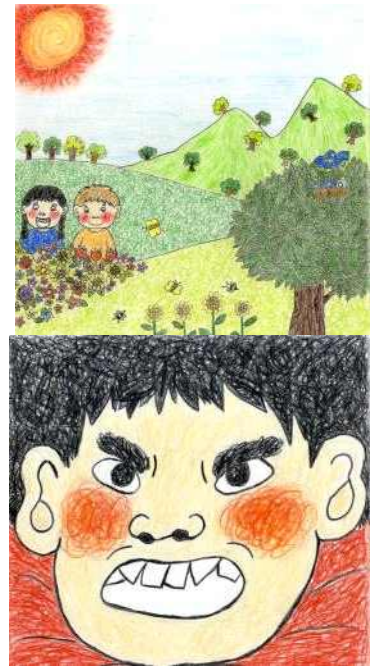
어린이집 선생님 평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읽기에 내용이 어려운 것 같다. 아이들은 바로 보여지는 대로 받아드리는데 이 그림책은 생각을 해야 되서 6,7살 수준이랑 안 맞는 것 같다. 아이들은 그냥 알록달록하고 예쁘면 좋고 흑백이면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

▶덕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1.20.목)

어린이들 평가: 자기도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기 싫은 적이 있었다.(내가 더 놀고 싶어서) 요술연필이 있다면 장난감, 총 등을 그리겠다.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표정이 안좋아서, 똥똥해서, 의자가 커서 등) 토끼가 있는 그림이 좋다. 사다리가 구름까지 이어져있는 게 이상했다. 소녀는 동생이 죽을까봐 연필을 빌리려했다. 화난 그림이 진짜 많이 화난 것 같다.

유치원 선생님 평가: 그림은 괜찮은데 단어가 어려운 것 같다. ‘초조’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결말이 열린 결말인데 이해하려면 초등생은 되어야 할 것 같다.



(2) 작가들의 평가

이은홍¹³⁾ 작가님과 김리아¹⁴⁾ 선생님의 평가를 받았다. 이은홍 작가님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리아 선생님은 직접 읽으시고 글로 써주셨다.



▶이은홍 작가님(11.17.월)

책의 겉모습(표지)이 깔끔하고 좋다. 글씨 크기, 배치에 변화를 준 게 재밌다. (예: ‘뭐라고!?’를 크게 한 것 등) 편집구성이 훌륭하다.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처음으로 그림책을 만든 거니까 지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지적하면 은수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책을 그릴 때 자신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은수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땐 은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작가소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작가소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그림책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수는 그림책 작가를 해도 잘할 것 같다.

11) 신망애 어린이집.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덕산 성결교회 옆에 있는 어린이집.

12) 덕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3) 이은홍. 그림작가.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역사야, 나오너라!』 등의 저자.

14) 김리아. 제천간디학교 미술선생님. 그림책의 그림을 그리는 경험이 있다.

▶김리아 선생님(11.24.월)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은수가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 그림뿐만 아니라 이야기 기획,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쉽게 그려나갔지만 이야기 수정과 편집 및 출력과정이 녹록하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림에도 이야기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가다듬어 나갔고, 다른 적 없던 포토샵도 사용법을 익혀가며 더 좋은 출력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미리 출력하여 책처럼 가편집을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독성과 그림 배치에 관해 다시 고민하고 수정하였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캔을 위해 도서관에 가서 정리하고 인쇄물 크기 조정에 오류가 나서 여러 번 다시 시도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익숙치 않은 프로그램 기술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으로 당시 지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눈물을 닦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작품을 질을 떠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미 훌륭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더욱 빛나는 은수만의 동화책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3) 나의 평가

내 그림책은 정말 마음에 든다. 솔직히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든 것 같다.

그림도 좋고 내용도 좋다. 아쉬운 것도 많다. 일단 제목의 글씨체. 더 예쁘고 어울리는 글씨체가 있었는데 바쁘게 한다고 신경을 쓰지 못했다. 페이지를 왼쪽부터 시작하려고 필요없는 페이지(아무것도 없는)를 추가했는데 그 페이지를 속표지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이은홍 작가님의 말씀처럼 작가소개가 정말 아쉽다. 내가 누구고 왜 이 그림책을 만들었는지 등을 적고 싶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림책을 만든다면 계속해서 아쉬운 점이 줄어들 것이다.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사실 처음엔 그림책 만들기를 생각했을 때 ‘아 나름 할 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학 때 그림 그릴때만 해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다. 근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 맨날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림책을 만드니 뭔가 모르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느낌이 색달랐다. 게다가 편집 때문에 진짜 애먹었다. 포토샵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났다. 논문 발표 때까지 완성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컸다. 울기도 하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적도 많았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은근히 떨리고 부담됐다. 내 그림책은 부족한 점도 많고 어설피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린 그림책이라 엄~청 뿌듯하고 만족한다. 그래도 논문을 쓴건 후회하지 않는다. 논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또 언제 그림책을 만들어보겠는가. 논문으로 나름 꽤 많은 것을 겪고 배운 것 같다. 와, 진짜 내가 그림책을 만들다니!!! 대박!!!!

2. ♥고마운 친구들♥

왠지 우리 가족들? 미니 가정학습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컴퓨터 쓰게 해주신 예술이네. 시끄러웠던 102호 채현언니, 하린언니, 자현이.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반갑게 평가해주시고 그림책 선물까지 주신 은홍쌤. 어린이집가서 같이 그림책 읽어준 효원이. 밤마다 학교에 남아서 간식 만들어 주시고 잔소리 해주신 민혜쌤이랑 아기 안보고 밤마다 학교에 남아서 걱정해주신 상현쌤.(이제 3학년 그만해요 ㅋ) 진짜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쌤ㅎㅎ 담당교사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매번 나갈 일 있을 때 태워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논문 쓰면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아요?ㅎㅎㅎ 리아쌤은 진짜 죄송해요.♥ 담당교사도 아닌데 맨날 따라 다녀서ㅎㅎㅎ

마지막으로 우리 콩자반!!!! 우리 완전 잘한 것 같아!!!! 대박 짱짱!!! 논문 끝남!!! ♥♥♥♥

3. 부록

▶제작일지

2014.7.18. (금)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단조로운 그림이긴 하지만 두장이나 그렸다. 머리로 생각한 콘티를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이러다간 그림을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한 콘티로 그림그리기를 시작했다. 나름 순조로웠다. 이대로만 한다면 콘티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냥 그림은 다 그리고 콘티는 예의상으로 그려도 될 것 같았다.

2014.7.22. (화)

최대한 이야기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중간 중간에 너무 아이디어가 나지 않아 그냥 쉽고 잘 그려지는 것부터 그렸다. 오늘도 한 장 그렸다. 오늘 그림은 뿌듯하다. 좀 잘 그려진 듯.

2014.7.23. (수)

그림을 한 장 그렸다.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라서 좀 손이 많이 갔다. 근데 오늘 그림 진짜 맘에 든다.

2014.7.26. (토)

그림을 한 장 그렸다. 처음엔 약간 마음에 안드는데 배경까지 다 색칠하고 나니 마음에 들어서 좋았다.

2014.7.27. (일)

그림을 한 장 그렸다. 오늘 그린 그림은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 밑그림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다시 그리고를 반복했다. '두 바닥에 할까 한 바닥에 할까'생각도 하고. 이틀만에 그렸다. 마음에 든다.

2014.7.28. (월)

그림을 한 장 그렸다. 단조로운 그림이라서 후딱 그린 것 같다.

2014.7.31. (목)

그림을 한 장 그렸다.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2014.8.1. (금)

오늘은 총 세장의 그림을 그렸다. 한 그림은 그림을 다 그렸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렸다. 밑그림을 제대로 안 그려서 그런 것 같다. 그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을 두장이다. 두 번째 그림을 마음에 든다. 색깔이 예쁘게 됐다.

2014.8.3. (일)

7.31에 그렸던 그림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들어서 오늘 다시 그렸다. 이번엔 괜찮다.

2014.8.4. (월)

그림을 두 장 그렸다. 서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근데 완전 위기가 왔다!!! 내가 콘티를 제대로 안 짜놔서 페이지 수가 뒤죽박죽이 됐다. 이어지는 그림들이 같은 바닥에 안 들어가고 한 장 넘겨야 볼 수 있게 됐다. 골 때렸다. 겨우겨우 페이지를 맞췄다. 그리고 바로 콘티를 그렸다. 진작에 콘티 그릴 걸. 오늘 완전 중요한 걸 깨달았다.

2014.8.5. (화)

어제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밑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렸다. 서두르지 않고. 잘 그렸겠다. 뭔가 기분이 좋다.

2014.8.8. (금)

드디어 이야기 내용이 클라이막스 비슷한 것 까지 그렸다. 오늘 그릴 그림은 이전에 그리던 거랑 느낌이 확 다른 그림이다! 뭔가 설렌다. 회색,검정색 색연필과 연필로 배경을 칠했다. 이 그림을 배경만 칠하는 건데 은근 손이 많이 간다. 배경만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또 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 색칠은 물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2014.8.9. (토)

어제 그렸던 거랑 비슷한 느낌에 그림이다. 하지만 오늘은 배경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그린다. 잘 그려졌다. 지금까지 그렸던 거랑 느낌이 달라서 좀 걱정됐지만 재밌었다.

2014.8.13. (수)

오늘 그린 그림을 3일 만에 그렸다. 사람이 많이 나와서 손이 많이 가기도 했지만 처음 밑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었다. (내가 게으름 피운 것도 있다.) 그렇게 다 그리고 나니 완전 뿌듯했다. 언니랑 엄마,아빠가 잘 그렸다고 해서 더 기분좋았다.

2014.8.16. (토)

두 장의 그림이 나왔다. 하나는 내가, 하나는 동생이 내 지휘 하에 그렸다. 첫 번째 그림을 손이 많이 갔지만 나름 잘 나왔다. 두 번째 그림을 약간 어린 애들이 그린 것처럼 해야 되는데 난 아무리 어린 애들처럼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졌다.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역시 애들이 그린 것 어린애들만의 순수함이 있는 것 같다.

2014.8.18. (월)

8.8날 그린 색칠 안한 그림이 맘에 안들어서 다시 그렸다.

2014.8.19. (수)

내가 예전에 논문 주제정할 때 수진쌤이 니 그림책에 들어갈 그림이 무슨 느낌인지 알수있게 그림을 그려요라고 했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이 그렸다. 그 땐 이 그림이 내 그림책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결국 들어간다. 그 때 그 그림을 따라 그렸다.

2014.8.30. (토)

8.19 이후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다. 개학하고 처음그리는 그림이다. 진짜 뻥세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게으름 피웠다. 오늘 한 장 그렸다.

2014.9.12. (금)

한 동안 도화지를 못 구해서 그림을 못 그렸다. 두 장 그렸다. 서경이의 수채화 색연필을 빌려서 배경만 있는 그림을 그리고 8.18 때 색칠 안했던 그림에 수채화 색연필로 색칠을 했다. 근데 망했다. 일부로 번지게 하는 색칠이었는데 잘못해서 이상하게 번졌다. 그래서 8.8날 그린 색칠 안한 그림을 보니 그림이 괜찮아서 이 그림에 다시 수채화 색연필로 색칠을 했다. 배경을 못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진 잘 났다.

2014.9.14 (일)

9.12날 그림을 배경까지 다 칠했다. 한번 수채화색연필을 써보니 좀 잘되는 것 같다. 확실히 수채화 색

연필은 그냥 색연필과는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다.

2014.9.16 (화)

예전에 그리려다가 잘 구상이 안돼 미루고 있던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 안 그려질 땐 안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구상이 잘 되지 않고 때가 아닌 때 그렸다가 망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색연필로만 그렸다. 단순한 그림이지만 잘 되었다.

2014.9.19. (금)

예전에 토끼 그림을 그렸었다. 토끼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었는데 리아쌤이 너무 암전해보인다고 하셨다. 다시 보니 정말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다시 그렸다. 마음에 든다.

2014.9.21. (일)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물 뿌리는 장면을 드디어 그렸다!!! 리아쌤의 도움으로. 포스터 물감을 물에 풀어서 붓으로 짝 뿌렸다. 처음엔 잘 안되서 계속 연습을 하고 했다. 엄청 예쁘게 됐다. 근데 물감을 써서 그런지 전체적인 그림과 잘 안 맞는 느낌이 든다.

2014.9.28. (일)

편집을 시작했다. 리아쌤이 편집프로그램 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 너무 어려웠다. 편집을 빨리 해야되는데 너무 막막하다.

2014.9.29. (월)

편집을 했다. 처음엔 리아쌤없이 컴퓨터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지우개로 먼지지우는 건 혼자 할 수 있다. 나름 재밌었다. 리아쌤 노트북밖에 못한다는게 너무 안 좋다.

2014.9.30. (화)

오늘도 편집을 했다. 혼자서 꽤 할 수 있다. 빨리 편집하고 싶다. 인쇄소에도 맡겨야 되는데.

2014.10.4. (토)

보정은 다 끝냈다!! 이제 글만 넣으면 된다!!

2014.10.7. (화)

편집을 거의 못했다. 포토샵을 써야되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컴퓨터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아 완전 짜증난다.

2014.10.8. (수)

수진쌤 말대로라면 오늘 빨리 편집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내일 서울에 가서 인쇄를 해야한다. 근데 할 수 있을까. 본문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림책에 그림이 추가 될 것 같다. 이 그림을 빨리 스캔해야 되는데 스캔기가 문제다. 어떻게 하지?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

지도교사: 강미리



이름: 문서경

생일: 1. 28

한마디: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잘 끝내서 너무 뿌듯하다!!

목차

I . 서론

1. 동기
2. 목적
3. 연구방법

II . 본론

1. 업사이클링이란?
 - 1) 업사이클링의 정의
 - 2) 업사이클링 이용실태
2.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 1) 인형이란?
 - (1) 인형의 종류
 - 2)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3. 인형 만들기
 - 2) 재료 구하기
 - 3) 만드는 과정
 - (1) 구상하기
 - (2) 도안
 - (3) 만들기
 - (4) 이름 짓기
 - 4) 택 달기
4. 알리기
 - 1) 학교에 비치하기
 - 2) 나눠주기
 - 3) 워크숍 하기
 - 4) 평가받기

III .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thanks to♡

I. 서론

1. 동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천으로 옷이나, 인형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 부터 혼자서 이것저것 만들었었다. 그러면서 남은 자투리 천이 아깝다고 생각했었던이 많았었다. 그리고 논문 주제를 생각하던 중에 자투리 천을 이용하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논문집을 보다가 ‘에코 디자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에코디자인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업사이클링’을 알게 됐다. 업사이클링은 에코디자인의 일종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로 가치를 더 높은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1학년 때부터 기숙사에서 주인이 없어서 버려지는 옷이나 수건, 우산들을 늘 봐왔다. 특히 기숙사에서는 경매 까지 해도 많은 양의 옷들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많은 옷과 천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업사이클링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여러 옷이나 커튼, 등 천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인형을 생각났다. 왜냐하면 내가 워낙 예전부터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커튼이나 다른 생활용품들은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옷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인형은 여러 사람들이 갖고 놀 수도 있고, 좀 더 실용적인 베게인형, 열쇠고리 인형 등을 만들면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형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2. 목적

학교에 버려지는 천이나 옷, 수건 등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재활용을 하여 인형을 만든다.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알린다. 그리고 간디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인형을 만들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논문이 끝나도 언제나 남는 천만 있으면 언제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품논문입니다.

1) 참고서적

▲09학번 논문집

▲위비 따라 인형 만들기(윤아영)

▲윤즈돌 YONZDOLL : 헌 옷 인형 만들기(성승연)

2) 참고 사이트

에코파티 메아리 - <http://www.mearry.com/>

프라이탁 - <http://www.freitag.ch/>

윤즈돌 헌옷으로 만드는 인형 - <http://blog.naver.com/yonzdoll>

3) 방문 및 탐방

서울 시청 업사이클링 전시회

4) 취재와 인터뷰

『윤즈돌 YONZDOLL : 헌 옷 인형 만들기』 저자: 성승연

5) 용어정리

재활용(Recycling)

사용하던 모든 것의 재순환 재활용센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나라에서 사용하던 제품들을 구매해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활용(Upcycling)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재활용 자원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입혀 수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¹⁾

에코디자인(Eco design)

제품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 친화 디자인.

II. 본론

1. 업사이클링이란?

1) 업사이클링의 정의

2)기준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의류 등을 이용해 새로운 옷이나 가방으로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장바구니로 만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여 얻은 지렁이 배설물 비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업사이클링 이용실태

요즘 에코열풍이 줄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충분한 원단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재단된 재료를 놓고 디자인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친환경 재활용 디자인은 시작부터 난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수고는 배로 들고, 세상에 딱 하나라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래도 버려지는 폐품을 이용한 것이지만 실용성이나 디자인 면에서 우수하며, 전혀 재활용한 것 같지 않고, 하나 밖에 없다는 희소성 덕분에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프라이탁

업사이클링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가방일 것 이다. 해외 유명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프라이탁은 컨테이너나 트럭의 방수덮개, 자동차의 안전벨트, 자전거 타이어의 고무튜브를 이용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 낸다. 이 밖에 가방을 중점으로 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많은데 아마도 가방이 가장 모두에게 실용적인 것 같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1) [출처] 업사이클링이란?작성자 moony

2)[네이버 지식백과] 업사이클링 [up-cycl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옷도 업사이클링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옷은 디자인과 세상에 하나 뿐이라는 희소성이 업사이클링 옷들은 어떤 옷보다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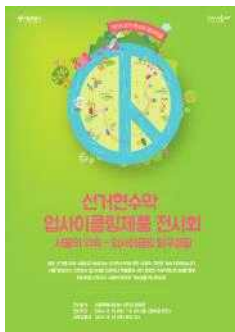


▲사진 출처. 리블뱅크



▲사진출처. 에코파티 메아리(릴라씨)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은 실용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닥 많지가 않다. 몇 안 되는 인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을 ‘에코 파티 메아리’에 ‘릴라씨’이다. 기증되는 물건 중 가장 많이 버려지는 아동 옷을 이용해 만든 릴라씨는 멸종위기인 고릴라를 보호하고, 재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



▲업사이클링 전시회

얼마전에는 시청에서 ‘선거 현수막 업사이클링 전시회’라는 이름의 업사이클링 전시회도 했다. 작품들은 지방선거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선거현수막을 시민과 작가들이 실용적이고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으로 다시 만든 것들을 전시했다.

이 밖에도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다.



▲안 입는 스웨터로 만든 쿠션커버



▲안 쓰는 라켓으로 만든 거울



▲셔츠로 만든 앞치마



▲낡은 자전거로 만든 책상



▲워커에서 화분으로

2.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1) 인형이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말할 수 있다.

사전에 사람의 모습을 작게 만든 것, 재료는 나무, 흙, 돌, 점토, 종이, 상아 등을 사용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 인형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장 오래 된 인형이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BC 2000년경 인형이라고 한다. 다만 인형의 기원은 종교적·주술적인 것뿐 아니라 어린이의 완구인장난감으로서의 요소가 있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역병, 재화 등을 떠맡기기 위해, 또는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도 하다.

(1) 인형의 종류

재료가 다양한 만큼 인형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요즘엔 예전과 다르게 인형에도 마니아층이 많아지면서 더 다양해졌는데, 흔히 아는 봉제 인형 뿐 아니라 점점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인형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비스크 인형, 돌피인형 등이 있다.

또 목각인형은 나무로 만들었고 가공 및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 보수와 보존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유명한 걸로는 마리오네트 등이 있을 것이다.

봉제인형은 우리가 흔히 인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봉제인형일 것이다. 가정에서도 자투리 천·털실도막·현수 등을 이용하여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감촉이 부드러우며 떨어뜨리거나 던졌을 때 깨지지 않고 세탁이 간편한 장점이 있어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봉제인형만큼 많이 알려진 인형 중 하나가 아마 손뜨개인형일 것 같다. 봉제인형에 비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을 빼면 더 튼튼하기도 하고, 실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봉제인형



▲마리오네트 인형



▲비스크인형



▲손뜨개 인형

또 다른 인형도 있다. 재료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문화의 차이도 느껴진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특징이 있는 인형들을 많다.



▲손인형



▲마트로시카



▲그림자인형

2)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인형

업사이클링 인형은 재료도 구하기 쉬워서 취미로 하기 좋지만 재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원하는 색이나 무늬를 찾기는 매우 힘들어서 디자인하기에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다. 또 수건 천은 두꺼워서 가정용 재봉틀은 바늘이 부러지기 쉽고, 그냥 티셔츠들은 대부분 잘 늘어나는 다이마루천이라서 재봉틀 하기가 특히 까다롭다.

대신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장점이 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업사이클링 인형’ 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먼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정말 간단하다. 재료도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개인블로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개인블로그에서 업사이클링 인형을 만드는 걸 올리고, 판매까지 하시는 분을 인터뷰 했다. 사실 잘 답장을 안 해주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선뜻 인터뷰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은 아래에 있다.

1. 업사이클링을 알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2. 혹시 천 말고 다른 것들도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3. 업사이클링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시선은 어땠나요??
4. 업사이클링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계시나요?? (하신다면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5. 어떤 업사이클링 브랜드나 매장 이용하거나 참고 하세요??ㅎㅎ
6.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주의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터뷰 내용 中

Q. 업사이클링을 알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처음엔, ‘업사이클링’ 이란 말도 모르고 시작했다. 한국에는 이렇게 못생기고, 밍상느낌 인형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볼까, 생각하다가 어떤 원단을 사야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옷방에 헌옷들 쌓인 거 보고, 어차피 버릴 거 이걸로 연습 삼아 만들었다. 근데 완전 맘에 들어서 그 후로 쪽 헌옷인형을 만들고 있다.



Q. 업사이클링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시선은 어땠나요??

‘헌옷으로 이런 인형을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반응이었다.

Q.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주의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딱히 주의할 점은 없다. 창의력을 많이 이용하고, 남의 작품 그대로 베끼는 것. NO NO

감사합니다^^

3. 인형만들기

1) 재료 구하기

재료들은 학교에서 남는, 버려지는 것들로 최대한 구했다. 천들은 기숙사에서 남는 옷, 옷 만들기 실에서 남는 쪼가리 천, 굴러다니는 우산을 구했다.

일단은 단추까지도 옷에 붙어있는 걸로 쓰다가 양도 모자란데다가 디자인을 위해서 예쁜 것을 사려고 동대문에 가서 부재료들을 사왔다.

기본적으로 옷들은 패딩, 야상같은 다루기 힘든 옷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져왔다. 옷만들기 실에서는 버려진 옷들만 구하다 보니 칙칙하기 짝이 없는 색깔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천들 중 다 쓰고 남은 천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가져왔다. 우산은 사실 여러재료를 쓰기 위해 구해왔다.

수건은 처음에는 생각도 못 했다. 사실상 기숙사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수건이고 남이 쓴 수건이라서 깨끗이 빨 건데도 다들 가져갈 생각도 안 한다. 거기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도 쓴 수건이라서 기부하기에도 좀 그렇다. 그래서 가장 골치가 수건인데, 처음에는 생각조차 안했는데, 미리강의 얘기를 듣고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서 본 다음에 이해를 했다. 수건은 털이 많은 천이라서 바느질하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찾아도 보고, 시험 삼아 만들어도 봤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털 때문에 바느질을 잘 못해도 티도 안 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나 이외의 바느질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만들기 좋다고 생각했다. 또 다들 안 가져가서 그런지 색깔도 예쁜 게 많았다.



▲기숙사 옷과 양말 수건들



▲기숙사에서 가져온 티셔츠



▲옷 만들기 실 쪼가리 천



▲ 학교에 버려진 우산

티셔츠는 당연히 처음부터 생각했고, 가장 쓰기 쉬운 천인 것 같다. 면도 넓고, 자르기도 어렵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다. 대신 수건과는 다르게 색이 밝은 거나 예쁜 무늬가 있는 천들은 더 경매할 때 가져가서 칙칙한 천들밖에 없었다.

옷 만들기 실에서는 쪼가리 천들을 가져왔다. 버리기도 쓰기에도 애매한 천들을 이용하면 남는 옷들의 칙칙한 색을 좀 보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양말도 재료로 이용한다. 양말도 만든 인형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만큼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남는 짝짝이 양말이나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양말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우산, 현수막도 구했다. 우산이나 현수막은 처음 생각에는 ‘가족’ 비슷한 느낌으로 이용하려고 구했다. 내가 구한 다른 천들에 비해 뽀뽀하기도 하고, 튼튼해서 다른 천들과 함께 이용할 생각이다.

2) 만드는 과정

(1) 구상하기

일단 인형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구상을 했다.

내가 어떤 인형을 만들지 무슨 재료를 쓸지 먼저 구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용도에 따라 구상을 먼저 해봤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베개로 쓰일 수 있는 큰 인형이라던가 열쇠고리 인형 등을 많이 생각했었다.

① 블라블라 인형

블라블라 인형은 애기들 인형이다.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팔, 다리가 길어서 이리저리 갖고 놀 수 있는 인형이다. 사실은 알리는 용도로 썸들 혹은 근처에 아는 애기들한테 인형을 주는 방법도 생각했었다. 인형은 원래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실용성에 있어서는 애기들 주는 게 좋을 것 같

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미리강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블라블라 인형’이란 것을 알게 됐다. 블라블라 인형은 나름 비싼 인형인데 만들기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특이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애기들 인형 중에서는 유명한데다가 상당히 비쌌다. 하지만 그냥 봐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쉬운 인형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애기들을 주기로 했다.

② 베개 인형

베개인형은 처음에 긴 애벌레 인형 같은 걸 생각했다. 하지만 찾아보니 너무 난이도가 있어서, 그냥 베개로 쓸 수 있는 좀 낮은 평면인형을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다. 찾아보다가 그냥 이런 정도의 도안이라면 내가 만들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귀여운 동물 정도를 내가 도안을 그려보려고 한다.

③ 양말 인형

양말인형도 생각했다. 양말인형은 쉽고, 예쁜 인형으로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었던 인형이다. 정말 누구나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을 만큼 쉽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양말로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예쁜 인형이 된다. 요즘에는 현 양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쁜 양말을 사다가 만드는 경우도 많다. 양말인형은 내가 생각한 목적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④ 열쇠고리 인형

열쇠고리 인형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냥 동물모양 인형만 생각을 하고 도안을 짰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어글리돌3)’이란 것을 알게 됐다. 어글리돌은 기존에 예쁜 인형들 말고, 좀 못생기면서도 귀여운 인형들을 파는 브랜드 이름이다. 그래서 어글리돌을 찾아보다가 그런 식으로 귀여운 인형도 만들어보고 싶었다.

⑤ 물싹팩 커버 인형

물싹팩은 전기가 들지 않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쓰는 핫팩이다. 그 상트로로는 너무 뜨거우니 커버가 필요한데 예쁘게 만들어서 기숙사에 비치 해 놓으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도 안 들고 배 아플 때, 추울 때, 등등 핫팩을 찾게 되는데 기숙사에 비치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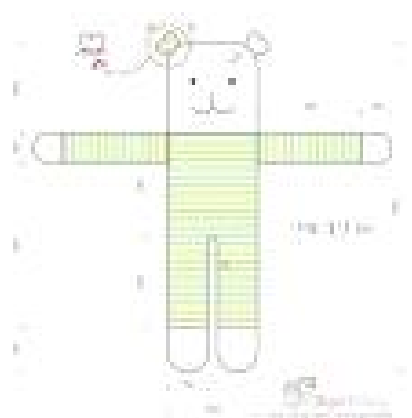
(2) 도안

도안은 내가 직접 만든 것과 인터넷, 책 등에서 찾아서 이용했다.

블라블라 인형이나 양말 인형은 인터넷상에서 매우 많이 올라와있고, 그것을 쓰는 편이 훨씬 디자인 면에서 예쁠 것 같아서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도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대신 열쇠고리인형이나 쿠션인형 같이 단순하고, 모양을 쉽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은 도안을 직접 만들어봤다.

일단 미리 생각해봤던 도안들을 종이에다 밑그림을 그린다. 크기는 도안에 비해 만들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만들고 싶은 크기에 1,2cm는 더 크게 그렸다.

처음에는 열쇠고리 인형 도안을 그렸다. 먼저 동물인형이 그리기도 쉽고 예쁠 것 같아서 동물들을 많이 그렸다. 흔한 코끼리부터 기린, 강아지, 고양이 등등, 그리고 그냥 현실적인 모양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특이한 요소를 추가해서 도안을 더 그려봤다. 또 다른 재미있



▲블라블라인형 도안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yyssyy77>

3) 미국의 데이비드 호바스와 한국의 김선민씨가 만든 인형 및 피규어 브랜드. 피규어 및 컵,액자 등의 잡화도 있다. 각 인형마다 성격과 이름도 존재한다.



는 인형들을 생각하다가 친구들이 ‘어글리돌’ 이란 것을 알려줘서 비슷한 인형도 그려봤다. ‘어글리돌’ 은 인형의 종류는 아니고 브랜드에 이름이다. 기존에 있는 인형들처럼 예쁜 인형이 아니라 좀 못생긴 인형들을 만드는 브랜드 인데, 인형들이 마음에 들어서 많이 참고를 했다.

또 베개로 쓸 토끼인형도 도안을 만들었다. 납작하게 만들어서 솜만 넣으면 되니까 쉽게 디자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 나는 다리가 짧은 인형이 귀여울 것 같아서 베개로 쓸 긴 몸통에 짧은 다리, 그리고 무슨 동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양이는 블라블라 인형으로 할 것 같으니까 토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리에는 토끼 귀를 그리고 베개 역할을 해야 하니까 벨 수 있게 긴 몸통에 짧은 다리를 그렸다.

▲도안 밑그림

마지막으로는 베개인형 도안을 그렸다. 베개 인형은 ‘짱구베개’ 라는 애기들 베개를 이용해 만드는데 귀여운 인형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베개이다 보니까 면이 넓어야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코끼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몸통은 크고 넓고, 코는 작은 코끼리를 그렸다. 그리고 하나만 해서는 아쉬울 것 같아서 꽃으로도 도안을 그려봤다.



▲만든 도안.(열쇠고리 인형)



▲밑그림



▲코끼리, 꽃 베개인형 도안



▲토끼 베개 인형

(3) 만들기

<인형 만들기 기본>



①도안을 그린다.



②천에 도안을 그린다.



③선대로 바느질을 하고, 선대로 5mm 정도 남기고 자른다.(홈구멍빼고)



④홈구멍으로 뒤집는다.



⑤구멍으로 솜을 넣는다.



⑥솜을 다 넣은뒤, 구멍을 감침질 한다.



⑦완성된 인형에 눈코입을 달아준다.



⑧완성!!

① 블라블라 인형

◆큰 블라블라 인형

원래는 아기들 줄 인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크기를 잘못 어림해서 아기들보다 훨씬 큰 인형이 됐다. 도안을 찾아봤을 때 사이즈가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통 크게 큰 거를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만들다보니 너무 큰 느낌이 들었다. 내 몸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서 아기들에게 줄 용도로는 실패였다. 하지만 아기들에게 줄 인형 대신에 바디필로우⁴⁾ 같은 종류의 인형으로 쓰기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건은 다른 남은 천들에 비해 색깔도 예쁘고, 느낌도 다양해서 재료로 쓰기엔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건이 조금 딱딱지만 특히 새 수건도 아니라서 바디필로우로 쓰기엔 까끌까끌한 점이 있어서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좀 따가울 것 같았다. 그래서 원래 구상했던 방법으로 아이들 주는 것 말고 바디필로우로 이용할 생각이다.



②도안을 천에 그린다.

① 도안을 그린다.

③팔과 다리를 바느질한다.

④몸통과 다리를 바느질한다.

⑤뒤집고 솜을 넣고 완성!!

◆작은 블라블라 인형

큰 블라블라 인형을 만들고 나서 만들었다. 수건은 색깔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지만 아기들이 쓰기엔 너무 따가울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티셔츠 천으로 만들었다. 색깔이 너무 칙칙하고 예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세 가지의 티셔츠를 섞어서 인형 하나에 세 가지의 색이 들어가게 천을 이용했다. ⁵⁾다이마루천이라 그런지 잘 늘어나서 재봉틀 하기가 특히 까다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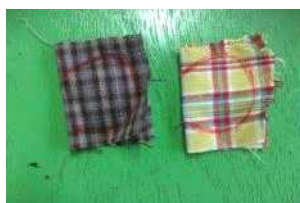
② 열쇠고리 인형

재료: 남은 쪼가리 천, 우산, 현수막

열쇠고리 인형은 작아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봉틀로는 너무 작아서 섬세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 몇 개는 모양이 이상해져서 실패를 하고, 너무 작아서 뒤집을 때도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다. 다시 손바느질로 했다. 생각 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동물 인형

<인형 만들기 기본>1번~6번 과정. 이하 생략



①코끼리 몸체 완성

②남은 쪼가리 천으로 반 접어서 도안을 그린다.

③선대로 손바느질을 하고 뒤집는다.

④귀를 몸통에 감침질 해주면 완성!

4) 사람 크기에 안고 자는 인형

5) 원단의 종류. 혼한 티셔츠 천



①기린 몸체 완성



②눈을 수놓는다.



③완성!!



①몸체 완성



②눈을 수놓는다.



③완성!!



①몸체 완성



②눈,코,입을 수놓음 완성!!



①몸체 완성



② 눈 코 입을 단다.



③완성!!

◆어글리돌

<인형 만들기 기본>1번~6번 과정. 이하 생략



①몸통을 준비



②입과 이빨을 수놓는다.



③눈은 단추로 단다. 완성!!



①지그재그로 입을 손바느질 해준다.



②코는 일자로 입 위에 까지 수놓는다.



③눈은 반원을 그리고 속눈썹을 일자로 내려준다. 완성!!



①펜으로 이 빨을 수놓을 자리를 그린다.



② 흰 실로 수를 놓는다



③눈을 달고 완성!!



①펜으로 이 빨을 수놓을 자리를 그린다.



② 흰 실로 수를 놓는다



③눈은 단추로 달아주면 완성!!

③양말인형

재료: 양말, 단추

양말인형은 정말 신기했다. 비주얼에 비해 너무 쉬웠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다. 도안도 찾아서 써서 그런지 망하지도 않았다.

◆달팽이 인형



①양말 두 개를 준비한다.



②몸통이 될 양말에 도안을 그려 바느질한다.



③등을 찢어서 뒤집는다.



④등으로 솜을 넣는다.



⑤등을 손바느질한다.



①등껍딱지가 될 양말에 숨을 넣는다.



②입구를 실 비로 동그랗게 꼬매서 잡아 당긴다.



③몸통과 등을 준



④등에 동그랗게 말아서 감침질을 한다.



⑤눈에 단추를 달고, 입을 실로 잡아당기면 완성!!

◆얼룩말 인형



①양말을 준비한다.



②도안을 그린다.



③선대로 바느질하고 재단한다.



④뒤집는다.



⑤숨을 넣고 완성!!

◆검은 고양이 인형



①얼굴이 될 양말을 준비한다.



②선대로 바느질한다.



③재단한다.



④뒤집는다.



⑤숨을 넣고, 끝을 홈질한다.



⑥잡아당기고 얼굴 완성!!



①선대로 바느질한다.



②재단한 뒤 뒤집는다.



③홈질로 잡아당긴다.



④머리랑 이은다.



⑤팔을 박음질로 꼬맨다.



⑥눈을 단



⑦코, 입도 달고 완성!!

◆외눈박이 인형



①양말은 준 ②도안을 그 ③선대로 바 ④완성
비한다. 린다. 느질하고 재
단한다.

④베개인형

재료: 수건, 청바지, 남은 쪼가리 천

베개인형은 만들기 쉬웠다. 크기가 커서 그렇지 재봉틀만 있으면 금방이다.

◆토끼 인형

사실상 망했다. 처음에는 다리짧은 토끼를 예상하고 도안을 짜고 만들었는데 귀랑 다리에 큰 차이가 없어서서 ‘사슴벌레’ 혹은 ‘다리가 양쪽에 달린 토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보이기 창피한 작품이다.



①먼저 다리 ② 다리를 ③배쪽에 흰 ④몸통 두 ⑤뒤집고 나 ⑥완성!!
를 바느질한 몸통에 이어 천을 박음질 개를 이어붙 서 솜을 넣
다. 붙인다. 해준다. 인다. 는다.

◆베개 인형



①청바지 엽선을 ②길게 자른다. ③자른 천을 다 이 ④반대쪽에 천을
다 뜯어서 일자로 어서 바느질 한다. 덧대고 선대로 바
핀다. 느질 한다.

⑤창구멍으로 뒤집
는다.



⑥가운데만 동그랗 ⑦그리고 나머지 ⑧완성!!
게 박음질 한 후 부분에 솜을 넣는
가운데에 솜을 넣 다.
는다.

4. 알리기

인형을 알리고, 인형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알린다.
그리고 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1) 학교에 비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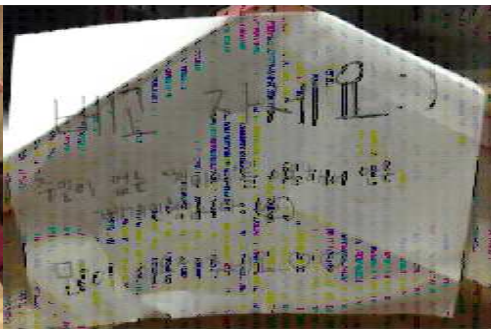
나는 늘 우리학교에 잘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기숙사에서는 계속 자도 부족한데,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잘 곳이 없었다. 교실은 편하기야 하지만 자거나 떠들지 않고 쉬기에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양호실, 도서관 정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편하게 자거나 쉴 수 있는 곳들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곳들에 비치했다.

(1) 도서관

어디에 비치를 하고, 종이를 적을지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온 책꽂이 뒤에 작은 나무집에 놔두었다. 그리고 지붕에 안내말을 적어서 붙였다.



▲도서관에 비치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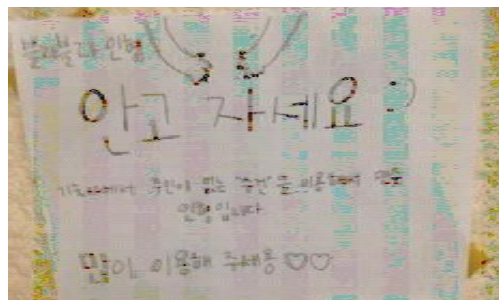
▲인형 옆에 붙여 놓은 문구

(2) 양호실

원래는 블라블라 인형을 애기들 줄 용도로 만들었지만 너무 커서 실패네, 그냥 내가 써야지 하는 생각에 가져왔다. 근데 기숙사에서만 해서 잠깐씩 빌려가는 일이 꽤 많았다. 그래서 비치 인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래 도서관에다가 놔두려고 했는데 양호실에 원래는 자는 것은 허락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자는 것도 된다고 했다. 근데 나는 양호실 침대에서 그냥 자기에 늘 불편한 감이 있었다. 베개 같은 거라도 안고 자고 싶다고 생각을 한적이 있어서 양호실에 비치했다.



▲양호실에 비치한 모습



▲인형 옆에 붙여 놓은 문구

(3) 평가받기

질문지

안녕하세요:) 3학년 문서경입니다. 논문으로 ‘업사이클링 인형’을 만들어서 양호실과 도서관에 비치해놨는데, 그 인형들이 쓸모가 있었는지 알기위해 설문지를 돌려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서 한단계 올라간 단어로 ‘재활용’ 이란 뜻입니다!!

1. 양호실에서 블라블라 인형을 이용하신적 있으세요?

①네 ②아니요

1-1. 사용해 보셨을 땐 어땀나요?(1번 사람만)

ex)편했다. 솜이 너무 적다.

()

1-2.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2번 사람만)

ex)양호실을 안감. 딱히 필요x

()

2.도서관에서 베개 인형을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①네 ②아니요

1-1. 사용해 보셨을 땐 어땀나요?(1번 사람만)

ex)가운데가 파여 있어서 불편했다. 폭신했다.

()

1-2.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2면 사람만)

ex)도서관을 안감. 딱히 필요x

()

감사합니다:)

설문 통계

총 99명

1. 양호실에서 블라블라 인형을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①네41 ②아니요58

1-1. 사용해 보셨을 땐 어땀나요?(1번 사람만/ex)편했다. 솜이 너무 적다.)

▶좋았다. 많이 만들었으면. 인형 눈 좀. 귀엽다. 편했다. 좋다. 수건으로 해서 촉감이 특이했다. 안아줘서 좋다. 찢어요. 폭신타다. 크기가 적당하다. 안고 자기 좋다. 포근함. 마음에 안정이 옴. 설렘. 쓸 때 기분이 좋다. 타격감이 좋음. 만져보기만 했다. 느낌이 좋았다. 혼자 덩그러니 놓는 것 보다 인형이 있어서 좋았다.

1-2.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2면 사람만/ex)양호실을 안감. 딱히 필요x)

▶딱히 필요 없다. 양호실을 안감. 한 개 밖에 없어서 못씀. 다른 사람이 쓰고있었음. 사용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른다. 남의 인형 인줄 암. 사용방법을 모름. 못봄.

2.도서관에서 베개 인형을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①네40 ②아니요59

2-1. 사용해 보셨을 땐 어땠나요?(1번 사람만/ex)가운데가 파여 있어서 불편했다. 폭신했다.)

▶가운데가 파여있어서 머리가 잘 들어감. 디자인이 예쁘다. 청결유지가 필요. 폭신했고 좋음. 베개로 좋다. 실용성 있다. 나쁘지 않았다. 잠이 잘 온다. 편하다. 예쁘데 솜이 없어서 베개 같지가 않음. 자기 편하다. 편하고 귀여움. 솜이 적음. 가운데가 안 파였으면.

2-2.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2명 사람만/ex)도서관을 안감. 딱히 필요x)

▶도서관 안감. 있는지 모름. 딱히 필요 없음. 비치한지 얼마 안되서 못봄. 도서관은 자는 곳이 아니다. 어디 있는지 모름. 누가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워크숍 하기

(1) 준비과정

대상은 바느질 소모임 아이들로 저번학기까지만 소모임을 하고 이번학기엔 아직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워크숍을 하기 전 시간을 같이 조율해서 정했다. 같이 만들 인형은 양말인형으로 정했다. 양말인형은 쉬워서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금방 질리지도 않고, 난이도에 비해 모양도 예뻐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재료는 기숙사에 있는 남은 옷가지들과 양말을 준비했다. 월요일 목학시간에 미리강 방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 진행과정

워크숍은 목학때 시작해서 취침이 끝나서야 끝이 났다. 원래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목학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같이 하느라 취침이 지나서야 정리를 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여러 명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나중에 한다면 가르쳐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예상대로 양말인형은 워크숍을 하기엔 적당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만들었을 때 양말인형 하나를 1시간 좀 넘게 만들었었던 것 같다. 원래 너무 오래 걸리는 걸 만들면 질려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적당했던 것 같다. 7명이 목학동안 같이 진행했는데, 다들 열심히 했고, 여기저기서 불리대서 정신이 없었지만 만족스러웠다.



(3) 평가받기

질문지

학년:

1. 따라서 만들기 어렵지 않았나요?

2. 나중에라도 남은 천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나요?

3. 제안사항 하고싶은 말

설문 통계

총 6명

1. 따라서 만들기 어렵지 않았나요?

▶어렵지 않았다. 재미있었다. 흥미가 붙을 것 같다.

2. 나중에라도 남은 천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만들고 싶다. 당연히. 네!

3. 제안사항 하고싶은 말

▶재미있었다. 힘내.

3) 나눠주기

(1) 열쇠고리 인형 나눠주기

열쇠고리 인형들을 나눠줬다. 열쇠고리는 작아서 별로 부담도 안 되고, 나눠주기도 쉬웠다. 나눠주는 방법으로는 신청을 받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해서 가져가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외로 양이 적은 바람에 신청을 받거나 비치해두는 건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작품을 만드는 동안 도움을 줬던, 인형을 달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설문을 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2) 작은 블라블라 인형 나눠주기

작은 블라블라 인형은 예정대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종명쌤과 상연쌤에게 드렸다. 각각 이용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줄 거라서 천도 부드러운 걸 썼는데 너무 잘 뜯어지지는 않는지. 잘 갖고 노는지 등등을 설문할 생각이다.

(3) 평가받기

질문지

1. 어떤 느낌이 들었나?

ex)헌 재료로 인형을 만드는 게 신기했다.

-

2. 제안할 것

ex)안경담이 천으로 액정 닮는 인형을 만들어도 좋을 듯ㅎㅎ

-

설문 통계

총 11명

1. 어떤 느낌이 들었나?(ex)헌 재료로 인형을 만드는 게 신기했다.)

▶귀엽다. 헌옷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 재질을 잘 활용한 듯. 헌 재료라는 게 의외. 실력 좋음. 퀄리티 좋음. 나도 만들고 싶어졌다. 쓱쓱 만드는 게 신기하고 멋졌다. 대단하다.

2. 제안할 것(ex)안경담이 천으로 액정 닮는 인형을 만들어도 좋을 듯)

▶튼튼한 비닐로 인형을 만들었으면. 브로치? 바디필로우. 바람막이로 블라블라 인형.헌천을 솜 대신 넣어도 좋을 듯.

Ⅲ.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원래 논문이란 거에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등 만들기’로 주제를 잡고, 계속 바뀌 나가면서 결국 지금의 주제로 왔다.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업사이클링 인형을 만들고, 논문이 끝나도 버려지는 옷들과 양말들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을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지금 거의 완성한 상태에선 그 목표를 이룬지는 잘 모르겠다.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어 알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서경이가 만든 인형’ 정도로만 아는 것 같다. 또 상당히 아쉬운 점은 편하게 포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료로 인형을 선택했는데, 생각 외로 여자들은 정말 반응이 좋았지만 남자들은 잘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인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내가 별로 친한 사람이 없어서 대화를 못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들의 반응은 심히 적었다. 그리고 워크샵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소모임을 한 1,2학년 여자아이들과만 워크샵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논문이 끝나도 남은 천들을 보고 논문이 생각나면 가끔 가서 만들고 싶다.

2. 고맙습니다

맨날 늦게 올라오고, 청소도 잘 못하고, 간담회도 잘 못 했는데 열심히 하라고 해준 방 사람들 소아 언니, 민경이, 영경이. 설문 해준 사람들♡. 우리가족 엄마, 아빠, 풀랑이, 까미♡♡♡. 공부방에서 새벽까지 놀아준 우정언니. 명아언니. 채은언니. 인형 이쁘다고 말해준 사람들♡. 조언 많이 해준 깡지쌤. ♡요미요미ㅋㅋ♡. 고생한 민혜쌤, 상연쌤, 미리강. 일년동안 수고한 우리반♡♡♡. 너무 많아서 끝♡

24반무예 초보자를 위한 교본 만들기

(예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사: 강희석



이름: 박성민

생일: 990305

소속: 콩자반 경당 여우하품 법무부 여축

좋아하는 것: 24반무예, 경당들♥, 해산물(멍게!), 합숙, 낮잠, 홀로 기숙사
올라가기&내려가기, 나만의 공간,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싫어하는 것: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무예덕후, 물란, 언닌 날(소정) 너무 좋아해!

한마디:

24반무예만 하다 죽을 듯;;

목차

I. 서론

1. 동기
2.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예도에 관하여
 - 1) 예도란?
 - 2) 무예도보통지와 24반무예
2. 교본
 - 1) 종이교본
 - 2) 영상교본
 - 3) 전자책교본
3. 내가 만들 교본
 - 1) 전자책이란?
 - 2) 대상
 - 3) 목적
 - 4) 구상
4. 진행과정
 - 1) 영상 찍기
 - 2) 글쓰기
 - 3) 전자책으로 편집하기
5. 교본에 대한 평가 및 감수
 - 1) 간디학교 경당
 - 2) 24반무예 경당협회 사무국 감수

III. 결론

-교본 완성

1. 후기 & 앞으로의 계획
 - 1) 논문발표를 앞두고
 - 2) 후기 & 앞으로의 계획

부록

1. 내가 해석한 예도
2. 영상 스토리보드
3. 감수 의견서
4. 참고서적
5. 일지

I .서론

1. 동기

학교에 들어와서 24반 무예를 시작하며 많은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동아리시간이나 수업시간 외에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무예도보통지와 주해를 찾아보았지만 무예도보통지에 한자가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됐고 무예도보통지를 해설해 놓았다는 주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주해보다 좀 더 쉽게 나온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2. 목적

교본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작업 중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나처럼 어느 정도 배웠던 사람보다 필요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상이 초보자로 정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내 교본의 목적은 24반 무예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쉽게 설명은 하는 방법으로 전자책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내 논문을 통해 24반 무예를 좀 더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

사람들이 사이에서 24반 무예가 활성화가 되는데 내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품 논문이다.

1) 참고서적

무예도보통지 - 원본

무예도보통지 - 임동규 해석본

무예도보통지주해 - 박청정

세계검도백과 - 엄장호

전자책 시대, 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이동준

파워검도교본 - 편집부 엮음, 이종립 감수

한국의 전통무예 - 임동규

2) 영상 및 사진

카파 필라테스 강의 with 박초롱

24반무예 경당협회 예도교육영상

3) 참고사이트

18기보존회 <http://sippalki.com/>

24반무예경당협회 <http://cafe.daum.net/24banma>

국기원 디지털 태권도 백과사전 <http://www.taekwon.net/mks/>

II. 본론

1. 예도에 관하여

내가 만드는 교본의 내용은 예도에 관한 것이다. 예도는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24반무예 중 하나이다.

보통 예도를 검의 기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24반무예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기본기를 익힌 후 가장 처음 예도를 배운다고 한다. 내가 교본을 만들 때 24가지의 무예 중에 예도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같다. 나는 초보자를 위한 교본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난이도의 검법을 선택 한 것이다.

밑의 글은 예도와 24반무예,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담은 글이다.

1) 예도란?

예도는 검법 중 하나 이기도 하고 검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검’ 예도를 이용해 ‘검법’ 예도를 시연 하는 것이다.

‘검법’ 예도는 조선의 무예라고 하여 조선세법이라고도 불린다. 예도의 유래는 명나라의 당태종의 검사들이 1천명이나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법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조선이 그 법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고 명나라에서 다시 그 법을 얻어갔다고 한다.

예도는 총 28가지 자세와 그것을 연결해 놓은 예도총보로 구성되어있으며 처음에는 안법, 격법, 자법, 세법, 격(格)법을 익혀야 한다고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있다. 조선 검법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칼 쓰는 법이라고 한다.

‘검’ 예도는 허리에 차고 다닌다고 하여 요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또는 환도, 단도라고도 불린다. 날 길이는 3척 3촌, 자루길이는 한 척이며 무게는 한 근 8냥이라고 한다. 본국검, 제독검, 쌍수도도 예도를 사용한다고 한다.¹⁾

2) 무예도보통지와 24반무예

①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무예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놓은 무예서이다. 총 4권이며 1790년 정조의 명으로 백동수가 실기를 하고 이덕무, 박제가가 편찬을 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예는 궁시(弓矢) 위주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실제적인 군사훈련용 무예서와 단병(短兵: 槍·劍·拳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선조의 명으로 1598년 <무예제보>가 간행되었으며, 1759년 죽장창(竹長槍) 등 12기(技)를 더하여 18기에 관한 도보인 <무예신보>가 간행되었다. <무예제보>와 <무예신보>에 기예 6기를 더하여 24기를 만들고 도보를 붙여 <무예도보통지>라고 이름했다. 장졸(將卒)들이 손쉽게 기예를 익혀서 국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하에 편찬된 이 책은 실제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보(圖譜)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²⁾

『무예도보통지』에는 기예 외 예도『무예도보통지』 편찬까지의 우리나라 전투기술사·병기사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 참고서적에 대한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이 함께 있다.

②24반무예?

24반무예는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24가지 기예를 말하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과목, 군사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던 군사무예이다.

1) 『무예도보통지주해』 (박정정지음, 2007.01.21.) 中 185P~210p 참고

2) 다음 백과사전: 무예도보통지(<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m0391a>) 인용

24반무예는 크게 18가지의 보병무예와 6가지의 기병무예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창법으로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당과(鎗鈹), 기창(騎槍), 낭선(狼筈), 검법으로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交戰)부,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권법으로 권법(拳法), 곤방(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毬), 마상재(馬上才) 등이 있다.

24반무예는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동양3국을 대표하는 무예로서 총 2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임진왜란 등 전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투에 활용되었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³⁾

2. 교본

교본을 만들기 전, 다른 교본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편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본을 참고하였다.

교본을 참고하기 전에 보기 쉽게 교본의 매체별로 종류를 나누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교본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검색해 봤지만 교본 종목에 대한 분류만 나올 뿐 매체에 대한 분류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 교본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그 종류는 종이책으로 인쇄되어 글과 그림이 실려 있는 종이교본, 영상으로 되어 정확한 동작을 볼 수 있는 영상교본,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영상, 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자책 교본이다.

종류를 나눈 덕에 종류에 따른 특징을 기반으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어 많은 도움 이 되었다.

1) 종이교본

종이교본은 ‘종이로 인쇄되어있는 것’ 으로 정의한다.

여러 종이 교본 중에 내가 찾아본 종류의 교본은 무술교본이다. 그 안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24반무예교본 한 권과 검도교본이 두 권이 있다. 24반무예교본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교본과 같은 무술이라서 넣었으며 검도는 예도와 같이 검을 사용하는 무술이기에 넣었다. 검도 교본이 2권이 들어간 이유는 교본의 대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교본을 볼 때 몸으로 하는 동작을 어떻게 영상 없이 글과 그림으로만 표현을 했는지를 주로 봤다.

① 『무예도보통지』 / 임동규 / 1996.02.15. / 500p



- 24반무예
- 종이책

이 책은 임동규 선생님이 무예도보통지를 주해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다.

목차 앞부분에는 ‘역자의 말’ 등과 함께 교본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해놓은 ‘일러두기’가 있고 그 뒤 무예도보통지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있다. 병기총서와 기예질의, 관복도설 등 어떠한 기록들을 설명하는 부분은 글과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그림들로 되어있고 예도, 본국검, 월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글과 직접 시연하여 찍은 사진으로 되어있다.

이 교본은 동작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중간에 ‘충봉세를 한다.’ 나 ‘향전격적세를 한다.’라는 등의 표현이 있어서 웬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보법도 명확한 표현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사진도 조금 더 여러 장이 실려 있으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실기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책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다.

3) 다음카페 24반무예협회 경당(<http://cafe.daum.net/24banma>) 中 공지사항 ⇒ ‘24반무예협회 홍보CF동영상: 무예도보통지, 정조대왕’ 게시글 참고

② 『파워검도교본』 / 편집부 엮음, 이종립 감수 / 1993.03.20. / 208p



- 대한검도
- 종이책

목차는 크게 10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예법, 발 움직임, 죽도를 쥐고 나서, 겨눔과 거리, 기본공격, 연격, 호구를 착용한 격자연습, 거는기술, 응용기술, 계고와 시합)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져있다. (발 움직임 -> 보통걸기, 밀어걸기, 이어걸기, 벌려걸기, 발 다루기 6조)

그 안에 든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배우는 것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가 서술되어있고 그 후에 동작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동작에 대한 설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은 ❶, ❷, ❸ 순서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함께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은 작은 것 하나하나 자세히 그려져 있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동시에 나와 있지 않아 서로 한 페이지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한눈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초보자들을 위한 검도 입문서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③ 『세계검도백과』 / 엽장호 / 2007.06.10. / 218p



- 대한검도
- 종이책

이 책은 크게 검도총론, 기초과정, 본편, 부록으로 구분되어 있다.

검도 동작에 대한 내용뿐 만 아니라 검도에 대한, 검도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여러 설명이 앞쪽에 구성되어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검도인 강령, 검도인 수칙, 검도지도자 주의사항, 검도 수련 전 준비운동 실시요령, 검도 공격의 삼 원칙, 검도를 통한 인격형성, 검사 5예, 검사 10훈, 등이 있다.

그 다음엔 조심법, 조신법, 조식법, 도의 명칭,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후에 동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한 페이지에 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윗부분에 글로 설명이 되어있고 그 밑에 사진을 순서별로 나열해놓았다. 이런 형식으로 보법, 기본공격, 기본방검 등이 구성되어 있고 ‘태극도법 36수’나 ‘무극도검 방권술’은 동작마다 사진을 순서대로 여러 장 나열해 놓고 사진마다 설명을 해놓았다.

부록은 죽도의 분해 및 조립, 보호구 착용, 검도승단 심사규정, 검도 심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전에 봤던 『파워검도교본』과 다르게 지도자를 대상으로 만든 이 교본은 세세한 동작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지도를 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 준비운동 실시요령) 그리고 책 중간에 가끔씩 ‘유단자의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 팁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이 눈에 잘 들어와 보기 좋았다.

2) 영상교본

영상교본은 ‘어떠한 동작(무술, 춤, 운동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정의한다.

원래 내가 찾아보려고 했던 영상교본은 종이교본처럼 무술을 위주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무술 영상교본은 외국어로 되어있어 알아듣지 못하거나 일반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무술영상과 더불어 다른 운동의 영상교본을 찾아보았다.

교본을 볼 때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동작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봤다.

①2권-예도+통합본 / 2009.09 / wmv파일



맨 처음에 예도 24세 영상이 나오고 그 후 예도총보 영상이 나온다.

시연자는 한명이지만 2개의 각도에서 동시 촬영을 한 후 편집을 해서 옆모습과 앞모습을 같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설명은 하지 않고 시연만 해 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막은 각 세의 동작이름이 한글과 한자로 들어가 있다.

이 영상은 이미 예도를 배우고 난 후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상세한 동작을 알아보기에는 좋으나 처음 동작을 배우기 위해 본다면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시연영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카과 필라테스4) 강의 with 박초롱 / 2014.03 <http://www.youtube.com/watch?v=prMzIpUIQY>



이 영상은 필라테스 강의 영상이다. 총 6개의 동영상이며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평균 1분이다.

시연자는 한명이며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동작을 반복한다. 동작에 대한 설명은 자막으로 들어가며 동작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step 1, step2 ~로 동작을 설명한다.

동작을 여러 앵글로 자세히 보여줘 헷갈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막에 들어가는 동작설명도 잘 되어있다. 하지만 동작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없어 실용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자막을 읽으려고 해도 가끔 시간이 빨라 미처 끝까지 못 읽을 때도 있고 동작을 본다고 자막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다. 그리고 동작과 자막의 타이밍이 달라 가끔은 헷갈리기도 한다.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다.

3) 전자책교본

전자책 교본은 말 그대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앱 형태나 웹 사이트의 형태도 전자책에 포함한다.⁵⁾

내가 찾아본 전자책교본은 웹 사이트 형태의 태권도교본이다. 맨 처음에 교본을 볼 땐 이 교본이 웹 사이트 형태여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어느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어느 기능이 있는지를 찾는 것도 나에겐 벽차게 느껴졌다. 차라리 책처럼 처음과 끝이 있으면 보기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교본을 볼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봤다.

① 국기원 디지털 태권도 백과사전 / <http://www.taekwon.net/mks/>

이 웹사이트는 태권도의 역사, 철학부터 해서 품새까지. 태권도 백과사전이라는 이름 그대로 태권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로 아이디를 만들고 이용권을 구매해야 이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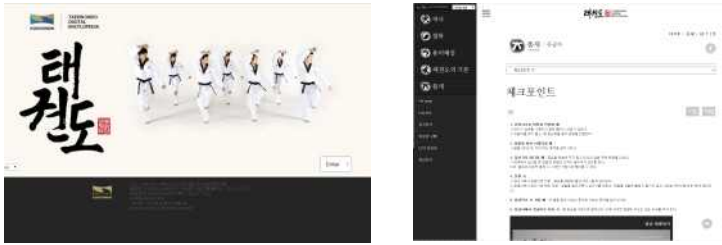
맨 처음 사이트를 들어가면 대문이 나온다. 거기서 Enter를 누르면 여러 카테고리가 나온다. 카테고리에는 역사, 철학, 용어해설, 태권도의 기본, 품새가 있고 조그마하게 페이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카테고리들도 나온다. (로그인, 이용권 구매, 즐겨찾기, 둘러보기 등) 내가 주로 본 카테고리는 용어해

4) 독일 사람 요제프 필라테스(Joseph H. Pilates : 1880~1967)가 고안한 운동방법. 이 운동법의 원리는 반복된 동작을 하여 연속적으로 근육을 운동시키면서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라테스 [Pilates] (두산백과)

5) 『전자책 시대, 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동준 지음 / 2012.10.30.) : 책 내용 중 전자책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 할 때 전자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정의내리기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책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들도 전자책으로 정의를 내렸다. 나도 이 책을 따라 정의한 것이다.

설, 태권도의 기본, 품새다.

용어해설은 말 그대로 태권도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곰손, 꼬아서기 등 태권도를 안 배운 사람은 모르는 용어들이 글로 풀어 설명되어 있다.



<국기원 디지털 태권도 백과사전 中>

-꼬아서기

몸을 앞, 뒤, 옆으로 움직이거나 돌 때에 두 발이 서로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자세.

몸의 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앞, 뒤, 옆으로 다리를 교차하며 움직일 때에 나타나는 자세로서 이때 축이 되는 발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발이 앞으로 움직이면 ‘앞 꼬아서기’, 뒤로 움직이면 ‘뒤 꼬아서기’이다.

<활용>

▶ 뒤 꼬아서기

▶ 앞 꼬아서기

-곰손

편주먹보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더 오므린 상태에서, 손바닥의 아랫부분과 셋째 마디 부분

태권도의 기본은 쥐기, 차기, 던기, 넘기기 등 크게 8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있다. 쥐기 안에 비틀어 쥐기와 눌러 쥐기가 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동작이 무엇을 하는 동작인지, 어떻게 하는 동작인지를 설명한다. 글과 영상, 사진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사진은 그냥 그 동작을 하는 모습이 찍혀있고 글은 간단하게 무엇을 하는 동작인지를 설명한다.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영상으로 설명 되어있으며 플레이 속도조절이나 구간 반복, 북마크 기능이 있어 자기에 맞게 볼 수 있다. 시연을 하는 사람은 동작에 따라 수가 다르고 설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으로 되어있으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해준다.

마지막 품새에는 유급자, 유단자로 나뉘 태극 1장부터 일여까지가 나온다. 모든 품새가 개요, 중요 포인트, 품새 보기, 신규동작, 연결동작, 응용동작으로 되어있으며 그 품새에 대한 설명과 동작을 글과 영상으로 설명한다. 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냥동작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응용동작, 신규동작 등이 함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만약 내가 이걸로 태권도를 배운다면 확실하게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확실히 웹의 형태로 되어있는 교본은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어 둘러보는 것도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세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있다. 전자책이라는 것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다. 하지만 맨 처음 그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많이 힘들었다. 이용권을 결제하는 것도 조금 복잡하고 영상을 보려면 새로운 플레이어를 깔아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 그렇지만 교본으로서 정말 잘 되어있다.

3. 내가 만들 교본

위의 여러 교본을 참고한 후 나는 내가 만들 교본의 매체를 전자책으로 결정했다. 내가 전자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글과 동영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글과 그림만 있는 종이책은 동작의 자세한 뜻과 설명을 넣을 수 있으며 동작 말고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함께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독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원하는 만큼의 시간동안 펼쳐놓고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이 있듯 단점도 있다. 바로 사람이 몸으로 하는 동작을 글과 그림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종이책과 반대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동작을 확실히 볼 수 있지만(이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동작의 뜻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히 알아도 그 동작을 시연할 수 없다면 교본을 본 것이 무슨 소용인가? 교본이 아닌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동작의 정확한 뜻과 설명을 알기엔 힘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도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것이 아니라 전자책을 만들어 글과 동영상을 함께 넣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둘의 장점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함께 사용하면 글을 읽을 때 일반 종이책을 읽는 것 보다 좀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자책이란?

밑의 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책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책은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가공(편집 및 레이아웃,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하여 전자저장 매체(CD, DVD)에 담거나 또는 전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전자책 전용 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는 형태와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

종이책이 그림과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데 반해 전자책은 그림과 텍스트는 물론 사운드와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요소를 융합하는 플랫폼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콘텐츠의 발전흐름과 시장흐름, 그리고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전자책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편승하여 종이에 기록하던 지식정보를 각종 온라인 매체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출판산업의 산물'입니다.

전자책은 이미 단순한 책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지식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와 기회의 패러다임인 것입니다.⁶⁾

위의 글만 보면 그냥 ‘저런 게 전자책인가 보다.’ 라는 생각만 들 뿐 머릿속에서 제대로 전자책이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뭔가 물건을 가진 게(내 것) 아니라 빌린 것(남의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보충설명으로 전자책의 장, 단점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 방법은 여러 웹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장, 단점을 적어놓은 주관적인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보편적이며 내 생각과 비슷한 자료들을 모아보았다.

우선 전자책의 단점부터 나열 해 보면 전자책을 보며 전자기기에 눈이 오랜 시간 노출이 돼 눈에 피로가 올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책도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리더기가 비싸다, 한국에는 아직 전자책이 활성화 되지 않아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책을 읽은 것에 대한 성취감이 적다, 물질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에 책을 보고 난후 망각에 빠지기 쉽다(책의 존재에 대해), 다 읽은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 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전자책의 단점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어쩌면 우리에게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조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ebookbaro.or.kr/front/site/ebook/ebookInfo1.do> 인용

금은 꺼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책의 장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책의 장점을 짚- 나열해보겠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전자책을 파는 페이지에 들어가 구매할 수가 있다, 하나의 기기 안에 수십 권에 책을 넣을 수 있으니 보관하기에 간편하다, 제작 할 때 종이 값이 들지 않아 종이책 보다 40~50% 더 싸다,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검색해 볼 수 있다(사전 역할), 글 말고도 소리, 영상, URL을 이용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집중력도 한 층 높아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자책의 장점들이다. 이런 장점을 보면 전자책은 그냥 책의 한 종류가 아닌 종이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새로운 미디어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대다수였다.

전자책에 대한 단점이 있는 만큼 전자책에 대한 장점도 있다. 우리는 이 장단점을 보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교본을 전자책으로 만들기로 결심 한 것처럼.

2) 대상

내가 만들 교본의 대상은 24반무예를 막 시작해 기본기를 익히고 있는 사람이다.

3) 목적

내가 이 교본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예도보통지나 그 주해가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느꼈던 만큼 교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책이라는 것이 장점이 된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교본을 봤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갖고 수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본의 목적이다.

4) 구상

①제목

24반무예 초보자를 위한 **예도교본**

②목차

1.예도란?		
2.예도24세를 배우기 전에		
1)용어설명		
2)검 잡는법		
3)기본타		
4)보법		
3.예도 24세		
1)거정세	9)전기세	17)좌협세
2)점검세	10)간수세	18)과좌세
3)좌익세	11)은망세	19)흔격세
4)표두세	12)찬격세	20)역린세
5)탄복세	13)요격세	21)염시세
6)과우세	14)전시세	22)우협세
7)노략세	15)우익세	23)봉두세
8)어거세	16)계격세	24)횡충세

목차 1.예도란? 에서는 예도에 대한 설명을 글과 사진으로 넣을 것이다.

목차 2.예도24세를 배우기 전에 에서는 교본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기본적인 검잡는 법, 기본

타 치는 법, 보법을 글과 영상, 그림으로 넣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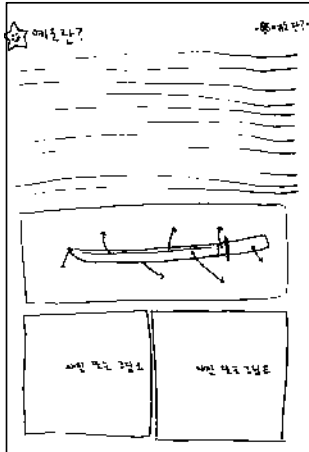
목차 3.예도24세 에서는 24가지 동작들을 글과 영상으로 설명할 것이다.

③목차 별 구상

목차별로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밑의 글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예도란?

‘예도란?’ 에는 예도의 역사나 구성 등을 설명글로 넣을 것이다. 검 사진을 이용해 검의 명칭을 설명하고 시연모습과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예도총도를 사진으로 넣어 설명글을 도우려고 한다. 총 글 하나와 사진 3장이 들어갈 것이다.



▲예도란?의 구상그림

-예도24세를 배우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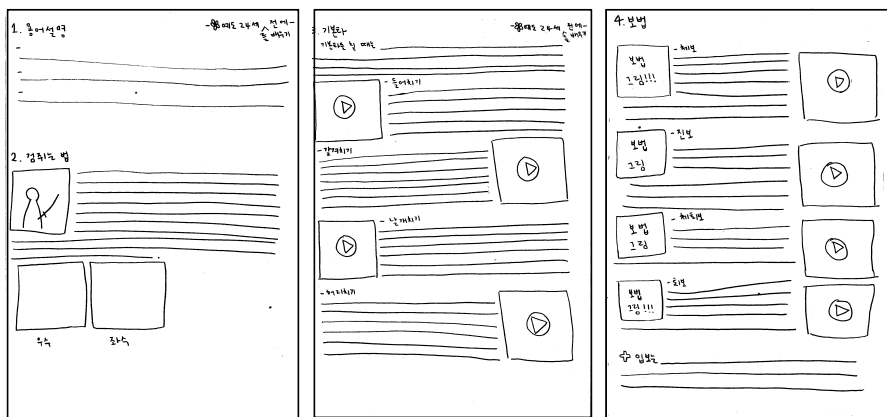
‘예도24세를 배우기 전에’ 에는 용어설명, 검쥐는 법, 기본타, 보법이 들어갈 것이다.

‘용어설명’ 에는 교본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글로 넣을 것이다. 총 글 하나가 들어간다.

‘검쥐는 법’ 에는 검을 쥐는 법을 설명글로 넣고 우수, 좌수, 검을 든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총 글 하나와 사진 3장이 들어간다.

‘기본타’ 에는 각 기본타 하나마다 설명글하나, 영상 하나를 넣을 것이다. 총 글 여덟 개와 영상 여덟 개가 들어간다.

‘보법’ 에는 각 보법 하나마다 설명글 하나, 영상하나, 설명글에 도움이 될 사진 하나가 들어가며 입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이 하나 들어갈 것이다. 총 글 다섯 개와 사진 네 개 영상 네 개가 들어간다.



▲용어설명, 검쥐는 법, 기본타, 보법의 구상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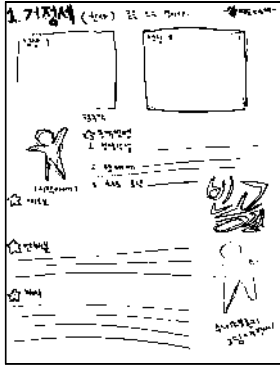
-예도24세

‘예도24세’에는 각 세에 대한 동작설명, 뜻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

동작설명을 위한 연결동작영상, 설명영상이 들어가고 시작자세를 찍은 사진, 동작설명을 한 글 하나가 들어갈 것이다.

뜻 설명을 위해서는 무예도보통지 원본내용과 언해본, 해석한 내용을 글로 넣을 것이다.

총 글 4개와 영상 2개, 사진 1개가 들어간다.



▲예도24세의 구상그림

4. 진행과정

1)영상 찍기

①스토리보드 짜기

교본을 만들기 전에 구상을 하듯이 영상을 찍기 전, 스토리보드를 짰다. 맨 처음엔 스토리보드를 처음 짜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했다가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서서히 하는 법을 알게 되겠지 하고 말이다. 뭔가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아니구나.’ 싶었다. 내가 쓰는 스토리보드가 다른 스토리보드와 꼭 같을 필요는 없고 이 스토리보드는 맞고 저 스토리보드는 틀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사실 그 전에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왠지 겁나고 틀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것뿐이었다.

스토리보드의 구성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를 쓴 글과 한 컷 당 어떤 각도, 샷으로 영상을 찍을지, 자막은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그린 그림으로 되어있다.

밑의 표는 스토리보드를 어떤 형식으로 짰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이 3가지 말고도 33가지의 스토리보드를 더 만들어 총 36가지의 스토리보드가 있다. 모든 스토리보드는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스토리보드_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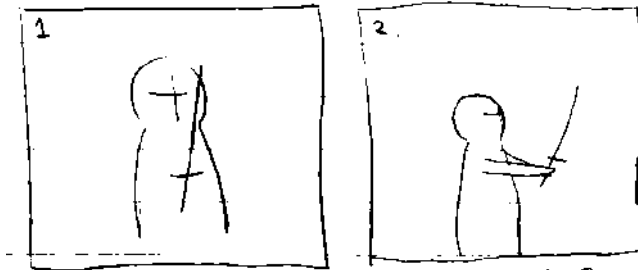
1. 진보를 설명 한 후 진보를 한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보법 중 하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을 발 3~4개 정도 차이가 나도록 뒤로 둡니다. 이때 두 발이 1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오른발에 앞굽이를 주고 왼발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이 오른발을 조금 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왼발이 너무 질질 끌리거나 너무 뜨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발이 나아갈 때도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대로 진보를 또 한 번 한다.)

2. 옆모습으로 진보를 한번 한다.
3. 뒷모습으로 진보를 한번 한다.
4. 들어치기와 함께 진보를 한번 한다.

<스토리보드_들어치기>



1. 들어치기를 설명한 후 들어치기를 한다.

:들어치기는 머리를 공격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검을 45도의 각도로 뒤로 젖혀 준비 자세를 합니다. 그 후 팔을 쭉 뻗어 곧게 내려 머리를 칩니다. 쳤을 때 칼끝의 높이는 눈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몸을 옆으로 틀어 한번은 나쁜 예, 한번은 좋은 예를 보여준다.

:들어치기를 할 때 이렇게 팔을 당기지 않고 쭉 뻗어 검 끝이 포물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스토리보드_거정세>



0.(자막: 정격상살 평대세 군란)처음 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앞굽이를 줍니다. 칼은 왼쪽 귀 옆에 칼날이 하늘을 보게끔 올려줍니다. 이때 칼이 귀밑으로 가면 동작을 할 때 귀가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정격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정격상살입니다. 왼발을 45도 앞으로 체보로 나아갑니다.

2.정격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쭉 뻗어주며 갈겨치기를 합니다.

4.평대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평대세입니다. 몸과 시선은 앞을 보고 보법만 왼쪽 옆으로 나아가며 체보를 합니다.

5.평대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7.퇴보군란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퇴보군란입니다. 왼발을 뒤로 빼며 퇴보로 합니다.

8.퇴보군란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치기를 합니다.

0.(자막: 거정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정격상살을 한다. : 정격상살

2.평대세를 한다. : 평대세

3.퇴보군란을 한다. : 퇴보군란

②영상 찍기

내가 시연을 하는 게 나올까?, 카메라를 드는 게 나올까? 영상을 찍기 전 고민을 했다. 시연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카메라를 든다면 내가 원하는 연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잘 나올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결국 고른 것은 내가 카메라를 드는 것 이었다. 아무래도 찍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찍고 보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두 역할을 모두 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 떠올라 조금은 안타까웠다.

나를 대신 할 배우는 기중오빠⁷⁾, 장소는 강당,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한번 꼭 찍고 나머지는 시간이 나는 때를 이용했다. 아무래도 기중오빠가 6학년들 인문학준비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시간을 내더라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촬영을 포기하고 다음 촬영시간을 잡을 때도 많았다.

영상을 찍는 중 어려움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와 같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상이 날라가거나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였다. 한번은 반 정도를 찍은 상황이었어서 다시 찍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들었지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촬영은 내가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대사(내레이션 처럼)를 치면 기중오빠가 그에 맞게 몸으로 동작을 했다. 찍으면서 내가 예상한 모습과 달라 스토리보드를 짰 것과 다른 구성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보드를 괜히 짰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스토리보드를 한번 적어봄으로써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③편집하기

내가 사용한 편집 프로그램은 I movie다. I movie는 맥, 아이폰 등 애플의 전자기기 전용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편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아니, 없는 줄 알았다. 편집을 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은 ‘자막’ 이었다. 아무리 자막을 열심히 넣어도 저장할 하면 자막이 다 날아가 있지 않은가! 모두 싹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규칙 하게 몇 개만 날아가서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I movie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희석쌤인데 희석쌤도 학교에 안계시던 시기라 나에게 엄청나게 멘붕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시행착오로 검은 색 자막에 남색 도복바지가 겹쳐 글이 잘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해 여태 편집 영상을 다시 다 편집해야하기도 했다.

편집은 앞, 뒤를 자르고 자막을 넣는 걸 기본으로 하고 동작 몇 개는 확대해서 찍은 후 편집해서 중간에 넣었다. 가끔씩 대사와 화면의 타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면을 좀 느리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대사를 자르기도 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미숙 한 부분이 적진 않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편집이었다.

2) 글쓰기

교본에 들어가는 내용의 대부분이 동작, 한자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내용을 쓰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했다. 예도24세 동작들을 수업시간이나 그 외에 시간을 이용해 정말 미친 듯이 외우고 방학동안 한자 해석을 해서 무예도보통지 중 예도의 내용을 풀이했다. 『무예도보통지주해』에도 예도를 해석 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한자가 무슨 뜻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고 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했으며 우선은 교본을 만드는 입장에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전작업을 마치고 교본에 들어갈 글을 썼는데 (스토리보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다른 글보다도 몸으로 하는 동작을 글로 풀어서 쓰는 작업이 많이 힘들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직접 보여주는 것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써놓고 보면 왠지 정신없

7) 09학번으로 2014년, 현재 6학년 재학 중이다. 현재 3단으로 중학교 3학년 때 24반무예를 시작해 2012년도, 2013년도에 제천간디학교 경당(24반무예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다.

어 보이기도 하는 게 도저히 답이 없어보였다. 하지만 1번 2번으로 동작의 순서를 나눠 내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다음 표는 교본에 들어갈 내용 중 몇 가지를 가져온 것이다.

<교본내용_거정세>

1. 거정세 (舉鼎勢) 술을 드는 격이다.

예도보(원본)

舉鼎勢 者卽 舉鼎格也 法能 鼎格上殺 左脚右手 平擡勢 向前掣擊 中殺 退步裙欄 看法

거정세 자즉 거정격야 법능 정격상살 좌각우수 평대세 향전체격 중살 퇴보군란 간법

언해본

거정세는 솟드는 격이라. 솟드는 격으로 우호로 살하하고 좌각과 우수로 평대세로 앞을 향하여 버혀치고 가운데디로 살하야 퇴보군란세를 하느니라.

해석

거정세는 곧 술을 드는 격이다. 술을 드는 격으로 위로 죽이고(베고) 좌각우수로 평대세(평평하게 드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베어치고 가운데로 죽여(베여) 퇴보군란세를 하느니라.

동작설명

1.정격상살 : 왼발을 45도 앞으로 체보. 팔을 쪽 뺀어주며 갈겨치기

2.평대세 : 몸과 시선은 앞을 보고 보법만 왼쪽 옆으로 나아가며 체보.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

3.퇴보군란 : 왼발을 뒤로 빼며 진퇴보. 들어치기

<교본내용_들어치기>

1.들어치기

들어치기는 머리를 공격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검을 45도의 각도로 뒤로 젖혀 준비자세를 합니다. 그 후 팔을 쪽 뺀어 곧게 내려 머리를 칩니다. 쳤을 때 칼끝의 높이는 눈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칠 때 팔을 당기지 않고 쪽 뺀어 포물선이 그려지도록 합니다.

3) 전자책으로 편집하기

교본에 들어갈 내용을 다 만든 후 전자책으로 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I Books author다. I Books author는 맥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전자책에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전자책을 만드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돈이 들지 않아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다.

맨 처음에 I Books author를 켜올 때는 정말 막막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째 날은 멘붕에 빠져 넘겼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더 이상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거나 막 해봤는데! 전자책이 조금 씩 조금 씩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아무거나 해 본 후 I Books author의 사용법이 적혀있는 책을 보니 처음 이 책을 봤을 때와 다르게 이해도 잘 됐다.

사람들이 평소 한글프로그램을 쓸 때 그 프로그램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지만 필요한 기능은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I Books author를 사용했다.

I Books author에 적응을 좀 한 후 교본을 만들려고 보니 내가 그림을 그려서 구상해 봤던 모습과 다르게 편집을 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들어 지고 볼 때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교본을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고 목차에서 용어설명을 빼고 목차의 순서들을 바꾸었다. 그리고 ‘예도란?’에서

검 사진을 빼고 대신 예도시연영상을 넣었으며 교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배치를 조금 다르게 했다. 하지만 교본 내용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구상했던 모습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

교본을 만들 때 처음에는 안 익숙해 시간이 걸렸지만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교본에 들어갈 글, 영상을 미리 다 완성해 놔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금방 교본이 완성이 되었다. 너무 쉽고 빠르게 완성이 돼서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할 정도였다.

내가 교본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닌가 싶다. 꾸미면 꾸밀수록 난 디자인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웬지 90년 대 책 같고 글씨체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도 굴림, 궁서, 필기 이런 폰트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갔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장난이 아니었다. 결국 내가 만든 표지는 이상하다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처음 모습과 다르게 버전2로 잘 디자인 됐다.



5. 교본에 대한 평가 및 감수

교본을 완성한 뒤 교본에 대한 평가와 감수를 받았다. 평가대상은 24반무예를 수련하고 있거나 수련을 했었던 사람으로 정했으며 아예 배우지 않은 사람은 내 교본의 대상과 맞지 않아 받지 않았다.

1) 간디학교 경당

현재 총 4개의 간디학교에서 24반무예를 수련하고 있다. 이중 나는 평가 대상으로 제천간디학교와 산청간디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제천간디학교는 지금 현재 내가 속해있는 학교이며 중고가 통합되어 다양한 연령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산청간디고등학교는 방학 때 마다 모여서 같이 합숙을 해 친분이 쌓여있기도 하고 현재 24반무예를 지도하시는 사범님이 없어 방학 때하는 합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에 교본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두 학교에는 모두 같은 설문지를 돌렸다.

<설문지 내용>

1. 24반무예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나요?
2. 이 전에 예도24세를 배운 적이 있었나요? (ex: 배운 적 없다, 배웠지만 까먹었다. 등)
3. 교본에 담긴 글과 그림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 4)아니다 5)전혀 아니다
4. 글과 그림 중 아쉬웠던 점은?
5. 교본에 담긴 영상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 4)아니다 5)전혀 아니다
6. 영상 중 아쉬웠던 점은?
7. 이 교본을 보급하면 사용하실 생각이 있나요?
8.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두 학교 모두가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었으며 특히 산청에서 반응이 좋았다. 제천에서는 몇 가지 지적과 여러 아이디어를 내주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봐서 교본으로써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① 제천

총 16명의 사람이 평가를 해줬다.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고 교본에 들어있는 글과 그림보다는 영상에 더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몇 가지의 지적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림에 대한 것이 다수였다.

1. 24반무예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나요?

- 1년 미만(5명)
- 약 2년(6명)
- 3년(1명)
- 4년(2명)
- 5년(1명)
- 6년(1명)

2. 이 전에 예도24세를 배운 적이 있었나요? (ex: 배운 적 없다, 배웠지만 까먹었다. 등)

- 네(3명)
- 없음(7명)
- 배웠지만 까먹었다(4명)
- 대충 기억 함(1명)
- 1주? 아주 잠깐?(1명)

3. 교본에 담긴 글과 그림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1)매우 그렇다(4명)
- 2)그렇다(10명)
- 3)보통(2명)

- 4)아니다(없음)
- 5)전혀 아니다(없음)

4. 글과 그림 중 아쉬웠던 점은?

-그림(7명)

-훌륭했으나 초보자가 무예를 글과 그림으로만 배우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아쉽기 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글은 쉽고 문체(?) 가 아기자기한 느낌(?) 아무튼 친절했다.

-글이 많아서 읽기 귀찮다.

-글은 문맥상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그림은 뭐.. 그 정도면 잘 그린거지.

-예도의 유래? 설명이 너무 알아듣기 어렵다.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건지?

-정리 돼 있는 게 좋았지만 그것 말고 큰 도움 안 됨

-딱딱한 느낌?

5. 교본에 담긴 영상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매우 그렇다(8명)

2)그렇다(7명)

3)보통(1명)

4)아니다(없음)

5)전혀 아니다(없음)

6. 영상 중 아쉬웠던 점은?

-없다.

-시연자(5명)

-보법이 정면, 옆면, 뒷면 말고도 윗면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듯

-목소리가 울리는 거?

-배경이 흰색이라 눈이 좀 아픔

-어렵고 빠른 동작에 슬로우 모션을 더 추가했으면 어린 후배들이 따라 하기 좋았을 것 같다.

-난 칼이 잘 안 보인다.

(나머지는 모두 없다는 의견)

7. 이 교본을 보급하면 사용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주 좋아요

-내가 그만큼 24반무예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내가 도장 차리면 애용하마.

-아니요

(나머지 모두 사용한다는 의견)

8.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파이팅/ 글이나 그림구성, 중간에 검 잡는 법 등 귀엽고 친절하고 보기 쉬운 구조가 많아서 좋았다./ 희석쌤 없어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논문 통과하세요./ 화이팅! 제작사 소개 들어가도 좋을 듯. 장 기중 얼굴 말고!!/ 연속동작 할 때 음악 넣어주세요./ ♡/ 수고했어, 성민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요!!/ 힘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아주머니/ 사랑해 고생했어.

② 산청

총 14명의 사람이 평가를 해줬다.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고 교본에 들어있는 글과 그림보다는 영상에 더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1. 24반무예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나요?

-8~9개월(6명)

-약 1년(4명)

-약 2년(3명)

-2~3년(1명)

2. 이 전에 예도24세를 배운 적이 있었나요? (ex: 배운 적 없다, 배웠지만 까먹었다. 등)

-안 배웠다.(10명)

-조금 배웠다.(3명)

-배웠지만 까먹었다.(1명)

3. 교본에 담긴 글과 그림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매우 그렇다(8명)

2)그렇다(4명)

3)보통(1명)

4)아니다(없음)

5)전혀 아니다(없음)

-무응답(1명)

4. 글과 그림 중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9명)

-당연히 헛갈리는 거

-훌륭합니다.

-아쉽지 않다.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5. 교본에 담긴 영상이 예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매우 그렇다(10명)

2)그렇다(2명)

3)보통(없음)

4)아니다(없음)

5)전혀 아니다(없음)

-아직 사용 안 해봄(1명)

-무응답(1명)

6. 영상 중 아쉬웠던 점은?

-없다.

-좋았어요.

-완벽!

(나머지 모두 같은 의견)

7. 이 교본을 보급하면 사용하실 생각이 있나요?

-쓸 수 있을 듯.

-보급만 해준다면 쓰겠다.

-네.

-당연히 있다.

(나머지 모두 같은 의견)

8.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좋았다, 나중에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좋을 것 같다./ 교본 정말 잘 만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성민이 파이팅/ good!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건강히 잘 지내길,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진짜 수고했어. 네가 산청을 살렸달ㅋㅋㅋㅋ

2) 24반무예 경당협회 사무국 감수

내 교본에 틀린 동작은 없는지, 어떤 것이 아쉬운 점인지에 대해 전문가께 감수를 받았다. 감수를 해주신 분은 24반무예 경당협회 임한필사무총장님이다.

감수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틀린 부분을 수정했고 아쉬운 부분이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논문과 별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수 의견서는 부록참조.

Ⅲ. 결론

내 논문의 결론은 완성된 교본이다.

1. 후기 & 앞으로의 계획

1) 논문발표를 앞두고

논문발표는 다가오는데 작품은 완성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 후기를 적을 수 없다. 그래도 논문발표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정리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글을 적는다.

내가 논문을 쓰며 들었던 생각은 ‘논문을 어렵지 않다.’ 였다. 논문은 어려울 것이 없다. 시간에 쫓기는 게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건 모두 논문을 쓰는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논문을 어렵게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시간만 잘 조절했다면 내가 이렇게 애를 먹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발표 날에 논문을 완성하지 못해 매우 창피하다. 누가 나를 못쓰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게을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반이 이렇게 논문을 씬으로써 밑에 후배들이 ‘아~ 발표 날까지 논문을 완성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되고 정말 미안하다.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가끔씩 ‘내가 교본을 만들기 위해 논문을 쓰는 건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위해 논문을 쓰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스토리보드 두 번, 영상을 찍는 것은 세 번, 편집을 하는 것은 셀 수도 없다. 지금은 전자책으로 편집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작업은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야하는 할까? 한숨부터 나온다.

어떤 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썸이 그러했다. 그게 다 논문의 과정이라고. 그게 논문을 쓰는 것이라고... 논문의 과정인 것도 알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것도 잘 알겠다. 하지만 억울했던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들 결과

만 보고 재는 저 정도 밖에 노력을 안했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웬지 슬펐다. 그리고 한편으론 내가 한심하다고 느껴 기분이 안 좋았다.

하지만 이렇게 짜증만 내지 않고 앞으로 논문발표를 끝내고 교본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확실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계속해서 의욕을 잃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완성 된 교본에 조금 허술한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상태였으면 한다.

2) 후기 & 앞으로의 계획

와! 드디어 논문이 끝났다. 정말 홀가분하다! 논문이 끝나고 나니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 같다. 나에게 남는 것이 많다. 심지어 힘들어서 고생했던 순간 까지도 좋게 넘길 수 있겠다.

논문을 쓰면서 논문이란 이유로 힘든 내색 하나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고마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옆에서 힘내라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작품이 완성되어 갈 때 마다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건가? 하고 신기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논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워 답답했고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고
웬지 했던 것을 반복하는 기분이 들어 짜증났고
논문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길게 끌고 가야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젠 다 끝났으니까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논문을 썼던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학교 교육과정 중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느낀다. 이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쓰라고 하면 절대 쓰지 못하겠다. 논문은 한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만약 논문을 다시 쓰게 된다고 해도 그건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쓰기에 어려웠고 배우는 것이 많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지만 그중 앞으로 내 생활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은 것은 내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논문을 쓰고 보니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시간이 없다고 못했던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은 치워두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다(그것이 엄청 작은 것일지라도).

내 논문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우선 나는 항상 여러 논문들이 완성으로만 끝을 내게 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내 교본은 실제로 사용 될 수 있게 배포를 할 것이고 배포를 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약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 폰, 아이패드 등을 안 들고 있어 내 교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ppt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중이다.

이것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을 치워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첫 번째가 될 것이다(짜짜짜).

논문.....!

끝!!!!!!

(야호!)

부록

1. 내가 해석한 예도 _영상 별첨

예도 24세를 정리해 교본을 만들면서 현재 협회의 해석 중 의문을 갖게 되는 동작들이 몇 가지 생겼다. 이렇게 의문이 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 이것들을 모아 해석을 해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부록으로 넣게 됐다.

밑의 글은 왜 그 동작으로 해석을 했는지를 설명해 놓은 글이다.

2. 점검세

원본 설명: 한편으로 번득이고 빠르게 나아가 훑어죽이고 우각우수로 발초심사세(풀에서 뱀을 찾아 제거하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어거격을 한다.

해석: 오른발 들어 입보, 들어오는 검을 쳐내는 느낌으로 검을 오른쪽으로 재껴 준다. 오른발 체보, 역린자를 한다. 오른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설명: 협회의 해석은 마지막에 역린자를 한번 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역린자를 뺐다. 체보로 어거격을 하는 것이 발초심사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좌익세

원본 설명: 위로 돌우고 아래로 눌러 바로 손아귀를 죽이고 우각우수로 직부송서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역린자를 한다.

해석: 오른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오른발 체보, 역린자를 한다.

설명: ‘위로 돌우고 아래로 눌러 바로 손아귀를 죽이고’를 날개치기로 해석하고 ‘직부송서로 체보로 역린자를 한다.’를 역린자로 해석했다. 체보로 역린자를 하는 것이 직부송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표두세

원본 설명: 벽너같이 쳐 위로 죽이고 좌각좌수로 태산압정세(태산이 정수리를 누르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돌우어 찌른다.

해석: 왼발 진보, 바로 빠르게 내려 베어 들어치기를 한다. 왼발 체보, 손을 바꿔 좌수로 역린자를 한다.

설명: ‘벽너같이 쳐 위로 죽이고’를 들어치기로 해석하고 ‘좌각좌수로 태산압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돌우어 찌른다.’를 손을 바꿔 역린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체보로 역린자를 하는 것이 태산압정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탄복세

원본 설명: 부딪쳐 찢러 가운데를 죽이고 나아가기를 무너지는 피산같이 하여 우각우수로 창룡출수세(물에서 용이 나오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요격을 한다.

해석: 왼발 진보, 왼쪽 옆구리에 있는 검을 상대의 검을 쳐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친 후 그 상대로 탄복자를 한다. 오른발 진보 검을 왼쪽으로 두고 허리치기를 한다.

설명: ‘부딪쳐 찢러 가운데를 죽이고’를 탄복자로 해석하고 ‘나아가기를 무너지는 피산같이 하여 우각우수로 창룡출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요격을 한다.’를 허리치기로 해석했다. 허리치기를 하는 것이 창룡출수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 과우세

원본 설명: 돌우어 갈겨 아래로 죽이고 좌각우수로 좌익세(옷을 만드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횡격을 한다.

해석: 오른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한다. 왼발 진보, 검을 왼쪽에 두고 걸쳐치기로 깊게 내려 벤다.

설명: ‘돈우어 갈겨 아래로 죽이고’를 걸쳐치기로 해석하고 ‘작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횡격을 한다.’를 걸쳐치기로 깊게 내려 베는 것으로 해석했다. 걸쳐치기로 깊게 내려 베는 것이 작의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뇨락세

원본 설명: 막고 받아 아래로 죽여 왼편을 가리며 오른편을 호위하고 좌각좌수로 장교분수세(긴 교룡이 물을 가르고 나오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비비어 친다.

해석: 훑어치기를 한다. 왼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며 몸을 내려 벤다.

설명: ‘막고 받아 아래로 죽여 왼편을 가리며 오른편을 호위하고’를 훑어치기로 해석하고 ‘장교분수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비비어 친다.’를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며 몸을 내려 베는 것으로 해석했다.

8. 어거세

원본 설명: 메어 어거하여 가운데로 죽이고 양손을 깎아 베고 좌각우수로 충봉세(칼날이 부딪치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퇴보로 봉두세(봉황의 머리형세)를 한다.

해석: 왼발 체보, 역린자를 한다. 왼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왼발 퇴보, 역린자를 한다.

설명: ‘메어 어거하여 가운데로 죽이고’를 역린자로 해석하고 ‘양손을 깎아 베고’를 날개치기로 해석했다. 그리고 ‘충봉세로 앞을 향하여 퇴보로 봉두세를 한다.’를 퇴보로 역린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퇴보로 역린자를 해 충봉세를 하는 것이 봉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 전기세

원본 설명: 갈 듯이 위를 베고 좌각좌수로 탁탐세(탐을 미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점검한다.(칼로 점을 찌른다.)

해석: 오른발을 들며 앞을 돌아보고 오른발 체보, 뒤돌아 볼 때 오른발이 있던 자리부터 해서 위로 올려 벤 후 검을 오른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한다. 왼발 진보, 역린자를 한다.

설명: ‘갈 듯이 위를 베고’를 뒤를 돌아보며 올려 베고 걸쳐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탁탐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점검한다.’를 손을 바꿔 역린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역린자를 하는 것이 탁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 요격세

원본 설명: 가로로 찢러 가운데를 죽여 몸, 걸음, 손, 검의 빠르기가 신뢰(몹시 맹렬한 우레)와 같으니 이렇게 치는 것은 칼 가운데서 으뜸 치는 것이다. 우각우수로 참사세(부끄러워하는 뱀의 형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역린자를 한다.

해석: 왼발 진보,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한다. 오른발 진보, 역린자를 한다.

설명: 협회의 해석은 중간에 허리치기가 한번 더 들어가는데 나는 중간에 허리치기를 뺐다. 진보로 역린자를 하는 것이 참사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 우익세

원본 설명: 양 날개를 갈겨 죽이고 좌각우수로 안자세(기러기가 날 때 一자나 丄자로 나는 것을 말한다.)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요격을 한다.

해석: 왼발 체보, 검을 왼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왼발 체보,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한다.

설명: ‘양 날개를 갈겨 죽이고’를 날개치기로 해석하고 ‘안자세로 앞을 향하여 치보로 요격을 한다.’를 허리치기로 해석했다. 허리치기(요격)을 하는 것이 안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 좌협세

원본 설명: 부딪쳐 가운데를 찢러 죽이고 우각우수로 수두세(짐승의 머리형세)로 앞을 향해 진보로 요격을 한다.

해석: 왼발 진보, 탄복자를 한다. 오른발 진보,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한다.

설명: ‘부딪쳐 가운데를 찢러 죽이고’를 탄복자로 해석하고 ‘수두세로 앞을 향해 진보로 요격을 한다.’를 허리치기로 해석했다. 허리치기를 하는 것이 수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 좌좌세

원본 설명: 쓸어 노략해 아래를 죽이고 우각우수로 제수세(물을 거느리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쌍으로 갈긴다.

해석: 왼발 진보, 검을 왼쪽으로 두고 걸쳐치기를 한다. 오른발 진보 한번, 왼발 진보 한번,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한번 하고 검을 왼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한번 한다.

설명: ‘쓸어 노략해 아래를 죽이고’를 걸쳐치기로 해석했고 ‘제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쌍으로 갈긴다.’를 갈겨치기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갈겨치기를 두 번 하는 것이 제수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 역린세

원본 설명: 바로 목구멍과 목을 찢러 우각우수로 탐해세(바다를 염탐하는 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좌익격을 한다.

해석: 오른발 진보, 역린자를 한다. 오른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설명: ‘바로 목구멍과 목을 찢러’를 역린자로 해석하고 ‘탐해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좌익격을 한다.’를 날개치기로 해석했다. 날개치기를 하는 것이 탐해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2. 우협세

원본 설명: 꼬아서 가운데를 찢러 죽이고 좌각우수로 분충세(빠르게 부딪치는 형세)로 앞을 향해 입보로 거정격을 한다.

해석: 왼발 체보, 탄복자를 한다. 왼발 체보,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한다.

설명: ‘꼬아서 가운데를 찢러 죽이고’를 탄복자로 해석하고 ‘분충세로 앞을 향해 입보로 거정격을 한다.’를 날개치기로 해석했다. 날개치기를 하는 것이 분충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영상 스토리보드

1) 예도24세

-거정세

0.(자막: 정격상살 평대세 군란)처음 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앞굽이를 줍니다. 칼은 왼쪽 귀 옆에 칼날이 하늘을 보게끔 올려줍니다. 이때 칼이 귀밑으로 가면 동작을 할 때 귀가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정격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정격상살입니다. 왼발을 45도 앞으로 체보로 나아갑니다.

2.정격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쭉 뻗어주며 갈겨치기를 합니다.

4.평대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평대세입니다. 몸과 시선은 앞을 보고 보법만 왼쪽 옆으로 나아가며 체보를 합니다.

5.평대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7.퇴보군란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퇴보군란입니다. 왼발을 뒤로 빼며 진퇴보로 물러납니다.

8.퇴보군란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치기를 합니다.

0.(자막: 거정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정격상살을 한다. : 정격상살

2.평대세를 한다. : 평대세

3.퇴보군란을 한다. : 퇴보군란

-점검세

0.(자막: 편섬 주진창살 발초심사 어거격)처음 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은 뒷꿈치를 땅에서 살짝 떼어 줍니다. 검은 날이 몸 쪽으로 오게 하여 앞으로 내려둡니다.

1.편섬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편섬입니다. 오른발을 들어 입보를 합니다.

2.편섬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오는 검을 쳐내는 느낌으로 검을 재껴 줍니다.

3.주진창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주진창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4.주진창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쭉 뻗어 역린자를 합니다.

5.발초심사의 보법을 설명한다. : 세 번째 동작은 발초심사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6.발초심사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으로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7.어거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어거격입니다. 앞으로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8.어거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쭉 뻗어 역린자를 합니다.

0.(자막: 점검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섬과 주진창살을 연결, 발초심사와 어거격을 연결해야 합니다.

1.편섬을 한다. : 편섬

2.주진창살을 한다. : 주진창살

3.발초심사를 한다. : 발초심사

4.어거격을 한다. : 어거격

-좌익세

0.(자막: 상도하압직살호구 직부송서 역린자)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 뒷꿈치를 땅에서 살짝 들어줍니다. 검은 날개치기를 할 때처럼 편안하게 어깨위에 올려놓으며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1.상도하압직살호구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상도하압직살호구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2.상도하압직살호구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쭉 뻗어 날개치기를 합니다.

3. 직부송서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직부송서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4. 직부송서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쪽 뺀어 탄복자를 합니다.
5. 역린자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역린자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6. 역린자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쪽 뺀어 역린자를 합니다.
- 0.(자막: 좌익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상도하압직살호구를 한다. : 상도하압직살호구
2. 직부송서를 한다. : 직부송서
3. 역린자를 한다. : 역린자

-표두세

- 0.(자막: 벽격상살 태산압정 도자)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 뒷꿈치를 땅에서 살짝 들어줍니다. 검은 머리위에서 들어줍니다. 이때 너무 높거나 너무 서지 않게 주의합니다.
1. 벽격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벽격상살입니다. 앞을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2. 벽격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바로 빠르게 들어치기를 합니다. 이때 검은 뒤로 채졌다가 베지 않고 바로 내려 베어야 합니다.
3. 태산압정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태산압정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이 때 앞굽이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4. 태산압정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바꿔 잡아 좌수로 (손을 천천히 바꾼다.) 들어치기를 합니다.
5. 도자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도자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6. 도자 손동작을 설명한다. : 다시 손을 바꿔 우수로 (손을 천천히 바꾼다.) 역린자를 합니다.
- 0.(자막: 표두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벽격상살을 한다. : 벽격상살
2. 태산압정을 한다. : 태산압정
3. 도자를 한다. : 도자

-탄복세

- 0.(자막: 충자중살 창룡출수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하여 섭니다. 검은 팔을 살짝 꼬아 날이 위를 향하고 칼끝이 앞을 향하게 하여 왼쪽 옆구리에 붙입니다.
1. 충자중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충자중살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2. 충자중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왼쪽 옆구리에 있는 검은 상대의 검은 쳐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칩니다. (웁깁니다.?) 그 상태로 탄복자를 합니다.
3. 창룡출수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창룡출수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4. 창룡출수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역린자를 합니다.
5. 요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요격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6. 요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 0.(자막: 탄복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충자중살을 한다. : 충자중살
2. 창룡출수를 한다. : 창룡출수
3. 요격을 한다. : 요격

-과우세

- 0.(자막: 요전하살 좌의세 횡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하여 섭니다. 손을 오른 옆구리 옆에 편하게 내려놓아 검은 날이 땅을 향하게 하고 검은 끝은 뒤를 향하며 무릎높이가 되

도록 합니다.

- 1.요전하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요전하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2.요전하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그대로 위를 베어 검을 오른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합니다.
- 3.작의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작의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 4.작의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요전하살과 반대되게 검을 왼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합니다.
- 5.횡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횡격입니다. 앞을 향하여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이때 앞굽이를 확실히 줍니다.
- 6.횡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하되 깊이 베어줍니다.
- 0.(자막: 과우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요전하살을 한다. : 요전하살
- 2.작의세를 한다. : 작의세
- 3.횡격을 한다. : 횡격

-노략세

- 0.(자막: 차가하살 장교분수 찬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섭니다. 손을 오른쪽 옆구리에 편하게 내려두어 칼날이 땅을 향하고 칼 끝이 귀를 향하며 무릎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 1.차가하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차가하살입니다. 차가하살은 훑어치기를 하면 됩니다.
- 2.장교분수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장교분수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로 진보를 합니다.
- 3.장교분수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바꿔 좌수로 (손을 천천히 바꾸며) 역린을 합니다.
- 4.찬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찬격입니다. 왼발 입보 후 왼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 오른발을 앞으로 하여 섭니다. 이때 앞굽이를 확실히 줍니다.
- 5.찬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다시 손을 바꿔 우수로 (손을 천천히 바꾸며) 검을 왼쪽 어깨 위로 올려 상대의 몸을 뺍니다. 돌면서 검을 오른손으로만 잡아 어깨에 깊어져 칼날이 하늘을 보고 칼 끝이 왼쪽을 보게 합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어 앞을 향해 뻗습니다. 이때 주먹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 0.(자막: 노략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차가하살을 한다. : 차가하살
- 2.장교분수를 한다. : 장교분수
- 3.찬격을 한다. : 찬격

-어거세

- 0.(자막: 가어중살 삭살쌍수 충봉세 봉두세)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오른발 뒷꿈치를 살짝 띄어줍니다. 검 날이 땅을 보고 검 끝이 앞을 보게하여 왼 옆구리에 붙여줍니다.
- 1.가어중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가어중살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 2.가어중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쭉 뻗어 역린을 합니다.
- 3.삭살쌍수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삭살쌍수입니다. 앞을 향하여 왼발 체보를 합니다.
- 4.삭살쌍수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합니다.
- 5.충봉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세 번째 동작은 충봉세입니다. 앞을 향하여 왼발 체보를 합니다.
- 6.충봉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오는 상대의 검을 막듯이 검을 밀 듯 들어줍니다.
- 7.봉두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봉두세입니다. 뛰어 진퇴보를 하여 물러납니다. 이때 앞굽이를 많이 줍니다.
- 8.봉두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로 깊게 내려뺍니다.
- 0.(자막: 어거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가어중살을 한다. : 가어중살
- 2.삭살쌍수를 한다. : 삭살쌍수

3.충봉세를 한다. : 충봉

4.봉두세를 한다. : 봉두

-전기세

0.(자막: 전마상살 탁탐세 점검)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뒤로 돌아 두 발을 나란히 둡니다. 검 끝이 하늘을 향하고 검 날이 몸의 바깥을 향하게 하여 왼쪽 몸에 붙입니다.

1.전마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전마상살입니다. 오른발을 들어 앞을 돌아보며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2.전마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뒤돌아 볼 때 오른발이 있던 자리부터 해서 위로 올려벤 후 체보를 할 때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3.탁탐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탁탐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4.탁탐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바꿔 좌수로 (손을 천천히 바꾼다.) 검을 왼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5.점검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점검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6.손동작을 설명한다. : 다시 손을 바꿔 우수로 (손을 천천히 바꾼다.) 역린자를 합니다.

0.(자막: 전기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전마상살을 한다. : 전마상살

2.탁탐세를 한다. : 탁탐세

3.점검을 한다. : 점검

-간수세

0.(자막: 간수 제기공자 수정 제기난진 상기수세 곤살 호준세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앞굽이를 많이 쥐 섭니다. 이때 두 발의 간격은 발 3개정도 차이가 나게 합니다. 검은 끝이 앞으로 가게 하여 몸으로부터 주먹 2개정도 띄어 내려놓습니다.

1.보법을 설명한다. : 간수세는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을 향하여 왼발 체보를 합니다.

2.손동작을 설명한다. : 역린자를 합니다.

3.보법을 설명한다. :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4.손동작을 설명한다. : 탄복자를 합니다.

5.보법을 설명한다. :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6.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0.(자막: 간수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한다. : 하나

2.한다. : 둘

3.한다. : 셋

-은망세

0.(자막: 사고주신 략살사면)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몸을 왼쪽으로 돌린 후 오른발 끝은 앞을 향하게 하고 왼발 끝은 왼쪽을 향하게 하여 섭니다. 이때 오른 무릎에 앞굽이를 충분히 줍니다. 검 끝은 뒤를 향하게 하고 날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검신이 눈을 가리도록 들어줍니다. 이때 오른 손과 왼손은 서로 교차됩니다.

1.보법을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사고주신입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가며 오른쪽으로 돌아 뒤를 봅니다. 이때 왼발이 앞으로 가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며 왼쪽으로 돌아 앞을 봅니다. 왼발이 나가며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편을 보고 오른발을 뒤로 빼 왼발이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발이 나가며 왼쪽으로 돌아 왼편을 봅니다.

2.손동작을 말로 설명한다. : 뒤를 볼 땐 손을 바꿔 좌수로 검을 왼쪽으로 두어 날개치기를 하고 앞을 볼 땐 다시 손을 바꿔 우수로 검을 오른쪽에 두어 날개치기를 하고 오른쪽을 볼 땐 또 다시 손을 바꿔 좌수로 검을 왼쪽에 두어 날개치기를 하고 왼쪽을 볼 땐 마지막으로 손을 바꿔 우수로 검을 오른쪽에 두어 날개치기를 합니다.

3.사고주신을 천천히 한다.

4.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랍살사면입니다. 오른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1/4바퀴 돌아 앞을 보며 왼발이 앞으로 가게 섭니다. 이때 앞굽이를 확실히 줍니다. 다시 왼발을 축으로 1/2바퀴 돌아 뒤를 보며 오른발이 앞으로 가도록 섭니다. 이때도 앞굽이를 확실하게 줍니다.

5.손동작을 설명한다. : 앞을 볼 땐 검을 왼쪽으로 두어 갈겨치기를 하고 뒤를 볼 땐 검을 오른쪽으로 두어 갈겨치기를 합니다.

0.(자막: 은망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사고주신을 한다. : 사고주신

2.랍살사면을 한다. : 랍살사면

-찬격세

0.(자막: 찬격창살(아형압보) 분충 백원출동세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에 두고 오른발 뒷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검은 날이 하늘을 향하고 끝이 귀를 향하게 하여 왼쪽 머리 위로 들어줍니다. 이때 두 팔이 너무 버러지거나 모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1.찬격창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첫 번째 동작은 찬격창살입니다. 오른발을 살짝 들었다 왼발을 살짝 들었다 하며 공격할 듯 말 듯한 액션을 보이다가 왼발을 축으로 한바퀴 돌고 왼발이 진보로 나갑니다.

2.찬격창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시작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왼발을 축으로 한바퀴 돌 때 몸을 내려 베고 왼발이 나아갈 때 검을 왼쪽에 두어 갈겨치기를 합니다.

3.분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분충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로 나아갑니다.

4.분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5.백원출동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세 번째 동작은 백원출동세입니다. 오른 무릎을 90도 각도로 둡니다.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어 왼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한바퀴 돌아 오른발을 앞으로 섭니다.

6.백원출동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오른 무릎을 들어 올릴 때 검 날이 앞을 향하고 검 끝이 위를 향하게 하여 왼쪽 몸에 붙입니다. 그 후 왼발을 축으로 돌 때 몸을 내려 뱉니다,

7.요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요격입니다. 백원출동세에서 앞을 향해 왼발로 진보를 합니다.

8.요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0.(자막: 찬격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찬격세에서는 찬격창살과 분충을 연결하고 백원출동세와 허리치기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1.찬격창살, 분충을 한다. : 찬격창살 분충

2.백원출동세, 요격을 한다. : 백원출동세 요격

-요격세

0.(자막: 횡충중살 참사세 역린)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섭니다. 검은 날이 몸 바깥을 향하게 하고 칼 끝이 뒤를 향하게 하여 왼쪽 옆구리에 붙여줍니다.

1.횡충중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횡충중살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2.횡충중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허리치기를 합니다.

3.참사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참사세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4.참사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 5.역린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역린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6.역린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뻗어 역린자를 합니다.
- 0.(자막: 요격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횡충중살을 한다. : 횡충중살
- 2.참사세를 한다. : 참사세
- 3.역린을 한다. : 역린

-전시세

- 0.(자막: 교격상살 료락하살 편섬 거정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섭니다. 검은 날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검 끝이 땅으로 향하고 무릎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팔을 뻗어 내려둡니다.
- 1.교격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교격상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2.교격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오는 검을 쳐낸다는 느낌으로 검을 왼편 머리위로 올린 후 목을 깊게 베어줍니다.
- 3.료락하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료락하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4.료락하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교격상살에서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연결하여 검을 왼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 5.편섬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세 번째 동작은 편섬입니다. 편섬을 할 때는 보법 없이 검만 움직입니다. 들어오는 검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검을 오른쪽으로 돌려 검을 왼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 6.거정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거정격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로 나아갑니다.
- 7.거정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쪽 뻗어 갈겨치기를 합니다.
- 0.(자막: 전시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격상살과 료락하살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 1.교격상살을 한다. : 교격상살
- 2.료락하살을 한다. : 료락하살
- 3.편섬을 한다. : 편섬
- 4.거정격을 한다. : 거정격

-우익세

- 0.(자막: 전살양익 안자세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오른발 뒷꿈치를 살짝 들어 줍니다. 검은 왼쪽 어깨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며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 1.전살양익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전살양익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 2.전살양익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팔을 쪽 뻗어 날개치기를 합니다.
- 3.안자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안자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 4.안자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으로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 5.요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요격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 6.요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 0.(자막: 우익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전살양익을 한다. : 전살양익
- 2.안자세를 한다. : 안자세
- 3.요격을 한다. : 요격

-계격세

- 0.(자막: 전격상살(보보투진) 호좌세 충세)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몸이 오른쪽을 보고

서게 합니다. 이때 양 발을 수평이 되며 어깨넓이보다 조금 더 벌어지게 섭니다. 시선을 앞을 향합니다. 검은 검 날이 위를 향하고 검 끝이 뒤를 향하며 손이 가슴 앞으로 오게 합니다.

1. 전격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전격상살입니다. 앞으로 한번 뛰고 뒤로 한번 뛰어 공격할 듯 말 듯 한 액션을 취합니다. 이때 너무 붕붕 뛰지 않게 주의합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뛰며 양 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때 앞굽이를 많이 줍니다.

2. 전격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두 번 뺄 때는 시작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고 양발에 위치를 바꾸면서 뺄 때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로 깊게 내려 뺍니다.

3. 호좌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호좌세입니다. 다시 한번 뛰며 다시 한번 양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때도 앞굽이를 확실히 줍니다.

4. 호좌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바꿔 좌수로(손을 천천히 바꾼다.) 검을 왼쪽에 두어 갈겨치기로 깊게 내려뺍니다.

5. 충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충세입니다. 왼발이 뒤로 나가며 진퇴보를 합니다.

6. 충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손으로나 잡아 목을 수평으로 벤 후 그대로 돌려 검날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검 끝이 왼쪽을 향하게 하여 어깨 뒤의 위로 수평으로 둡니다. 이때 왼손을 왼쪽 옆 구리에 붙여줍니다.

0.(자막: 계격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전격상살을 한다. : 전격상살

2. 호좌세를 한다. : 호좌세

3. 충세를 한다. : 충세

-좌협세

0.(자막: 충자중살 수두세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앞굽이를 살짝 줍니다. 검은 왼쪽 옆구리에 붙여 검 날이 땅을 향하고 검 끝이 앞을 향하게 둡니다.

1. 충자중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충자중살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2. 충자중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뺀어 역린자를 합니다.

3. 수두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수두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4. 수두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쭉 뺀어 탄복자를 합니다.

5. 요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요격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6. 요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0.(자막:)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충자중살을 한다. : 충자중살

2. 수두세를 한다. : 수두세

3. 요격을 한다. : 요격

-과좌세

0.(자막: 소략하살 제수세 쌍전)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앞굽이를 살짝 줍니다. 검은 왼쪽 팔에 날이 몸 바깥, 왼쪽을 향하게 하여 살짝 올려둡니다.

1. 소략하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소략하살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2. 소략하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그대로 갈겨치기를 합니다.

3. 제수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제수세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4. 제수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합니다.

5. 쌍전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쌍전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6. 쌍전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왼발이 나갈 때 검을 왼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하고 왼발이 나갈 때는 검을 오른쪽에 두고 갈겨치기를 한번 합니다.

0.(자막: 좌좌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소락하살을 한다. : 소락하살
- 2.제수세를 한다. : 제수세
- 3.쌍전을 한다. : 쌍전

-흔격세

0.(자막: 혼도상살 창보찬살 조천 탄복자)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몸이 왼쪽을 향하게 하여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이때 왼발을 왼쪽을 향합니다. 검은 왼쪽팔에 날이 몸 바깥, 왼쪽을 향하게 하여 살짝 올려줍니다.

- 1.혼도상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혼도상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2.혼도상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그대로 사설으로 위를 베어줍니다.
- 3.창보찬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창보찬살입니다. 왼발을 들어 진보로 나아가고 왼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한바퀴 돕니다.
- 4.창보찬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왼발을 축으로 돌 때 검은 왼쪽으로 두고 갈겨치기로 깊게 베어줍니다. 돌고 난 후 검은 몸을 바깥으로 하여 아래를 막아줍니다.
- 5.조천의 보법을 설명한다. : 세 번째 동작은 조천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 6.조천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머리위로 들어오는 검은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검은 들어 올려 이마 앞에서 밀어줍니다. 이때 검은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게 주의합니다.
- 7.탄복자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탄복자입니다. 왼발을 뒤로 물러나며 진퇴보를 합니다.

8.탄복자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뻗어 탄복자를 합니다.

0.(자막: 흔격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혼도상살을 한다. : 혼도상살
- 2.창보찬살을 한다. : 창보찬살
- 3.조천을 한다. : 조천
- 4.탄복자를 한다. : 탄복자

-역린세

0.(자막: 직자후경 탐해세 좌익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오른발 끝은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섭니다. 검은 앞을 향하게 하고 검은 날은 몸의 바깥을 향하게 하여 사선으로 몸에 붙여줍니다.

- 1.직자후경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직자후경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 2.직자후경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뻗어 역린자를 합니다.
- 3.탐해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탐해세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 4.탐해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손으로만 잡아 역린자를 합니다. 왼손을 손을 짝 펴 팔을 들었다가 찌름과 동시에 내려줍니다.
- 5.좌익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좌익격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 6.좌익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쪽에 두고 날개치기를 합니다.

0.(자막: 역린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 1.직자후경을 한다. : 직자후경
- 2.탐해세를 한다. : 탐해세
- 3.좌날개치기를 한다. : 좌익격

-염시세

0.(자막: 양배유잠 발사세(도퇴진보) 요격)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

고 앞굽이를 살짝 줍니다. 손을 오른 옆구리에 편안하게 내려놓아 검 날이 땅을 향하게 하고 검 끝은 뒤를 향하며 무릎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1. 양배유잠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양배유잠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2. 양배유잠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시작자세에서 그대로 갈겨치기를 합니다.

3. 발사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발사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왼발을 뒤로 빼며 진퇴보를 합니다.

4. 발사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진보로 나아갈때는 검을 왼쪽으로 두어 갈겨치기를 하고 진퇴보를 할때는 검을 오른쪽으로 두어 걸쳐치기를 합니다.

5. 요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요격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로 나아갑니다.

6. 요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으로 뒤 허리치기를 합니다.

0. (자막: 엄시세) 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양배유잠을 한다. : 양배유잠

2. 발사세를 한다. : 발사세

3. 요격을 한다. : 요격

-우협세

0. (자막: 교자중살 분충세 거정격) 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왼발을 앞으로 두고 오른발 끝은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섭니다. 검 끝은 앞을 향하게 하고 검 날은 몸의 바깥을 향하게 하여 사선으로 몸에 붙여줍니다.

1. 교자중살의 보법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교자중살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2. 교자중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오른 쪽 옆구리에 있는 검을 적의 검을 쳐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칩니다. (웁깁니다.??) 그 상태로 탄복자를 합니다.

3. 분충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분충세입니다. 앞을 향해 왼발 진보를 합니다.

4. 분충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손을 쭉 뻗어 역린자를 합니다.

5. 거정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앞을 향해 왼발 체보를 합니다.

6. 거정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왼쪽에 두고 속을 쭉 뻗어 날개치기를 합니다.

0. (자막: 우협세) 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교자중살을 한다. : 교자중살

2. 분충세를 한다. : 분충세

3. 거정격을 한다. : 거정격

-봉두세

0. (자막: 세자전살 백사룡풍세 계격) 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 뒷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검은 날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검 끝이 땅으로 향하고 무릎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팔을 뻗어 내려둡니다.

1. 세자전살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처음 동작은 세자전살입니다. 세자전살은 보법 없이 손과 검만 움직입니다. 검을 오른손으로만 쥔 뒤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둡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 할 때 왼손 바닥은 하늘을 보며 검 날은 왼쪽을 향합니다. 교차하고 원상태로 돌아올 때 까지 검 끝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2. 백사룡풍세의 보법을 설명한다. : 두 번째 동작은 백사룡풍세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3. 백사룡풍세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다시 두손으로 쥐고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역린자를 합니다.

4. 계격의 보법을 설명한다. : 마지막 동작은 계격입니다.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5. 계격의 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을 오른쪽으로 뒤 갈겨치기를 합니다.

0.(자막: 봉두세)처음 시작자세로 서있다. : 구분동작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세자전살을 한다. : 세자전살

2.백사룽풍세를 한다. : 백사룽풍

3.계격을 한다. : 계격

-횡충세

0.(자막: 질분퇴섬 곤살진퇴 양수양각 수세충 진체보 요약)시작자세를 말과 몸으로 설명한다. :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섭니다. 검은 왼손이 배꼽으로부터 2~3개 떨어지도록 하여 들어줍니다.

1.보법을 설명한다. : 앞을 향해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2.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오는 검은 막는다는 느낌으로 검은 쳐줍니다.

3.보법을 설명한다. : 앞을 향하여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4.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쪽으로 두어 걸쳐치기를 합니다.

5.보법을 설명한다. : 뒤를 보고 왼발 체보를 합니다.

6.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7.보법을 설명한다. : 다시 앞을 돌아보며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8.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쪽으로 두어 걸쳐치기를 합니다.

9.보법을 설명한다. :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10.손동작을 설명한다. : 들어오는 검은 막는다는 느낌으로 검은 쳐줍니다.

11.보법을 설명한다. : 오른발 체보를 합니다.

12.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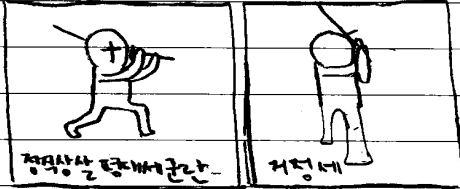
13.보법을 설명한다. : 뒤를 돌아보며 왼발 체보를 합니다.

14.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왼쪽에 두고 허리치기를 합니다.

15.보법을 설명한다. : 오른발 진보를 합니다.

16.손동작을 설명한다. : 검은 오른쪽에 두고 걸쳐치기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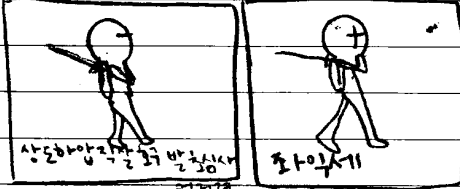
거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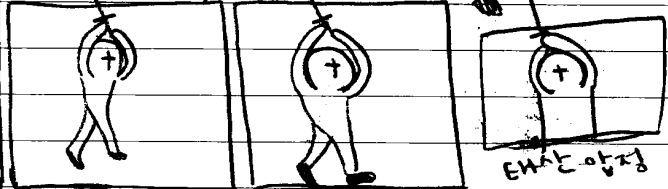
정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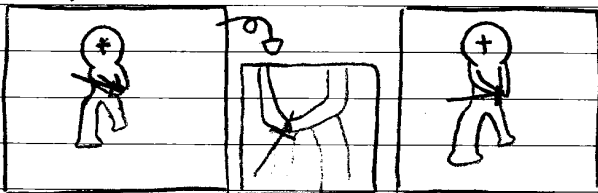
조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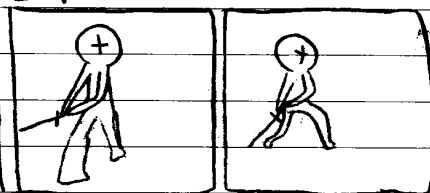
포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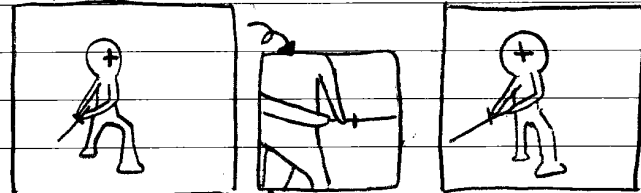
관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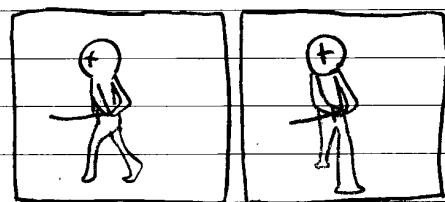
과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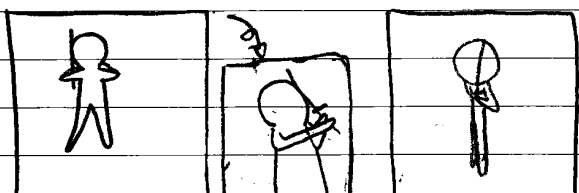
노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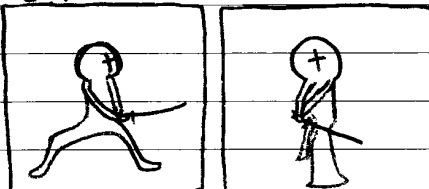
어거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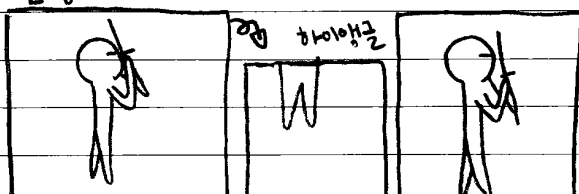
전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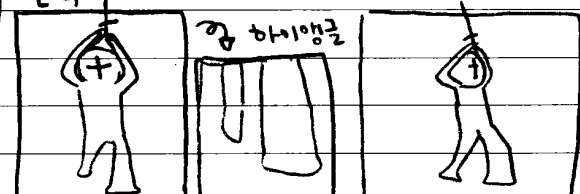
간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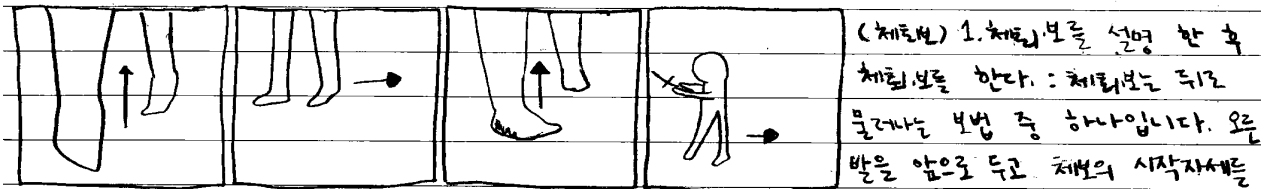
은망세



한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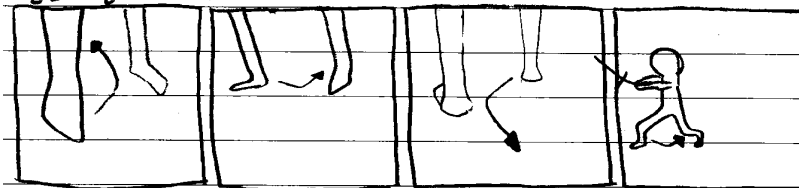


2) 보법



(체보) 1. 체보를 설명한 후 체보를 한다. : 체보는 뒤로 물러나는 보법 중 하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체보의 시작자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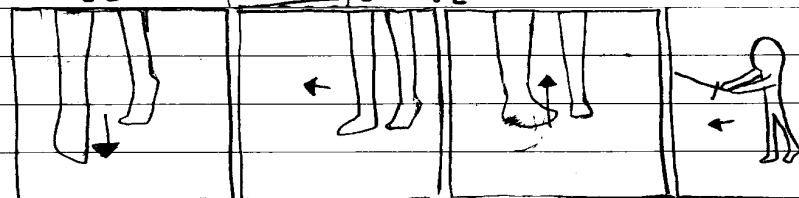
합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을 먼저 뒤로 빼고 오른발이 따라오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때 두 발 모두 너무 끌거나 너무 들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왼발이 앞발일 때와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두 발의 위치를 바꿔 체보를 한번 한다.) / (역으로 돌아 체보 한번, 뒤로 돌아 체보 한번) // 2. 짐을 들고 들어치기를 하며 체보를 한다.



(진보) 1. 진보를 설명한 후 진보를 한다. : 진보는 뒤로 물러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진보의 시작자세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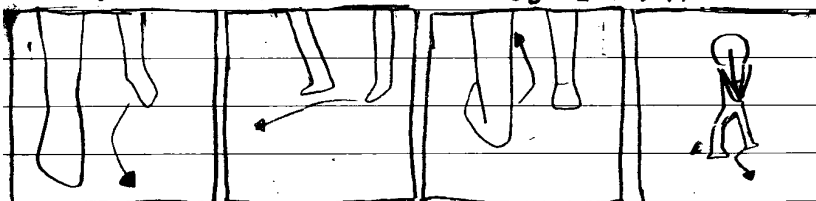
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왼발을 살짝 스치며 뒤로 빼집니다. (<자 모양!) 이때 오른발을 너무 끌거나 들지 않게 주의합니다. 왼발이 앞발일 때와 이와 같습니다. (그대로 진보를 한번 더 한다.) / (역으로 돌아 진보 한번, 뒤로 돌아 진보 한번) // 2. 짐을 들고 들어치기를 하며 진보를 한다.

*보법은 모두 나래이션을 이용한다.



(체보) 1. 체보를 설명한 후 체보를 한다. : 체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보법 중 하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을 발 한개 반정도 차이가 나도록 뒤로 둡니다. 이때 두 발은 1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왼발 뒷꿈치를 살짝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주고 왼발이 오른발을 따라 처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이때 왼발이 너무 질질 끌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왼발도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두 발의 위치를 바꿔 체보를 한다.) / (역으로 돌아 체보한번, 뒤로 돌아 체보한번을 한다.) // 2. 체보와 함께 들어치기를 한다.



(진보) 1. 진보를 설명한 후 진보를 한다. :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보법 중 하나입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을 발 3~4개 정도

차이가 나도록 뒤로 둡니다. 이때 두 발이 1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앞꿈치를 주고 왼발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뒷발)이 오른발을 조금 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모양!) 이때 왼발이 너무 질질 끌거나 너무 뜨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도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대로 진보를 한번 더 한다.) / (역으로 돌아 진보한번, 뒤로 돌아 진보 한번을 한다.) // 2. 진보와 함께 들어치기를 한다.

3) 기본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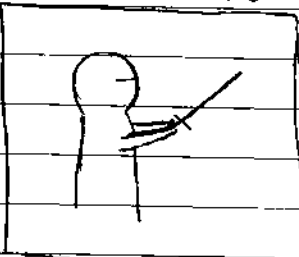
(같은 방향으로 두번!)

다. : 역시 팔을 당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과목과반적) 과목과반적을 설명한 후 과목과반적
척을 한다. : 과목과반적은 몸통과 목을 베
는 동작입니다. 검은 손을 옆으로 붙여
편하게 내려두고 검은 무릎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잘 1 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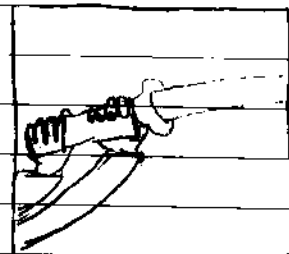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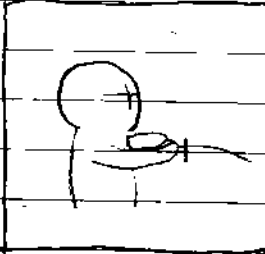
며 사선으로 45도 돌려줍니다. 베고 난 후 검은 바깥으로 너무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관 검은 높이는 머리조금 위가 되도록 합니다. 2. 몸을 돌려 과목과반적을 한번은 팔을
당겨 한 번은 팔을 짝 빼어 친다 : 팔이 굽혀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역진자) 1. 역진자를 설명한 후 역진자를 한다. : 역진자는 목
을 찌르는 동작입니다. 검은 저진자에서 그대로 손을 뻗어
목을 찌릅니다.

(탄복자) 1. 탄복자
를 설명한 후 탄

복자를 한다. : 탄복자는 배를 찌르는 동작입
니다. 양 손을 꼬듯이 돌려 칼 날이 하늘을
보게 한 뒤 찌릅니다.



(흔들어치기) 1. 흔들어치기를 설명한 후 방법을 보여
주고 그 후에 같이 합니다. : 흔들어치기는 몸을
베는 동작입니다. 왼 발을 앞으로 두고 앞구
리를 찌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이때 오른발이 1자가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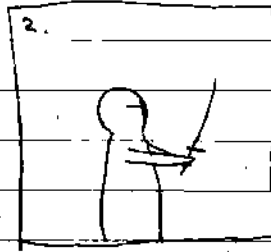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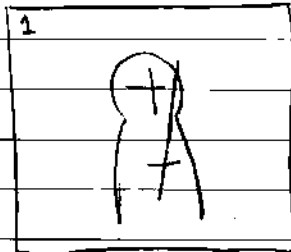
2. 발 + 손

1. 발 / 발 + 손

합니다. 검은 손을 옆구리에 붙여 편하게
내려두고 검은 무릎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발을 내딛으며 1자로 올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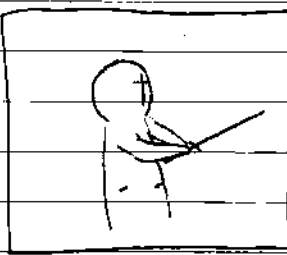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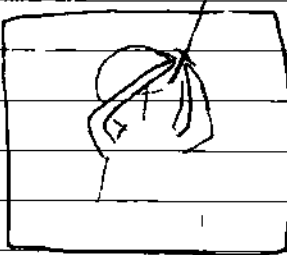
하여
몸은 왼쪽을
보아야

-기본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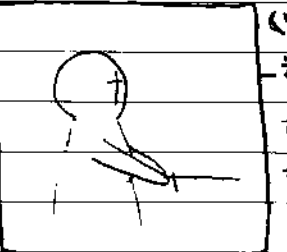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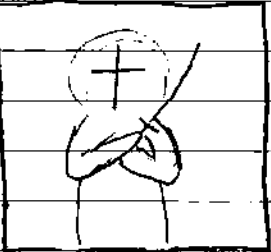
1. 거타를 설명한 후 거타를 한다.
: 거타는 머리를 공격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정을 45도 각도로 뒤로 젖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 곧게

내려 머리를 칩니다. 쳤을 때 팔 끝의 높이는 눈높이를 유지합니다. / 2. 몸을 옆으로 틀어 한번은 팔을 쭉 뻗지 않고 당기며 치고 다른 한번은 팔을 쭉 펴서 칩니다. : 거타를 할 때 이렇게 팔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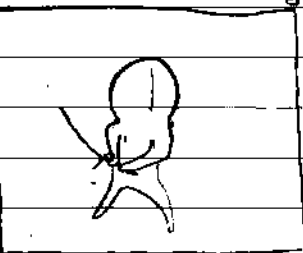
(전 타) 1. 전타를 설명한 후 전타를 한다
: 전타는 몸을 베는 동작입니다. 손을 들어치기와 같이 머리위로 올립니다. 벨 때는 손을 살짝 정수리와 귀 사이로 옮겨 그대로 반대쪽으로 세워서 45도 내려칩니다. 베고 난 후 칼 끝은 지

그량이 높이로 유지합니다. / 2. 몸을 옆으로 틀어 전타를 한번은 팔을 당기며, 한번은 팔을 쭉 뻗어 칩니다. : 거타와 마찬가지로 팔을 뻗어야 합니다.



(익격) 1. 익격을 설명한 후 익격을 한다.
: 익격은 손목을 베는 동작입니다. 정을 낮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어깨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때 정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정을 살짝

들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칩니다. 베고 난 후 칼 끝은 배꼽높이여야 하며 왼손이 오른손 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 2. 몸을 옆으로 틀어 한번은 팔을 당기며 치고 다른 한번은 팔을 쭉 펴서 칩니다. : 마찬가지로 팔을 쭉 뻗어주어야 합니다.



(요격) 1. 요격을 설명한 후 요격을 한다.
: 요격은 허리를 베는 동작입니다. 정 낮을 몸의 바깥쪽으로 두곤 칼 끝이 뒤로 가게 하여 몸에 붙입니다. 그 상태로 손을 쭉 뻗어 수평으로 베어칩니다. 이때 허리를 살짝

딱 틀어주고 허리를 흔들어 무릎과 발도 살짝 들리게 됩니다. / 2. 몸을 옆으로 틀어 처음과는 대칭이 되게 칩니다. 한번은 팔을 당기며 치고 한번은 손을 쭉 뻗어 칩니다.

3. 감수 의견서

『초보자를 위한 예도교본』(저자: 박성민(제천간디학교))에 대한

감 수 의 견 서

✍ 작성자: 임 한 필 (사단법인 24반무예경당협회 사무총장)

1. 중3이 만든 교본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자, 한글, 언해본, 해석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한 것은 참 잘한 시도임.
2. 영상을 함께 넣어서 교본을 만듦으로서 전자책의 장점을 잘 살려 좋음.
3. 간단한 이미지로 그려 넣은 것도 좋지만 무예도보통지의 그림(스캔)을 넣었다면 더 좋을 것임.
4. 세부적인 검토사항
 - 한자로 적어줄 단어는 가능한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함.
예) p.1 안법, 격법, 자법, 세법, 격법을 안법(眼法), 격법(擊法), 세법(洗法), 격법(格法)으로 한글과 한자 병행.
 - 오자 점검
예) p.2 쌍수도도.....
 - p.3에 우수와 좌수를 표현해주는 것은 좋은 시도임. 우각과 우수 보법의 기본도 정리 해주면 좋을듯함.
 - p.4 기본타에서 들어치기는 머리중에서 정수리를 치는 자세이고, 갈겨치기는 좌우의 관자놀이를 치는 자세로 설명하고 있음.
 - 기본기를
격법: 들어치기, 갈겨치기, 날개치기, 허리치기, 걸쳐치기
세법: 들어베기, 갈겨베기, 허리베기, 걸쳐베기, 훑어올리기
자법: 배찌르기(탄복자), 목찌르기(역린자)
보법: 진보, 체보, 도보, 퇴보(진퇴보, 체퇴보, 도퇴보)
로 협회에서는 구분하고 있음.
 - 타이틀의 설명이 좀더 구체적을 되었으면 함.
예) p.22 은망세: 은빛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하는 자세
 - p.34에서 동작설명의 참고내용으로 “임동규 선생님이 해석하실 때 백사룡풍세와 세자전살의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됨. 세자전살로 검을 아래로 향하고 다시 백사룡풍을 하면서 찌르고 마지막 계격으로 한다면 순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첫 동작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명칭을 넣을 때 백사룡풍, 세자전살, 계격으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음. 여하튼 좋은 지적함.
5.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글로 해석하는 용어가 충분히 한글로 풀이가 안된 부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임.
6. 예도가 28자세로 이루어졌다고 첫페이지에 언급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24세뿐 아니라 그 뒤에 이어나오는 태아도타세, 여선참사세, 양각조천세, 금강보운세도 함께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4. 참고서적

『무예도보통지』 원본

『무예도보통지』 임동규 해석본, 1996.02.01

『무예도보통지 주해』 박청정, 2007.01.21

『세계검도백과』 염장호, 2007.06.10

『전자책 시대, 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동준, 2012.10.30

『파워검도교본』 편집부 엮음, 이종립 감수, 1995.03.01

『한국의 전통무예』 임동규, 1990.01.01.

5. 일지

-5월

05.12 월

오늘 한 일: 논문계획서 2_1 완성 & 학급시간에 반 아이들과 서로 공유

뭔가 드디어 내 논문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기분이다. 논문계획서에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 이제 내일 다듬고 회석T께 보여드려야겠다. 왜 회석T랑 대화를 하면 다 설득 당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반 아이들과 나누기를 할 때 내 것에 대한 조언이 별로 없었다. 뭔가 불안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

05.13 화

오늘 한 일: 내일 도서관 가서 찾아볼 책 검색, 18기 보존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봄.

논문 계획서가 거의 다 완성됐다. 참고서적 부분을 좀 더 구체화 시키면 될 것 같다. 전자책 이라는 게 너무 큰 벽이다. 내 논문에서 전자책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알아보니 끝이 없고 마땅한 자료도 없다. 전자책에 관한 책을 하나 발견하기는 했다. 내일 도서관에 가서 나한테 필요한 책이 맞는지 봐야겠다. 그리고 목차에서 ‘3.전자책이란’을 빼고 ‘4.내가 만들 교본’ 안에 ‘교본의 형태’ 같은 식으로 전자책에 관한 내용을 조금만 넣도록 수정 해야지.

05.14 수

오늘 한 일: 도서관 가서 책 찾아봄, 민혜T, 상현T 피드백 받음, 목차 살짝 수정

오늘 회석T를 못 만났다.(ㅠㅠ) 내일도 스승의 날이라 못 만날 텐데! 제발 내일 회석 쌤이 빨리 오셔서 잠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여러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종류가 많아서 놀랐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겠군! 하지만 전자책에 관한 건 얼마 없더라, 전자책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가 고민이다.

05.15 목

오늘 한 일: 상현쌤, 민혜쌤께 받은 피드백을 논문계획서에 추가

오늘 아침에 피드백 받은 부분을 고쳤다. 그리고 논문계획서는 원래 목학 때 회석쌤께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이겸이가 잠이 든 바람에 집으로 바로 가서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내일 찾아가 봐야겠다. (아빠한테 우리 주위에 전자책에 관해 좀 아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마 없을 것 같다고 했다.)

05.16 금

오늘 한 일: 담당교사 의견, 싸인 까지 받은 논문계획서 완성 &제출

와! 기분 좋다. 논문계획서 완성함!! 하지만 다른 것은 한 게 없음.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많이 지친다.

05.18 일

오늘 한 일: 논문계획서 최종 제출

앞으로 내가 논문을 위해 할 일을 정리해봐야겠다. 교본형태나 평가를 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일이 계획서발표 리허설인데 실감이 나지 않아 떨리지도 않는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05.19 월 <계획서발표 리허설>

오늘 리허설을 하면서 질문으로 “예도가 무엇이나,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는지.. ‘가 나왔다.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 아이들한테 설명할 만큼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리허설이 아니라 실제 발표 때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잘 대답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회석 쌤한테 『무예도보통지주해』를 빌렸다.

내가 계획서발표 때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05.20 화

어제 리허설 한 것에 대한 반 아이들의 평가를 받았다. 역시 말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 밤에 시은이, 단아랑 발표연습을 했는데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05.21 수 <논문계획서발표>

드디어 오늘! 논문계획서발표를 했다. 발표를 하기 전에는 문장하나, 단어 하나 틀려 망할까봐 겁이나 일찍 내려와 발표연습도 했다. 하고보니 문장과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발표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그래도 발표는 어찌어찌 잘 끝났다. 그렇게 발표를 못한 것 같지는 않다. 아, 근데 내가 교본의 형태인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 사이에 혼동이 있었다. 이런…….!

05.22 목

오늘 평가 자료를 받았다.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 정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ㄷㄷ)

05.23 금

오늘은 별 일 없었다. 그냥 면담만 하고 하루가 갔다.

05.25 일

내가 너무 놀고만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

05.26 월

오늘은 논문 계획표를 짰다. 미루지만 않으면 그렇게 바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웬지 기대가 된다. 논문이 그렇게 나쁘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

06.26 목

한 달을 뛰어 넘어…….

여태까지 미루고 미룬 것을 반성하며 내가 한 일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다. 정말 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분발해야겠다.

사실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혼란이 오는 상태인데 주제

프로젝트랑 다르게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하니까 정신이 없다.

06.27 금

오늘 무예도보통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완전 재밌다. 집중 짱 잘되고. (ㅋㅋㅋㅋ)

드디어! 한자를 보며 해석을 시작했다. 근데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예도보를 보고 뭘 소린지 못 알아들어서 언해본을 보면 더 혼란이 온다. 옛말은 너무 어려워.(TT) 배웠던 내용과 나오는 한자가 매치가 안 된다. 내가 멍청한 건가?

-7월

07.02 목

여태까지 까먹고 일지를 안 썼다. 우선 한 것들을 적어보면 교본 구성을 짜보기 시작했다는 거..? 맨 처음엔 자신도 없고 감이 안 잡혔는데 한슬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커다란 틀은 짜여 졌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해석과 함께 하려고 한다. 이번 주 일요일에 도서관을 가야겠다.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헷갈린다.

-8월

08.04 월

방학을 한지 3주가 지났고 앞으로 3주가 남았다. 방학의 반을 나는 어디로 날린 거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방학 첫날로! 나는 정신을 차리는데 3주나 걸렸다. 지금 뭘 하더라도 이걸 3주 전에 했다면! 하는 생각이 뒤따라 와 미치겠다. 정택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니까 논문발표가 70일 정도 남았나 보다. 초조하고 미치겠다. 1차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한 것은 없으니. 슬프게도 원망할 사람은 나 밖에 없다.

오늘 예도24세 해석을 정말로 시작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뭘가는 해야 할 것 같아 이걸 붙잡고 있다. 앞으로 할 내용을 정리해 봐야지.

08.05 화

오늘 도서관 열람실을 갔다. 열람실에 있으니 뭘 할 수가 없다.

오늘은 탄복~간수 까지 해석을 했다. 한자와 언해본이 매치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것은 ☆표를 쳐가며 하고 있다.

희석 쌤한테 전화도 해야 하는데! 논문으로 쌤을 만나려니 일단 겁부터 난다.

08.06 수

오늘도 역시 열람실이다. 성현이는 앞에 앉아서 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어지간히 심심한가 보다.

오늘 해석한 한자들은 너무 어려웠다. 왜 가면 갈수록 설명이 길어지냐고!!!! 으-악! 한자는 정말 별로다.

08.07 목

오늘은 요격세 ~역린세 까지 총 7세를 했다.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봐야 할 것도 적어 났는데 10개가 좀 넘는다. 몇 시간 만에 빨리 끝나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됐다.

희석쌤이랑 통화를 했는데 덕산을 가는 것은 일단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메일로 보낸 뒤 상의하기로 했다. 분발해야 한다. 벌써 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

08.26 화

어제는 개학식을 하고 방학숙제발표를 했다. (자신의 논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뭘가 애들

이 생각만큼 많이 해오지 않아서 위로가 됐다.(ㅋㅋ)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문도 조금.. 아주 조금 썼다.

그리고 드디어 해석한 한자를 동작으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하는 걸 주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하다 보니 무더 진건지 적응이 된 건지.. 이젠 (이거 쓰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다.)

08.27 수

개학을 한 후 여태까지 본문을 조금 작성, 예도24세 거정~ 역린(4개 제외하고) 실기해석, 참고서적 읽기, 교본구상을 했다. 하면서 힘든 건 없었는데 이제야 논문을 좀 쓰기 시작한다는 죄책감이 마구 들었다.

오늘은 교본의 목차와 예도24세를 설명하는 부분을 구상해봤는데 아무래도 초안이다 보니 그래 이거야!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내일 희석쌤도 만나고 주말에 미향이이모도 만나야봐야겠다.

조바심 내지 말자..

08.29 금

희석쌤이랑 면담을 했다! 특별히 고칠 건 없고 추가 할 부분을 짚어주셨다,

민혜쌤이랑도 면담? 을 했는데 뭔가.. 민혜쌤은 내 논문에 대한 감이 아직 잡히시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랑 민혜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08.30 토

오늘 미향이 이모를 만났다. 크게 한 이야기는 없고 이모가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이야기 해 주셨다. 전자책을 만들 때 쓸 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눴다.

08.31 일

오늘은 딱히 한 게 없다.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고 기숙사에 와서 읽었다.

-9월

09.01 월

오늘은 본론 중 한 챕터를 다 적었다. 본문을 적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일 다른 한 챕터를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밤에는 기숙사에서 중간발표 ppt를 그렸다. 이 작업을 한 보람이 있게 내일 ppt가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

09.02 화

본론 중 조사를 해서 적은 것이 너무 빈약하다. 쓰긴 썼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쓴 것이 전부다. 지금부터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게 잘 안되는걸.. 내일 중간발표 때 나에게 나라올 질문들이 너무 무섭다.

오늘은 ppt를 만들고 희석쌤과 면담을 했다. 쌤들을 만나면 계속 내 생각이 뭐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야 ‘아, 맞다.’ 이른다.

09.03 수 <중간발표>

오늘 중간발표를 했다. 엄청 떨었는데 발표를 하고 보니 그렇게 떨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최종발표도 아닌데 좀 까이면 어때서. 사실 별로 까이지도 않았다. 질문 자체가 하나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마저도 기중오빠의 논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별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

하기도 하고 기분뿐이지만 잘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의욕도 생겼다. 의욕이 생겼다는 것만 보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09.04 목

오늘은 본문을 썼다. 본문 만 썼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내가 논문을 썼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뿌듯하다.

09.05 금 <추석 가정학습 시작>

오늘 하루는 너무 스펙터클 했다. 어제 한슬이한테 맡겨둔 usb를 한슬이가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내 소중한 논문들!! 나는 순간 멘붕에 빠졌고 어제 늦게 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한슬이가 너무 당황하고 미안했을까봐 신경이 쓰였다. 메일에도 자료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막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울음이 나온 바람에.

그렇게 울다가 엄마랑 usb를 찾으러 학교로 갔다가 경수 쌤을 만났다. 근데 경수 쌤이 잃어버린 나의 usb를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진짜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운이 좋은 애는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수 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 용인으로 와서 도서관을 들렀다가 집으로 가서 본문을 썼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09.08 월

어제 오늘 교본구상을 조금 수정하고 교본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한 게 없지는 않지만 목표했던 것만큼 하지 못해 속상하다. 이게 다 tv때문이다. 내일이라도 분발해야지. 하지만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두 놓고 있으니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다.

09.10 수 <추석 가정학습 끝>

오늘은 입교를 했지만 기숙사 청소를 하지 않아 논문을 쓰지 않고 바로 자고 싶고 쉬고 싶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공부방에서 논문을 쓰는 중이다. 아니 오늘 하려고 했던 건 다 했구나. 교본내용을 적었는데 몸으로 하는 동작을 글로 설명하려니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돌아대는지 몰라. 게다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막 튀어나온다. 웬지 오늘 꿈에 이런 단어와 한자들이 튀어나올 것 같다.

09.11 목

오늘 중간발표평가가 나왔다. 여러 제안과 충고들이 무려 12가지나 되었다. 많은 충고를 받아 논문이 한 결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지만 12가지는 너무 많았다. 뭐 부터 어떻게 건드릴까할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내가 쓴 논문이 다 헛것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빨리 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싶은데 희석 쌤은 많이 바쁘시고! 의욕이 없어졌다. 아니 의욕이 없다는 것 보다는 막막하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어쩌면 좋지? 오늘은 손이 안가 관렀다. 빨리 쌤을 만나고 싶다.

09.13 금

어제는 쌤들과 면담만 하고 하루를 보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럴 땐 그냥 쉬어야겠다. 싶어 나름 푹 쉬었다.

희석 쌤과 면담을 하며 쌤이 스토리보드, 구성안, 기획안 등을 짜오라고 하셨고 영상언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이 잘 안 잡혀 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시간을 보냈지만 오후부터 미친 듯이 해서 지금 새벽 1시 23분, 24세 중 10세의 영상 스토리보드를 짰다. 이 스토리보드가 제대로 짰 건가 싶지만 정말 열심히 한건 맞다. 내일도 뻥세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아무생각도 나지 않는다. 자야겠다.

굿 밤

09.14 일

오늘 낮에 정말 미친 듯이 해서 24세 중 마지막 횡충세를 빼고 모든 스토리보드를 다 켜다. 근데 사실 이게 스토리보드인지 잘 모르겠다. 뭔가 대사만 주구장창 집어넣은 기분? 화면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안 그렸고 딱히 넣을만한 내레이션이 없어 이렇게 됐다. 어쨌든 수고했군..(ㄱㄱ)

내일은 지민이랑 5시에 일어나서 논문을 쓰기로 해서 밤에 더 쓰지 않고 일찍 자야겠다.

09.15 월

오늘 계획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어두워서 그런지 준비가 오래 걸려 6시 쯤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도착해서 교본의 내용 중 ‘예도24세를 배우기 전에’ 부분을 구상했다.

낮에 회석 쌤을 만나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켜는지 설명했더니 어떤 각도에서 찍을 것이며 화면을 분할할 것인지 등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다 말고 조금 켜다.

09.16 화

5시30분에 일어나서 간디철학 숙제를 하고 스토리보드를 켜다. 그리고 학교에서 24세 스토리보드 그림을 그렸다.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놀아서 켜렸다. 난 왜 이리? 방학 때 안 해서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빈둥대는 것 같다. 사실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다. 국정원 소모임 회의 때 정말, 정말 별로였다. 내가 저번 가족회의 때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다. 내일은 아마 힘이 나겠지.

09.17 수

횡충세를 제외한 23세 스토리보드를 다 켜다!!!(썉썉) 횡충세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켜다. 그리고 어제 다 적어놓은 기본타 스토리보드도 함께 들고 회석쌤을 찾아갔다. 쌤이 말하기로는 처음 해보는 사람치고는 꽤 잘했지만 다양한 앵글과 각도?를 사용해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켜 스토리보드는 켜이 많으니 조금 줄여보라고 하셨다. 웬지 레벨 업해서 경험치를 다시 모으는 기분이다. 허무한 이 기분.

09.18 목

오늘은 보법 영상스토리보드를 켜고 새로운 형식? 의 스토리보드를 거정, 점검세만 켜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의 스토리보드를 켜어야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한다고 생각하니 의욕이 안생기고 감이 안 잡혔다. 하지만 오늘 시작했으니 내일 진도를 썉썉 켜 수 있을 것이다!

09.20 토

어제 회석 쌤이 영상언어 영상과 예도7세, 기본타 자료를 보내주셨다. 둘 다 오늘 봤는데 영상언어에 관한 영상이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있었다. 하지만 예도7세와 기본타 자료는 켜 소린지 모르겠다. 켜 하는 자료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어제 받은 영상, 자료를 보고 공부? 하고 새로운 스토리보드의 그림을 썉 다 그렸다. 내일은 이제 그 그림들을 보고 그 켜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내 정리하면 된다.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교본 구상한 켜 컴퓨터로 옮기고 교본내용을 썉봐야겠다.

09.21 일 & 09.22 월

어제 일지를 켜 줄 알았는데 안 썉다니! 충격적이군. 어제는 무려 하루 종일 전산실에 틀어 박혀서 스토리보드 글을 다 썉는데 말이다. 진짜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완전 뿌듯했다.

오늘은 회석쌤한테 스토리보드를 보여주고 이제 영상을 썉기 시작하기로 했다. 배우를!! 구해야 해!

교본에 들어갈 내용도 조금 타이핑하고 교본에 넣어야 하는 사진목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 해

봤다. 웬지 오늘 캠프를 하느라 바빴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하지만 오늘은 D-22 일! 시간이 촉박해.

09.23 화 & 09.24 수 < D-20 >

어제 오늘 별로 한 것이 없다. 어제는 캠프였고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갔다가 오느라 쓸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쪼오금 한 것을 적어보자면 희석샘한테 지금까지 쓴 교본 내용을 메일로 보냈고 보법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교본내용을 조금 적었다.

09.25 목

오늘 교본 내용 중 횡충세를 제외하고 다 적었다. 근데 그 동작들이 맞는 동작인지,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 내일 프린터 해서 경당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돌려야겠다. 이제 교본 내용은 ‘예도란?’ 과 ‘용어설명’ 만 적으면 된다. 하지만 고쳐야 할 것도 많겠지.

1차를 하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고 싶다. 어차피 이젠 늦어져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긴다.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압박만 없으면 나름 신나게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09.26 금

오늘은 본문 내용을 적었다. 전자책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적고 『무예도보통지』를 보고 글을 적었다. 그리고 영상스토리보드랑 교본내용을 프린터 해 한슬이랑 기중오빠에게 줬다. 내일은 가을축제지만 짬을 내서 논문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 한 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 별 거 없다. 뭐야.

09.27 토 <가을축제> & 09.28 일 & 09.29 월

내가 정말 미쳤다고 주말에 논문일지를 하나도 안 썼다.

토요일에는 그냥 논문 목차를 조금 수정하고 교본에 들어갈 사진을 찍었다. 다시 찍어야 하지만.

일요일은 기본타와 보법 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희석샘이 보시고는 배경이 조금 아쉽다고 다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다시 찍었다.

오늘 5교시에 본문을 쓰려고 봤는데 26일에 썼던 본문들이 다 날아가 있었다. (덴봉)

이제 논문 제출일이 9일인가 밖에 안 남아서 일주일 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아침에도 매일 7시에 내려와서 영상을 찍는다. 요즘에는 희석샘도 바쁘시다. 너무너무 바쁘시다. 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샘이 바쁜 걸아니까 계속 찾아가지 못하겠다. 내가 진행 한 내용 중에 희석샘이 못 보신 게 정말 많은데.

내가 방학 때는 정말 놀았지만 2학기는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 성과가 너무 없다. 아침 일찍 내려오는 것도 다반사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신 줄을 제대로 놓았나보다.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하고 싶지도 않다.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 자 난 이제 또 본문을 쓰러 가야지. (11시 36분)

09.30 화

오늘 5교시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강당 밖에 농구수업을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 그래서 영상은 목학 때 찍기로 했는데 목학 때 펄라가 연습을 해서 찍지 못하고 본문 만 썼다. 목학 때 못 찍어서 어찌지! 싶었는데 내일 오전에 풀로 찍을 수 있게 되어 걱정이 사라졌다. 내일 영상을 다 찍을 수 있을 듯하다. 다 찍는 게 목표!!!

그리고 오늘 희석샘을 만났는데 일단 뭔가를 다 해서 오라고 하셨다. 중간 중간에 희석샘이 확인하게 되면 계속 샘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셨다. 샘 말씀은 잘 이해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봐주셨으면 했다. 다들 담당교사랑 이야기 하고 상의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나는 혼자 하

니까 웬지 불안하고 외로운? 기분이었다.

-10월

10.01 수 <법보다 간디 음악제>

오늘의 목표는 영상을 다-! 찍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전에는 6학년 회의가 잡히고 오후에는 음악제 리허설로 너무 시끄러워 찍을 수가 없었다. 어찌지 정말 어떡해. 내일 다 찍을 수 있을까? 아니, 찍어야 한다. 6학년 회의만 잡히지 않으면. 기중오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10.02 목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을 때 꽤 속도가 붙어 30분 만에 무려 3편을 찍었다. 계속 내가 엔지를 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근데 그 기분이 1교시에 다 사라져 버렸다. 영상을 찍으려는데 밖에서 어깨동무의 새 차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게 아닌가. 억지로 찍으려고 해봤자 시간만 날릴 것 같아서 그냥 나온 후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편집해보았다! 처음엔 맥을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 익숙해지고 'I MOVIE'는 정말 쉬웠다.

그렇게 낮에 공간시간 동안 편집을 마구했다. 그!런!데! 희석 쌤이 묵학 때 오셔서 보시더니 왜 진검으로 안 찍었냐고 물어보셨다. 그러면서 목검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색이 어두워서 잘 안보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영상을 반이나 찍었는데 다시 찍을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다. 진짜 너무 고민 된다. 사실 나는 이왕 하는 거 좀 잘 하고 싶으니까 다시 하고 싶은데 기중오빠가 너무 바쁠 것 같다. 어찌면 좋지?

10.03 금

오늘은 정말 보람 찬 하루였다. 7시에 학교에 내려와서 9시 30분까지 영상을 진검으로 처음부터 다시 찍었는데 하다가 보니 요령이 생겨 15편이나 찍어버렸다. 11시 아침 먹기 전 까지 찍었더라면 분명히 다 찍었을 텐데 아쉽게도 어진이 워크숍이 잡혀 있어 강당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낮 시간동안 찍은 모든 동영상들을 편집했다. 오늘 같이만 하면 내일 오전이면 영상은 다 완성이 될 듯했다. 기분 짱 이다.

10.04 토

나머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다. 아니, 하려고 했는데 맥이 렉이 걸려서 하지 못했다. 딱히 한 건 없는데 왜 이리 하루가 빨리 지나간 걸까? 쉬지 않고 했는데 왜 이리 한 건 없을까? 기분이 안 좋다.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

10.05

그저께도 어제든 오늘도 다 똑같은 하루였다. 7~8시 쯤 내려와 영상 편집을 하고 먹고 영상 찍고 편집을 하고 렉 걸리고 파일이 날아가고. 이번 휴일 중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언젠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오늘은 영상편집을 완료하고 본문을 조금 썼다. 본문에 들어가는 표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기분이 안 좋고 영상 편집을 할 때 자막이 막 사라져서 기분이 안 좋다.

10.06 월

오늘 처음으로 12시 까지 논문을 쓰기 위해 남아있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뭔가 완성이 되간다고 생각했는데 상현 쌤이랑 면담을 하고 나니 이제 시작인 느낌이다. 희석 쌤 아기가 태어나 쌤이 학교에 안 계시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오늘은 동영상들을 희석 쌤께 보내고 본문을 썼다. 그리고 상현 쌤과 면담까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니 망설여지고 잘 되지 않는다.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아이오서프프로그램을 키고 봐야겠다.

10.07 화

내일이 논문 제출일이다. 실감은 하나도 안 난다. 엉터리지만 나름 본문도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불안함도 없다. 설마 이렇게 대책 없이(회석 쌤의 지도 없이) 논문 발표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이다.

오늘 몇 명 눈에 띄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다들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 태은이는 나한테 거정세를 배웠다면 자랑까지 했다.(ㅋㅋㅋㅋ) 어제 상현 쌤이 내 영상이 심하게 말하면 교본보다는 영상기록물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 반응을 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글로 채우면 될 것 같다.

10.08 수

제출일이다. 제출일!!

회석 쌤이 안 계셔서 최대한 많은 쌤께 본문을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게 겨우 민혜 쌤, 상현 쌤, 희라 쌤이다. 아무래도 하루 만에 많은 쌤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무리였었나 보다. 그래도 제법 많은 피드백을 받아 고친 것이 많다. 목차 순서 수정이 많이 된 것 같다.

본문 말고도 오늘은 작품 때문에 너무 멘붕이 왔다. 거의 완성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집에서는 교본을 만들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완전 기분이 안 좋아서 고민하다 민혜 쌤과 면담 하에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가정학습동안 교본내용을 모두 다 완성하고 하루 일찍 와서 그날 밤부터 전자책을 편집하는 것이다. 그 다음날, 일요일까지 하루 종일! 죽기 살기로 한 번 부딪혀 보려고 한다.

10.09 목 <가정학습 시작>

졸리다. 지금은 1시 55분. 어제 늦게 자고 오늘 일찍 일어나서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눈이 감기는 대도 나는 악을 쓰고 논문을 썼다. 웬지 불안하고 낮에 안 쓴 게 후회돼서.

오늘 학교에서 12시에 출발했다. 말 안 듣는 영상편집을 한다고 엄마랑 성현이가 기다려야 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룬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상한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 그래도 엄마랑 성현이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운이 좋게 전자책형태로 된 태권도교본을 2개나 발견했다. 하지만 둘 다 말을 잘 안 듣는다. 내일 조사(?)해야지.

어제 본문 제출을 너무 급하게, 마무리 작업을 할 시간 없이 해서 그림순서도 이상하고 표 순서도 이상하고 목차도 이상하게 낸 것 같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너무 너무 속상하다.

10.10 금

지금은 새벽 3시11분이다. 이렇게 늦게까지 논문을 쓰는 건 모두 내 탓이니 누구를 탓할까. 오늘 낮에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하다가 결국 밤늦게까지 논문을 쓴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본문을 완성했다. 이제 내일(오늘) 7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피피티와 요약본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오후에는 대본을 적고 밤에는 교본내용을 손봐야지.

내일 저녁을 먹고 예슬이네를 가기로 했다. 일요일에 학교를 일찍 가기위해. 논문을 위해 내가 별의 별짓을 다하는구나 싶다.

10.20 월

오랜만에 일지를 쓴다.

여태까지 논문 발표를 했고 결과도 나왔다. 나는 예상했던 대로 2차다. 발표는 꽤 만족스러웠고 논문 발표가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싶어 끝나가는 발표가 아쉬웠다.

저번 주는 잘 놀고 잘 쉬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 그리고 주말에 사무총장님과 회장님께 교본내용을 감수받기로 확정지었다. 그때 까지 글과 영상이 모두 완성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다 할 수 있다. 나는 글과 영상이 모두 완성되는 것에 노력하지 말고 그걸 한 단계 넘어서 조금이라도 전자책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파이팅!!!!

10.21 화

오늘은 영상을 자막 말고 다 완성을 했고 내일은 회석쌤 맥으로 자막을 넣을 것이다.

교본에 들어갈 글을 다 수정했다. 내일 타이핑만 하면 되고 그림도 5개를 그렸다. 내일 영상과 글이 완성되면 좋겠다.

10.22 수

오늘은 글을 다 타이핑하고 그림을 7개 더 그렸다. 공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회석쌤도 안 계셔서 영상편집을 할 수가 없었다.

10.23 목

회석쌤 맥으로 영상편집을 해봤는데 자막이 날아간다..... (또르르)

편집할 시간은 내일 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10.24 금

아, 진짜 진짜 회석쌤 맥으로 영상편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해 놓을 걸.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확인을 안 한 내 탓이다. 내일 까지 다 완성 못할 것 같다.

10.25 토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상을 4개 빼고 다 완성을 했다.

오늘은 감수를 받기 위해 회석쌤을 따라 경주(골굴사)로 내려왔다. 아직 감수를 받진 않았고 오늘은 사범님들이 공연하시는 것을 봤다.

밤에 숙소에 도착해서 영상 4개를 더 편집했다. 감수를 받으려니 너무 부끄럽다. 영상과 글이 너무 허접한 것 같다. (TT)

10.26 일

오늘 오전에 사범님들이 잠깐 영상이랑 글을 훑어보시고 그 뒤로 시간이 없어 감수를 받지 못했다. 그 잠깐 동안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가 없었다. 다행히 진짜 감수는 메일로 받게 돼서 조금 덜 창피할 것 같다.

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골굴사를 따라 오기는 잘한 것 같다.

10.28 화

집으로 돌아와서 푹 쉬었다.

집에서 교본을 만들기 위해 맥을 10만원이나 주고 빌렸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쓸 수 있으니 조금 짝세다.

‘이제 논문을 써 볼까?’ 하고 맥을 켜는데 영상 4개를 편집하고 나니 집중이 안 됐다. 아무래도 아이북스오서를 쓸 줄 모르니 손이 안 갔다. 난 하루 종일 뭘 한 거지!!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제발 내일은 정신을 차리길.

10.29 수

정신을 차렸다. 일단 맥을 켜서 아이북스오서를 실행시킨 다음 아무거나 막 해봤다. 아무거나 막 해

도 책이 만들어 진다. 일단 아무거나 한 뒤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제 교본 완성은 시간문제야. 오늘은 반을 완성했다.

10.30 목

와우. 오늘 새벽 3시까지 해서 교본을 98%완성했다. 이제 다듬고 희석쌤한테 영상 4개를 받아 넣고 학교에 가서 스캔을 해서 그림을 넣으면 된다. 신난다. 진짜 너무 기쁘고 홀 가분 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ㅋㅋ).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자고 먹고 놀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자유라니! 믿기지 않는다. 논문 발표 때 보다 좋다. 집에 프린터기가 이상해 스캔이 안 되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정도면 괜찮아.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잘 하자. 어쩌면 일요일에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주프 조 애들이 내 작품이 98%완성 됐으니까 나 혼자 주프를 잘 해보란다. 우리 주프는 망했다.)

10.31 금

나 진짜 뭐가 되려나봐. 맥을 빌려준 업체가 맥을 받을 시간이 나지 않아 이번 주말까지 무상으로 더 대리해 준다고 한다. 이건 진짜!!!!!!!

주말 안에 교본을 완성해야겠다.

-11월

11.01 토

오늘 엄마가 스캔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엄마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안에 교본을 다 완성할 수 있다!!!!!!

그. 런. 데. 난 정말 디자인은 하면 안 되나봐. 표지 때문에 미치겠다. 일단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에휴!

어쨌든 교본 100% 완성! 아싸!!!!!!

11.02 일 <입교>

오늘은 완성된 교본을 희석쌤께 보냈다. 그리고 소현언니(산청간디학교 경당 당수)에게 메일을 보낼 테니 교본평가를 해달라고 연락을 했다. 산청에는 I books 파일을 열 수 있는 기기가 없어 pdf와 영상 파일로 보내야 한다.

11.03 월

오늘은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산청에 메일을 보내려고 영상을 찾아보니 21.염시 세~ 24.횡충세의 영상이 자막이 없었다. 교본에만 넣고 바보같이 삭제 했나보다. 자막편을 다시 해야한다.

그리고 표지도 바뀌야겠다. 사람들 반응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다.

11.04 화

표지디자인을 수정했다. 전보다 깔끔하고 훨씬 보기 좋다.

산청에는 그냥 자막이 안 들어간 영상파일을 보냈다. 그런데 사범님들께 I books 파일을 메일로 보내 보니 보내지지 않는다. 사범님들께도 pdf와 영상파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럼 자막편집을 할 수 밖에 없다.

11.05 수 <등산>

완, 정말 신기하다. 희석쌤이 메일을 보내니 잘 보내졌다. 왜 내가 할 때는 안 됐을까? 어쨌든 영상 편집을 안 해도 되니 좋다.

11.06 목

나는 바보였어! 모든 사범님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들고 계시지는 않다는 점을 까먹고 있었다. 자막편집을 해야겠군.

오늘은 본문을 썼다.

11.07 금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자막편집을 끝냈다.(자막이 하나만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멍청하게 희석샘이 주신 메일 주소를 잊어먹어 아침에 메일을 보내지 못하고 점심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 보내지 못했다. 기숙사를 올라가기 전에서야 허둥지둥 보냈는데 평가가 제때 올지 걱정이다.

11.09 일

오늘 메일을 수신확인해보니 사범님 중 아무도 메일을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희석샘께 연락해 사범님들께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은 전산실에서 5명 정도에게 교본을 평가받고 공책에 본문을 쓰고 부록에 들어갈 영상을 찍었다.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

11.10 월

산청경당에게 메일이 생각보다 일찍 와서 오늘 본문에 정리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내일 할 일이 하나 줄었다! 그리고 오늘은 평가를 제외한 본문을 다 썼기 때문에 내일 나머지 평가를 받아서 넣고 ppt만 만들면 된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랩으로 표현하기

지도교사: 황선희



이름: 박지담

좋은 거: 김동률, 선글라스, 스냅백, 랩, 힙합, 힙합아티스트들과 김동률 공연
유튜브로 보는 것, 집에 있는 것, 가끔 뜻깊게 놀러가는 것, 여행가서 노래 듣는 것

싫은 거: 오징어(마른오징어는 제외), 조개, 개구리, 뱀, 학교에서 아침에 비 오는 거,
그래서 가방 젖는 거, 캠핑하는데 비 오는 거

이걸 쓰면서:

논문 쓰다 흰머리 남.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계획

II. 본론

1. 힙합

- 1) 힙합이란
- 2) 힙합의 시작
- 3) 힙합을 이루는 요소
 - (1) 랩
 - (2) 디제잉
 - (3) 브레이크 댄스
 - (4) 그래피티
- 4) 랩 용어

2. 내가 만든 앨범

- 1) 본질적 문제
(Ji-stone Solo Single Album)
 - (1) 앨범제목의 이유
- 2) 첫 번째 노래
 - (1) 만행
 - (2) 만행(가사)
 - (3) 만행구성설명
- 3) 만행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
- 4) 두 번째 노래
 - (1) 통과의례
 - (2) 노래(가사)
 - (3) 통과의례구성설명
- 5) 통과의례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
- 6) 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의 평가
 - (1) 학교 외부 평가
 - (2) 학교 내부 평가
 - (3) 나 자신의 평가

III. 결론

1. 모든 것을 끝내고

부록

1. 후기
2. 논문일지
3. 참고자료
4. 본질적 문제(리듬악보)
5. 고맙습니다.

I. 서론

1. 논문의 동기

그동안 학교에서 친구와 팀을 결성하여 랩과 힙합으로 축제 때 공연을 해왔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은 원래 있던 노래들에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가사를 고쳐 쓰는 식이었다. 원래 있던 노래들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다.

2. 논문의 목적

친구와 팀을 할 때와는 다른 나, 박지담만의 색깔로 내가 살아오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말로는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내 생각을 나누고 싶다.

3. 연구방법 및 계획

이 논문은 작품논문이다.

II. 본론

1. 힙합

1) 힙합이란

힙합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는 말인 동시에, 문화 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힙합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화'라고 말할 한다. 힙합을 이루는 요소로는 주로 네 가지, 랩·디제잉·그래피티·브레이크댄스가 거론된다.

1980년대에 미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 정착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힙합은 전 세계의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힙합스타일'이라고 하여, 보다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형태의 패션·음악·댄스·노래, 나아가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¹⁾

저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힙합은 억압에 눌리면서 계속 참아왔던 것들을 폭발시키면서 탄생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랩은 단어 수가 엄청 많다. 그만큼 '말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의 힙합은 그 때의 문화를 이어 온 것 같다. 사실 힙합이 좀 거칠기에 멋있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고, 사회의 불공평과 불만과 문제들을 알리고. 이런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다.

힙합은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다르다. 힙합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힙합을 장르라고 보면 보는 시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음악적 장르라고만 보고 판단하여 선입견이 생긴다. 오히려 힙합을 이루는 요소들이 장르이다. 랩과 디제잉은 음악적 장르. 브레이크 댄스는 춤의 장르. 그래피티는 미술의 장르. 이 장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문화, 그게 힙합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힙합의 시작

미국에서 처음으로 힙합이 만들어질 때 시작되는 설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다.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기서도 만들어져서 합쳐진 줄 알았다. 또 점점 하나씩 생겨나고 누가 '만들었어!' 해서 만들

1)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힙합」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075&cid=40942&categoryId=33044>

어지지는 않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루는 요소들은 점점 하나씩 생겨났겠지만 용어는 한 번에 정리가 되었다. 밑에 미국힙합의 시작을 정리해 보았다.

(1) 미국힙합

1970년대 뉴욕의 브롱스에서 자메이카 출신에 디제이 쿨 허크(DJ Kool Herc)가 힙크와 디스코 음악을 믹스 시킨 새로운 디제잉 테크닉을 선보였다. 이 음악은 뉴욕 빈민가의 길거리 파티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프리카 밤바타(Afrika Bambaataa)가 힙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힙합의 4대 요소인 디제잉, 엠씨잉, 브레이킹, 그래피티를 규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음악 집단 줄루 내이션(Zulu Nation)을 통해 힙합 문화의 보급을 타진했다.²⁾

(2) 한국힙합

1989년 가수 홍서범이 솔로 데뷔 앨범을 통해 [김삿갓]을 발표했다. 노래의 모든 부분이 랩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 한국 최초의 ‘랩’으로 기록 되었다. 하지만 홍서범은 ‘랩’이나 ‘힙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현진영이 처음으로 [슬픈 마네킹]에 ‘랩’이라는 용어를 앨범에 명시했다. 또 나미는 자신의 히트곡인 [인디언 인형처럼]을 1990년에 리믹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음악 장르를 접목시켰다. 그 중 가장 알려진 곡은 신철의 랩이 삽입된 랩 버전의 리믹스 곡이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에서 리믹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성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나미는 리믹스 버전에서 랩을 했던 신철의 소속팀인 붐붐과 함께 방송활동을 하며 나미와 붐붐을 결성했고, 랩퍼와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며 랩과 리믹스라는 장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철의 영향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초기 랩 음악의 출발선을 끊었다.

그 후 1992년, 현진영이 2집 <New Dance 2>를 발표하면서 ‘힙합’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명시 하였다. 그리고 서태지가 주도한 랩/댄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여 [난 알아요]를 발표했다. 이 곡이 히트를 기록하며 힙합과 랩에 대한 관심을 촉발 시켰다. 재미교포인 서정권은 제이케이 타이거(JK Tiger)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랩/댄스가 아닌 정통 랩을 내세우지만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데는 실패하였다.

1996년에 하이텔, 나우누리 같은 PC통신을 중심으로 온라인 블랙 뮤직/힙합 커뮤니티인 Blex, SNP 등이 등장했다. 이 PC통신에서 게시판에 서로 정보를 올리고, 동부가 최고냐 서부가 최고냐 하는 논쟁이 불기도 한다고 했다. Blex는 1998년에 자기들 만에 컴필레이션 앨범을 내기도 했다. 언더 힙합을 일컫는 다 할 수 있는 ‘가리온’은 Blex를 통하여 활동을 하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 Blex가 없어진 후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있다가 2004년에 첫 번째 앨범을 내고 데뷔했다.³⁾

한국에서의 힙합은 시작이 조금 불분명 하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현진영이 발표했을 때에도 힙합이나 랩/댄스나 하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한다. 서로가 주장하는 시기나 음악 형태도 서로 서로 다 다르다. 누구는 이때가 시작이라고 하나 또 다른 누구는 저 때가 시작이라 그런다. 사실 나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과 다르게 도입되던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헷갈린다. 하지만 Blex와 SNP가 생겼을 때부터 언더그라운드힙합이 시작되었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시작 되었을 때부터 한국의 힙합이 시작 된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언더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힙합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언더그라운드가 없었다면 아이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 전에 현진영이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Blex와 SNP가 생겼을 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 출처: 김영대의 5명, 『한국힙합』, 도서출판 한울, 2008년, 338쪽 참고

3) 김영대의 5명, 『한국힙합』, 도서출판 한울, 2008년 25, 26, 27, 339쪽 참고

3) 힙합을 이루는 요소

(1) 랩

랩은 힙합의 한 축을 이루는 음악 요소로서, 대체로 빠른 속도로 가사를 읊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래퍼의 취향에 따라 느리게 읊을 수도 있다. 가락보다는 리듬을 강조한 반주에 맞춰 부른다. 랩은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어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곧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 퍼졌다. 랩의 일부가 민족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여성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⁴⁾

요즘 랩을 많이 접할 수 있다고 그냥 말만 빨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랩은 플로우⁵⁾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라임⁶⁾은 랩퍼들에게 진짜 중요한 요소이다. 라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력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유명한 랩퍼들은 항상 이 기술들을 연마한다. 랩을 잘하고 싶다면 이 기술들을 연습하고 계속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바뀌어져 있는 자신의 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디제잉

디제잉은 디제이에 영어의 현재진행형을 나타내는 ‘~ing’을 붙여 만든 말이다. 디제이가 벌이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데, 넓게는 곡을 틀어주거나 설명을 붙이는 것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음원 재조합과 선곡 등에 창의성을 갖춘 디제이가 벌이는 예술 행위를 가리킨다.⁷⁾ 디제이는 ‘디스크자키(disk jockey)’를 줄인 말이다. ‘디스크(disk)’는 오늘날 흔히 LP라고 부르는 레코드 매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자키(jockey)’는 ‘기수, 물이꾼’이라는 뜻이니 디제이는 음악으로 청취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 힙합 디제이는 MC 뒤에서 턴테이블을 이용하여 힙합 반주를 틀거나 스크래칭[한국힙합]이라는 기법으로 연주한다. 믹싱과 스크래치 등의 기술을 통해 즉흥적으로 음악을 가공하고 들려주는 하우스 디제이들은 단순히 음악의 전달자가 아닌 창조자로 대접받는다.⁸⁾

(3)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댄스(Breakdance)는 1970~80년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국의 힙합 댄스를 특징짓는 춤의 일종이다. 원래 이름은 비-보잉(B-Boying)이나 브레이킹(Breaking)이며, "브레이크댄스"란 말은 1980년대 중반에 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보이들이 원래 이름인 "비보잉"을 선호한다.⁹⁾

(4) 그래피티

그래피티(graffiti)의 어원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스어 'sgraffito'이다. 스프레이로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말로 'spraycan art' 'aerosol art'라고도 한다. 유럽에서는 '거리의 예술(street art)'로서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人)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했다. 분무 페인트를 이용해 극채색과 격렬한 에너지를 지닌, 속도감 있고 도안화된 문자들을 거리의 벽에 그렸다. 이것들은 즉흥적·충동적이며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는 것들이었다.¹⁰⁾

4) 출처: 다음백과사전 「랩」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6r0055n11>

5) 힙합의 플로우란 곡 안에 담긴 리듬과 라임을 뜻한다. 출처: 폴 에드워드, 『How to Rap』, 2011년, 93쪽 참고

6) 문장이나 단어의 위치에서 같은 소리가 되풀이됨으로써 율격과 더불어 그 소리와 의미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Basic 교과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압운(rhyme)」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9392&cid=47319&categoryId=47319>

7)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대중문화사전) 「디제잉」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20&cid=50293&categoryId=50293>

8)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대중문화사전) 「디제이 [DJ]」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19&cid=42028&categoryId=42028>

9) 출처: 위키백과 「브레이크 댄스」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C%9D%B4%ED%81%AC%EB%8C%84%EC%8A%A4>

10)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그래피티 아트 [graffiti art]」 참고



11)

4) 랩 용어

여기서는 랩을 할 때 나오는 용어들을 한 번 집고 넘어가려고 한다. 랩을 이루는 용어도 생각보다 꽤 많다.

(1) 프리스타일

즉석에서 랩을 구상해 부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랩배틀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프리스타일 랩퍼로는 Sool J, Huckleberry P, JJk, 한웅희, Dragon.AT, 지조가 있다

(2) 디스

이 부분의 본문은 디스입니다.

랩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 또는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디스로 유명한 래퍼로 디지가 있다.

(3) 에이케이에이

As known as 혹은 Also known as의 약칭이다. 보통 랩퍼의 풀네임에 등장하는데, '일명'이라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동근 a.k.a YDG이다

(4) 피쳐링

약자로 Feat.라고 쓴다. 해당 곡에 다른 뮤지션이 참여했다는 의미다.

(5) 비트

반주 또는 배경음을 가리킨다. MR이라고도 한다.

(6) 펀치라인

랩에서, 한 방 먹은 기분이 들 정도로 표현이 매우 절묘한 부분을 일컫는다. 보통 해학적인 내용으로서 풍자적인 성격을 띤다. 2007년 스윙스의 《Punchline King》 앨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펀치라인의 가장 잘 쓰는 힙합퍼는 스윙스와 타블로가 있다. 하지만 두 뮤지션의 펀치라인 스타일은 약간 다르다.

(7) 싱코페이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764&cid=40942&categoryId=33050>

11) 한강시민공원 압구정지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그래피티 아트 [graffiti art]」 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764&cid=40942&categoryId=33050>

당김음이라고도 한다. 라임을 반박자 앞으로 당기는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8) 레이백

미는음이라고도 한다. 라임을 반박자 뒤로 미는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9) 텅트위스팅

거센소리를 이용해서 헛바닥을 텅기듯이 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버그라운드

약칭 '오버'. 대중 매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확실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메인 스트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1) 언더그라운드

약칭 '언더'. 오버그라운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중 매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공연이나 앨범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확실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인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디는 자립한다는 뜻이고, 언더그라운드는 대중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음악성에 대해 과한 맹신을 받기도 한다.

(12) 호미

마더퍼커(Motherfucker), 빗치(Bitch) 등과 함께 청중이나 동료들 가깝게 부르는 속어. 미국 갱스터 계열의 랩퍼들이 많이 쓴다.

(13) 리스펙트

존경, 경의를 나타낸다.

(14) 엠씨

마이크로폰 체커(Microphone Checker) 혹은 마이크로폰 컨트롤러(Microphone Controller)의 약칭. 대체로 마이크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래퍼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Move the Crowd, 관중을 움직이는 사람"의 약자라고도 한다.¹²⁾

2. 내가 만든 앨범

1) 본질적 문제 (Ji-stone Solo Single Album)

(1) 앨범제목의 이유

진짜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려 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불만을 건드리려 봤다. 만행은 밀양과 강정, 그리고 집회현장. 분명히 잘못되었다. 안 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계속 진행한다.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지만 함당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고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적지만 한마디라도 보태고자 랩을 썼다. 통과 의례는 논문에 대해서 썼다. 무조건 써야 하지만 불평은 끊기는 날이 없다. 정말 하기 싫어도, 입에서 논문이 싫다고 얘기를 해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결국은 해야 하는 정말 골칫거리다. 그 순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순리를 한 번 건드리면 어떤 느낌일까. 욕만 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한 번 건드리려 보았을 뿐이다. 이 노래들로 생각이 바뀔지거나 하는 바람은 없다. 다만 공감을 자극하지는 않았을까 싶다.

모든 노래를 다 만들고 나니 웬지 '본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던 것은 왜 일까? 이미지가 잘 맞는 것

12) 출처: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힙합」 인용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E%99%ED%95%A9

같다. 검색을 해 보았다. ‘본질’에 대해서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단어가 들려주는 느낌은 내가 얘기하던 것과 느낌이 비슷해 보일 뿐이다.

2) 첫 번째 노래

(1) 제목: 만행

① 제목의 이유: 나라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보다 불리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저질러서 이렇게 정했다.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을 진행 시키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랬다. 얼마나 웃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안하는. 꼭 이런 때 쓰는 속담이 이런 것 같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멀리 보지 않고 너무 짧게 자기 행복과 만족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했다. 이 곡과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2) 만행(가사)

Verse 1

그 곳의 분위기는 좀 괜찮아 외부의 억압이 항상 들어오지만 말야
힘드시지 않냐고 물어 보자마자 힘들다고 걱정이라고 얘기하셔도 표정들은 활짝
힘드셔도 분위기는 좋게 만드셔 심각하게 앉아서
반대만 외치실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셔
그 위에서 즐기시던 행복 그걸 뺏어 간 거야 당신들은 최근에 내가 들은 바로는
송전탑 101번 자리의 산장들이 결국 철거 됐다더군.
그 많은 인원이 다 올라가 모든 분들이 다 끌려가
버티시는 분들은 대체 몇 분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머릿수로 상대해도 다 이기잖아 어디 그뿐이야?
이것 말고 더 있잖아 말해봐 봐
비인권적인 행동에 어르신들이 다치시는 건 대체 뭐야?

Hook

만행은 심해지고 신선도 아닌데 도를 넘는다.
왜 이런 짓을 꾸미고 대체 왜 강행 시킬까?
대체 왜X4 대체 왜 왜 왜!!!

Verse 2

그 문제는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지 제주라는 평화의 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좀 오래 됐어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 그 자리를 활동가 분들은 계속 지키시지
독수리들도 그 옆에서 항시 대기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 수는 라면처럼 계속 불지
바가지 속물이야 협박을 귀에다 들이 붓지 계속 말을 듣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지 그럼 우리를 들지 뭉치면 떼어내게 잡아끌지
그들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권력의 쇠팡망이
손잡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망치 그대로 우리를 내려찍지
그 자리에서 누구는 무섭고 누구는 식겁해 행인은 우습고 부모님은 기겁해
그들은 자기 맘대로 행동할 수 없는 꼭두각시
걱정인건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 머릿속엔 뭣도 없지

Hook

Verse 3

난 데모 좀 많이 다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처음에는 미소로 알았다며 요구 했던 것들 절대 안 바뀌어
 그러면서 경찰시켜 앞길 막고 저항하면 때로 잡아가고
 자기들은 여름휴가 생각하고 다음날 회의 때는 잠을 자죠
 어쩔 때는 생각 없이 막말하고 걱정 없이 잠자거나 말을 해도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해 이렇게 진행된 일들이
 나중엔 당신들 자식에 손주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미사일과 방사능을 피해 다닐지 모른다는 것을 이말 꼭 명심해

(3) 만행구성설명

음악에서 곡의 구성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악절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내 랩에 스타일 상 악절로 나누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는 랩을 하는 분위기로 기준을 잡고 Verse 1과 Hook을 나누는 식으로 두 곡 모두 설명 하려 한다.

만행은 Verse 1을 기준으로 Verse 1이 끝나면 Hook이 나온다. 그 뒤에 Verse 2가 나온 뒤 다시 Hook이 나오고 Verse 3로 끝을 맺는다.

A-B-A'-B-C

Verse 1은 기준이어서 'A'이다. Hook은 총 8마디로 '왜' 부분이 강조되면서 Verse 1과는 누가 봐도 다르다고 느낄 수 있기에 'B'라고 정했다. Verse 2는 Verse1과 리듬이 다르지만 랩을 하는 분위기가 비슷하여 'A'로 표시했다. Verse 3 는 Verse 1과는 또 다른 매력과 분위기를 가져오기에 'C' 라고 표시했다.

3) 만행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

(1) 전체적 얘기

제목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 각기 다른 곳이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공사를 강행하는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쓸 생각이 없었다. 무언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내 문제를 더 알리려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스마트 폰 중독에 대해서 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지 못한 주제였던 것 같다.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두 번째 곡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저런 주제를 생각해보니 이 주제가 나왔다. 내가 진짜 써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았다. 이 것인 것 같다. 대체 왜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마음도 조금 들어갔던 것 같다. 그리고 랩으로 어떠한 문제를 자세히, 또는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알려져야 할 것 같았다. 조금 식상해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 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

(2) Verse 1 : 나는 올해 밀양을 갔다 와 보았다. 3학년 1학기 주제프로젝트에서 탈핵을 다루었는데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였었다. 핵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찾아보던 중에 밀양송전탑이 있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밀양의 대한 소식을 잘 몰랐다. 들려오는 얘기도 없고 엄청 심각하다해서 되게 심각한가 보다 했다. 박배일 감독님의 「밀양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도 할머니들이 누워서 우시고 다치시고 한다고 보아서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아도 웬만하면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나왔다. 뉴스는 심각한 것을 좋아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많이 심각한줄 알았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밀양의 가보았다. 얼마나 심각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아래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때 되면 한 번에 많이 올라가서 협박이 섞인 설득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그 위에 상황은 달랐다. 그 주변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곳만은 상황이 달랐다. 경찰도 없었다.(경찰은 주말이라 쉬러 갔다고 한다.) 송전탑 101번 자리. 그 곳에는 텐트와 산장들이 있었다. 한 30분 올라가니까 나타났다. 굉장히 아늑했다. 산장들을 엄청 잘 지어 놓으셨다. 화장실과 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 위에서 1박도 해볼 수 있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인상을 쓰고 한숨만 뻑뻑 내쉬시면서 불평만 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우리가 가서 그런지 심각해도 그 곳에서 계신 분들이 인상을 무섭게 쓰고 계시지는 않으셨다. 유머도 조금 살아 계신 것 같았다. 바리케이트도 설치되어 있었다. 경찰 쪽에서 정탐을 온다고 새워 두신 것이다. 나뭇가지를 나뭇가지에 걸쳐서 만드셨다. 안타까웠던 것이 그 위에서 버티시는 분들이 몇 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마을 입구에서 주민 분들이 지키고 있어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산장이 철거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거되는 중간에 엄청난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위에는 나이도 많으시고 몇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웠다. 기사의 나온 사진을 보니 정말 경찰들은 많았다. 하지만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보고 쓰는 것이 거만해 보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번만 가보아도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Verse 1은 이런 얘기를 써보았다.

(3) Verse 2 : 2014년 6월에 학교에서 움직이는 학교로 제주도를 가 보았다. 일정 진행 중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 조금 들떴다. 소식만 듣던 강정에 실제로 가보는 것이니 들뜰 수밖에 없었다. 사진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보다니, 약간 관광지 가는 느낌도 나에겐 있었던 것 같다. 사실 해군기지 소식도 들은 지 오래 되었었다. 그 동안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정마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는 진짜 오래 되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도착을 하니 경찰들이 있었다. 사실 경찰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대기만 하다가 비상시에 출동하는 경찰들인 줄 알았다. 그 때까지는 무섭지도 않았다. 당황했던 건 갑자기 협박을 하니까 대답을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니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분위기 따라 앉아 있었다. 협박의 내용도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앞 뒤 꼭 막힌 그런 내용을 퍼부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 ‘너네 삼촌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막을 수 있냐?’라 뭐라나. 참 거기다 이러고 대답해 주고 싶었다. ‘우리 삼촌한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라고. 하, 하, 하, 하. 정말 우스웠다.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이런 협박을 듣고 있어도 우리는 꿈쩍도 안했다. 이제 그 쪽에서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겠지.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마찰이 생기니 정말 당황했다. 그렇게 나올지 정말 몰랐다. 대응도 제대로 못했다. 멍했던 것 같다. 그건 상황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 때부터 격렬한 마찰이 있었다. 정말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 무슨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자기 뜻대로는 할 수 없고 남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어찌면 불쌍해 보인다. 사람이 울고, 다치고, 힘들어 하는 그 상황을 직접 막고 있는데 위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막아서려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심하게도 했지만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지만 좋은 것들을 느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4) Verse 3 : 3번째 Verse는 내가 여러 집회를 다녀보며 느낀 것과 집회를 해도 상관없이 일을 강행 한다는 뜻을 밝힌 정치인들을 보고 만들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소리를 외쳐도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 그게 정말 보기 안 좋았다. 무조건 귀를 닫고 말을 듣지 않는게 답이 아닌데. 국민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명문대도 졸업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도 어쩔 땐 국민이 옳을 때도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집단성을 띄우고 그 안에서 시대에 맞게 뜻이 통일 되었을 때 그 것이 모두의 뜻이라고 믿는다. 또 정치인들은 어쩔 땐 그냥 말만 바꾸고, 생각 없이 막말하는 것들이 정말 보기 싫다. 내 나이가 어려도 저런 건 꼴 보기 싫다. 아니, 일반 공교육 초등학교 도덕시간에도 그런 건 배웠다. 회의시간에 끼어드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정치를 해도 저것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만심도 슬금슬금 나올 정도다. 좀 이야기가 밖으로 뻗었지만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다. 그리고 후손들이 피해 보는 건 누구 후손이든 다 똑같이 피해 본다는 것도 쓰고 싶었다. 물론 우리 같은 없는 자들에 후손들은 바로

죽음을 맛 볼 수도 있고 저들에 후손들은 멀리 도망치든 지하 벙커로 들어가든지 해서 숨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피해보는 것은 똑같이 앓나.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유치하게 쓰인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다.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5) Hook : 별로 설명 할 것이 없다. 내 생각을 직설적으로 풀어 썼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정말 궁금했다. 왜 이런 것을 꾸미고 대체 왜 강행 시킬지. 그들은 이제 막장을 향하고 점점 만행이 심해져서 정말 보기 싫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 ‘신선도 아닌데 도를 넘는다.’라는 부분은 편치라인이다. 두 가지 뜻을 한 번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이 Hook은 분노를 담은 것 같다. 모든 Verse가 조곤조곤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면 Hook은 한번 씩 확확 들어오게 해서 분노를 표출시키는 부분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4) 두 번째 노래

(1) 제목: 통과외레

① 제목의 이유: 우리 학교에는 한 번씩 거쳐야 되는 거대한 산들이 여러 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논문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꼭 해야 하고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골칫덩어리. 논문을 꼭 거쳐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과외레라고 지었다. 참 제목 잘 지은 것 같다.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2) 통과외레(가사)

Verse 1

나는 사실 그리 생각했어 내가 만족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만족 타령을
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 너무 배부른 소리를 지껄여 이제 난 꺼려
완성시키는 게 먼저 어쨌면 이 랩도 쉽게 때우기 위한 것
이래 놓고 나중에는 우기지 열심히 했다고
내 말 하나하나가 무기지 헛 나오면 힘들어
사실 아직 경험도 못 해봐 긴장만 가득해
곧 이 긴장감을 파리처럼 잡을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Verse 2

쉬어 보인다고 생각 했는데 쉬어 보이기는 개뿔
내가 놓인 곳은 망망대해에 갯벌 앞에 보이는 건 그냥 벽이 아닌 철벽
거기서 난 힘겨운 싸움을 일궈 보이는 헛것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어
가는 길은 만들어 가느라고 조금 먼 것 일 뿐인데 아까 입 턴 것도 길을
조금 넘어 보려는 속셈 머릿속에 서는 속셈하며 경우의 수세
몰아치는 공격의 수세에 몰렸네 그 자리는 너무 엄해 보여
걱정부터 앞서네 앞길이 너무 컴컴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뿌연 미래
아니 성공할거야 실패의 무덤 밑에서 만세 삼창 뒤에
신발끈 한 번 동여매고 정신 한 번 차리고 무지개 빛에 길을 걸어 갈 거야

Bridge1

억지가 투성이인 이 시간을 빨리 통과 했으면 해 통과 했으면 해
시간은 부담이 돼 어깨를 짓눌러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너무 초췌해

Verse 3

우리의 모든 바램은 일차든 뭐든 좋으니 빨리 끝나길 바라
너무 깐깐해 보이는 심사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른다
축 처진 게 상한 음식 같아 조금 쉬어 그 다음에 몸을 챙겨들고 다시 앞길을 치워
눈이든 돌이든 잡초든 낙엽이든 내 뒤에 길은 언제든 비워둬
그럼 이 길을 볼거아냐 열심히 닦아온 거기에 묻어 있잖아 각자의 땀방울
이게 증명해주겠지 그 다음번은 우릴 따라 또 자기 앞을 헤쳐 나가겠지
나든 누구든 히드라에 빙의 되어 내 것에 침을 뱉어도 나는 기억해 이걸 힘들다
진짜 나 미루다 미루다 게으름을 머리카락처럼 기르다 기르다
이 상태까지 왔어 그래도 내가 말했지 무지개 빛에 길을 걸어 갈 거라고 워

Bridge2

마음속에서는 항상 원망해 (마음속에서는 항상 원망해)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들)
이것저것 많겠지 (이것저것 많겠지)
또 생각만하다 잠들겠지(또 생각만하다 잠들겠지)

Outro

우리들의 푸르른 하늘의 뜬 구름은 잡을게 너무 많아 한 때 결국 이 짓도 한 때 x2

(3) 통과외레구성설명

통과외레는 Verse 2의 분위기가 곡을 주도 하고 있으며 다른 구성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곡의 구성은 독특하다. 처음에 Verse 1으로 시작한다. 사이에 Hook이 없이 Verse 2가 나오고 Bridge 1이 나온다. 곧 이어서 Verse 3가 시작되고 끝남과 동시에 Bridge 2가 나온다. 그 후 Outro가 마지막으로 나온 뒤 곡은 끝이 난다.

A-B-A'-B'-B"-B

웬만한 분위기가 모두 'B'에서 왔다. 하지만 'A'와 'B'는 분위기가 정 반대다. 'A'가 축 처진 분위기라면 'B'는 가벼워지고 싶은 분위기이다. 그래서 'B'에서 'A'로 넘어갈 때 둘이 맞지 않는 것이 들린다. 듣다보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5) 통과외레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

(1) 전체적 얘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통과외레 논문. 우리는 논문 때문에 1년을 웃고 울고 한다.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웃지만 앞길이 막히거나 주제를 바꿔야 된다면 기분이 확 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많다. 또 지나온 나날들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향해 욕도 하고 싶었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욕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희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나온 랩이 '통과외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랩을 썼다.

(2) Verse 1 : 논문을 쓰기 전까지 나는 무조건, 논문 1차 통과든 2차 통과든 내가 만족을 해야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점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그렇다. 너무 배부른 소리였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만심만 하늘을 찔렀던 것이다. 정말 후회가 많았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생각으로는 쉽게 하고 배우자는 생각도 있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 속은 다르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꾸며서 말을 하고 나만 간직한 채 학교를 졸업하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점점 오리무중 속으로 빠질 뿐이었다. 헛된 상상을 해서 논문발표 때 어떻게 질문을 받고 태클을 받을지 생각을 해서 괜히 겁나게 만든 적도 있다. 논문은 쓰지도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오히려 나만 안 좋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나를 믿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앞길을 나아가다 막히면 돌아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벽은 더 생기고 어디를 가나 벽은 모습을 숨긴 채 나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게 정말 어려웠다. 어떻게 이 난관을 빠져 나갈 수 있을지 나는 정말 이제 모를 정도로 왔었다. 지금까지도 내가 가는 길이 맞을지 앞에 또 벽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에 빠져 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심정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주저리주저리 늘어 놓는 것보다 함축적으로 하는 게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느리지만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3) Verse 2 : 사실 나는 이 논문을 앞잡아 본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냥 쓰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풀어 놓고 입을 움직이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부딪히고 덤벼보니 알았다. 이것을 맨몸으로 뚫는 짓은 정말 못하겠구나.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걸 실패한다. 무언가 더 준비하고 준비해서 밀리지 않을 만큼 갖춰져야 저 큰 산을 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고 다시 다짐을 주는 내용들을 담았다. 정말 쉬어 보였다. 선배들이 논문을 쓰면서 결국은 통과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과정은 생략하고 통과했다는 결과만 보고 2년을 소비한 것이다. 논문이 내 맘대로 진행 되지 못하니 이제 ‘이 산을, 이 벽을 나는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길을 가는데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여 일찍 포기한다고 해야 하나. 겁부터 생기는 것이다. 반성은 Verse1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늘어 놓은 것부터 시작했다. 야비하게 피해가려 했던 것도 반성목록에 포함 되었다. 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일찍 포기하면서 돌아가려 했던 것들도 반성과 동시에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나는 멈칫멈칫 하지만 다시 나아가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다짐도 숨어있다. Verse2는 다짐도 있지만 내 자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성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하는 내용이 중점적이다. 갑자기 희망을 갖는 게 좀 뜬금없긴 하지만 뜬금없는 것들이 어쩔 때는 더 확 먹힐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말해두는데 이 곡은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만 내게 해주는 이야기가 더 강하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넌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와있고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전체다. 그 중간에 ‘넌 할 수 있어!!! 파이팅!!!’이라는 희망이 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뜬금없긴 해도 내게 갑자기 혹 먹힐 수 있는 이야기를 써 넣은 것이다.

(4) Verse 3 : 이전 Verse는 내게 해주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Verse는 남들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나 만에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올해 주변에 논문을 쓰면서 느꼈는데 논문 1차 통과든 2차 통과든 통과만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사실 동의 한다. 먼저 끝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통과하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통과하려면 발표를 하고 쌤들에게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고 만족을 하셔야 통과를 할 수 있다. 참 그 기간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그리고 지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알지 않을까? 농담으로 나중에 우리 동생이 간디학교에 입학해서 이 논문을 보고 ‘아, 오빠가 이 논문을 쓰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짓을 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또 이 논문을 보고 모티브를 잡아서 후배들이 써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말만 바꾸었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이 되었다. 그 뒤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알고 있다고, 나 자신이 싸워온 시간들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졸업할 때 까지 만이라도 나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결국 힘든 이유도 할 일들을 계속 미루다 보니 쌓이고 뒤 늦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시간은 계속 늦는다. 할 시간이 있어도 후회하고 신세 한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무지갯빛에 길을 걸어 갈 거라고. 무지개에 7가지 색 중에 2가지 색이 빠져서 보기 흉해도 그나마에 아름다움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아닌가? 이러한 저러든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야기를 많이 썼다. 힘든 것들이 많지만 알아 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내가 부족해도 옆에서 북돋아줄 사람은 많다고. 막말로는 정 내가 못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아름다운 헛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줄 사람들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싶었다.

(5) Bridge1 :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논문을 쓰는 중간 중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논문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서로 많이 썼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냐, 너무 어렵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행복한 시간만이라도 하지 말자는 원망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힘들어서 잠깐 잊었는데 그걸 다시 일깨워 주는 친구들이 밍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미웠던 것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밖에 나눌 수 없다는 시간이었다. 무슨 일을 하던 ‘논문’이라는 단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는 이 시간이 정말 싫었다.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 시간. 고민하고 놀다보면 어느새 하루는 지나가고 진행시킨 논문의 결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면 나는 또 나를 자책하다 고민하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 식이었다. 스트레스에 연속이었다. 이 시간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었다. 꼭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 안에 들어있어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괜히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초췌해 보이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기분 탓 일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었기에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빨리 통과하고 싶었다. 논문은 물론이요, 논문 때문에 몰려오는 스트레스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 Bridge2 : 말 그대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내가 논문을 하던 세월 중 안 좋았던 버릇이 생각만 하다 잠드는 것이었다. 내가 잠들 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던 이유들. 그 이유들을 헤쳐 나가려 생각을 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 시간밖에 없었다. 그 때 생각을 한 후 실천에 옮기려는 시간은 갖지도 않았다. 이런 나도 싫었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들이 싫었다. 항상 나를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고민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묶어두는 할 일들. 이런 게 정말 싫었다.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모두 논문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산다. 그리고 이 고민과 내일 할 일들을 자기 전까지 생각을 하다 자고 만다. 나는 항상 이 불만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 놓은 것 같다. 강력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혼잣말 식으로 털어 놓았다.

(7) Outro : 사람들은 뜬 구름을 잡는다고 하면 웬만하면 헛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구름이 많은 하늘의 햇볕이 들려면 구름을 걷어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을 한 단어에다 같이 넣었다.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지 않았다. 정하는 건 각자 나름이지만 푸르른 하늘로 뻗어 나가려면 둘 중 하나의 일은 결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국은 한 시절이다. 언제든지 다시 회상할 수 있겠지. ‘하... 내가 그 때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며 이 논문을 완성 시켰지.’ 라고 말이다. 그 과정이 헛되었으면 정말 아쉬운 것이고 그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다.

6) 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의 평가

(1) 학교 외부 평가

논문 계획서 발표나 중간발표를 지나면서 쌤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외부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좋을 것 같았고 사람들을 생각하던 중 세남자가 떠올랐다. 세남자의 멤버이신 술래에게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그리고 술래가 같은 멤버이신 내토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해주신다고 했다. 곡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드렸고 가사와 음원을 모두 보내드렸다. 이 아래로 나오는 두

분의 이야기들은 보내주신 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이다.

만행

저는 랩 워크숍을 다니며, 다양한 청소년들의 랩을 접하게 됩니다. 랩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재밌고 창의적인 가사를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랩을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박지담군의 '만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랩 가사는 보통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랩으로 표현했다는 점 또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힙합음악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런 가사를 찾아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가사에 라임을 잘 활용했고, 재미있는 비유와 표현들(ex>라면처럼 계속 불지)도 있었지만, 리듬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마디를 채우려는 어색한 리듬도 보였고,

'말'처럼, 자연스럽게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듬연습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곡 구성에 있어서, 3절 부분을 브릿지로 하여, 비트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더라면 흐름을 환기시켜 주면서 좀 더 풍성한 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스스로 비트와 가사를 모두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의 신분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랩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 듣는 이들이, 무언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듣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랩을 할때, 발성과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리듬감을 살려준다면, 훨씬 좋은 곡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통과의례

'통과의례'라는 곡은 지금 현재 본인의 이야기를 가사와 랩으로 표현한 곡인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많은 고민을 하며, 적은 가사라고 생각 합니다.

우선 박지담군이 적어놓은 곡의 설명을 보지 않았다면, 무슨 이야기를 담은 곡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표현들이라면, 때론 과감하고, 쉽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곡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피아노 코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진행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익숙한 코드진행과 샘플링기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힙합느낌을 주고, 리듬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물론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드와 랩의 피치(Pitch)가 맞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서로 다른 브릿지가, 두 개 있는 구성 또한, 실험적이긴 하나, 유용하게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브릿지를 훅(Hook)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표현했다는 점이 좋았고, 하나의 '통과의례'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작업들이 분명, 한 단계 발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과정과, 작업물이 매우 기대됩니다. 박지담 Peace!!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이야기

열심히 만든 곡들,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비트, 가사 모두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담군을 위해서,

장점이던, 단점이던, 우리 의견을 되도록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었고,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

(2) 학교 내부 평가

나는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노래에 담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내 이야기를 펼쳐 봐야 했다. 그러면 과연 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궁금했기에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노래를 듣고 드는 생각을 알아보고 평가도 받고자 했고 만났다. 물론 외부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교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했다. 아래 질문으로 노래를 들으신 분들 생각을 물어 보았다. 방식은 인터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응해주신 분들은 총 13명으로 교사 6분, 학생 7명이다.

질문

1.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지?
2.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사의 조화가 잘 되었는지?
3. 가사가 귀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

내 랩의 대한 총평

만행

1.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지?

아름쌤: 지담이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좋지 않게 해결하는 걸 비판하는 것 같다.

민혜쌤: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 정도로 들었다.

필쌤: 사회를 비판하는 것 같다.

미리쌤: 부조리, 힘 있는 자들의 억압, 폭력,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정호쌤: 송전탑 반대.

종명쌤: 지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 하고 있는 것 같다.

안효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분출하는 것 같다.

안다연: 사회적 비판을 하는 것 같다. 밀양 같은 것.

김지형: 경찰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을 비판하는 것 같다.

이한결: 정부의 만행, 송전탑등 안 좋은 일들을 경고하는 것 같다.

정영학: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

차한비: 국가의 만행의 대해 얘기하는 것 같다.

박성현(여): 마음대로 하는 것의 대한 정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2.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사의 조화가 잘 되었는지?

아름쌤: 분위기는 잘 맞는 것 같다. 멜로디와 가사의 분위기가 잘 맞는다.

민혜쌤: 나름 잘 맞는다. 하지만 Verse 1과 Verse 2가 너무 비슷해서 쳐진다. Verse 3이 있어서 그나마 쳐지지 않는다.

필쌤: 그다지 이상한 건 못 느끼겠다.

미리쌤: 처음에 멜로디는 잔잔해서 좋았었다. 하지만 가사는 강하게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지담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굴곡이 없고, 임팩트도 없다. 리듬이 편안해서 편안하게 들었다.

정호쌤: 가사 내용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멜로디는 잔잔하다.

종명쌤: 어두운 느낌이 든다. 가사의 내용도 어둡고 곡의 분위기도 어두워서 잘 맞는다. 하지만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

안효원: 분위기와 잘 맞는다.

안다연: 곡의 분위기가 이런 얘기하기 좋다.

김지형: 어둡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분위기를 잘 맞추어서 괜찮다.

이한결: 비트가 심심한 감이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가사와 잘 맞는다.

정영학: 잘 맞는 것 같다.

차한비: '왜!!!' 부분이 거슬렸다.

박성현(여): 잘 맞는 것 같다.

3. 가사가 귀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아름쌤: 가사를 봐서 잘 들린 것 같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다.

민혜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가사의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가사를 잘 듣지 않는다. 내가 랩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대한 배려가 필요했을 것 같다. 기억의 남은 부분은 '그들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권력의 쇠방망이'와 '대체 왜!!' 분이 있다.

필쌤: 큰 어려움은 없었다. (가사를 보았다.)

미리쌤: 이어폰을 꽂아서 잘 들렸다. 지담이가 예전부터 가사 전달이 잘 안돼서 부족했다. 공연하기 전에 발음연습, 발성 소리조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 된 것은 잘 들렸다.

정호쌤: 노래 가사를 잘 안 듣는 편이다. 나는 모든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반복적인 '강행'같은 단어들을 잘 들었고 들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잘 들릴지는 모르겠다.

종명쌤: 후렴구가 2번째에 반복이 될 때 잘 들렸다. 조금 아쉬운 건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사 전달이 잘 되었다. 그 전에 투스톤으로 공연을 할 때 아쉬웠던 게 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것은 잘 되었다.

안효원: 발음의 문제가 있다. 단어와 단어를 말할 때 얼버무릴 때가 있다.

안다연: 잘 되었지만 안들 리는 부분이 있고 발음문제가 있다.

김지형: 어느 정도. 빠르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서 꽤 들렸다.

이한결: 나름 잘 된 것 같다.

정영학: 잘 들렸다.

차한비: 나름대로 내용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들렸다.

박성현(여):가사가 잘 들렸다.

통과의례

1.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지?

아름쌤: 논문에 대해 힘든 나의 마음을 담은 것 같다.

민혜쌤: 논문. 3학년은 논문을 써야 되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것도 한때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다.

필쌤: 논문의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부담이 크다고 들린다.

미리쌤: 논문을 쓰면서 조여 오는 압박감. 현재의 자기 심정 등이 담어져 있는 것 같다.

정호쌤: 잘 모르겠다. 논문을 쓰기 싫은 기분?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다.

종명쌤: 논문의 대한 부담에 마음이 전해진다.

안효원: 논문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것 같다. 어려움을 잘 분출했다.

안다연: 논문의 대해서 쓰는 것 같다. 공감이 되고 내가 3학년 때 딱 이런 기분이었다.

김지형: 지담이의 논문의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논문 쓰는 애들은 다 이럴 것 같다.

이한결: 논문의 대해서 쓴 것 같다.

정영학: 성공, 실패에 관한 것 같다.

차한비: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박성현(여): 잘 모르겠다.

2.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사의 조화가 잘 되었는지?

아름쌤: 슬펐다.

필쌤: 맨 처음 도입부에서 말소리와 반주가 속도차가 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미리쌤: 스크래치 부분이 들어가서 잘 어울린다. 하지만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윙조리듯이 편안하게 말한다. 조금 감정을 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의 곡보다는 강약의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내용을 담기에는 좋다. 듣기에는 편안하다.

정호쌤: 우울한 감정이 느껴져서 맞는 것 같다.

종명쌤: 좋다.

안효원: 꽤 맞는 것 같다. 참신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낯설 것 같다.

안다연: 노래가 좋다. 하지만 Verse 1에서 Verse 2로 바뀔 때 갑자기 밝아져서 당황했다.

이한결: 나름 괜찮지만 스크래치랑 베이스와 피아노와 랩이 같이 나올 때 별로였다.

정영학: 잘 맞는 것 같다.

차한비: 베이스랑 피아노랑 같이 나올 때 피아노가 발랄해서 이상했고 너무 튀었다.

박성현(여): 들린 가사와 잘 맞는 것 같다.

3. 가사가 귀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아름쌤: 내가 집중해야 잘 들린 것 같다. 편하게 들었다면 잘 안 들렸을 것 같다.

민혜쌤: 집중해서 잘 들렸다. 내용을 짐작 할 수 있는 정도로 들렸고 나중에는 의미가 들렸다.

필쌤: 들리긴 잘 들린다.

미리쌤: 듣긴 다 들었다. 하지만 전의 곡보단 어려웠다.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 신경 쓰면서 들었다.

정호쌤: 가사는 전의 곡보다 덜 들렸다. 피아노 멜로디→스크래치 순으로 들리고 가사는 거의 끝으로 들려서 전의 곡보다 잘 안 들렸다.

종명쌤: 나는 개인적으로 통과의례가 더 좋다. 그리고 가사 전달이 잘 되는 것 같다.

안효원: 스크래치랑 베이스가 들어가서 가사보다 더 많이 들었다. 전달은 나름 된 것 같다.

안다연: 이건 발음이 좋다. 피아노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김지형: 정말 잘 들렸다. 공감이 된다.

이한결: 잘 된 것 같다.

정영학: 이게 만행보다 좀 더 잘 들렸다.

차한비: 그렇다.

박성현(여): 귀에는 잘 들렸다.

내 랩의 대한 총평

아름쌤: 만행에서 Hook 부분이 Hook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Verse 1이 Verse 2와 Verse 3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다.

통과의례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뜬금없다. 지담이가 피아노라고 하지만 피아노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두 곡 모두 좋고 잘 만들었다. 그리고 비트를 잘 만들었다. 나는 좋은 것 같다.

민혜쌤: 통과의례는 처음에 Verse 1이 시작 될 때 불협화음 때문에 진행이 맞지 않고 좋지 않다. 진행이나 코드를 바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Verse 2가 나올 때 베이스가 나오면서 반주가 좋았다. 하지만 하이톤의 피아노가 거슬린다. 그리고 가사가 직접적이다. 못해도 들어달라는 내용 같다. 아마추어의 느낌이 많이 난다. 비꼬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누가 듣든 모든 중 3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꼬았으면 좋았겠다. 뭐 우리학교는 논문이고 다른 일반학교는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행은 전에 것을 듣고 지금 바뀐 것을 들으니 발전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좋게 들리는 것 같다. 코러스도 적절하고 Verse 3이 좋았다. 그리고 암시로 끝나는 아이디어가 좋다. 흑이 안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물어 본다면 좋은 작곡이다.

필쌤: 일단 학생 느낌이 난다. 세련된 것이나 진짜 랩하는 랩퍼처럼 확 먹히는 한방이 없다. 리듬의 강세가 없고 반복되는 익숙한 리듬이 약하다. 그리고 들었을 때 흥이 잘 나지 않는다.

미리쌤: 감각이 있다. 그리고 비트와 가사를 모두 만든 것이 훌륭하다. 하지만 발음이 아쉬웠다. 랩 발음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 듣는 동안 재미있었다. 그리고 랩을 한 번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정호쌤: 신나는 노래는 아니다. 모든 것이 단조로운 것 같고 멜로디아 비트나 가사가 귀에 남지 않아서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종명쌤: 아무래도 다른 노래보다 랩이 가사가 중요한 것 같다. 지담이가 가사의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인다. 아쉬운 것은 약간의 단조로움? 어떻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과의례는 지담이의 감정이 잘 느껴졌다. 공연 할 때 임팩트와 표현하는 것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안효원: 진짜 잘했다. 이번이 처음이기에 많은 가능성이 보인다.

안다연: 지담이의 스타일과 색깔이 담겨져 있어서 좋다.

김지형: 재밌고 좋다. 지담이의 랩이 프로들의 랩보다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간디학교에서는 최고다.

이한결: 비트를 작업한 게 신기하다. 그리고 랩도 좋고 준비를 잘해서 좋다.

정영학: 완전 괜찮다.

차한비: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뭔가 지키는 것 같다.

박성현(여): 첫 번째 곡의 공백이 어색했다. 하지만 가사도 잘 들리고 재미있었다.

(3) 나 자신의 평가

사실 나는 내 곡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외부와 내부의 평가를 받으면서 지적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 임팩트가 없다는 말을 하실 때 나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조차도 왜 내 노래를 흥이 나게 못하는지의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문제점이 하나씩 들어나면서 나는 조금씩 부끄러워 졌고, 내가 나의 곡을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좋은 시간이었다. 지금의 곡도 고쳤으면 좋겠지만 이대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중에 다음 곡을 만든다면 이 평가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임팩트 있게.

III. 결론

1. 모든 것을 끝내고

랩은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비꼬아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또 서로를 욕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무기로 만들 수도 있다. 어느 말이든 자기 자유로 아무 이야기나 지껄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든지 이 랩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된 사람들만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글을 쓰고 불러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실력에서 프로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기 싫어 질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는 내용들이 다 거칠고 불순해서 무조건 나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들도 그 랩퍼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 있기에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곡을 만들 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밀양, 강정, 여러 집회, 논문의 대한 나의 부담. 모두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널리 퍼져서 모두 알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곡의 주제를 정하면서 이 방면으로 초점을 두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밀양과 강정과 여러 집회는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모두가 문제점을 알고 무조건 강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가끔씩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논문의 대한 부담은 처음에 공감으로 시작했다. 간디학교의 논문을 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점점 내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나갔고, 내 심정을 알아 달라고 써 나갔던 것 같다.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은 공감이 아닌 하소연인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랩이 날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요즘 케이블 방송사 'M-net'에서 'show me the money3'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매년 나오는 프로였지만 올해, 작년보다 훨씬 이름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랩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불만이 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버그라운드 랩퍼들만 보고 랩을 생각하는 것들이 생긴다. 힙합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되었다. 곱씹기만 하고 끝내는 것은 정말 싫고 이것들이 내 불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랩이 알려졌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언더그라

운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록

1. 후기

처음에 겨울 방학 때 처음으로 랩으로 논문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곡의 주제를 여러 가지 정해보고 5~6곡을 목표로 랩을 썼지만 딱 12월 까지만 이었고 그 뒤로는 랩을 한 자도 쓰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와 논문 계획서를 쓰면서 생각을 하고 다시 펜을 잡고 랩을 썼지만 슬럼프인지 잘 써지지 않았다. 그게 여름방학 중반까지 그랬다. 계속 써도 써도 내 맘에 드는 랩이 나오질 않았다. 도저히 내 스타일이라고 할 정도에 랩이 나오질 않았다. 논문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담과 압박을 이겨내려 어쩔 수 없이 써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시간까지 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만행도 여름방학 중간 쯤 내 기분이 혼란스럽고 정신적 부담이 제일 클 때 어영부영 만들어졌던 곡이다. 정말 힘든 시기였다. 투스톤으로는 또 잘 써지는데 나 혼자 하니 잘 되지 않아 논문주제를 바꿀까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통과의례를 쓸 생각을 하고 쓰다 보니 잘 써진다는 생각을 하고 재밌게 썼던 것 같다.

2학기 들어서 쌤들에게서 들어오는 관심이 부담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내 어깨부터 정신까지 짓눌렀다. 그 동안 투스톤으로 쌓아 놓은 것이 있으니 쌤들도 기대를 안 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사실 나도 이렇게 작곡하고 랩해서 녹음하고 했던 것들이 1학기 때 선호쌤께 배워서 처음 해보는 것인데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에 투스톤으로 보여준 것들이 많은데 그 기대를 부응하려니 내 안에서 지치는 것이다. 나도 처음인데,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닌가. 원망까지 했다. 또 상현쌤이 언제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안전 주의자라고 농담을 이야기 하셨다. 맞다. 나는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이 논문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다 처음이다. 민석이 없이 내가 혼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처음이다. 랩을 이렇게 길게 써본 적도 없다. 비트도 이렇게 만든 것도 아까 말했듯이 없다. 참.... 이 것이 애초에 무리였나? 그런 생각이 머릿에서 벗어나지 않는 날들도 많았다. 그래서 다시 머릿속에는 주제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잘 이끌어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항상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행복을 바라보고만 달렸다. 하지만 그 뒤에 흘러온 것이 너무 많았다. 불만이 있었고, 논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고통이 있었고, 허송세월로 버린 시간이 있었다.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 한동안은 후유증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매일 논문 너무 힘들다고 욕을 하면서 여유를 만끽할 것 같다. 지금의 생각들을 랩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쓸 수 있겠지.

앞으로도 랩은 내게 활력소가 될 것이다. 들으면서 좋아하고 찾아보고 계속 연습하면서 쓸 것이다. 랩의 매력에서 나는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나오기 싫다. 앞으로 나만의 활동이 아닌 투스톤으로 써 활동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집회 현장이든, 학교 축제의 현장이든, 어디서든 나를 본다면 항상 내 a.k.a인 Ji-stone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P.S 내가 만든 두곡에는 영어가 (통과의례의 히드라만 빼면) 한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2. 논문일지

4월 22일

오늘 선호쌤과 얘기를 했다 안 그래도 막막했던 것이 좀 더 막막해졌다.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본

문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내가 바라보는 힙합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4월 28일

오늘 엔지니어를 해 봤다. (이 말이 맞나?) 녹음하는 것 재미있는 듯하다. 저번 주 4월 22일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좀 잘 풀릴 것 같다. 할 거면 이번 가정학습 때 스포트를 내야 되겠다.

5월 7일

계획서를 쓰고 선호썸을 만났다. 사실 가정학습 때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계획서는 괜찮았다. 몇 가지만 고치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곡에 대해서 좀 안 좋았지만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선호썸이 얘기 하신 것을 잘 못 듣고 나는 내 멋대로 나아간 것 같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겠다.

5월 9일

선호썸과 만나고 논문 계획서를 썼는데 목적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가식적인 말 말고 혁신적인 목적이 없을까? 아니면 내 논문이 가식적인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문인가? 선호썸과 만나기 전까지 생각해 야 되는데. 주말동안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또 불만을 적어 내는데 도난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분명히 무언가 많았는데 잘 모르겠다. 그것도 많아지겠지? 고민할게 많아진 것 같다. 좀 어렵다.

5월 12일

선호썸과 만났는데 동기와 목적을 고칠게 있었다. 그걸 고치고 타이핑해서 민혜썸한테 보냈는데 메일을 잘못 보낸 것 같다. 19일에는 제대로 보내야지. 애들에게 말을 좀 들었다. 몇 개는 납득이 되지 않았고 몇 개는 어퍼컷을 맞은 듯이 혹했다. 아무래도 선호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싸인도 받고 의견도 받아야 되니까 메일 주소도 알아야 될 것 같다. 선호썸은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메일을 많이 활용해야지. 자극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나 자신한테

5월 19일

그동안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일지를 미루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논문 계획서 발표 리허설을 했다. 이번에는 저번 주와 달리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사실 나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나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다. 내일 모레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계획서 본문의 글자 크기만 크지 별 내용은 없어 보인다.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금산 심판 때문에 쓰고 싶은 게 늘었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5월 21일

오늘 논문계획서 발표를 했다. 조금 정신이 멍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단지 조금 불안한건 웃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발표가 넘어 간 것이다. 내일 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조금 불안하다. 이 계획서대로 나눔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5월 22일

오늘 결과가 나왔다. 선호썸이 게시지 않으셔서 어땠는지 물어 보지는 못하는데 평가 나온 것만 보여 괜찮은 것 같다. 민혜썸도 일단은 이대로 진행하라 그랬으니 이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 내 생각엔 여름 방학 하기 전에 가사를 다 써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잘 안 써지는 게 문제다. 일단 How to Rap을 빨리 읽어야 될 것 같다.

5월 26일

오늘 선호쌤과 만났다. 사실 선호쌤 반응이 뜻밖이어서 당황했다. 가서 논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작품을 보자고 하고 논문 얘기는 별로 안했다. 사실 난 요즘 슬럼프인지 랩이 잘 안 써진다. 그래서 당황했다. 그래서 선호쌤과 별 얘기 안하고 끝났다.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녁에 민혜쌤과 면담을 했다. 뭐 논문 얘기하고 생활 얘기를 했다. 근데 의외로 내가 하던 고민은 다 한가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표현들이 나왔다. 무언가 풀린 느낌이가. 진짜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6월 27일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쓴다. 그동안 잊고 있었다. 사실 요즘 잘 안 써지기도 했다. 슬럼프가 찾아온 듯. 그래서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된다. 벌써 낼 모레면 개학이다. 그 전에 하나라도 다 완성해서 가야 하는데. 아직 Verse하나와 Hook밖에 완성하지 못했다. 빨리 으쌔으쌔 해야 하는데. 정말 바보같이 잘 안되고 계속 딴 짓을 하게 된다. 정말 힘들다. 빨리 이 시련 끝에 봄이 와서 꽃이 피어야 될 텐데.

7월 7일

계속 빼먹는다. 학교에 와서 선호쌤을 만났다. 큐베이스 설치 프로그램을 받고 작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선호쌤이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을 넣었으면 한다고 말해 주셨다. 그리고 한주동안 쓰고 싶었지만 집중식 기간 때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 아쉽다. 한 주를 한자도 쓰지 못한 게 너무 허무하다. 남은 1주 동안 진짜 잘 씹 하나라도 나와야 될 텐데. 쫓기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조금하다. 너무 조금해

7월 9일

어제 2번째 Verse까지 완성시키고 3번째 Verse의 들어갈 내용까지 생각하는 진도까지 나왔다. 어제 좀 고생이었다. 오후 시간에 잠을 자면서 다 날려 버렸다. 묵학 때 2번째 Verse를 보니 내용이 뒤죽박죽이었다. 좀 고치느라 고생을 했다. 역시 느끼는 문제는 조금함 인 것 같다. 여름방학 전에 완성해서 가자는 생각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감이 많이 떨어졌다. 너무 직설적으로 밖에 쓰지 못한다. 전에 쓴 걸 보니 너무 잘 쓴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자극을 받았다. 진짜 조금하지만 많았으면 좋겠다.

7월 16일

방학을 한지 꽤 됐다. 그동안 투스톤에서 내일 쓸 곡을 연습하느라 바빴다. 되게 잘 나왔다. 감을 되찾은 듯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써야지. 방학계획을 짜 봤다. 학급 숙제인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정말 놀 시간이 없었다. 뻑시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없어서 쓸 말이 없다. 내일 세종시에 가서 틀리지 않게 연습을 해야지.

7월 21일

오늘부터는 진짜 잘 쓸 거다 이 일지를. 요즘 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나라를 비판하는 건 잘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잊고 다시 처음부터 써볼라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가식적인 말이 섞여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생각한 곡 쓸 제는 내가 겪었던 일들 중의 나라가 행하는 문제와 마주쳐 저항이 있었던 것들을 쓸 생각이다. 이를테면 밀양이라든지, 강정이라든지, 대안학교 법제화라든지. 확실히 그게 더 곡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늦은 만큼 더 잘 쓸 수 있어야지.

7월 22일

선호쌤께 어제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답을 주셨다. 선호쌤에 충고를 듣고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왜일까. 힘들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나왔는데. 혼자서 해서 그런가? 아무튼 힘들다. 정신적으로 초조한 것 같다. 논문이라 해서 더 그런가? 생각해보면 멜로디도 만들어야 하는데 멜로디가 없

어서 잘 안 나오나? 결국 오늘은 겨우겨우 1분 9초까지 짜냈다. 그나마 한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내일은 다 완성 할 수 있기를.

7월 23일

또 갈아엎었다. 맘에 드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쓴다. 이참에 비트도 새로 만들었다. 전에 장난 식으로 만든 것을 조금 보완했다. 곡은 한곡에 다 몰아넣기로 하였다.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쓰려한다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한 이야기를 한 Verse하다 넣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 오늘 1절을 완성했다. 이제야 내가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다. 계속 이러기를

7월 24일

오전에 멜로디 작업을 했다. 멜로디 작업을 하려고 노트북을 켜는데 착잡하다. 작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악기라고 기타 밖에 할 줄 모르고. 배웠던 작곡 하는 법은 다 까먹었으니 가사악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기타를 꺼내들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니. 이거라도 해놓으면 베이스는 어찌어찌 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으로 세월호 집회를 다녀왔다.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미치겠다.

7월 25일

2절을 나가기도 전에 3절부터 나갔다. 초안만 짜놓고 라임은 안 맞추어 봤다. 사실 어제 세월호 집회를 다녀온 후 몸과 마음이 갑자기 훅 지쳤다. 그래서 손을 다 놔 버렸다. 그나마 이정도 한 것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논문을 위해 쓰던 노트북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기타만 봐도 한숨만 나온다. 주말 동안 그냥 쉬는 게 답일까? 이런 때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성이 지쳤으면 본능을 믿어 볼 수밖에.

7월 26일

진짜 빈둥댔다. 집에서

7월 27일

오늘도 집에서 빈둥거렸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쉬고 하니까 그나마 금요일 보다는 괜찮아 졌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지. 민혜쌤께 메일을 보내야 한다. 2주에 한 번씩 보고 하는 건데 쓰고 나서 보내니 정말 착잡해졌다. 벌써 2주가 지나갔는데 난 무엇을 하고 있나!!! 시간만 버렸다. 아쉽다. 내가 논문 계획서 발표 다음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집에서 아무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 나 혼자서 자각하고 오버한다. 논문을 다 써도 후유증은 오래갈 것 같다.

7월 28일

2번째 Verse를 절반정도 나갔다. 만족하지만 그 뒤가 문제다. 그 뒤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직도 민혜쌤은 읽지 않으셨다. 초조해진다. 정말이다. 왜 이렇게 초조하지. 내일은 끝까지 다했으면 좋겠다.

7월 29일

오늘 가사를 전부 완성시켰다. 이제 멜로디만 남았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멜로디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나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이걸 끝내고 나니. 비트만 맞추어 보니 3분 30초 정도 나왔다. 다행이다. 그냥 모두 다 잘 된 것 같아서 좋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짜증이 확 늘어나네. 앞으로 도 잘할 수 있다. 파이팅!!!

7월 30일

마냥 놀았다.

7월 31일

오늘은 아이덱 기자회견 장에 가서 랩을 하였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투스톤이 하였다. 가서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 무반주로 했다. 우리는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감이 잘 안 잡혔다. 그런데 외국 대표들이 지지발언을 하는데 좋은 말을 들었다. 일단은 기분이 좋았다. 좋다고 하니까. 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느낌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나도 내 논문으로 이런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

8월 1일

아침부터 멜로디 작업을 하였으나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잘 되지 않아 짜증이 너무 났다.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자 해서 기분 전환 겸 나갔다 왔다. 그 중간에 엄마와 상담을 했는데 되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 문제를 더 정확히 알아갔다. 그렇다. 나는 공부도 잘 해놓지 않고 건방지게 뛰어든 것이다. 그래서 책 한권을 샀다. 이 책을 보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 할 것이다.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이 결정이 나를 얼마나 뒤처지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다시 괜찮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를 믿자.

8월 2일

책을 읽고 있다. 유익한 내용이 많다. 그 안에 나온 내용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다. 아니, 만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본 따 보았다. 그러니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신기했다. 무언가 감을 잡을 법도 했다. 계속 공부하자 계속 공부.

8월 3일

오늘은 모두의 마이크라는 곳에 가 보았다. 가보니 되게 신기 했다. 어, 되게 신기했다. 뭐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내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자신감은 생겼다.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겨울방학 때는 가서 참여할 수 있다면 꼭 해봐야지.

8월 4일

오늘 그동안 써 놓은 일지들을 옮겨 적었다. 컴퓨터를 보면서 내 다짐들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느꼈던 것이 내가 변명을 조금 많이 써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내가 이런 때 변명을 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앞으로도 잘 해야지. 그리고 책을 본 느낌대로 악기를 찾아봤다. 내가 하려는 컨셉이랑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다. 그 가상악기를 가지고 한번 짧게 만들었다. 되게 좋게 나왔다. 내일은 이걸 바탕으로 완성시켜 봐야지.

8월 5일

어제 만든 것을 비롯해서 만들어 봤다. 좋게 잘 나왔다. 만족스럽다. 이제 랩만 고쳐 쓰면 될 것 같다. 막 느낌이 잡힌다. 잘 될 것 같다. 그냥 기분이 좋다.

8월 6일

오늘 랩을 고쳐 썼다. 이제 곡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좀 늦은 듯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하지 않는가.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이 기분이 좋아서 한껏 취하고 있다. 한동안 못 헤어 나올 것 같다.

8월 7일

마지막으로 음원수정 작업을 했다. 진짜 곡이 완성 되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건 어떡할까. 지금은 한껏 취해있다. 앞으로 한곡 남았다. 으쌰으쌰!!! 힘내자!!!

8월 8일~8월 10일

좋은 기분에 한껏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야 문제를 깨달았다. 그래도 힘내면 잘할 수 있겠지.

8월 11일

어제 큰일 난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해보려 했다. 이번에는 곡의 주제를 잡고 멜로디를 만든 뒤에 랩을 쓰려고 했다. 그래서 주제를 생각 해 보았더니 잘 떠오르지 않는다. 막상 하려는 게 없으니 어떡할까? 그나마 나온 게 내가 집회를 다닌 걸 조금 쓸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열애설이 터진 남자가 되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뒤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 때문에 가려진 것이다 라고 써볼까 한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힌다.

8월 12일

곡의 구상이 잘 잡히지 않는다. 위에 형식으로 이리저리 해 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좋은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안되니 놀기만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건 한 곡을 완성 시켰기 때문이다. 하. 하. 지금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8월 13일

반 나절동안 또 작업을 하다가 때려 쳤다. 놀면서 생각하다보니까 무언가 하나 떠올랐다. 이 논문에 대해서 쓰면 어떨까? 무조건 논문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것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 끌렸다. 내일 또 다시 생각해봐야지.

8월 14일

어제 저렇게 결심했지만 사실 오늘도 생각 없이 놀 뻔했다. 하지만 애들은 막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다고해서 정말 놀랐다. 사실 난 한 게 없기 때문에 다급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만들었다. 이제 랩만 쓰면 된다. 좋게 잘 나왔다. 항상 좋게 잘나온다. 말만 그렇다. 그래서 불안하다. 주제는 논문 그대로다. 랩만 쓰면 된다.

8월 15일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애들과 만나서 놀았다. 서로 무엇을 하는지 공유해보았다. 내가 제일 뒤쳐진 것 같다. 민석이에게 내가 만든 멜로디를 들려주었더니 좋다고 칭찬해주었다. 그게 빈말이든 진심이든 그분은 좋았다.(민석이의 표정은 진심이었지만) 이제 남은 건 랩 쓰기다.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8월 16일

여행 갈 준비를 하느라 쓰지 못했다. 하지만 여행가서 쓸 것이다. 자연에 푸르른 정기를 담아 쓸 수 있으면 좋겠지? 다음 주면 마지막 주다. 마지막까지 아자아자!!!

8월 17일

여행 와서 즐기기 위해서 놀다보니 시간이 없었다. 여행 와서 한다는 게 무리였나? 아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8월 18일

아파버렸다. 몸살이 난 것이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8월 19일

Verse를 하나 만들었다. 몸이 아직 낫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 힘들다. 컬렉 콜록.

8월 20일

또 썼다. 쓰고 또 쓴다. 그래서 조금 나왔다. 더 써야 돼지만 내일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조금 일찍 잔다.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이다. 어찌지?

8월 21일

아! 기분이 좋다. 다시 내 색깔이 찾아왔다. 집에 돌아온 느낌이다. 진짜 기분이 다시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썼더니 진정한 내 플로우와 느낌이 있다. 원래 랩퍼들이 솔로 앨범을 내도 자기 랩핑 스타일은 유지 하는걸 많이 봐왔는데 나도 이제야 다시 한 것이다. 기분 너~무 좋다.

8월 22일

마지막 가사에 후에 아웃트로까지 붙였다. 곡 수정도 했다. 두 번째 곡 완성!! 되게 잘 풀렸다. 스타일도 딱 내 스타일 그대로다. 하늘을 훨훨 나는 것 같다. 기분 짱인 듯. 워!!!

8월 23일~8월 24일

학생회 LT일정을 가지느라 생각을 못 하였다.

8월 25일

선호쌤과 정말 오랜 만에 만났다. 그 동안에 오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 할 것들을 학교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곡도 더 풍부하게 만들 고민도 해야 하고. 할 게 많다. 평가도 받아야 되고. 계획을 짚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8월 26일

오늘은 본문에 집중했다. 본문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마 맞겠지? 모르겠다. 일이 점점 쌓이는 느낌이다.

8월 27일

본문을 쓰고 녹음 계획을 짜 보았다. 녹음도 하고 본문도 쓰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다. 어느덧 보니 수요일이다. 다음 주가 중간발표이다. 막막하다. 중간발표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8월 28일

선호쌤과 만났다. 본문을 정리 받고 녹음 계획을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녹음 계획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잡았다. 중간발표 준비도 얘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온다. 하지만 해야 할 일도 늘었다. 무언가 하기 싫다.. 그래서 묵학 때 녹음 계획을 짜고 본문을 조금 고치다가 나왔다. 무언가 다시 힘들어 진다.

8월 29일

오늘은 논문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안학교 법제화 반대 거리 문화제에서 투스톤 공연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정말 재미있었다. 내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반응이 좋았다. 우리가 서 본 무대 중에서 제일 컷다. 정말 재미있었다.

8월 30일

집에서 논문을 하고 싶었다. 하려고 집에 갔는데 정말 잘 쉬었다. 힙합의 시작만 다른 파일로 복사해 놓았다. 일들이 밀리고 있다. 조금만 더 밀리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만큼은 잘 놀았다.

8월 31일

학교로 돌아왔다.

9월 1일

중간발표를 준비하고 본문을 고쳤다. 본문은 목차를 넣고 기호를 고쳤다. 중간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왔다. 그래서 만들었다. 안타까운 것은 내일 녹음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이다. 본문을 또 고치고 쓰다가 보면 내일도 시간이 없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 녹음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9월 2일

본문을 고치고 선호쌤께도 피드백을 받고 PPT를 고쳤다. 그리고 내일 중간발표를 위해 마음을 다스렸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지만 내일 가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9월 3일

중간발표를 했다.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과연 잘 되었을까? 애매모호하다. 내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9월 4일

오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았다. 가정학습 갈 때 쓰려고 메일 보낸 것 빼고는 한 게 없다. 그래도 무언가 정확되는 느낌(?)은 있었다. 꽤 좋은 하루였다.

9월 5일

집에 왔다. 되게 피곤했다. 차를 놓치느냐 마느냐가 왔다 갔다 해서 정말 힘들었다. 신경을 너무 쏟아 부었다. 오늘도 논문은 한자도 쓰지 못했다. 벌써 며칠째 못 쓰는 건지 모르겠다.

9월 6일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 차에 오래 있으면 힘들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논문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9월 7일

친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자리에서 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사실 쓰기 귀찮았다. 미루다 미루다 여기까지 왔다. 근데 또 미룰 것 같다. 왜 이렇게 쓰기 귀찮고 싫을까. 이건 고질적 문제다.

9월 8일

오늘은 아침 일찍 차를 지내고 외가로 올라오느라 못했다. 어제와 다르게 진짜 쓸 시간이 없었다. 명절 이동차량이 너무 많아서 차도 막히고 이것저것이 있느라 못 썼다. 내일은 꼭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왜일까?

9월 9일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끝까지 안 썼다. 대신 가족간담회를 하고 내 회계 일을 했다. 결국 지금 한 일주

일동안 논문을 안 썼다. 답이 없어져만 가는 것 같다.

9월 10일

입교 날이다. 학교로 돌아오는데 시간을 다 썼다.

9월 11일

선호쌤과 만났다. 중간발표 때 나온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 녹음과 음원을 수정하자고 하셨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머리가 어지러워 진다. 그래도 녹음은 재미있을 것 같다.

9월 12일

음원 수정부터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조금 나왔지만 그것이 마무리였다.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겠다. 주말동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녹음은 언제 하지?

9월 13일

농구 수업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무 구상도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야지만 피해 갈 수 있겠지.

9월 14일

오늘은 덕산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지? 내일은 꼭 해야지.

9월 15일

음원 수정을 더했다. 만행은 마음에 들었지만 통과의례는 어쩌면 잘못 만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9월 16일

녹음을 했다. 만행 1절만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잘 된 것 같기는 하다. 스퍼트를 내야지

9월 17일

만행 2절과 3절을 녹음했다. 하지만 민혜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아 붕괴가 왔었던 것 같다. 머릿속이 아주 어지럽혀 졌다. 기분도 확 다운되어서 무언가 그랬다. 거기다 카페까지 개업하고 있어서 오후에는 녹음을 하지 못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은 없는데 고민만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9월 18일

혹을 고치고 혹까지 녹음하고 여러 효과를 넣어서 점점 완성해 나갔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효과를 넣으면 만행은 끝날 것 같다. 통과의례가 남았다. 다시 머리가 복잡해진다. 잘 할 수 있겠지? 파이팅!!!

9월 19일

오전에 만행을 끝냈다. 모든 편집을 다하고 끝냈다. 나 자신 스스로 만족한다. 오후에는 카페가 시끄러워 녹음을 하지 못했다. 대신 묵학 때 본문을 썼다. 감이 좋게 잘 나가지만 무언가 불안하다. 잘하고 있는 게 맞겠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통과의례를 녹음해야지.

9월 20일

통과의례를 녹음했다. 하루 열심히 하니 아웃트로만 남았다. 잘 되었는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그리고 본문도 썼다. 어제 오늘 논문만 계속 진행시키는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어제, 오늘 오후시간 때는 놀았다. 그게 조금 후회 된다. 하지만 잘 진

행 되었다. 지쳤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힘들긴 하다.

9월 21일

녹음을 끝냈다. 정말 기쁘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끝내고 싶다. 그동안 힘들었기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막 좋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뒤가 찝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없앨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9월 22일

오늘부터 1박2일 동안 학교에서 캠프 같은 게 진행되어 논문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민혜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구성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들었다. 감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9월 23일

선호샘과 녹음한 곡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생각하자면 두 곡 중 한곡은 갈아엎자는 것이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졌다. 곡의 가사는 그대로 두 되 멜로디는 아예 바꾸자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막판에 근접해서 더 스퍼트를 내야 되겠다. 힘든 시간이 되겠다.

9월 24일

곡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 세워 놓았던 방식에서 벗어 날 수는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조금씩 덧붙일 뿐.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계속 앉아 있어도 드는 생각은 힘들다는 것뿐이다. 어영부영 마무리 했다. 더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것들을 붙이면 좋을까? 고민 또 고민이다.

9월 25일

피아노를 추가했다. 곡에 생기가 붙어난 느낌이 들기는 하다. 하지만 더 하지는 못했다. 무엇을 더 넣어야 할지 더 이상 진짜 모르겠다. 녹음을 못한 것과 선호샘을 못 만난 것이 아쉽다. 시간은 하루하루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어렵다. 무엇 하나 끝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9월 26일

녹음은 했다. 녹음은 했지만 선호샘은 못 만났다. 대신 민혜샘을 만날 수 있었다. 구성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듬악보(?)를 설명해 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려운 것 같았다. 하지만 해보니 별거 아니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일은 가을축제다. 앞으로 주말동안은 못할 것 같다.

9월 27일

민혜샘께 조금 한 것을 보여드렸다. 대충 맞게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 뒤에, 음악제 뒤에 하기로 했다. 그냥 그랬다.

9월 28일

놀았다.

9월 29일

조금 고친 뒤 선호샘을 만났다. 선호샘이 들으시고는 내가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 맞다. 나는 부담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이제 평가를 받기로 했다. 평가가 나에게 제일 큰 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에만 몰두해야 되겠다. 그리고 곡은 몇 번 더 고쳤

다.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걸로 가야지.

9월 30일

마지막으로 고치고 선호쌤께 보내고 세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 연락이 아니네. 그냥 해보려고 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10월 1일

오늘 평가를 받고 다녔다. 그리고 세 남자와 연락이 되었다. 해주신다고 한다. 정말 좋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 하지 못해서 3명밖에 하지 못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세 남자와 연락 후 보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오늘 삼간디 음악제를 하였다. 정말 멋진 무대였다. 완전 재미있었다.

10월 2일

오늘도 평가를 받았다. 4명 더 받았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리고 세남자에게 보냈다. 다음 주까지는 오겠지. 제출 전에만 오면 참 좋을 텐데.

10월 3일

오늘은 악보 작업에 들어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짜증이 났다. 힘든 작업이 될 것 같다.

10월 4일

만행 악보작업을 내 선에서 끝냈다. 이제 민혜쌤과 이야기를 한 뒤에 끝내야 된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냈다.

10월 5일

통과의례 악보를 작업했다. 그러다 한비의 녹음을 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무책임 하지만 방법만 알려주고 나는 나왔다. 오늘도 악보작업만 주구장창 했다. 하지만 중간 중간 계속 놀았기에 나는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돌아보면 여유를 가지는 주말이었다.

10월 6일

민혜쌤과 만행 악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냈다. 그리고 내가 구성 설명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들었다. 평가도 2명 정도 받았다. 내일 모레가 제출인데 나는 과연 그 때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노력을 하자 노력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과의례를 진행 중이다.

10월 7일

통과의례 악보를 작업했고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챕터들을 각각 정리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갈 길이 남았다. 내일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월 8일

제출일이다. 본문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인다. 오늘은 평가를 쌤들 세 분을 받았다. 그리고 세남자에게서 조언이 도착했다. 하지만 리듬악보는 결국 다 만들지 못했다. 그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이 정도 한 것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만족하기도 한다. 이제 발표가 남았다. 발표까지 잘 끝냈으면 좋겠다.

10월 9일

어제 결국 다 써서 냈다. 하지만 악보는 넣지 못했다. 발표를 끝낸 뒤에 넣어야 되겠다. 집에 왔다. 가정 학습 때문이다. 발표 PPT와 대본과 요약본이 남았다. 하지만 오늘은 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하다 끝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일지만 본문에 넣었지만 논문이 끝날 때 까지는 쓸 것이다. 그리고 된다면 그 때까지 일지를 넣고 싶다.

10월 10일

요점을 정리해나가고 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한 곳 까지 PPT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옷을 사러 나갔다. 저녁부터는 다시 요점을 정리했다. 하지만 집에서 편히 자고 싶어서 조금 일찍 자려한다. 내일까지 끝내야 된다. 그 뒤에는 시간이 없다.

10월 11일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끝맺지 못했다.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아빠가 조언을 해주었다. 발표를 어떻게 할지 알려 주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달려야 되겠다.

10월 12일

새벽 6시까지 달렸다. 사실은 4시 30분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1시간 30분 동안 놀았다. 요약본도 다 만들었지만 한 장이 넘어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9시에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학교로 왔다. 민혜쌤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꾸역꾸역 넣었다. 내일은 리허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은 발표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10월 13일

리허설을 했다. 고칠 점은 있지만 별로 고치기 싫다. 내일은 발표다.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장이 된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10월 14일

발표를 했다. 잘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다. 당황했다. 하지만 오전에 일찍 끝나서 마음이 홀가분했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10월 15일

친구들의 발표까지 끝냈다. 결과발표가 남았다. 내일 나오겠지? 정말 긴장된다.

10월 16일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한다. 떨리고 긴장된다. 논문파티를 즐겼다. 완전 재미있었다. 그리고 긴장된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긴장이 너무 된다.

10월 17일

결과가 나왔다. 1차란다. 너무 기쁘다. 믿기지가 않는다.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고 기쁘다. 이제 뭐하지? 갑자기 무기력증이 온다. 하지만 너무 기쁘다. 논문일지는 여기서 끝이다. 길고긴 여정이었다. 앞으로 할 일이 조금 더 남았지만 통과 했다. 처음 시작 했을 때부터 약 6개월. 너무 긴 스트레스의 시간이었다. 정말 좋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벌써 2014년 말이다. 2달만 지나면 곧 2015년이다. 감격이 너무 넘친다. 정말 좋다 진짜 진짜 좋다. 고생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논문일지도 여기서 끝이다. 나중에 이 논문일지를 보면 감회가 새롭겠다. 정말 좋지만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3. 참고자료

참고문헌

How to Rap-폴 에드워드 저, 최경은 옮김-한즈미디어 출판

한국힙합-김영대의 5명 저-한울 출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K-pop 작곡&프로듀서-이근우 저-책미래 출판

참고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힙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075&cid=40942&categoryId=33044>

다음백과사전「랩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6r0055n11>

네이버 지식백과(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압운(rhym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9392&cid=47319&categoryId=47319>

네이버 지식백과(대중문화사전)「디제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20&cid=50293&categoryId=50293>

네이버 지식백과(대중문화사전)「디제이 [DJ]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19&cid=42028&categoryId=42028>

위키백과「브레이크 댄스

<http://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C%9D%B4%ED%81%AC%EB%8C%84%EC%8A%A4>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그래피티 아트 [graffiti ar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764&cid=40942&categoryId=33050>

위키백과「대한민국의 힙합」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E%99%ED%95%A9

4. 본질적 문제(리듬악보)

만행 리듬표기 4/4

♩=95

그 리듬표기기는 좀 괜찮아 이부 리듬감이 항상 들어오지만 말야 험드

처지 않나 고칠어 보자마자 인나 디고 걱정이라고 얘기하셔도 표정

들은 한 번 험드셔도 분위기가 좋게만 드셔 심각하게 알아서 반

대판의 사실은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 그 위에서 즐기시던 행복

그 결백이 간지야 땀 흘려서 지금에 내가 들은 바로는 좋전함

백일변하리니 신장늘 이 걸목 걸게만 다나고 그 많은 인원이 다 올라가 모든분

들어 미끄러지 버티지는 못하오네 제 몇분이야 나 이드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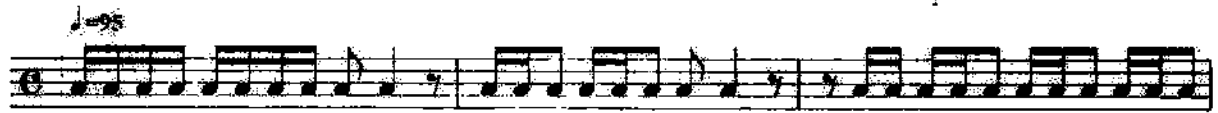
들이 대부 분이야 머릿 수로 상대해도 다 이기잖아 이디그

뿐이 이 이 것만 고쳐있잖아 언네 뭐봐 마인권적인 행동에 어프

2014 세진중학교 교내 음악콩쿨제

만행 리듬표기기는 좀 괜찮아 이부 리듬감이 항상 들어오지만 말야 험드

통과의례 리듬표기 4/4



나는 사실 그리 생각했어 내가 민숙을 못하면 안된다는 것 하지만 만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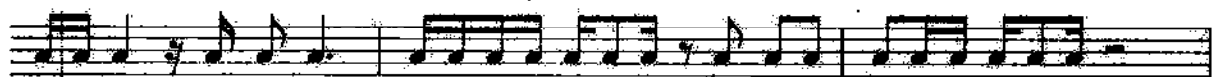
를 할 기에는 내 코가 찢어지 너무 배부른 소리를 지껄여 이



제 날까지 인정시키는 게 편적이 세 번 이 랩도 쉽게 배우기 위한 것



이래 놓고 다중에 눈우직지아주면 신이겠니 고 내 팔 하나 하나가 부기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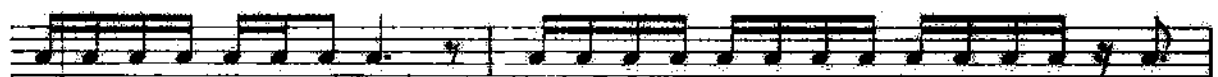
나오면 험듬어 사실이 작심위도 못해봐 긴장판가득해,



끝이 완장감을 피려치 힘잡을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위 어 보 안 다 고 생각 했 는 데



위 어 보 이 기 는 개 쫓 내 가 놓 인 곳 은 망 망 대 해 해 쫓 뵈



앞 해 보 이 는 길 그 날 맥 이 아 난 진 맥 기 기 적 난 험겨운 싸움을 열 권

2014 개심간니학교 논문작품 박지담

보이는 것 것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개월이 차는 길은 만물 어가느
 라고 조금 빈 것 알 뿐인데 아까임
 3
 뒤 것도 길을 조금 넘어 보려는
 속셈 머리 속에 시는 속셈
 하며 짐을 지는 수 세 물아치는 꿈
 적의 수 세에 몰렸네 그
 자리 는 너무 힘 해 보이
 기 참 부 터 앞 서 네 앞 길 의 너
 무 겁 김 에 한 치 앞 아 안 보이
 ; 뿌 연 미 래 아 니 성 공 할 거 야
 설 패의 무덤 밑에서 만세
 삼칠년에 신방 한 번 동여
 내 고 정 신 한 번 차 리 고
 무 지 게 밧 에 걸 림 걸 이 걸 기 아
 의 의 사 두 실 이 인 이 서 간 을 팔 리
 통 과 했 으 면 해 통 과 했 으 면 해
 서 간 은 부 담 이 돼 어
 깨 를 잊 놓 리 서 거 용 에 미 지 는
 내 모습 은 너 무 초 켜 해
 3
 우리 의 모 든 바 램 은 일 자 는 뒤
 종 으 니 팔 리 끝 나 길 바 라 너 무
 환 환 예 보이 는 설 서 만 생 기
 하 면 적 은 밤 이 호 른 다 축

작전 개장 부름 식칼 아 조금 휘어 그 다음에 몸을 켜 쳐 들고 다시 앞

뒤를 쳐 휘 눈 어긋 풀 어 든 잡 주 나 헛이 든 내 취 해 갈은 현 채 든 바 취

뒤 그 밤 이 실 음 불 키 야 나 열 심 히 나 악 음 기 기 에 붙 어 있잖 아 작 자 의 발 방 을

이 게 증 밍 해 주 겠 지 그 랑 밍 구 우 름 따 라 또 작 기 앞 을 해 처 나 가 겠

작 나 는 구 구 든 허 드 라 예 뵈 의 되 이 내 것 에 감 을 빨 어 드 나 는 가 억 해 이 건

원 들 다 잘 까 나 미 루 따 미 루 미 개 소 음 을 버 리 라 락 치 킬 기 드 라 기 드 라

이 상 태 가 작 란 이 그 래 도 세 사 망 겠 지 무 지 게 켜 에

갈 을 건 이 고 기 라 고 위 바 람 주 에 서 는 랑 상 위 생 태 (바 람 주 에 서 는 랑 상 위 생 태)

내 가 이 랑 게 신 경 쓰 는 이 유 는 (내 가 이 랑 게 신 경 쓰 는 이 유 들)

이 집 지 상 랑 켜 켜 (이 집 지 켜 켜 랑 켜 켜) 또 생 각 만 하 다 참 을 겠 지 (또

생 각 만 하 다 참 을 겠 지)



5. 고맙습니다.

선호쌤!!!! 녹음 기계를 많이 빌려주시고 빨간비디오 컴퓨터도 쓰게 해주시고 내가 연락 안 드려도 기다려 주시고, 나 혼자 막 나가도 그냥 지켜봐 주셨음. 그리고 막힐 때 앞길을 찾아 주심. 여러 도움을 내가 요청해도 다 해주시는 민혜쌤!!!! 내가 거의 해달라는 식으로 붙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주심. 녹음 한다고 조용히 해준 민석이와 동현이.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빨간비디오실을 찾아 주었던 간디인들. 평가를 열심히 답해 주신 분들. (술래, 내토, 민혜쌤, 아름쌤, 필쌤, 정호쌤, 미리쌤, 종명쌤, 효원이, 한비, 다연누나, 지형이형, 한결이, 성현이, 영학이).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 곧 가족. 내가 논문을 쓰든지 말든지 해도 심한 압박 없이 기다려 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논문 쓰느라 고생한 콩자반과 민혜쌤과 더불어 같이 부담 가지신 상현쌤. 그리고 논문을 쓰는 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준 삼간디 음악제, 대안교육 법제화 반대 거리 문화제 광화문 공연등 여러 공연. 내 가사를 맘껏 적을 수 있도록 해준 내 가사집등등 내게 모든 도움을 주셨던 분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천간디학교의 환경파괴 문제성을 담은 영상 만들기

지도교사: 김정환



이름: 신동헌

생년월일: 1999년 12월 5일

혈액형: B

좋아하는 계절: 다 좋아함.

좋아하는 거: 눈, 이불, 늦은 밤

싫어하는 거: 의자나 책상, 문짝 같은 곳에 발가락 치이는 거

한줄후기:

논문 BBB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 1) 참고서적
 - 2) 취재와 인터뷰
 - 3) 영상 및 사진
 - 4) 참고 사이트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Thanks To
3. 부록
 - 1) 작업일지
 - 2) 평가지
 - 3) 포스터

II. 본론

1. 환경파괴의 심각성
 - 1) 환경파괴가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
 - 2) 일상 속의 환경파괴
 - 3)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파괴의 종류
 - (1) 낭비되는 물
 - (2) 한번 쓰고 마는 종이
 - (3) 생길 수밖에 없는 쓰레기
2. 간디학교에서의 환경파괴
 - 1) 간디학교에서 낭비되는 물
 - 2) 간디학교에서 낭비되는 종이
 - 3) 간디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3. 환경파괴 영상 만들기
 - 1) 내가 참고 한 영상들
 - 2) 영상의 바탕
 - 3) 밑바탕이 될 콘티 짜기
 - (1) 콘티
 - 4) 영상 만들기
 - (1) 영상제작준비물
 - 5) 영상 평가
 - (1) 제천간디학생 평가
 - (2) 전문가 평가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가끔 바닥을 볼 때면 이런 생각들이 들곤 했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무단투기? 아니면 바람을 타고 날아온 건가?’ 처음 내 논문은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시작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되는 물과 종이의 환경파괴도 다뤄보자 했다. 그런데 문득 사람들은 환경파괴가 지구에 안 좋다는 것을 알음에도 환경파괴를 줄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경에 나쁜지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고쳐지지 않을까? 깊게 생각해보니 내가 저지르는 환경파괴가 지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밖에, 그렇다면 환경파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사람들은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생각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 논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 논문의 목적

없어지는 종이, 오염됨과 동시에 낭비되는 물, 쓸데없이 많아져 매장되고 태워지고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문제성을 알고 그 문제성을 담은 광고와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사람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품 논문입니다.

1) 참고서적

- (1) 물건이야기(The Story Of Stuff)
- (2) 종이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
- (3) 작은 것이 아름답다-2012 08, 2014 04
- (4) 함께 사는 길-2013 01~04, 2013 07~12, 2014 01~03, 2014 05~08
- (5) 환경가계부-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습관
- (6) 종이로 사라지는 숲이야기
- (7) 제 3세계의 환경파괴 실태와 해결방안 고찰pptx-레포트샵

2) 취재와 인터뷰

- (1) 덕산 환경담당-정이택

3) 영상 및 사진

- (1) 지식채널e
- (2) kbs 환경스페셜
- (3) 에린 브로코비치
- (4) 프라미스트 랜드
- (5) 나무
- (6)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 (7)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 (8) Stop Torturing Our Aquatic Life

- (9) Gray will be Green
- (10) 당신은 이 광고를 보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11) 물은 말한다.
- (12) [레이드] 환경사랑
- (13)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
- (14) 밀양 아리랑

4) 참고 사이트

- (1) 쓰레기 수거 현황-서울 통계
- (2) 물사랑
- (3) 위키 백과
- (4) 네이버 지식백과

5) 기타

- (1) 복사지 사용 기록부

II. 본론

1. 환경파괴의 심각성

1) 환경파괴가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

33% 이 숫자는 1977~2007년 사이 없어진 천연 산림의 양이다. 80% 현재 없어진 지구의 천연 산림이다. 산림 (숲) 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들은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나무와 식물들이 없어져 채식동물은 먹고 살 수 없으며 나무가 없는 숲에서 육식동물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진다. 결국 채식동물은 멸종되고 육식동물 또한 먹을 게 없어져 멸종하게 된다. 그 중 인간 또한 멸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또한 동물이고 먹을 것에 의존하는 잡식 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 또한 멸종될 것 이다.

책 [The Story Of Stuff] 의 저자 '애니 레너드' 의 말에 따르자면 현재 우리에게 지구는 3~5개나 더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지금 또한 엄청난 속도로 환경파괴 중이니까 말이다. 무슨 말이나면 우리가 환경파괴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현재 자원 보다 3~5배가 더 필요하단 말이다.

현재 지구의 상황을 보자면 이스터 섬과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터 섬에는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원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부를 상징하는 건축물 (모아이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여왔다가 결국 자원이 없어져 섬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들판이 되어 버렸고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돼버렸다. 이스터 섬은 지구와 많이 유사하다.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여러 자원이 존재하는 작은 육지였다. 지구 또한 이스터 섬을 확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지구는 훨씬 더 안 좋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선 다이옥신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해로운 인공물질) 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선 공기와 대기권을 해치고 있다 또한 석유나 석탄, 광석 등 제한적인 지구의 자원을 써대다가 하면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물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바다에는 수많은 쓰레기와 유해물질들이 버려지고 있고 강은 댐의 건설로 인해 수많은 녹조가 생겨 사람이 마실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무 또한 예외도 아니다. 나무는 자라려면 평균 30년정도 소모 되는데 나무를 베는 데엔 하루, 아니 1시간이면 충분하다. 심지어 적당한 양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아닌 큰 나라의 수도를 없애버리는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하루 빨리 베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파괴의 요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오로지 새 것을 추구하고 헌 것은 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환경파괴를 줄이는 습관은 불끄기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게 해하는 양은 이 정도다. 이정도면 환경파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 일상 속의 환경파괴

일상 속에서 줄여야 할 환경파괴는 무엇이 있을까? 물, 종이, 쓰레기 나는 이 3가지를 뽑아 보았다. 왜 하필 이 3가지인가? 분명 전기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다. 처음에는 물, 종이, 쓰레기, 전기로 논문을 쓰려 했지만 자료를 모으는 도중 산업용전기가 가정용전기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제를 알고 산업용전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질 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낭비되는 전기를 줄여도 산업용전기의 사용률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전기는 내 논문에서 다루지 않게 되었다.

제한적인 물자들 또한 내 논문에서 빠졌다. 제한적인 물자들은 석탄이나 석유, 철이나 금 등이 있다. 내 논문에서 제한적인 물자들이 빠진 이유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었다.

물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무얼 하든 낭비되는 것은 물이다. 물을 안마시고 살 수 있는가? 샤워 또한 안 할 수 있는가?, 물이 없으면 환경파괴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왜 하필 물이 있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산다고 할까? 그만큼 물이라는 자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것이다.

종이를 선택한 이유는 내 주변에 언제나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논문을 쓸 때도, 시나리오를 쓸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종이 (티켓) 가 필요하니 말이다. 또한 종이는 나무로만 들어지고 나무가 베어지면 우리가 숨 쉬며 내뿜는 공기들이 순환되지 않아 탁해지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얼 하든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밥을 남길 때 옷을 살 때 대자보를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생기는 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선택한 것이다.

3) 일상 속에 일어나는 환경파괴의 종류

(1) 낭비되는 물

물은 알고 보면 무척이나 광범위한 환경파괴다. 물이 많이 낭비 된다고 그냥 물 사용만 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물건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수많은 양의 물이 소비 된다.

이 개념을 가상수라고 하는데 가상수란 ‘보이지 않는 물’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든다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97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 970리터의 물을 가상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177L¹⁾ 인데 이 수치는 독일(151L)과 덴마크(114L)를 뛰어넘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무리 샤워시간을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며 수돗물만 사용한다 해도 티셔츠를 사는 순간 이미 약 5일간의 물 사용을 한 셈인 것이다. 티셔츠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 한잔을 만들기 위해 130L의 물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구의 반 이상이 물로 뒤덮여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5%가 짙물이고 나머지 2.5%의 단물은 빙하상태로 얼려있거나 깊은 지하 대수층에 있어 사용하기 어렵다²⁾.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물을 사용하는 것과 동시엔 수많은 에너지가 소모 된다. 우리가 따뜻하게 씻기 위해 필요한 온수는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물 1톤 당 약 3500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돗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원수를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 정화과정에서 수많은 전기가 소모 된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 뿐 만이 아닌 전기 또한 낭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줄이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물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인터넷을 통하여 절수기³⁾를 구매하거나 (설치한다거나) 티셔츠를 재활용 하는 것도 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물을 내두자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 (수돗물, 식수) 또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니 말이다.

1) 2013년 기록에 의하면 덴마크(114L)와 독일(151L)을 넘은 수치인 177L가 한국사람 하루 평균 물 사용량으로 조회되었다-함께 사는 길

2) 애니 레너드『물건이야기』P.51

3) 절수기-물을 아끼기 위한 장치

(2) 한번 쓰고 마는 종이

어느 아마존 지역에선 1분에 축구장 7개 규모의 산림이 없어진다고 한다. 축구장 한 개의 규격은 약 길이 110M 너비 75M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이다. 나무는 자라는데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축구장 7개 규모의 산림을 없애는 데엔 1분이면 충분하다.

신문지 또한 문제다. 신문지를 사는 것은 그 신문사에게 후원금을 주는 의미도 되지만 하루에 생산되고 있는 신문지 양의 종이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양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신문사는 종이를 다시 활용해 만든 재생종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미지가 좋게 보이겠지만 재생종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쓰레기가 가득 찬 쓰레기를 꺼내 본다면 종이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⁴⁾ 얼마나 많을까? 2008년 제지공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연간 국내 1인당 종이 소비량은 179kg이라고 한다. 복사용지로 따진다면 35,800장으로 하루에 98장의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셈이다. 종이 1kg을 만들기 위해선 목재 2.2킬로그램이 소비된다.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종이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계산했을 경우 393.8kg의 목재를 사용하는 셈이다. 무거워 들 수도 없는 이 많은 양을 우리는 어느새 소비하고 있었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 종이를 만드는 데에는 나무뿐만이 아닌 에너지 (전기) 와 물 또한 사용되니까 말이다.

(3) 생길 수밖에 없는 쓰레기

2012년 대한민국 하루 평균 배출되는 쓰레기는 8,010.6톤 이다.⁵⁾ 또한 이것 말고도 분명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위 통계자료 말대로라면 하루 약 8000톤이 배출되고 8000톤이 처리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8000톤은 어떻게 처리 될까? 대부분 매장되고 태워지고 바다로 버려진다.

특히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가 되면 무척이나 안 좋은데, 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아서 없어지긴 커녕 부패되어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 그런 플라스틱조각들은 물고기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곤 한다. 생각해 보자, 먹이사슬의 최상위는 누군가? 바로 우리가.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인공물질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가 매장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땅이 였다면 그 많은 쓰레기를 반겨줄 수 있을까?

게다가 쓰레기가 태워지면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 중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 있는데 그 유해물질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유해한 인공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은 공기 중에 떠돌게 된다. 또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야 말로 진정한 물 오염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까? 아니다. 처리가 아닌 우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물건을 살 때 비닐봉투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 다 손으로 들고 온다. 이런 작은 노력 또한 지구를 살린다.

쓰레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이었지만 이제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면 자신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올지 조금이라도 생각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일상은 언젠가 소비 없는 일상으로 바뀔 것 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만큼 심각하진 않더라도 그 심각성은 문제 삼을 만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70% 이상이 해양 투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이도 1970년에 폐기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을 해양투기 하지 말자는 런던 협약이 발효되고 한국은 1992년 런던협약에 가입을 해 1994년부터 한국은 가입국으로서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알고 보면 음식물쓰레기 또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1991년 런던협약 제14차 당사국회의에서 협약의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3년에 일부 개정을 거친 후 1996년에 새로운 의정서가 채택되었다('96 의정서). 개정된 '96의정서는 투기금지물질의 명시방법(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투기허용품목의 명시방법(Positive Listing System)로 전환하였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바다의 범위를 내해로까지 확장시켰다.⁶⁾ 내해는 육지에 둘러싸여 있고 해

4) 『종이로 사라지는 숲이야기』맨디 하기스

5) 쓰레기 수거 현황-서울 통계-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374

6) [네이버 지식백과]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협을 통하여 공해⁷⁾로 이어지는 바다를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쓰레기는 계속 해양투기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바다로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로 쓰이거나 퇴비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시켜 펠릿이라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펠릿은 석탄의 70%가 되는 화력을 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펠릿으로 만드는 신기술에너지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 음식물쓰레기가 해양투기가 될 필요도 없고 석유나 석탄 등 여러 가지 자원 고갈문제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또한 요즘은 소수의 아파트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게를 재고 그 무게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어떤 식당에선 반찬을 뷔페식으로 해 놓고선 남은 반찬은 어르신들의 반찬으로 활용하거나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는 시스템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3. 간디학교에서의 환경파괴

1) 간디학교에서 낭비되는 물

나는 간디학교에서 물과 관련된 환경파괴가 가장 심각하다 느꼈다. 공동체라 그런지 제천간디학교에서 물이 사용되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 밥을 먹고선 꼭 해야 하는 설거지의 물 사용량을 알아보자 했다.

하지만 그전에 나는 제천간디학교의 설거지 역사를 알아보았다.

맨 처음 제천간디학교가 중등과정 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시절, 인원수가 적었고 학교 시설이 좋지 않아 식당당번 2~3명이 모든 교사, 학생의 설거지를 했어야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학교 시스템이 발전 되고 인원수가 많아지자 개인이 개인의 설거지를 물을 틀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 되었다. 하지만 물 낭비가 심하다는 의견에 물을 받아 놓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불편함과 위생에 관한 문제가 되어 현재의 방식 (물을 틀어 놓고 설거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사를 알려주신 필썸에게 질문을 드렸다.

Q. 물낭비가 심한 현재의 방식, 위생적이지 못한 예전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나요?

A. 지금까지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했는데 불만 없이 살았으니까 지금이 좋은 것 같다. 오히려 물낭비가 심하니 위생적인 점을 가만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이지 못하니 물낭비를 가만하자 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친 후 현재의 설거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설거지는 총 2번 틀어지는데 음식물을 행굴 때와 세제를 행굴 때로 나뉜다. 그렇다면 음식물을 잘 긁어 내기만 한다면 위생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물을 아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 방법은 3개의 제시어에 따라 3개의 설거지를 하는 것.

실험 대상은 신동헌을 포함한 3명이고 제시어는 이렇게 된다.

(L = kg 이기 때문에 저울을 이용하여 물 양을 측정 하였다.)

1. 평소대로 설거지를 해주세요.

2. 음식물을 싹싹 긁어 낸 다음 행구지 말고 바로 세제로 닦아주세요.

3. 아끼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설거지를 해주세요.

7) [네이버 지식백과] 공해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결과

단위 : L	평	1차 행굼 NO	아끼자!	2번 째 제시어 위생문제 판단
실험자 1	5 L	3.65 L	2.5 L	약간
실험자 2	3.9 L	2.2 L	3.1 L	위생문제 없음
실험자 3	4.6 L	2.5 L	2.7 L	약간
평균	4.5 L	2.78 L	2.76 L	

하루 120명의 간디인이 4.5의 물을 가지고 매번 설거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우리가 설거지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1620L (1.62톤) 이다. 1년, (365일간 하루 1620L의 물을 설거지로 사용한다 했을 때, 1년 설거지로 사용되는 물의 양은 591300L (591.3톤) 이다.

표를 봤을 때 놀라운 것은 아끼자! 라는 마음가짐만으로도 평소보다 약 2L의 물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번 째 제시어대로 설거지를 했을 때 약 2L의 물을 아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2분이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약간 있다고 의견을 내주셨다.

(우리가 아끼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1년간 설거지를 했을 때, 1년 설거지로 낭비되는 물은 362664L=362.6톤이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물을 줄이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 말고도 사람들에게 동기 (물을 아껴야 할 이유) 를 부여해주는 것이 위생에 관한 문제도 적으며 물도 줄일 수 있기에 좋다고 판단되었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한 ‘잔반을 긁어내어 물로 음식물을 행구어 내지 않고 바로 세제로 설거지를 하는 방식’ 보다는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2) 간디학교에서 낭비되는 종이

간디학교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종이를 사용할까?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설문지를 돌리기 위해서, 발표문을 읽기 위해서. 대본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위해서, 마니포를 해주기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 혼자만으로도 연간 종이소비량이 엄청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닌 간디학생이 열 만큼의 종이를 사용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를 알기 위해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살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사람들이 열 만큼의 종이를 소비하고 누가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누가 사용한지 알면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왜 종이를 소비했는지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하지만 CC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 방법은 ‘복사지 사용 기록부’ 다. 처음에는 복사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이유로?’ 복사지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귀찮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과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난으로 많이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내 생각을 반영해 ‘복사지 사용 기록부’ 에 ‘이름, 얼마나, 어떤 이유로?’ 를 모두 적는다면 쓴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형식을 도입하였다. 다행히도 복사지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복사지 사용 기록부’ 를 적어 주었던 것 같다. (선물은 -)

안녕하세요. 저는 '간디학교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의 문제성을 담은 영상 만들기' 로 논문을 쓰는 신동헌 입니다. 제가 다름 아니게 이런 복사지 사용 기록부를 만든 것은 간디학교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종이를 사용할까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지만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봅니다.

혹시나 기록부에 이름이 적히는 게 싫으신 분은 이름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름을 적으라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이름이 논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부에 이름을 적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3분께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대박 좋은 거임) 그럼 기록부 열심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얼마나? 를 적을 땐 복사에 실패한 양도 합해 적어주세요!

조사결과 : 논문이라는 이유로 종이는 설문지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자료가 많았고 학생자치활동과 기타활동이 가장 낮은 종이 사용률을 보여주었다.

밑에 있는 표는 논문이 종이 사용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논문 때문에 복사용지를 사용한 사람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기타 보다 적었기 에도 불구하고 3~4배나 되는 종이를 사용했다.

(단위 : 장)

용도	횟수	낭비된 종이의 수
논문	7	238
수업	8	68
학생자치활동	6	48
기타	8	58
총	34	412

조사를 해보니 412장의 종이가 10일간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논문 때문에 종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양은 무게 2kg으로 나무 4.4kg을 사용한 것이다. 나무 한 그루당 30kg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4~5일간 나무 한그루를 사용하고 있었다. 1년에는 63그루 정도의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종이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일단 인쇄에 관한 문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1쪽으로 줄일 수 있는 종이도 2쪽으로 인쇄하곤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양면복사가 아닌 '여백 줄이기' 다. 마우스 커서를 한글과컴퓨터의 자모양에 놓으면은 '여백' 을 늘리기도 줄일 수도 있다.



(모래시계 모양의 가운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위치)

여백' 이라고 뜬다. 끌어서 늘리면 종이를 아낄 수 있다. 다만 들여쓰기를 했을 경우 모래시계 모양이 일그러진다.)

설문지 또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간디학교에서 설문지를 돌린다 하면 60장에서 120장 정도의 종이가 낭비된다. 하지만 대자보나 피켓 등을 이용해 스티커설문문을 한다면 종이를 무척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복사지 사용 기록부

순번	날짜	이름	어떤 이유로?	얼마나?
1	10월 5일	신동현	논문 설문지를 돌리기 위하여	A4-48장
2	10/6	이연희	서단교로 회계	A4-2장
3	10/6	신동현	3학년 논문 수업	A4 10장 정도 ?
4	10/6	정혜	타인의 일찌기 수업	10장
5	10/6	이연희	논문발행권	32장 A4
6	10/6	하정호	논문	32장 A4
7	10/6	이연희	논문발행권	10
8	"	이시호	논문발행권	130장 500장 30장
9	10/7	이연희	논문발행권	100장
10	10/7	민서	수업 자료 복사	14장 ?
11	10/7	정혜	"	6
12	10/7	민서	법무부 간담회 기록	1장
13	10/7	이연희	간담회 주관서	10장
14	10/7	소은	음식물 쓰레기	A4 5장
15		정혜	신문학 카드	2장
16		정혜	신문학 카드	100장 242장
17	10/7	정혜	논문	A4 22장
18	10/8	수지	수업자료	A4 18장 양면
19	10/8	정혜	자료 정리	A4 20장 양면
20	10/8	소은	음식물 쓰레기	5장
21	10/8	정혜	타인과의 회계	1장 A4
22	10/11	이연희	논문발행권	100장 242장 ?
23	"	이연희	논문발행권	A4 2장
24	10/13	이연희	논문발행권	200장 ?
25	10/13	이연희	논문	A4 2장
26	10/13	박상현	논문발행권 학생 평가지	A4 양면 200장
27	10/15	정혜	논문발행권	10장
28	10/16	정혜	논문	12장
29	10/16	소정호	수업	6
30	10/16	정혜	논문 복사	8장
31	10/16	정혜	논문발행권	4장
32	10/17	정혜	수업	7장
33	10/17	정혜	자료와 보령 학교	2장
34	10/18	정혜	논문	9장
35	10/20	정혜	법제화 아래로	5장
36				

3) 간디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첫 번째로 우리학교는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학교계단 앞 분리수거장의 일반쓰레기 봉투 2개를 풀어 종류별로 분리수거 해보았다.

쓰레기 1차 분리

학교 계단 앞 분리수거장에서 가득 찬 일반쓰레기봉투를 카페 (장미다방) 구석으로 가져와 풀어놓고 첫 번째 쓰레기 분리를 해 보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게를 재지는 못하였다.

시기 : 2014-10-03

분리 : 종이, 비닐, 플라스틱, 나무, 전선 & 철, 유리, 천,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기 힘든 자잘한 쓰레기

종류	사진	순위 (양)	문제	기타
종이		2	아주 많은 종이가 재활용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 태워질 뻔하였다. 심지어 recycle(재활용)이라고 써져 있는 쇼핑백마저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었다.	
비닐		3	비닐이 재활용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자잘한 비닐 또한 너무 많아 분리수거 하기가 까다로웠다.
플라스틱		5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풀통이나 화장품은 안에 들어 있는 크림이나 풀 때문에 일반에 버려야 하나 재활용을 해야 하나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였다. (재활용 하는 것이 맞다)	
나무		6	無	無
전선 & 철		8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無
유리		9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無
천		7	無	無
음식물 쓰레기		4	無	無

분리하기 힘든 자잘한 쓰레기		1	無	휴지를 따로 분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대부분이 분리수거 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쓰레기만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보았더니 꼭 찼던 쓰레기봉투가 1/2 정도나 되는 공간의 여유가 생겼다. 아쉽다 한 점은 2차 때 보다 좀 더 섬세하게 분리하지 못하였고 무게 또한 재지 못하여 타인이 볼 때 어느 정도의 양이 분리됐는지 보여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쓰레기 2차 분리

이번 또한 가득 찬 일반쓰레기 봉투를 학교 분리수거장에 푼 다음 분리해 보았다.

시기 : 2014-10-06 (쓰레기 1차 분리 후 3일 경과)

분리 : 종이, 휴지, 플라스틱, 천, 비닐, 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기 힘든 자잘한 쓰레기

종류	사진	무게	문제	기타
종이		537g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은 종이의 양 만 해도 500g이 넘는 다는 것이다.	無
휴지		208g	사용되지 않은 휴대용 휴지가 있었다.	無
비닐		174g	비닐이 재활용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봉투에 들어간다는 점	많은 사람들 비닐이 재활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플라스틱		43g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비닐을 확인함 문제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반봉투로 버려졌다는 것이다.	無
천		30g	無	無
철		93g	건전지, 멀쩡한 젓가락, 부서진 기계부품들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함

음식물 쓰레기		495g	無	음식물이 상하여 구더기가 생겼다

그 외로 분리가 까다로운 자잘한 쓰레기와 분리 했던 휴지, 천, 음식물쓰레기를 합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보았을 때 꼭 찼었던 쓰레기봉투가 1/3 정도가 되는 공간의 여유가 생겼다.

총 두 번의 쓰레기를 분리해보았을 때 일반쓰레기 중 가장 많았던 쓰레기는 테이프였다.

테이프는 박스, 플라스틱, 유리, 비닐 등 많은 쓰레기와 함께 있었고 일반쓰레기 중 30~50%는 차지하는 듯 했다. 휴지 또한 쓰레기의 50%는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탕포장지 같은 자잘한 비닐들이 차지했다.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쓰레기는 대표적으로 비닐과 종이로 그 밑으로 플라스틱, 철등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았다.)

2번째로는 각 교실에는 어떤 쓰레기가 있을까? 이다. 교실마다 특색이 있듯이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 속 쓰레기의 종류들도 달랐다.

각 교실의 쓰레기	
옷만들기실	종이, 비닐, 천, 철
식당	휴지, 플라스틱, 비닐
살림터	휴지, 종이, 비닐, 실
양호실	종이, 비닐
도서관	종이, 비닐
비누공장	휴지, 비닐
카페 (장미다방)	휴지, 종이, 비닐
암실	종이, 비닐
빵아저씨실	비닐, 박스, 스티로폼박스
강당	휴지, 종이, 비닐, 박스
목공실	비닐, 캔, 나무
도예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전선
2층 교무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박스
1학년 교실	테이프, 휴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박스
2학년 교실	휴지, 종이, 플라스틱, 철
3학년 교실	종이, 비닐, 휴지
영어과실	종이, 비닐
사회과실	종이, 비닐
음악실	테이프, 종이, 비닐, 플라스틱, 나무
미술실	종이, 비닐, 박스
과학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 위자료는 각 교실의 모든 쓰레기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쓰레기와 얼핏 봤을 때 보이는 쓰레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표를 만들어 보자 특색이 있는 교실은 쓰레기의 종류 또한 달랐다. 옷만들기실은 대부분의 쓰레기가 천이었고 목공실은 대부분의 쓰레기가 나무와 톱밥이었고 식당과 카페는 휴지와 비닐이 대부분이었다. 미술실에는 종이들이 많았고 빵아저씨는 식품을 택배로 받을 때 사용된 스티로폼박스들이 많았다. 나머지 교실들은 휴지, 비닐, 플라스틱, 종이 등 쓰레기통을 들여다본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들 밖에 없었다.

3번째로는 학교에서부터 기숙사 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을지 알아보았다. 한 번은 학교에서부터 정류장 앞 쓰레기 더미까지, 또 한 번은 정류장에서부터 기숙사까지, 총 두 번을 거쳐 알아보았다.

학교~정류장 앞 쓰레기 더미

쓰레기를 모아 찍어보기 위해 하나, 둘 쓰레기를 주웠다. 이날은 비가 왔고 냇물의 물살 또한 강해져 쓰레기 수거 또한 어려웠다.

가장 많이 발견 된 것은 비닐과 휴지, 그리고 종이였다. 그 외 담배꽂초,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각목과 철, 고무가 소수로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정류장부터 기숙사까지의 쓰레기를 조사했지만 쓰레기가 아주 적었기에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

날짜 : 2014-09-29 일



학교에서부터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았다. 놀라운 것은 내가 주운 쓰레기만 해도 이렇게 많았다. 줍지 못 한 쓰레기도 많았는데 이정도 양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번째로는 기숙사에서 열 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나 알아보았다. 마침 기숙사 쓰레기가 처리되는 날이라 여자기숙사의 쓰레기양 또한 알 수 있었다.

쓰레기가 쌓인 기간 : 2014-08-24 (개학식) 부터 2014-10-01까지 (총 39일)



남자 기숙사에는 비닐과 종이, 병과 플라스틱이 가장 많았고 쇠들도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자랑하고 있었다. 여자 기숙사는 쓰레기봉투로 밖에 쓰레기양을 가늠할 수 없었다.

(주인 없는 멀쩡한 텀블러, 보관되지 않아 상태가 안 좋아진 잡지, 부러진 걸레 대, 목발, 우산, 신발, 탁구채 등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음을 확인 했다. 대부분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에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5번째로 학교 주변에는 얼 만큼의 쓰레기가 존재하나 알아보았다.

이날은 비가 와서 학교주변 청소를 하지 못하였다. 청소를 하지 못했기에 쓰레기 또한 쌓였을 것이 었다.

날짜 : 2014-09-29 월



학교주변의 쓰레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주인 없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물건이었고 그 물건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버리기 애매모호 했다. 대부분의 물건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아왔던 물건이었고 언제나 비슷한 상태,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

6번째로는 학교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다. 비록 내가 아는 것은 하나지만 유용할까 싶어 조사해보았다.

바로 학교계단 및 창고인데 여기는 여러 공구들이 놓여있다. 창고 바로 안쪽은 버려진 우산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몇 개는 망가져 있었고 몇 개는 조금 더럽지만 멀쩡해서 비상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가끔은 잃어버린 우산이 이곳을 통해 돌아오기도 하며 주인에게서 버려진 실내화나 잃어버린 실내화는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 또한 간디인이 우산과 실내화를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물건을 함부로 해서 물건이 쓰레기가 되는 과정, 우리는 재활용 할 수 있는데도 새 것을 사고 다시 버리며 다시 산다. 나 또한 이 논문을 쓰면서도 그런 점은 고치기 힘들다. 새것이 아니면 괜히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부럽다. 그러니 우리는 쓰레기를 생



산하면 안 된다. 물건을 잘 관리 한다면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어질 일도, 환경을 파괴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석이조 아닌가?

7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이다. 간디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반통을 저울위에 올려놓고 양을 제어 보았다. 나는 그 자료

를 받아 2틀간의 정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를 본다면 점점 음식물이 늘어나가며 하루 약 5.2k의 음식물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4.10.27	무게
아침	737g
점심	1658g
저녁	2815g
총	5210g

3. 환경파괴 영상 만들기

1) 내가 참고한 환경파괴를 다룬 영상들

(1) KBS 환경스페셜 (99.05.05~13.04.03)

1999년 5월 5일 첫 방송으로 2013년 4월 3일 날 방송이 종료되었다. KBS 환경스페셜은 오로지 환경을 가지고만 방송을 하는 다큐멘터리다. KBS 환경스페셜은 여러 가지 CG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환경에 관한 공장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환경파괴의 문제 등과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려준다. 눈에 띄는 점은 EBS 다큐프라임처럼 많은 CG나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명을 잘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KBS다큐프라임은 TV를 켜를 때 쉽게 볼 수 있는 정형적인 다큐 프로그램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2) 나무-이소진, 최성훈, 최소지 (2008)

이 영화는 '제 10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볼륨을 높여라'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영화다. 이 영화의 처음은 사람이 자연과 어울려 살아갈 때 행복하단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 이 장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돈 없이 그냥 뛰어노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설정이 아닌 사실을 보여주는 듯 하여 모습이 인상 깊었다. 줄거리의 시작은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중 한 소년은 피리를 불며 사람들에게 온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신기해 했고 그 피리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자 사람들은 나무를 뽑기 시작한다. 뽑힌 나무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되었고 더 많은, 더 큰 나무를 뽑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 어느새 산림이 파괴되었고 나무가 점점 사라져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과 어울려 내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이 영화에서 눈 여겨 볼 것은

나무를 뽑기만 하면 뽑힌 나무가 바로 나무가 되는 연출이 나오는 데, 이 연출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빨리 시켜주고 공감을 주기 쉽게 만들었다. 또한 나무를 없애며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도 영화의 거친 애니메이션배경이 잘 살려주어 다른 영화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공감을 줄 수 있었다.

(3) 프라미스트 랜드 (2012)

이 영화는 천연가스를 파는 대기업 회사의 컨설턴트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마을의 주민을 설득시키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눈 여겨 볼 점은 등장인물들의 첫 등장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컨설턴트) 의 첫 등장은 세수로 시작된다. 주인공이 세수를 하는 모습은 총 2번 나오는 데 그 시기가 시작 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다. 시작할 때의 세수는 주인공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고 끝날 때의 세수는 주인공이 무언가에 초조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인공뿐만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도 특유의 손동작에 시작되었다. 마을의 총책임자는 불안함에 떨고 있는 손동작, 그리고 주인공의 파트너는 기쁠 때도 초조할 때도 깍지 끼어져있는 손 등 여러 주연들의 손동작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계속 연상케 하였다. 한마디로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캐릭터 뿐 만이 아닌 영화의 이해도 쉬워졌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은 환경조합의 등장으로 지루하지 않게 잘 흘러가도록 했다.

(4) 에린 브로코비치 (2000)

이 영화는 1992~1996년 까지 에린 브로코비치 라는 실존 인물이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법률회사에 들어가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다 PG&E라는 회사와 중크롬에 대해 알게 된다. PG&E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천연가스회사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중크롬 (유해물질) 이 PG&E에 의해서 물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거는 내용이다. 마을 사람들은 중크롬에 오염된 물을 마시며 중크롬이 몸 속에 들어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마는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암이 걸리거나 성기능이 손실되거나 여러 가지 병들을 보여준다. 오래된 영화여서 그런지 영화의 느낌도 다르고 흘러가는 분위기도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영화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준 영화 였다. 프라미스트 랜드는 천연가스회사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여주었지만 에린 브로코비치는 시민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여주었기에 같이 보면 좋을 듯하다.

(5)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2012)

이 영상은 공익광고협의회가 2012년에 사용한 광고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데 크게 성공했다. 특히 이 광고에서 쓰이는 BGM (배경음악) 은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멜로디로 지구가 파괴되는 장면을 연상케 해주었다. 또한 얼음이 녹아가며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북극곰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빗대어 보여주어 공감을 극대화 시켰다.



(6)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2008)

이 광고는 큰 결론이 아닌 작은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쉽게 주는 광고다. 즉 이 광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구가 나빠요 가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 좋아져요 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빨리 바꾸어주도록 한 광고다. 나 또한 ‘지구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보단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가 좀 더 안 좋게 들린다.

(7) Stop Torturing Our Aquatic Life-Earth choice

이 광고는 외국광고로 사람의 감정을 공격하는 광고이다. 설거지를 수세미로 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이용해 하고 거위로 대변기를 닦으며 가오리로 욕실을 청소하고 문어로 바닥을 닦는 등 여러 가지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이 광고를 몇 번이나 보고서야 ‘우리가 환경파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 한마디로 전달력은 그다지 빠르단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 TV광고라는 것이 TV를 통해 많이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을 박아두는 것이니 광고로선 그다지 아쉬울 게 없었다.

(8) Gray will be Green-광주광역시

이 광고는 환경ucc 공모전에 내보인 광주광역시의 작품이다. Gray will be Green은 ‘제 2014년 환경ucc 공모전’ 수상작이 되었고 이 영상의 특별한 부분은 모든 것이 CG라는 것이다. 촬영된 영상 없이 오로지 CG로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 CG로만 보여준다. 내레이션 또한 없다. 오로지 CG로만 사람들을 이해시킨다는 점이 바로 이 영상의 큰 장점인 듯하다.

(9) 당신은 이 광고를 보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김정욱 (환경보호 공익광고 ucc)

이 광고는 ‘우리가 이 광고를 보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만든 환경보호영상이다. 이 광고에선 멋진 CG도 멋진 촬영기법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자막 몇 개 넣어 ‘당신은 환경파괴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마지막엔 ‘당신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도 이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변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 한마디는 이 광고의 임팩트를 담당하는 듯 했다. 근데 그 임팩트가 강력한 이미지도 아니었다. 사실 광고를 보는 내내 ‘당신은 이 광고를 보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데 이 말들을 들으면 공격적 성향을 가진 광고라 생각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광고 자체가 공격적인 연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임팩트 또한 강력하지 않았기에 별로 좋게 평가 되는 광고는 아니었다.

(10) 물은 말한다-출처 불분명

이 광고는 모든 것이 CG로 처리가 되어 있다. 위에 소개한 Gray will be Green과 비슷하게 촬영한 영상들이 없었다. 하지만 Gray will be Green과 다르게 내레이션이 들어가 돋보였다. 제목이 ‘물은 말한다.’로 되어 있듯 이 광고에서는 마지막 임팩트 한방이 아주 강력하다. 흐름은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으로 시작해 ‘아낌없이 주는 물’로 끝난다. 말 그대로 물이 없어지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출보단 내레이션이었는데 선한 남자의 보이스가 담긴 마지막 한마디는 소름이 돋았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물은 말한다. 이 물이 마지막 물이라고’ 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뒤의 내용은 오로지 이 말 한마디를 위해 준비 되어 있는 워밍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광고는 소름을 돋우게 하곤 이해를 100% 해버리게 만드는 물의 이야기라고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11) [레이드] 환경사랑-탐앤탐스 광고 공모전 입선

이 광고는 무척 간단하다. 소품은 물이 가득 찬 컵 유리컵 한 개와 더러운 손 몇 개면되었다. 광고에선 물이 가득 찬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환경파괴가 될 때마다 더러운 손으로 물을 마신다. 점점 유리컵은 더러워지고 더 이상 물을 볼 수 없게 된다. 마실 물도 없고 마시고 싶지도 않은 물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광고를 높이 평가 하고 싶는데 적은 소품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입선에서 그친 것이 아까웠고 왜 TV광고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12)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K water

가상수는 말 그대로 가상의 물이다. 예를 들어 티셔츠 한 장을 만들 때 970L의 물이 소비된다고 하는데 이 970L가 바로 가상수다.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는 물건이야기(The Story Of Stuff)라는 책에 나온 물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했다. 이 영상 또한 전부 CG로 만들어져있었는데 이 영상은 어디서나 한번쯤 볼 수 있는 교육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이 영상에서 눈 여겨 볼 점은 CG인데 다른 영상과 다르게 화려한 CG가 들어있지 않고 학생 또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CG로 만들어져 내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공감과 설득을 주기위해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2) 영상의 바탕

내가 만드는 영상은 CG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했다. CG를 사용한 광고나 영상들을 보자니 공감이 오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만들 영상은 재미있는 유머를 넣지 않아 진부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천간디학교 환경파괴의 문제성을 알리기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

하나는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이고,

목적은 ‘환경파괴, 제천간디학교의 환경파괴를 알린다, 이 영상을 본 관객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이다.

또 하나는 나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심어주기 위해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라는 광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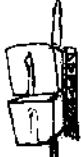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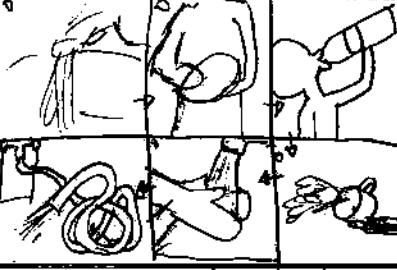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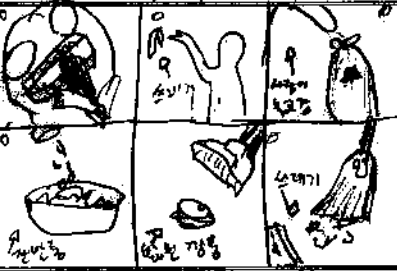
목적은 ‘이 광고를 본 관객들이 나무 사용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로
총 두개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3) 밑바탕이 될 콘티 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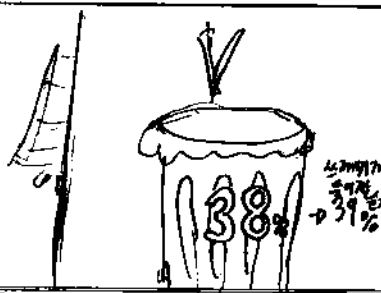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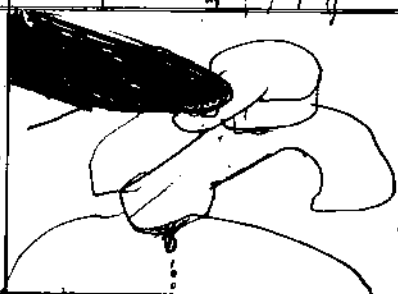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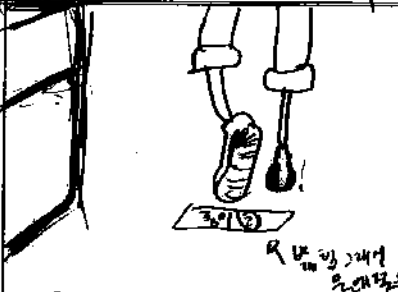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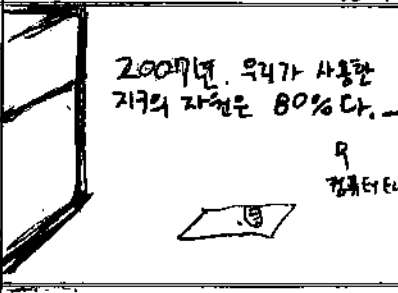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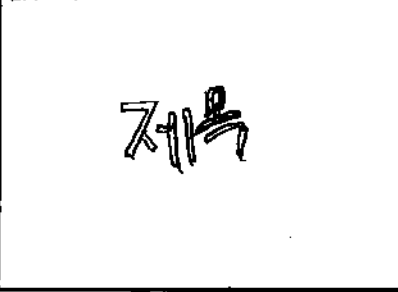
(1) 콘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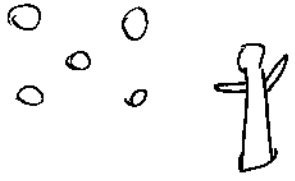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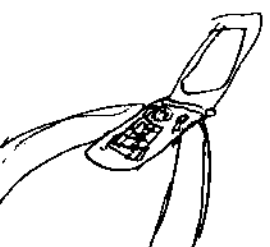
①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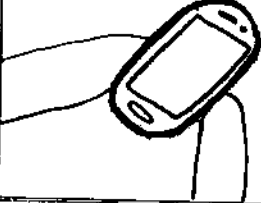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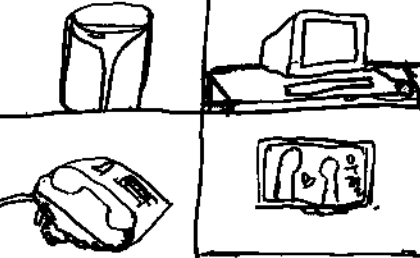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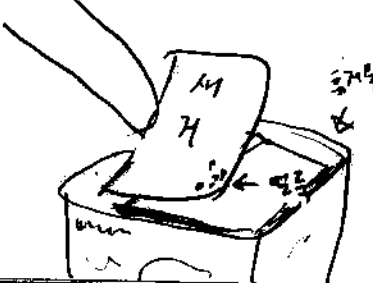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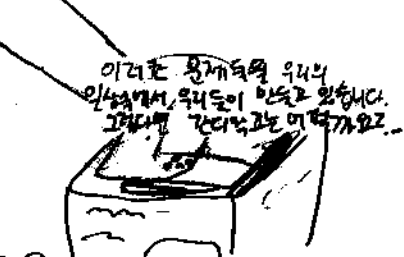
Title. _____ P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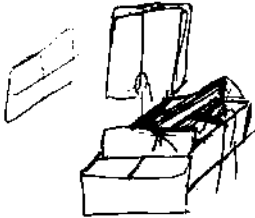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1			신동현의 장난감이 갓수가 채워져 왔다.		
#.2			물 관장까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3			신동현의 장난감이 3개 채워져 있다. 외면이 조금 맞대되어 있다.		
#.4			수레까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5			신동현의 장난감이 3개 더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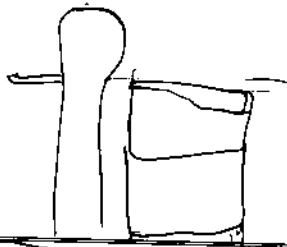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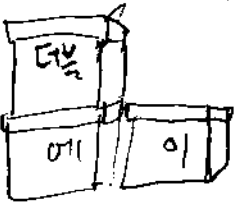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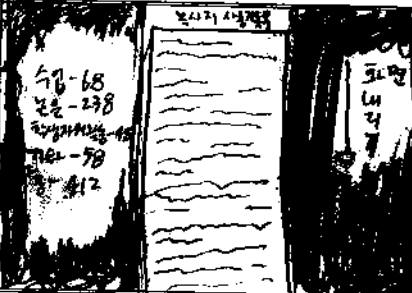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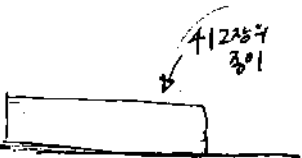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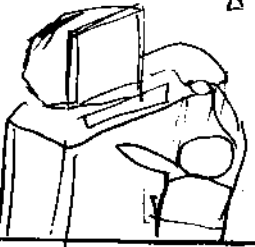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6			종이 환경과 의 모습을 보여 준다.		
#7			코팅이 끝나 작대기와 점박이는 274가 남는다. 그리고 점점 죽어 감박이가 없어 자는 순간 다음 장면으로..		
~~#8~~					
#9			무엇을 고민하고		
#9			새 컵은 뜨고선		

Cut	Picture	Action	Dialogue	time
#.9		첫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진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순간 39%로 바뀐다.		
#.9		물론 프로		
#.9		종이팩에 떨어져 완전히 합류해서 사용 불가능		
#.9		2007년, 우리가 사용한 지구의 자원은 80% 다. - R 컴퓨터 테크 컴퓨터 테크	사상이 지나가면 컴퓨터 테크닉으로 글씨가 써진다. 헤미스 아트로 화면 전체에 아트	
#.10		제목이 포맷으로 된다. 영어로 '지구는 몇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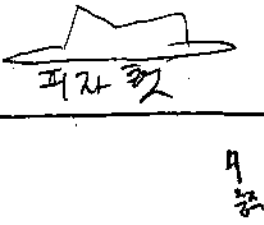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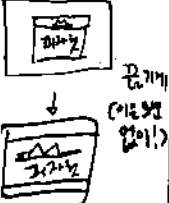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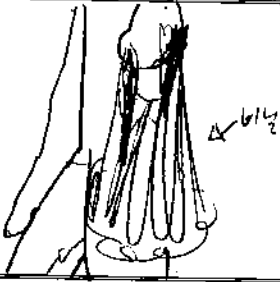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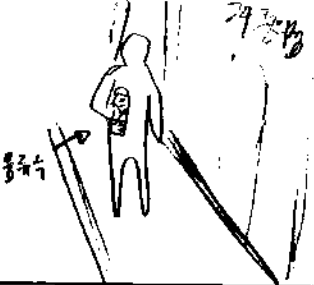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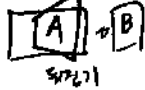
Cut	Picture	비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11		지크 지크는 정형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무나 물등 자연을 생산 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점점 빠라진다.		
#.12		"The story of story" 의 저자 아니 레너드는 이런게 말했습디다.	지크 5개 '북을' 보여준다.		
#.13		그럼 도명 파파는 대개 왜 안어하는 것일 까요?	사건 관련 효과를 사용한다.		
#.14		아마도 이제까지 위해서 오늘도 조금 적었습니다.			
#.15		잘 생각해 보면 꼭 더러운 종래로 사람들은 물변이 작을 습습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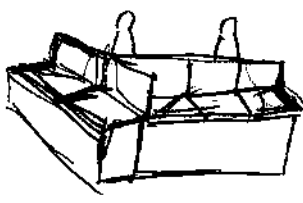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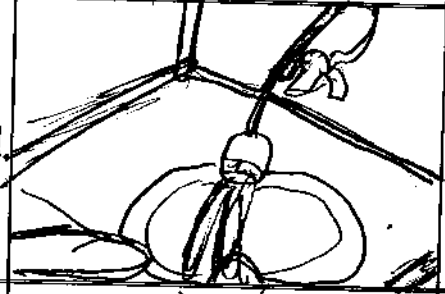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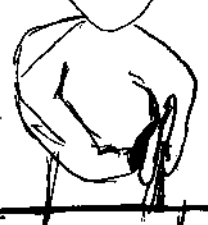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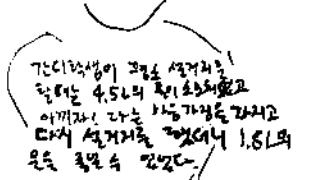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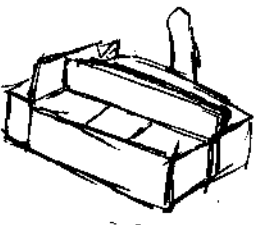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15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산수가 없잖아요?	폰이랑이 쓰는 폰으로 바꿨다.		
#16		이것 뿐만이 아니라 생활속 편의를 도모하는데 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17		~~생활속~~ 편의제기 위에서 ~~불편~~ 해소한다. 보기 쉽게 자료를 검색하기 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는 정보검색.			
#17		이러한 공개특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는 아닐까요?	사진 제작! 자막 4		
#18		2019년 제1회 전국대회	학교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여준다.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19		제가 그 전생애 알기 위해 조사를 해봤 습니다. 제 할아버지라고 모는 목	쓰레기 리는 모습		
#20		종이			
#21		쓰레기			
#22		의 환경과 함께 좋아 볼 수 있 습니다.	쓰레기 줍기		
#23		좀더 자세한 내역을 볼까요?			

Cut	Picture	네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23		이곳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디학교에서 가장 많은 품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 20에서 썼던 것 그대로 쓰기		
#.24		저는 정량화 정보를 얻기 위해 '복사지 사용 기록부'를 만들며 복사용지가 얼마나 사용되는 지 알아보고자			
#.25		복사지 사용기록부 수업-68 놀이-238 자유시간-15 기타-58 합계-12	복사지 사용기록부 10월 분. 412장의 양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중 놀이 시간 많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은 일단 내려서 자료 들어오기 (복사지 사용기록부 스캔해서 영상에 이미지로 표기)	
#.26		412장 양지	양지는 2K가 되는데요. 그 양을 복제하 면 4.4K가 양지를 사용했 습니다.		
#.27		전산실	그럼 간디학교 에서 종이사용 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Cut	Picture	네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31		무게의 양으로 다량으로 중이 100그램 상대기 100그램 다량으로 100그램 다량으로 100그램 다량으로 100그램 다량으로 100그램	특소 		
#31		불리하게 제대로 되어 있어 불리하게 제대로 되어 있어 불리하게 제대로 되어 있어	어떻게		
#31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어	WHAT? 이 문제가 확대된 모습에 특소시켜 나타낸다.		
#32		그것 불만이 아닌 하고 리면에 바라려 있는 스레기인 것도 심각할 것이다.	스레기 3번 2번으로 5번 2번으로 사건으로 보여준다.		
#33		그것 불만이 아닌 스레기인 어떻게 확대된 모습에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34		다들 간단하다. 소변을 졸여라 !	사. 4 에 생긴 스니커즈로 밟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다.		
#35		소변을 졸여라			
#36		식료품 줄이기			
#37		물건을 싸서 비닐을 둘러 막아라			
#38		종만 불려하면 된다. 그 뿐이다.	국민권이 필요하다. 사. 39도 남겨둘지 고라  국민권		

Cut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6 #.37		을 또한 알아 냈다. 각각 칸마다 3번씩 하는 손거지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다.			
7 #.38		↓ 이 이 기			
8 #.40					
9 #.40		가디언이 평균 4.5L의 이제 다시 문득 있었다.	4.2로 내레이션	사건 착각!	
10 #.41				#.42로 넘어갈 사건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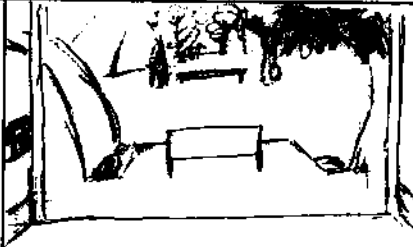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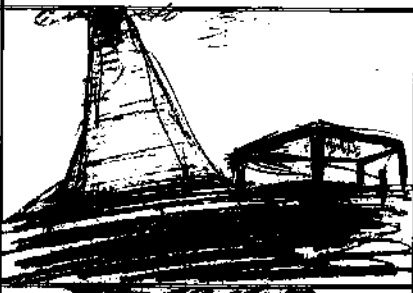
Cul	Picture	내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42	#.41 배경 잔반을 긁어내며 식판의 개맛이 난듯 C.O. 냄새가 나고 생거지를 할때 2.8 L의 물이 소비되었지만 위생에 관한 문제는 약간 있었다.	4 그네로	사진 촬영! 포에이트 이웃으로 자막 없애기		
#43	#.41 배경 1.200평의 건물이 이곳에 3년, 공로대로 생거지를 한다고 하면 이곳 생거지로 사용되는 물은 1620 L이다.	4 그네로	포에이트 이웃으로 전체 영상 이동		
#44	제정간디학교의 환경과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포에이트 이웃으로 자막 시각 포에이트 이웃		
#44	다만 음계가 되는 것은 자기 물건 관리와		포에이트 인 포에이트 이웃		
#44	죽여 나갈수 있는 환경과제가 죽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에이트 인 포에이트 이웃		

Cut	Picture		Action	Dialogue	time
#.50	 신동현 Q. 환경파괴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오. A. 보기싫다	연설 시작 꽤 다 마지막은 '볼라 볼라'로 마무리	페이스 인으로 영상제작 프로젝트 여행에 문구 만들기 페이스 아웃		
#.51	우리가 방송속에서 만드는 환경파괴는		페이스 인 페이스 아웃		
#.52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3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		
#.54	이 지구에서 92%가 사라질 겁니다.		" 끝		

②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광고)

Title.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Page. 1

Cut	Picture	네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1		지금 당분간 몇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온종일에서 온종일 정확히 25년을 한글 25년 보여준다.	바람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7sec
#.2		하나	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듯 나뭇잎이 떨어뜨려 보여준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3sec
#.3		둘	바람은 나무가 다보여 잡아줄 풍량이 다보여 준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2.5sec
#.4		셋 2sec 네 2sec	온(고)고(고)고 정확히 (25년 25년)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4sec 3sec
#.5		다섯 0.5sec 여섯 0sec 일곱 2sec	바람소리 정확히 25년 25년		4sec

Cut	Picture	네레이션	Action	Dialogue	time
#6	아니요 제 눈에는 723 가 보이는데요.	아니요? 제 눈에는	NO	NO	3sec
#6	아니요 제 눈에는 아주 많이 보이는데요.	아주 많이 보이는데요 ^^ (웃음)	723가 change ♪ 아주 많이	NO	4sec
#7	여러분도 입원하.	여러분도	NO	NO	1.5sec
#7	여러분도 보실수 있습니다	보실수 있습니다.	☐ + 보실수	NO	2.5sec
#8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저음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4sec 가 지난 후 전기톱 소리는 나무가 베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9sec 5 10sec

4) 영상 만들기

(1) 영상제작준비물

① 삼성전자 HMX-H305

500만화소의 미니캠코더로 FULL-HD⁸⁾ 해상도까지 촬영 할 수 있는 캠코더이다. 광학 줌⁹⁾은 30배까지 되며 디지털 줌은 300배까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캠코더라고 할 수 있다.

② 소니 베가스 11.0

영상편집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애플 파이널컷 스튜디오) 보다는 쉬운 프로그램으로 영상 편집 초보자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다. 해상도는 4096x4096 4k까지 지원되어 화질에는 상관 없이 원활하게 편집할 수 있다. 또한 영상 편집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많이 전문적이지 못한 면에 전문가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② 큐베이스 5

음악편집프로그램으로서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음을 올리는 기능 또한 탑재 되어 있다. 큐베이스를 통해 녹음이 가능하며 나 또한 사용 목적은 녹음 이었다.

5) 영상 평가

(1) 제천간디학생 평가

상영시간은 12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12월 5일 금요일 오후 10시 20분에 상영하였다.

간디학생 39명이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를 평가해 주었다. 광고는 평가받지 않았다.

제천간디학생에게 질문한 내용

질문-1 :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질문-2 :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질문-3 :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질문-4 :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매우 좋았다	15	21	21	19
좋았다	23	16	14	16
보통이다	0	1	2	2
나쁘다	0	0	1	1

통계를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매우 좋았다 또는 좋았다 로 평가를 해주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로는

뻘한 환경파괴 이야기가 아닌 우리학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좋았다.

공감이 잘 되었고 흐름이 좋았다. 영상의 브금과 편집,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가미되니 재미없을 것 같았던 영상이 풍족해 졌다. 약간 뻘하다. 뜻이 잘 전달되었다. 영상의 흐름이 너무 빨랐다. 깔끔했다. 환경파괴의 진실을 알고 충격

8) 1920x1080의 해상도를 FULL-HD 라고 한다.

9) [네이버 지식백과] 광학 줌은 디지털화된 이미지의 일부를 다시 확대하는 디지털 줌과는 달리 선명도나 색도 등 화질의 저하가 없는 줌을 뜻한다.

적이었지만 생각이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보였으면 좋을 것 같다. 주위사람이 초록을 지키자 말하니 와 닿았다, 다만 진행이 빠른 느낌? 서론만 길게 적어놓은 느낌이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다.

또한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질문에

10점 : 20명

7점 : 1명

9.5점 : 3명

5점 : 2명

9점 : 4명

무효표 : 2명

8점 : 7명

평균 : 7.5점 (반올림 값)

으로 답해주었다.

(2) 전문가 평가

밀양전, 밀양아리랑을 만드신 백배일 감독님,
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신 오정훈 감독님,
전직 PD 였던 송민혜 쌤에게 평가를 받았다.

①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 오정훈 감독님

1. 영화를 보시면서 좋았던 기술이나 좋지 않았던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촬영기법, 편집 등)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호흡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이 빠른 전개가 설명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관객이나 시청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함. 관객이 정보를 이해하거나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장음의 사용이 제한적임. 대부분 장면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자칫 지루해지기 쉬움. 오히려 현장 사운드를 살려서 생동감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음.

음악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음

2. 영화의 내용에 깊이가 있었나요? (내용의 수준)

주제 전달의 일관성과 논리가 흩어져 있음. 환경파괴의 문제와 간디인의 생활 속에서 환경 자원의 이용에 대한 것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 간디인의 생활에 집중해서 논리의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3.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번에서 말한 것처럼 논리의 일관성이 필요함. 간디인의 생활에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 자신의 소개와 영화에 대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장면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 이 영화가 환경파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나요? (분위기)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하려는 생각은 좋음. 가까운 곳에서 환경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좋지만, 집중할 필요가 있음.

5.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6.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7.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9.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10. ~~이 영화에 제작과정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11. ~~그 외 하고 싶은 말~~

②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 박배일

1. ~~영화를 보시면서 좋았던 기술이나 좋지 않았던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촬영기법, 편집 등)~~

2. ~~영화의 내용에 깊이가 있었나요? (내용의 수준)~~

지금의 만들새로 내용이 더 깊어지려면 간디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를 더 소개해야 할 테지만, 여러 제약 안에서 적절하게 담아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만들새가 아닌 형태로 간디학교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려면, 한 두명의 생활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자원을 사용하는 형태를 드러냈다면 재미와 함께 깊이도 더하지 않았을까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그를 환경파괴의 가해자로 만들면 안되겠죠!

3.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등 불빛의 양과 우리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를 병치시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건 영화적으로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후 자신의 학교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건 관객이 영화에 더 집중하게끔 합니다. 영화 흐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감독이 출연한 이후 '환경 파괴하지말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설득의 느낌보다는 강조의 느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감독 출연 장면을 포함해 엔딩크레딧 빼고 모든 장면을 삭제하고, 오프닝 이후 길게 이어지는 자막을 간략하게 줄여 엔딩크레딧 전에 붙인다면, 지구의 상태 - 간디학교 이야기(현실 점검 - 해결방법) - 구체적인 자료의 흐름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4. ~~이 영화가 환경파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나요? (분위기)~~

환경파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에 이야기가 더 집중되어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영화가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내레이션(지금 지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무와 물 등 자원을 생산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에서 환경파괴로 넘어가는 지점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을 많이 쓰는 것과 환경파괴와 어떤 논리적 귀결이 있는지 설명이 충분치 않아 주제와 내용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6.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조금 불편한 생활이 지구를 지키는 길이다! 는 메시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작품을 보고 설득을 당해서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7.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9.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8. 이 영화에 제작과정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제작과정이 영화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감독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주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건 지인들에겐 웃음을 줄순 있겠지만, 감독을 모르는 이들에겐 뜬금없이 왜 고충을 밝히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던졌던 메시지를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확인 시키는 건 메시지의 반복뿐만 아니라 앞에서 잘 쌓아 왔던 신뢰를 잠깐 무너지는 느낌을 줍니다.

9. 그 외 하고 싶은 말

가장 먼저 영화 정말 잘 봤고, 고생 많으셨어요. 긍정보다 아쉬움을 더 많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 시라니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간디학교의 소비 형태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건, 영화를 보는 주 대상이 간디학교 학생이라면 적절한 내용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간디학교 관계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중학생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대견한데...' 이상의 평을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가장 듣기 싫은 평이겠죠. 이유인즉슨 정말 많은 이들이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이고 진부한 주제를 적절하게 푸는 방법은 스스로가 이 주제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치열함은 작품에서 감독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됩니다. 안타깝게도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감독만의 무엇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솟이 어떻고, 편집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는 영화를 평가 할 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얼마나 자신이 치열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있는가?? 어설프더라도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 결국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창작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처음에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질문이니 작품을 만드실 때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에게 이 주제는 얼마나 절실한가?" "과연 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즐기면서 작업해나가기길~~ 건투를 빌어요~~ㅎㅎ

③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 송민혜

1. 영화를 보시면서 좋았던 기술이나 좋지 않았던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촬영기법, 편집 등)

기술면에서는 너무 좋았음. 편집 깔끔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었음. 아마도 촬영편집은 신동현이 제일 잘하는 듯.

2. 영화의 내용에 깊이가 있었나요? (내용의 수준)

내용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구성이랑 기획은 정말 좋았거든 그런데 내용의 깊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자료화면에 의존하는 것과 (중간에 애니 레너드 나온 것), 연출된 화면이 너무 많은 것이 좀 그렇더라. 복사기 찍은 것은 괜찮아, 그런 것은 바라는 바인데 쓰레기 투기도 연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었나? 약간 좀 안타까워, 쌤들 스마트폰 쓰는 것, 찍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발로 안 댄 느낌....

3.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내용의 흐름은 좋았어 역시 감성촬영 편집은 신동헌이지!!

4. 이 영화가 환경파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나요? (분위기)

환경파괴라는 주제에는 잘 어울리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실사가 많이 없고 연출동영상 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

5.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영화라기보다는 공익광고를 길게 늘인 캠페인성 화면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단어는 빼야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6.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공감이 잘 될 수도 있어, 설득도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연출이 아닌 실제 모습을 쓰지 않으면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출 것이 너무 많아.

7.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자원파괴를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아끼자

~~9.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8. 이 영화에 제작과정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뭐 잘했어, 너는 찍고 편집은 워낙 잘하잖아 기획도 좋고

9. 그 외 하고 싶은 말

일단 너의 작품만 보고는 고생도 많이 했고 잘 한 것 같아 좋아, 그런데 어떤 너의 한계를 못 넘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 동헌이의 감성적인 촬영과 터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최고야 그런데 촬영기간도 짧고 많이 아쉽지... 이제는 그걸 좀 캐치해서 찍는 감독이 되면 좋을 것 같아!!!

④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 오정훈

1. 광고에 사용된 연출 등이 어울리나요?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음.

2. 광고가 담은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나무는 인간에게 소중한다’와 ‘자연 속에 있는 나무를 인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초점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애매하다.

주변에 있는 나무와 목재에 대한 감독의 입장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 광고의 깊이가 얼마큼 깊었나요? (분위기)

4.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5. 이 광고는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의 수가 이렇게나 많으니 나무의 사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잘 전달 된 것 같나요?

2번에서 말한 것처럼, 입장이 모호하게 전달되고 있음.

5. 그 외 하고 싶은 말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자의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감독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식으로 직접적 설명에 기대고 있다. 관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이야기로 빠져들 수 있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전문가 평가로는 영상의 흐름이 빠르다, 연출이 많다, 결론이 애매모호하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의 전문가 평가를 봤을 때 감독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 평가를 반영해 How Much Resource Do We Have?는 영화란 이름 대신 영상이란 이름을 붙였고, 또한 내가 말하는 부분을 뺏으며 결론을 좀 더 자연스럽게 넣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광고는 수정하지 않았다.

III. 결론

1. 간디학교의 환경파괴는?

간디학교의 환경파괴 문제점은 있었다. 쓰레기를 해부했을 때 멀쩡한 물건이 꽤나 나온 것을 본다면 자기물건 관리하는 문제 될 만하다. 또한 일회용 포크가 사용되고 설문지에 너무 많은 종이를 사용하는 모습에선 충분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줄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130명의 간디인이 공존하는 간디학교에서 이정도의 환경파괴라면 아주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언제나 함께한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는 큰 자연재해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줄여 나가보자

2. 논문을 마치며

논문을 쓰며 많은 생각을 했다. 왜 내가 선정한 주제는 다 마음에 들지 않을까? 주제를 6번 정도 바꿔가면서 패닉에 빠지기도 했고 자책하기도 했다. 학교가 밉기도 했고 신경과민이 되어가기도 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후회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선정한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이렇게 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말이다. 원래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래도 내가 여태껏 해왔던 모든 것이 공동체활동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다른 이도 피해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논문은 달랐다. 논문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피해 받는 이도 없고 나 혼자만 피해를 받으니까, 쉽게 포기했었던 것 같다. 혼자. 이 단어가 논문을 쓸 때 나를 가장 겁나게 했던 것 같다. 여태까지 내가 만든 영상을 본다면 대부분의 주인공이 나 ‘자신’ 이고 등장인물도 그리 많지 않다. 이 논문을 쓰면서도 그랬다. 대부분의 출연은 나였고 출연된 사람 또한 그리 많지도, 그리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거절을 무서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거절을 안하고 출연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울 뿐이다.

3. Thanks To

살림터에서 저를 언제나 도와주신 희라쌤! 그리고 sd카드 리더기 빌려준 민석이! 그리고 지담이! 형서랑 소은 누나! 그리고 안다연 누나! 제천시자원관리센터 가려다 산에서 길 잃었을 때 도와준 제천시 주민 분들! 덕산면사무소의 정이택씨! 박배일 감독님! 다민이네 아버지! 정환쌤! 민혜쌤! 상현쌤! 필쌤! 미리강! 제 영상에 출연하고 촬영해 주신 분들! 제 영상 평가해 주신 분들! 소은누나, 현준이 형, 한솔이 형! 모두 모두 고마워요!

4. 부록

1) 작업일지

2014-09-26-금

내가 만들 영화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전형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까 아니면 멋지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극영화를 만들까? 사실 오래간만에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니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기록영화? 극영화? 그냥 둘 다 만들까? 덤으로 광고까지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서 나오 주고받고 있을 때 나는 좀 더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해 보았다. 사람들이 다큐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다큐를 볼 때면 모두 지루해선 잠들곤 하는 데 왜 다큐는 지루한가? 적은 내레이션? 아니면 촬영기법이나 편집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 혹시나 다큐멘터리는 지루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야 느낀 건지, 말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은 정말 도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얼마만큼의 말과 브레인스토밍을 했는지 입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머리를 정리하기로 했다. 정확히 식힌다고 해야 하나?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나 하게 된 건지 어찌다가 동아리 연합회의가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다. ‘동아리연합회가 아주 높은 연합회가 되어야 할텐데.. 그리고 보니 꼬물라디오도 다시 시작해야 겠네?’

유쾌하기 말을 하지도 못하는 내가 꼬물라디오의 MC로 돌아가선 방송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킁킁 웃음만 나오곤 했다. 요즘은 논문에 지치곤 하면 FM라디오를 켜곤 92.7MHZ를 듣거나 102.7MHZ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는데 생각해 보면 라디오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오고 간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다시 논문에 집중해야 겠다 생각하곤 잡생각들을 머릿속에 떨구어 내려 애를 쓴다. 다시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유쾌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 도입해 볼까 생각했다. 어찌면 어색한 조합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새로운 방식의 다큐를 만들자 생각하니 약간 흥이 겹기도 했다. ‘근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찌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그냥 라디오 방식이 투입된 다큐와 방식이 투입되지 않은 다큐, 2개를 만들어 보자 생각했다.

2014-09-29-월

이날은 학교에서부터 기숙사를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을까 궁금해서 길가며 쓰레기를 주워보기로 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기숙사까지 가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사람이 무척 많았던 건지 학교에서부터 정류장 앞에 있는 쓰레기더미까지 밖에 가지 못했다. 허나 놀라운 사실은 그 거리만 해도 각 각의 쓰레기종류가 널려 있었다는 것이다. 부서진 플라스틱의자와 풍선, 음료수, 각목 등이 냇물과 함께 흐르고 있지 않나 가는 길마다 담배공초, 담뱃값, 비닐, 종이컵들이 널브러져있고 아스팔트에는 부서진 배드민턴 채가 널브러져있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줍는 도중 처음 뵈는 마을 주민에게 칭찬 까지 들었다. 쓰레기를 줍고 나선 2번에 거쳐서 분리수거하고 학교에 있는 쓰레기의 양까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배드민턴이 들어도 있지 않은 배드민턴 케이스가 주인 없는 채 비를 맞으며 흙과 같이 있었고 풍물 악기 채 또한 배드민턴 케이스와 같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이외에도 1회용 포크, 비닐 (배즙, 사과즙), 휴지 사탕 포장지 등 많은 쓰레기의 모습을 찾고 촬영하였다.

2014-10-01-수

본격적으로 기숙사의 쓰레기양을 조사하기 위해 기숙사를 올라갔다. 때 마침 기숙사의 쓰레기를 처리하러 올라가는 수진쌤과 미리강을 만나 다행이었다. 처리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여자기숙사의 쓰레기부터 남자기숙사의 쓰레기를 모두 볼 수 있었고 더욱 좋았던 것은 개학 때부터 기숙사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더 숨겨져 있는 쓰레기가 있을까 하고 기숙사의 주변을 둘러보자 깨끗한 잔디에 버려져 있는 참치캔, 담배꽂초, 여러 음료수 병, 비닐, 우산 등 많은 쓰레기가 돛자리 깔아 놓 듯 무단투기 되어있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담배꽂초가 버려져있는 곳엔 풀들이 죽어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는 정체불명의 개인사물함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라면봉지와 검은 비닐, 참치캔 등이 있었고 냄새 또한 구리며 사물함 바닥에는 이상한 물까지 고여 분리수거 하기 힘든 상태였다.

2014-10-03-금

이날은 큰 맘 먹고 쓰레기를 해부해보았다. 아쉽게도 학교 분리수거장의 쓰레기가 전부 소각장으로 이동해버려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찰 동안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래서 2~3일 정도 기다리자 일반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가득 찼다. 나는 캠코더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후 쓰레기를 풀어놓고 어떤 쓰레기가 있었는지 분리해 보았다. 원래 목적은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분리수거 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대부분이었다.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 쇠, 음식물 쓰레기 등 많은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고 버려졌고 일반쓰레기만 골라 쓰레기봉투에 넣어보자 가득 찼던 쓰레기봉투는 반이 줄어져 있었다. 그렇게 다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곤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할 무렵 쯤 왜 각 쓰레기의 그램 수와 개수를 세지 않았는지 너무 후회되었다. 그래야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감이 많이 들었다. 그래도 2번 더 쓰레기를 풀어놓고 분리해볼 생각이니 다행이었다. 그러곤 각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촬영했다. 왜 찍어야 했냐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찍어야 어떤 교실에는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은 냅킨이나 옷만들기실은 천, 목공작업실은 톱밥 과 나무 조각들.. 이런 식으로 말이다.

2014-10-04-토

주말이다. 주말인데 나는 논문을 쓴다. 생각 할수록 짜증이 돌고 마음은 덕산, 몸은 논문, 뭐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고 영상을 편집하자 마음먹고 컴퓨터를 키고 편집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때부터 갑자기 방향하게 되었다. ‘콘티 아직 안 짰는데 편집을 해?’ ‘그렇지만 여태까지 콘티는 한 번도 짜오지 않았잖아’ ‘그래도 논문엔 필요한데?’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또 교차했다. 도저히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 방향만하고 하루가 끝나버렸다.

2014-10-06-월

쓰레기가 가득한 쓰레기봉투를 다시 한 번 해부해 보았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저번 보단 나았다. 종류는 비닐, 플라스틱, 휴지, 종이, 철과 천, 음식물 이렇게 종류를 나눠 분리해보았다. 가장 많았던 것은 비닐, 휴지, 종이 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쓰레기 중 종이나 휴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무게 또한 재었다. 대부분 1kg이 넘지 않았지만 이 쓰레기는 극히 소수다. 3일 동안 모인 쓰레기더미 하나를 분리한 양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분리를 다 한 후 무게를 재곤 일반쓰레기만 봉투에 담아 보았더니 2/3밖에 차지 않았다. 1/3은 분리수거가 잘못되었단 소리다.

2014-10-08-수

광고의 구상 정도를 생각해 내었다. 바로 문을 이용한 광고인데 광고에서는 3개의 문이 등장한다. 바로 ‘미래’ 라는 문과 ‘과거’ 그리고 ‘현재’ 라는 문이다. 주인공은 처음에 ‘과거’를 연다. 과거에는 옛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이다. 과거를 열었더니 인간의 형태를 한 문이 있다. 그 문의 이름은 ‘현재’, 그 문을 연 순간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

리고 마지막 문이 등장 한다. 그것은 ‘미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지구는 더 이상 지구라고 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햇별이 무척 따갑고 물이라곤 없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힘들자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현재’ 라는 문을 열라는 순간 문을 열리지 않고 어느 문구가 생긴다. 그 문구의 내용은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없어질 우리의 미래를’ 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상은 CG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그 점을 생각하자 이 광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10-09-목

이날이 드디어 현장방문을 하는 날이다. 가는 곳은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인데 이곳은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이전에 ‘제천시자원관리센터’ 로 가는 길을 네이버 지도로 알아보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4시간, 차를 타고 간다면 1시간이라고 얘기했다. 쌤들에게 나가는 차가 있냐 물어 보았지만 쌤들은 제천이 아닌 충주에 나가신다고 해서 결국 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문제는 버스가 아니었다. 문제는 무거운 내 배낭과 캐리어였는데 그것들을 들고 나는 약 2km를 걸어야 했다. ‘2km?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자원관리센터’ 가 산속에 있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 제천역에서 내려 아침을 못 먹은 출출한 배를 토스트 하나와 시럽 들어간 아메리카노로 채웠다. 그러곤 신동정류장 까지 버스를 타서 갔고 그 이후론 걸어갔다. 험난한 나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가는 길 중간에는 강이 있었기에 가는 것이 번거로웠다. 할 수 없이 나는 빠른 길을 택하기 위해 캐리어를 한 손에, 캠코더를 한 손에 잡고선 위험한 돌다리를 점프하며 건넜다. 다행이도 무사히 강을 건넜고 바로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왔다. 기차길을 넘는 것인데 터널을 찾아 통과하라고 마을 주민께서 친절히 알려 주셨다. 근데 터널은 2 확률은 반반이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터널에 갔는데 그 터널은 고속도로로 통하는 터널이었다. 덕분에 고속도로를 걷고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느끼며 다시 돌아가 오른쪽 터널로 갔다. 오른쪽 터널을 가자 축구장이 보였다.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었기에 이 방향이 맞구나 생각하고 가다가 축구장 밖에 없어서 포기하고 만다. 그러곤 차를 타고 가는 주민 한 분을 잡아서 여쭙어 보았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주민 분은 차에 타라고 했고 덕분에 몇십분을 더 걸을 필요는 없어졌다. 무사히 도착하곤 바로 쓰레기소각장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안에서는 검사중이었고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쓰레기에 대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2014-11-12-수

2차발표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했는지 어딘가 이상한 콘티와 이상한 분위기를 잡아 영상을 찍어버렸고 편집을 하고나니 너무 못 만든 느낌이 크게 와 닿아 처음부터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2014-11-15-토

새로운 콘티를 짜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좀더 ‘서글픈’ 분위기를 영상에 담아보자 했고 울적한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 무거운 분위기를 잡은 콘티를 짜보았다.

2014년-11-30-일요일

방장회식도 포기하며 편집을 해나갔다. 아마도 방장회식을 갔었다면 편집은 다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14년-12-4-목요일

내일이 논문 3차 발표의 데드라인이다. 마침 생일인데 나는 12월 5일, 심사를 봐야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위해서! 정환쌤을 위해서! 민혜쌤을 위해서! 상현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이다!

2014년-12-5-금요일

영상을 렌더링하고 한숨을 돌렸다. 영상이 다 만들어졌다는 기쁨보다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감이 오히려 밀려들었다. 렌더링을 하고나서 정환샘을 찾아가자 데드라인이 밀렸다. 날짜는 일요일, 방학식이다. 오늘 3시에 한번 틀고 기숙사에서 한번 틀었다. 30명 이상이 봐주었고 평가는 대부분 좋았다고 해주었다. 이 얼마나 감동인지...!! 하지만 오늘, 나는 발표를 하지 못했다. 발표가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날짜는 12월 7일 일요일, 방학식이다.

2014년-12-9-화

아마도 지금 이 일지는 이 논문의 마지막일지가 될 것이다. 원래 예정 대로라면 12월 7일 발표를 했어야 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친 몸을 휴식 시킨 나머지 시간은 날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은 여름방학으로 돌아간다. 여름의 방학식, 나는 주제를 방황해 썸들과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때와 똑같다고 볼 순 없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똑같았다. 솔직히 좀 무섭고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분위기다. 나는 지금 그 여름방학 때와 똑같은 상태다. 질문이 들어왔다. '좀 더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 개학하고 발표를 할 것 인가, 아니면 4일 뒤에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내가 더 성실하고 더 좋게 보이는지 개인적인 감이 왔지만 솔직히 지금의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당장 빨리 논문을 끝내고 더 이상의 패닉을 느끼고 싶지 않다. 저번처럼 영상을 갈아 없고 싶지도 않으며 그 긴 시간을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 또한 무척이나 싫었다. 결심했다. 4일 뒤, 이 학교에 와서 심사를 보겠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의 속은 홀가분해지는 것과 동시에 머릿속에 정신 없이 들어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이것 또한, 여름방학때와 똑같다. 하지만 나는 적응이라는 것을 할 줄 알고 이기적일 수도 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긍정과 부정을 나의 머릿속에 억지로 넣었다. 잊으면 안되는 것을, 잘못을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분위기에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 하루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학동안 나는 괜찮다. 아마 이글을 보는 사람은 내가 뭐라 지껄이는 지 또한 헛갈릴 수도 있다. 괜찮다. 이것은 그냥 내가 논문을 쓰며 느낀 것들을 적는 백지일 뿐이니까, 설령 내가 이 백지를 더럽힌다 해도 괜찮다. 이미 백지는 더러우니깐 말이다.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논문을 쓰며 도와준 사람들, '방학 때 같이 놀아야지!' 그 말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논문을 쓰며 얻은 것은 별로 없지만 느낀 것은 많았다.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생각은 이것이다. '가끔은 더러운 종이를 백지로 만들어보자'

2) 평가지

(1)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 전문가 평가지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전문가 평가지

제목: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제천간디학교의 환경파괴 문제성을 담은 영상 만들기' 가 논문 주제인 신동현 입니다^^
저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평가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가는 저의 논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영화를 보시면서 좋았던 기술이나 좋지 않았던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촬영기법, 편집 등)
2. 영화의 내용에 깊이가 있었나요? (내용의 수준)

3.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4. 이 영화가 환경파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나요? (분위기)

5.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6.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7.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9.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8. 이 영화에 제작과정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9. 그 외 하고 싶은 말

저의 부족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소한 노력이라도 좋으니 환경파괴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평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 제천간디학교의 신동헌 입니다!

(2)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 제천간디학생 평가지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평가지

제목: How Much Resource Do We Have?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제천간디학교의 환경파괴 문제성을 담은 영상 만들기’ 가 논문 주제인 신동헌 입니다^^
저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평가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가는 저의 논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어땠나요?

-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2.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3.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4. 이 영화는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런 환경파괴가 있으니 줄여 보도록 노력하자, 환경파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5. 그 외 하고 싶은 말

10점 만점에? 점

저의 부족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소한 노력이라도 좋으니 환경파괴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평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 제천간디학교의 신동헌 입니다!

(3)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 전문가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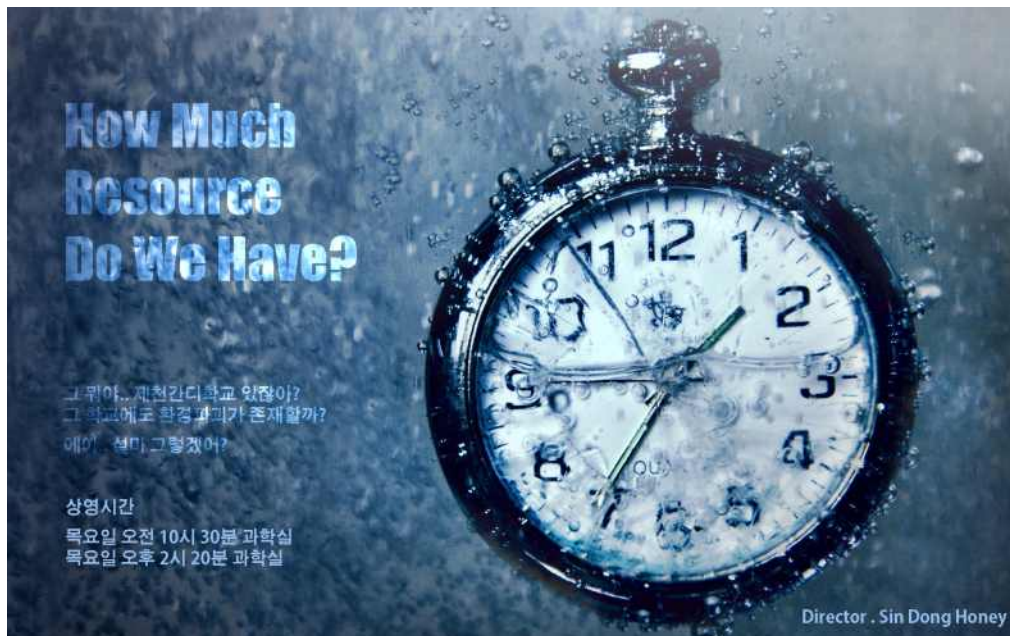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십니까? 평가지

1. 광고에 사용된 연출 등이 어울리나요?
2. 광고가 담은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3. 이 광고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나요? (분위기)
4. 공감, 설득이 잘 되었나요?

5. 이 광고는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의 수가 이렇게나 많으니 나무의 사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잘 전달 된 것 같나요?

5. 그 외 하고 싶은 말

3) 포스터



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로 도감 만들기

지도교사: 오피선



이름: 안상운

좋아하는 것: 축구, 노는 것...웬만한 건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것: 칼국수, 오글거리는 말들, 정리 해주고 싶을 만큼 더러운 곳

논문을 마치며:

내가 진짜 이걸 쓸 줄은 몰랐다 ㄱㄱ 맨날 게임하고 축구하다가
옆에서 애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같이 쓰다보니까 다 쓴 것 같다.
사실 별로 할 말 음슴... 여름 방학 때는 게임해도 2차는 할 수
있음 ㅎㅎ ㄱㄱㄱ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 본론

1. 나무란
 - 1) 나무의 종류
 - (1) 침엽수
 - (2) 활엽수
 - (3) 유실수
 - (4) 상록수
 - (5) 낙엽수
 - 2) 나무의 잎사귀 종류
 - (1) 복엽
 - (2) 단엽
 - 3) 우리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들
 - (1) 침엽수
 - (2) 활엽수
2. 도감
 - 1) 도감이란
 - 2) 도감의 종류
 - 3) 내가 만드는 도감
 - 4) 도감 만들기
 - 5) 내가 만든 도감과 일반 도감의 차이점
3. 지도
 - 1) 내가 만든 지도
 - 2) 학교 지도
 - (2) 학교 제철열매 지도
 - 3) 저수지 가는 길지도
 - (3) 저수지 가는 길 제철열매지도
 - 4) 기숙사 지도
 - (4) 기숙사 제철열매 지도
 - 5) 기숙사 가는 길지도
 - (5) 기숙사 가는 길 제철열매 지도

III . 결론

1. 논문의 한계점
2. 논문을 마치며
3. 전문가 평가
4. 도서관배치
5. 감사한사람들

부록

1. 작품 일지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엄마는 자연에 대해 공부하러 여기저기를 다녔고 나는 그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에 대해 접하게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나는 대안 초등학교를 다녔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산도 많이 가고 자연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에 익숙했고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간디학교를 들어오게 됐다. 간디학교에서 1학년 때 는 자연은 내 친구라는 수업도 듣고 농사도 지으면서 자연에 대해 점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나는 논문을 쓰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배우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는 많은 고민을 했고 나는 내가 살면서 뭐를 했지 고민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접했고 재미있게 했던 수업들이 생각났고 나는 그러면서 이 주제를 고르게 됐다.

2. 논문의 목적

내가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은 일단 내가 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 도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작은 바람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학교 사람들은 나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을 보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3. 연구방법

1) 참고사이트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 나무 이야기 가져온 사이트

2) 참고서적 윤주복 지음 나무해설도감

고규홍 지음 알면서도 모르는 나무이야기

장 앙리 파브르 지음 추돌란 풀어썹 파브르 식물이야기1,2권

II. 본론

1. 나무

1) 나무의 종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보통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한 침엽수 그리고 나뭇잎이 평평하게 생긴 활엽수 그리고 과일나무를 말하는 유실수로 3가지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잎사귀가 사계절동안 붙어있는 상록수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는 낙엽수로 나뉜다.

(1) 침엽수

침엽수는 나뭇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바늘잎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침엽수는 건조와 추위를 잘 버텨서 북반구에 위도가 높은 곳에서도 잘살아서 침엽수림으로 많이 볼 수 있다. 침엽수는 낙엽수 보다는 상록수가 많으며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침엽수는 소나무,향나무 등 대부분 잎사귀가 사계절 동안 떨어지지 않고 뾰족한 잎사귀를 갖고 있지만 은행나무처럼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하지는 않고 잎사귀가 가을쯤 떨어지는 침엽수 나무도 몇 가지 볼 수 있다. ¹⁾



(2) 활엽수

나뭇잎이 평평한 나무를 총 틀어서 활엽수라고 한다. 활엽수는 꽃이 다양하고 화려한 꽃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근처에는 활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들은 거의 활엽수라고 할 수 있다. 활엽수 흔히 느티나무나 벚나무 같이 잎사귀가 뽕족하지 않고 평평한 잎을 가진 나무를 활엽수라고 한다.²⁾



(3) 유실수

유실수는 그냥 과일나무를 뜻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과일나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인업에서 과일나무를 유실수라고 부른다. 유실수는 사람들이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 기르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한다. 그리고 유실수는 흔히 밤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같은 나무를 유실수라고 한다.³⁾



(4) 상록수

상록수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나무를 상록수라고 한다. 상록수는 1년 내내 잎사귀가 푸른색으로 있는 나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상록수는 상록침엽수로 상록침엽수는 소나무 같은 잎이 뽕족하고 1년 내내 잎이 푸른색을 띠는 나무를 말한다. 그리고 상록수는 2개의 종류로 상록침엽수 말고도 상록활엽수도 있다. 상록활엽수는 동백나무 같은 나무를 상록활엽수라고 한다. 상록활엽수는 상록침엽수처럼 잎사귀가 1년 내내 푸른색이지만 잎사귀가 소나무처럼 뽕족한 침엽수가 아니고 잎이 넓은 활엽수다. 그래서 상록수는 상록침엽수, 상록활엽수 2개로 나눈다.⁴⁾



1)[네이버 지식백과] 침엽수 [conifer, 針葉樹]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8399&cid=40942&categoryId=32685>
 2)[네이버 지식백과] 활엽수 [broad-leaved tree, 闊葉樹]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514&cid=40942&categoryId=32310>
 3) [네이버 지식백과] 유실수 [fruit trees, 有實樹]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583&cid=40942&categoryId=31884>
 4)[네이버 지식백과] 상록수 [evergreen tree, 常綠樹]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9708&cid=40942&categoryId=32310>

(5) 낙엽수

낙엽수는 쉽게 말하면 봄에 새싹이 나와서 가을쯤 잎사귀가 떨어지는 나무를 낙엽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낙엽수는 쌍떡잎식물이 대부분이지만 은행나무 같은 겉씨식물에도 낙엽수가 있다.⁵⁾



2) 나무의 잎사귀 종류

(1) 복엽

복엽은 아카시처럼 긴 줄기에 작은 잎이 여러 개가 1개의 잎사귀로 치는 나무를 복엽이라고 한다. 복엽은 단엽에 반대말로 하나의 잎이 아닌 2개 이상인 것이 복엽이라고 한다.



(2) 단엽

단엽은 이름처럼 한 개의 잎이다. 복엽에 반대말로 홀잎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엽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잎사귀가 여러 개가 한 장인 복엽이 아니고 잎사귀가 한 장이 있는 것을 단엽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엽보다는 단엽인 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3) 우리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들

우리 근처(기숙사, 기숙사 가는 길, 저수지 가는 길, 학교)에는 많은 나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나뉘지는데 우리 근처에는 60종에 나무가 살고 그중 침엽수가 6종 나머지 54종의 활엽수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는 침엽수 보다는 활엽수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⁵⁾[네이버 지식백과] 낙엽수 [deciduous tree, 落葉樹] (두산백과)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591&cid=40942&categoryId=32310>

(1) 침엽수

향나무,눈향나무,스트로브 잣나무,주목,은행나무,소나무

(2) 활엽수

두릅,참,쉬나무,등나무,아카시나무,사위질빵,짚레꽃,불나무,모란,족제비싸리,주엽나무,고욤나무,느티나무,벗나무,백목련,복숭아나무,산수유,황매화,개나리,살구나무,단풍나무,매실나무,무궁화,담쟁이덩굴,오동나무,산뽕나무,양버즘나무,보리수,자두나무,영산홍,배나무,쥐똥나무,감나무,노박덩굴,신나무,밤나무,헛개나무,떡갈나무,개암나무,참싸리,호두나무,골담초,대추나무,산초나무,버드나무,호랑버들,오미자,박태기나무,옻나무,이팝나무,라일락,앵두나무,사철나무,느티나무

2. 도감

1) 도감이란

도감은 사람들이 식물이나 동물 등을 쉽게 알기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보통도감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책으로 어떤 것의 사진,그림 등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설명 하는 글로 어떤 것을 설명하는 책이 도감이 라고 한다.⁶⁾

2) 도감의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감의 종류는 설명글과 사진을 넣은 도감 그리고 세밀화를 그려서 넣은 도감 아니면 나무 이야기를 넣어서 만든 도감 등 많은 종류의 도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

3) 내가 만드는 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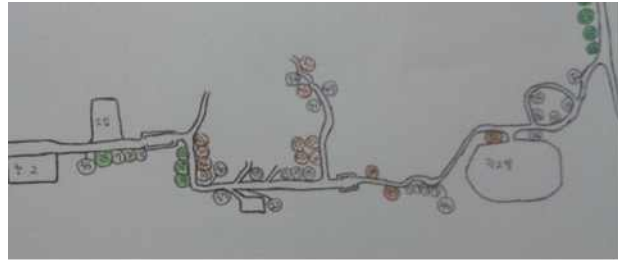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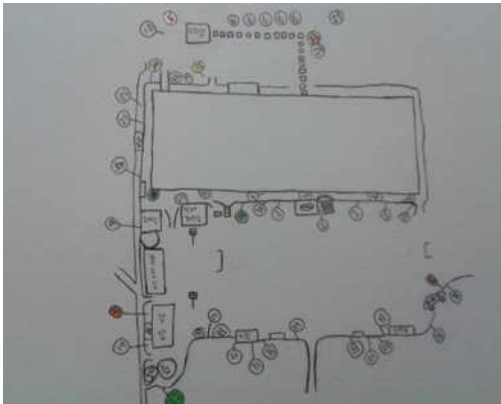
내가 만든 도감은 일반 도감과 다르게 만드는 것을 중점에 두고 만들어서 내가 만든 도감은 일반 도감과 다르게 만들었다. 내가 만든 도감은 일단 여는 글로 시작된다. 도감은 일단 나무를 설명하기 전에 학교 근처지도를 넣어서 어떤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었고 지도 중에 제철 열매들을 모아서 제철 열매 지도도 만들었다. 그리고 지도를 다 보고 뒤에 나무설명은 어떤 나무에 얹힌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같은 것을 넣고 나무설명을 넣고 나무설명글 밑에 그 나무가 있는 위치를 작은 지도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그 나무에 사진을 넣어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도감은 대상을 전문가 보다는 나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설명글을 쉽게 만들었다.

4) 도감 만들기

일단 한글 파일로 틀을 잡고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틀을 한 개씩 채워 나가야된다. 사진을 넣으면 나무 설명 글을 채워 넣고 그 나무에 얹힌 이야기를 넣으면 나무설명은 끝난다. 그리고 앞부분에 지도를 그린다음에 지도를 넣고 제철과일지도도 넣는다. 그리고 나무 기본설명에 침엽수,활엽수,단엽,낙엽수 등을 사진과 짧은 설명글을 넣는다.

6) 네이버 어학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F%84%EA%B0%90&query=%EB%8F%84%EA%B0%90&targ=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제철열매지도도 앞부분에 넣었다. 초록색은 4월~7월에 열리는 열매 갈색은 7월10월에 열리는 열매다.

5) 내가 만든 도감과 일반 도감의 차이점

보통 우리가 보는 도감은 설명글과 사진이 있는 도감이다. 요즘은 이런 도감 말고도 그림과 이야기 등으로 도감을 만든 사람들 있다. 내가 만든 도감은 일단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 나무설명을 넣었다. 나무 기본 설명은 침엽수, 낙엽수, 복엽 등 나무의 몇 가지 종류를 짧은 설명글과 사진으로 설명해 놨다.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학교, 저수지 가는 길, 기숙사, 기숙사 가는 길) 지도를 넣었고 지도 중 제철과 열매 지도를 만들어서 넣었다. 제철열매지도는 어느 때 무슨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나무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일반도감과 비슷하게 만든 면도 있다. 그냥 그 나무에 설명글을 넣고 사진을 넣었다. 근데 여기서 나무 설명글 바로 아래에 그 나무에 얹힌 옛날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넣어서 딱딱한 도감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도감과 일반도감의 차이는 이야기와 앞에 있는 지도가 가장 큰 차이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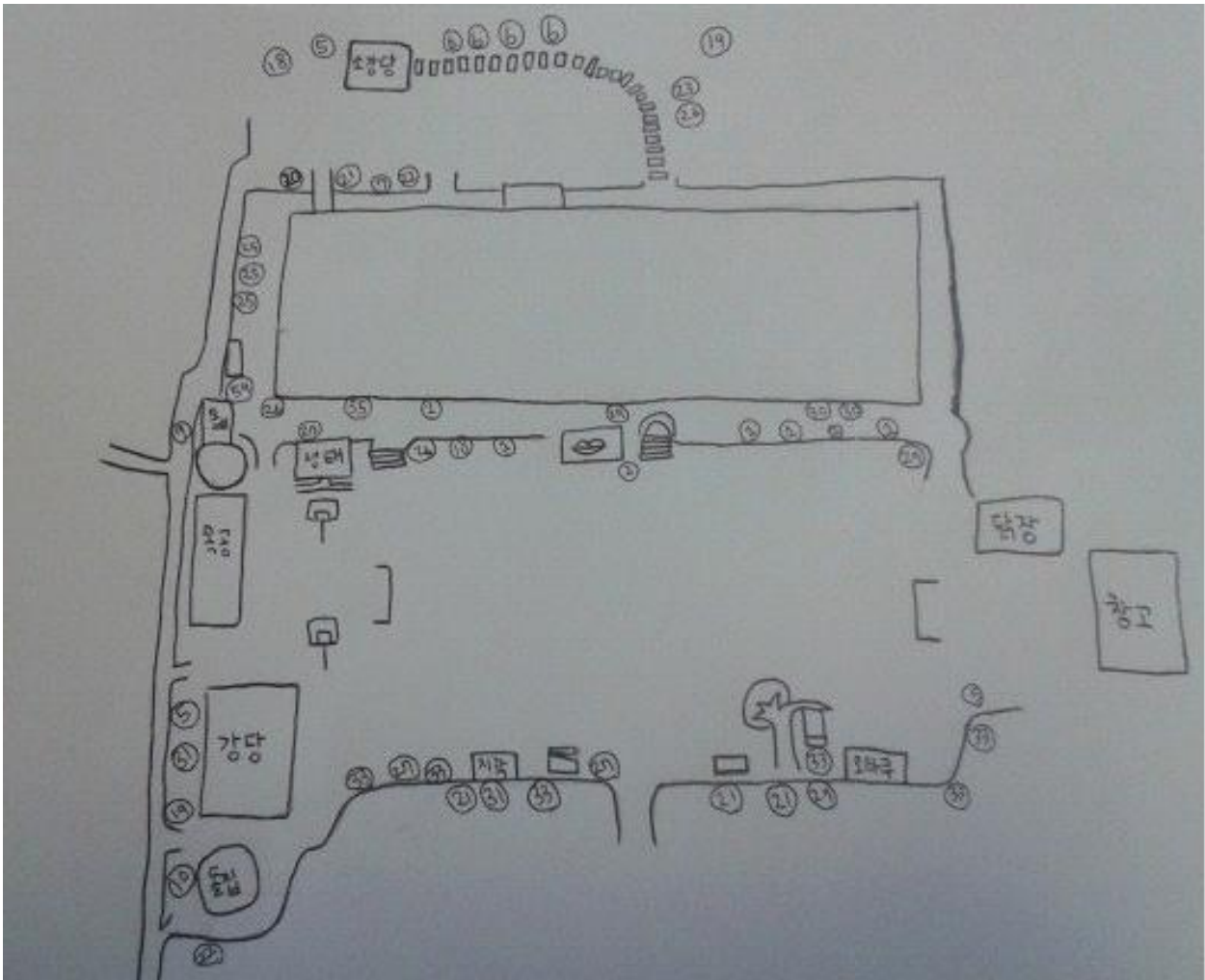
3. 지도

1) 내가 만드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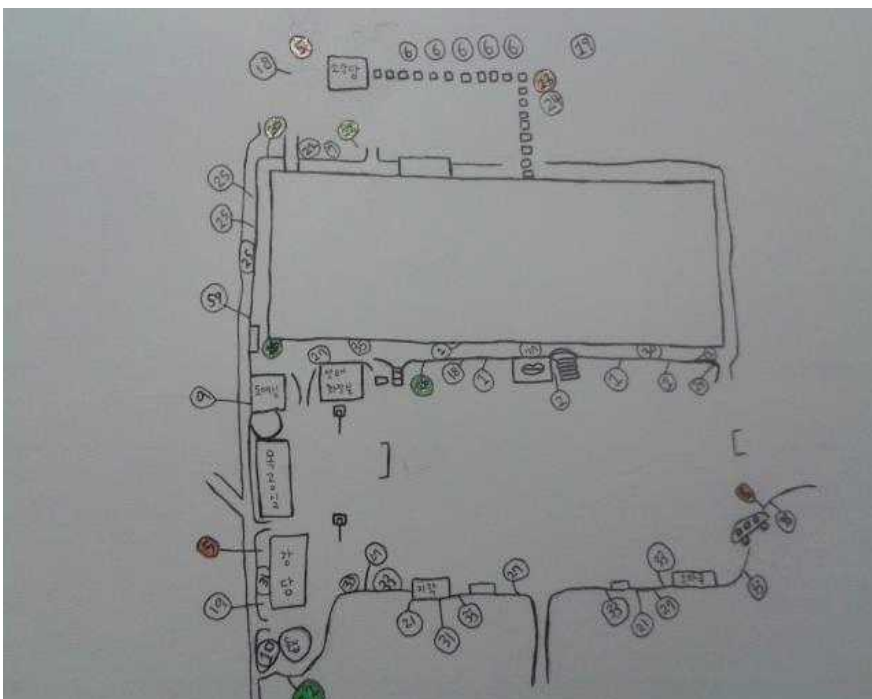
내가 만드는 지도는 내가 만드는 도감 앞에 들어가는 지도 이다. 지도는 보통 지도처럼 그 위치를 그리고 나무에 번호를 붙인다. 만약에 00나무가 1번인데 00나무를 찾고 싶으면 지도에서 1을 찾으면 되는 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구역마다 제철 열매들이 열린 곳을 4월~7월과 7월~10월로 나눠서 4월~7월은 초록색 7월~10월은 갈색으로 표시해 놨다.

2) 학교지도

1. 향나무 2. 눈향나무 5. 은행나무 6. 소나무 7. 두릅나무 9. 쉬나무 10. 등나무 18. 고욤나무 19. 느티나무 20. 뽕나무 21. 백목련 22. 복숭아나무 23. 산수유 24. 황매화 25. 개나리 26. 살구나무 27. 단풍나무 29. 무궁화 30. 담쟁이덩굴 31. 오동나무 33. 양버즘나무 35. 자두나무 59. 사철나무



(2) 학교 제철열매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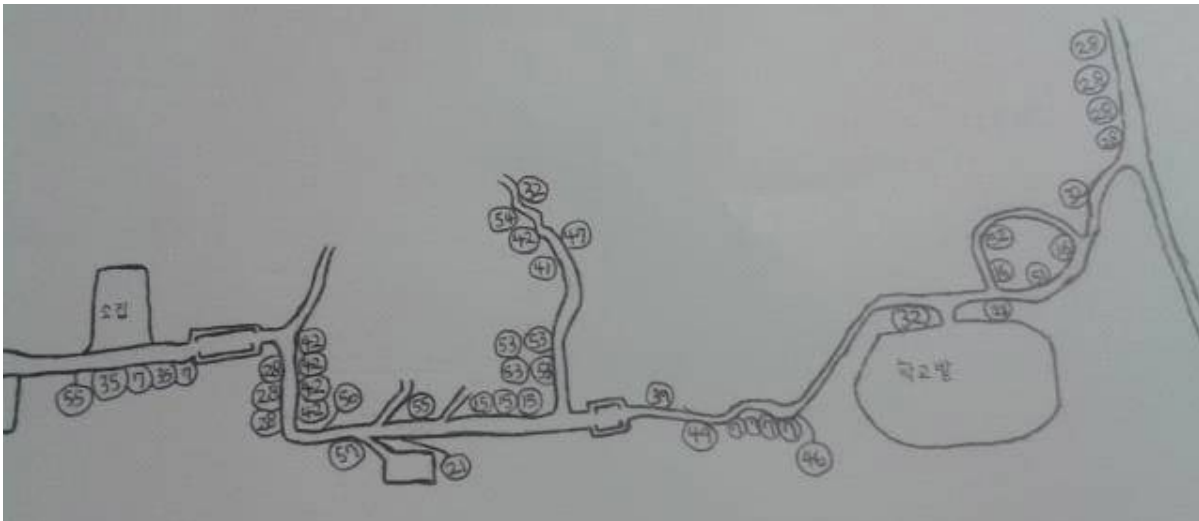
초록색은 4~7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 7~10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행나무(5),산수유(23),산뽕나무(32)보리수(34),배나무(37),감나무(39),밤나무(42),호두나무(47),대추나무(49),오미자(53)

초록색:벚나무(20),복숭아나무(22),살구나무(26),매실나무(28),자두나무(35),앵두나무(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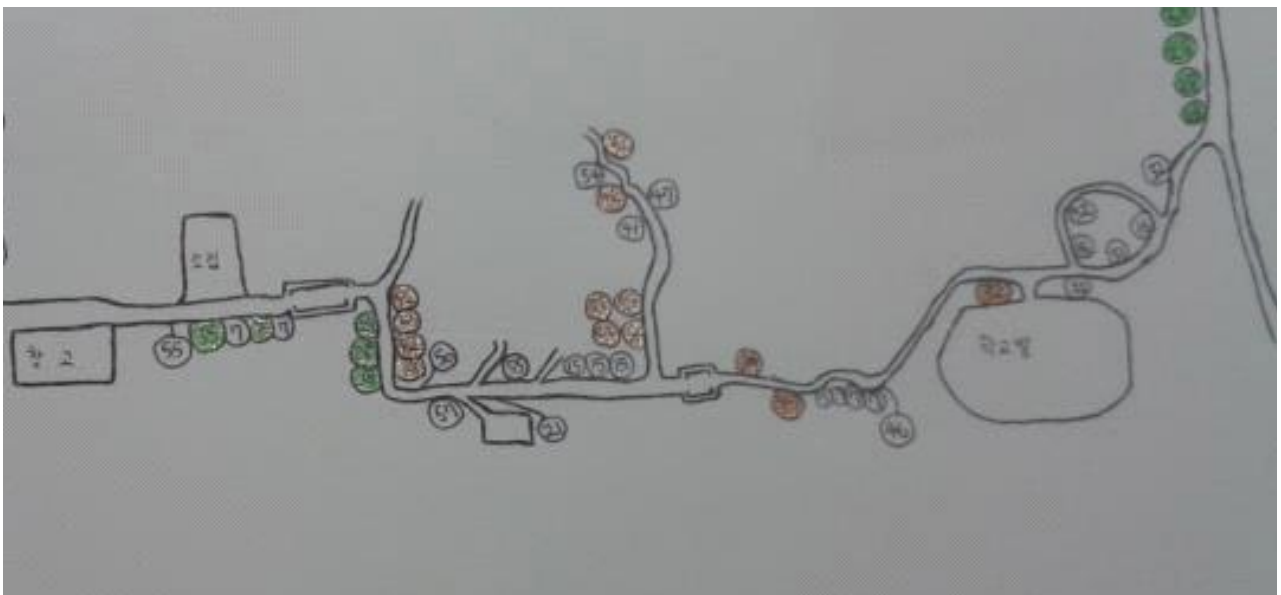
3) 저수지 가는 길지도

7.두릅나무 8.철 9.쉬나무 15.모란 16.족제비싸리 28.매실나무 32.산뽕나무 35.자두나무 39.감나무 42.밤나무 46.참싸리 49.대추나무 51.버드나무 52.호랑버들 53.오미자 54.박태기나무 55.읍나무 57.라일락



(3) 저수지 가는 길 제철열매 지도

초록색은 4~7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 7~10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행나무(5),산수유(23),산뽕나무(32)보리수(34),배나무(37),감나무(39),밤나무(42),호두나무(4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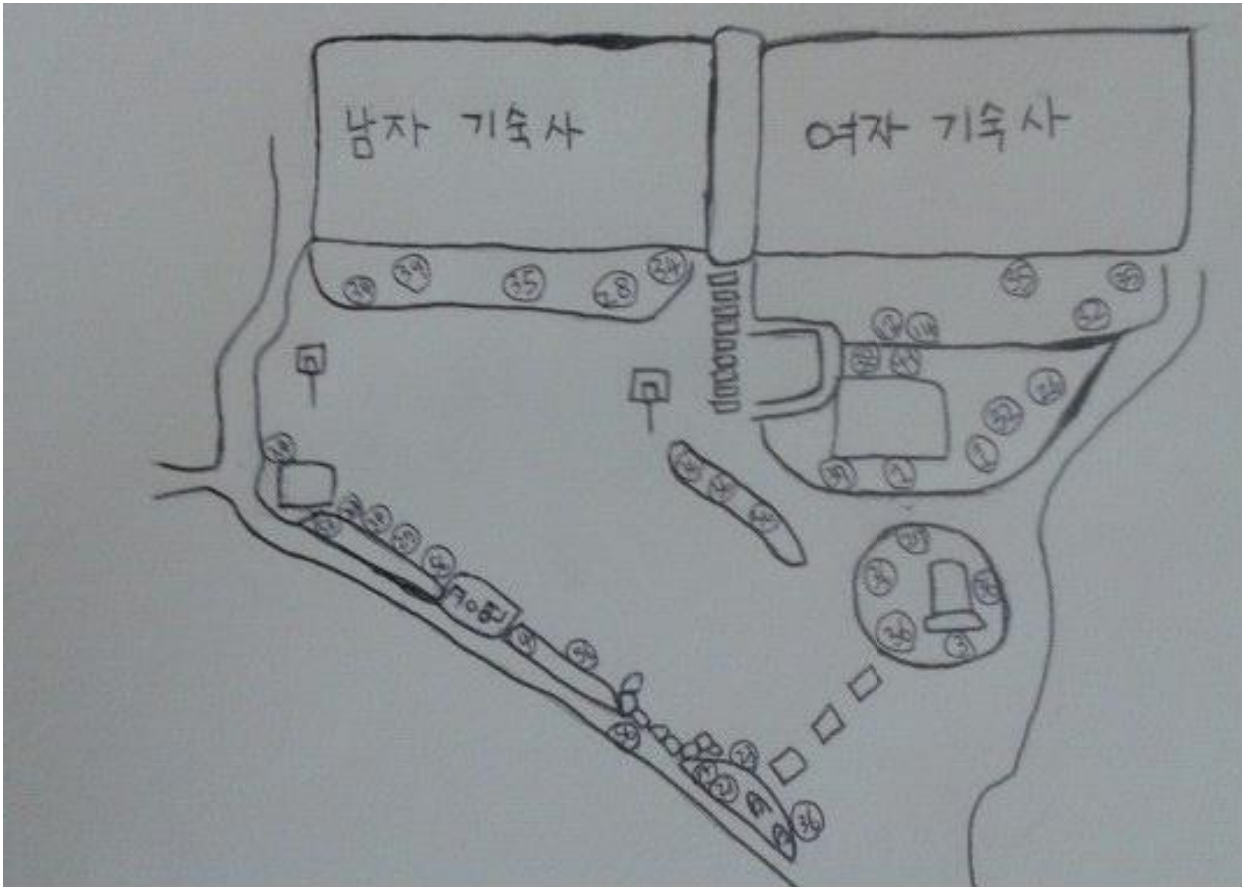
안상윤 - 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로 도감 만들기

추나무(49),오미자(53)

초록색:벚나무(20),복숭아나무(22),살구나무(26),매실나무(28),자두나무(35),앵두나무(58)

4) 기숙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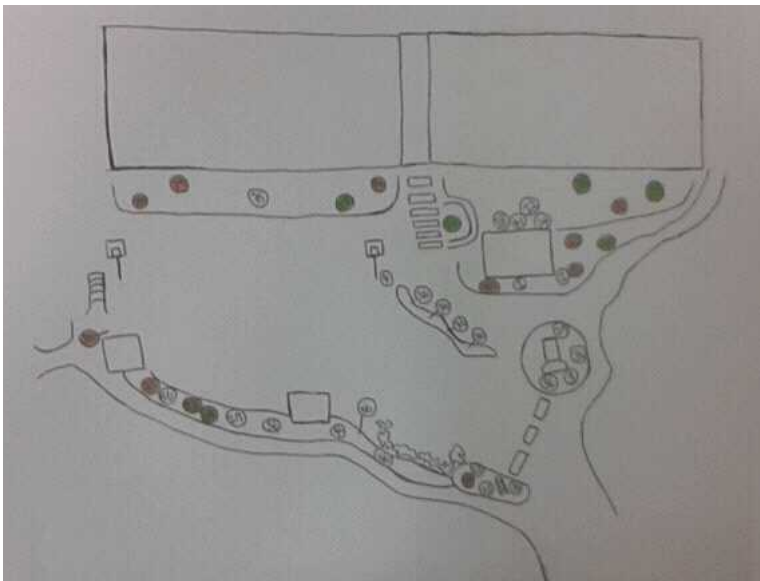
3.스트로브잣나무 4.주목 5.은행나무 12.사위질빵 13.찔레꽃 14.붉나무 23.산수유 26.살구나무 27.단풍나무 32.산뽕나무 34.보리수 35.자두나무 36.영산홍 37.배나무 39.감나무 57.라일락 58.앵두나무



(4) 기숙사 제철열매 지도

초록색은 4~7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 7~10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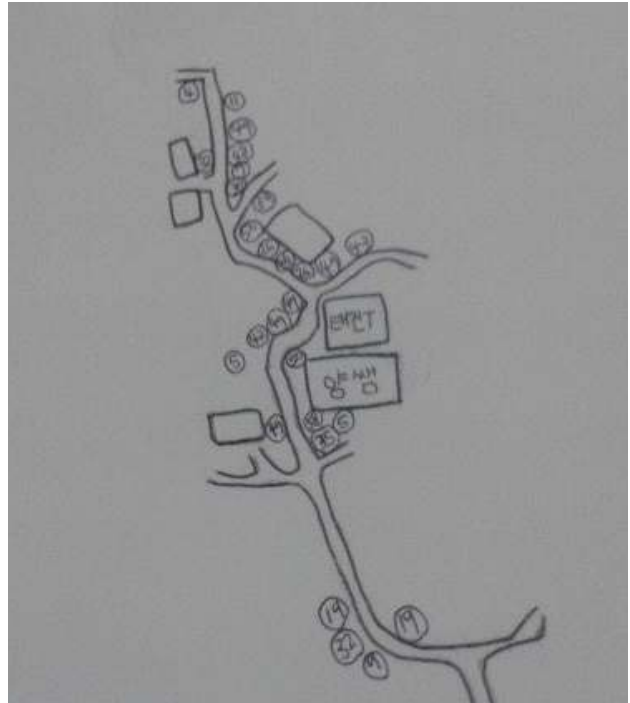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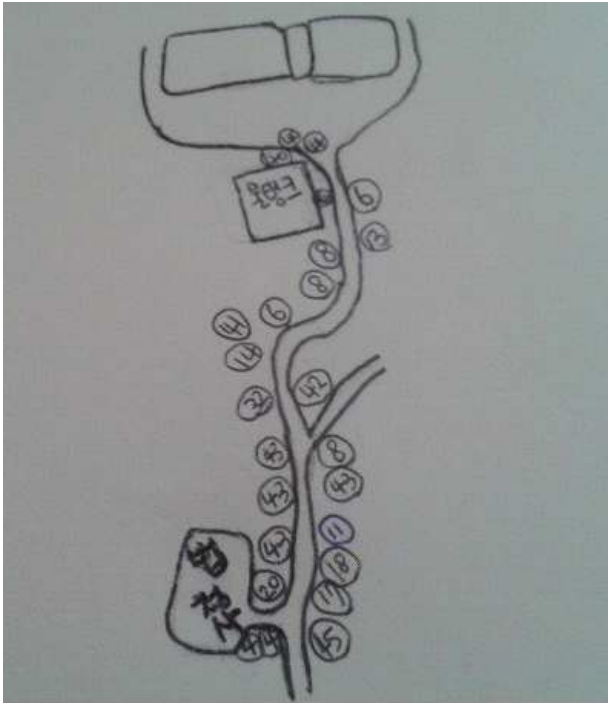


갈색;은행나무(5),산수유(23),산뽕나무(32)보리수(34),배나무(37),감나무(39),밤나무(42),호두나무(47),대추나무(49),오미자(53)

초록색:벚나무(20),복숭아나무(22),살구나무(26),매실나무(28),자두나무(35),앵두나무(58)

5) 기숙사 가는 길지도

4.주목 6.소나무 8.철 11.아카시나무 13.쫄레꽃 14.붉나무 17.주엽나무 18.고욤나무 20.벚나무 32.산뽕나무 40.노박덩굴 41.신나무 42.밤나무 43.헛개나무 44.떡갈나무



4.주목 5.은행나무 7.두릅나무 9.쉬나무 11.아카시나무 19.느티나무 26.살구나무 30.담쟁이덩굴 32.산뽕나무 35.자두나무 39.감나무 42.밤나무 47.호두나무 48.골담초 49.대추나무 50.산초나무 58.앵두나무

(5) 기숙사 가는 길 제철과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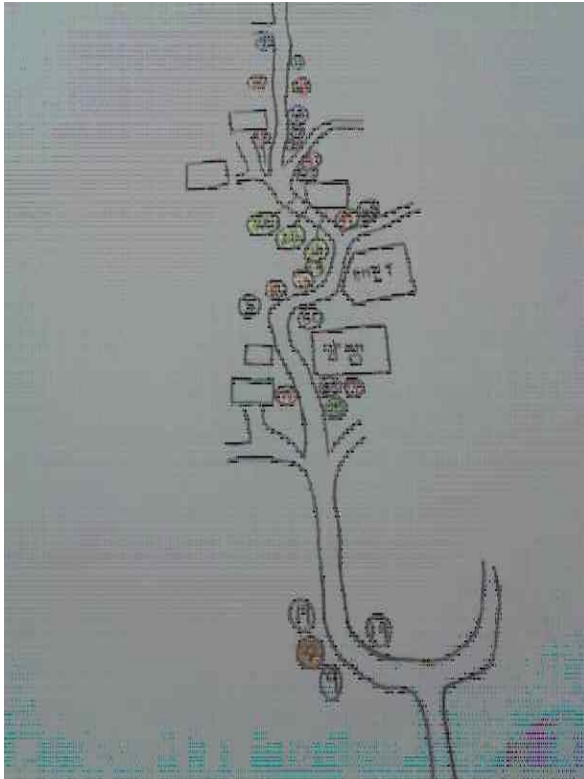


초록색은 4~7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 7~10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 은행나무(5), 산수유(23), 산뽕나무(32)보리수(34), 배나무(37), 감나무(39), 밤나무(42), 호두나무(47), 대추나무(49), 오미자(53)

초록색:벚나무(20), 복숭아나무(22), 살구나무(26), 매실나무(28), 자두나무(35), 앵두나무(58)

(5) 기숙사 가는 길 제철과일 지도



초록색은 4~7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은 7~10월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갈색; 은행나무(5), 산수유(23), 산뽕나무(32)보리수(34), 배나무(37), 감나무(39), 밤나무(42), 호두나무(47), 대추나무(49), 오미자(53)

초록색:벚나무(20), 복숭아나무(22), 살구나무(26), 매실나무(28), 자두나무(35), 앵두나무(58)

Ⅲ. 결론

1. 논문한계점

나의 논문의 한계점은 내가 나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논문을 쓰면서 조금씩 힘들 때가 있었다. 그리고 논문의 한계점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이 주제를 잡기도 전에 피고 진 꽃들을 못 찍은 것도 이번 논문의 한계점 이다.

2. 논문을 마치며

이 글은 논문의 목차를 만들면서 가장 쓰고 싶은 글이었다. 나는 논문을 시작할 때는 내가 논문을 다 써서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하면서 논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보냈다. 1차 발표를 할 때는 정말 민망해서 발표가 정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리고 2차 발표를 준비할 때는 정말 이번에는 죽어도 통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썼다. 다행히 논문을 통과해서 이 글을 기쁘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진짜 나름 열심히 논문을 썼다. 나는 이번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성장 한 것 같다. 진짜 논문은 엄청 쓴 한약 같다. 왜냐면 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자기에 게 도움이 되는 것

나름 이번 논문을 쓰면서 내가 조금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좋았다.

3. 평가

숲해설가 이정란 선생님

지도도 직접 그려서 넣고 열심히 한 노력이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나무 이야기 부분에 이야기와 연관된 직접 그려 넣은 손 그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일반적인 도감과 달리 골라 읽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시중에 나온 도감들이 딱딱한 편인데 청소년이 만드는 도감이라 상상력을 더 해서 '나는 누구의 열매일까' 이런 말풍선을 넣은 그림이 있었으면 독특하고 재미있었겠다.

숲해설가 정선미 선생님

또래 아이들과 해 볼 수 있는 숲 놀이나 만들기 같은 것을 넣어 봐도 좋았겠다.

단풍나무 씨앗 날리기, 도토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 등을 중간 중간 삽화로 넣어도 읽는 재미가 많을 것 같다.

종명쌤

상윤이의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돌아다녔을지. 이 도감이 많이 쓰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학교철학인 만큼 이 책이 수업이나 체험활동, 학급활동 등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4. 도서관 배치

이번 논문으로 만든 논문 작품 1개는 모두들과의 공유를 위해 도서관에 배치 할 것이다.

5. 감사한사람들

일단 진짜 못난 제자를 받아주고 키워준 쌤, 그리고 진짜 못난 아들을 도와준 엄마 아빠, 옆에서 많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많이 도와준 정택이, 그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준 1차 친구들, 옆에서 2차는 하라고 말해준 많은 형들, 논문 쓰면서 내가 옆에서 서 계속 양탈 부릴 대로 부리고 은근 도와준 성민이, 많이많이 수고한 우리반아이들, 자기들 1차하고 나를 도와준?101호 형서 정택, 내가 논문 안 쓰고 있을 때 놀아준 산이형, 형근이형, 내가 집에서 정신 못 차리고 게임할 때 같이 피파한 형규형,

곧 통과를 주실 것 같은 쌤들,

모두 사랑합니다!!!

부록

1. 작품일지

7월31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나무를 조사하기 위해 집에서 엄마와 덕산 으로 갔다. 계획서를 쓰고 처음으로 도감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엄마와 버스를 타고 덕산에 가서 나무를 조사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쯤 도착해서 가람이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8월1일

오늘은 일찍 끝내고 집에 빨리 갈 목표를 잡고 오늘을 시작 했다. 엄마와 나는 가람이집에서 가람이네 차를 타고 기숙사로 갔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무작정 나무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지도를 대충 그려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적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나무를 조사했다. 근데 기숙사에 있는 나무를 조사한지 10분쯤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시작을 했다. 엄마와 나는 다 행이 기숙사에 있는 나무를 다조사하고 이제 기숙사 가는 길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막막했다. 왜냐면 기숙사 가는 길에는 나무도 엄청 많았고 기숙사 가는 길은 너무 길었다. 엄마와 나는 기숙사 내려 가는 길을 시작 했고 엄마와 나는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속도를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기숙사 가는 길을 다 조사하고 학교에 가서 우리는 빵을 먹고 다시 나무 조사를 했고 학교에 있는 나무들은 빨리 조사를 끝냈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바로 저수지 가는 길을 조사했다. 우리는 요령이 생겨서 빨리 빨리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저수지 가는 길도 빨리 끝내고 그 길을 따라 덕산에 가서 집에 갔다. 오늘은 저수지 가는 길, 학교, 기숙사 가는 길, 기숙사에 있는 나무를 다 조사했다. 오늘부터 도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 됐다. 하여튼 오늘은 진짜 힘든 하루였다.

8월3일

오늘은 이틀 전에 조사했던 나무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나무에 특징을 조사를 시작 했다. 조사는 책에서 찾아서 나무에 특징을 적는 것을 했는데 이일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책에서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조사했기 때 도감에 틀을 잡고 바로 넣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도감에 틀을 잡고 바로 넣으면 될 수 있게 됐다. 근데 나무의 특징을 찾아서 적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해서 내일도 해야 될 것 같다.

8월4일

오늘은 도감에 틀을 잡는 것에 집중했다. 나는 엄마가 만든 것도 보고 일반 도감도 보고 어떻게 만들면 나의 독창성이 있고 멋진 도감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그림을 그릴까 생각 해봤고 시를 써서 넣을까 완전 요상한 아이디어만 생각하다가 하루에 3/2가 지나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3/1은 밤을 세면서 나무특징 조사 작업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8월5일

요즘은 방학인지 계속 놀게 돼서 무언가라도 써야지 하면서 컴퓨터를 켜다. 그리고 나무특징 조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무작정 책에서 나무의 특징을 찾아서 정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책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해서 적으려니 너무 어려워서 느리게 하다 보니 이런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내가 방학 때 논문을 아침에는 자고 놀다가 밤10시부터 새벽4시쯤 까지 쓰다가 자서 오전은 다자고 오후에 놀다가 밤10시에 쓰고 하면서 논문을 써서 늦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무특징 조사하는 일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8월16일

오늘은 계속 놀다가 오랜만에 논문 폴더를 켜다. 오늘 하루는 나무 특징조사를 끝내기로 작정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나무조사를 끝냈다. 그래서 한 개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았다.

8월22일

오늘은 방학이 얼마 안남은 날이다. 나는 이제 늦었지만 막판스퍼트를 부치기 시작했다. 오늘은 저번에

나무 조사할 때 쓴 지도를 복잡하게 써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나무 정리가 끝난 줄만 알았지만 내가 보기에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을 했다.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도 쉽지는 않아서 오늘 안에 끝내지 못했다.

8월23일

오늘은 방학마지막 날이다. 진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방학이 자났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어려운 말 쉬운 말로 바꾸는 일만 밤새 해서 겨우 끝을 냈다.

8월24일

밤을 새서 어제 하던 일을 새벽에 끝내서 “아 쉬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썸이 하신말씀 생각났다. 방학 때 한 것들을 우리 반 끼리 PPT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나는 아직 그걸 안 만들어서 아침에 대충 만들고 학교에 갔다. 내가 방학동안 한일은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는지와 나무에 특성을 다 적었다. 이게 내가 방학동안 한일이다. 나는 무언가 아쉬웠다.

9월25일

계속 놀기만 하다가 예전에 하던 도감구상을 다시 시작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단 필썸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샘플로 한 개만 만들어서 필썸에게 보냈는데 나는 내가 만든 샘플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추가해야 될 것 같다.

9월26일

오늘은 어제 만든 샘플을 보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N드라이브에 있던 사진을 USB에 넣어서 아는 나무와 모르는 나무를 나눠서 폴더를 만들고 도감에 사진 칸에 사진을 조금 넣어봤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나중에 수정을 해봐야겠다.

9월27일

오늘은 특별히 다른 일은 안하고 사진 칸만 계속 채워 넣었다. 근데 몇몇 사진들은 흔들리거나 이상하게 찍어서 몇 개의 사진은 넣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나무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볼까 생각만 하고 엄마에게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은 나름 사진을 많이 넣었다.

9월29일

오늘도 어김없이 도감에 사진 칸만 채워 넣었다. 내가 조사한 나무가 이렇게 많은 양 인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조금 게으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결국 모든 사진을 넣지 못했다.

9월30일

오늘은 수업이 많은 날 이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적은 양에 일박에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 진짜 아쉬웠다. 그리고 내가 아는 나무들은 거의 다 안 남았는데 모르는 나무사진이 많아서 걱정이다. 책에서 하나하나 찾기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났다.

10월1일

오늘도 사진을 넣는 작업을 했다. 근데 내가 아는 나무사진은 다 넣어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나무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 생각만 하고 미룬 엄마에게 보내는 것을 했다. 오늘은 내가 아는 나무사진을 다 넣고 엄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0월2일

오늘은 내가 어제 엄마한테 보낸 메일이 답장이 와서 엄마가 보내준 메일을 보고 내가 몰랐던 나무사진을 넣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놀아서 사진을 많이 넣지 못했다.

10월3일

오늘은 집에 와서 도감에 나만 에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감을 만들면 좋을까 나만 에 독창적인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고민만하고 하루가 지났다.

10월4일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일을 한 것 같다. 왜냐면 도감 구상한 것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했다. 월래 나의 도감구상은 그림과 사진을 넣고 설명하는 것이 옛날 구상이었다. 근데 나는 왜 사진이 있는데 구지 그림을 넣어야 되나 싶어서 그림을 빼고 그 자리에 나무마다 얇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넣는 것으로 바꿀까 생각이 들어서 필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0월5일

오늘은 필썸에게 보낸 이메일 답장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넣었다. 근데 집에서 학교를 가야해서 사진 넣는 것을 진짜 조금 밖에 못했다.

10월6일

오늘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새벽12시까지 남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나는 묵학 때 엄마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서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기숙사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오늘은 진짜 있는 사진을 다 넣어야지 마음을 잡고 시작했고 나는 있는 사진을 다 넣어서 사진이 없는 나무를 조사해서 옛날에 찍은 사진 중에 있나 확인 하고 모르는 나무사진은 엄마한테 보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지 몰라서 내가 만들고 있는 도감을 엄마한테 평가해달라고 했다.

10월7일

오늘은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는 논문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묵학 때 작품일지를 쓰고 오늘은 엄마가 이메일을 보낸 피드백을 보고 도감을 조금 전문가들이 보는 것 보다는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쉬운 말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도감에서 나무를 설명하는 것을 쉽게 바꾸고 나무에 얇힌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찾아서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을 넣어서 이제는 넣을 사진은 다 넣었고 사진이 없는 나무를 찾아서 예전에 찍은 사진 중에 그 나무가 있나 찾아봤다.

10월26일

이번에 가정학습을 하면서 집에서 논문을 쓰게 됐다. 1차 발표 뒤 정말 오랜만에 논문을 커니까 조금 찼었다. 이번에 주프를 하면서 하루를 늦게 집에 왔고 오늘밤에 집에 도착했다. 나는 지금 틀은 다 잡혀 있어서 내용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못 찍은 나무들의 사진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도감에 넣었다. 오늘은 사진만 넣다가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끝냈다.

10월27일

가정학습이라 그런지 집에서 누워서 놀다가 밤이 되니까 논문을 커서 쓰는 것 같다. 오늘은 사진을 넣은 것을 다 정리하고 나무 이야기를 넣을 준비를 하고 몇 개의 나무이야기를 넣어봤다. 근데 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다.

10월29일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데 집에 오니까 집중은 잘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1차 발표 끝나고 2차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하면서 평가 평가 놀다가 논문을 쓰려니까 너무 귀찮아

서 엄청난 소량의 사진을 넣고 그냥 놀았다.

10월30일

계속 노니까 너무 편해서 그냥 먹고 놀고먹고 놀고 하다가 하루가 지나기만 했다. 솔직히 논문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산 것을 후회할 것 같다. 오늘은 작품의 잡일을 조금하다가 잠에 들었다.

11월1일

하... 오늘은 가정학습 마지막 날이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가정학습을 후회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11월2일

이번 가정학습 때 아침에는 자고 점심에는 놀고 밤에서 아침까지 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가정학습을 보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 같다. 오늘은 학교를 가는 날 이여서 아침에 조금 막판 스퍼트를 하고 학교로 갔다.

11월7일

오늘은 비폭력준간 마지막 날 이여서 그냥 논문을 시간이 없었다. 오늘은 필썸이 나를 불러서 도감에서 고칠 것을 알려드렸다. 그래서 나는 그걸 들고 가서 내일 집에가 수정할 생각이다.

11월8일

오늘은 특별히 논문의 위기감을 느껴서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안 되는 학교를 떠나 집으로 가서 논문을 켜고 도감 거의 마지막 작업을 했다. 집에 가기 전 필썸에게 도감에서 수정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번에는 진짜 마음을 잡고 논문만 집중했다. 사진 위치와 오타 그리고 지도 등의 일을 오늘 한 번에 몰아서 했다. 오늘은 하루가 아깝지 않게 지난 것 같았다.

11월9일

그냥 어제에 이어 밤을 세면서 작업을 하다가 2시쯤 깜박 잠에 들었는데 5시에 어찌다가 잠에서 깨서 다시 남은 일을 다 끝내고 평가를 받으려고 인쇄를 했다. 그리고 외부인 평가는 엄마가 다니는 곳에 게시는 숲 해설가분 2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 사람들 평가도 받아야한다. 일단 작품은 완성 시켰다.

3년간 나의 이야기로 춤 만들기

-finale-

지도교사: 고희라



이름: 안효원

좋아하는 것: 잘생긴 남자, 안효원, 웃을 때 이쁜 남자, 문서경놀리기, 김은수때리기,
딸기빙수, 냉면, 오리고기, 닭칼국수, 화덕피자, 간장치킨, 짬뽕, 불닭, 피스손짓하기,
공유, GD, TOP, 영배, 혁오, 이쁜사진 스크랩하기, 옷좋아행 ♥ 맹구

한줄후기:
짱짱맨!!!!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계획

II. 본론

1. 스트릿 댄스란?
 - 1) 스트릿 댄스의 정의
 - 2) 스트릿 댄스의 장르
2. 1 학년
 - 1) 효원의 1 학년 때 이야기 -설렘-
 - 2) 안무 구성
 - (1) 음악 선정
 - (2) 안무 구성하기
3. 2 학년
 - 1) 효원의 2 학년 때 이야기 -혼란-
 - 2) 안무 구성
 - (1) 음악 선정
 - (2) 안무 구성하기
4. 3 학년
 - 1) 효원의 3 학년 때 이야기 -새로운 시작-
 - 2) 안무 구성
 - (1) 음악 선정
 - (2) 안무 구성하기
5. 공유 및 피드백
 - 1) 논문 작품 발표의 밤
 - 2) 댄서의 피드백 -프리픽스 멤버-
 - 3) 유튜브 공유
페이스북 공유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 1) 논문의 한계점
 - 2) 논문을 마치며
2. 부록
 - 1) 일지
 - 2) 방문 및 탐방
3. 감사하오!!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사진과 춤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나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욕심에 채 가지 못하는 끈기가 문제다. 계속 논문의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까먹었 던 것 같다. 하도 내가 좀 팔랑 귀여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뿌리쳐내지 못하고 내 중심이 자꾸 흔들려 버린다. 하지만 춤에게 있어서는 내 중심이 깨끗하게 서 있을 것 같다. 춤은 나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도 춤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춤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춤이 좋았다. 지금도 여전히 추고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내 미래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솔직히 평소에 생각한 춤들은 의무적이고 무대만을 위한,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춤이었다. 이 논문으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2. 논문의 목적

이 논문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싶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춤은 무슨 존재였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고 싶다. 지난 나의 3년간에 이야기를 춤으로 기록한다.

3. 연구방법 및 계획

이 논문의 형식은 작품논문이다.

참고서적

저자 홍신자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안그라픽스/1998

저자 홍신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 명진 출판사/2002

저자 조던 매터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시공아트/2013

참고사이트

<http://www.youtube.com/user/UrbanDanceCamp> - 유튜브 /채널 'unber dance comp'

방문 및 탐방

【FUNK STYLERS BATTLE WORLD FINAL】

일시. 2014. 8. 2 장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GUERRILLA VOL.3 FINAL】

일시. 2014.10.25. 장소.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

II. 본론

1. 스트리트 댄스란?

1) 스트리트 댄스란?

스트리트 댄스라는 용어가 언제 명명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한국에서는 99년 힙합 페스티벌 이후, 당시 내한했던 세계적 댄서들이 스트리트 댄스라는 용어를 소개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스트리트 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대가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7080년대에 미국 뉴욕과 LA에서 흑인문화를 기반으로 한 펑크, 소울, 브레이크 비트, 힙합의 문화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처음부터 춤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 자연스럽게 흑인들이 문화를 즐기며 형성화되었다보니 그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살가, 탭댄스, 블루스 등 여러 가지 춤이 많이 녹아들어있다. 스트리트 댄스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포괄하자면 클럼프, 비밥, 레게들 혹은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는 모든 장르들도 포함이 된다.

2) 스트리트 댄스의 장르

스트리트 댄스라는 범주에 어떤 춤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애매하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세계적인 스트리트 댄스 대회들에 포함되는 장르들을 보자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즈, 힙크, 하우스, 힙합 등 흑인음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스트리트 댄스 장르를 나눌 때 사용하는 old skool과 new skool 구분 역시 일반적으로 해당 장르가 유래한 음악 장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970-80년대의 힙크, 초기 힙합 음악 등에서 유래한 비보잉, 팝핑, 락킹 같은 장르들이 old skool로 불리는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음악들로부터 유래한 힙합(스트리트 댄스), 하우스 등의 장르가 new skool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old skool/new skool 구분은 종종 특정 장르 내에서의 오래된 스타일과 최근 스타일을 대조하는데도 사용된다. 일례로 비보잉은 장르 차원에서는 old skool 댄스로 분류되지만, 7-80년대 뉴욕에서 처음 발생한 원형을 고수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겨난 많은 변화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old skool 비보잉/new skool 비보잉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들은 서로 배타적인 구분은 아니며,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프리스타일러 혹은 올 장르 댄서(All genre Dancer)라는 표현도 사용되고는 한다.

New skool



hiphop

힙합은 대중 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동시에, 문화 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힙합이란 말은 ‘영덩이를 흔들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서서 추는’(standing) 힙합 댄스의 원류는 파티 댄스, 즉 흑인들의 전통적인 막춤(혹은 사교춤)이 힙합 음악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당초에는 1970년대 후반 뉴욕 할렘가에 거주하는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문화 운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따라서 힙합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화’ 라고 해야기도 한다. 힙합을 이루는 요소로는 주로 네 가지. 랩, 디제잉, 그래피티, 브레이크 댄스가 거론 된다.

House

스트리트 댄스 중 힙합과 더불어 가장 클럽 지향적인 장르. 이름처럼 하우스 음악, 박자에 맞춰 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카고에서 기원하나 본격적인 발전, 장르로서의 확립은 뉴욕 지역 댄서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풋워크, 잭킹, 로프팅을 기본 스타일로 삼아 춘다. 락킹, 힙합과 달리 하반신 스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체의 활용이 어렵지만 동시에 개인 표현의 영역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왁킹, 보잉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있다. 뉴욕을 기반으로 선장하면서 힙합과 같은 여타 스트리트 댄스의 동작을 흡수해왔으며, 포괄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장르를 명확한 틀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특징이다.

Voguing

1960년대 이후 뉴욕 할렘의 볼룸씬에 속한 게이들 및 트랜스젠더들에 의하여 시작된 춤이다. 이름에서 나타나듯 잡지모델들의 포즈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춤의 형태는 상술되었듯 기본적으로 잡지모델들의 부자연스러운 포즈들을 모사한 것에 기초한다. 음악은 주로 하우스 음악을 사용한다.



Krump

과격하고 폭발적인 움직임이 특징인 춤이다. 매우 자유롭고, 과장되어 있으며, 공격적이며, 넘치는 표현력으로 무장한 크럼핑은 젊은이들이 주먹세계를 탈피하고 비폭력으로 분노와 불만 등을 발산하는 것에 근간하여 제작된 장르이다. 1990년대 한 노래의 가사에서 따온 Krump는 "Kingdom Radically Uplifted Mighty Praise"의 약자이다. 신에게 나의 분노로서 찬양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

Old school



b-boy

60년대 말 이미 하우스 파지 등에서 기초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힙합의 본격적인 태동을 주도한 최초의 디제이이자 힙합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kool herc'의 하우스 파티에서 쿨허크는 두 개의 턴 테이블을 준비해 노래의 간주부분만을 연결해 트는 재주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 봉고리듬 간주부분의 연결을 '브레이크 비트'라고 함. 이 사건은 이후 디제이믹싱의 아이디어가 된다. 후에 이 브레이크 비트만 틀면 대뜸 난입해 춤을 추는 무리가 있었는데 쿨허크는 그들은 'Break Boy' 즉 'b-boy' 라고 명명하게 된다. 이 후로 비보잉하는 남자는 B-boy, 여자의 경우에는 B-girl 이라고 한다. 비보잉 안에서 풋워크나 톱락은 그것만으로도 장시간의 공연이나 배틀이 가능할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고 완성되어있는 독립의 가능성을 갖춘 춤이라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Waacking

1970년대 미국 서부의 게이 클럽에서 유래했다고 여겨지는 댄스다. 당시 방영했던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연하게 팔을 뻗는 왁(Waack) 동작, 모델처럼 인상적인 포즈를 취하는 포징(Posing), 그리고 춤을 추는 태도(Attitude)가 일반적으로 중시된다. 특히 왁킹에서 중시되는 것은 그 태도로, 비보잉에서 중시 되는 것이 패도적이고 전투적인 분위기, 락킹에서 중시되는 것이 익살스러운 분위기라면 왁킹에서는 고풍적이면서도 당당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 본토에서는 80년대 이후에 인기가 사그라졌으며 종종 디스코, 보킹과 혼동되기도 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디스코 시대 때

부터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댄서들 덕분에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면. 이는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Locking

1970년대에 돈 캠벨에 의해 처음 시작이 된 춤이다. 클럽에서 춤을 추던 돈 캠벨이 동작을 빼끗하는 바람에 마치 자물쇠가 잠기듯 몸이 푹하고 멈추었던 것이 주변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낸 사건에서 유래한 춤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춤들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요소는 마로 익살스러운 캐리걸. 물론 댄서들의 까라 그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바뀐다. 대 놓고 방정맞을 태도를 취하기도, 능청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치기 어리고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요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표정을 고수하는 춤이라는 것이다



poppin

197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노 출신의 부갈루 샘이 창안한 장르이다. 몸 부위 근육에 빠르게 힘을 주었다가 이완시키는 팝 시술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일반적으로 대회 등에서 다루어지는 팝핀 장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인 팝핀에 부갈루(Boogaloo),애니메이션(Animation),로보팅(Robotting),웨이브(Wave),터팅(tutting), 글라이딩(gliding)들이 부가된 형태이다.

2. 1학년

1) 효원의 1학년 때의 이야기

일학년 때는 그냥 재미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초딩 때부터 당연히 간디에 와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수업도 대충 듣고 간디학교의 입학 을 기다렸다.

좀 무료했던 것 같다. 그 이상으로 들떠있었긴 했지만. 그 때의 나는 좀 당돌했었다. 도서관에 난로 피우면서 옹기종기 모여 5학년 건장한 오빠들이랑 겁도 없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심지어 딱밤을 때리다니..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다. 근데 그런 당돌함이 없었더라면 학교생활은 재미 똥끼리도 없었을 것 같다.

모두 다 새로웠다. 밥을 학교에서 세 끼를 먹는 것도 새로웠고 매일 매일 청소해도 더러워지는 바닥을 쓰는 것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코부터 막는 것도, 기숙사에서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기숙사 올라갈 때 아른거리는 엄마 아빠 모습도 다 처음이었다. 처음 보는 언니들과 낯선 침대의 첫날밤은 아직도 생생하다. 눈 멀뚱멀뚱 뜨고 ‘내일부터 시작이구나.’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지금은 생각지도 못 할 6시 50분에 기상송 올리자마자 깨어났다. 퇴소한 것은 아마 7시 30분 쯤... 대박.

미지정(춤 동아리), 그 때 최대의 관심거리였다. 일학년 때 미지정 공개 면접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원더걸스의 ‘Tall Me’를 쳤는데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볼이 빨개지고 더워진다. 소름도 돋는다. 자꾸만 그 한 동작 한 동작 추는 내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래도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는다.

아..이 이야기는 그토록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일학년 때의 기억 중에 제일인 것 같아 하려한다. 진실게 임의 공식 질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바꿨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정말 이 리 오면 꺾기고 저리기도 꺾이고 도통 잘 가눌 수가 없다. 돌이키고 싶지 않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 뭐 취향은 변하니까 이해해본다. 그래도...ㅎㅎㅎ

왜 이렇게 1학년 때는 낯 부끄러운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까? 그래도 빈말이 아니고 이렇게 부끄럽고 볼이 빨개지지만 되게 소중한 기억이다. 나중에 커서 언젠가는 잊어버린 채 저 멀리 기억 어딘가에 묻어두고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갑자기 이런 추억이 다시 생각나면 행복할 것 같다. 조그만 웃음을 지을 지라도.

나의 주변 사람들

아빠: 걱정이 좀 많았지. 근데 언니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됐어. 효원이가 학교 입교하고 입학식을 하는데 효원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잘 지낼 수 있게 구나 싶어서 언니를 보내고 나고 학교를 알았기 때문에 잘 살겠거니 하기도 했어. 효원이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그 뒤로는 걱정 별로 안 했어.

언니: 일학년 때의 효원이는 천진난만했지. 그리고 착하고 단지 나한테는 보살펴야 하는 애였어. 그리고 너 일 학년 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뭐든 열심히 하는 게 보였어. 내가 뭔가 챙겨 주지 않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알아서 잘 해서 마냥 밝게 새로운 것들을 접했던 것 같아.

정종명 선생님(1학년, 2학년 담임): 긍정적이고 밝고 이미 간디를 알고 들어와서 여유 원래는 잘 모르니까 위축되기도 하는데 너는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 보였고 원래 성격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그렇지만 아마 그 전의 과거의 경험들이 일학년 때 적응한데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오빠나 언니들도 효원이를 잘 아니까 편안하게 대우 해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효원이의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친구들도 똑같이 적응했고 언니들 알고 오빠들도 아니까 효원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양상은 달라졌던 같아. 효원이 네가 되게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동아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지. 근데 조금 집중할 거리가 생겼던 때가 춤을 배울 때부터가 아닐까 싶어. 그 때 눈빛은 좀 달랐지.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래서 하는 거라면 욕심? 이 더 보였어. 내가 이거는 조금 잘 하고 싶다. 라는 눈빛이 보였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학원도 다니겠다고 하니까 아 애가 진짜 달하고 싶고 욕심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그 때부터 계속 공연 올라가면서 되게 스스로 많이 뿌듯해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지.

2) 안무 구성

(1) 음악 선정

Flo rida - Clud can't handle me

이 노래는 희망적인 느낌과 활기찬 생활을 기억나게 한다. 밝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나의 1학년 이야기와 맞는 노래인 것 같았다.

(2) 안무 구성하기

낮선 기숙사의 첫날밤을 보내고 돌아온 상쾌한 아침. 눈곱을 떼며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매일 새롭고 청소하는 것마저도 즐겁다.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보낸다.

춤 악보(기호, 코드, 구성 요소 나열)

CLUB CAN'T HANDLE ME

Words and Music By
FREDERIC REISTERER, DAVID GUETTA,
GIORGIO TUINFORT, MIKE CAREN,
TRAMAR DILLARD and KC LIVINGSTON

♩ = 120

Cadd9/G Cadd9/B F/A

(2nd time only)

part.1 You know I know _



① 알람을 듣고 눈곱을 비비며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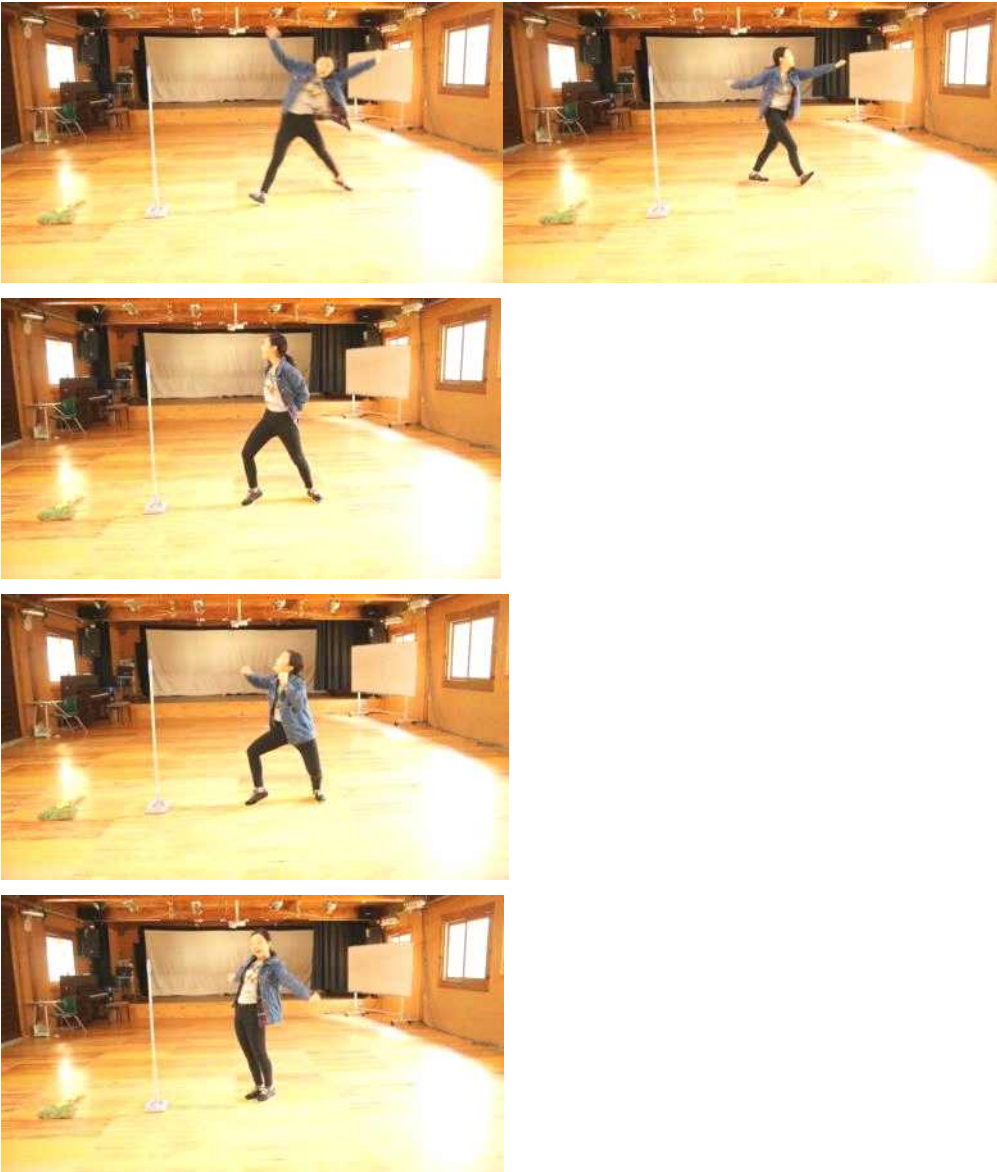


Cadd9/G Cadd9/E F

how to make '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cont. sim.

② 아침에 학교로 향한다. 기쁜 표정과 함께 활발한 분위기이다.



Cadd9 Cadd9/E F

now, watch-in' you watch-in' me I go all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_

③ 조금은 두려운 것일지라도 즐기려고 하고 실제로도 즐긴다.



2 Amadd11 Cadd9/G F

now,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_
 (3rd time only) (Put yo' hands up, put yo' hands up, put yo' hands up!)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④ 노래의 가사와 맞추어 '나의 즐거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



Amadd11 Cadd9/G F To Coda

— now. _____ Spoken: Ha ha!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you D Guetta... Let's get 'em! 1. Hey, I
Put yo' hands up, put yo' hands up, put yo' hands up!) 2. Hey, still

(Yeah, yeah, _____ yeah, yeah, _____ yeah, yeah.) _____

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C C/E

(1.) own the night__ and I don't need no help, got - ta be the feel - ing that scar - face play-er,
(2.) feel-ing my - self I'm like__ out-ta con - trol, can't_ stop_ now, _ more shots, let's go,

f

cont. sim.

⑥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느낌이 나를 춤추게 한다. 즐겁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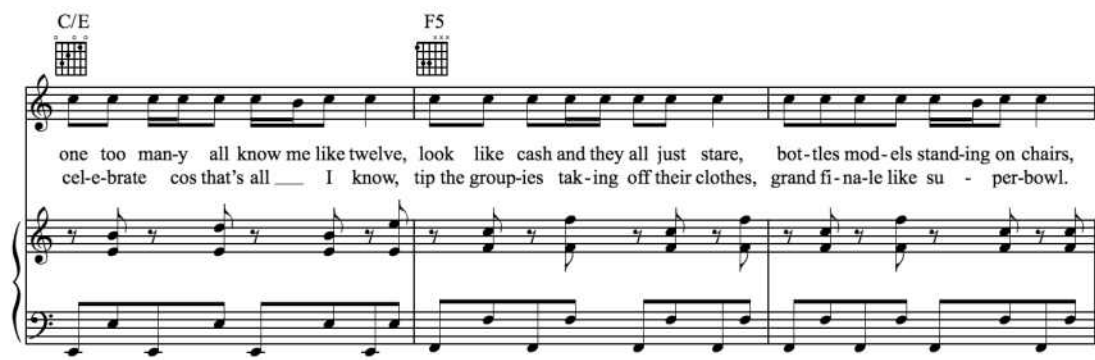
F5 C

start-ing go-ing wild, can't han-dle this play-er, back for the club, ar - ro-gant like yeah! Talk like mon-ey so the girls just melt,
 ten more rounds, can I get a Ka - to? Pa - pa-raz-zi tryin' to make me pose. Came to par - ty til I can't no more,

⑦ 청소마저 즐겁다.



C/E F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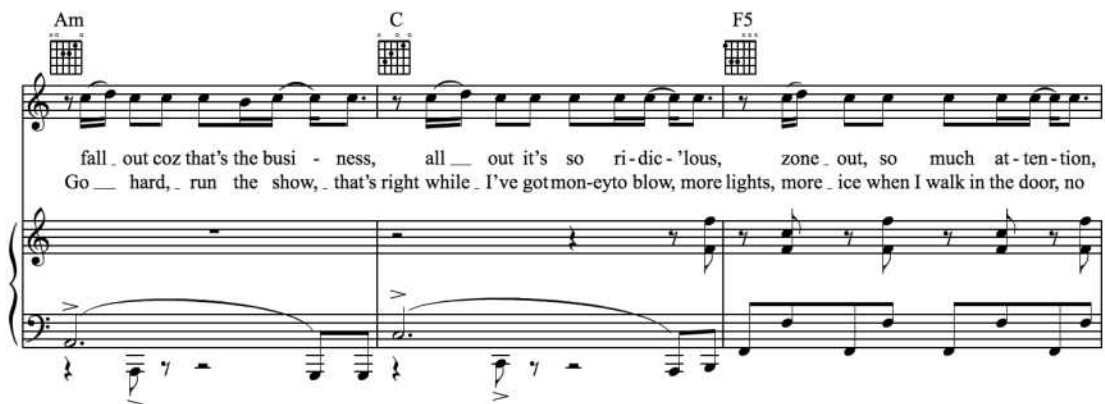


one too man-y all know me like twelve, look like cash and they all just stare, bot-tles mod-els stand-ing on chairs,
cel-e-brate cos that's all I know, tip the group-ies tak-ing off their clothes, grand fi-na-le like su-per-bowl.

⑧ 청소를 즐기면서 한다.



Am C F5



fall out coz that's the busi-ness, all out it's so ri-dic-'lous, zone out, so much at-ten-tion,
Go hard, run the show, that's right while I've got mon-ey to blow, more lights, more ice when I walk in the door, no

⑨ 여전히 밝고 즐겁게 지낸다.



Am

scream out: "I'm in the build - ing, hey!" ___ They're watch - ing, ___ I ___ know this,
hype, do it big all over the globe, ___ yeah! ___ I ___ said it, ___ go ___ tell it,

⑩ 서서히 2학년의 부담감이 밀려온다.



4 C F5 D.S. al Coda

I'm rock-ing, I'm rol-ling, I'm hold-ing, I know it, you know it. You know I know.
con-fet-ti, who read-y? I'm read-y, you read-y? Let's get it!

⑪ 2학년으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찾아온다.



3. 2학년

1) 효원의 2학년 때의 이야기

딱히 딱 생각나는 게 없다.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게 큰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때 생긴 말하지 못할 비밀들도 많고 즐거운 추억들도 수없이 많다.

2학년 때는 혼돈의 시작이었다. 만날 땡가땡가 세상 물질 모르고 놀았던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때는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에 감당하기 힘들었다. 갑자기 속제는 늘어나고 머릿속에 급격히 많아지는 지식과 책가방은 무서워지고 학년 올라가는 것을 너무 앞보았다. 허세 아닌 허세도 부렸다. 1학년들이 힘들다 그러면 '야 2학년 데바라. 그건 찹도 안 돼!'하며, 학년이 올라가서야 그 때의 행동이 어리 석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2학년 때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선배들이랑 편하게 대하고 학교생활도 익숙하고 선배로써의 여유도 부려보고 매점도 가고 술 먹고 할 건 다 했다. 말 그대로 중2.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게 흘러갔다.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다. 이 말의 뜻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인가!!! (내가 해석하기에는.) 외모-관심-남자-연애-외로움... 초반에는 진심으로 외로웠다. 그 시기에 하필이면 학교에 봄바람이 불어서 커플냄새가 진동해 왔다. 나도 그런 냄새가 났으면 소원이 없었다. 그냥 그 때의 망상 중의 하나였다. (지금도 약간 있는 듯)

나는 문제의식을 하고 있었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다. 아니 해오고 있다. 나의 문제점은 끈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뭐 하나 집중해서 끝내지 못하고 내 관심분야의 밖을 벗어나면 일단 흥미를 잃고 다 해내겠다는 욕심이 없어진다. 끝없이 '너무 게으르다' '정신 차려라' 하며 내 자신한테 타일러도 금방 또 잊어버린 채 빈둥빈둥된다. 시간의 소중함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뒤로는 노력하는 중이다. 내가 밝고 활기 차보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은 상반되는 것 같다. 단연히 학교가 1학년 때보다는 편했다. 적응도 다하고 했는데 2학년 때보다는 할 일들도 많이 는 것. 학생회도 들어갔지. 동아리에서도 건배가 되고 가족사고 하고 나찾에도 하고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온 것이다. 아무 예고도 없이. 계속 핑가핑가 놀다가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리숙했던 것 같다. 처음이다 보니까. 일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거기서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자심감이 넘치는 아이로 보는데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자심감이 없었던 것 같다. 넘쳐나는 열정에 비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심감이랑 끈기도 부족했다.

그렇게 2학년 때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지내왔다. 내가 지금 쓴 것만 봐도 아 딱 사춘기구나 느낄 수 있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웃고 철도 씹어 먹을 나이에 맞춰 평범하디 평범하지 않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사춘기의 고독에 젖어있어 우울해 했을 중2 효원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빠: 노뜰에서의 효원의 밝은 모습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기쁘고 좋아보였어. 너의 2학년 키워드가 ‘혼란’ 이잖아.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혼란에 대해서 엄마아빠한테 얘기를 잘 안 해줬던 것. 언니는 학교에서 오면 구구절절이 다 얘기했는데 그 반면에 효원이는 정말 잘 지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 속상한 일고 있을 수 있고 슬픈 일 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표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었어.

언니: 들떠 보였어. 나댄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 그대로 퐁 떠보였어. 등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 2학년 때는 관계 쪽으로 관심이 많은 게 보였어. 좀 더 좋은 모습을 갈구했던 것 같아. 내가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지만 너의 자리를 빨리 찾길 바랐어. 그리고 너랑 나랑 엄청 싸웠지. 그 때 내가 안 좋은 시기여서 많이 싸웠지. 솔직히 너 걱정하기에 나는 내 걱정하는 라 바빴어.

효원이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 봐봐 연애를 하면은 마음이 다 잡아지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 그럼 내가 좀 괜찮은 여자인가? 하면서 자심감도 생기고 마음이 잡아 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

정종명 선생님 (1학년, 2학년 담임): 일단 일을 벌려놨는데 수습을 못하는 거지 어가 가족사를 다 못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 혼자만 안 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환 쌤한테 물러 봤어. 왜 효원이가 통과를 못 했느냐고. 근데 쌤이 하는 말이 꿈까지 여유로웠다는 거야. 너무 여유롭데. 마지막에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마지막에 근근이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 때 고개를 또 한 번 끄덕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네가 관계의 대한 욕심도 많아.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봤어. 학교에서 도드라지게 인정받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약간의 견제? 도 있는 것 같고 나도 거기 중심에 있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효원이에 대해서 내가 두려웠던 것은 갈등과 문제가 탁 눈에 띄게 터지거나 수면위로 올라 적이 없어. 이게 오히려 위험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고민을 하거든. 고민하고 완전 자기를 밑바닥부터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 깨지고 늦게 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사실은 학부모 면담에서 했던 얘기인데 내가 지금 했던 이야기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어. 논문이 어찌면 확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 나는 효원이가 논문을 바로 1차에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원이가 확 클 수 있겠다 생각했지.

2) 안무 구성

(1) 음악 선정

2Pac - I Get Around

혼돈을 표현한 노래 같다. 굉장히 심오하고 멜로디가 부드러우면서도 많은 의미를 가져다준다. 급작스러운 사춘기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2) 안무 구상하기

감정이 예민해지고 신경 쓸 일도 점차 늘어난다.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고 잡을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흔들림에 힘들어한다. 혼자 자책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되새기다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다 겹잡을 수없이 흘러간 2학년의 시간.

I Get Around

Written by TUPAC SHAKUR, GREGORY JACOBS,
RONALD BROOKS, SHIRLEY MURDOCK,
ROGER TROUTMAN and LARRY TROUTMAN



① 혼란의 2학년이 시작된다.



Am11 E♭9 Dm9 N.C.

(I get a - round, _____)

I get a-round

② 갑자기 들이닥친 혼동과 많은 생각에 당황스러워 한다.



Am11 E♭9 Dm9 B♭13

(I get a - round, _____)

playin' with the Underground when we come around

③ 나 스스로 그런 모습을 감추려한다.





Am11 Eb9 Dm9 Bb13 Am11 Eb9

(I get a - round. _) Stronger than ever. (I get a - round. _) Rap: 1. Back to gettin'

④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감춰지지 않는다.



2 Verse:

Dm9 Bb13 Am9 Eb9

wrecked, all respect to those that break they neck to keep they hoes in check. 'Cause oh, they

⑤ 내 안의 감정이 들썩이며 자리를 잡지 못한다.



Dm9 Bb13 Am9 Eb9

sweat a brother majorly. And I don't know why your girl keeps pagin' me. To tell me that she

⑥ 그런 마음에서 다시 밝은 모습을 보이려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일상에 변한 것은 없다.





Dm9 Bb13 Am9 Eb9
 needs me, cries when she leaves me and every time she sees me, she squeezes me. Lady, take it

⑦ 사람들의 말들과 관심에 쫓려 자심감은 떨어진다.





Dm9 Bb13 Am9 Eb9 To Coda I ⊕
 To Coda II ⊕⊕

easy. Hate to sound sleazy, but tease me. I don't want it if it's that easy. Hey, yo,

⑧ 어쩌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남의 탓으로 돌려 버린다.









bust it. Baby got a problem sayin' bye-bye. Just another
 (I get a - round. _____)
 hazard of a fly guy. you ask

⑨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⑩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









And ain't no need in bein' greedy. You wanna (I get a - round, _____)
 see me, dial that beeper number, baby, when you need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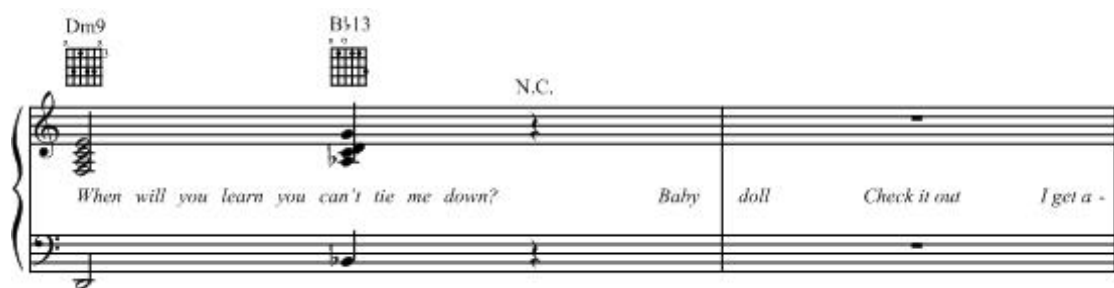
⑪ 그러다 문득 나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생각들을 꺼내본다.





⑫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복잡하다.





⑬ 겹겹이 쌓이는 생각에 그냥 던져 버린다.



Dm9 Bb13 Am11 Eb9
 3 5 7 9 3 5 7 9 3 5 7 9 3 5 7 9
 round
 (I get a - round. —)
 the Underground.

⑭ 생각들을 버리고 나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 진다.



4 Dm9 Bb13 Am11 Eb9
 3 5 7 9 3 5 7 9 3 5 7 9 3 5 7 9
 round the
 (I get a - round. —)
 the Underground. Just don't stop for hoes, in check. I get a -

⑮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Chord progression: Dm9, Bb13, Am11, Eb9

round. Still down with the Underground. (I get a - round. __) Hey girl, I get a -

⑩ 다시 꿈 꿀 수 있는 잠을 취한다.



Chord progression: Dm9, Bb13, Am11, Eb9

round, yeah. Hey, yo, (I get a - round. __) Shock, let them hoes know. D.S. al Coda I

⑪ 오랜만의 잠이다.



4. 3학년

1) 효원이의 3학년 때 이야기

16살, 아직 십대를 벗어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 빨리 어른이 되서 거리를 누비고 싶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하루 빨리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나가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를 포함해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지나온 학창시절을 후회할까?? 뭐 잘못된 생각들은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의미 없는 것 같다. 지금 행복하면 그만인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후회 안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 TV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무언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니까.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자기 평가하는 설문지를 받아봤다. 거기에 '나의 목표'라는 칸에 내가 뭐라고 썼는가하면 '후회 할 짓 안하기'하고 적었다. 지금 생각하니 웃기다. 너무 무모한 목표였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할 때 '후회 안 할 짓'만 하면 꿈도 없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 너무 답답한 삶이 될 것이다. 난 답답한 건 딱 질색이라 이 말에는 모순이 있지만 난 후회 할 짓하며 맘껏 하며 당당하게 살 거다.

3학년이라는 생활을 의외로 빨리 적응했다. 드디어 교실이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게 산뜻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1, 2학년 때보다 고민과 생각이 많아졌다. 점점 더 나의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내 미래에 서도 더 생각해보고.

미지정의 회장을 맡으면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란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눈물도 많이 나왔다. 내가 아직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은 부족한가? 두려움도 많았다. 그래도 동아리 식구가 많이 이해해주고 다독여주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학년이 하나 더 올라가면서 혼란스러운 적이 많아졌다. 특히 관계에서는. 관계는 너무 섬세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가볍다가도 금방 짐이 된 버린다. 너무 어렵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동안은 아무 탈 없이 지내 와서 안 올 줄 알았던 우리 반의 갈등이 들이닥칠 때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난 그 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예전에는 '격어보지도 못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느껴 그걸!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그 비스무리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이해가 되는 것 일까?' 그렇게 생각해왔다. 근데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이 그 감정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한순간 살아가는 것도 돌고 감정도 돌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그러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어렵다.

이제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리 저리 뛰고 싸우고 놀고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서 숨기고 싶은 일들도 있고 다시 그 때로 돌아가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은 일들도 있다. 지나간 추억들이 한 없이 아쉽고 붙잡고 싶지만 나는 앞으로의 추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임무가 있다. 기억들을 잠시 접어두고 파란만장한 미래를 만들 생각하니 벌써부터 들뜨고 설렌다. 앞으로 힘든 일도 더 많아질 것이다. 조금 두렵지만 그 힘든 것들이 있어서 내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씩씩하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효원이의 인생은 아름다웠고 아름답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빠: 논문 쓸 때 걱정을 했었지. 효원이가 마냥 생각이 없다기 보다는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 서 회피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관심 있는 분야 외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게 참이 주요 주제이긴 하지만 글도 써야 되고 분석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하고 재미있는 것만 할 때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효원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 이 시기도 지나면 네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겠지.

언니: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 이제야 말이 통해. 옛날에는 마냥 쟁겨야하고 보살펴야하는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네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마음도 다 잡아서 당당한 것 같기도 하고. 드리고 일단 내가 볼 때는 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 연습하고 결과를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미지정을 반응은 상관하지 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고 네가 정말 맘 다 잡고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정종명 선생님(1학년,2학년 담임): 3학년은 사실 잘 몰라. 그니까 확실히 많이 옆에서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사람을 잘 알게 되잖아. 아무래도 학년이 달라지다 보니까 옆에 결눈질하는 게 전부지. 잘은 모르겠지만 논문 평가할 때도 그랬듯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효원이에게 배움이 됐겠다. 했어. 많이 고민하다가 여기로 왔잖아. 사진도 해보고 자연도 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지. 비록 결과는 춤에 대해서만 나오겠지만 과정을 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과정이 효원이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 안무구성

(1) 음악 선정

Justin Timberlake - Pusher Love Girl

이 음악도 활기차다. 그래도 느낌은 1학년 때와 다르게 더 성숙해졌다. 듣자마자 3학년 때의 노래는 이것으로 짰다. 느낌도 좋고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

(2) 안무 구상하기

과거에 얽매어 후회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드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계속 자신을 찾았다. 차근차근 나를 찾으며 이해하고 자신을 보듬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다른 꿈을 꾸러 찾아간다.

PUSHER LOVE GIRL

Words and Music by
James Funtleroy Jerome Harmon,
Timothy Mosley and Justin Timberlake



① 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마음도 새롭게 깨어날 준비를 한다.





② 편안함과 포근함에 마음이 녹아내린다.



Copyright © 2013 TENNIAN TUNES (adm by UNIVERSAL MUSIC Z-TUNES), FAUNTLEROY MUSIC (adm by ALMO MUSIC CORP.)
JEROME HARMON PRODUCTIONS (adm by WARNER-TAMERLANE PUBLISHING) and VIRGINIA BEACH MUSIC (adm by WB MUSIC CORP.)
All Rights Reserved

③ 마음을 잡고 한발 한발 내딛는다.





2

N.C. Verses B

1. Hey lit-tle ma-ma ain't got-ta ask me if I want to Just tell me can I

2. See Additional Lyrics

(gymn noise)

④ 남의 탓을 하던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천천히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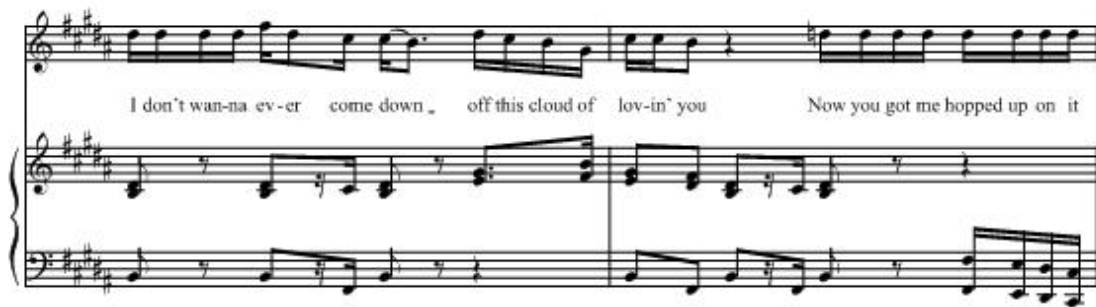
⑤ 되돌아보니 자신을 숨기고 회피했었다는 게 보인다.





⑥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아간다.





⑦ 나를 찾아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간다.



안효원 - 3년간의 나의 이야기로 춤 만들기 :: finale



Chorus

B E9sus4 B/A Dmaj7add6

Push - er love _____ You're my drug _____

So high I'm on the ceil-ing ba - by So go'n and be my deal-er ba - by

⑧ 모든 것들의 장애물을 거치고 드디어 허물을 벗는다.





G♯m7 C♯m7 B

Roll me up _____ a lit-tle bit of you _____
 'Cause all I want is you _____ ba - by One more time

⑨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E9sus4 B/A Dmaj7add6

Push - er love _____ Be my drug _____

So high I'm on the ceil-ing ba - by So go'n and be my deal-er ba - by

㉔ 모든 것 들의 장애물을 거치고 드디어 커튼을 젖힌다.



G#m7 C#m7 B

Cook me up _____ a lit - tle bit of you _____

'Cause all I want you _____ ba - by yeah _____ yeah

㉕ 나를 받아들이면서 나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긴다.





4

B

You're my lit - tle push-er love girl _____

oo oo oo

⑫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다.



yeah Just my lit - tle push-er love girl _____ Now

⑬ 나의 대한 애정을 마음에 담아둔다.



⑫

Bridge

C#m9 G#m

Since you came a - round _____ I've been liv - ing a dif - f'rent

⑭ 때론 슬프고 한없이 부족한 내가 보인다.



F# C#m9 G#m

life And I don't wan - na come down _____ from this love I got on

⑮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다.



5

musical score for piano and voice, measures 1-4. Chords: F# (measures 1-2), C#m9 (measure 3), B/D# (measure 4). Lyrics: high ——— Peo-ple call me a us - er ——— C-sharp But I want you —

⑯ 그렇게 슬픈 감정, 행복한 것, 즐거운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musical score for piano and voice, measures 5-8. Chords: Emaj7 (measure 5), G#m (measure 6), F#7 (measure 7), N.C. (measure 8). Lyrics: Go on and use me too Noth-ing else will do ——— All I want is you _ babe _

⑰ 모두 다 나 자신이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⑧ 은은한 미소로 지난 날 들을 되새기며 긴장이 풀린다.



⑨ 편안한 마음 속 에서 포근한 잠을 잔다. 또 다른 꿈을 꾸며..



5. 공유 및 피드백

1) 논문 작품 발표의 밤

이번 11월 10일에 논문 작품 발표의 밤 있었다. 이 문화의 밤을 연 이유는 1차에서 통과하지 못한 작품 논문 쓰는 학생들이 개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거기서 춤을 추고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1. 제가 의도한 느낌과 뜻이 춤으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1학년의 춤(설렘): 1학년 때의 느낌이 느껴졌다. 짱. 잘 전달되었다. 효원이가 만들었다 하기엔 너무 세심하고 다이내믹하게 잘 만들었다. 1학년 때 모든 것이 설레고 좋고 한 것이 잘 표현 되었다. 나까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1학년 때는 발람 함이란 1학년다운 설렘은 느낌이 잘 나타나졌어요. 세곡 중에 제일 잘 전달된 듯 그리고 곡도 춤도 모두다 제일 맘에 듬.

모르겠다. 신입생의 풋풋함이 잘 느껴진다. 정말 풋풋함이 느껴지고 상큼한 동작들 등을 잘 표현해서 1학년의 기대감을 우리에게 아주 잘 전달되었다. 모든 것이 신나보였다. 춤을 너무 잘 만들었다. 산뜻했다. 음 뜻이 잘 전달되는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효원이가 어쩔게 느끼고 지내왔는지 느껴져서 좋았다. 표정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쾌활하고 상큼한 느낌, 신나고 패기 넘친다. 다만 내 1학년과는 달라서 약간 공감이가 못 된 것 같다. 밝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2학년의 춤(혼란): 혼란스러움이 잘 표현 되었다. 걱정적, 사춘기, 중 2병. 2학년의 키워드가 크게 공감이가 갔다. 뭔가 방황하는 힘든 시기 헤쳐 나가는 느낌. 춤선이나 동작은 좀만더 연습해야 할 듯. 질풍노도의 느낌. 나른하다.1학년 때보단 조금 성숙했던 것 같다. 우울. 반항, 모든 게 시시함이 느껴짐. 음..갈팡질팡까지의 모습은 아니었다. 솔직히 의도가 뭔지 몰랐고 표정? 정도로 끝인 것 같다... 대부분 동작들이 효원의의 느낌이라 좋았다. 관계에서도 자신과 에서도 고민, 갈등이 보인다. 불량하고 씨끄한 모습에 반했다. 잘 전달되었다. 뭔가 방황하는 모습? 같아 보였다. 1학년 때에 비해 바빠졌다는 걸 표현하려 한 건가? 아무하나하나에 모든 게 베어난 것 같다. 열심히 한 것 같다. 1학년 보단 느낌이 덜 했다.

3학년의 춤(새로운 시작): 음악편집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래도 좋다. 얼굴 표정이 살아있다!! 지킬엔 하이드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잊지 못할, 영원히 남는 논문이 될 듯! 잘 전달됐다. 뭘 보여주고 싶었고 뭘 표현하고 싶은지 완전 잘 전달되었다. 기쁨? 사실 너무 멋져서 멘붕. 뭔가 1학년 때와는 달리 안정감이 있어 보였는데 잘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잘 한 것 같다.음..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세번째 꺾 그닥... 모르겠다.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행복, 부드러움, 달달함, 사람스러움. 대단하다. 경쾌하고 나른한 그러면서 즐거운 춤을 느낄 수 있었다. 춤 그루브가 대박이다. 다시 1학년의 느낌도 나지만 좀 차분해진 느낌.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느낌이 표현 된 것 같다. 이렇게 신났던가? 굳! 최고였다. 이제까지의 효원의 춤 중에서도 최고 였음! 효원이는 음악과 하나가 되고 표정으로 완성하는 멋진 춤꾼이다. 1번째 노래보단 느낌이 덜했다.

기타의견: 수고 했다. 무대를 장악했다. 좋았다.
표정이 살아있었고 춤을 좋아하는 모습이 단 한번에 느껴졌다.
세 곡 모두 너무 잘 전달되었다.
온 몸을 던지는 것 같다.
파워풀했고 짱짱맨!
전체적으로 동작이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 아쉽다.
각 학년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서 좋았다.
깊은 밤까지 자신을 찾아 깊이깊이 몰입한 게 보인다.
나이에 비해 춤을 잘 춘다.
진짜 나 같으면 막 당당하지 못하고 쑥스러워 하면서 무대 끝나고 후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부럽다.
표정도 너무 재미있었다.
뛰어나다.
사랑해요.

나의 소감

이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습뿐이었다. 공연 바로 전날에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안무들을 다 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첫날이 기억은 초조함과 불안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언제 또 만들었는지 가늠이 안 간다. 내가 생각해도 장하다.

공연이 막을 내린 후에야 드디어 끝이 났다는 걸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생각났고 끝이 날 땀 울컥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다. 공연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고맙다. 기숙사로 올라가고 싶었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남아주었다니!!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이 꾸려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이 몇 없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혀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도 감회가 새로웠다. 다르게 말하면 안효원 안무가의 첫 공연이 되는 셈이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다 내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토닥이는 사람, 열심히 하라고 꾸중을 늘어놓는 사람, 격려, 응원, 조원을 해주거나,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힘이 되었다. 모두 고맙다. 하지만 이 논문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면 나 스스로에게 바치고 싶다. 고생했으니까.

2) 유튜브 공유



유튜브(YouTube)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 할 수 있다. 2005년 2월에페이팔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현 유튜브 CEO), 스티브천, 자워드 카림이 공동으로 창립하였다. 사이트 콘텐츠의 대부분은 영화와 텔레비전 클립, 뮤직 비디오는 물론이고 아마추어들이 만든 것도 있다. 2006년 10우러에 구글은 유튜브를 주식 교환을 통해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 평가 or 피드백

댓글이 달리지 않았다..

3) 페이스북 공유



사용자들이 서로의 개인 정보와 글, 동영상 등을 상호 교류하는 온라인 인맥 서비스 (SNS)대표격이다. 활발한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되고, 가입 후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사용자들을 친구로 추가하고,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1) 평가 or 피드백

기타의견 : 잘한다, 고생했다, 잘춘다, 너무 좋다, 화이팅
-진지한 평가와 피드백은 좀 처럼 나오질 않아 아쉬웠다.
-많은 응원을 받아 힘이 되었다.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1) 논문의 한계점

먼저 논문을 다 끝내지 못한 게 아쉬운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논문을 보여주니 무척 부끄럽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때 할 걸’ 이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많이 후회도 되고 반성도 아주 많이 하게 된다.

평계일지도 모르지만 춤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계속 쥐어짜는 듯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었다.

춤 악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고민을 무척 많이 했다.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잡혀가니 재미있어지려고 한다. 모두 나의 춤 악보를 보고 춤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

처음에는 논문의 한계점이 나의 문제로만 넘쳐났다. 게으르고 미루고, 나의 예상과 다르게 시간은 너무 빨랐다. 당장 내일이 공연이고 논문 발표였다. 매일 하는 후회지만 진짜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완벽히 할 텐데.

2) 논문을 마치며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논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고. 논문을 쓰다가 그것이 싫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점점 춤이 나오질 않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근데 그 반대 너무 잘 나올 땐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들뜨고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딱 그 때 든 생각이 ‘아 이걸로 먹고 살고 싶다’였다. 나는 더 소홀해지기 보다는 더욱 더 특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1년 동안에 나는 많이 컸고 마음도 생각도 자라났다. 거기에 나는 너무 만족한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세상이 나에게 올 텐데 걱정은 좀 된다. 하지만 이처럼 또 이겨내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데로 나도 따라 흐르는 게 좋겠다.

춤으로 주제를 잡는 것은 신의 한 수였다.(너무 큰가?) 나는 이 주제를 택한 것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찾아서 논문을 차근차근 뱉어나가는 게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행복했다. 물론 그 때야 포기하고 싶

고 엄청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기억으로 기분 좋게 남아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니까 이제는 즐겼으면 한다.

2. 부록

1) 일지

8월 15일 금요일

갑자기 분주해졌다. 다른 때와 다름없이 빈둥빈둥 거리며 생각에 빠져있을 때 쯤 계획에 없었던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서둘러 바지를 입고 모자를 꼭 눌러쓰곤 엄마가 먹으라고 주신 빵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

날씨가 되게 좋았다. 느낌도 괜찮았고 특히 자전거를 밟으며 우리 집 마당을 내려갈 때가 제일 좋았다. 드디어 시작된 기분이 들어서이다. 내가 혼자서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산뜻한 것 같다. 나는 낭만적인 적을 좋아한다. 그 때 장면이 정말 낭만적이었다. 불끈 쏘는 열정이 가득 한 소녀와 그 와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음악소리. 그리고 점잖게 굴러가는 자전거 소리. 이 멋진 장면을 담아내야 했다. 혹시 몰라 가져 가라시던 엄마의 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만족했다. 스피커를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게 나의 첫 번째 시련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던 도중 음악이 켜졌다. 안도의 한숨을 쉰 뒤 본격적으로 연습에 돌입했다. 내 논문인 춤 만들기 에 앞서 약간의 시동 같은 느낌? 조금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댄서의 안무를 연습하기로 했다. 그 댄서는 바로, GIRIN이라는 사람인데 좀 잘나가는 안무가란다. 짱짱! 나는 평소에 안무를 어떻게 딱딱 만들수가 있지? 신기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만들 차례가 되니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몸을 좀 풀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한동안 하도 안 움직였더니 살짝 빠근했다. 한 두 시간하고 땀 뻘뻘 흘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잠시 숨 돌리는데 룬근오빠가 깜짝 등장했다. 진심 깜짝 놀랐다. 룬근 오빠 집까지 노랫소리가 들렸나 보다. 뭐 간단한 안부를 물으며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오빠가 가고 나는 또 춤에 열중했다. 진짜 계속 했다. 비 내리듯 땀이 흘렀는데 흘러내리는 느낌이 좋진 않았다. 열정을 쏟아 부은 듯 했다. (그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준상오빠도 만났다. (준상오빠는 학교에 볼 일이 있어 온 것 같다.) 준상오빠와의 얘기는 내 빵 먹지라는 내 경고와 한입만이라고 외치는 준상오빠의 목소리 밖에 기억이 없다. 결국 기어코 한입을 먹었다. 내 소중한 빵인데.. 내 카스테라..

나는 왜 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힘들게 일하고 움직이면 식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빵을 남겼다..(이 얘기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아썩ㅋ)

연습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도 좋았다. 거기에다 노을도 덤으로. 집으로 가서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면 정말 더 나위 할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 근데 엄마가 언니와 얘기 중이었고 밥을 매고 있어서 내 인사를 안 받아주었다. 흐잉.. 집에 들어와 시원하게 샤워한 후 언니의 올리브 파스타로 저녁을 먹었다. 다리는 좀 아팠지만 참 평안 저녁이었다. OK! GO!

p.s 아!! 아빠랑 엄마랑 언니한테 내가 댄 춤을 보여드렸다. 괜히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처음 연습하다 보니 몸에 익혀지지 않아서 계속 틀렸다. 어휴..

8월 16일 토요일

두 번째 날이다. 벌써 귀차니즘이 발동 했나보다. 좀 늦장을 부렸다. 한 시도 바쁠 날인데 느긋한 내가 내가 봐도 웃겼다.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를 틀고 영상을 찍었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서 어제 안 되던 부분 다시 잡고 들어가서 다 땀다. 근데 노래 박자가 너무 빨라서 계속 틀렸다. 많이 해서 이제 안 틀릴 자신 있다.

3학년 때의 노래를 정하였다. 그 노래로 한 번 취 보았는데 필이 느껴지는 게 장난 아니었다. 짱짱! 노래 한번 잘 고른 것 단다. 오늘은 짧게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물 꿀떡꿀떡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 피곤한 하루이었지만 재미진 하루였다.

p.s 오늘 유독 힘이 빠져서 힘들었다. 가을이 오나..

8월 17일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설까? 했는데

비가 오네...ㅎㅎㅎ

8월 18일 월요일

쌀쌀해지고 비가 오네.

비를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빈둥빈둥 헤행ㅎ

내일 할일

-희라, 민혜 쌤에게 메일 발송

-논문 계획서 수정

-음악 정합

9월 1일

내일 모레가 중간발표이다. 휴..너무 떨린다.

중간발표도 이렇게 떨린데 논문 발표는 정말 죽겠구나 싶었다. 나는 말솜씨가 없어서 걱정된다. 대본도 적어야겠다.

9월 3일

오늘 중간발표를 했는데 진짜 똥망했다.

아 진짜 원래 발표시간 합쳐서 5분인데 나는 발표시간을 무려 15분이나 했다는 사실.. 막 말도 더듬고 장난 아니었다. 논문 발표가 벌써 걱정 된다. 오늘 1학년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구상하였다.

9월 12일

진짜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다. 몸도 빠근하고 뭐지..

빨리 빨리 재촉할수록 마음만 급해진다.

답답하다.

9월16일

점점 동작이 만들어져 갔다.

처음에는 계속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오니 내 논문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일단 춤을 짜고 있을 때는 내가 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너무 기뻐고 신기했고 흥분되었다. 막 벅차고 계속 동작을 다듬다보니 정리가 됐다. 빨리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소통! 소통! 민혜쌤께 보여드렸더니 칭찬을 해주셨다. 근데 안무가 너무 바쁘고 복잡하다고 하셔서 동작을 줄였다.

9월 20일

하.. 지금까지 1학년 곡반까지 만들었다. 이러다가는..아자아자 힘내자(짝)힘내자(짝)

9월 29일

1학년 곡이 거의 만들어져 간다. 안무 좀 다듬고 영상 찍어야겠다. 인터뷰도 하고 영상 편집해서 만들고 2학년 곡도 구상 빨리 해서 만들고

춤악보 만들고!!!!아자아자 힘내자(짝) 힘내자(짝)

10월 1일

벌써 10월 이다. 언제 또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지. 이제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 다 완성 못해도 한 대 까지는 열심히 해야겠다. 1학년도 거의 만들어 져 간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정말 창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0월 5일

1학년 안무를 다 만들었다.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 초조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곧 올 끔찍한 앞날이 더 빠르게 달려온다.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 오늘 시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카메라를 빌렸다. 너무 감사하다.

10월 17일

알고 있는 결과였지만 막상 알고 나니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만 남겨진 이 공허함. 그래도 아직 다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차발표 까지 후회만 남지 않게 할 것이다. 희라 쌤을 찾아가니 2014학년도 3학년 논문 심사 발표 종이에 불통과가ㅠㅠ힘힘힘!!!

10월 26일

2학년도 점점 완성이 되어간다. 근데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다. 그다지 마음에 드는 동작이 없다. 임팩트가 없는 것 같고.

10월 30일

2학년 안무를 다 만들었다!!!!!!드디어!!!!안무를 계속 다듬었더니 점점 각이 잡혀져가는 것 같다. 내가 만든 춤이라는 게 새삼 신기했다.

11월 2일

3학년의 안무...또 다시 창작의 고통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근데 1,2학년 때보다는 편하게 한 것 같다. 뭔가 내 느낌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느낌? 산뜻했다. 노래도 처음 딱 들었을 때 꼬친 노래이기도 하고 나와 잘 맞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의 춤을 만드는 거니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11월 5일

수월하기는 뭔가 수월해!!더 어렵구만——요즘 학교가 뒤숭숭해서 논문에 집중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도 다 만들어서 작품 발표는 할 수 있겠지. 3학년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아니 누가 더 어려울 것 도 없이 다 고민하고 더 구상해야 했다.

11월 8일

오매...끝까지 했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연습을 조금 더 해야 할 듯. 그리고 카메라 빨리 구해야 할 듯!!!

11월 10일

오늘이었다. 오늘이 그 날이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냥 무대 올라가기 전에 내가 관객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느낌과 감정만 잘 표현하자!! 다짐하고 무대에 올라섰다. 나는 무대에 쓰는 게 좋다. 행복한 그 날이었다.

2) 방문 및 탐방

8월 5일



‘FUNK STYLERS BATTLE WORLD FINAL!!!’

나는 처음으로 춤 배틀하는데 가보았다. 정말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한 2시간 전 쯤 와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왔다. 1000이상 왔다는데. 하여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입장하였다. 이제 배틀 대회 시작. 처음으로는 게스트 무대로 그 유명한 태권도 하시는 댄서들이 나오셨다. 와 진짜 재주넘기를 하는데 !! 티비에서나 볼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직접보고 있으니 진짜 대단했다. 그런데 공연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려하게 재주를 넘고 착지하던 순간에 잘못된 나보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한 삼리 절뚝절뚝거렸다. 난 처음에는 설정인 줄 알고 ‘와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다가 공연 중단. 그렇게 오프닝 공연은 잘 끝내지 못했지만 유쾌한 MC덕분에 다시 열기는 뜨거워졌다. 그 두 번째로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저 정도는 출줄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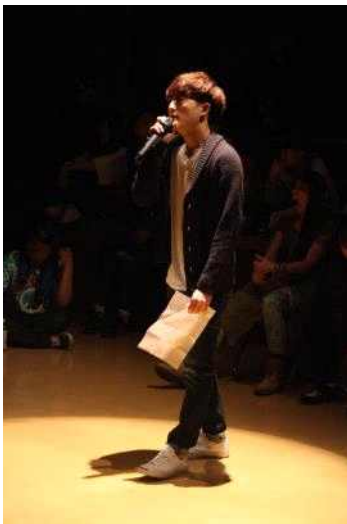
배틀하기 전 까지는 너무 많은 차례가 있어서 좀 답답

했다. 심사위원들 일일이 다 나와서 춤추면서 소개하지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와서 뭐라 뭐라 씨불이고 또 홍보대사 어찌고저찌고 상 박고 어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소리 지를 찰나에 BATTLE이 시작되었다. 장르별로 해서 우승을 뽑는데 장르는 네 가지였다. 비보이, 왁킹, 락킹, 팝핀. 처음에는 왁킹을 했다. 왁킹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있다. 그 음악에 맞춰 딱딱 움직이는 손짓에 몸 줄 바 모르고 환호성을 질렀다.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춤추는 사람들이어서 한 동작 한 동작에 누가 짠 듯이 다 같이 환호를 질렀다. 그럴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란 통하는데 이리서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그 다음은 비보이였다. 와 비보이도 장난 아니었다.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굴러가지 싶을 정도로 돌고 돌고 너무 멋있었다. 진짜 대박... 나도 비보이 번 해보고 싶었다. 몸도 막 들쭉이고 어휴 흥이 넘쳤다. 합성을 지르고 움직이다 보니 앞에 두 장르하고 난 뒤로는 기력들이 딸리는지 합성 같은데 자자 들었다. 아니면 이 장르가 인기가 없나?? 그 다음은 락킹이었다. 락킹만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왁킹은 옛날에 게이가 게이 꼬실 때 추었던 춤이었는데 되게 여성미가 강하고 해서 배틀에서는 여자 밖에 안 나왔다. 왁킹은 한마디로 동작을 푸는 춤. 락킹은 잠그는 춤.) 어느 배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막 치열하게 배틀하다가 갑자기 눈빛 교환을 하는가 싶더니 노래에 맞추어 같은 동작을 같이 추는 것이다. 이 때 소름이 쭉!!그 때 느낀 것은 멋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배틀을 하기 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춤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느껴

졌다. 진짜 너무 멋있었다. 마지막 팝핀. 팝핀 댄서들이 입장하는 사이에 남자들의 함성은 엄청났다. 남자들은 팝핀을 좋아하나보다. 배틀하는 내내 호응이 남달랐다. 팝핀도 꺾는 게 예술이었다. 이번 배틀을 보면서 팝핀만의 색깔도 알게 되고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딱딱 움직이고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게 멋있어 보였나보다. 하여튼 이 장르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반응 보는 재미였다.. 이렇게 모든 장르를 마치는 데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정말 징하게 했다. 정말 이 배틀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던,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마음에 힘을 길러 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못 할 게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ㅋㅋ 나는 이 배틀에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이기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 했고 나도 그러면 되었다. 이 시간들은 나의 논문에 있어 아니 나에게 있어 큰 자리를 잡았다.



10월 25일



GUERRILLA VOL.3!! FINAL !!에 다녀왔다! 어우 진짜 찾아가는 길 엄청 힘

들었다. 진짜 돈 다 깨지고ㅜㅜ 고속터미널에서 분당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줄은 꿈에도 몰라서 한 시간전에 출발했는데..한 시간 반이나 늦었다. 끝났을 까봐 조마 조마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밖에서도 음악소리가 들려서 두근두근 대고 설레었다. 지하2층이어서 한발 한발 계단을 내려갔다. 딱 들어가니 분위기가 진짜 후끈후끈하니 한창 배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진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춤이라는 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해야 하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서로서로 크루들 끼리 와서 나만 외톨이었다. 너무 외로웠다. 근데 딱 내가 가자마자 30분 쉼다는 것이다!!!! 오매 혼자 뭐하지... 너무 빨춤해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쉬는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와 진짜 춤을 좋아하는 게 보였다. 춤추는 한 사람 한사람마다 정성들여서 자기만의 느낌을 내는 것이 너무 멋있어보였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곳을

바라보고 춤에 빠져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나니 벌써 갈 시간이 되었다.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이 배틀만 보고가자 다짐했다. 이제 정말 가야지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내 또래들이 하는 특별 공연이 있었다. 진짜 이것만 보고 가자 싶어서 다시 뒤돌았다. 와 진짜 멋있었다. 댄서들의 비해 조금의 박력은 없었지만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들을 따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했다.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후끈한 배틀을 뒤로 나는 집으로 향했다. 오늘 깨달은 점이 배틀은 기본 한 4시간을 족히 하는 것 같다. 안 끝나ㅏㅏ 그래도 참 보람찬 하루였다^^

3. 감사하오!!

나 힘들 때 뒤에서 토닥여 준 우리 반
나의 사랑 희라 쌤 고마워요...글오글오
민혜쌤 내 맘 알죠..
상현쌤 예헛♥
카메라 빌려주신 시은이 아버님
안주현씨
김지화씨
안현선씨
그리고
사랑하는 나...
(내 손..글오글오)

모두 행쇼

타로를 이용한 상담으로 간디인의 걱정 덜어주기

지도교사: 조영준



이름: 오정택

좋아하는 것: 컴퓨터로 게임이나 웹서핑이 아닌 한글과 엑셀 만지면서 뽀짝하기,
귀여운 사람,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폰질, "멘트 큐!"

싫어하는 것: 몸 움직이기, 순진하고 착하고 화낼 줄 모르는 날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한줄후기:

논문 쓸 때 힘들어도 나중에 논문집 나올 생각하니까 기분좋다~!
논문 쓸 때 엄청 재밌었고, 후배 놀려먹는 건 더 재밌었음 ㅋㅋㅋ
제 논문 재밌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계획

II . 본론

1. 타로란?
 - 1) 타로의 의미
 - 2) 타로 카드의 기원 및 발전
 - 3) 타로의 종류와 구성
 - (1) 종류
 - (2) 구성
 - 4) 타로 리딩(Tarot Reading)
 - (1) 타로 리딩 사례
 - (2) 타로 리딩 훈련
2. 타로상담이란?
 - 1) 타로상담의 정의
 - 2) 청소년 대상 타로 개인상담
 - 3) 간디학교 타로상담
 - (1) 간디학교 타로문화의 확산
 - (2) 교내 타로문화의 특성
3. 타로마스터와의 만남
 - 1) 타로캠프 기초과정
 - 2) 집단상담
 - (1) 기획
 - (2) 실행
 - (3) 평가
4. 상담하기
 - 1) 상담과정
 - 2) 상담결과
 - 3) 상담평가

III. 결론

1. 걱정 덜기
2. 타로를 통한 나의 성장기
3. 논문을 마치며
4. 고마운 사람들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처음 희라쌤이 개설하신 집중식 수업에서 타로를 접했다. 타로의 첫인상은 영적이고, 몽롱하기도, 신비해보였고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했다. 당시에는 타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철학 따위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매우 재미있어서 집중식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타로 열풍 속에서 타로를 보기도, 봐주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쉬는 시간만 생기면 유일하게 타로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살림터로 달려가 타로카드를 펼쳤을 정도로 집중식·기말주간은 타로에 푹 빠진 시기였다. 그렇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당시는 길가 천막에서 보는 점과 다를 바가 없었고, 지식조차 얕팍했으며, 재미를 위한 놀이의 수단이 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봐준 타로에 ‘속아’ 나를 칭찬하기도 했고, 논문주제로 추천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타로에 대한 열정만 가득했지, 공익성, 독창성이 담겨야 하는 우리학교의 논문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를 못 찾아 많이 고민했었다. 그러던 중 집중식 수업에서 희라쌤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타로는 상담의 도구이면서, 나보다는 남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상담 분야’야”

불현 듯 떠오른 이 주옥같은 말에 이미 심리치료의 한 방법인 상담이 간디인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해, 타로를 이용해 상담을 해주고 간디인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중·고 통합형 대안학교인 우리학교의 학생은 청소년이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 걱정을 달고 사는 시기이다.

‘여드름이 늘어났잖아’, ‘수염이 왜 이렇게 빨리 났지?’, ‘재 보다 키가 작아’, ‘오늘 점심은 또 누구하고 먹지?’ ‘싸운 친구와 어떻게 화해하지?’

이런 고민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인데, 청소년 시기에는 자존감을 찾아가는 시기로서 자존심이 강해지고, 타인과의 소통을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가 오히려 자신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으로 걱정이 분노로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기숙사 생활로 인해 모든 사람, 특히 청소년이라는 존재 사이에서 살아가는 간디인에게 있어 걱정과 고민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간디인에게 타로라는 특수한 상담의 도구로 다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은 또래라는 점을 이용해 더욱 공감하고, 이해하며 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

또한 타로에 씌어진 ‘점’이라는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 ‘타로상담’을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간디인 모두 타로를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상담해준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상담을 해준 사람 또한 기분이 좋아지듯이 타로와 상담이라는 매개체 통해 서로가 미소를 나누는 학교생활을 꿈꾸며, 간디인에게 걱정이라는 단어는 쉽게 떨쳐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연구방법 및 계획

본 논문은 프로젝트 논문이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간디인을 상담해주면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며, 자기노출을 촉진시키고, 자아정체감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진 타로라는 상담의 도구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1) 참고서적

- (1)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이야기/박성희/이너북스
- (2) 다섯 명의 치료자와 한 명의 내담자/레이먼드 J. 코르시니 외 지음, 이해성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3) 심리학의 즐거움 /크리스 라반 지음, 김문성 옮김, 휘닉스

(4) Tarot 상징과 지혜를 통한 마음읽기 - 웨이트 덱, 마더피스 덱/한국타로학회 타로마스터 김은아

2) 취재와 인터뷰

- (1) 김은아 한국타로학회 타로 마스터
- (2) 남윤미 청주성화중학교 전문상담교사

3) 참고사이트

- (1) 사진출처 - N.gom Liking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ngoms/1>)

4) 방문 및 탐방

- (1) [제천간디학교 타로소모임]타로상담기초과정

5) 설문조사

- (1) 상담 후 간디인들 설문조사

II. 본론

1. 타로(Tarot)란?

1) 타로의 의미¹⁾

타로카드란 22장의 메이저 카드와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나누어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카드를 섞어 선택되는 카드의 뜻을 읽어 미래를 점치거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선화²⁾는 타로는 고대의 비밀스런 지혜에 대한 암호화된 체계이며 미래 예언의 도구, 명상의 도구,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 사용된 78장의 카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타로의 이면에는 예언의 도구 이상 의미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타로는 고도화된 상징이 담겨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인물들과 기호, 그리고 색체를 매개로 한 여러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본 사람이 카드에 그려진 상징을 어떤 의미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타로는 인간의 마음의 내용물을 담고 있다. 타로의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타로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면 4대 원소(불, 물, 공기, 흙)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인간의 속성도 4대 원소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카드 속에 인간의 마음의 내용물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타로는 위계적 배열을 갖고 있다. 전체 카드의 구조는 한 단계를 거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위계를 갖고 있다. 특히 메이저 카드는 인간의 완성에 이르는 발달 단계들로 위계화 되어 있고, 마이너 카드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성장 발달을 위한 안내를 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타로는 영적 가르침의 도구이다. 타로는 유대교 신비주의 철학체계인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생명의 나무는 신이 인간과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인간이 신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사다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생명의 나무는 각 단계에 필요한 영적 가르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카드에 대한 학습으로 영적 가르침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전혜란, 「타로 개인상담이 중학생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7~9쪽 참고

2) 한국타로학회 그랜드 슈퍼 바이저이자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교육학 박사자격을 취득했다.

타로카드는 어떤 확정된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은 특별하고 고유한 성격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는 다른 법이다. 이는 개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사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존재하는 만물의 상호 연관성의 결과이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우리의 실생활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인 동시에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이런 점에서 타로는 신비스러운 운명의 예측 게임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타로가 상담이나 점이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읽어보면 모두 맞는 듯한 이 논쟁의 해답은 무엇일까? 나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타로는 상담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논쟁에 있어 올바른 해답은 아닌 듯 했다. 희라쌤께서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점이고, 남이 많이 이야기 하면 상담이지”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결국 타로는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타로라는 수다거리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공감과 평가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아닐까? 절대 타로카드에 주술사가 영혼을 불어넣지 않는 한 신비로운 능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타로카드는 공장에서 찍어낸다- 나의 현재상태를 이미지에 빚대어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참고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의 결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언의 도구라는 것에 동의한다. 사람들에게 타로가 자기성찰과 계발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2) 타로 카드의 기원 및 발전³⁾

타로 카드라는 이름의 유래는 일반적으로 토라(Tora)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유럽권에서는 대륙별로 발전되어 프랑스에서는 타로(Tarot), 타로크(Tarok), 이탈리아에서는 타로키(Tarocchi),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의 원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역사적 사실로는 14세기 프랑스의 샤를 6세가 도박 금지 칙령을 내린 사실에서 영·미 유럽권에 게임용 카드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13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게임용 카드의 모습에서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13세기 이전에 타로와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미확인 학설로는 아시아 유래설이 있다. 인도의 차투랑가라는 놀이에서 장기, 체스, 타로 카드, 트럼프가 유래되었다는 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차투랑가의 놀이 방법과 말의 모양은 장기와 체스로 이어졌고, 계급과 구성 개념은 트럼프와 타로 카드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타로 카드는 계급이 왕·귀족·신하·평민으로 구성되는 중세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차투랑가 또한 코끼리 부대는 왕족, 기마 부대는 귀족, 전차 부대는 중인, 보병 부대는 평민 또는 노예 계급이었다고 한다.

타로 카드의 기원을 잘 알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포되었던 시기인 14세기 무렵의 유럽은 기독교 봉건제의 시대이며, 타로 카드는 부정적인 이교도적 상징으로 보아 권력의 탄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15세기경 타로 카드는 점술보다는 귀족들의 놀이로서 사용되었다. 당시의 타로 카드는 화가가 직접 그린 수제품으로서 가격이 매우 비싸고, 희귀하여 주로 왕족과 귀족의 놀이도구였다. 그러다가 귀족들의 놀이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일들에게 퍼지면서 신비감이 더해졌다. 그리하여

16세기 말부터는 점술용으로 변해갔으며 17세기가 되자 프랑스로 전파되었다.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이집트적인 신비주의 이론이 포함되었고 각 카드와 각 궁도의 비교, 보석과의 대응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점술화 되어 있는 타로 카드가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된 전통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체계화 되어가고 있던 이집트 관련 학문과 타로 카드를 섞어 새로운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가는 동안에는 동양사상이 유행하여 음양 태극무늬나 몽골족이나 고려시대의 의상

3) 안선희, 「상담장면에서 타로 카드의 적용에 대한 연구」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년, 23쪽, 참고

과 유사한 부분이 카드에 첨가되기도 하였다. 고위 여사제 카드(The high priestess)의 의상은 몽골족의 의상이나 동양의 의상에 가깝다. 가슴 부분을 띠로 두른 가운은 고려 시대의 의상과 유사하다.

20세기의 타로 카드에서는 마이너 카드에 나타나는 상징들을 의인화하여 새롭게 제작되고 있다. 수많은 점술가들이 타로 카드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느낌의 카드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왔고 인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기법의 카드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을 전후로 이탈리아나 유럽의 카드가 몇 종 수입되었다.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5년 전⁴⁾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되면서부터이다. 애니메이션 카드를 카피하는 과정에서 한국 콜leter에게 퍼지게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3) 타로의 종류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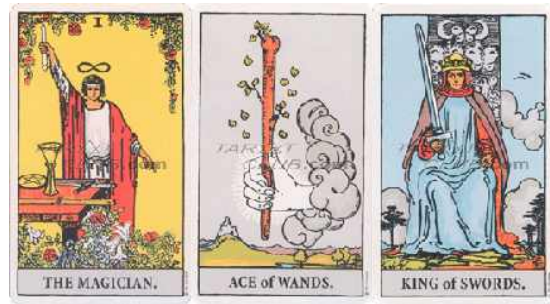
(1) 종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덱은 300여개 정도가 된다.

(타로 덱 종류: 드루이드 타로, 라이더 웨이트 타로, 루미 타로, 마더피스 타로, 모간 그리어 타로, 문 오라클 타로, 북미 원주민 오라클, 붓다 타로, 세피토르 타로, 스텔라 타로, 애니멀 디바인 타로, 여신 타로, 오쇼 타로, 올림포스 타로,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용기안 타로, 주역 타로, 카발라 타로, 토트 타로, 트랜서핑 타로, 허브 타로, 헤인들 타로, Ask an angle 오라클 타로, Saint & Angel 오라클 타로, The Answer is Simple 오라클 타로 등)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Universal Waite Tarot)



라이더 웨이트 타로(Rider Waite Tarot)



마더피스 타로(Motherpeace Tarot)



스텔라 타로(Stella Tarot)

수많은 타로 중 내가 사용한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Universal Waite Tarot, <그림 1>)는 가장 대중적인 타로로서, 뜻이 분명하고, 색감이 화려하면서 부드러우며 상담자, 내담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타로이다. 황금새벽회의 회원이었던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만든 라이더 웨이트 타로(Rider Waite Tarot, <그림 2>)의 선과 색상을 부드럽게 하여 만든 타로이며, 이미지 자체에 변화가 없어 뜻과 해석이 동일하다.

라이더 웨이트는 1910년에 제작되었으며, 마이너 아르카나에 더욱 정확한 인물과 장면을 넣어, 마이너

4) 본 논문에서 참고한 서적인 「상담장면에서 타로 카드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2002년에 작성된 논문이다. 따라서 올해로 계산을 하면 15년 전이 된다.

아르카나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킨 타로이다. 라이더 웨이트 타로로 인해 근대 타로의 기초가 잡혔으며, 전 세계적으로 라이더 웨이트 타로를 바탕으로 한 수천 종류의 타로 카드들이 나오고 있다.⁵⁾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Arthur Edward Waite, 1875~1942)



파멜라 콜먼 스미스
(Pamela Colman Smith, 1878~1951)

(2) 구성⁶⁾

전통적인 타로 덱은 7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로의 의미에도 나와 있듯이 타로는 메이저 아르카나⁷⁾ 22장과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총 78장으로 이루어져 기본이다.

●메이저 아르카나

0번에서 21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바보의 여행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 주위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통제할 수 없는 고차원적 힘을 담고 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일들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쌓인 경험들, 그리고 삶에서의 우주의 법칙 등을 나타낸다. 신비적인 암시를 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상징들로 나타나는데, 이 상징들은 각기 어떤 의미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 되어있다.

0번 바보는 22장의 카드 중 첫 번째 카드로 어두운 모태의 동굴로부터 나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 다음 마법사, 고위 여사제, 여황제, 황제, 교황 카드에서 유년의 근원적 체험, 세상적인 부모와 영적 심상의 내적 부모를 만나게 된다. 연인카드와 전차카드에서 우리 내면의 사춘기적 갈등과 열정을 인식하게 되고, 은둔자, 힘, 정의, 절제 카드에서는 인생의 세속적 시험, 도덕적 도전과 마주치게 된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묘사된 운명의 위기, 상실, 갑작스런 타격 등을 겪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과 죽음의 무기력, 절망의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는 빛보를 따라 악마와 무너지는 탐욕에서 자기 운명의 숨은 건축자인 바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별, 달, 태양 카드에서 그 어둠으로부터 희망이 태어난다. 그리고 심판과 세계 카드에서 어둠에 대한 승리, 삶과의 조화,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이너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는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완즈, 컵, 검, 펜타클 총 네 가지의 슈트가 있으며, 불은 직관, 물은 감정, 검은 사고, 펜타클은 결실을 의미한다. 메이저 카드가 우리 인생 삶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 삶의 여정을 나타낸 반면 마이너 카드는 각기 45가지 종류가 에이스(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지고 소년, 기사, 여왕, 왕카드로 14개로 이루어져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중세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완즈는 농사 짓는 농민을, 컵은 성배와 관련 있는 성직자를, 검은 귀족을 나타내며, 펜타클은 돈과 관련 있는 상인을 나타낸다. 마이너 아르카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5) 아라우네, 『타로 카드 한 권으로 끝내기』, 물병자리, 2007, 22쪽, 참고

6) 김혜경, 「타로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주부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03년, 17~18쪽, 참고

7) 카드 한 장, 한 장을 아르카나라고 하며, 아르카나는 라틴어로 비밀을 뜻한다.

준다.

에이스는 창조적인 힘과 잠재력을 나타내며 기본적인 숫자로 일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숫자 2는 하나와 하나가 만나 대립, 균형을 숫자 3은 최초의 완성, 첫 번째 결실을 의미한다. 숫자 4는 현실, 논리, 이성의 숫자로 인간의 마음, 육체, 영혼, 물질적인 면의 형성을 의미한다. 숫자 5는 역경을 의미하며, 숫자 6은 평형, 조화, 균형의 숫자로 하늘과 땅,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의미한다. 숫자 7은 일정한 주기의 완료, 어떠한 단계의 완성을 숫자 8은 재생, 대립되는 힘의 균형, 숫자 9는 10이라는 완성 이전의 기초를 의미한다. 숫자 10은 완벽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와 마이너 아르카나는 각각의 고유의 중요한 의미와 인생의 크고 작은 단계들을 나타낸다.

4) 타로 리딩(Tarot Reading)

타로 리딩이란 말 그대로 타로를 읽는 것(Reading)이다. 문현선⁸⁾은 <타로 카드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에서 리딩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타로 카드의 상징을 공부하고 키워드를 외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질문자에게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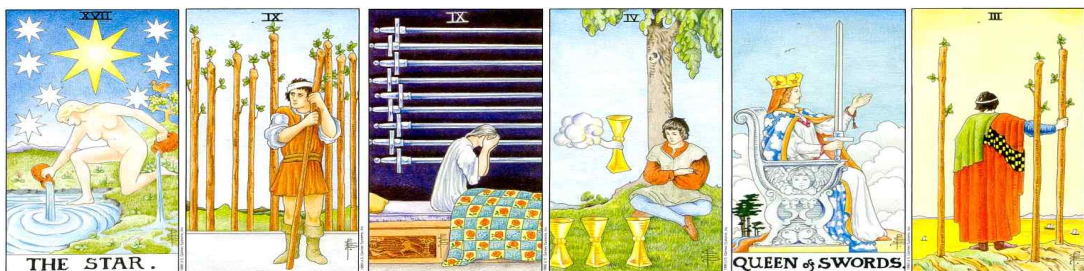
사실 타로 리딩은 키워드를 머릿속에 새겨넣어 달달 외울 정도로 외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카드의 모든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정작 질문자에게 필요한 의미를 해석해주지 못한다면 달달 외우는 행동은 필요가 없어지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을 하는 훈련은 타로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이며, 이는 질문자(내담자)에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목차에서 리딩은 무엇인지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타로 리딩 사례

본 리딩 사례는 나의 질문에 대한 리딩이었다. 본래 타로라는 것은 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상담의 도구이면서 자기성찰의 특성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성장을 위해 타로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나의 최대 관심사가 궁금하여 타로를 보게 되었다.

날짜 : 2014년 8월 22일 18시 10분

질문 : 2학기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 ▲여섯 번째 카드

순서는 위와 같다. 각 장별로 1개월을 상징한다.

첫 번째 카드를 보면 17번, 별 카드가 나왔다. 별 카드는 폭풍 뒤의 고요, 영감, 아이디어와 목표형성 등등을 상징한다. 또는 연예인(Star) 카드라고도 한다. 이번 8월 달은 주제를 정한 7월 달 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세우는 시기였다. 또한 뽑은 당일은 폭풍 같은 전 주를 보낸 시기였다. 논문주제를 정한 후 논문이라는 작은 세상과의 합일되었으며, 새로이 정한 주제를 더 믿고 희망처럼 여기는 카드 인 것 같다.

두 번째 카드는 완즈9 카드가 나왔다. 직관과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불의 원소이고, 한 자릿수의 완전을

8) 『타로 카드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저자이자,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교육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의미하는 9번, 그리고 그림은 튼튼하고, 머리를 다친 남자가 나무 막대기를 움켜지고 있다. 출발이 좋다고 리딩할 수 있는 점이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9라는 숫자가 나왔다. 어느 정도의 준비가 완성단계에 온 것이다.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모습이다.

세 번째 카드는 검9 카드이다. 사고나 생각, 이성을 뜻하는 공기의 원소이고, 한 자릿수의 완전을 의미하는 9번, 침대에 누웠지만 수많은 칼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그림이다.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논문이 잘 써지지 않고, 일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 걱정이 가중되고, 극에 치달는다는 의미이다. 겁에 질려있는 사람에게 칼은 그녀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네 번째 카드는 컵4 카드이다. 감정을 상징하는 물의 원소와 안정, 현실, 구도화를 상징하는 4번, 구름이 내민 컵을 팔짱을 낀 채 외면하는 남자가 있는 그림이다. 물은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4번이라는 숫자를 만나 이 물은 고이게 되었다. 감정의 상태가 권태롭다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논문에 집중되어 있는 2학기에 논문을 만족스럽게 쓰지 못했거나 실제로 2차를 했다가 아니면 “더 잘 쓸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자신을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카드는 검의 여왕이다. 공기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와 물은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날카로운 공기와 부드럽고 유한 물이 만나면서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컵4 카드의 영향을 받아서 쉽사리 생각과 감정의 조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는 모습이지만 아직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묻고 있다. 마음이 그 생각대로 가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직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온화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생각을 하더라도 감정과의 조화를 생각하라는 카드이다.

여섯 번째 카드는 완즈6 이다. 나무 막대기 세 개를 땅에 박아놓은 남자가 뒤를 돌아 무역선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다. 장기계획에 시기에 접어들었고, 최초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이다. 성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논문타로소모임을 동아리로 발전시킨다거나 논문을 제외한 다른 활동의 연장이라고 리딩할 수 있다.

사실 이 리딩 사례를 본다고 타로 리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타로 리딩은 주제별로, 상황별로, 기본별로 다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또한 메이저 카드는 뜻이 분명하고, 기운이 강하다고는 하나 현실성이 떨어져 마이너 카드를 뒤집어 보아야 이해가 되며, 마이너 카드는 원소, 숫자, 그림 순으로 복잡하게 리딩을 해야 한다. 타로 리딩이라는 것은 절대 책을 들여다본다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직 실전연습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타로 리딩 훈련

타로 리딩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모임을 설립했다. 수많은 실전경험을 쌓고, 이를 공유하며 서로가 피드백을 해주기에는 소모임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모임을 설립하게 되었다. 리딩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딩도 들어보면서 다양한 리딩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전에 재적용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로 소모임에서 그런 자세를 구현해보고 싶다.

① 소모임 꾸리기

소모임원 선정 대상은 2014년 집중식 수업 ‘명상과 타로’ 수강생으로 정했다. 소모임 활동이 수월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타로 해석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강생은 나를 포함해 총 9명이었고, 7월 22일 모집을 시작해, 이들 중 1학년 류소정, 오승택, 2학년 이한솔, 차민경이 소모임에 동참해주었다. 이들에게는 나의 소모임 운영계획이 담긴 ‘소모임 활동 매뉴얼’을 배부하였다. 그리고 후에 타로캠프에 다녀온 후 3학년 최형서가 동참해 나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타로 소모임이 되었다.

방학에도 활동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학 첫 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자세한 소모임 활동 내용은 부록에

부록 1. 타로 소모임 활동 일지(48~53쪽)를 첨부한다.

② 소모임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정도					하고 싶은 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리딩 훈련 내용이 나에게 적절했는가?		5	1			타로캠프를 또 한 번 열어요!
2. 소모임 운영이 잘 이루어졌는가?	1	3	1	1		모이기는 했는데, 몇 명씩 항상 없어서 아쉽. 애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3. 나는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소모임 활동에 응했는가?	2	2	2			마음은 항상 그랬지만 다른 활동과 겹쳐 성실 임하지 못했다.
4. 이 소모임이 나의 리딩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2	3		1		데일리 카드를 리딩하면서 눈대중은 생긴 듯. 그대로다.
5. 소모임원 사이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는가?	5		1			서로 싸우는 일도, 작은 다툼도 없이 잘 끝난 듯. 정택이가 화를 냈다. 무서웠다. 애들이 불쌍했다.

1. 이 소모임에서 좋았던 점은?

-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며 수다를 떨어, 서로의 마음을 듣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 평소에 접하기 힘든 타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이 알게 되었다.
- 타로 소모임들과 얘기를 해서 타로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던 것 같다.
- 리딩 실력, 다양한 배열, 카드 해석이 어느 정도 늘었다.
- 타로에 대해 탐구했다는 것.
- 친목 도모.
- 카드 뽑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해석하는 것.

2. 이 소모임에서 아쉬웠던 점은?

- 시간이 너무 짧았다.
- 카드에 대해 알지 못해 해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 모이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
- 약속을 안 지켰던 것.
- 사람들이 다들 항상 몇 명씩 빠지고 다 모인 적이 드물어서 그 점이 좀 아쉽다.
- 타로캠프를 가지 못해서 카드에 아직 미숙한 점.
-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3. 지금까지의 소모임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이 형의 논문이 끝나도 발전해나가는 소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재밌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 리딩 실력이 늘어서 좋았고, 모이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중을 잘 못 했는 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 우리 타로 소모임 계속 해요! 회식도 가요(속닥속닥)
- 소모임을 계속한다면 전 보다 더 열심히 할 의향이 있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타로소모임에 든 건 논문을 도와주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내가 타로에 대해 더 알기 위했던 이유도 있었다.

소모임 활동을 마치며 생각해보니 공식적으로 논문에 기재된 소모임의 비중은 매우 적지만, 실제로 논문을 쓰며 활동한 비중에는 소모임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주 모임 시간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약속한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실망하기도 하며, 어떻게 하면 소모임을 내 논문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매우 바쁜(?) 아이들의 스케줄 때문에 같이 타로캠프를 가지 못한 것은 정말 큰 장애가 되었다. 비록 집중식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지만, 깊이 배우지 못한 탓에 나와 지식의 차이가 너무 멀어 리딩을 공유해야 할 때 내가 타로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다. 게다가 타로 리딩 훈련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수다모임’이라고 소개를 하며, 타로를 꺼내야 했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었다. 또한 실제로 했어야 하는 활동들은 너무나 장황했고 -타로 리딩 녹음해서 공유하기, 해설집 편찬 등 굉장한 것들이 있었다- 소모임에 거는 기대가 논문에 비중에 맞지 않게 거대했음을 느꼈었다. 한 마디로 소모임 활동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은 리딩 훈련과 타로의 보급이었는데, 정작 얻은 것은 논문을 쓸 때의 응원이었다. 내가 하는 활동을 응원해주고, 나의 1차 통과를 응원해주는, 논문을 함께 해주는 아이들이 있구나를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다. 내가 기대한 만큼의 활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중등부 친구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소모임은 의도와 다르게 논문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 활동이다.

2. 타로상담이란?

1) 타로상담의 정의⁹⁾

타로 상담에서는 상담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1명씩인 개인상담가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1~10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단상담으로 나뉜다. 간디학교에서 보통 성행되는 상담은 타로 개인상담이라 할 수 있다.

개인상담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상담의 한 형태이며, 흔히 집단상담과 대비되어 사용된다. 개인상담에서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감정·태도·동기·행동성향 등의 명료화와 변화의 촉진에 그 초점이 된다.¹⁰⁾

그렇다면 타로 개인상담이란 무엇인가? 타로 개인상담은 내담자의 성장을 조력하는 ‘상담의 도구’로서 타로카드를 활용한 개인상담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로의 그림을 통해 무의식속에 잠재 되어있던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고, 현재의 나에 집중하게 하여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로 개인상담의 도구로서 타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로의 다양한 그림이나 상징은 개인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 지식을 얻기 위한, 즉 타로카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카드에 그려진 상징을 어떤 의미로 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담에 타로를 활용하게 되면 주의를 타로에 집중하게 되어 상담 초기의 긴장과 불안을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어 라포(rapport)형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9) 박나현, 「타로 개인상담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7쪽, 참고

10) 하우동설,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개인상담, 검색결과, 인용

셋째, 타로는 동시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동시성이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성 현상이 생기려면 일차적으로 의식의 긴장이 풀리고 의식 너머의 것을 파악하려는 새롭고 강한 호기심이나 감흥이 일어난다. 이런 호기심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카드를 섞고 상황에 맞는 배열법으로 배열을 한 후 해석을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자기노출을 유도할 수 있고, 내담자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강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매 회기 상담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타로는 '점술'이나 예언적 도구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기성찰의 도구로 보는 것이 더 알맞다. 타로의 상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을 하게 될 때, 타로는 내면의 강화와 심리학적 성장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대상 타로 개인상담

청소년을 상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동기가 낮다. 또한 여러 일에 동시에 흥미를 느끼고,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청소년에게 일반적인 상담은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진다. 거기에 청소년들은 언어와 정서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는 일은 청소년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복잡한 심리와 완전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청소년을 상담의 도구로 언어로만 상담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의 도구로 타로를 사용한다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담감을 완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상징으로 인해 그 카드를 해석하는 사람의 내면세계와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던 무의식을 알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정서나 느낌들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 자기노출을 촉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 특히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인 중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기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과다한, 또는 부족한 자기노출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도 상담자들은 중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즉 자기노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느낀 점으로는 상담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기노출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기 위해서는 자기노출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한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의 도구가 바로 타로이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필수조건인 건강한 자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심리적, 성격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자아정체감은 필수적이다. 정신분석학파에서 사용하던 자아의 개념과 근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의 개념을 통합하는 개념인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의미하며, 집단적 정체 의식속에서도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를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조건이다. 자아정체감은 전 생애에 걸쳐서 형성되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는 인지적 발달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고 가설적 사건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 개념의 확장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가치와 이념들에 대한 사고의 확장도 일어난다. 이러한 인지적 발달은 청소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탐색의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이 삶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고, 보다 깊은 자기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로 개인

상담이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간디학교 타로상담

(1) 간디학교 타로문화의 확산

간디학교 타로문화의 확산을 태동기, 확산기, 정착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① 태동기

간디학교에는 2014년 집중식 수업 기간에 처음으로 타로가 들어왔다. 물론 그 전부터 우리학교에는 타로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나 -내가 2학년 때 희라 쌤께서 생활관에 올라오셔서 학생들에게 타로를 봐주시기도 하셨고, 태진 쌤께서도 학생들에게 타로를 봐주셨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는 타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타로 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학생들의 문화는 아니었다. 그러다 희라 쌤께서 개설하신 집중식 수업 '명상과 타로'로 간디학교에 타로 문화가 학생들에게 새롭게 전파되었다. 전파된 타로 문화는 빠르게 발전되어 갔다. 유일하게 타로를 볼 수 있었던 살림터는 금새 타로샵이 되어 타로를 '봐주는' 학생을 중심으로 서너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고 살림터의 탁자는 문정성서를 이뤘다. 살림터가 어찌나 북적거리는지 살림터의 선생님들께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타로를 보러온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열정적이게 타로문화를 체험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7시간 30분(하루 1시 30분×5일)정도로 짧은 수업시간으로 높은 타로 실력을 가지기 못하고, 타로 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 또한 없었다. 간디학교 타로문화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집중식 수업 기간과 기말주간 동안 타로 문화는 정말 '열심히' 형성이 되었다.

② 확산기

이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 타로 문화는 '확산기'에 접어들었다. 타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타로를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타로를 논문 주제로 선택하면서 방학 동안 타로를 배워왔고, 수준을 올려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학생들이 타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집중식 수업 수강생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필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타로리더(Tarot Reader)들이 타로를 봐주면서 타로가 간디 학생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자 타로문화가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더불어 2학기 정규수업으로 개설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타로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지만 2학기 초반의 타로문화는 정규수업에 약 30명 정도(정원은 10명)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거품이 잔뜩 올라와 있었지만, 2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타로문화는 점점 일부 학생들의 문화로 정착되어 갔다. 가끔 타로를 펼쳐놓고, 타로 리딩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전처럼 학생들이 때로 모여 열 명씩 대기하면서 타로를 볼려는 의지를 표하는 경우는 적어졌다. 물론 타로를 보고 싶은 사람이나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만, 모두가 타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점이 거품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킨다.

③ 정착기

거품은 점점 빠지고 있지만 거품은 빠지되 잊혀지지는 말아야 한다. 타로를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간디인이 깊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성장을 조력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자세를 갖춘 타로 리더들과 재미를 위한 도구나 신비로움의 결정체 등의 낮은 인식이 아닌 학교생활의 조력자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타로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나와 타인,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하고, 변화된다면 정착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 교내 타로문화의 특성

타로 소모임 내에서 교내 타로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지적된 가장 큰 문화의 문제점은 '인식 부족'이다. 사실 타로라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 그 만큼의 깊이도 부족했다. 점이나 재미의 도구로 사용하고, 무게감도 못 느끼고, 가볍게, 동기 없이 단순히 미래를 보고 싶어서 타로

리더에게 타로를 읽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타로 리더를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사례를 소개한다. 친구를 봐주러 다른 방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 새벽 1시간까지 타로를 봐주었다. 게다가 황당했던 것은 “재미로 보는 거 아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인당 세 번씩은 보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친구를 봐주러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장장 1시가 30분 동안 총 일곱 사람의 타로를 봐주면서 공허함, 회의감 등 오만 감정을 느꼈었다.

상담의 도구라는 인식이 부족해 단순히 짧게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배제된다.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타로 리더의 실력이 늘 수 있겠지만 10명이 몰려와 타로리더의 예언(?)만 듣고 간다면 지칠 수밖에 없다. 결국 내 안에 있던 것을 퍼주는 꼴이 된다. 특별한 동기가 없으니 타로를 상담이라 느낄 수 없다. 물론 타로가 간디인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지만, 인식이 바뀌어 더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 타로마스터¹¹⁾와의 만남

1) 타로캠프 기초과정

한국타로학회에서는 교육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고급과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또한 ‘타로’라는 분야로 논문을 쓰기에 앞서 집중식 수업 때 배운 것에서 나의 실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가 민혜 쌤, 희라 쌤의 추천을 받아 우리학교의 학부모님이시자, 한국타로학회 김은아(라다) 타로마스터께 부탁을 드려 타로상담 기초과정 캠프를 개설, 참여하게 되었다.

[제천간디학교 타로소모임] 타로상담 기초 과정

본 프로그램은 타로카드의 상징과 지혜를 통해 나, 타인, 관계, 삶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고 타로 리더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메이저와 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한 이해와 성격카드, 카르마카드, 기본배열법, 상담에 활용할 배열법을 공부할 수 있다.

일시 : 2014. 8. 13(수) 오전 9시- 저녁 10시, 14(일) 오전9시 - 저녁 10시

장소 : 우이동 삼각산재미난카페

진행 : 김은아

준비물 :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덱, 스프레드 천,

참가자 : 1학년 오승택, 3학년 오정택, 차한비, 최형서

타로캠프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 처음으로 집중식으로 타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타로캠프였다. 집중식 수업만으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상담실력 또한 정말 보잘 것 없었다. 타로캠프에서의 배움이 상담을 진행할 때, 논문을 쓸 때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특히 이번 타로 캠프에서는 다양한 시각, 다양한 배열, 마이너 카드와 코드카드까지 배워 정말 알찼으며, 타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어 소중한 기회로 남았다. 타로 캠프를 듣지 않았다면 해석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나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타로에 대해 이해하며, 철학을 가질 수 있었고, 타로란 무엇인지 알며,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도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흔쾌히 개설을 해주신 라다 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바쁜 스케줄 탓에 소모임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타로캠프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내적 성장을 하게 된 기회라고 생각한다. 타로캠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부록 2. 8월 13~14일 일지(53~54쪽)를 첨부한다.

11) 한국타로학회 자격등급: 타로리더 2급<타로리더 1급<타로 카운슬러<타로 마스터<그랜드 마스터<그랜드 슈퍼바이저. 내가 만난 타로 마스터는 김은아 타로마스터이다. 서울불교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상담원이며, 춘해대학교 겸임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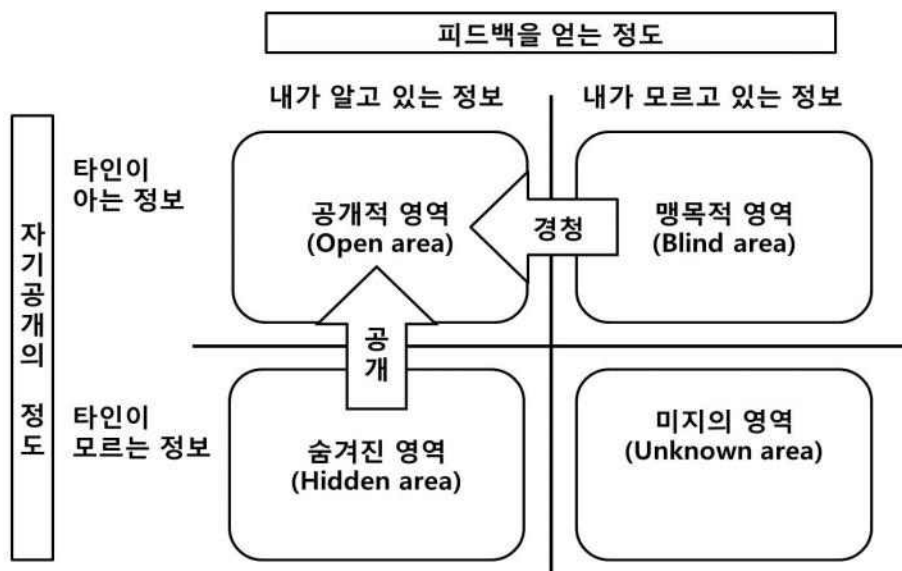


2) 집단상담

(1) 기획

상담자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중 한 가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맨 땅에 헤딩이 아닌 상담자 자신 또한 상담의 경험이 있어야,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상담을 경험하여 상담의 형태를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상담으로 논문을 쓰고 있지만, 상담의 경험이 전무하고, 소모임과 '타로명상요가'의 수강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의 경험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하였다.

집단상담으로 기획한 내용은 “조해리의 창” 프로그램이다.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이란?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 Ingham)의 이름을 합성하여 1955년 명명되어 만들어졌다. 이 조해리의 창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또 다른 면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조해리의 창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에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공개적 영역-,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숨겨진 영역-,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영역-맹목적 영역-,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미지의 영역-있다고 한다.



일시 : 2014. 10. 5(일) 오후 3 - 6시

장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진행 : 김은아

준비물 :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덱, 스프레드 천(없는 사람은 신청 시 주최 측 준비)

참가자 : (학생) 1학년 류소정, 오승택, 최문형, 3학년 박성민, 안효원, 오정택, 이시은, 이예슬, 최형서, (마을주민, 학부모) 나영미(12예슬, 13한슬맘), 김지화(10현선, 12효원맘), 강미영(10준상, 13지현맘), 정희정(06지수, 08지성맘), 임진미(12시은맘), 우영희(12가람맘), 박민주(무지개 쌤), (교사) 고희라, 송민혜 (총 18인)

참가비 : 10,000원

(2)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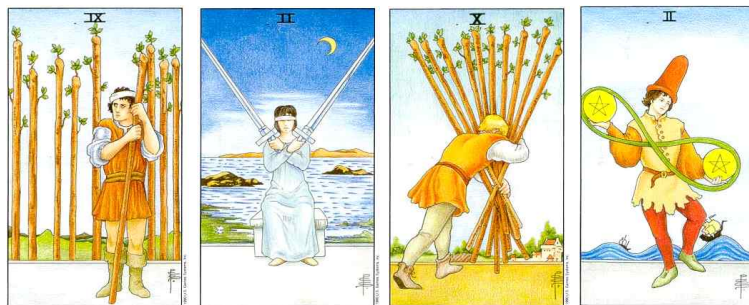
3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의 인사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집단상담 지도자인 라다 타로마스터의 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상담이 시작되었다. 이번 집담상담에는 조를 나누어 이야기를 하여 자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제비뽑기로 조를 나누었다. 어른들과 학생들 각각 4명, 5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어른 1조 : 고희라, 정희정, 임진미, 나영미

어른 2조 : 송민혜, 우영희, 박민주, 김지화, 강미영

학생 1조 : 박성민, 류소정, 이시은, 오승택, 안효원

학생 2조 : 이예슬, 최형서, 최문형, 오정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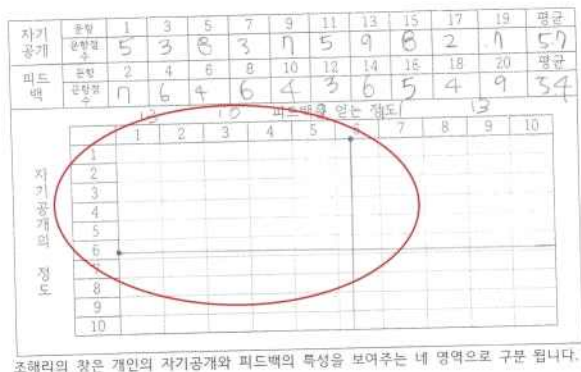


▲나의 공개적 영역 ▲나의 숨겨진 영역 ▲나의 맹목적 영역 ▲나의 미지의 영역

먼저 카드를 보이게 펼쳐서 공개적 영역(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과 숨겨진 영역(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을 뽑는다. 카드를 보고 뽑는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없다. 똑같이 자신의 무의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카드를 보고 “왜 이 카드를 뽑았나?”, “이 카드가 어떤 의미인가?” 등의 모듬끼리 나눈다.

다음은 카드를 보지 않고 펼쳐서 맹목적 영역(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영역)과 미지의 영역(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을 뽑는다.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하고 모듬끼리 카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이 때 지도자(라다)는 각 조를 돌아다니면서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 11>은 내가 뽑았던 카드이다)

다음은 조해리의 창으로 나의 대인관계를 이해해 본다. 우선 쉬는 시간 동안 내가(기획자) 조해리의 창 설문지를 나누어 준다. 이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정도를 10으로 나누어 자신의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설문지의 문항에 대답을 한 후 자기공개 문항(홀수)과 피드백 문항(짝수)의 점수를 각각 더해 평균을 구해 표에 점을 찍어 그린다. 그리고 가장 넓게 나온 부분으로 자신의 영역을 알아본다.



조해리의 창 개방형



조해리의 창 신중형

<그림 12>와 <그림 13>은 두 가지의 유형의 설문지 결과이다. 평균을 구해 표에 줄을 그어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면 개방형은 왼쪽 위가 가장 넓고, 신중형은 왼쪽 아래가 가장 넓은 걸 확인할 수 있다.

개방형은 공개적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할 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주게되어 인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공개적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주책스럽고 경박한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신중형은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으로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며 속이 깊고 신중한 사람들이다. 타인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 않는다.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크렘린형의 사람이 많고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경향이다. 잘 적응하지만 내면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다. 자기 개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한 유형이다.

그 외의 유형으로는 맹목의 영역이 가장 넓은 주장형, 그리고 미지의 영역이 가장 넓은 고립형이 있었다. 고립형은 한 명도 없었고, 주장형도 극소수만 있었다.

다음은 나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본다. 자신이 나온 유형의 위치에 있는 카드를 보고, 그 카드에 대한 나의 대인관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1장씩 뽑는다. 이 점에서 인상 깊은 점은 타로 카드가 말 보다 더 쉽게 표현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나의 경우에는 개방형이 나왔고, 공개적 영역이 가장 넓으니, 완즈9 카드에 대한 장점과 단점 카드를 뽑는다.



▲대인관계 장점카드 ▲대인관계 단점카드 ▲인간관계 도움카드

카드를 뽑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다. 나의 경우에는 쌓아둔 것이 많으니 안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어려움을 느끼면 숨고, 내 내면에 깊숙히 빠지게 될 수 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듬끼리 나누고, 새로운 카드를 뽑는다. 이번 카드는 한 가지의 영역, 자신이 바꾸고 싶은 카드를 정해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도움카드를 뽑는다. 나는 맹목적 영역인 완즈10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카드에 대한 도움카드를 뽑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나를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바꾸는 카드이다. (<그림 14>는 내가 뽑았던 카드이다)

모듬원들과 나누고, 조별로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각 조에서의 소감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돌아

가면서 오늘 총평을 했다.

●소감 나누기

강미영: 타로카드를 여전히 모르면서도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카드로 이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흥미롭네요. 카드가 정말 예뻐요.

우영희: 항상 새롭고, 도구가 마음을 나눌 쓸모가 있다는 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화: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 다른 분들의 마음속 얘기를 듣고 하니 친해진 것 같아요. 종종했음 좋겠어요.

박민주: 모둠원이 적당해서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었어요. 나를 더 많이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송민혜: 올라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고민을 나누니 많이 배우고, 친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오승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기하고, 새롭고, 새삼스럽게 타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편안해지고, 저의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시은: 저를 잘 모르는데, 알게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박성민: 저도,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타로에 흥미가 생겼어요. 남의 문제에 신경 쓰는 만큼 나의 문제에도 신경쓰라는 것 같아요.

류소정: 저의 것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최문형: 나를 알게된 것 같아 신기했고, 타로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어요.

안효원: 아쉬워요.

이예슬: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형서: 나에 대해서 듣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정택: 깨달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정희정: 타로가 나오는데 재밌고, 신기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인 것 같기도 하고. 논문을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게 신기했어요.

고희라: 타로는 저에게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무척이나 위안이 되었고, 저를 위로해줬고, 저를 보여줘서 편안했어요.

나영미: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새로 알게 된 점도 있고, 제가 봤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해석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임진미: 시은이와 같이 왔는데, 가족끼리 왔으면 더 나눌 수 있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카드가 나와서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은아(상담 지도자): 이 모임이 신기해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모이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신기했고, 기운도 참 좋았었습니다.

집단상담 평가 설문지를 나누어 작성한 후 집단상담은 종료하였다.

(3) 평가

집단상담 평가 설문지 통계-어른

평가 항목	평가 정도					하고 싶은 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타로카드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	3				좋은 시간이었어요~ 최근 머릿 속이 복잡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됐어요.

2. 집단상담의 진행 방식이 적절했습니까?	4	5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좋은 시간이네요, “관계”중심의 스트레스와 모듬활동이 너무 재밌었어요.
3. 본인은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습니까?	8	1				타로는 언제나 흥미로워요!
4. 타로카드 집단상담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	3				모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지요~!

1. 다른 자기이해, 타인과의 소통 프로그램과 타로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타로카드의 신비함,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자기이해와 다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쉽게 접근할 수 있다-자기 얘기를 푸는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마음을 드러내고 해석하고 나눈다는 것이 무척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
- 흥미유발에 좋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깊은 내용으로)
- 지면이나 언어로만 경험했던(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양한 카드를 통해 진행하여 더욱 흥미롭고 집중할 수 있었다
- 일단 도구를 이용해서 재미가 두배가 돼~
-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 모르겠어요.
- 여러 명에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그림을 통해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새로웠음.
- 그림에 의지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한다.
-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남의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음

2. 이 집단상담에서 아쉬웠던 점은?

- 카드해석은 제대로 안 된 점. 즉 선생님이 더 많은 시간하시기가 어려웠던 점이 좀 아쉬움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모른 채로 해석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의 해석으로 제대로 이해한 경우가 몇 번 있다보니)
- 전체적으로 얘기 나눈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듯.
-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연계
- 모임구성이 3~4인이 훨씬 깊이 있고 집중적인 조별활동에 도움 될 듯하다.
- 시간이 부족했다
- 오늘 처음으로 타로를 만져본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타로에 대해 기본지식이라도 조금 갖고 집단상담에 시간을 가졌다면 더욱 풍부하게 자기 성찰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학생들 모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매우 궁금함ㅋㅋ
- 1회성이 아닌 조금 더 깊은 상담이었음...
-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집단 형성, 우리는 5명이라서 시간이 항상 모자랐어.

3. 오늘 프로그램 기획, 운영, 느낀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주세요

- 논문을 위한 기획이었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한 정택이 정말 수고 많았어요
- 타로를 이용한 상담프로그램에 흥미가 생겼다. 고맙습니다!
- 조별 사이의 공간이 좀 더 독립적이면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 감사하다. 참만했고 즐거웠다

- 이번 기회로 타로를 접해 기뻐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이에게 감사해용
- 일단 심신이 힘들 때 좋은 프로그램을 타로에 '타'자도 모르는 나에게 꽃아줘서 고마워 정택아 I Love You
- 학생들이 적극적인 점! 예뻐요!, 논문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친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단상담 설문 평가지 통계-학생

평가 항목	평가 정도					하고 싶은 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타로카드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	4	1			나에 대해서 알았다.
2. 집단상담의 진행 방식이 적절했습니까?	2	5	1			지도자님의 카드 설명은 정말 칭찬할만하다.
3. 본인은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습니까?	4	2	1	1		최선을 다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4. 타로카드 집단상담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3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를 눈으로 보면서 느꼈다.

1. 다른 자기이해, 타인과의 소통 프로그램과 타로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타로는 타로라는 특정 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도 내기 쉽고 타인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본다.
- 도구를 이용했다는 것
- 다른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다
- 흥미가 가고 편하다
- 모르겠다.
- 왠지 더 신비로움ㅋㅋㅋ
- 더 편안함 근데 편안한 분위기는 타로 보다는 지도자의 영향인 듯
-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귀찮고 바빠서 안하게 되었는데, 이번 집단상담은 간단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왠지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길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같다, 기존의 상담은 언어로 말하는데, 이번 집단상담은 언어의 수단을 타로로 표현했다.
- 훨씬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2. 이 집단상담에서 아쉬웠던 점은?

- 없다
-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
- 집중이 안 되었다
- 뭔가 더 오래하고 싶었다
- 인원이 많아 한 명, 한 명 봐줄 수가 없었던 것
- 친한 사람이 아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 공감해주기도 힘들었다.

- 어른들과 섞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

3. 오늘 프로그램 기획, 운영, 느낀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주세요

- 정말 좋았다

- 학생, 부모, 교사가 다 있어서 좋았다

- 재밌었어요.

-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되서 좋았고, 접하기 힘든 집단상담이라는 방식이 새로웠다. - 편안했고, 기획도 기획이지만, 지도자님의 집단상담은 정말 끝내줬어요.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타로 집단상담을 처음 접해보는 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음에 들어 했다. 상담에서 보통 사용되는 도구는 언어이지만, 청소년이나 자기노출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타로를 사용하면, 이미지에 자신의 무의식을 투영하여 내면세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집단상담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상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른과 학생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어른들은 집단상담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데에 비해,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대답했는데, 어른들과 함께 하며 부담감을 가진 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이다. 학생들의 심리가 재미와 감각적 흥미를 추구하며, 평소 유대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동석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 분석이며, 또한 인원이 많았고, 타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언어상담도 흔한 일이 아닌데, 보다 더 특수한 타로 상담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타인이 보는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도자 선생님은 거의 오지 않으셔서 우리끼리 말은 더 많이 해야 했는데, 이런 점에서 내가 예상하던 집단상담 방식과도 멀어 새로운 기분이었다. 집단상담으로 기분이 좋은 것은 기획자 입장에서 성공적이게 끝난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얘기했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기획자 입장에서 말하면 너무나도 급하게 기획을 하게 되어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내가 초청하고, 모집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다시없을 기회이고,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많이 들었다. 상담 전 1시간은 정말 바쁘게 보냈지만, 그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4. 상담하기

1) 상담과정

간디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타로’라는 특정한 도구를 사용한 상담이 간디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하여 실제로 상담을 해보기로 하였다. 간디인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타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로가 과연 우리학교에서 상담의 도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연구지점으로 잡고, 고민을 갖고 있는 간디인에게 다가가 고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을 하였다.

(1) 일정 정하기

상담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의 작성된 상담 설문지만 통계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①가능한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함), ②적절한 대기시간(정신·신체적 체력을 보충하고,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함), ③상담의 특징 상 긴 상담시간 확보 ④분석시간확보(분석을 병행하여 더 발전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이 네 가지를 종합하여 30일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일정 상으로도 타로캠프를 통해 얻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한 2학기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개학식부터 논

문발표일까지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준비기간(8.24~31)과 상담기간(9.1~9.30), 정리기간(10.1~10.13)을 배치한 일정으로 정했다.

정한기간: 2014년 9월 1일~2014년 9월 30일

(2) 대상 정하기

간디인 중 목적인 청소년 상담은 학생이 해당되지만, 간디인으로 묶여있고, 학생들사이에서 살며,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상처를 받게 되는 교사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사를 포함한 많은 간디인을 상담하는 것이 나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목표 상담자 수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간디인이다.

대상: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간디인/목표 상담자 수: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간디인

(3) 상담 결과 평가 설문지 제작

앞서 일정 정하기에서 밝혔듯, 분석을 편의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했다. 문항들은 의도에 맞게 '①본인이 상담한 주제(본인이 상담한 주제를 기억하나, 못하나를 구분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 있다)', '②자기노출 만족도(타로의 특성 중 하나이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노출이 상담에서 얼마나 활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③고민은 무엇인가(간디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④걱정이 덜어졌는가(본 논문의 결과이자, 상담의 완성도를 물을 수 있다)'를 기본으로, '상담을 하게 된 상황', '상담 전 심리상태', '상담의 과정', '분위기', '배열', '전체적인 모습'을 추가했다.

부록에 부록 3. 상담 결과 평가 설문지를 첨부한다.

(4) 상담진행알림

상담을 진행하기 한 주 전(8.28 가족회의) 간디인들에게 논문주제를 소개하며 상담의 취지와 기간을 설명했다. 예약에 관련된 진행도 알렸다.

(5) 예약받기

상담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약을 받기도 했다. 예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시간약속을 잡았다. 예약을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약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있다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6) 상담하기

예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장소, 준비물, 사용한 배열, 실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 장소

상담할 때 쓰인 장소(횃수)는 강당(1), 강당마루(2), 과학실(1), 교장실(1), 구음악실(4), 국어과실(8), 기숙사 공부방(2), 기숙사 남 102호(6), 기숙사 비밀의 방(13), 기숙사 테라스(3), 사회과실(2), 살림터(6), 영어과실(4), 작은 식당(1), 카페(2)를 사용하였다.

장소는 '①너무 넓지 않은 곳(사람은 어머니의 좁은 자궁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작은 공간은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②조명이 적당히 어두운 곳(카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두움 것이 좋다. 마음을 추스르고, 모태의 동굴을 느끼며 상담할 수 있다)', '③타로를 펼치기 위한 적당한 규모의 책상이 있는 곳(타로카드를 원하는 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스프레드 천이 딱 달라붙는 책상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어과실, 사회과실, 교장실, 살림터(유리)의 책상이 내 기준에 부합한다)' '④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를 믿고 꺼내야 하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보고 있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 둘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를 원칙으로 세우고 장소를 선정했다.

위와 같은 원칙은 내담자를 위하는 동시에 상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상담자야 말로 가장 방해받기

싫어한다. 실제로 타로를 봐주다가 옆에서 방해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나의 상담이 자칫 상처라도 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남의 귀를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원칙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키기는 어려웠다. 사용한 장소의 종류가 많은 까닭이다. 일단 우리학교에는 상담실이라고 정해진 곳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장소를 고르러 다녔고, 하나 정도는 비어있었던 2층 교실을 주로 이용했다. 기숙사에서는 가장 적합한 비밀의 방의 경우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1시간을 넘기며 눈치가 보였다. 그래서 테라스에서 하거나 헹한 다목적실에서도 상담을 했었다. 게다가 나에게선 선호하는 교실이 생기자(사회과실, 국어과실, 테라스, 살림터 등등) 그곳을 고집하고, 그곳에서 못 하게 되면 내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학교에도 상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 준비물



①타로카드



타로카드가 있어야 타로 상담이라고 부르는 만큼 가장 당연한 필수준비물이다. 타로카드의 역할은 내담자와 상담자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로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도한다.

타로카드 한 장을 잃어버리면 낱장으로 구할 수가 없고, 카드가 구겨지거나 꺾이면 카드를 뽑을 때 의식이 작용할 수 있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특성상 잘 손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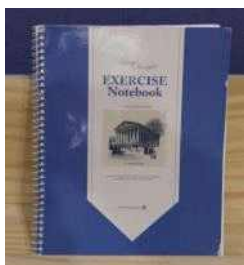
②스프레드 천



스프레드 천은 타로 카드와 함께 당연한 필수준비물이며, 타로 카드가 맨 바닥에서는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펴 때 밑에 깔아놓는 천을 말한다.

스프레드 천은 어느 정도 두껍고 테두리가 묵직해야 카드를 펼칠 때 밀리지 않을 수 있다. 화려한 무늬와 신비감을 주는 색깔로 내담자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카드가 부드럽게 퍼지면서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도구다.

③상담공책



상담공책을 상담을 할 때 기록하기 위한 준비물이다.

이 안에는 상담날짜, 내담자 이름, 상담주제, 배열, 상담배열과 상담에 나온 말들을 적는다. 상담자가 상담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논문의 특성상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록을 했다.

상담공책은 단순한 기록을 위한 준비물이므로 상담공책을 너무 공들여 쓰기 보다는 내담자에게 정성을 쏟는 편이 훨씬 낫다.

④ 녹음기



내담자들이 가장 불편해하지만, 상담자에게는 꼭 필요한 준비물이다. 인터뷰 때 자신의 상담을 들어보고 반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조언을 받아 사용하게 됐다. 따라서 녹음기는 내담자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상담자를 위한 도구이다. 그런 만큼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사용했으며, 내담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⑤ 타로 책



상담을 할 때 카드해석을 보조하기 위한 준비물이다. 타로를 배운지 세 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함으로 책을 참고하며 상담을 했다. 라다 썸께서도 한 동안은 책을 보면서 타로를 봐주셨다며 참고하라고 조언해주셨다. 내가 사용한 책은 타로 캠프 참고서이다. 그렇지만 너무 책에 맹신하며 상담자 자신의 느낌이나 당시의 분위기를 뒤로한다면 형식적이고 맞지 않는 옷 같이 어색한 상담이 된다. 정말 모르겠는 경우에만 참고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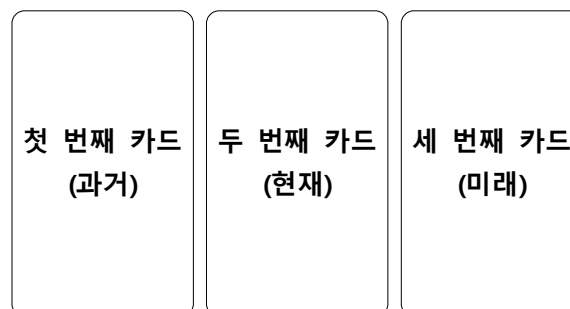
③ 사용한 배열

배열이란 '스프레드'라고도 하며, 질문자의 질문에 맞는 정해진 방식으로 카드를 배열하여 읽는 것을 말한다.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사용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정해진 스프레드만 써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도 상관없다.

① 한 장 카드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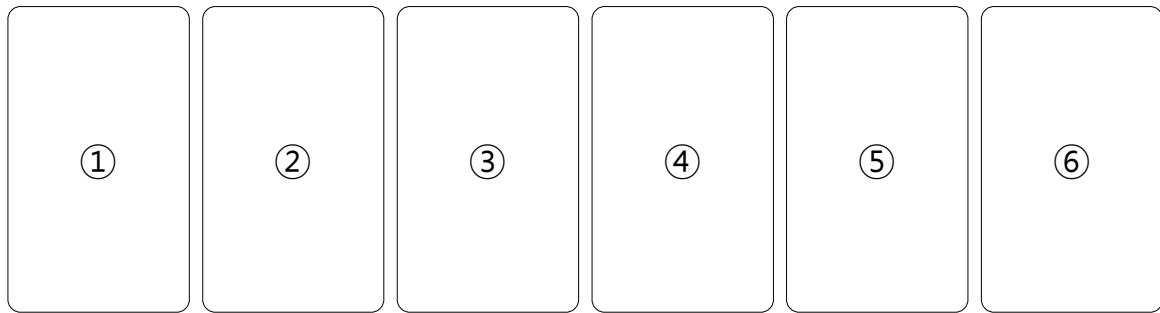
한 장의 카드로만 뽑아 질문에 대답해본다. 사실 모든 배열이 한 장 카드 배열의 연장이다. 한 장 배열은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데일리 리딩을 할 때 쓰인다. 한 장 카드 배열은 어떤 질문에도 쓸 수 있지만 한 장의 카드로만 답변을 하니 자세하고, 정확한 해석이 힘들 수도 있다. 즉흥적인 질문에 간단하게 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 장의 해석을 깊게 생각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과거, 현재, 미래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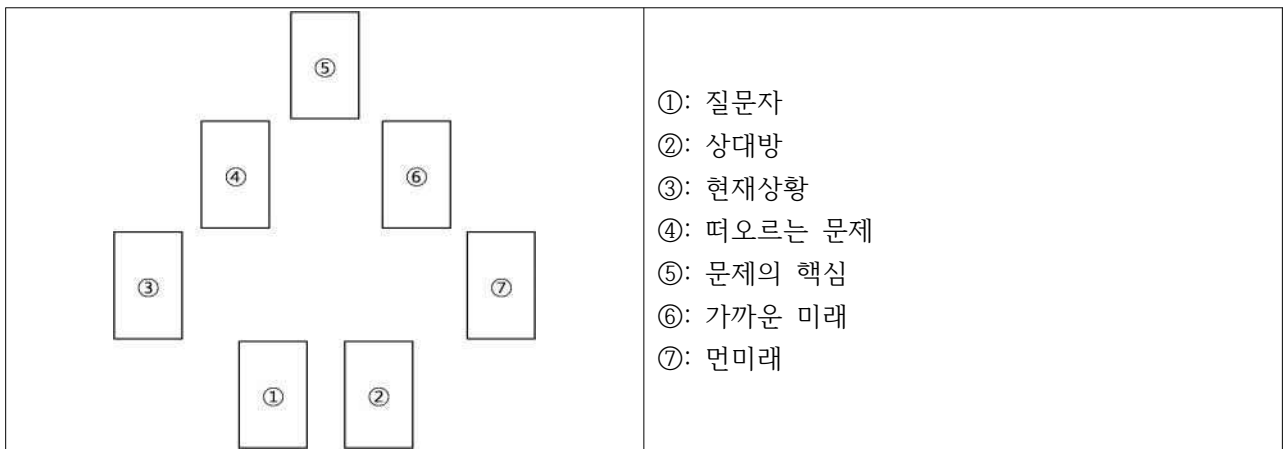
과거, 현재, 미래 배열은 총 3장을 뽑는 배열이며, 첫 번째 카드는 과거,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세 번째 카드는 미래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배열이며, 간단하면서도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배열이다.

③6장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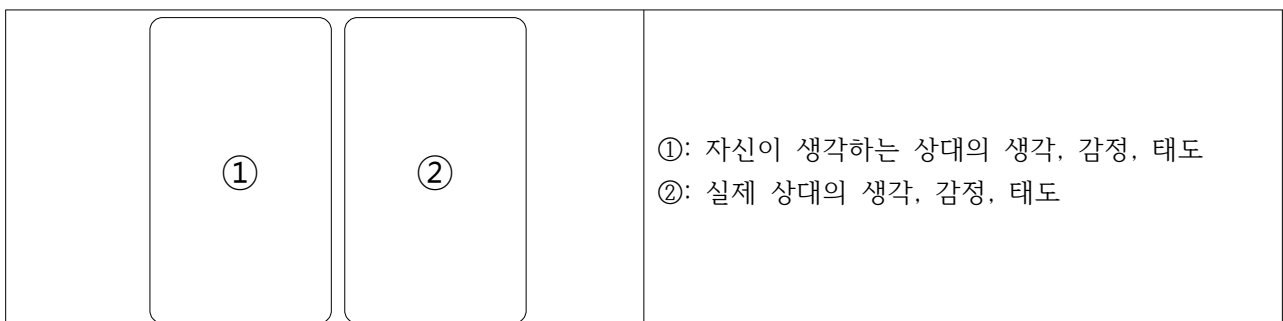
나의 스승님이신 희라 쌤께서 주로 사용하시며 자연스럽게 나도 선호하는 배열이다. 6개월의 운세를 보는 배열로서 1장 당 1개월(오른 쪽으로 시간이 흐른다)을 상징하며, 6개월 안의 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태와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기 적당하다.

④관계배열



주로 연애 상담에서 사용하는 배열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배열이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선배, 교사 등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등의 가능성을 초점에 두기보다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⑤2장 배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배열이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이고,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타로 캠프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볼 때 메이저 카드 중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뽑으라고 가르쳐준 것을 응용한 배열이다.

⑥말발굽 배열

	① : 현재상황 ② : 자신이 바라는 결과 ③ :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결과 ④ : 가까운 미래 ⑤ : 먼 미래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보는 배열로, 말편자 배열이라고도 부른다. 5장의 카드를 말발굽 모양으로 놓는데, 연애, 논문 등 일의 전개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열이다.

⑦성격카드(Soul 카드)



예) $1+9+9+9+0+8+1+5=42$, $4+2+=6$ /내 성격카드(Soul 카드): 6.The Lovers

자신의 생년월일의 숫자를 모두 더해 마지막 한 자릿수, 나올 때 까지 숫자끼리 계속 더해준다. 메이저 카드 중 1~9까지의 카드들이 9가지 유형의 성격과 영혼을 알려준다. 나를 아는 방법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성격카드를 너무 맹신하다가가는 자칫 하다가는 성격카드만 보고 “애는 이런 애야”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내담자의 성격과 유형을 알아보며, 상담의 진행을 잡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⑧오픈카드

타로의 앞면을 보고 뽑는 오픈카드는 타로를 앞면으로 펼친 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뽑는다. 주로 상담에서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알아볼 때 쓰였다. 오픈카드는 집단상담에서 활용될 만큼 효과적이면서도 자기성찰에 도움이 되는 배열이다.

⑨갈림길 배열

	① : 현재상황, 질문의 핵심 ② : 과정, 가까운 미래 ③ : 결과, 먼 미래

현재상태에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해 각 상황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배열이다. 그렇지만 ‘모 아니면 도’ 같은 상황을 설정해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자칫 고정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급자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⑩캘틱크로스 배열

	① : 현재의 위치 ② : 당신을 가로지르는 것 ③ : 당신의 밑바탕, 오래된 과거(1년), 무의식 ④ : 당신의 뒤에 있는 것, 가까운 과거(6개월), 멀어지고 있는 영향력 ⑤ : 당신의 위에 있는 것, 아주 가까운 미래(한 달) ⑥ : 당신의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힘(2개월 정도) ⑦ : 당신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 당신의 감정상태, 당신의 느낌 ⑧ : 당신 주위환경 및 당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 ⑨ : 당신의 희망과 두려움 ⑩ : 최종결과, 문제의 결말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자신의 책<타로의 상징 열쇠>에서 캘틱 크로스 배열을 소개한 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배열이 되었다. 캘틱 크로스는 무려 10장을 뽑으며,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 질문에 대해 10장이나 되는 카드가 정확한 답을 알려준다.

④ 실행단계

①장소선정

장소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했다. 기숙사에서는 주로 테라스와 비밀의 방,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 102호에서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2층 교실을 주로 사용했다. 물론, 장소를 정하기 위해 많이 서성거렸다.

②상담 준비물 구비



주섬주섬. 상담 전, 준비물을 미리 꺼내놓고, 내담자를 맞이하면 좋겠지만, 귀찮음,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 내담자와 함께 장소에 들어가 타로가방에 넣고 다니는 준비물 꺼내 상담을 준비했다. 스프레드 천을 깔고, 타로 카드를 꺼낸 후 상담공책을 녹음기를 꺼내 기록과 녹음을 허락 말한다.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상담이 끊기지 않는다.

③질문받기, 정하기



타로는 정확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해주는 도구다. 상담자의 역할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을 같이 정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타로 카드를 섞으며 질문을 정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든다.

④카드 펼치기



타로 상담은 자신이 펼치고 자신이 뽑아서 자신이 해석하는 것이 기운이 강하고, 나를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하다. 따라서 “내가 한 번 펼쳐볼래?”라고 권유를 했지만, “잘 펼치지 못 한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내가 펼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카드를 펼치는 것이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기도 한다.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 데 타로카드가 잘(여기서 ‘잘’은 78장 모두가 보이고, 간격이 균일하며 스프레드 천의 끝과 끝에 다왔을 때) 퍼지면 내담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강조한다.

⑤카드 뽑기



보통 카드를 뽑을 때는 왼손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사람이 왼손은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왼손을 사용은 우뇌가 관장하는데 우뇌는 지능적인 면이 아닌 감정, 감성을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타로 상담인 만큼 감각적인 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왼손으로 타로를 뽑기 권장한다. 보통은 상담자 쪽으로 향하게 놓고, 내담자가 손가락을 가르키는 카드를 상담자가 뽑아 읽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내담자가 카드를 보기 편하게 내담자 쪽으로 카드를 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⑥카드설명



카드를 뽑고 나서 한 장씩 펼치며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한 번에 펼쳐서 타로 카드를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흐름을 중시한다면 한 장씩 넘겨가며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카드가 상징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내담자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또 상담자가 설명을 해주기 전에 내담자에게 카드에 대한 느낌을 말해보라고 유도하는 것도 좋다.

⑦피드백



상담자의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연관지어 피드백을 해준다. 자신의 일과나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민거리나 걱정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이 자기노출이다. 자기노출을 통해 내담자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담자는 경청과 공감을 통해 존중해주는 모습, 위로와 격려, 조언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노출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부담을 느낀다고 느껴질 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앞의 카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과 피드백을 받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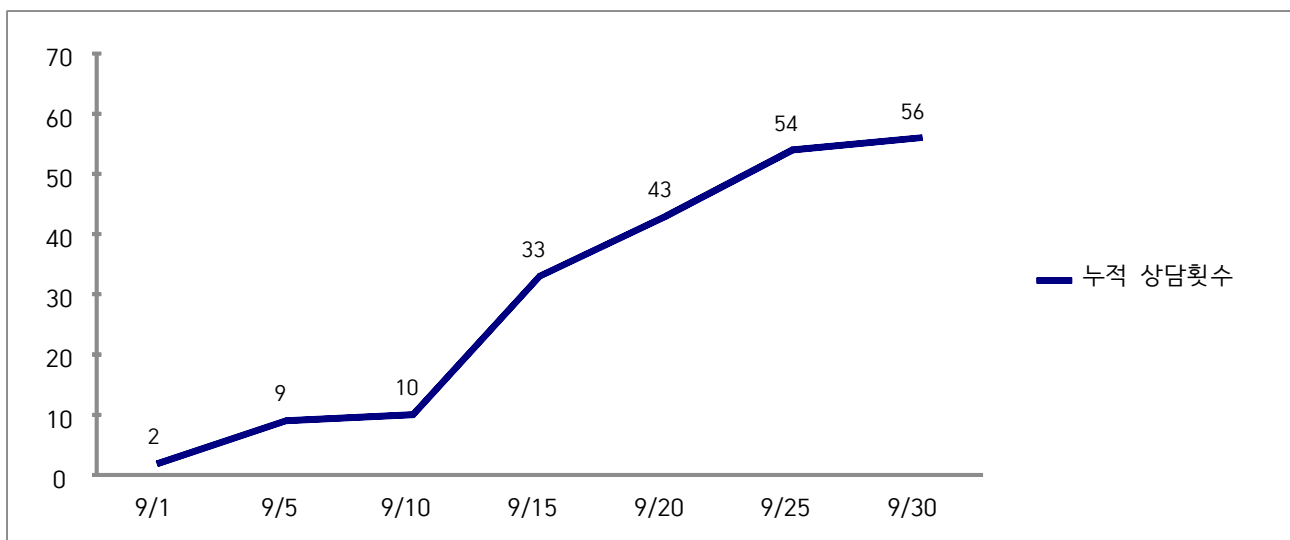
⑧상담종료, 설문지 배부



설명과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 상담은 종료된다. 종료시점은 애매함 경우가 많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나요?”를 물어보고 마친다. 종료가 되면 편안한 미소로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 타로 카드를 정리하고, 스프레드 천을 접으며 준비물을 담고, 정중히 설문지 작성을 부탁한다. 내담자와 함께 상담실 문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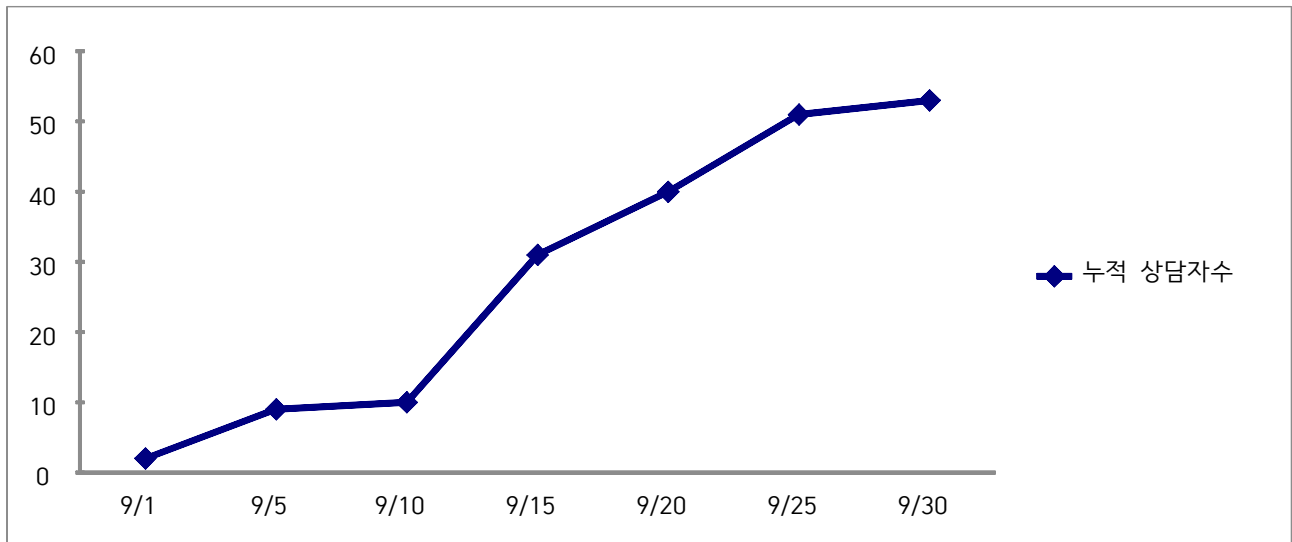
2) 상담결과

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총 56번의 상담을 진행했고, 53명의 내담자를 상담했다. 1회기 상담은 53번, 2회기 상담은 3번이었다. 이 상담결과로 간디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로 상담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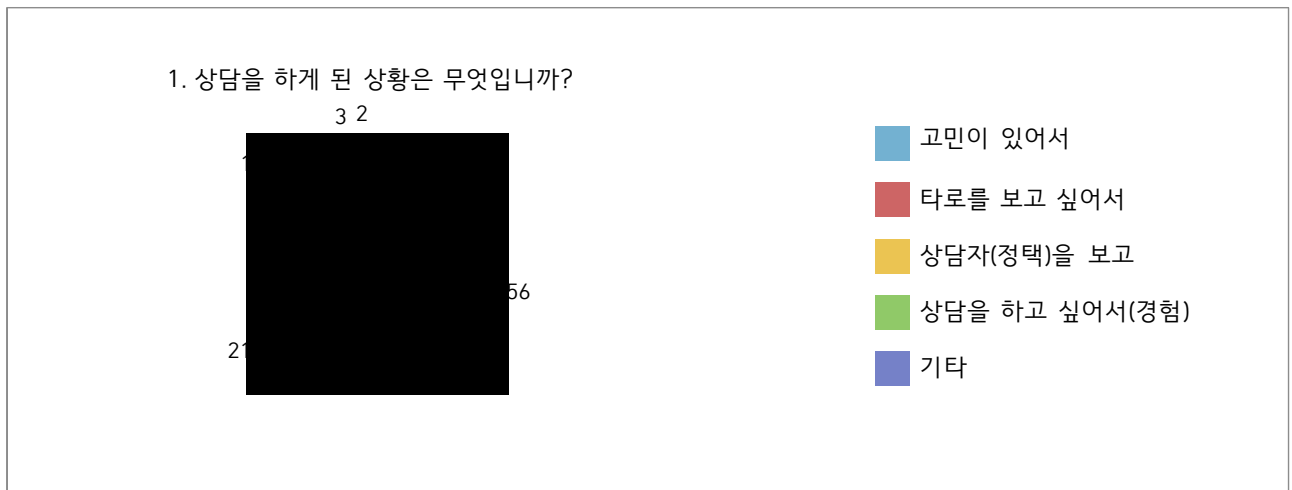
9월 1일, 2회의 상담으로 시작으로 5일까지 9회의 상담을 하고, 가정학습을 다녀왔다. 가정학습 입교일

에 상담을 해 10일까지 10회의 상담을 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학습 이후로 예약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후 상담횟수의 증가폭은 점점 줄어 16일부터 20일까지는 10회를 했고, 21일부터 25일까지는 12회, 30일까지 56회로 상담을 마쳤다.



상담자 수는 2회기 상담이 3번 있었기 때문에 상담횟수와 3의 차이가 난다. 상담자 수는 총 53명인데, 교사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전교생의 41.5%를 상담하였다.

다음 그래프들은 상담 후 배부한 설문지 질문(1~4번)에 대한 답변을 통계 낸 결과이다.



설문지 1번 질문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간디인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총 답변 수는 62개이다. 답변은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여러 개의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래프를 보면 '고민이 있어서'가 56%를 차지한다. 고민의 종류로는 '걱정이 약간 있어서', '고민들을 이야기하여 털고 싶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래서', '나의 성격 등을 파악해 보는 '자기정리'를 하기 위해서', '불안함' 등 나에 대한 고찰 또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진로나 미래', '논문', '인문학' 같은 학업에 관련된 고민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애가 하고 싶어서' 등의 연애 고민, '누군가와 싸워서', '학년과의 관계' 같은 대인관계 등의 고민이었다. 반 이상이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뒤로 '타로를 보고 싶어서'가 21%로 간디인들이 타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타로를 본다는 것이 타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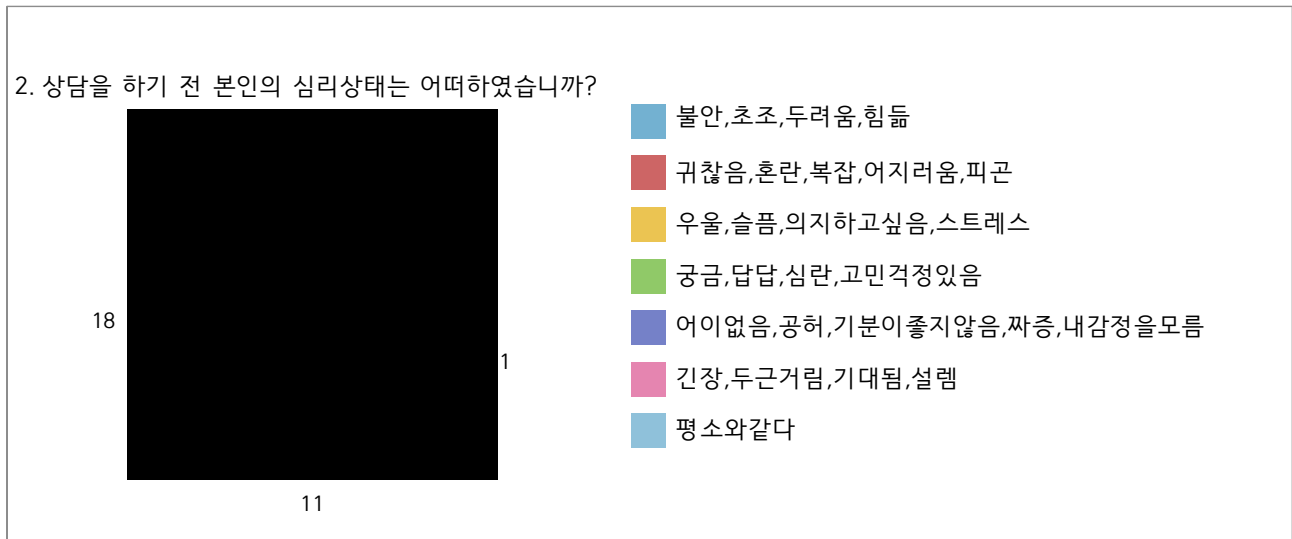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상담자를 보고'라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답변은 '상담자의 추천', '상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담자의 타로를 보고 싶어서', '떠오르는 타로스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서’, ‘좋다고 들어서’, ‘상담자 타로가 유명해서’ 등등 걱정이 있어서 상담을 했다는 것 보다는 상담자인 ‘오정택’을 보고 상담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답변은 ‘상담을 하고 싶어서’이다. 내가 분류한 이 문항의 기준은 상담이라는 경험을 쌓고 싶어서 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인데, ‘한번쯤은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궁금하고 받아보고 싶어서’ 등의 답변이었다. 상담도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기타는 ‘친구의 권유로’로 라는 답변이었다.

이 문항의 답변으로 간디인들은 걱정과 고민이 상담의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상담으로 택한 것을 보아 간디인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번 질문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는지, 고민을 갖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중복을 허용하였고, 총 답변 수는 65개였다.

가장 많은 것이 25%로 ‘불안, 초조, 두려움이나 힘듦’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장, 두근거림, 기대됨, 설렘’이 평소와 같다는 것과 함께 18%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아마도 타로를 본다는 기대감과 설렘이라고 해석된다. 기대치가 높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평소와 같다’라는 답변이 공동 2위로 5명 중 1명 꼴로 답했다는 걸로 보아 우리학교 학생들이 상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꼭 상담은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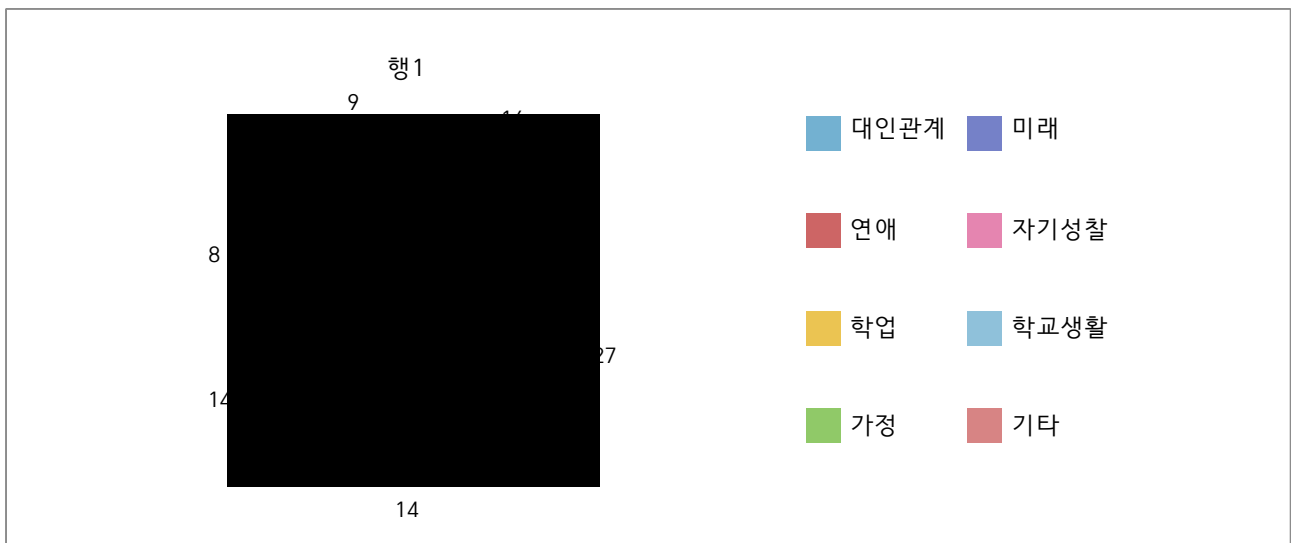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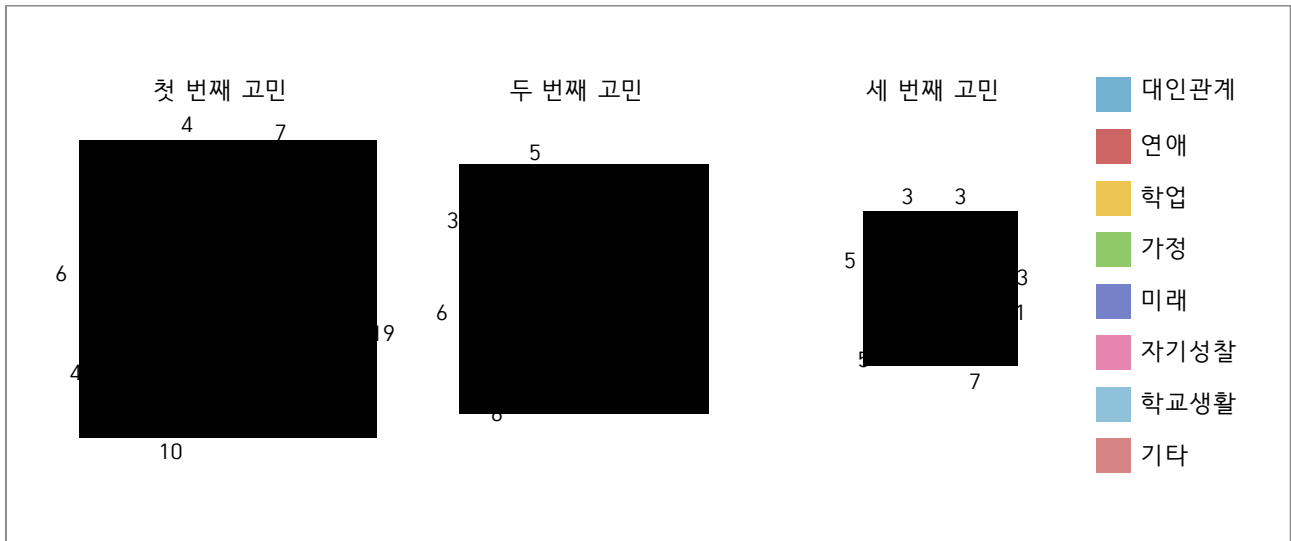
다음으로 ‘귀찮음, 혼란, 복잡, 어지러움, 피곤’이 11%이다. 문제의 정체성을 모르고, 어떻게 해쳐나갈지 몰라서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아하는 답변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궁금, 답답, 심란, 고민, 걱정 있음’은 8%이고, 고민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석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궁금해 하며, 심란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이없음, 공허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짜증난다, 내 감정을 모른다’라는 답변이 9%이다.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감정사태이다. 심리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은 수의 답변은 8%, ‘우울, 슬픔, 의지하고 싶음, 스트레스’다. 가장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해석이 된다. 우중충한 기분으로 의지하고 싶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담 전 심리상태를 짚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에 대해 부정적이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심리상태를 호전시켜주고, 안정적이게 하는 노력을 하고, 바뀌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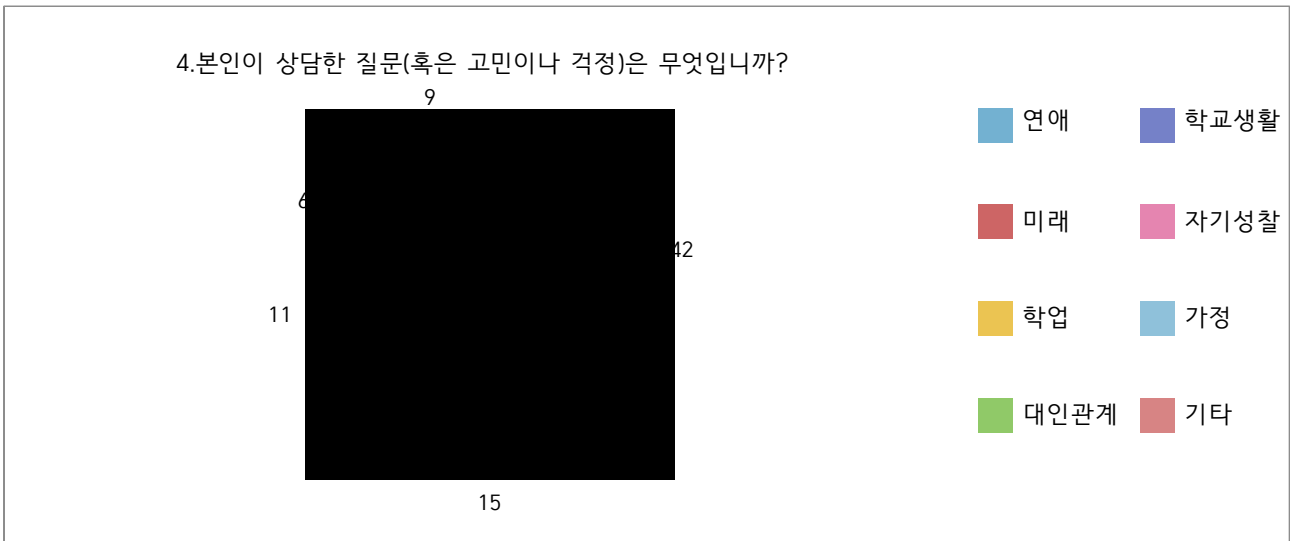
3번 질문은 ‘요즘 떠오르는 고민 중 가장 큰 3가지를 적어주세요’였고, 1), 2), 3)번으로 하여 나누어 적게 하였다. 모두 합한 답변은 133개였다.

첫 번째 고민으로는 연애가 가장 많이 나왔다. 간디인들이 연애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고민도 많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그 뒤로 학교생활의 당연한 고민이라 할 수 있는 학업과 대인관계가 뒤를 이었다.(답변 수 56개)

두 번째 고민도 연애가 가장 많이 나왔다. 간디인들이 연애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 한 번 더 확인되었다. 두 번째 고민은 대인관계, 학업, 미래(공동 3위) 순으로 가장 많았다.(답변 수 47개)

세 번째 고민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나왔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각각 4위와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간디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뒤를 이어서는 자기성찰, 학교생활(공동 2위)가 뒤를 이었다.(답변 수 30개)

합계 그래프이다. 단위는 %이다. 가장 많은 대답은 연애로 27%, 대인관계는 16%, 학업과 미래가 14%, 자기성찰과 학교생활이 각 8%, 가정이 4%, 기타가 9%다. 간디인들은 주로 연애를 포함시키는 관계와 가정에 대한 고민, 학업과 생활을 포함한 자기성찰에 대한 고민 둘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간디인들은 사람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치는 학교의 부위기의 특성상 관계에 있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인 만큼 연애에 대한 갈망과 욕구도 있어보인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작업의 진행’, ‘특정한 일’, ‘무료함’, ‘덕산생활’, ‘금전’, ‘집’ 등의 의견이 있었다.



4번 질문은 통계의 용이성과 상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문항이다. 한 번에 여러 주제로 상담한 것을 감안하여 중복을 허용했다. 총 답변 수는 81개였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역시 연애했다. 무려 42%가 연애에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다. 간디인의 연애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자신이 고민인 주제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학교 학생을 상담해 본 경험과 비교하자면 일반학교 학생은 학업을 중요시하고,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덜 가지고 있는 간디인은 연애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6회의 상담 중 연애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던 상담은 22회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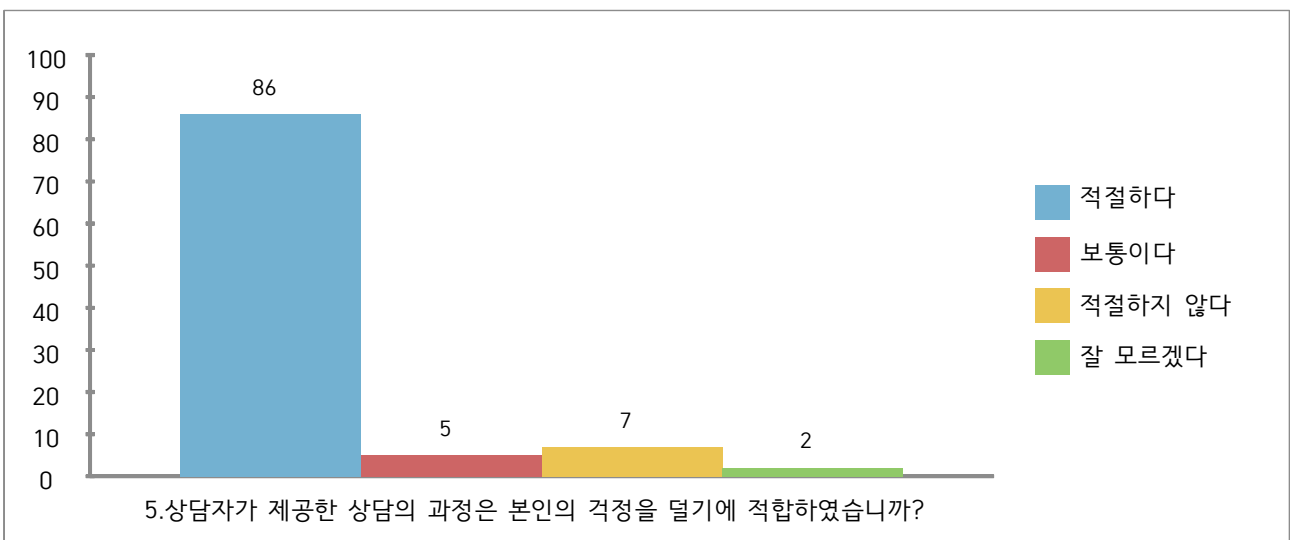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은 미래이다. 15%가 진로를 포함한 미래로 상담을 했는데, 자신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안심을 얻고, 궁금한 미래를 예상해보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학업과 대인관계가 11%로 공동 3위이다.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학업은 논문이나 인문학, 인턴쉽, 시험을 포함하는데 이는 간디학교라고 해서 압박감이 덜한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또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대인관계는 우리학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고민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결론을 예상하기 힘든 ‘마음’과 ‘감정’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타로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상담평가

다음은 설문지 질문(5,7~10) 중 평가를 목적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계 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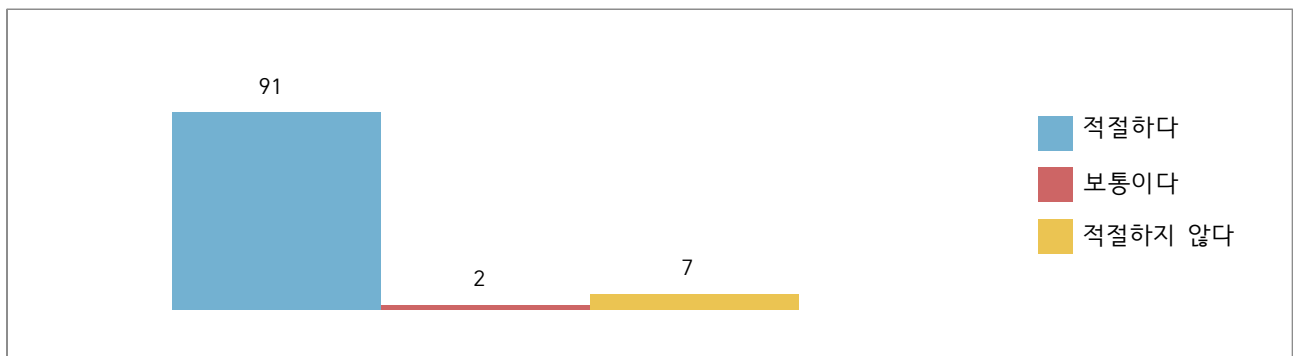


5번 질문은 상담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문항이다. 앞의 1~4번과 달리 5, 7~10번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프를 보면 무려 84%, 48회의 상담에서 상담과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상담과정이라는 것은 앞의 상담하기 중 실행단계가 예가 될 수 있으며, 말투, 질문을 정해 나가는 방식, 피드백을 받는 정도, 라포 형성, 상담자의 행동이 포함이 된다. 과정은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걱정을 덜기에 적절한 상담과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정도’라고 답변했으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에는 ‘걱정이 가중되었다’, ‘차를 따르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의견이었다.

잘 모르겠다의 의견으로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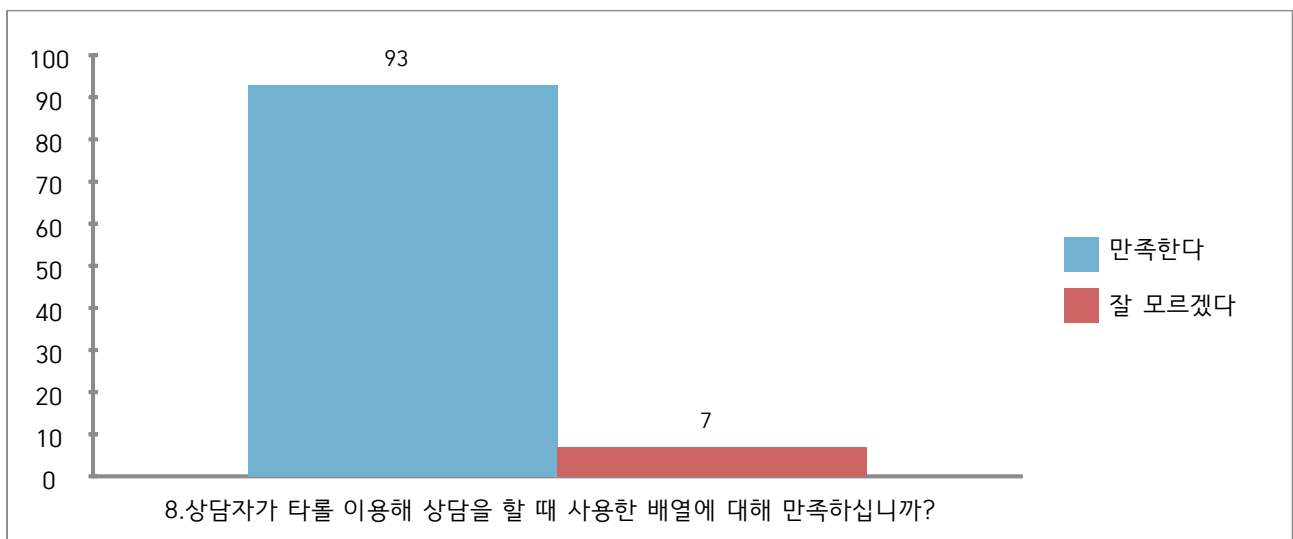


7번 질문은 내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생각한 ‘자기노출’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이다.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무려 91% 된다. 상담의 분위기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편한 분위기,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프를 보면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편하게 이야기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 라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하다는 의견으로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지만 상담의 분위기가 좋아서 적절함’,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털어놓았음’, ‘목소리가 딱 좋다’, ‘리액서도 좋고, 편안했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다.

‘보통이다’의 의견은 ‘그저 그랬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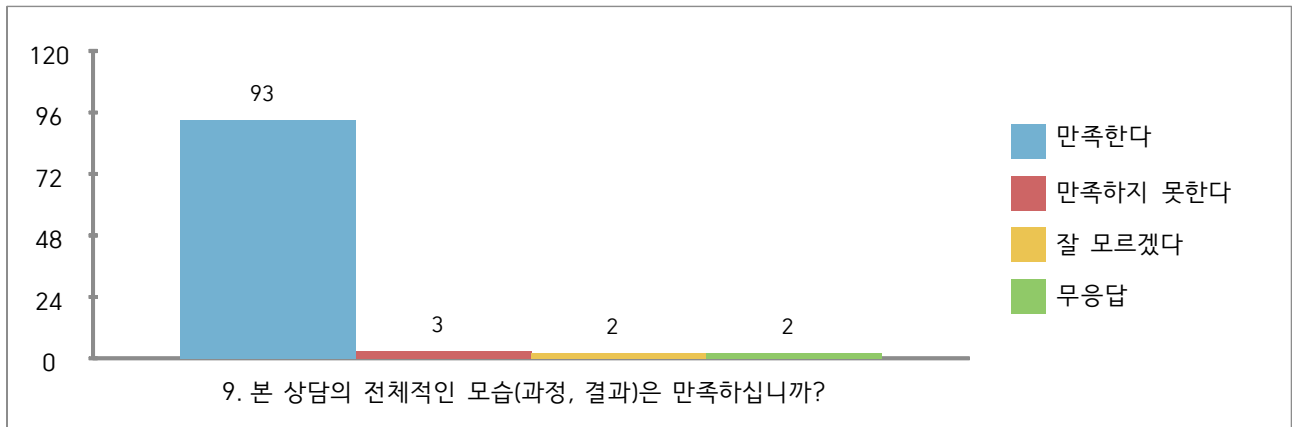
‘적절하지 않다’의 의견으로는 ‘사실 내가 이야기를 잘 꺼내는 편이 아니어서 힘들었을 듯’, ‘적절하기는 했는데 꺼내기가 싫었음’, ‘옆에 사람이 있어서 좀 그랬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한 느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상담자 자체도 내담자에게 강요나 캐묻는 것, 취조방식으로 상담이 흘러갔던 것은 상담자 자신의 부족으로 인한 불찰이었다.



8번 질문은 상황에 맞는 배열을 사용했나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흔히 ‘숙달된 타로리더들은 상황에 맞는 배열을 사용하여 리딩을 한다’라고 여러 책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93%이다. 배열은 상담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서 짚어야 할 것은 과연 내담자들이 ‘배열’이라는 것을 이해했냐는 것이다. 내가 상담할 때 ‘그럼 6장 배열로 봐볼게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배열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내담자들에게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이 묻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보면 ‘배열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을 묻기 전에 타로를 펼쳐서 정확한지 모름’, ‘다른 배열들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등의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배열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타로 리딩을 위해 카드를 놓는 것은 만족한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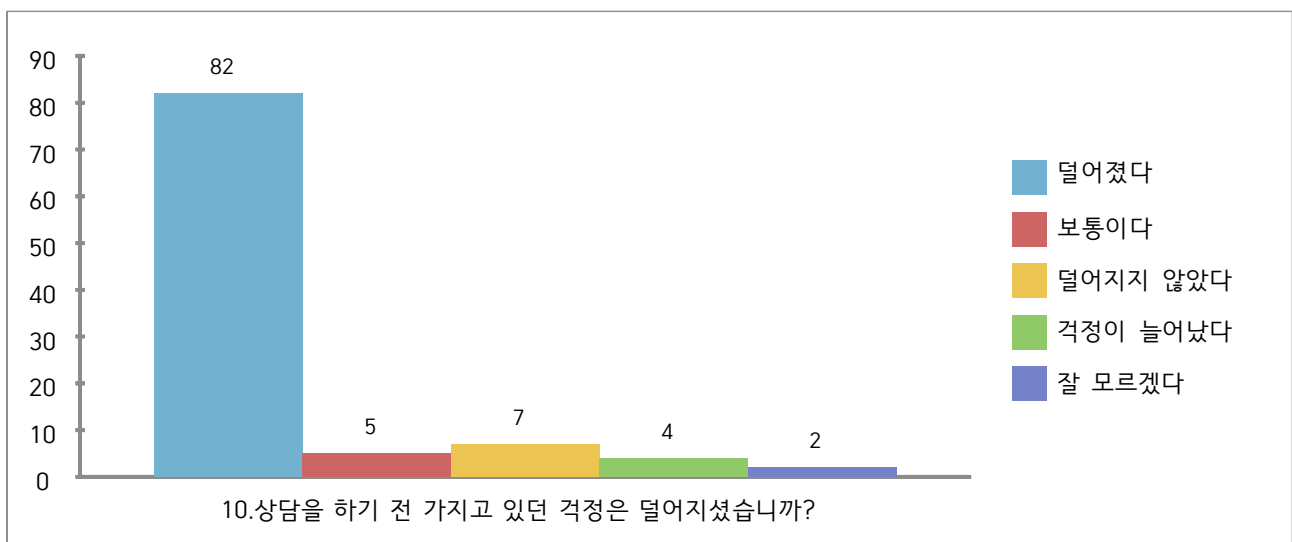


9번 질문은 과정을 포함해 처음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났을 때부터 상담의 결과와 종료까지 모두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번 문항에서도 가장 많은 답변이 ‘만족한다’였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만족한다는 것이다. 흔히 상담의 결과를 나온 카드로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상담의 전체적인 그림에는 만족하는 상담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뒤로 3%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의견으로는 ‘나온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담자가 좀 더 자신을 낮추고 내담자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몇 명의 내담자들은 상담과정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다’의 의견으로는 ‘글쎄’라는 의견이 나왔다.



10번 질문은 내 논문의 최종 목적인 걱정덜기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사람들은 타로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갔는지를 단면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86% 의견이 ‘덜어졌다’라고 답변했다. 상담을 한 사람들 중 5명 중 4명이 걱정을 덜고 갔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타로를 기점으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말 못할 고민들을 꺼내놓고, 위안을 얻고, 공감을 받았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의견에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엄청 뜻 깊었다’, ‘조금은 걱정이 줄어들었다’, ‘실마리가 풀렸다’, ‘나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등의 의견이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5%가 대답했는데, ‘그냥’, ‘40%정도’, ‘덜어진 부분도 있고, 덜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확실히 걱정이 덜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덜어졌다는 대답들이다.

‘덜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7%였는데, ‘덜어지지 않았지만 속 시원했고, 위로 받은 것 같다’, ‘덜어진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짐’이라는 의견은 걱정과 별개로 평안을 얻었다는 대답이다. 또한 ‘딱히’, ‘논문이 덜어지지는 않았지’라는 의견이 나왔다. 걱정과 별개로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와 걱정이 덜어지지 않았다는 대답이다. 걱정이 덜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담자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걱정이 늘어났다’라는 의견이 4%이다. ‘더욱 갈등된다’, ‘절대 덜어지지 않았음. 더 늘어남’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상담자의 역량이 부족한 까닭과 내담자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 혹독하게 느껴져서인 까닭이 있다. 오히려 카드를 보면서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보면서 안심보다는 오히려 불안해진 경우라고 판단된다.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에는 ‘글쎄요’라는 의견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래프로 보니 확실하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걱정이 덜어지고, 상담에 만족했지만, 단정짓거나 우쭐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주제는 걱정덜기이지만 내담자들이 얻고 싶던 것은 ‘위안’, ‘공감’, ‘안심’, ‘힐링’이었을지 모른다. 학생이고, 얼마 배우지도 않은 3개월 짜리 ‘초짜’가 걱정을 더는 것은 과한 욕심이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걱정을 덜어주는 건 내담자 자신의 역량이라 상담자가 바닷물 퍼내듯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걱정덜기 보다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위안을 얻고 간다면 걱정을 더는 것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5, 7~10까지의 질문들 중 ‘적절하다’, ‘만족한다’, ‘덜어졌다’ 등의 의견인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평균 89%이다 5명 중 4명이 만족을 얻어갔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나름 성공적인 상담이었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는다’, ‘덜어지지 않았다’ 등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나의 발전 부분을 짚어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자들이 상담을 연구하는 방법 중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상담을 공유해서 평가를 듣게 되는데, 이 때는 정말 혹평을 듣기 때문에 이른바, ‘상담자 깨지는 날’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없이 지적해나가며 바뀌어야 하는 점을 짚어준다. 이번 상담도 나에게 그런 기회였다. 나에게 온 혹평들을 직면해나가며 나의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기회는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상담 자체는 ‘내담자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상내가 어떤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느꼈고, 나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등 정말 많은 항목들이 곁들여져 있었다. 무리하게 걱정이 덜어져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소소하고 작은 기쁨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 상담이 서로에게 그저 시간의 흐름이기 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맞이해보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Ⅲ. 결론

1. 걱정 덜기

나는 논문으로 간디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5명중 4명의 비율로 걱정이 덜어졌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을 교환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활동 자체가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집단에 귀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것이다.

상담자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을 해보면 사람은 결국은 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상담자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래라 저래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걱정할게 아니다”. 등의 얘기를 사실 해줄 필요가 없다. 그저 알아서 얘기하다가 정리가 되어서 걱정이 덜리면 덜리는 것이고, 걱정을 더 하게 되면 더하는 거라고.”

“단지 상담은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시간만큼은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담자와 같이 있는 시간에 내담자가 건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건강한 반응을 하면서 걱정을 덜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지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이 말이 나에게 깊숙이 와 닿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바꾸어주었기 때문이다. 걱정이란 자신의 인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상담자가 위로를 해주는 것만큼 자신이 걱정을 덜어내려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상담자가 할 일은 걱정에 대해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확신을 내담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지해주고, 동의해준다면 안 덜릴 걱정은 없다. 참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상담을 했지만, 말도 얼마 섞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도 상담을 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공통적이지 않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바로 ‘내담자’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평가하면서 만나는 사적인 만남으로 만나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하고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 내담자로서 만났다. 그곳에서 전혀 몰랐던 다양한 사람과 그 만큼 다양한 고민들을 만났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학교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는 감정도 들었었다. 이 논문은 어떤 취지였을까? 나의 타로 리딩을 활용해보는 기회이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청’이라는 능력을 키워보고도 싶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 주는 것이라는 아주 쉬운 일이다. 힘들 때 손 한 번 내밀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걱정을 던다는 말이 너무나도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말을 써보자. “자신감”

2. 타로를 통한 나의 성장기

우리학교에서 아마도 논문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능력을 키우고, 시험해 보는 기회도 되겠지만,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획해 보는, 기회를 찾으면서 고등과 세상에 나가기 위한 시험대이지 않을까 싶다. 나는 논문을 쓰면서 성장기를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타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할만큼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성장했다고 하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2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대인관계의 불안에 너무 힘들어했다. 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2학년 때의 나는 “자퇴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만큼 심각하게 어두워 보였나 보다. 3학년이 되면서 나를 깨고, 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관계도 개선이 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신의 한수였을까? 집중식 수업으로 타로를 접하게 되면서 나의 학교생활은 달라지게 되었다. 타로를 논문주제 삼으면서 세심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상담을 하고, 타로를 봐주면서 실력을 강화하고, 강화한 실력으로 사람들을 봐주면서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여성적인 매력(?)으로 오명을 받기도 하고, 폄하되기도 했던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여 세심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타로를 봐주고, 상담을 해주자 인식이 돌려지게 되었다. “갯정택”이나 “타로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점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나 자체의 변화도 있다. 원래 나 자신은 나약했다. 나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3학년으로 올라오며 생각이 변하고, 그에 맞추어서 타로가 등장하자 나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타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어로 이야기 하던 것을 혁신처럼 타로의 이미지로 대변이 되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오히려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치부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년을 살면서 올해처럼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 논문이라는 힘겨운 과제가 늘 나를 누르고 있었지만 나의 성격상 관계가 즐겁고, 나에게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상담은 성장을 조력한다고 한다. 그리고 타로 상담에서는 그 성장을 조력하는 도구가 바로 타로이다. 모기 손톱만한 상담실력으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성장을 조력한 것도 있지만 나 또한 타로라는 도

구의 성장 조력의 수혜자인 셈이다. 즐거웠던 성장이었다. 타로를 통한 자기성찰의 이로움을 깨닫는 시기였다. 여러분도 타로를 활용해 보길.

3. 논문을 마치며

논문이 드디어 끝났다!!! 정말 올해는 격동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이 논문을 빼놓을 수 없다. 흔히 논문을 1년의 노력이라고 하지만 나는 학교생활 3년의 노력이 더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확장하면 인생 16년이 담겨 있을라나? 타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즐거워졌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로를 논문이라는 과제나 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정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지 알 것 같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 나의 생각을 장화하게 50쪽이 넘는 글로 설명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 내 생각을 간디인 전체가 30분 동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어디 있겠는가? 논문은 정말 힘들지만 정말 재밌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논문이 보다 수월하게 굴러간 것도 한 몫 하겠지만 말이다. (운이 좋았다)

난 논문을 쓰면서도 관계에 집중을 했다. 나의 Soul카드가 Lovers인 것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가장 인상적인 점을 꼽으라면 고마운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물론 내 인생에 고마운 사람들을 그 전에도 많았다. 그렇지만 논문이라는 자기성찰을 다른 사람에 도움을 받으면서 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또한 관계가 중심이 된 나의 논문을 쓰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말 큰 선물이다. 내가 과연 논문으로 얻고 싶었던 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니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만을 두려워하고, 신경쓰며 살았던 내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였다. 논문이라는 기회는 평생 없을 기회였다. 즐거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논문이여.

4. 고마운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주제 바뀌고, 잘 찾아가지도 않았던 힘든 제자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민혜 쌤과 상현 쌤, 그리고 힘든 상황과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고생하신 나의 지도교사 영준 쌤, 그리고 엄청 고생시켜드렸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셨던 '신'이신 희라 쌤, 그리고 나의 영적 가르침을 주신 한국타로학회 김은아 타로마스터님, 상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신 청주성화중학교 남윤미 선생님, 논문쓰는 내내 같이 동고동락 하며 학교생활에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우리방 이건산, 김규동, 장경재!, 그리고 나의 피조물인 소모임을 함께해 준 최형서, 이한솔, 차민경, 오승택, 류소정, 최문형, 타로캠프 같이 가준 차한비, 그리고 소울메이트 우어진, 그리고 논문 쓰느라고 수고한 우리 콩자반, 사진 열심히 찍어준 여자 박성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같이 참여해준 고마운 주민타로소모임 분들과 학교 '타로명상요가'수강생들, 논문쓰는 큰 오빠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할머니 덕 식구 민정이와 하진이, 나에게 상담을 받아주신 고마운 간디인들, 못난 중등회장 되서 고생했던 우리 솔뽀바람과 부회장을 둔 어깨동무들 그 외로 각종 도움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해요~

<부록>

부록 1. 타로 소모임 활동 일지

8월 28일-2학기 가장 중요한 활동인 신입부원을 모집했다. 모집 방식은 학교 현관 '동아리 게시판'에 타로 소모임 신입부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낸 후 28일에 면접을 진행했다. 지원자는 총 세 명이고, 기숙사 비밀에 방에서 면접을 한 결과 세 명 중 1학년 최문형을 뽑기로 결정하였다.

<타로 소모임 모집 면접 질문>

- ① 타로 소모임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 ② 타로를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 ③ 타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④ 타로를 살 마음이 있는지?
- ⑤ 타로를 꾸준히 할 마음이 있는지?
- ⑥ 카드 느낌으로 리딩하기(타인 봐주기, 자신 봐주기 中 택1)

9월 4일-가정학습이 전 날이라 기숙사가 뒤숭숭하다. 다목적실과 비밀의 방사용이 여의치 않아 기숙사 현관에서 짧게 마무리 하였다.

●김은아 타로마스터 인터뷰

-나의 논문활동으로 할 일이라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소모임과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소모임의 실력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의를 하게 되었다.

-동의한다.

-타로마스터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임시로 정한 날짜는 9월 16일.

●데일리 리딩

-잘합시다

-힘들지만

+ 타인의 타로 많이 봐주기

9월 11일-가정학습이 개학 2주일 만에 찾아온 일정 때문에 이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생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시기에는 아직 모든 소모임원들이 타로 카드와 스프레드 천을 소지 않은 상태여서 소모임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하였고, 데일리 카드를 뽑는 것으로 모임을 마쳤다. 아쉬웠던 점은 첫 모임인 데다가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류소정, 이한슬은 정기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고, 최형서는 중간에 나가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9월 18일-이번에는 시간을 설정하여 앞으로 10시 45분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회의할 내용은 없었고, 데일리 카드와 리딩을 공부했다.

● 데일리 리딩

이름	뽑은 카드	의미와 하루 일과
최형서	Ace 펜타클 (다시) 펜타클5	오늘 되게 힘들었다. 학교가 뒤숭숭해서 회의를 통해 빛을 발견함.
오승택	정의, 검3	주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상처를 주었을지도

오정택	검9	상담을 해주다 보니 개인시간도 없고, 걱정이 한가득. 잠 못드는 밤이 연속. 본문도 못씀
최문형	검7	경솔했나? 오승택의 말을 때림. 자기 귀에 넘어갈 수도 있다.
류소정	컵2	주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단합이 잘 되었다.
이한슬	컵의 소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차민경	세계, Ace 펜타클	다 이뤘다. 다시 시작한다. 무언가를 이뤄서 다시 쉽게 시작한다.

<표 9> 9월 18일 데일리 리딩 카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리딩을 공부했다.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리딩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다.

●소감

오승택 : 자유롭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좋아요.

최형서 : 분위기 좋아요

이한슬 :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류소정 : 잠이 와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재밌긴 했어요.

오정택 : 오늘 너무 감동했어요. 천도 가져오고. 뒷담도 까고.

차민경 : GOOD!

● 숙제

* 데일리 리딩 3일 이상. 일기 써오기.

* 공유할 리딩 사례 1개씩 가져오기.

9월 25일-오늘은 '해석하기 어려운 카드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다음 날이 가을축제인 것을 고려하여, 가을축제 타로 행사에 관련된 안건과 데일리 카드 뽑기만 하고 정기 모임을 종료했다.

● 데일리 리딩

이름	뽑은 카드	의미와 하루 일과
최형서	펜타클7	원했던 걸 다 이루지 못했다. 논문을 다 못 씀. 나름 기대한 것이 있었음.
최문형	세계, 죽음, 완즈의 여왕	다 이룬 것을 좀 바꿨는데, 매력적인지는 모르겠다.
오승택	펜타클10 (다시)별, 펜타클6	다른 날에 비해 기분이 좋지 않음.
이한슬	아침 : 컵9 저녁 : 펜타클10	기숙사 올라오기 전까지는 좋음. 기숙사에 오니 졸림. 해야 될 일 몇 개를 끝냄. 기분 좋음.
류소정	완즈6	주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몇 주간 끝던 일을 오늘 끝냄. 다른 일은 하나씩 밀으로 함.
차민경	컵의 소년	감정의 시작
오정택	바보, 마법사, 완즈4	무한의 에너지를 얻은 날

<표 10> 9월 25일 데일리 리딩 카드

오정택 - 타로를 이용한 상담으로 간디인의 걱정 덜어주기

●회의-안건 : 가을축제 수익사업 구체화(파트 나누기, 꾸미기)

- 파트 나누기

▶ 가을축제 부스 활동시간은 3시부터 5시. 총 4 타임으로 운영.

3:00~3:30 : 승택, 한솔

3:30~4:00 : 정택

4:00~4:30 : 민경, 형서

4:30~5:00 : 소정, 문형

-꾸미기

▶ 포스터 만들기(문구)

“타.로.봐.줌”이라고 A4용지에 한 글자씩 써서 붙이기

“타로의 신비함을 경험해 보세요”

“단돈 500원+TIP, 20% 기부”

-예산 금액 설정

▶ 20,000원. 40명 금액.

10월 5일-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소모임이 모임을 가졌다. 이 날은 예전 사전조사를 해서 알아본 해석하기 힘든 카드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따라서 소모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갈려고 했지만, 해가지는 못했다. 이날은 두 가지 안건이 있었고, 데일리 카드를 뽑은 후, ‘해석하기 힘든 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불참 : 오승택, 아픔)

●데일리 카드

이름	뽑은 카드	의미와 하루 일과
차민경	황제, 컵7	관종이랑 다녀서 힘들었고, 주제 프로젝트도 풀리는 게 없고... 힘든 하루였어요.
최형서	펜타클5	타로수업은 좋았는데, 대충 들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다.
오정택	완즈6	집단상담이 큰 도움이 되어서 논문에 큰 도움이 됨.
최문형	고위 여사제, 완즈10	카드랑 안 맞는 것 같다.
류소정	완즈4	집단상담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잘 안 것 같음
이한솔	펜타클10	기숙사 방이 정말 잘 짜인 듯!!!

<표 11> 10월 5일 데일리 리딩 카드

●회의 안건 : 타로 수익금 사용용도 정하기

▶ 회식을 갑시다(먹고가 분식)

- 분식집 외 다른 곳은 돈이 많이 듦.

●수요일 취침 모임시간 변경

- 원래 모임시간은 목요일이지만 이번 주에는 가정학습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 만남에서 수요일 취침으로 정했다. 그렇지만 논문제출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12시까지 전산실에서 논문을 써야하기 때문에 모임시간 조정을 제의하게 되었다.

▶수요일 묵학으로 변경

●해석하기 힘든 카드 프로그램

사전조사를 통해 어떤 카드를 해석하기 힘들어 하는 지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

니 바뀌게 되었다. 실제로 해석하기 힘든 카드들을 보니 아직 타로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정말 많은 카드들을 뽑아 놓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니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고 뽑은 카드들이다.

-메이저 : 바보, 마법사, 고위 여사제, 여황제, 황제, 교황, 연인, 전차, 힘, 죽음, 악마, 달, 세계

-마이너 : 완즈 에이스, 완즈4, 완즈6, 컵 에이스, 컵5, 컵6, 컵7, 컵8, 컵9, 컵10, 검 에이스, 검3, 검9, 검10, 펜타클 에이스

나머지 카드들은 모두 한 명 이상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뽑은 카드들이다. 집중식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타로 수업에서 배운 메이저 1~9번 카드 내용밖에 모르니 모르는 카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나를 중심으로 완즈 1~10번 까지 배우기로 하였다.

●소감

최형서 : 재밌었어요.

이한솔 : 모르던 걸 배워서 좋아요

최문형 : 재밌었어요

차민경 : 좋아요

오정택 : 즐거웠어요. 늦은 시간에 모여서 미안해요.

류소정 : 중간에 빠짐.

10월 7일-안건 한 개와 함께 자기알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나의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타로라는 도구는 상담보다는 자기성찰의 도구에 가깝다. 그런 타로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소모임인 만큼 자기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회의 안건 : 가을축제 평가

오승택 : 사실 한 게 없어서... 20,000원을 번 것이 언블리버블!!!

이한솔 : 나도 한 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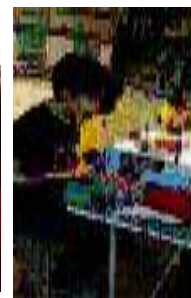
최문형 : 난 진짜 한 게 없는 것 같아

류소정 : 다 정택오빠가가 해서 미안해.

차민경 : 형서 오빠랑 박재성 엄마를 해드렸는데, 사실 맛장구만 쳐주고 한 게 없어.

오정택 : 생각보다 소문이 잘 나서 많이 번 것 같아.

최형서 : 나쁘지 않았다. 일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학부모님들을 봐드려서 부담스러웠지만,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데일리 카드

이름	뽑은 카드	의미와 하루 일과
최문형	완즈 10	키가 안 커서 짜증났고, 류소정 때문에 힘들었다.
이한솔	세계, 컵10	예술언니가 카페 사줌. 기분 좋음.

오승택	컵2	여러감정으로 나뉘었는데 요즘 덜어 합쳐진 느낌
류소정	컵9	오늘의 기분이랑 맞는 듯. 어깨동무 세차하는데 무언가를 얻었다.
차민경	교황, 전차, 컵8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목표가 뚜렷해졌지만 그걸 위해 무언갈 희생함.
오정택	완즈5	논문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과 노동을 했다. 하지만 5번카드이므로 좋은 일이 있을 것.

<표 12>10월 7일 데일리 카드

●자기 알기 프로그램

▶성격카드

마법사 : 소정, 문형

고위 여사제 : 민경

연인 : 승택, 정택

교황 : 한슬

전차 : 형서

▶12하우스 배열

타로캠프에서 배워 온 12하우스 배열을 알아보았다. 뚜렷한 질문없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배열이므로, 분명 자신을 아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최문형 12하우스 배열

▲차민경 12하우스 배열

▲류소정 12하우스 배열



▲오승택 12하우스 배열

▲오정택 12하우스 배열

▲이한슬 12하우스 배열

10월 8일-이번 주 목요일이 가정학습이라 미리 땡겨서 하였다. 오늘은 마지막 모임인 만큼 소감나누기를 진행하였고, 나에 논문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 “교내 타로문화의 특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교내 타로문화의 특성”

- 타로수업이나 소모임이 아닌 사람들은 상담이 아니라 점치기 용이나 심심해서 보는 듯.
- 타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 타로 리더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
- 타로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다.

-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해야 하는데 “심심해서 가볼까?”, “나 뭐 보지?” 등 특별한 동기 없이 찾아온다.
- 타로 리더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될 듯.
- 타로가 상담의 도구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야 할 듯.
- 아직 타로에 ‘무게감’이 없는 듯.
- 우리가 타로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
- 우리학교는 철새처럼 우르르 몰려서 타로를 본다.

●소감 나누기

류소정 : 집중식 때는 대충 들었는데, 알고 보니 좋았고, 모이는 시간이 밤이어서 좀 아쉬웠다.

최문형 : 아직 배운 건 없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어요.

오승택 : 재밌었다. 바에 모이는 것도 좋고. 타로 같이 뽑는 것도 좋았어요.

이한솔 : 안 그런 것 같은데 은근 도움이 되었고, 여기에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요.

차민경 : 나는 정말 좋았고, 논문 끝나면 계속했으면 좋겠고, 까는 거 좋았어요. 수다 모임 콜!

정택 : 정말 고맙고, 정말 고마웠어요. 소모임 덕에 힐링이 되었어요.

형서 : 재밌었고, 타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누고 공유한다는 게 좋았다.

부록 2. 8월 13~14일 일지

8월 13일 수요일

설레는 타로캠프 첫째 날. 대략 9시에 일어난 것 같다. 원래 캠프는 9시에 시작이지만 10시로 수정이 되었다. 아침은 네모난 햄이 들어간 카레였다. 우리는 9시 50분에 삼각산재미난카페로 출발했다. 그 곳은 일반카페 같았다. 이미 입구부터가 강의실은 아니었다. 한 방에 들어가니 넓은 방이 나왔다. 아주 쾌적하고, 넓고 좋았다. 뭔가 분위기도 강의실 같았다. 네 명이 앉았고, 라다 쌤께서는 소개를 잠깐 하시고,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다. 첫 번째로 메이저 카드를 배웠다. fool 카드를 맨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21장을 7장씩 세 줄로 정렬했다. 처음에 자신있게, 8장씩 세 줄로 놓으려고 했지만, 이어 도로시 선생님께 제지당했다. 돌아보니 모두 21장을 세 줄로 놓고 있었다. 희라 쌤과 수업할 때 항상 그래왔으니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기에 자연스러웠다. 3번 카드인 여황카드까지 배우자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역시 타로는 시간이 빨리 간다. 한 가지 죄송한 점은, 계속해서 하품이 난다는 것이다. 졸리지는 않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8번 카드를 하자 또 다시 1시간이 지나 밥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곳은 정말 장소가 좋은 점이 방을 대여해서 쓸 수 있고, 언뜻 카페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점심, 저녁을 모두 해결했다. 밥을 먹고는 아이스크림을 사러갔다. 그리고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타로 캠프는 원래 이렇게 하나 먹을 정도로 먹을 걸 쌓아뒀음. 가보니까 책상에 알로에 주스며, 우유며, 초코칩, 샤브레 등등 과자가 쌓여 있었음. 점심 먹고 나서 메이저 카드를 이어 배우고, 쉬는 시간마다 눕는 우리를 보시고는 한 번 자자고 하셨다. 내 기억에는 편히 잠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보니 코를 골았다ㅋㅋㅋㅋㅋㅋㅋㅋ. 황당하면서도 너무 웃겼음ㅋㅋㅋ. 저녁은 잡채밥. 내가 덮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잡채밥을 제일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우 나 싫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니 먹었다. 차라리 잡채를 따로 줬으면 잘 먹었을 거다ㅋㅋㅋ. 메이저 카드를 모두 끝내고 저녁을 먹었으니, 이젠 마이너 아르카나를 배울 시간이다. 지팡이, 컵, 검, 펜타클을 세로로 놓고, 1부터 10까지 가로로 놓았다. 아무 생각 없이 놓다보니까 막 펜타클이 검하고 바뀌고 그랬다. 희라 쌤께 배울 때는 마이너 카드는 원소와 원소의 의미만 알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한 장, 한 장 자세히 배우니 아주 좋았다. 내가 모르는 뜻도 담겨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희라 쌤께 배운 것은 수박 겉핥기 정도였는데, 타로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고, 신명나게 신내림 받은 듯 타로를 봐주었다ㅋㅋㅋ. 시간상 불의 카드인 지팡이와 물의 카드인 컵을 배웠다. 지팡이는 일, 직관, 활동들을 상징하는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컵은 감정을 뜻하는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물은 이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감정을 상징하기도 하나보다. 원소를 배웠으면 또 숫자를 배워야 한다. 타로에는 수비학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볼 때 원소를 먼저 보고,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즐겁게 수업을 듣

고 8시 30분 쯤에 끝났다. 한비집에 돌아오니 9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놀랐다. 괜찮아 사랑이야를 보고 알람을 맞춰두고 잤다.

8월 14일 목요일

둘째 날이다! 우리 짝꿍형제는 꼭! 머리를 감아야 한다. 놀란 한 가지는 할머니께서 오신 것이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서 많이 놀랐다. 전날 처럼 여유롭게 준비하고 카페에 갔다. 오늘은 먹거리 강좌가 있어서 다른 방에서 하기로 했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이라 그런지 집중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역시 도로시 선생님이 와 계셨다. 도로시 선생님께서는 오후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라다 쌤께서 자리를 비우시고 다른 선생님께 맡긴 다는 것이 이것이었나 보다. 오전에는 열심히 마이너 카드를 배웠다. 지팡이와 컵을 배우기는 했어도, 다 같이 깔아놓고 검과 펜타클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한 어제 배운 것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다 까먹은 듯싶다ㅋㅋㅋ 솔직히 타로캠프가 배울게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별로 되지 않는다. 아... 필기라도 좀 해놓을걸.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을 적어보자면 타로 상담에 대한 설명이다. 타로 상담에 대한 설명이다. 타로 상담은 타로를 펼치고 질문자가 뽑은 카드를 설명하는 건데, 이 때 나온 카드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알려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 타로상담에서 내가 타로카드에 대해 아는 것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타로리더(Tarot Reader)라는 것이다. 또 기억난 타로리더의 역할은 질문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아주 중요한데, 내가 “질문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은 연애운. 이런 식으로 결정내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차근차근 궁금한 점을 들어 밟아가야 한다. 새롭게 배운 검과 펜타클. 검은 이성을 상징하는 공기의 원소를 띄고 있다. 검은 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 못하다. 펜타클은 대체적으로 그림들이 좋다. 안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뭔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밝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 분위기가 좋지 않은 카드들도 몇 개 있다. 아마도 대부분 펜타클이라는 원소는 존재하지만, 숫자가 가는 수비학의 의미 또한 있어서 무작정 좋은 해석은 불가능 하다. 펜타클을 마치니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시간에는 도로시 선생님과 리딩을 배워볼 것이다. 그런데 웃긴 점이 쉽게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문 바로 앞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ㅋㅋㅋ 결국 전화로 요요 사장님(?)과 소통을 하며, 맛있는 점심인 비빔밥이 들어왔다. 1시쯤이 되자 수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도로시 선생님은 소개 없이 진행했고, 리딩 전에 한 활동은 타로게임이었다. 카드 돌려가면서 주고 싶은 카드 주고, 마지막 네 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메이저 카드를 놓고 이야기를 짓는 것. 조금 유치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리딩에 관한 배열법을 배워보았다. 배열법은 교재에 나와있는 배열법 들이었다. 먼저 12하우스 배열을 진행했다.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너무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먼저 12하우스 배열을 진행했다.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너무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그 다음은 모두가 원하는 관계배열을 배워보았다. 순서가 좀 헷갈리기는 한다. 다음은 3장 배열인 과거, 현재, 미래 배열이었다. 나의 이성에 대한 두려움, 상처,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연관성이란 주제로 보았더니 조금은 암울했다. 마지막으로 배운 배열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된 배열인데,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한 배열이었다. 공부는 총 2회에 나누어서 했는데, 그 원인은 수면에 있다. 우리의 오승택 군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무려 십만원 짜리 캠프에서 머리를 숙이고 잠을 자려고 한 것이다. 타로 캠프에 좋은 것이 많이 유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총 2회에 걸쳐서 즐겁고 신나는 배열을 공부하고 나서 밥을 먹었다. 밥은 맛있는 볶음밥. 여기 밥은 되게 맛있는 것 같다. 저녁수업에서는 인물카드를 배우는데 희라쌤과의 수업에서는 인물카드를 다루지 않았다. 인물카드는 해석할 때 사람을 상징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인물카드 해석도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 과정인 켈틱크로스를 배웠다. 그렇게 논문 이야기를 끝으로 모든 캠프가 종결 되었다. 훌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놓고, 피자를 시켜주셔서 괜찮아 사랑이야를 보며 신명나게 먹었다.

상담 결과 평가 설문지

상담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논문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항은 받으신 상담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해주시는 설문지입니다. 총 10문항이니 상담 받으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의껏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쪽)

1번. 상담을 하게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2번. 상담을 하기 전의 본인의 심리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3번. 요즘 떠오르는 고민 중 가장 큰 3가지를 적어주세요.

1)

2)

3)

4번. 본인이 상담한 질문(혹은 고민이나 걱정)은 무엇입니까?

5번. 상담자가 제공한 상담의 과정은 본인의 걱정을 덜기에 적절하였습니까?

6번. 상담자가 제공한 상담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감동받은 ☐감사하는 ☐깜짝 놀란 ☐놀라운 ☐들뜬 ☐황홀한 ☐설레는 ☐짜릿한 ☐통쾌한
☐다정한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온화한 ☐친근한 ☐고요한 ☐안심되는 ☐평화로운 ☐
한가로운 ☐편안한 ☐기쁜 ☐만족한 ☐명량한 ☐상쾌한 ☐반가운 ☐즐거운 ☐흠족한 ☐당당한
☐뿌듯한 ☐만족한 ☐발랄한 ☐의욕 넘치는 ☐힘찬 ☐생기 있는 ☐관심이 가는 ☐집중하

☐물두한 ☐기대하는 ☐용기를 얻은 ☐자부심을 느끼는 ☐자신감을 얻은 ☐밝은 ☐살아
 있는 ☐신선한 ☐열의가 생기는 ☐활기찬 ☐힘찬 ☐넋이 빠진 마음을 뺀 ☐열중하는 ☐재
 미있는 ☐흥미로운 ☐차분한 ☐애뜻한 ☐궁금한 ☐재미있는 ☐걱정스러운 ☐두려운 ☐무서
 운 ☐조급한 ☐초조한 ☐고민되는 ☐답답한 ☐성가신 ☐불편한 ☐힘겨운 ☐귀찮은 ☐예민해
 진 ☐고독한 ☐괴로운 ☐억울한 ☐속상한 ☐비참한 ☐기막힌 ☐아찔한 ☐냉담한 ☐단절된
☐무심한 ☐싸늘한 ☐흥미 없는 ☐재미없는 ☐멋쩍은 ☐난처한 ☐민망한 ☐미안한 ☐수치스
 러운 ☐간절한 ☐샘나는 ☐애타는 ☐화난 ☐신경질 나는 ☐짜증나는 ☐불쾌한 ☐섭섭한
☐좌절 하는 ☐식상한 ☐심심한 ☐의심스러운 ☐주저하는 ☐황당한 ☐실망한 ☐생소한 ☐의
 심스러운 ☐혼란스러운 ☐기운 없는 ☐우울한 ☐아쉬운 ☐착잡한 ☐허무한 ☐지루한 ☐지친
☐피로한 ☐싫은

7번. 상담자가 제공한 상담의 분위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적절했습니
 까?

8번. 상담자가 타로를 이용해 상담을 할 때 사용한 배열에 대해 만족하십니
 까?

9번. 본 상담의 전체적인 모습(과정, 결과)은 만족하십니까?

10번. 상담을 하기 전 가지고 있던 걱정은 덜어지셨습니까?

본 설문지는 절대 익명이며 상담자 외에는 그 누구에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상담
 자의 논문에 분석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으며 상담의 내용과 결과가 논문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산면에 적정기술 보급하기

지도교사: 정종명



이름: 우어진

생년월일: 99년 8월 6일

좋아하는 것: 때에 따라 매우 변화무쌍하게 바뀜.
일단 지금은 게임하고 음악 듣고 노가리 까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임 타이틀은 스카이림과 포탈 2, 유로트럭 2, 휘침성, GTA 5
음악은 신나는 거, 주로 덱스텝, 글리치 합, 락을 많이 듣습니다.
음료수 중에 '슈웍스' 라고 하는 음료수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 : 이것도 때에 따라 다름.
지금은 자료 날아가는 거랑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우리학교 사람들이 싫어할 만 한 거. 도난 폭력사건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한 줄 후기:

힘들지만 좋은 경험 (이라고 쓰는 게 제일 무난할 듯)

목차

I . 서론

1. 동기와 목적
2. 연구 방법

II . 본론

1. 걱정기술이란?
 - 1) 걱정기술의 정의
 - 2) 걱정기술의 역사
 - 3) 적용사례
2. 소모임 활동 준비
 - 1) 대 주제 선정
 - 2) 대략적인 활동 내용 정하기
 - 3) 사전 실습
 - 4) 구체적 계획 세우기
 - 5) 사전 준비
3. 소모임 활동 과정
 - 1) 활동 내용
 - 2) 활동 후 걱정기술 사용 실태
4. 소모임 활동 평가

III .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논문의 한계
3. Thanks To
4. 부록

I. 서론

1. 동기와 목적

나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핵에너지나 석유 등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지 잘 몰랐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했다. 그런데 2학년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열린 적정기술 연수를 듣고 '이 방법이라면 탈석유, 탈핵을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적정기술은 근본적으로 '만들기 쉬운 기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논문을 기획 삼아 적정기술에 한번 몸 담아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적정기술만 생각해놓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없어 고민을 해보다가, 1학기 초 논문을 위해서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료를 모으던 중,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보았다. 정부에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하나의 에너지 의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4월달 쯤에 청주에서 열렸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진실'이라는 강의에서 제주도의 한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정부가 설치해준 태양광 패널로 인해 전기세가 덜 나오자,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사례를 듣고,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려면 정부 같은 큰 차원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 모임이 가능한 소모임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보급 대상은 우리 집이 있는 정하동의 주민들과 학교가 있는 덕산면의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동할 때 1시간 30분씩 걸리는 정하동보다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덕산면이 소모임이 모이기 쉽고, 도시인 정하동보다는 농촌인 덕산면에서 사용하기 좋은 적정기술들(슬링펌프, 태양열 건조기, 로켓매스히터 등)이 많이 때문에 덕산면의 주민들을 보급 대상으로 정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적정기술을 관심이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심 있는 사람들과 매주 주말마다 모여 함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주말 모임을 조직해서 적정기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단지 제품들을 만드는 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이론적인 면까지 알려주는 것이 목표이다.

2. 연구 방법

참고서적

김경태, 홍성욱,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2011년, 살림
이재열, 『태양이 만든 난로 햇빛온풍기』, 2012년, 시골생활

참고서적은 본문의 이론적인 부분을 쓰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은 출처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편이 좋으니까 어디에서 가져온 정보인지 잘 모르는 인터넷의 정보보다는 신뢰성이 있는 책의 정보를 참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참고 사이트

자립하는 삶을 만드는 적정기술센터

<http://cafe.naver.com/selfmadecente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책에 없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쓰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참고하였다.

방문 및 탐방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흥원철물 등 주변의 철물점/목재상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에 보급할 제품들을 미리 만들어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고 흥원철물 등의 철물점/목재상은 소모임 활동 때 사용할 재료의 비용을 산출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적정기술이란?¹⁾

1) 적정기술의 정의

적정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²⁾ 혹은 제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로, 자원·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기술³⁾을 말한다. 원래는 1960년대 중반에 제 3세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최초로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슈트 슈마허인데, 자신의 책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슈마허가 정의내린 중간기술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술
-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저렴한 기술
- ◆희소자원의 낭비가 적은 기술
- ◆분산형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
-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이 중간기술은 종종 적정기술이나 대안기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적정기술이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세 개념 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이 항상 적절한 기술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적정기술이라 불리는 기술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적은 비용으로 활용한다.
-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다.
- ◆현지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한다.
-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 ◆분산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
-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 김경태, 홍성욱,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2011년, 살림, 8쪽~40쪽 참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이 목차의 모든 자료 출처는 이 책.

2) 위키백과, 「적정기술」 인용

<http://ko.wikipedia.org/wiki/%EC%A0%81%EC%A0%95%EA%B8%B0%EC%88%A0>

3) 네이버 시사상식백과, 「적정기술」 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17&cid=43667&categoryId=43667>

◆지적재산권, 컨설팅 비용, 수입관세 등이 포함되자 않는다.

슈마허가 정의한 중간기술의 개념에서 몇 가지 추가되긴 했으나 크게 다를 것 없는 개념이며, 사전적 정의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2) 적정기술의 역사

적정기술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슈트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쓰인 중간기술은 간디로부터 비롯되었다. 슈마허는 간디의 자급자족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철학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966년 ‘중간기술개발집단’을 영국에 설립한다. 그리고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출간하면서 저개발국가의 토착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거대 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한 중간기술이란 개념을 선보이게 된다.

민간 차원에서는 1959년에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저소득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은 ‘기술원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었다. 1969년에는 존 토드가 메사추세츠에 ‘신연금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는 ‘패럴론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73~1974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석유 고갈의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몇 가지 에너지 보존 방안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는 1976년에는 몬테나 주에 ‘국립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1979년에는 백악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하지만 적정기술에 대한 미국의 이런 노력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자 쇠락하고 만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정기술의 운동이 동력을 잃었다고 해서 적정기술 운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적정기술은 NGO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의 정신과 의사 폴 폴락은 1981년 ‘국제개발회사’를 설립하고 1982년에 소말리아의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기계공이었던 닉 문과 스탠포드 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의 마틴 피셔가 케냐에 있는 아프로텍을 설립했다. 지금은 ‘킵 스타트4)’로 명칭을 바꿔 활동하고 있고,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세상이 가난과 싸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정기술은 국제개발 NGO와 같은 기관들과 학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국제개발 분야에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3) 적용사례

(1) 리터 오브 라이트5)

브라질의 정비공인 알프레도 머서가 개발한 제품으로, 낮에도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제 3세계의 빈민촌을 보고, 물이 담긴 페트병 속에 표백제를 넣고, 천장에 매달아 놓는 간단한 구조의 전등을 개발했다. 이 페트병을 지붕에 설치할 경우 태양빛을 받아 55w의 전구와 비슷한 빛을 내게 된다. 이 제품은 필리핀의 한 NGO에 의해 필리핀 빈민가에 배포되기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불안정한 전기공급과 높은 전기세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월 6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눈에 띄게 줄었다. 태양광이 없는 밤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필리핀 빈민가는 낮에도 채광이 제대로 안 될 만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많은 가정에서 이 전구가 쓰였다.

(2) 슬링 펌프

흐르는 강물에 띄워 놓고 있으면 아무런 에너지 소비 없이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펌프다. 프로펠러가 달린 고무 통 안에 가는 관을 말아 놓는 구조로, 강물에 띄워 놓으면 펌프의 통이 돌아가는데, 그 힘으로

4) 2009년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 스타터(Kick starter)와는 별개의 단체.

5) 사담이지만 문단이 두 페이지를 경계로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사진을 넣을 공간이 생기지 않아 사진은 없다. 정 궁금하다면 검색해보자.

강물을 밀어 주는 원리이다. 철물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강물이 흐르는 한 계속 물을 공급 할 수 있으며 하루에 대략 7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는 준수한 성능을 가졌다.



(3) 플레이펌프



플레이펌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Roundabout Outdoor' 라는 사회적 영리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놀이기구에 펌프를 결합해, 아이들이 놀면서 펌프를 돌려 물을 받는다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다. 여러 사회적 매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은 플레이펌프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짧은 기간 동안 엄청

난 양이 설치되었지만, 알고 보니 이 펌프는 기존에 사용하던 손 펌프보다 효율도 좋지 않고, 돌리기도 매우 힘들며, 복잡한 부품으로 인해 고장이 잦았다. 특히 고장 문제는 주민들 중 아무도 펌프의 구조를 몰라 수리를 받으려면 센터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센터 쪽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아 고장난 지 6개월 만에 고쳐졌다는 사례가 있으며, 효율의 경우는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회에서 실험해 본 결과 20L를 채우는 데 기존의 손 펌프는 28초가 걸렸지만 플레이펌프는 3분 7초가 걸렸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 제품은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은 적정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소개된다.

(4) 로켓 스토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깡통 등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토브이다. 불이 타는 곳에 수직으로 연통을 달아 주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 자리에 산소가 풍부한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나무를 잘 타게 해서 효율이 좋고, 단열재를 채워 넣어서 열을 보존함으로써 나무가 가열될 때 나오는 나무 가스가 계속 나오게 해서 나무 가스와 산소가 섞여 나무를 완전히 태움으로써 재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원리만 알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다.



2. 소모임 활동 준비

1) 대 주제 선정

소모임의 큰 주제를 '태양을 이용한 적정기술'로 잡았다. 사실 처음 생각해 보았던 주제는 '효율 좋은 난로/스토브'였지만 애초에 내가 난로나 스토브가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몰랐고 드럼통을 잘라서 만드는 난로라 부피가 큰 점이나, 난로의 연통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많아서 '태양을 이용한 적정기술'로 바꾸게 되었다.

선택한 이유는 일단 재료가 비교적 다루기 쉬운 나무를 주로 쓴다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해 본 결과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루기 쉬운 게 나무다. 그리고 풍력이나 수력에 비해서 특별한 조건이 없어 되는 자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고 1m²당 1kw라는 준수한 에너지 효

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만든다면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교적 개조하기가 쉽다는 것도 특징인데, 작동 원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수준의 과학만 다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쉽게 개조할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영 좋지 않다는 점과, 덕산의 경우 산이 많아서 일조량이 좀 떨어져 효율도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집 주변에 담이 햇빛을 가려 더욱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 정도가 있다.

2) 대략적인 활동 내용 정하기

여러 적정기술에 대한 웹 사이트와 워크샵들을 다니며 소모임에 쓰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보았다.

(1)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을 한 군데로 모아 강한 열을 내는 방식으로 음식을 익힌다.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주변의 상자 모양으로 생긴 박스형 조리기, 반구형의 거울로 빛을 모아 온도가 600도까지 올라가는 쉘플러 조리기, 편평하게 생겼지만 볼록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프리넬 렌즈를 이용한 프리넬 렌즈 조리기, 종이 상자 등으로 만들어서 접어서 휴대 할 수 있는 접이식 조리기 등등이 있고, 각 형태마다 효율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태양빛이 모이는 지점을 잘못 계산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2)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인데, 보통 에너지 자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1kw 이상 발전을 시키는 게 적당하다. 독립형 태양광발전과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놓아 한전의 전기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패널을 전기계량기에 연결해 발전량이 충분할 때는 패널의 전기를 가져다 쓰고, 전기가 남으면 한전으로 역 전송을 한다. 그리고 발전량이 부족할 때는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 단점으로는 독립형은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배터리를 설치할 때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매우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계통연계형의 경우 전기가 한전으로 역 전송이 되면 내가 사용한 전기의 양이 줄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요금을 집계하기 성가셔져서 집의 계량기를 역전송이 되지 않는 디지털 계량기로 바꾼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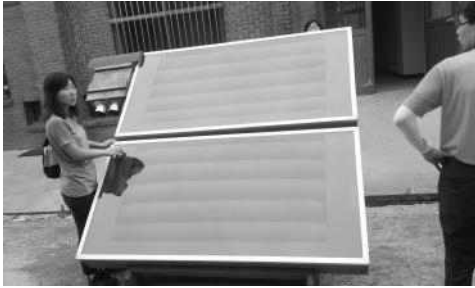
(3) 태양열 건조기

태양열로 공기를 덥혀 음식물을 말리는 건조기이다. 굉장히 많은 형태의 건조기가 있으나, 크게 직접 건조와 간접 건조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건조는 음식물이 들어 있는 건조부를 태양에 직접 노출시켜 가열하는 방식이고, 간접 건조는 검은 철판 등을 이용해 공기를 데우는 집열부를 따로 만들어, 데워진 공기를 건조부에 보내서 가열하는 방식이다. 원리가 매우 간단하고, 크게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 비교적 쉽다. 하지만 사용되는 공구가 많아서 번거로운



편.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있는 냉장고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4)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로 공기를 달궂어서 난방을 하는 공간난방 온풍기이다. 집 열판의 형태에 따라 철판을 깔아 공기를 데우는 평판형, 검게 칠한 주름관을 달아 공기를 데우는 관형으로 나뉘고, 순환 방식에 따라서 팬을 달아서 순환시키는 강제순환형, 자연적으로 대류가 되는 자연대류형으로 나뉜다. 보통 평판형을 자연대류로, 관형을 강제순환으로 만든다. 잘 만들면 효율이 매우 좋은데, 그만큼 재료도 많이 들고 만드는 법도 어려워진다. 겨울철에는 난방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건조기의 열풍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밤에는 난방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위의 네 가지를 후보로 정하고, 서로의 장, 단점을 고려해서 소모임에서 할 강의 내용을 정했다. 일단 태양열 조리기는 쉘플러 조리기나, 프리넬 렌즈 조리기의 경우는 효율이 휴대용 버너와 비슷할 정도로 좋은데, 사용되는 렌즈가 구하기도 어렵고, 크기도 꽤 크고, 무엇보다 꽤 비싸서 제쳐두었고, 박스형 조리기나 접이식 조리기의 경우 계란 삶는데 1시간, 밥 짓는데 2시간 정도로 효율도 좋지 않고, 내구성도 좋지 않아 강의 내용에선 제외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잠깐 강의 내용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250W 태양광 패널이 20만원에 250W 인버터가 25만원으로, 부품의 비용이 비싸서 어느 정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1kW발전을 하려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 등, 심각한 비용 문제가 있었고,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이 크기 때문에 합선이 일어날 경우, 열이 난다거나, 스파크가 튀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감전이 되는 등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태양열 건조기는 종명쌤께 듣기로는 재료비가 한 대에 40만 원쯤 나온다고 해서 재료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조기의 형태에 따라 재료비가 저렴해 질 수 있고, 재료가 나무라서 만들기도 쉽고, 용접을 하지 않아도 돼서 강의 내용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인 덕산면은 가을에 농작물을 말릴 일이 많은데, 자연건조보다 효율이 좋은 건조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도 있었다.

태양열 온풍기는 부피가 커서 교육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사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새로 고등교육관을 지어서 그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설치를 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재료비의 걱정도 덜어질 것이고, 마을에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3) 사전 실습

소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강의 내용으로 정한 태양열 온풍기와 건조기를 미리 만들어 보았다.

	내용	비고
일시	2014년 7월 12일~13일	
장소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번지 완주군청 옆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제목	로컬에너지 핵심리더 과정(주말반)	
내용	태양열 온풍기와 폐냉장고를 활용한 태양열 건조기 교육	
강사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이재열, 정해원, 정재원	이재열 씨는 『태양이 만든 난로 햇빛온풍기』의 저자.
인원	총원 17명	주말반 인원만

일정	4월에서 9월까지 1박2일로 총 6회	
비용	수강료 20만원	나는 식비만 받았다.
수업방식	온풍기 집열판, 다리, 기계실, 건조기 팀으로 나뉘어 진행. 가끔 한 부분이 완성되면 모두 모여 그 부분의 제작과정과 작동원리 등을 들음.	

종명 쌤께서 소개해 주신 워크샵이다.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개최하는 로컬에너지혁신리더과정의 교육과정 중 하나였다. 강사 분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강의할 방식을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 때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나중에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 중에는 집열판 팀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공구의 종류, 만드는 법과 주의할 사항 등을 배웠다. 집열판 만들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기계실과 거치대를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던지, 미리 만들어 보던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	비고
일시	2014년 7월 27~30일	
장소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번지 완주군청 옆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내용	소형 건조기와 터널식 건조기	
강사	진일주	
인원	1명	
일정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비용	무료	
수업방식	첫 날 건조기 제작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날부터 제작을 시작함. 이렇다 할 매뉴얼이 없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건조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	



온풍기 워크샵에서 난로를 만드시는 진일주 선생님을 만났는데, 방학 때 조합에서 합숙을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방학 중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강의 내용 중에 만들기 쉬운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동조합 건물 마당에 있던 소형 건조기와 온풍기 워크샵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던 터널식 건조기와 소형 건조기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건조기의 제작법을 배우고, 그에 따른 교육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전에 받았던 온풍기 강의의 세부 자재 목록을 구했다.

4) 구체적 계획 세우기

소모임을 시작하려면 일단,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하기에, 방학 중에 나름대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진행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래는 내가 대충 생각해본 내용이다.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장 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인 원 : 10명

교육 내용

1주차 : 오리엔테이션

2주차 : 간단하게 만드는 터널식 건조기

3주차 : 작지만 효율이 좋은 소형 건조기

4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

보다시피 정말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고, 그마저도 준비물이나 비용, 날짜 등의 항목이 빠진 상태이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짤 필요를 느껴 방학 도중에 덕산의 흥원철물 조사를 위해 덕산에 갔을 때 종명샘과 만나 얘기를 했다. 학사 일정이나 비용 등에 대해 여러 얘기들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계획이 나왔다.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장 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일 시 : 2014년 9월 6일(토)

인 원 : 10명

비 용 : 수업당 10000원

교육 내용

1주차 : 오리엔테이션(9월 6일)

2주차 : 간단하게 만드는 터널식 건조기(9월 13일)

3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10월 3일)

4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2, 수업 평가(10월 4일)

태양열 온풍기가 한 차시만으로는 완성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건조기 한 차시를 빼고, 온풍기를 2주차로 넣게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만드는 법도 어렵고, 나무도 많이 드는 소형 건조기 차시를 빼게 되었다. 그렇게 소모임 준비를 하던 중, 9월 6일이 추석 기간이라 많은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와서 일정을 살짝 변경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획이 나왔다.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장 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일 시 : 2014년 9월 13일(토), 9월 14일(일)

인 원 : 10명

대 상 : 덕산, 혹은 덕산 근처의 주민 혹은 제천간디학교 학부모

비 용 : 1차시 무료, 2차시 재료비 15,000원, 식비 끼니당 4,000원. 3, 4차시 무료

준비물 : 편한 복장, 안전화 혹은 튼튼한 신발.

교육 내용

1주차 : 오리엔테이션과 적정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9월 13일)

2주차 : 주변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터널식 건조기(9월 14일)

3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10월 3일)

4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2, 수업 평가(10월 4일)

하지만 실제로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일정에 몇 가지 변수가 생겨서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장 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인 원 : 10명

대 상 : 제천간디학교 학부모

비 용 : 1차시 재료비 65,000원, 식비 끼니당 4,000원. 3, 4차시 무료, 온풍기 가져갈 시 재료비의 반인 170,000원 지불.

준비물 : 편한 복장, 안전화 혹은 튼튼한 신발.

교육 내용

1주차 : 오리엔테이션과 적정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주변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터널식 건조기(9월 14일)

2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10월 3일)

3주차 : 난방비를 줄이는 태양열 온풍기, 수업 평가(10월 4일)

5) 사전 준비

홍보

마을에 포스터를 붙였고, 간디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도 안내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어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쓰는 제 논문의 주제가 '덕산면에 적정기술 보급하기'인데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간디교육문화센터에서 적정기술 교육 소모임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 안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햇빛건조기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햇빛온풍기를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10명 정도 받을 것이고, 건조기는 만드신 후에 가져가실 수 있으나, 온풍기는 재료비가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학교 설치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시지는 못합니다....(대신에 재료비는 좀 저렴해지겠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일시 : 2014년 9월 13일(토), 14일(일)

장소 : 제천간디학교 강당

인원 : 10명

대상 : 덕산, 혹은 그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 간디학부모

준비물 : 편한 복장, 안전화 또는 튼튼한 신발

비용 : 1차시 무료

2차시 재료비 15000원, 식비 3500원

3차시, 4차시는 미정.

차시별 계획

1차시(13일) 오리엔테이션과 적정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2시간 30분~3시간 예상)

2차시(14일) 주변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터널식 건조기 만들기(7시간 예상)

3차시(10월 3일 예정) 겨울철 난방비를 줄여주는 태양열 온풍기 만들기

4차시(10월 4일 예정)위와 같음(2차시 수업), 소모임 평가

수업 방식

매 차시 시작할 때마다 자료와 함께 그날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수업을 한 뒤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아 다음 수업에 반영할 것임.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로 참여 여부를 남겨 주세요.

제가 간디학생이라 휴대전화로 문의를 받을 수 없어서

간디교육문화센터 070-8104-4936 또는 간디교육문화센터의 박종임 사무국장님 010-2766-587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간디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그리고 저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포스터⁶⁾도 만들어 덕산에 붙였다. 붙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갈 것 같은 덕산 면사무소, 대림마트, 누리마을 빵카페, 농협 네 곳에 붙였다. 또, 간디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제천간디학교 학부모 밴드에도 올라갔다.

하지만 저 글과 실제로 진행되었던 소모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소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생겨서 일정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소 섭외

이론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대강당과 공구를 사용할 때 필요한 목공실을 사용해야 해서 교사회의 동의를 맡고 사용했다. 목공실은 교사 한 분 이상을 동행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공구/식사 준비

식사는 후조쌤께 미리 몇 일 몇 명이 식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뒤 나중에 현금으로 식비를 지불하는 식으로 준비했다. 사용되는 공구는 경수쌤께 말씀을 드려 필요한 공구를 찾아보고 없는 공구는 덕산건축조합에 얘기를 드려서 건축조합의 공구를 빌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소모품(타카의 심 등)은 사비로 구매했다.

비용 산출/재료 구매

온풍기의 경우 자재 목록이 있어 큰 준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터널식 건조기는 이전에 만들 때 그냥 남은 목재를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과 그 재료의 사용량을 구한 뒤, 덕산의 흥원철물에 가서 재료의 가격을 구했다. 처음에 재료비를 산출한 결과 158,000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재료를 살 때 건조기를 몇 대 더 만들 재료를 사다 보니 건조기 5대를 만드는 재료비가 총 325,000원이 나왔다. 온풍기 재료는 자재목록을 참고하여 온풍기 1대를 만들 재료를 충주에서 구매했다. 총 재료비는 350,000원이 나왔다

강의 자료 제작

7월달에 받은 온풍기, 건조기 강의 때 사용한 강의 자료와, 올해 초 학교에서 열렸던 적정기술 워크숍에서 사용한 자료를 참고해서 파워포인트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 적정기술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온풍기, 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했다.

6) 포스터는 부록에 첨부되어있다.

소모임 평가지 제작

소모임에서 활동 과정을 다 끝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기말마다 수업 평가를 할 때 사용하던 평가지를 기본 틀로 한 소모임 평가지를 만들었다.

소모임 평가 설문지

성함 :

몇 학번 누구의 부모님이신지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에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논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해주세요.

I. 평가서

항목	평가 정도					평가한 이유 혹은 하고 싶은 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강의 내용과 수준이 이해하기 좋았나요?						
2. 강사의 교육 진행 방법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3. 강의 내용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4. 이 수업이 여러분들께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이용할 동기가 되었나요?						

II.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정성껏 답해주세요

1. 소모임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굳이 이번 차시의 좋았던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2. 이 소모임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다 고쳐야 할 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해 주세요.
(굳이 이번 차시의 좋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3. 앞으로도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지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원래는 수업 평가서라서 학생의 수업의 성실도와 교사와의 소통 등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소모임을 평가할 때는 그런 것 보다 우선해서 물어봐야할 강의 내용의 실용성과 그로 인해 실생활에서 적정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들었는지를 물어 보았고 서술형 평가의 마지막 문항은 원래 수업 평가서에서는 다음 수업을 위한 제한 사항이었으나 그것 보다는 소모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적정기술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생각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3. 소모임 활동 과정

1) 활동 내용

9월 14일 1차시 교육 : 오리엔테이션+터널식 건조기

	내용	비고
일시	2014년 9월 14일	
장소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내용	적정기술 오리엔테이션+터널식 건조기	
강사	우어진	
인원	5명	예슬맘, 시은빠, 지형맘, 현정, 범수빠, 지수, 지성빠
일정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이론 수업 1시부터 5시까지 건조기 제작 교육	총 5시간 20분
비용	23,000원	재료비 15,000원 식비 8,000원
수업방식	3인 1조로 진행. 1인당 건조기 1대씩 제작함. 기본적인 제작과정과 원리는 미리 설명하고, 제작 중에 강사가 옆에서 보면서 도와줌.	지형맘, 시은빠 한 조 예슬맘, 현정빠, 지성빠 한조

첫 번째 강의는 원래 13일, 14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오리엔테이션과 터널식 건조기 교육을 합친 강의이다. 13일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세 분이 빠지신다는 연락이 와서 오리엔테이션과 건조기 강의를 14일 한 차시에 몰아넣은 것이다. 그래서 첫 강의는 기본적인 일정/주제 설명, 적정기술에 대한 강의, 터널식 건조기에 대한 교육.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갖고 있다. 수업의 기본적인 일정/주제 설명은 학교에서 수업 첫 날 쌤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에 영감을 얻어 수업에서 할 내용(대주제인 적정기술, 소주제인 터널식 건조기와 태양열 온풍기)을 알려 주고, 강의 내용을 정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주차별 계획과 일정, 수업 준비물을 공지한 후,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다.

적정기술에 대한 강의는 내가 생각해 놓은 뼈대에, 이전에 들었던 강의들의 내용에서 유용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든 내용으로

- ◆적정기술의 정의와 역사
-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 ◆적정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 ◆적정기술의 비관적 전망
- ◆난방, 조리, 전력계통, 제 3세계 지원, 기타 5가지 분류로 나눈 적정기술의 적용 사례
- ◆태양 에너지의 장단점
- ◆태양열 건조기에 대한 사전 설명
- ◆태양열 온풍기에 대한 사전 설명
- ◆질의응답

이 순서로 되어있다.

처음에는 사전적 정의와, 실제로 적정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역사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적정기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간디의 스와데시와 슈마허의 중간기술에 대해서 짧게 설명했다. 그 뒤 ‘우리나라의 적정기술’에서 여러 단체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적정기술 운동에 대해 짧게 소개했다. 단체 항목에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술센터 핸드스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고, 2013년에 했던 적정기술 공모전인 ‘나는 난로다’에 대한 짧은 설명을 했으며 지자체 항목에는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큰 인상을 받았던 ‘적정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적정기술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 얘기했다. 적정기술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적정기술의 비관적 전망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의 비관적 전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가 워낙 편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할 경우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주로 했고, 그 사례로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자기 집의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불편해서 집을 팔아 버렸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이어서 ‘적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서는 탈핵/에너지 절약의 측면과 자급자족의 측면, 그리고 공동체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보았다. 그 후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적정기술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난방에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 온수기, 고효율 화목난로. 조리에 태양열 건조기, 태양열 조리기, 고효율 화덕. 전기계통에 태양광 발전, 소풍력 발전, 소수력 발전, 자전거 발전, LED 등. 제 3세계 지원에 Q드럼, 플레이펌프, 리터 오브 라이트, 드림볼 프로젝트. 기타에 슬링펌프와 바이오가스에 대한 예를 들었다. 그런 다음,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태양 에너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터널식 건조기와 태양열 온풍기에 대한 원리와 종류 설명에 들어갔다. 건조기와 온풍기 둘 다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뒤,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보여주고 각각 어떤 원리로 작동 하는지를 설명했다.

터널식 건조기에 대한 강의는

- ◆건조를 하는 이유
- ◆건조의 조건
- ◆건조기에 대한 이론/장점 설명
- ◆시중에 판매되는 건조기와 비교
- ◆건조 잘 시키는 법
- ◆건조기 제작법
- ◆질의응답

순서로 되어 있다. 터널식 건조기는 다른 형태의 건조기에 비해 자료도 부족하고 내 지식도 부족해서 강의 내용이 짧다. 일단 처음에 건조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면서 시작하는데, 이는 식품의 저장 방법 중 건조가 가장 우수하다는 내용을 알리려고 넣은 것으로, 미국 식약청의 연구결과에서 건조가 통조림이나 냉동에 비해 영양소 보존율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넣었다. 건조의 조건은 방학 때 건조기를 만들었을 때 건조의 조건인 ‘열’과 ‘바람’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효율이 떨어진 기억이 나서 참가자들이 앞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건조기를 제작할 때도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게 되었다. 그 뒤 기본적인 이론과 장점을 설명하게 되었다. 이론은 태양열로 공기를 덥혀 음식을 덥히는 원리와 건조기의 형태인 직접건조와 간접건조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서 건조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주로 어필한 부분은 자연건조보다 건조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태양열 외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점. 비나 동물, 벌레 등으로부터 건조품을 보호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건조기와 비교를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조기의 사이트에 있는 재료별 건조시간 표를 가져와 내가 전에 만들었던 터널식 건조기와 비교시간을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건조 잘 시키는 법과 제작법을 설명했다. 건조 잘 시키는 법은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만든 터널식 건조기 가이드에서 나온 건조 시의 노하우를 인용한 것이고, 제작법은 핸드 홈페이지에 있는 터널식 건조기 제작 후기의 사진을 가져와 자료로 사용해 알려주었다.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강의 시작 전에 경수쌤과 함께 공구나 재료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참가자 분들을 기다렸다. 강의 시작 시간은 10시였지만, 예슬 어머니께서 일이 좀 생기셔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10시 30분부터 이론 교육을 시작했다. 원래 강의 내용 요약본을 만들어 놓았는데, 까먹고 출력을 하지 않아서 이론 수업을 할 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설명을 할 때 약간 더듬거렸다. 이론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터널식 건조기가 밤이나 흐릴 때는 말

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많았다. 이론 강의가 끝나고 아점을 먹는데, 배식시간이 끝나고 와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재료와 공구를 작업하기 좋게 옮겨 놓고, 건조기 제작 교육을 시작했다. 기본 틀이 되는 각재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했더니 알아서 놓인 공구 집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 과정도 알아서 잘 하셨다. 가끔씩 팬을 거꾸로 다신다거나, 집열판을 거꾸로 다시는 등, 이상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다들 알아서 잘 만들어 주셔서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일 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4시간 만에 건조기 2개를 만든 후 재료비를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 건조기 강의의 재료비 15,000원은 소모임 참가자가 10명일 때를 기준으로 건조기 재료비 158,000원을 나눠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책정된 재료비였는데, 실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는 5명밖에 오지 않았고 건조기 재료비도 실제로 200,500원이 들어서 참가자 분들께 75,000원을 받고 내가 125,5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참가자 분들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았다.

- 수업 내용을 A4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요약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설계도와 만드는 법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 팬 방향이나 집열판 등 사소한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아 불편했다.

주로 수업 진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수업 내용 요약은 내 준비가 부족해서 나온 의견이라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 요약본도 같이 만드는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설계도와 만드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은, 구두로만 설명하지 말고 서면으로 된 설명서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다. 설계도 등은 사실 준비할 생각을 못 했다. 내가 로컬에너지 핵심리더과정에서 교육받을 때는 아무도 설계도를 달라거나 하지 않았고, 제작법 설명서 없이도 그냥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이 문제는 강의 자료와 강의 실력의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다. 아마도 내가 이해하기 쉽지 않게 설명을 했기 때문이거나, 로컬에너지 핵심리더과정 사람들은 적정기술이란 분야에 대해 사전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신데, 내 소모임에 오신 분들을 그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배우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팬 방향이나 집열판 위치 같은 사소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지 않아 불편했다는 내용들도 위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그냥 이론만 대충 설명하면 알아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했더니 생긴 참사이다. 방학 때 강의 들으면서 강사 분들께 강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첫 강의를 하고 나서 받은 느낌은 전체적으로 미숙하다는 느낌이었다. 특히 이론교육이 많이 미숙한 것 같았다. 예전에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목차에서 어떤 말을 할지 써 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그 메모를 보지 않고 이론 교육을 진행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지 못했고 내용을 떠올리느라 말을 많이 더듬거렸다. 그래서 한번 말 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애초에 강의 자료 자체가 좋지 않기도 했다. 기본 틀은 내가 짰지만, 안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내가 갖고 있던 강의 자료들의 내용을 짜깁기 한 것이라 말의 핀트가 맞지 않고, 강의 내용 자체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하는 적정기술 운동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적정기술 청년캠프’나 ‘축열 장인양성교육과정’등을 빼먹은 것이나, 건조기의 효율에 대한 자료를 넣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빼 먹었다(내 생각에는 앞으로 할 온풍기 교육의 자료는 철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할 때 생기는 심한 비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뤄서 컨디션도 좋지 않고, 말을 할 때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강의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이론 수업 이외에도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흥원철물에서 재료를 사 놓고 싣고 오는 과정에서 함석판을 싣고 오지 않는 실수도 있었다.

이론 수업에 비해 건조기 제작은 잘 되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잘 해서 원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알아서 잘 하셔서 원활했던 것이다. 실제로 내가 했던 역할은 공구 찾아주기, 물 떠오기 그리고 가끔씩 틀린 것 지적해주기이다. 이것 빼고는 내가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가 성공한 이유는 내 덕이 아니라 순전히 참가자들 덕이었다.

수업에 대한 것 이외에도 크게 아쉬웠던 점은 간디학교 학부모가 아닌 덕산 주민 분들이 오지 않았던 점이다. 내가 생각했던 내 논문의 이상적인 목표는 덕산 주민 분께서 한 분 이상 오셔서 소모임 활동을 받은 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목표가 처음부터 깨져버려서 좀 속상했다. 하지만 간디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와 주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강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0월 3일 2차시 교육 : 태양열 온풍기

	내용	비고
일시	2014년 10월 13, 14일	이틀동안 진행함.
장소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내용	태양열 온풍기 이론, 제작법 교육	
강사	우어진	
인원	6명	예술맘, 시은빠, 지형맘, 현정, 범수빠, 지수, 지성빠, 예술빠
일정	10시부터 11시까지 이론 교육, 아점 먹고 12시부터 5시까지 온풍기 제작. 다음 날은 9시부터 3시까지 제작	총 10시간 (식사시간 제외)
비용	54,000원	온풍기 교육비 무료로 식비 1끼 4,000원. 완성된 온풍기를 가져갈 경우 재료비의 반인 17만원을 부담. 건조기 추가 제작 비용 50,000원
수업방식	문서로 된 자료와 함께 한 이론 교육을 먼저 한 뒤, 아점을 먹고 온풍기 제작을 시작.	

2회차 온풍기 강의는 재료비를 내가 부담했다. 원래 계획은 고등교육관 설치를 전제로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아 재료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하려 했으나, 고등교육관의 설계에 맞춰서 온풍기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이나 제작한 온풍기의 유지 보수 문제, 강의 때 나온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경우의 불안, 고등교육관에 설치하려면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의할 내용도 늘어나는 부담과 그로 인해 제대로 강의를 하지 못했을 때의 반응 등이 걱정되어 제작할 온풍기의 규모를 대폭 줄인 뒤 재료비를 자부담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 재료비를 자부담하는 이유는 처음 홍보를 할 때부터 온풍기는 무료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게 조금 뒤흔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온풍기를 간소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제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후 나중에 소모임 참가자들이나 덕산 주민들 중 온풍기를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이 나오면 재료비의 반을 지불하게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온풍기에 대한 강의는

- ◆태양열 온풍기란 무엇인가
- ◆태양열 온풍기의 장점
- ◆이거...확실합니까?(효율)

- ◆온풍기의 종류
- ◆온풍기의 자동화
- ◆집열판을 만들 때 주의할 점
- ◆수업 목표
- ◆제작법
- ◆온풍기의 집열판이 검은 이유
- ◆질의응답

순서로 되어 있다. ‘태양열 온풍기란 무엇인가’와 ‘태양열 온풍기의 장점’에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설명한 뒤 ‘이거...확실합니까?(효율)’에서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실제 사용 시의 효율에 대해 태양열 온풍기 강의를 진행하시는 이재열 선생님께서 어느 잡지에 실은 글과 미국의 DIY 사이트에 올라온 Guy Sprrey라는 사람의 사용 후기와 시간별 온도 변화 그래프를 첨부해 설명을 했다. 그 뒤 ‘온풍기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온풍기의 종류를 설명하고 최근의 온풍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짧은 설명을 한 다음 수업 목표와 제작법을 설명했다. 또 지난 시간에 부족하다고 나왔던 수업 요약본이나 설계도 등을 문서로 출력해 참가자 분들께 나눠드렸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수업 전 날 미리 전화를 드려서 수업 일정 알림을 하는데 현정 아버지께서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고 지성 아버지께서도 일정이 겹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다음 날 예슬 아버지가 오셔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지난 강의 때 후회를 많이 했던 부분인 이론 교육은 미리 강의 요약본과 온풍기 설계도, 자재목록을 출력해서 드리고 시작을 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미리 키워드별로 정리해 놓았다. 하지만 강의 전 날 강의자료를 담아두었던 USB를 컴퓨터에 꽂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접촉부위가 녹아버리면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백업해 둔 자료를 기반으로 강의자료를 다시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백업이 없었던 강의 요약본과 강의 내용 키워드는 급하게 다시 만들게 되면서 자료의 내용이 허술해졌다. 그래도 지난 시간처럼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나오는 질문들은 없고 온풍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시다가 서로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셨다.

이번에는 이론 교육이 길지 않아서 아점을 제 시간에 먹고 12시에 온풍기 제작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데 참가자 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터널식 건조기를 세대 더 만들어서 가져가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건조기 제작과 온풍기 교육을 병행하게 되었다. 건조기는 시은 아버지와 건조기를 만들려고 나오셨던 예슬 아버지가 만드시게 되었고 건조기는 예슬 어머니와 지형 어머니, 잠깐 들렀다가 가신 지성 아버지, 둘째 날 오신 현정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각자 가구마다 건조기를 한 대 씩 만들어서 가져가는 만큼 지난 번 강의에서 내가 부담했던 재료비 125,500원과 건조기를 세 대 더 만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195,000원을 전액 참가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재료비 부분은 원래 내가 어떻게든 애기를 꺼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참가자들 측에서 먼저 애기를 꺼내 주셔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제작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단지 인원이 적은 게 문제가 되었는데, 인원수에 비해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개수가 많아서 둘째 날 오후 정도가 되니까 체력에 한계가 찾아와 다들 많이 힘들어 했다. 그 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내가 온풍기 제작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잊고 있어 제작 중에 몇 번의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한 점 정도가 있다. 그렇게 태양열 온풍기 강의를 마지막으로 소모임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두 번째 강의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의 건조기 수업 보다는 나아졌으나 수업 규모가 커지면서 신경 쓸 게 많아져서 놓치게 된 것도 많아져 여전히 미숙하다는

느낌. 지난 시간에 했던 재료를 구입은 해 놓고 싣고 오지 않는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건조기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재료는 아예 사 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온풍기 제작법을 강사인 내가 까먹는 바람에 제작 중에 몇몇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왔다. 강의를 이틀 연속으로 진행한 것도 체력적인 무리가 심해서 후반에는 누워서 쉬기도 했다. 이론 강의 할 때 사용한 자료는 한 번 증명샘과 핸드의 정해원 선생님께 피드백을 한번 받았기도 하고 말할 내용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놓아서 내용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왜 이런 재료/설계를 사용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질문이라 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핸드에서 가르쳐 준 설계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들이 나지 않아서 크게 당황했다. 몇 가지 질문은 증명샘께서 대신 대답해주기도 하셨다.

그 외에도 소모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아쉬웠는데 참가자 분들 모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온풍기를 설치할 장소만 정하고 해산했다. 뭔가 할 얘기가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말 할 수도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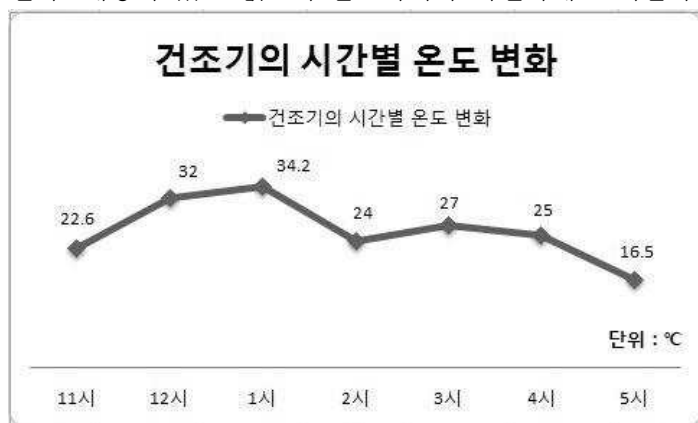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지난 수업보다 나아진 내용이 많으나 이틀 연속 강의를 진행하는 체력적 한계와 더 커진 강의의 스케일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던 강의였다.

2) 활동 후 적정기술 사용 실태

터널식 건조기

터널식 건조기는 소모임 활동이 끝난 후 논의를 통해 지형네와 지수네가 가져가기로 했다. 지형네의 사례로는 도라지 560g을 말렸더니 1주일 후 206g이 되어 있었다면서 도라지가 막대기처럼 말라 있었다고 했고, 지수네는 호박을 3일 만에 다 말렸다고 한다. 이는 우리 집에서 베란다에 호박을 말렸을 때 걸렸던 시간인 1주일에 비해 반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확한 건조기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직접 사과 2개를 썰어서 말려 보고, 해가 높게 떠 있는 시간(11시~5시)동안 한 시간마다 온도를 재 보았다.

옆의 그래프를 보면 이 날의 최고 기온이 20도였으나 건조기 내부 온도는 34.2도까지 올라가 14.2도나 온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태양이 있고 없고의 온도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내부에 말려놓았던 사과는 오전 11시 30분에 넣었다. 하루 뒤 비슷한 시간에 확인해 보았을 때 아삭아삭하던 사과가 쫄깃쫄깃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확인해 보았을 때 조금 딱딱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밤에 맺힌 이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침에 건조기 내부를 보면 이슬로 인해 축축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 온풍기는 소모임 활동이 끝난 뒤 논의를 통해 현정네가 가져가서 졸업생 김범수 학생의 방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정네가 가져간 이유는 집이 남향이기도 하고 온풍기를 설치하려는 방이 온풍기가 난방 할 수 있는 면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치하기 정말 용이한지 직접 설치 장소에 찾아가 보았더니 방 크기도 알맞고 남쪽 벽면에 온풍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탁자와 송풍기를 틀 수 있는 플러그, 온풍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까지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현정네에 온풍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4. 소모임 활동 평가

항목	평가 정도					평가한 이유 혹은 하고 싶은 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강의 내용과 수준이 이해하기 좋았나요?	1	4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내가 이해하기 쉬웠다.
2. 강사의 교육 진행 방법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1	4				다수의 수강생을 지도하기에도 충분한 자료와 내용이었다.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내가 이해하기 쉬웠다.
3. 강의 내용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4	1				의식주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 자립이 필요했다.
4. 이 수업이 여러분들께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이용할 동기가 되었나요?	5					우리 집도 적정기술을 적용해보고 싶다. 건조 기능, 실내 보온을 위해 배운 기술을 즉시 사용하고 싶다.

1. 소모임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굳이 이번 차시의 좋았던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듣던 태양 에너지 이용과 원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든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기술이고,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가구를 만드는 데 응용할 수 있을 듯하다.

여러 가지 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적정기술 이해 수업자료가 체계적이고 수업진행도 좋았다(비염만 없었어도). 여러명을 수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내용과 준비였다.

적정기술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직접 만들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생활에 필요한 건조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온풍기의 원리도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되었다.

2. 이 소모임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다 고쳐야 할 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해 주세요.

(굳이 이번 차시의 좋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원리부터 만드는 방식이 더 친절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면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각 부품의 제품명과 구입처도 있었으면...

장비와 재료 사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공구나 재료를 사용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준비했으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듯 하다.

준비물 등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여서 칭찬하고 싶다.

3. 앞으로도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당연히 적정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이 지역의 특성상 겨울을 6개월 지내야 하므로 난방에 대한 에너지 효율에 관심이 많이 갈 수 밖에 없고, 비용을 최저로 하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얻고 싶다.

에너지 절약과 농산물 건조기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관리도 쉽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몇 가지 불편과 취향 때문에 필요성은 알지만 먼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집은 실험적으로 적정기술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적정기술을 쉽게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지을 집에 꼭! 적용할 것임!!

적정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가정에도 적정기술을 응용해봐야겠다.

앞으로 가능한 한 적정기술을 더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활용하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

평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처음 소모임을 시작할 때 내가 가진 의도는 이 사람들이 소모임을 함께 할 때 뿐 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적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

참가자들이 모두 평가에서 소모임이 끝나더라도 적정기술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주셔서 많이 놀랐다. 특히 집을 실험적으로 적정기술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신 현정 아버지의 평가가 많이 와 닿았다. 그 외에도 교육 내용도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평가되었고 이 소모임이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내 논문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드디어 논문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다. 1학기 때는 논문이 끝나면 기뻐서 운다거나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의외로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담담하다(발표 전이라서 그런가). 느낌이야 어쨌든 이번 논문으로 인해 굉장히 성장한 지점이 많은 것 같다. 그 중 가장 크게 성장한 지점은 적정기술에 대한 것과 사교성에 대한 것 같다. 나는 이번 논문으로 인해 적정기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이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처 철물점에서 재료를 사서 하루 안에 터널식 건조기를 만들 수 있고, 훗날에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들과 같이 태양열 온풍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소모임 덕분이다. 물론 소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않았다. 여태까지 내가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의미가 좋다는 말이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자 내 소모임이 의미‘만’ 좋은 소모임이 될까봐 많이 걱정을 했다. 그런데 소모임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적정기술이 참 좋다고 많이 말했고 평가에서도 적정기술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들 중에 평소에 적정기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은 많았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연 소모임이 그런 분들에게 촉매 역할을 해 준 것이다.

또 다른 성장 지점은 사교성에 대한 부분이다. 나는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해서 굉장히 한정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연락하면서 남에게 쌓아두었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방학 초반에만 해도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면 일이십 분 동안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전화를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전화를 마치고 나면 아주 큰일이라도 치룬 것처럼 땀이 흐르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점들이 거의 사라진 걸 보면 이 논문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 논문은 ‘덕산면에 적정기술을 보급하기’라는 목적을 잘 달성한 것 같다. 인원이 적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모임에 참가한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적정기술을 이용할 의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꽤 뿌듯하다.

2. 논문의 한계

내 논문의 가장 큰 한계는 시간과 돈, 그리고 나 자신이다.

일단 소모임을 준비할 시간과 소모임을 열 시간이 부족했다. 개학하고 나서부터 논문 제출일 까지 가정 학습 한 번과 여러 번의 스태프 회의, 1박 2일간의 규칙 되돌아보기 캠프 등 3학년의 준비시간을 앗아갔던 일들이 많았고, 9월 13일 급작스럽게 일정을 빠지게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정을 미룬다거나 10월 3일 두 분이 빠지셔서 세 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모임을 진행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일정을 맞추는 데에 큰 어려움이 많았다.

돈 문제도 좀 심각했는데, 보통 적정기술 강의를 진행하는 단체는 어딘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지만 나는 어디서 지원금을 대 주는 단체가 없어 재료를 전부 자부담해야 했고, 수업료가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봐 참가자 부담 재료를 내가 적자가 나지 않는 135,000원에서 많이 낮춰서 1인당 15,000원으로 잡아서 재료비 600,500원을 자부담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히도 참가자 분들께서 건

조기 재료비는 전부 내 주신다고 하였고 온풍기도 현정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서 재료비의 반 정도 되는 170,000원을 내시면서 내가 자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180,000원 정도가 되었다. 만약 저 비용을 자부담했다면 내 예금통장의 잔고가 반 정도 줄었을 것이다…….

나 자신이 부족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소모임 진행 할 때 지식이 부족해 질문에 답을 못했거나 준비를 잘 못했거나 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문을 하면서 생긴 분노조절장애 비슷한 것 때문에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담당교사 종명쌤과 몇 번 트러블을 일으킨 점 등등 자신에게 반성할 부분이 많다.

3. Thanks To

완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선규 선생님과, 다솜누나, 안병일 선생님과 안상원 선생님. 같이 교육 받았던 로컬에너지 핵심리더과정 1기 여러분. 방학 때 많이 도와주셨던 진일주 선생님. 전화 많이 해서 귀찮으셨을 텐데도 많은 것을 알려 주신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정해원 선생님과, 흔쾌히 강의 자료 사용을 허락해 주신 핸즈의 이재열 선생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목재 이름을 말해도 척척 찾아주시는 흥원철물 사장님. 소모임 홍보에 큰 도움을 주신 간디교육문화센터의 박종임 사무국장님. 공구를 빌려주신 덕산건축조합 서경이 아버지(사실 그 공구는 단아 아버지 거였답니다)같이 잉여짓 해주고 소모임 도와준 주열이, 우리 방 101호 지훈이형, 성혁이형, 성현이, 소모임에 참가해주신 예슬 어머니, 예슬 아버지, 시은 아버지, 지형 어머니, 현정 아버지, 지성 아버지, 항상 있는 힘껏 저를 도와주신 종명쌤과 경수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논문 때문에 1년을 꾀통 받았던 콩자반 학우들, 그 콩자반 학우들을 많이 도와주신 민혜쌤과 상현쌤. 마지막으로 우어진 정말로 수고 많았다.

4. 부록

소모임 모집 포스터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햇빛 건조기/온풍기

일시 : 9월 13일(토) 10시

인원 : 10명 내외

대상 : 덕산 혹은 그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
혹은 제천간디학교 학부형

장소 : 제천간디학교 대강당

교육프로그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시	일시	교육내용
1차시	9월 13일(토)	오리엔테이션
2차시	9월 14일(일)	간단하게 만드는 햇빛 건조기
3차시	10월 3일(금)	난방비를 줄이는 햇빛 온풍기-1
4차시	10월 4일(토)	햇빛 온풍기-2/수업 평가



참가 신청/문의

070-8104-4936 또는 010-2766-5872

비용 : 수업당 15,000원+식비 3500원

온풍기 강의 요약본

2014년 10월 3일 덕산면 적정기술 소모임

태양열 온풍기 교육

이 온풍기의 효율은 꽤 쓸 만 한데, 미국의 Guy Sprreys라는 사람이 집에 직접 가로 1m에 세로 2m의 온풍기를 설치해 보았더니 가스비를 최대 18%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풍기의 난방 능력은 집열 면적의 최대 5배까지라고 한다. 하지만 온풍기의 가장 큰 단점은 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다른 난방기구와 함께 사용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 벽체의 단열능력에 따라 낮의 열기를 보존할 수 있다.

1. 타카와 목공본드로 기본 틀을 짠다.
2. 단열재를 틀의 안쪽 크기에 맞게 잘라 붙인다.
3. 150파이 주름관을 집열판에 미리 넣어 본 뒤, 위치에 맞춰 찬 공기 유입구와 따듯한 공기 출구를 뚫는다.
4. 주름관을 깎는다.
5. 주름관을 깔고 집열판에 생기는 남는 공간을 1*4 구조목으로 메꾼 후 그 위에 함석판을 깎는다. 집열판 가장자리 부분에도 깎는다.
6. 무광흑색 내열락카로 집열판을 칠한다.
7. 폴리카보네이트를 내열실리콘으로 집열판 위에 붙인다.
8. 알루미늄 L바를 집열판 모서리에 대고 고정한다.
9. 친환경 오일스테인을 칠한다.
10. 기계실을 만들어 붙인다.

Hand-drawn diagram of a water filtration system. The diagram shows a rectangular tank with four horizontal layers. On the left, a pump (송풍기) is connected to a 100mm pipe (100파이) that leads to a 50mm pipe (50파이) and a 100mm pipe (100파이). A 150mm pipe (150파이) is also connected to the top of the tank. On the right, a 150mm pipe (150파이) is connected to the bottom of the tank, leading to a 100mm pipe (100파이) and a 50mm pipe (50파이). The diagram is labeled with various pipe sizes and components in Korean.

온풍기 자재목록

품목	세부사항	단가	수량	가격	비고
구조목	1*4(inch)	6,000	1	6,000	
	1*8	15,000	2	30,000	
합판	3*6 12T	15,000	1	15,000	
E-board	900*1800 13T	17,000	2	44,000	택배비 10,000, 2개로 부족함
폴리카보네이트	910*1820 3T	35,000	1	35,000	중명쌈 제공
합석판	900*1800	7,500	1	7,500	
알루미늄 L바					중명쌈 제공
알루미늄 주름판	150파이	15,000	1	15,000	
보온주름판	150파이	31,500	1	31,500	
	100파이	20,000	1	20,000	
수동댐퍼	100파이	9,000	1	9,000	
송풍기	DB-105 60W	36,000	1	36,000	
후렌치	150파이	4,900	3	14,700	
	100파이	3,700	1	3,700	
레듀샤	150파이->100파이	5,300	1	5,300	
전선	5m	3,000	1	3,000	
스위치		800	1	800	
플러그	220v용	500	1	500	
절연테이프		500	1	500	
알루미늄 테이프					
커버링테이프	450mm	1,000	1	3,500	택배비 2,500
무광흑색 내열락카	순간내열 200도	10,000	2	20,000	중명쌈 제공
목공본드			1		전에 구매해서 가격이 기억안남
목장갑	반코팅	3,000	1	3,000	한봉지
실리콘		2,000	2	4,000	
오일스테인	밤나무색 4L	30,000	1	30,000	
방진마스크					
경첩					
ㄱ자철물					
총계	338,000+ α				

13학번 진주열 학생의 소모임 평가

온풍기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던 중 소모임을 도와주던 주열이가 설문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 내용이 재밌어 넣어 보았다.

항목	평가 정도					평가한 이유 혹은 하고 싶은 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강의 내용과 수준이 이해하기 좋았나요?		0				ppt와 강의 자료는 좋았지만 강사의 지식이 부족했다.

2. 교육 진행 방법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0			
3. 강의 내용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0		안 씀.
4. 이 수업이 여러분들께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이용할 동기가 되었나요?				0	난 실생활에서 안 씀.

1. 소모임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알지 못했던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듯.

2. 이 소모임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다 고쳐야 할 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해 주세요.

조금 더 지식을 쌓아서 질문에 제대로 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앞으로도 실생활에 적정기술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사용하지 않겠다. 자본이 없을뿐더러 혼자 만들기엔 많이 귀찮다.

제천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지도교사: 손진근



이름: 이시은

생일: 구구년 노동절

좋아하는 것: 애니-만화-게임-노래 덕질, 큐브맞추기, 연어, 연어초밥, 꼬꼬면, 밥, 소설쓰기(를 빙자한 한글켜놓고 잉여롭게 시간보내기), 박민규 소설

인생최애: 카노 슈우야, 우라타누키, 앤캐

가끔씩: 까아아아 ㅏ아아아앙아아얏이라고 소리친다 (*해치지 않아요)

한마디:

끝났다고 방심하다 오학년에 논문집을
딴짓말고 제때제때 할일하며 살아가세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 본론

1. 생태화장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2. 생태화장실 탐방기
 - 1) 다하지센터-생태실전건축학교
 - 2) 산마을고등학교
 - 3) 실상사작은학교 옆 가정집
 - 4) 실상사작은학교
 - 5) 실상사
 - 6) 선암사
3. 간디학교의 생태화장실
 - 1) 현재 간디학교의 생태화장실 구조
 - 2)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
 - (1) 냄새
 - (2) 파리
 - (3) 청결(청소)
 - (4) 간디인의 인식 상태
 - 3) 원인 분석 및 개선 방법 연구
 - (1) 매일 똥통 비우기 실험
 - (2) 여자화장실 임시 소변기 설치 실험
 - (3) 남자 설문
 - (4) 왕겨통 구상
 - (5) 청소 매뉴얼 재정비

III . 결론

1.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개선 방안 제안 및 관리 방향 제시
2. 논문의 한계
3. 논문을 마치며
4. 고맙습니다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내가 처음 제천간디학교에 왔었던 것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가족 여행으로 근처에 놀러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르게 되었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는 방학이나 가정학습주간이었는지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었다. 우리가족은 학교를 이곳저곳 구경했고 엄마아빠가 나에게 이런 학교 다니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었는데, 내가 “화장실 때문에 다니기 싫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금 버젓이 하루 세 번 생태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그땐 내가 이 학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나는 생태화장실이 외부인에게 우리학교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학교에서 생태화장실은 우리학교의 생각을 잘 드러낸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자랑스러운 간디학교의 얼굴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생태화장실은 냄새와 기타 등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간디인 대다수가 생태화장실에 가기를 꺼려한다. 나는 생태화장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안타까웠고, 생태화장실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고쳐지면 간디인들이 덜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논문의 주제로 잡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이 논문의 형식은 연구논문이다.

*참고 서적

『똥살리기 땅살리기』 (조셉 젠킨스/녹색평론사/2004)

『자연을 꿈꾸는 뒷간』 (이동범/들녘/2000)

*방문 및 탐방

다하지 센터-생태실천건축학교(전남 장흥군), 산마을고등학교(인천 강화군), 실상사와 실상사 작은 학교(전북 남원시), 선암사(전남 순천시), 정방사(충북 제천시)

*영상

특집 다큐멘터리 “똥, 땅을 살리다”(SBS/2009)

*인터뷰 및 설문

간디인들의 생태화장실 인식 설문 조사, 활동 평가,

생태화장실 청소, 미리강 인터뷰

II. 본론

1. 생태화장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현재 우리학교는 생태화장실이라는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생태화장실이란 분뇨를 물에 흘려내려버리는 수세식 화장실과 달리 분뇨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만드는 화장실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화장실을 ‘뒷간’ 또는 ‘축간(厠間)’ 이라고 불렀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칙간(축간의 사투리)’, ‘정랑(뒷간의 경상도 사투리)’ 이라고도 불렀다. 점잖게 한자말로 정방(淨房)이라고도 했고 절에서는 ‘근심을 더는 곳’ 이라 하여 해우소(解憂所)라 부르기도 했다. 또는 복수(뒷물)를 하는 곳이라 하여 ‘복수간(北水間)’이라고도 했다. 옛날집 뒷간에는 재를 많이 뿌렸으므로 ‘잿간’이라고도 불렀다.

뒷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뒤를 보는 집’ 이란 뜻이고, 다른 하나는 ‘뒷마당

에 자리한 집'이라는 뜻이다.

생태화장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농경 사회였던만큼 우리네 조상들은 인분¹⁾을 거름으로 내어 썼는데 이렇게 생태화장실의 인분을 거름으로 쓰자면 인분을 부패·발효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메탄·질소·암모니아 등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시켜 냄새를 없애려면 생태화장실의 위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했다.

또한 통풍이 잘 되어야만 인분 속에 있는 미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해주어 발효가 더욱 빨라진다. 통풍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미생물 발효를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집의 좌향 등을 고려하여 뒷간의 위치를 결정했다. 통풍이 잘 되려면 우선 뒷간을 살림채에서 따로 떨어뜨려야 했고, 집의 구조와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해 냄새가 살림채로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공간적 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뒷마당에 자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뒷마당에 자리한 집', 뒷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²⁾

화학비료가 없던 옛날에 사람똥은 가장 우수한 거름재료로 이용되었다. 옛어른들은 오줌똥을 거름으로 내어 쓸 때 집의 뒷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 썼다. 자기 집 뒷간에 옹기독을 묻어놓고 인분을 받는 경우에는 똥장군에 담아 지게로 받들가에 파놓은 소매구덩이에 옮겨놓고 일정기간(여름엔 4~5일, 봄·가을엔 10일 정도)을 더 썩힌 다음, 색이 암흑색으로 변하면 그때 꺼내 썼다. 뒷간에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생분뇨를 그대로 쓰면 이른바 채독으로 작물에 오히려 해를 주기 때문이다.

잿간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인분을 재와 섞어 거름을 냈다. 원래 재는 알칼리 성분이 강해서 수렁밭이나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 데 좋다. 그런데 재는 바람에 쉬 흩날리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오줌이나 똥에 버무려서 보관해두었다.

이렇게 오줌재나 똥재로 만들면 냄새가 적고 저장이나 운반이 간편하며 재가 지닌 강한 알칼리성 때문에 병균의 번식이나 침투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잿간변소를 사용한 것도 이렇게 재와 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뒤를 보고 뿌리는 희석재를 재가 아닌 쌀겨나 잘게 썬 벼짚 등을 쓰는 경우에는 잿간이나 두엄간에서 충분히 부숙을 시킨 뒤에 거름으로 내어 썼다.³⁾

현대문명의 발명품 중에서 중요도로 따지자면 수세식 화장실은 열 손가락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문명의 발달로 인해 도시화와 인구폭증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발명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의 역사는 매우 짧다. 화장실공간이 처음으로 살림집 안에 들어온 것은 1941년 영단주택(문화주택)이 시초였고, 지금과 같은 세면기, 변기, 욕조로 구성된 화장실은 1962년 마포 아파트가 처음이었다.⁴⁾ 수세식 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됐지만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된 후 일반에도 널리 보급되었다.⁵⁾

수세식 화장실은 분뇨를 처리하는 데 약 50여 배 이상의 엄청난 물을 소비한다. 수세식 화장실 사용에 대한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대변이 1일 평균 1.09회, 소변은 6.58회이고, 여자의 경우 대변 0.77회, 소변 5.17회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 1회 사용시 물 사용량은 13~19리터로, 남녀 평균 하루 물 사용량이 108리터라는 수치가 나온다. 한 사람의 분뇨처리에 1.8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무려 60여 병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세계 인구의 약 40%는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N

1) 人糞. 사람의 변.

2) 이동범,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2000, 30쪽~31쪽 참고.

3) 이동범,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2000, 55쪽 인용.

4) 이동범,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2000, 29쪽 인용.

5) 국립민속박물관, 화장실의 역사 "뒷간이야기"(<http://blog.naver.com/tnfmk/220088679392>) 참고.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무성의 <2000년의 지구>라는 연구조사 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등 많은 개도국에서 생활 용수 및 농업 용수가 벌써부터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물을 공급할 개발적지가 한도에 다다르고 있고, 자연수자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거액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개발에 의한 대규모 산림 감소로 물 공급체제가 불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의 위협 요인으로 손꼽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다라도 연평균 강수량이 1,274mm로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많이 내리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량은 2,755톤이어서 세계평균 26,800톤의 11%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 한철에 쏟아져 빗물의 4분의 3 이상이 하천을 통해 곧장 바다로 흘러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 소비 수준은 1인당 하루에 409리터(1999년 기준)로 소득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덕분에 매년 1조 8천억 원을 들여 댐과 광역 상수도를 건설해야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30~40개의 댐과 40~50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의 과소비는 자칫 댐 건설론자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이끌기 십상이니 영월의 동강댐 문제도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수세식 화장실의 또 다른 문제는 오염이다. 수세식으로 내려진 분뇨는 정화조에 들어가 희석되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데 정화조를 거쳐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위행정화된 물이 아니라 법적인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킨 희석수다.

이러한 희석수의 문제는 아무리 법적인 산소요구량(BOD의 경우 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은 20ppm, 상수원 보호지역은 10ppm)을 충족시키더라도 대장균 덩어리인 분뇨가 물에 섞임으로써 이를 분해·발효시키는 박테리아가 공기로부터 차단되어 죽어버리고 수인성(水因性) 질병의 병원균들을 더욱 번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소량의 분뇨를 멀리 보내기 위해 쓰인 50배의 깨끗한 물은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오수로 변한다.

세계위생기구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정화조를 통해 나온 희석수 1cc에 자그만치 43만 개의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 희석수는 다시 하수관을 통해 두 배가 넘는 다른 생활하수를 오염시켜 도시의 하수는 온통 병원균의 온상이 된다.

정화조를 거친 희석수가 세제가 섞인 가정의 생활하수와 합류하면 미생물의 활동은 더욱 억제된다. 더구나 빗물과 합류하면서 더더욱 병원균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악순환을 밟음으로써 수세식의 물오염은 합류식 하수체계의 문제와 함께 얹혀 물 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

분뇨는 자연생태적 입장에서 보자면 훌륭한 퇴비자원이지만 물과 합류되는 순간 인류의 생활을 괴롭히는 오염 덩어리로 변해버린다는 점에서 수세식은 결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렇듯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며 위생적이라는 생각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수세식이 깨끗하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집 내부일 뿐, 집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서면 우리는 물 낭비, 물 오염으로 복합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⁶⁾

토양 속 영양분이 풍부하면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영양분 또한 풍부해진다. 그러나 토양 속 영양분은 급속으로 감소되고 있다. 일본과학기술청 연구에 따르면 근 50년간 일본 시금치 100g 속 철분 함량이 1952년에는 13mg, 1982년에는 3.7mg, 1993년에는 0.7mg으로 과거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금은 열아홉 단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금치 뿐만 아니라 당근은 열 개, 굴은 무려 스무 개를 먹어야 예전과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토양 속 영양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학비료를 쓴 땅보다 자연퇴비를 쓴 땅이 유기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에서 작물이 나오고, 작물은 조리되어 사람이 먹는다. 사람은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다시 똥으로 배설하고, 똥은 거름이 되어 다시 땅의 영양분이 되어 순환한다.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됨으로 인해 똥에서 땅으로 돌아가는 연결고리가 끊겨버렸고 사람들은 똥은 버리는 쓰레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똥이 거름이 되지 못하니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써야 되고, 화학비료는 땅속에 사는 각종 생물들을 죽이고 땅을 메마르게 한다.⁷⁾

6) 이동범,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2000, 125~128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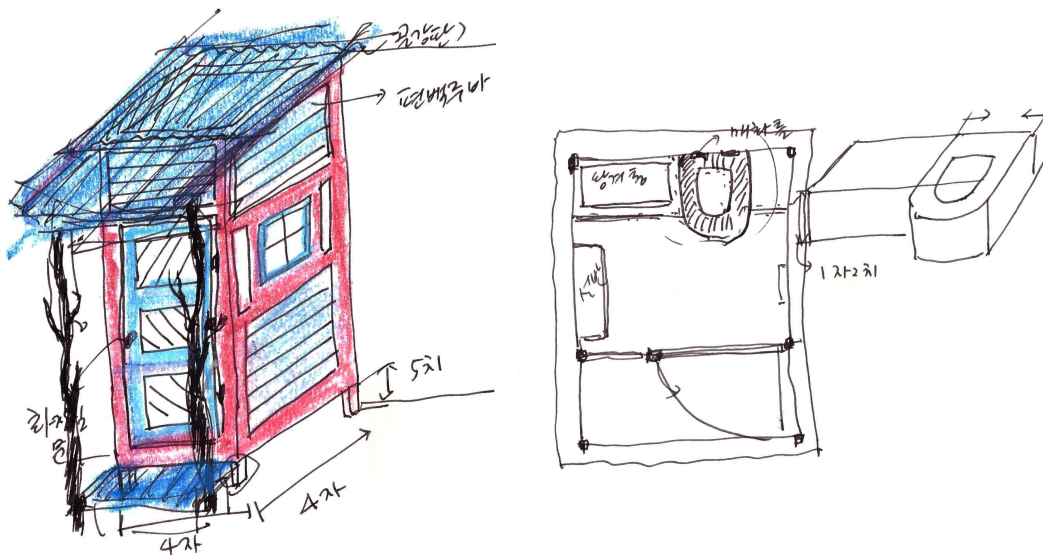
생 분뇨도 거름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생 분뇨에는 각종 병을 유발하는 병원균과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생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위생의 문제와 전염의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의 보건국 책임자였던 샤리프 박사는 “생 분뇨를 뿌리면 농작물은 잘 자라지만 국민건강에 위해 요소가 된다. 중국에서는 장내 질환에 감염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는 숫자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분뇨를 그대로 비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내 병원균에 의한 질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인다.⁸⁾

생태화장실은 생 분뇨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발효시켜 거름으로 만든다. 발효과정에서 퇴비더미는 44~52℃부근에서 70℃까지 올라가는데,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병원균과 기생충은 죽게 되고 대신 고온성 세균들이 활발하게 분해한다. 그리고 다시 중온으로 떨어지면 다른 세균과 미생물들이 잘 자라게 되어 좋은 거름으로 거듭난다.

생태화장실에서 똥은 유기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자 거름이다.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사람은 그 작물을 먹고 소화시켜 내보내고, 사람이 소화시키고 남은 똥은 다시 영양분이 되어 밭으로 돌아간다. 이 순환고리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땅의 영양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중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도 없다. 반면 수세식 화장실은 똥을 폐기물로 생각함으로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양의 돈을 들이고,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생긴다. 게다가 똥이 거름으로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니 어쩔 수 없이 화학비료를 써야 한다. 똥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똥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주어야 한다.⁹⁾

2. 생태화장실 탐방기

1) 다하지센터-생태실전건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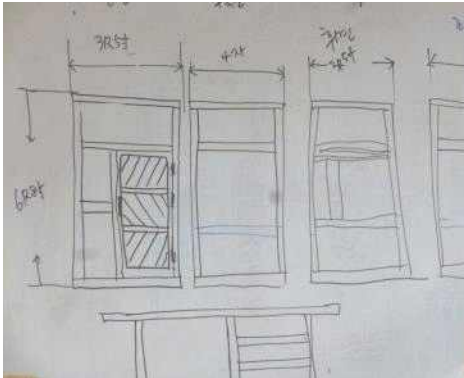
일자	교육내용	기타
28	생태화장실 디자인 작업과 자재재단, 점검사항 확인	연장 사용시 주의사항
29	자재 재단 및 조립	자재 선택
30	마감작업	

7) <똥, 땅을 살리다>, SBS, 2009, 참고

8) 조셉 젠킨스, 『똥살리기 땅살리기』, 녹색평론사, 2004, 53~54쪽 참고

9) 조셉 젠킨스, 『똥살리기 땅살리기』, 녹색평론사, 2004, 29~35쪽 참고

손쌤의 추천으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의 생태실천건축학교에 가게 되었다. 정남진의 다하지센터에서 열리는 생태실천건축학교는 이름 그대로 생태적인 삶을 위한 건축을 배우는 캠프 형식의 학교인데, 이번 생태실천건축학교의 주제는 생태화장실이었다. 고등학생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받는 이 캠프에서 나는 막내였다. 학생은 나와 고등학생 오빠 한 명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생태화장실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 많이 오셨었다.



우리는 첫 날 생태화장실의 원리와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태화장실은 무엇보다도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생태화장실 안에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하고 습기가 적은 양지 바른 곳이 생태화장실을 짓기 적절한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작은 1칸 크기의 이동형 생태화장실을 짓기로 하고 첫째날의 일정을 마쳤다.

둘째날 아침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위험한 톱이나 망치는 어른들이 주로 다루셨기 때문에 어린데다 여자였던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먼저 문짝의 뼈대를 만든 후 뼈대를 붙여서 틀을 잡는다. 그렇게 잡은 틀에 뼈대를 추가해주고 판자로 벽을 막으면 끝이었다. 목공일이기도 하고, 밖에 비가 오는 바람에 좁은 실내에서 만드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다. 간신히 저녁밥 먹기 전까지 페인트칠을 끝낼 수 있었고, 저녁에는 고기 파티를 했다. 번기를 짜는 것 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었지만 생태화장실을 지을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생태화장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냄새가 심해지는 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우리학교 생태화장실에 대한 피드백도 듣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



2) 산마을 고등학교

7월 22일, 나는 전국에 있는 여러 생태화장실을 알아보던 도중에 알게 된 산마을 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을 찾아갔다. 그 주에 마침 인천에 있는 외할머니집에서 지내던 나는 21일 저녁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찾아가도 될까 걱정했었으나 다행히 당일 아침에 전화했었을 때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전국에 여러 가지 생태화장실이 있었지만 산마을 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을 먼저 방문했던 이유는 같은 '학교에 있는 생태화장실'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학교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절대 적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이 관리한다는 점이 우리학교랑 어떻게 같고 다를까가 궁금했다.

내가 찾아갔었을 때는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몇 분계시고 학생들은 없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덕분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산마을 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은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건물이 따로 있었다. (이유는 없다고 한다.) 여자 두 칸, 남자 두 칸으로 이루어진 화장실은 남녀 모두 톱밥변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톱밥변기 시스템은 조셉 젠킨스의 <똥 살리기 땅 살리기>라는 책에 나오는 방식으로, 대략 20L정도 들어가는 들통위에 나무로 만든 변기커버를 씌워 양변기처럼 사용하고, 사용할 때 마다 톱밥을 뿌려주며 통이 가득 차면 퇴비장으로 옮기는 시스템이다.



<↑ 화장실 내부>

취도 나지 않았다. 다만 파리는 어쩔 수가 없는지 많아 보였다.

나는 대략의 설명을 듣고 혼자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난 후 학교에 계시던 생활담당 선생님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다.

첫 번째로 학생들과 사람들이 생태화장실을 잘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다. 여자화장실 옆에 수세식 화장실이 남녀 한 칸씩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지도 같이 물어보았다.

수세식 화장실은 학교가 인가를 받으면서 꼭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고, 학생들의 10명중 적어도 8명은 생태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했다. 가끔 비위가 아주 약한 사람이나, 생태화장실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생태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혹시 학생들이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지, 제대로 사용을 하고 관리되는지 등 생태화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인식을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나, 대부분이 냄새도 안 나고 사용하다보니 더럽다는 편견도 버리게 되어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용법도 복잡하거나 더러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다들 제대로 사용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생태화장실의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청소구역으로 생태화장실이 있고,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스스로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통을 매일 비운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생태화장실을 싫어한다거나 꺼려하는 사람이 없는 듯한 분위기였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았고 청소나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었고 퇴비화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퇴비로 잘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3) 실상사 작은 학교, 작은 마을

8월 5일. 우리가족은 나의 논문을 위해 가족 여행도 가는 겸 해서 생태화장실이 유명한 실상사와 선암



<↑ 퇴비장>

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먼저 지리산자락에 위치한 실상사를 들렀다. 실상사에는 근처에 실상사에서 세운 실상사 작은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입주 조건 중 하나가 집에 생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가람이네랑 아는 사이인 어느 집을 소개받아서 그 안의 화장실을 둘러볼 수 있었다.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실내에 있는 평범한 화장실에 생태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집 안에 화장실이 두 곳이 있었는데, 변기 밑에 구멍이 나있어서 두 변기의 구멍이 바로 밑에 한 곳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구조였다. 화장실 위치가 건물보다 높아서 화장실 밑에 떠있는 공간에서 퇴비화를 시키는 구조였다. 집의 뒷문으로 나가 큰 탱크같은 것의 문을 열면 쌓여있는 퇴비가 보였다. 화장실 사용은 기본적인 톱밥변기와 비슷했다. 대신 이 집은 소변용 변기가 따로 있다고 했다. 대변용 변기는 바로 퇴비장으로 이어지고, 소변용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따로 처리되었다. 볼일을 보고 나서는 나무껍질 같은 것을 뿌려주고, 사용하고 나서는 변기의 뚜껑을 덮는 방식이었다.

퇴비장에는 위로 이어지는 환풍기가 있었는데, 전기를 쓰지 않고 바람이 불면 스스로 돌아가는 방식의 환풍기였다.

집주인분께 사용 시 불편한 점이나, 냄새가 심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보통 관리만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한다. 변기나 퇴비장 사이즈가 가족용이라서 손님이 많이 놀러오면 냄새가 심해지고, 또 비가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도 냄새가 심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한 칸은 냄새가 거의 안 났다. 다른 한 칸은 냄새가 조금 났는데, 최근에 손님들이 왔다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 내부. 건물 안에 있다>

<↓ 집 뒤편에 퇴비를 푸는 곳이 있다>



<↑ 실상사작은학교 생태화장실>

그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실상사 작은학교의 생태화장실이었다. 이곳의 생태화장실은 최근에 학교 내의 목공소에서 학생들끼리 새로 지었는데, 방학 중이라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고 사람도 없어서 우리 가족끼리 둘러보았다. 전에 썼던 화장실은 현재 농사 창고로 쓰이고 있었는데, 퇴비를 쌓아두는 곳과 화장실 간격이 높아서 긴 통을 연결해서 사용했었고 소변은 깔대기로 분리해 호스를 따라 한 통으로 모이게 되어있는 구조였다.

나중에 물어보니 화장실을 다시 지은 것에는 큰 이유는 없고 전 화장실이 너무 급하게 지었던 탓에 건물이 허름해서 다시 새로 지었다고 한다.

새로 지은 생태화장실은 구조나 사용법은 전 화장실과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평평한 땅 위에 조금 띄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 화장실보다 퇴비와의 거리가 훨씬 가까웠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차이점은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따로 있다는 것밖에 없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옆에는 작게 한 칸짜리 크기에 올라



<↑ 전 생태화장실 밑 내부>

가는 길을 경사로 만들어놓고 양변기 모양의 변기가 설치되어있는 장애인용 생태화장실이 있었다.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는지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가 조금 났다.

4) 실상사



실상사 해우소는 매일 절 관계자 20명 정도가 사용하고 그 외에도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태화장실이다. 이 생태화장실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소변을 BMW(Bacteria Mineral Water)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다시 거름으로 쓴다는 점이다. BMW란 가축분뇨 등을 자연적 및 부엽토 등 촉매제와 함께 처리하여 침전, 추출, 농축 등 3~5단계를 거쳐 박테리아(Bacteria), 미네랄(Mineral)로 활성화시켜 정제된 귀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순환 기술로 현재 우리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 BMW 정화조. 화장실 옆에 있다>

실상사 해우소의 내부 구조를 보면 쭈그려 앉아 사용하는 좌변기의 앞쪽에 소변용 깔대기가 있고, 깔대기는 관을 통해서 정화조로 이어진다. 정화조는 4개의 탱크로 이루어져 화장실 옆의 작은 건물 안에 있다. 화장실 칸 안에는 휴지와 휴지통 외에 별다른 것은 없었는데, 퇴비 더미에는 왕겨가 뿌려져있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건물 밖에 왕겨 모아두는 곳이 있어서 아는 사람은 불일보고 알아서 뿌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왕겨를 뿌려준다고 했다. 청소는 당번을 정해서 꾸준히 관리되고 있고, 약간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사용에 불편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생태화장실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냄새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



<↑ 외부 사진>

5) 선암사



<↑ 내부. 문이 없다>

<↓ 모든 벽이 낮다>



선암사는 절의 규모가 컸다. 그리고 그만큼 관광객도 많았고 스님들도 많았다. 선암사 해우소 또한 크기가 컸는데, 인상적이었던 점은 화장실이 뽕뽕 뚫려있다는 점이었다. 모든 칸막이들이 전부 가슴 높이 정도였고 화장실 내부에서는 아예 문이 없어서 불일 보던 중에 사람이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확히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 변기도 판자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전부였고 심지어 휴지통도 없었다. 정말 단순한 구조의 화장실이었지만 냄새는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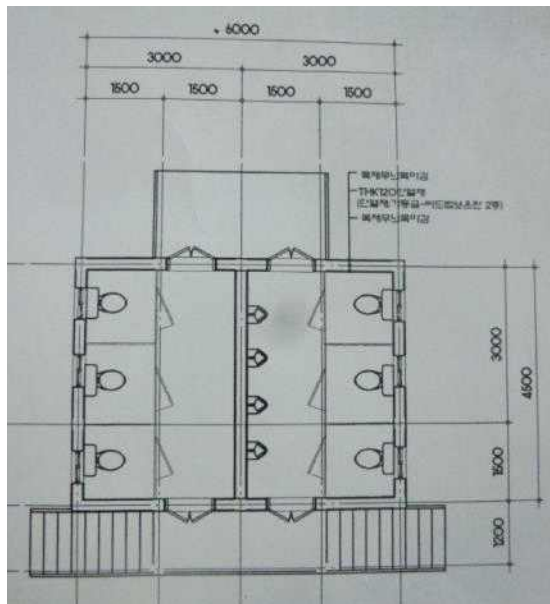
해우소를 지을 때 최대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신경 써서 지어 대소변을 따로 분리해놓지 않아도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소변이 고여서 냄새가 나는 일은 없다고 했다. 퇴비는 모으다가 적당히 차면 퇴비장으로 옮기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농사철에 맞춰서 옮긴다고 했다. 휴지는 같이 버리는데 휴지 정도는 발효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아 같이 발효시켜서 퇴비로 쓴다고 했다. 선암사에서 톱밥이나 재, 낙엽 같은 것들을 뿌리는 데 이것이 따로 비치되어있지는 않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뿌린다고 했다.

3. 간디학교의 생태화장실

1) 현재 간디학교의 생태화장실 구조



간디학교의 생태화장실은 남·여 총합 120명가량이 사용하는 큰 규모의 공용 화장실이다. 운동장 왼쪽 구석 도예실 옆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본 건물과는 떨어진 별개의 건물이다.



<평면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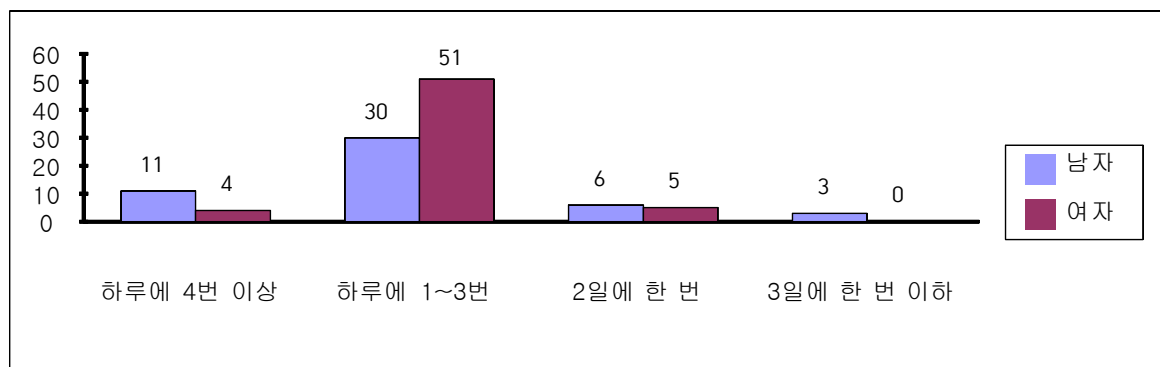
남자 여자 각각 3칸씩 있으며 남자는 소변기가 따로 4개 더 있다.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은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방식이고,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은 좌변기 모양으로 앉아서 볼일을 본다. 남자화장실은 세 칸 전부 좌변기이다.

칸 내부는 중앙에 변기가 있고, 그 옆에 휴지통과 왕겨통이 있다. 작은 크기의 창문이 칸마다 하나씩 있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커튼을 달아놓았다. 변기의 재질은 쭈그려 앉는 변기는 자기이고 좌변기는 나무틀에 시중에서 파는 변기 시트를 달았다. 칸 내부의 바닥과 벽은 전부 나무 재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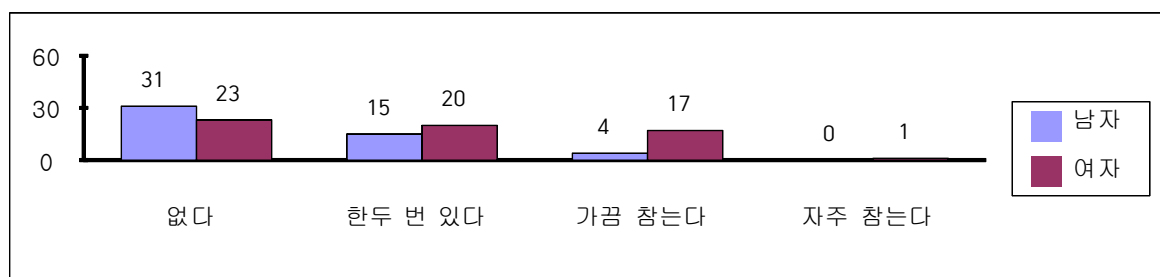
변기에 볼일을 보면 밑에 받쳐져 있는 뽕통으로 떨어진다. 여자의 경우 소변은 변기 앞쪽에 설치된 깔대기로 들어가 관을 타고 생태화장실 지하에 있는 BMW정화조로 이동하고 남자는 따로 설치되어있는 소변기가 정화조와 이어지게 되어 있다.

뽕통을 놓는 공간은 여자화장실은 여자화장실끼리, 남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끼리 이어져있는 큰 공간이다. 뽕통으로 쓰는 대야를 각각 칸 변기 밑에 두었다가 매주 목요일 농사작업장이 통에 쌓인 뽕들을 생태화장실 옆 퇴비장에 옮긴다. 뽕통 위로부터 변기까지는 뽕이 잘못 떨어지지 않도록 넓은 파이프가 연결되

1. 생태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2. 생태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기 위해 참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3. 현재 생태화장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시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나요?

<남자>

없다 - 13표

냄새 - 20표

벌레, 파리 - 13표

청결상태, 청소(관리) - 9표

시설(보수, 사생활 등) - 10표

<여자>

없다 - 3표

냄새 - 49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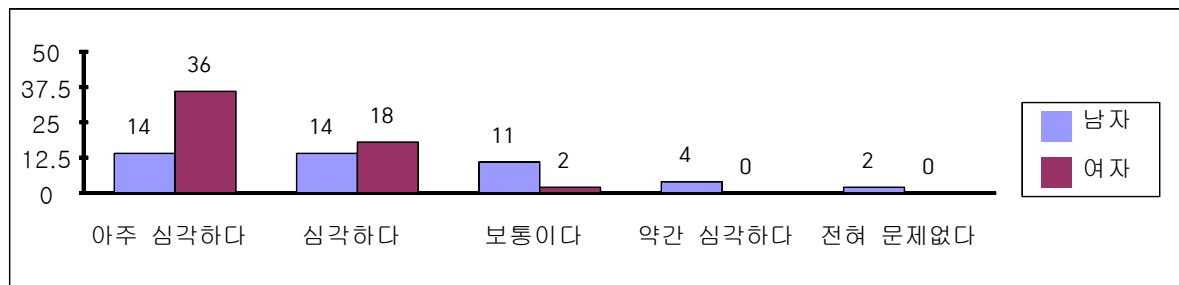
벌레, 파리 - 16표

청결상태, 청소(관리) - 10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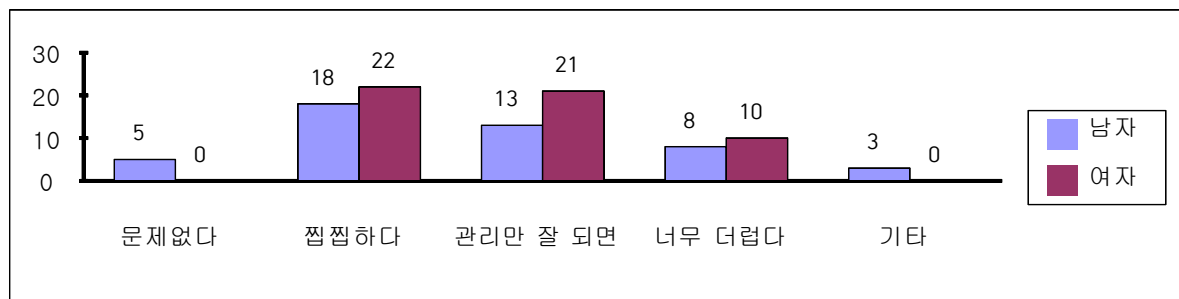
시설(보수, 편의 등) - 5표

왕겨(뿌리는 것에 대해) - 5표

4. 현재 생태화장실의 냄새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생태화장실의 청결(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할 듯.

청소를 잘하자.

왕겨를 잘 뿌리자.

왕겨를 잘 뿌려도 냄새가 난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냄새 때문에 눈이 맵고 코가 시리다.

방음이 잘 되었으면.

남자화장실 문 좀 제대로 가려주었으면.

생태화장실 폐쇄가 답이다.

냄새는 조금 거북하다.
 냄새난다.
 처음엔 꺼렸는데 지금은 친근감 있다.
 <여자>
 냄새난다.

냄새에 익숙해졌다.
 힘들다.
 불편하다.
 간디학교의 얼굴.

2. 생태화장실이 개선돼야 할 필요를 느끼시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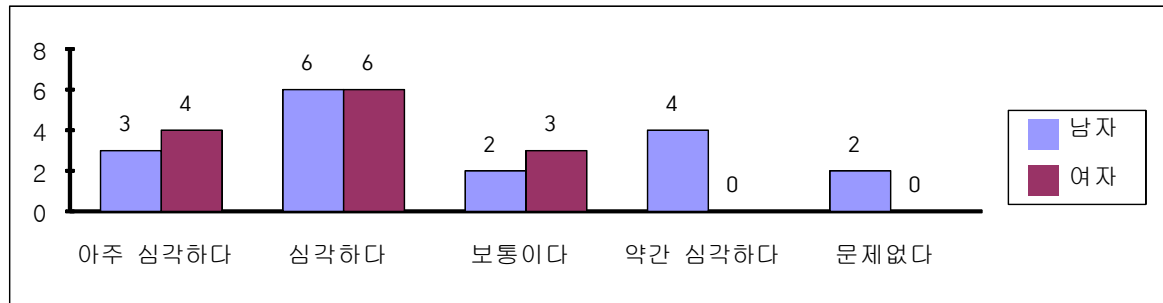
<남자>

없다 - 7표
 냄새 - 5표
 청결상태(청소) - 4표
 시설(보수) - 5표
 문화적 공간으로 - 2표

<여자>

없다 - 1표
 냄새 - 14표
 벌레, 파리 - 1표
 청결상태(청소) - 3표
 시설(편의) - 2표
 불편하다 - 2표

3. 생태화장실의 냄새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세요.

생태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태화장실에 붙어있는 읽을거리가 좋다. 화장실이 문화적 공간이 되었으면.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개선하더라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었으면.
 바꾸려는 것 보다 좋은 걸 유지하려는 것이 중요.

생활지도교사 강미리T

Q. 현재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왕겨를 나름 뿌린다고 뿌렸는데, 특히 2학기 들어 냄새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날도 더워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원인을 따져 봤을 때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소변을 옮기는 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 소변이 새서 똥통으로 빠지는 것 때문인 것 같다. 똥통에 왕겨도 잘 쌓이고 똥이 잘 말라야 하는데 똥통에 오줌이 고여서 악취를 내고 똥도 마르지 못하니 냄새가 심해진다.

Q. 간디인들의 생태화장실 인식 수준은 어떤 것 같나요?

나아진 게 없다. 여전히 왕겨를 잘 안 뿌리고 청소도 잘하는 친구만 잘하고 안 하는 친구는 여전히 안 한다. 인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고 관심 있는 친구만 조금 관심 있는 정도다. 대부분이 생태화장실을 더럽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냄새난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고쳐보려고 시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사용하는 만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다들 다른 누군가가 처리해주기만을 기다린다. 모두가 청소하기 꺼려하는데 전교생이 적어도 한 번씩 생태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Q. 간디인들의 생태화장실 지식 수준은 어떤 것 같나요?

생활의 발견(1학년 필수수업)에서 수업 같은 걸 하면 그때 잠깐이다. 금방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수업과 연계되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Q.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생태화장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더럽다는 생각을 버리고 청소하다보면 생태화장실은 생각만큼 더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텐데.

생태화장실 청소 당번을 짤 때 전교생이 적어도 한 번씩은 생태 청소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자보 붙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청소를 한 번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인식이 바뀔 것 같다.

생태화장실 청소 3학년 김민석, 안상윤

Q. 생태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지린내와 똥냄새

-더럽다

Q. 생태화장실과 우리학교 철학에 대한 생각은?

-사실 생태화장실 자체는 좋아. 뜻도 있고 의미도 있고. 우리학교 철학과도 맞으니까. 다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싫어. 냄새만 해결된다면 좋을 텐데. 지금 화장실은 냄새가 너무 심해.

Q. 알고 있는 생태화장실 사용법이랑 상식.

-왕겨를 잘 뿌려야 하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린다. 정도?

-나도 그 정도.

Q. 어쩌다 생태화장실 청소를 맡게 됐어?

-가위바위보 저서.

-청소 구역 선택 안 하고 있다가 밀려나서.

Q. 생태 청소하기 싫었지?

-응.

-진짜 하기 싫었어.

Q.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빨리 하고 가야지~ 대충 해야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Q. 생태화장실 청소를 맡으면서 스스로가 변화된 점은?

-청소 맡은 이후로 왕겨를 더 잘 뿌리게 됐어.

-나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맡게 된 거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Q. 청소하면서 무엇이 불편해?

-청소도구가 험했어.

-맞아. 그리고 남녀 청소도구 같이 쓰는 게 불편해. 또 남자소변기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어.

Q.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에게 부탁하는 점?

왕겨 좀 잘 뿌리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주고.

생태화장실 청소 2학년 김태은

Q. 생태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가기 싫은 거. 냄새. 냄새 배는 거.

Q. 생태화장실과 우리학교 철학에 대한 생각은?

모르겠어.

Q. 그럼 쉽게 말해서, 생태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없었으면 좋겠어...ㅋㅋㅋㅋㅋㅋ

Q. 알고 있는 생태화장실 사용법이랑 상식은?

오줌은 깔대기로 들어가야 되고, 거름망에 왕거나 휴지가 들어가면 오줌이 찌들어서 안 되고, 왕겨 잘 뿌려야 냄새가 덜나고...

Q. 어쩌다 생태화장실 청소를 맡게 됐어?
가위바위보 저서. 진짜 진짜 안 말고 싶었는데.

Q. 청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냄새 배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생태화장실 청소를 맡으면서 스스로가 변화된 점은?
솔직히 나는 청소를 맡기 전이든 맡은 후든 생태에 가면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청소고 자시고 제발 냄새가 배지 않았으면 좋겠어. 냄새만 안 배면 생태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어.

Q.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에게 부탁하는 점?
제발 휴지 좀 휴지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왕겨통이나 바닥에 버리지 말고.

다음은 설문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나온 생태화장실 문제점들의 원인을 내가 가설을 세운 것이다.

(1) 냄새

먼저,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표가 나온 냄새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현재 간디학교 생태화장실, 특히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여자화장실은 대소변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을 풀 때 보면 남자화장실 똥통의 왕겨는 말라있는 노란색이지만, 여자화장실의 똥통의 왕겨는 갈색으로 젖어있고, 부분마다 빨갛게 오줌에 식은 왕겨들도 있다. 오줌이 아예 똥과 섞여 고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여자화장실은 소변용 변기가 따로있지 않아 변기 앞에 깔대기를 설치하지만 현재 깔대기만으로는 대소변을 분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소변 분리는 냄새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간디인 설문 결과 냄새에 대한 불만은 남자 20표, 여자 49표로 여자 쪽의 불만이 월등히 높았다. 여자가 예민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농사작업장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의 똥통의 냄새가 훨씬 심하다고 답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차이는 대소변의 분리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한다.

소변이 대변과 섞여 고여 버리면 호기적 발효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혐기적 발효가 진행되게 된다. 혐기적 발효는 발효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를 낸다.

생태화장실의 냄새의 또다른 큰 원인은 통풍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태화장실은 통풍이 중요하다. 방학 때 탐방을 다녀온 선암사 해우소는 건물을 지을 때 통풍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었다. 그래서 선암사 해우소는 불필요한 모든 벽이 사라지고 뽕 뚫려있다. 또 똥더미와 화장실의 거리가 멀어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다. 퇴비더미와 화장실의 거리가 가까웠던 실상사 옆 마을의 한 가정집의 생태화장실에도 통풍구가 따로 빠져있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냄새가 잘 빠질 수만 있다면 사실 냄새가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통풍의 문제는 퇴비의 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 똥더미에 습기가 차면 냄새는 무거워지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화장실에 머무르게 된다. 퇴비장에 있는 퇴비더미라면 모를까, 아직 똥통에 있는 똥더미들은 그래서 최대한 건조시켜야 한다. 바삭 말릴 필요까진 없지만 어느 정도 건조하게 마른 똥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학교 생태화장실의 구조 상 바람이 통하기 힘든 구조이다. 똥통을 두는 칸은 똥통을 꺼내는

문 외에는 구멍이 없으며 똥통을 꺼내는 문도 똥을 푸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나무문으로 닫혀있다. 똥통의 냄새가 빠지는 유일한 구멍은 바로 변기 구멍이다. 똥통 위로 곧장 커다란 파이프로 변기와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변기 구멍 외에 냄새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똥통에서 나는 냄새는 전부 변기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소변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처리된다. 남자는 소변용 변기에, 여자는 변기 앞 깔대기에 볼일을 보는데 여기서 각각 나름의 문제가 생긴다.

우선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는 자기로 되어있는 일반 수세식 화장실 변기처럼 생긴 변기이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사람들은 소변기에 오줌을 누고 그대로 내버려둔다. 소변기를 닦는 것은 대청소 때뿐이다. 오줌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변기에 누렇게 찌들고, 악취를 낸다.

여자화장실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자화장실은 소변 깔대기의 크기가 작고 거름망을 주에 한 번씩 씻어주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변기이다. 나무재질의 변기에 오줌을 흘리게 되면 오줌은 나무에 스며들어 찌들게 된다. 오줌은 흘렸을 때 그때그때 닦아주어야 하지만 여자화장실이 변기를 청소하는 것도 대청소 때뿐이다.

생태화장실에는 칸마다 ‘볼일을 보고 난 후에는 왕겨를 뿌려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왕겨는 퇴비화가 잘 진행되도록 산소공급을 도와주고, 발효하기에 적절한 탄질비(탄소와 질소 비율)로 만들어주고 똥의 냄새를 덮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디인들은 왕겨를 잘 안 뿌린다. 물론 잘 뿌리는 사람도 많지만 가끔씩 똥통을 보면 왕겨가 안 뿌려져있는 경우도 상당하고 “생태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왕겨 좀 뿌려주세요!”라는 건의는 가족회의 건의시간의 단골손님이다.

(2) 파리

파리는 똥에 알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똥이 많은 생태화장실에 파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학교 생태화장실은 심하다. 볼일 보려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주춤하는 겨울이라면 모르겠지만, 파리가 알을 낳는 여름에는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간디인을 대상으로 생태화장실의 문제점을 물어보았을 때 냄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었지만 응답한 111명 중 30명이 ‘벌레와 파리’를 꼽았다. 대부분 모두 ‘어느 정도면 참겠는데 못 참을 만큼 너무 많다’라는 분위기였다.

(3) 청결(청소)

아래는 2012년에 작성된 간디학교 생태화장실 청소 매뉴얼이다.

생태화장실 청소 매뉴얼

1. 교사 역할

- ① 매일 청소 지도. 지도가 안 될 경우 직접해야함.
- ②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체계화할 필요있음(교사가 바쁜경우가 있어서)
- ③ 주의사항: 생태화장실에서 자발성을 기대하기란?
특히 남자는 하늘의 별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는 참여는 하나 정리가
청소담당자가 고등학생이 배치 되어야함 중학생만으로는 어려움,

2. 청소

* 남자화장실

- ① 똥통에 왕겨가 충분히 뿌려졌는가? 확인 후 조치(안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대청소시 변기를 걸레나 도구를 활용하여 닦아주기

- ② 똥통쪽 오줌통을 보고 왕겨나 화장지 등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기
(특히 화장지가 있으면 즉시 제거요, 나중에 냄새가 엄청 지독함)
== 대청소시 소변기 철망을 제거하여 수돗가에 가서 씻는다. 주1회이상.
 - ③ 똥휴지 버리기. 쓰레기 봉투에 가득차며 분리수거장으로 옮김
 - ④ 왕겨가 있는가? 없으면 왕겨채우기(왕겨 채우고 왕겨통 덮어두기. 비가오면 젖어서)
 - ⑤ 바닥쓸기
 - ⑥ 소변기 닦기- 매일 활성수와 물을 1대1로 통의 1/3가량 채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솔로 닦는다.
- ==대청소시
- 활성수와 물을 1대1로 통의 1/2이상 채운다
 - 고무장갑을 끼고 철수세미로 소변기를 인정사정없이 뽀뽀 문지른다.
 - 고무장갑과 철수세미는 씻어서 자리에 둔다.
 - 걸레로 소변기 주변을 닦는다.

*여자화장실

- ①②③④⑤가 동일하다
- 특히 똥통은 소변으로 인해 젖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청소시 반드시 왕겨를 듬뿍 뿌린다.
- 그리고 소변통에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주2회 정도 거름망을 닦아준다.

3. 똥버리기

- 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지정된 곳에 버린다.
- ② 똥통을 씻고 조금 말린 뒤 왕겨를 1-2바가지 뿌려 제자리에 둔다.

*생태는 매일 청소가 안되며 그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남.

매일매일 청소가 되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그러나 생태화장실을 청소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이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현재 생태화장실의 청소는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생태화장실 청소는 휴지통 비우기, 왕겨 채우기, 바닥 쓸기, 휴지 채우기가 매일 아침 청소시간(8시 반~9시)에 이뤄지고 있고, 여자화장실의 경우 주 1회 소변 깔대기 거름망을 닦는다. 남자화장실 소변기와 남녀 공통 변기는 가정학습 전후의 대청소 때 BM 또는 EM을 물에 희석하여 솔로 닦고 물로 행군다.

매뉴얼과는 달리 거름망은 뭐가 끼어있더라도 월요일 대청소 때만 비우고, 청소검사가 거름망을 비우라고 하지 않으면 안 비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생태화장실 청소는 자신의 청소 구역에 대한 책임감이 더 필요하고, 어디까지 청소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4) 간디인의 인식상태

앞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간디인들은 생태화장실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정작 손수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생태화장실 청소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들이 청소를 맡게 되는 모두가 꺼려하는 청소구역이고, 청소당번들도 대부분 대충하러, 빨리 생태화장실에서 벗어나려 한다. 간디인들은 생태화장실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원인 분석 및 개선 방법 연구

(1) 매일 똥통 비우기 실험

현재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문 결과에서 나오듯 냄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소변이 분리가 잘 안 되어 오줌이 고여서 일수도 있고, 똥이 마르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산소가 공급이 잘 안되어 혐기적 분해가 진행 되서 일수도 있고, 환기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왕겨를 잘 안 뿌려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일수도 있다. 또는 이 모든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했다. 나는 먼저 방학 때 다녀온 산마을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을 떠올렸다. 조셉 젠킨스의 『똥살리기 땅살리기』에 나온 방식 그대로 톱밥변기시스템을 사용하던 산마을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었다. 톱밥변기시스템의 원리는 사실 우리학교 생태화장실이랑 아주 비슷하다. 통에 볼일을 보고, 그 위에 왕겨 또는 톱밥 등으로 덮는다. 우리학교의 생태화장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똥통을 비우는 주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학교 생태화장실도 매일매일 똥을 비우면 냄새가 줄어들까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9월 18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매일매일 똥통을 비웠다.

<활동 사진>



1. 출입을 통제한 후 똥통을 꺼낸다.



2. 화장실 옆 퇴비장에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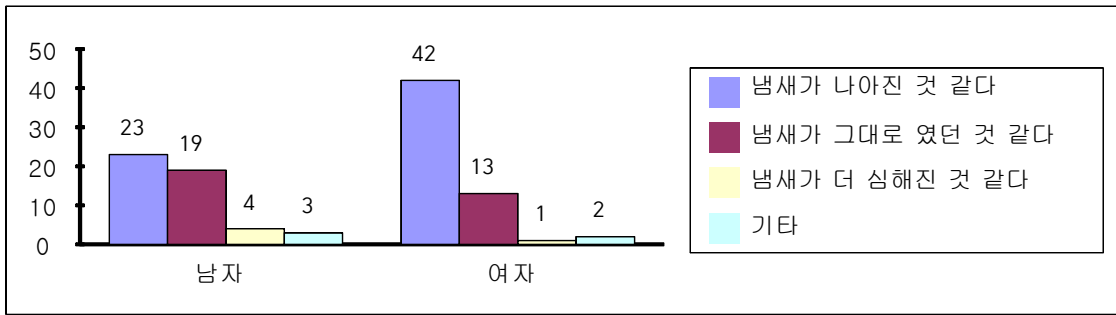


3. 똥통을 물로 씻는다.



4. 왕겨를 깔아주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는다.

일주일간 실험을 해본 뒤 간디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평가를 받았다.



설문 결과, 남자는 냄새가 줄었다 23표, 냄새가 그대로였다 19표, 냄새가 더 심해졌다 4표로 미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여자는 냄새가 줄었다 42표, 냄새가 그대로였다 13표, 냄새가 더 심해졌다 1표로 확연한 결과가 나왔다.

똥통을 비울 때 보면 남자화장실 똥통의 왕겨는 말라있어 원래의 노란색을 띄지만 여자화장실 똥통의 왕겨는 흠뻑 젖어서 갈색을 띈다. 심지어 가끔은 오줌이 통 안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오줌이 똥과 분리되지 못하고 한 곳에 고이게 되면 썩으면서 악취를 내고 똥이 마르는 것을 방해해 똥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여자화장실의 경우 소변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똥통에 고이던 오줌을 매일 비워주니 썩지 않아서 냄새가 줄어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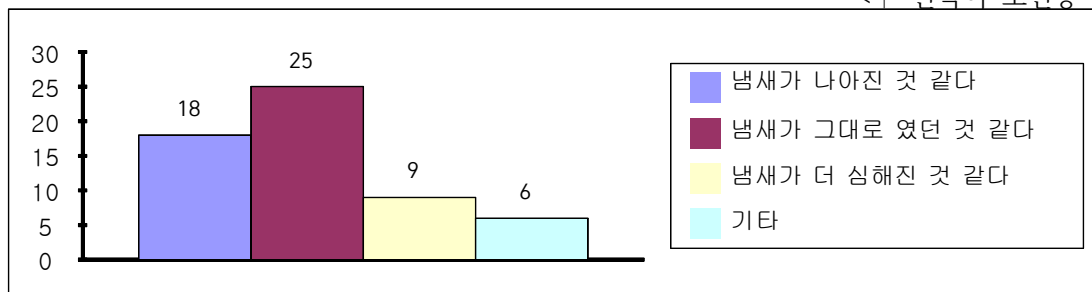
(왼쪽 말라있는 더미가 남자화장실, 오른쪽 젖어있는 더미가 여자화장실이다) 전의 실험으로 여자화장실의 대소변 분리가 잘 되면 냄새가 줄어들까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화장실에 9월 30일(화)부터 10월 7일(화)까지 일주일동안 임시 소변용 변기를 설치해보았다. 산마을고등학교와 실상사작은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사용했던 모양의 변기를 만들어서 여자화장실의 좌변기 칸에다가 놓았고, 1~2일에 한 번씩 소변통을 비워주고 씻어주었다.

(2) 여자화장실 임시 소변기 설치 실험



마찬가지로 일주일 후 설문조사로 평가를 받았다.

<↑ 왼쪽이 소변용 변기>



대부분 냄새가 그대로였다는 반응이었다. 설문에 나온 의견에 따르면 소변기 안에 고인 소변이 냄새가

심해서 똥통의 냄새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임시 소변용 변기의 반응이 괜찮다면 후에 개선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설문으로 냄새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임시 소변용 변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받았었다.

<소변용 변기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없었던 것 같다 - 6표

무응답/모르겠다 - 11표

위치가 불편하다 - 20표

꺼림칙하다(오줌이 튜다, 소리) - 15표

보기에 좀 그렇다 - 4표

번거롭고 귀찮다 - 4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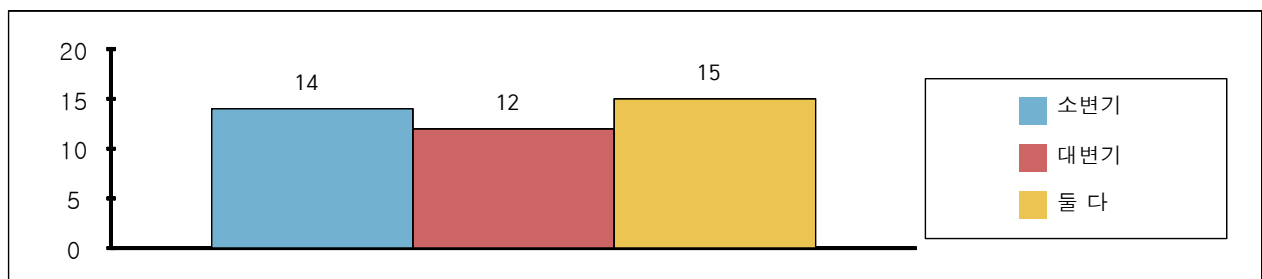
냄새가 심하다 - 2표

주로 화장실 칸이 좁아서 변기 두 개가 들어가니까 불편했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사용하기 꺼림칙하다, 보기에 그렇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이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대소변이 분리가 잘 되면 냄새가 줄어들까에 대한 실험이었지만, 소변용 변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쉽다.

(3) 남자 설문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따로 있어 대소변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남자도 화장실 냄새에 대한 불만은 많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 것일까? 어디에서 냄새가 오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과 남자쌤들께 남자 소변기와 대변기 중 어느 쪽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수가 비슷했다. 남자화장실은 똥통의 냄새뿐만 아니라 소변기의 냄새를 잡는 일도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4) 왕겨통 구상

-왕겨통을 새로 구상하는 이유

왕겨는 대략 20L정도 들어가는 원통형 플라스틱 통이 칸마다 하나씩 비치되어있어 청소당번들이 매일 왕겨를 채운다. 큰 볼일을 본 사람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로 왕겨를 퍼서 똥이 안 보일 때 까지 뿌려준다. 대략 바가지로 2~3번 정도 푸는 양이다.

간단한 일이지만 가끔 똥통을 보면 왕겨가 안 뿌려져 있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까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왕겨가 찹찹하다는 사람도 가끔 있다. 누가 왕겨를 뿌리다가 바가지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도 왕겨를 뿌리지 않는다.

변기 위에서 뿌린 왕겨는 똥통 위로 떨어지지 않고 판 곳으로 떨어지는 왕겨도 있다. 변기 시트위에 떨어진 왕겨는 다음 쓰는 사람이 변기에 앉기 꺼려지게 만들고 소변 통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깔대기 위에 올려놓은 거름망에 왕겨가 떨어지면 왕겨에 오줌이 찌들게 되 심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왕겨를 아예 변기로 뿌리지 말고, 다른 구멍을 내서 밑에서 바로 뿌리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위에서 간단한 조작을 하면 변기가 아닌 다른 구멍에서 왕겨가 일정량 나와 똥통위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1차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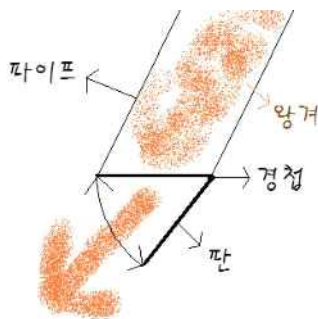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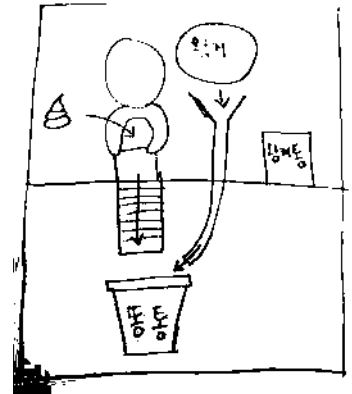
우선 나는 작은 구멍의 파이프가 변기 옆에 뚫려있는 형태를 생각했다. 파이프는 변기 옆에서부터 뚫통 위까지 변기구멍 옆으로 이어지고, 변기 옆에 있는 입구에는 왕겨를 넣기 편하도록 깔대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왕겨통에 채워져 있는 왕겨를 퍼서 변기에 뿌리지 않고 옆에 다른 구멍으로 뿌림으로써 뚫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고, 오줌 거름망에 왕겨가 낄 일도 없다. 하지만 바가지로 퍼서 왕겨를 뿌리는 것은 똑같고, 사람들이 귀찮다고 적정량 뿌려졌는지 확인하는 일 없이 대충 뿌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바가지로 퍼서 뿌리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왕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파이프의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았고, 왕겨를 손수 옮길 필요 없이 왕겨 통이 바로 파이프로 이어진다. 끝이 뚫통 위인 파이프는 왕겨가 계속 뿌려지지 않도록 판으로 막아놓았다. 판은 위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줄을 당기는 등 간단한 조작을 하면 아래로 열리고, 다시 손을 떼면 스프링과 비슷한 원리로 다시 닫힌다.

나는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했다. 직접 왕겨와 닿을 필요도 없고 간단한 조작으로 왕겨가 뿌려진다면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스프링이나 조작은 조금 더 머리를 쓰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아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아빠는 스프링 같은



장치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판이 열리면서 왕겨가 쏟아졌다가, 다시 쏟아지는 왕겨들을 밀어내고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스프링은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셨다. 왕겨가 중력의 힘을 받고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힘은 상당히 강할 거라는 것이다. 또 어떻게 스프링이 강력해서 다시 파이프를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스프링은 사용하다보면 점점 느슨해져서 자주 부품을 갈아주거나 수리해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생태화장실의 왕겨가 잘 뿌려져서 냄새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조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오히려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생태화장실에 개선되는 것은 간단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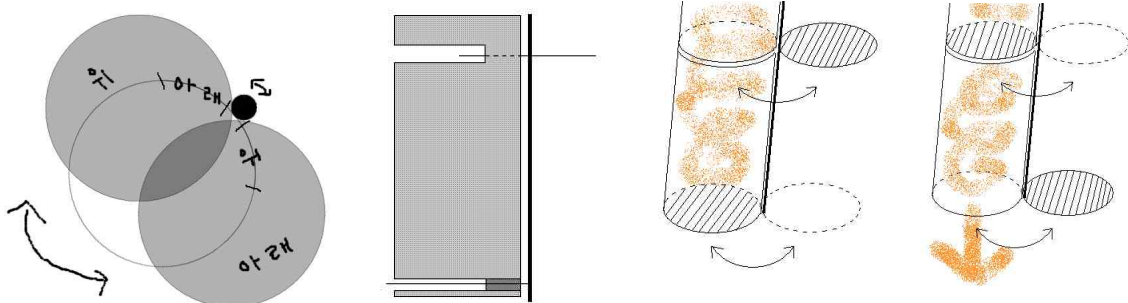
-2차 구상

그러다 나는 왕겨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판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움직인다면 힘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경첩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파이프 옆에 붙어있는 봉이 돌아가면 봉에 붙어있는 판이 돌아가면서 파이프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이러면 스프링에 큰 힘이 필요하지도 않고 중력의 힘을 받고 쏟아지는 왕겨도 제어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한 번 동작을 했을 때 알맞은 양의 왕겨가 딱 떨어지게 할 수 없을까' 고민했다. 한 번에 너무 적게 쏟아지거나 많이 쏟아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위에 판을 하나 더 추가해 아래 판과는 다른 각도에 봉에 붙였다.

이러면 평소에 아래의 출구를 막고 있는 판은 닫혀있고, 위에 판은 열려 있다가 위에서 어떤 간단한 동



작을 하면 아래의 판은 열리며 왕겨가 쏟아지게 되고, 대신 위에 있던 판이 닫히면서 위에 있던 판과 아래 있던 판 사이의 왕겨들만 뿌려지게 된다.

(5) 청소 매뉴얼 재정비

미리강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소변통로에서 소변이 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점검을 했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위에서 깔대기로 흘려보내면 밑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했고, 실험 결과 소변통로에는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 대소변 분리는 소변통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기에서 소변이 분리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잘 안 알려져 있고, 정확하지 않은 청소 매뉴얼에 대해 11월 6일 생태청소경험자 오정택(3학년), 김태은(2학년), 박성현(2학년)과 미리강과 함께 생태화장실 청소 매뉴얼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화장실에서 왜 냄새가 날지, 청소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등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생태화장실 청소 매뉴얼을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되짚어보고,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태청소검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¹⁰⁾, 청소 매뉴얼을 정리하였다.



<활동 사진>

III. 결론

1. 제천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의 개선 방안 제시 및 관리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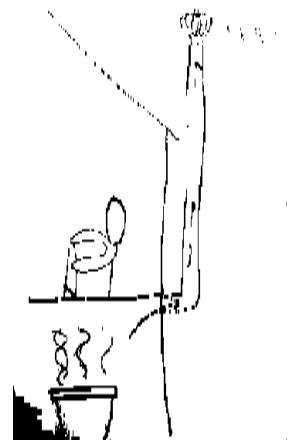
첫 번째로 나는 통통을 매일 비울 것을 제안한다. 내가 일주일간 실험을 하면서 남자쪽의 반응은 미미하긴 했지만 여자쪽의 반응은 확실하게 냄새가 줄었다는 반응이었다. 이후 다른 실험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문 끝나고도 매일 비워주면 안 되겠느냐’ 라던가 ‘매일 비우는 거 좋았었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현재 통통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농사작업장이 비운다. 매일 비우는 것은 번거로워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알고보면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다. 매일 통통을 비우게 되면 통통 안에 든 똥의 양이 적어 혼자서도 가볍게 비울 수 있다. 내가 직접 똥을 매일매일 혼자 치웠을 땐 별로 힘도 안 들었고 시간도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었다. 매주 목요일 농사작업장 전부가 모여 똥을 치우는 것이나, 날짜당 1~2사람이 돌아가면서 똥을 치우는 것이나 들어가는 힘이나 시간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나는 생태화장실의 통풍관 설치를 제안한다. 선암사 해우소는 통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벽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화장실의 크기를 널널하게 넓혔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이제와서 생태화장실 건물물을 다시 짓는 것도 무리일테고, 우리학교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 선암사 해우소를 따라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생태화장실에서 통풍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냄새를 줄인다 한들 결국 똥과 오줌은 냄새가 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빠질 구멍이 있다면 냄새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통풍의 생태화장실 밑에 따로 관을 설치해 인공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방식으로, 실상사작은학교 옆 가정집에서 쓰던 방식이다.

가정집에 붙어있는 생태화장실은 퇴비장으로 쓸 공간이 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있다고보니 자연적으로 바람이 통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굴뚝을 위로 빼서 굴뚝 끝에 환풍기를 설치해 강제로 냄새를 빼내는 방



10) 자세한 내용은 결론 참고.

식을 쓰고 있다.

생태화장실에서 전기를 쓴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전기를 쓰는 환풍기 말고 바람이 불면 알아서 돌아가는 환풍기를 추천하고 싶지만 우리학교 생태화장실 위치 상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될지 모르겠다. 만약 설치를 해보고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생태화장실에 깔려있는 전기선을 끌어다가 전기로 작동되는 환풍기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현재 생태화장실 청소 시스템의 재정비를 제안한다. 생태화장실 청소에는 매뉴얼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간디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청소검사조차 무엇을 어디까지 체크해야하는지 애매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생태청소경험자들과 미리강과 함께 생태화장실 청소 매뉴얼에 대해 재정비를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생태청소검사가 체크할 항목>

- *청소당번이 3학년 이상의 인원들로 구성되어있는가?
- *(매일)휴지통을 비웠는가?
- *(매일)왕겨를 채웠는가?
- *(매일)바닥을 쓸었는가?
- *(매일)휴지가 비어있는 칸은 없는가?
- *(매일)변기를 EM, 또는 BM으로 닦았는가?
- *(매일)EM분무기를 채웠는가?¹¹⁾
- *(주 2회)거름망을 비우고 씻었는가?

그 외에도 생태화장실 청소함 설치를 건의한다. 현재 생태화장실 청소도구는 (남녀 합)빗자루 1개, 집게 1개가 있고 고무장갑이 있지만 자주 바람에 날아가 잃어버린다. 청소도구들은 생태화장실 앞 난간에 걸쳐져 있어서 잃어버리기도 쉽고 비가 오면 금방 녹슬고 삭는다. 우선 비를 맞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청소도구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도구함 안에는 늘 빗자루 2개, 집게 2개, 고무장갑 4켤레 이상, 청소용 솔 4개 이상을 비치해두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로 통통 위의 검은 파이프를 잘라내거나, 그 길이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생태화장실에 통통이 설치되면서 같이 설치된 파이프는 통이 통통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왕겨가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통이 통통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통통 칸 내부는 이제 나무문으로 막아서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왕겨가 날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이프는 사람들이 불일을 보면서 통오줌이 묻게 되지만 그 속을 청소할 방법은 없다. 파이프에 묻은 통오줌은 파리를 끌어들이고 냄새도 나게 한다.

또 파이프 때문에 빛이 가려져 통통 안의 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불일을 보고 난 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되겠지’, ‘누가 치워주겠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자신이 불일을 본 것에 책임을 가져야 생각한다. 생태화장실은 누가 대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화장실의 칸마다 EM분무기를 비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이랑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은 산마을고등학교의 생태화장실에서는 냄새를 잡기 위해 불일을 보고 왕겨를 뿌리고 난 후 화장실에 비치되어있는 EM분무기를 2~3번 정도 뿌린다. EM이 냄새를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실험을 해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EM은 화장실 청소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M분무기는 각각 칸마다 하나, 그리고 남자 소변기에 1~2개 정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간디인들에게 사용법이 제대로 알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1) 다섯 번째 항목 참고.

여섯 번째로 본문에서 나왔던 왕겨통의 설치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간디인들은 생태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 우리학교에서는 현재 생태화장실에 대한 수업이나 활동은 1학년 생활의 발견 수업시간에 한 번 생태화장실에 대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는 생태화장실의 원리가 어떻게 해야 냄새가 안 나는지 등을 배우는데, 이 시간 이외에는 생태화장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배울 때만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 나몰라라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하다.

2. 논문의 한계

다음은 나의 시간적,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이 논문에서 못 다한 것들을 적었다.

우선, 나는 원래 개선을 직접 해보려고 했으나 제작과 검증, 설치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마쳤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내가 제시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될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1. 청소. 현재 생태화장실의 구조상에는 청소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좌변기의 안쪽이 있고, 깔대기와 통로, 뚝통 칸 등이 있다. 이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도구 또는 구조가 필요하다.
2. 통풍 테스트. 사실 내가 제안한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통풍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대류의 원리를 이용해 창을 뚫을 수도 있었고 변기에 뚜껑을 달아보는 것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모두 '실험'을 위해 설치하기엔 규모가 컸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론에는 생태화장실 탐방을 하며 많이 보았던 방식인 강제순환을 제안했다.
3. 대소변 분리. 간디학교 생태화장실에 있어서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대소변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변용 변기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대안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다. 소변통로가 새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대소변 분리의 문제는 변기 위 부분에 있다는 것인데, 깔대기의 모양을 바꿔보는 등 다양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시간도 부족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다.
4. 냄새의 객관화. 나는 냄새를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험의 평가에 있어서 변인통제가 잘 돼야하지만 습기나 기온, 배설량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설문으로 통계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 논문의 한계이다.

3. 논문을 마치며

논문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났습니다!!!

입학하고 논문에 고통받는 언니오빠들을 보며 '우와아...'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눈깜빡하니 어느새 논문이 끝나있네요. 1학년들 새겨들어라. 제가 논문을 언제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긴 썼나요??? 농담입니다. 다시 쓰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2학년 초부터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정말로 생각만.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논문으로 빵을 만들 수도 있었고, 소설을 쓸 수도 있었고, 몸살림을...? 아무튼 쓸만한건 많았는데 어찌하다보니 생태화장실이라는 생똥맞은 주제를 잡게 되였네요. 저는 그다지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 환경운동합시다!!! 이러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 생태냄새 진짜 싫어— 이러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이 주제를 잡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내가 비위가 강하니 나 아니면 누가 고치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네요. 음. 하지만 아직 고칠거리는 더 남았으니 나의 다음을 이을 타자는 힘내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라고 말은 해도 과연 있을까...

처음 꿈은 컸으나 이래저래 한계에 부딪혀 규모가 작아지고, 귀차니즘에 또 또 작아지고 작아지고 하다보니 음음... 이걸 보고 있는 미래의 3학년들아 너흰 절대 미루지 마렴.

한 번 하는 논문 이왕 하는 거 ‘논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싶어서 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생태화장실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논문 때문에 생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치고 싶었으니 뭐 나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이 주제를 잡고 여러 쌤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인식 개선이 최종 목표 일지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논문으로 간디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ㅍ.ㅍ 활동해주세요 생사모

그래도 논문 쓰면서 “진짜 제발 꼭 좀 개선해줘 시은아ㅍㅍㅍ” “나 요즘은 왕겨 잘 뿌려!” 같은 말을 많이 들었으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생태화장실에 관심이 없던 아빠가 저 논문쓰는 거 보면서 저희집에 생태화장실을 짓겠다고 합니다(짜짜) 생태는 끝나자 ~~않아~~ 마지막으로 간디인 여러분 모두 생태를 사랑합시다!!

4. 고맙습니다

생태화장실을 사용하는 모든 간디인, 똥푸느라 수고하는 농사작업장 오빠들, 화장실캠프에서 어리다고 챙겨주신 분들, 제 논문에 조언해주신 목수님, 사찰의 스님분들, 생태화장실 보여주신 실상사작은마을에 사시는 주민분과 그 주민분과 연결해주신 가람네 어머니, 산마을고 가기 전 일주일동안 저 챙겨주신 율할머니, 악필인 나 대신 안내문을 6장 적어준 은수, 똥푸는데 사진찍어준 진주랑 정택이랑 여성현이, 급조되었음에도 잘 따라주고 협조해준 태은이, 정택이, 여성현이, 미리쌤, 실험 도와주신 아름쌤, 똥통이 무거워서 끄끄대고 있을 때 **무려 똥통을 같이 옮겨준(!!)** 소아언니, 나를 생각해서(..) 팔꿈치로 뺨만들기라는 주제를 적극 추천해준 명아언니와 효연언니, 자기 땡스투 넣어달라며 안아준 문형이, 생태청소 아가들, 내 귀의 활력소 뒤너구리씨, 내 눈의 활력소 앤돌핀캐릭터오리지날너구리씨들, 제 논문의 거의 반 담당교사셨던 종명쌤과 미리쌤, 큰 관심 가져주셨던 소영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제 논문 맡아주시느라 수고하신 진짜 담당교사 손쌤, 논문에 찌들어 고생한 우리반아가들, 나의 스트레스의 21배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민혜쌤과 상현쌤, 기말축제 때 언니보다 더 열심히 뛰며 설문지 걷어주고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열심히 “논문 썼어?”라고 쪼아준 하은이, 나보다 더 내 논문을 걱정해주고 열심히 잔소리해주고 스트레스 왕창 받았을 엄마와 아빠.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가족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곡으로 표현하기

지도교사: 김정환



이름: 이예슬

성별: 여자

한마디:
힘들었다..

목차

I. 서론

1. 동기
2.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가족 갈등
 - 1) 갈등이란?
 - 2) 가족 갈등이란?
 - 3) 다양한 가족 갈등 해소 방안
2. 내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 1) 아빠
 - 2) 엄마
 - 3) 한슬이
3.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작곡으로 표현하기
 - 1) 아빠
 - 2) 엄마
 - 3) 한슬이
4.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5.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작곡으로 표현하기
6. 공연 및 피드백
 - 1) 가족
 - 2) 전문가
 - 3) 간디인들
 - 4) 인터넷

III. 결론

1. 내가 만든 작품
2. 평가 및 아쉬운 점
3. 후기
4. 부록
 - 1) 악보
 - 2) 작품 일지
 - 3) ♥

I. 서론

1. 동기

평소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쌓아왔던 말이 많다. 여전히 말로 전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노래로 전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고 싶은 말도 노래로 적어보고 싶다. 항상 나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썼고 제대로 알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2. 목적

내 논문의 목적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작곡하는 것이다. 또한 작곡한 뒤 그걸 가족에게 선물함으로써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또 나를 위한 노래도 작곡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고 싶다.

또 내가 작곡한 노래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연구방법

-참고 서적: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연구 보고서)

-취재와 인터뷰: 전문 상담가 신정식 선생님께 글과 가사 피드백

-영상 및 사진: 공연 영상

-참고 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

II. 본론

1. 가족 갈등

1) 갈등이란?

개인의 정서(情緒)나 동기(動機)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¹⁾

갈등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원인은 수도 없이 다양하며, 의견이나 생각 혹은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2) 가족 갈등이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보면, 가족 갈등이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욕구가 충돌하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²⁾

한국보건사회연구원³⁾에서 2014년 연구한 보고서⁴⁾에서는 가족갈등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부 갈

1) 출처: 두산백과

2) <http://blog.naver.com/md4060/220230006091>

3)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과 보건개발연구원을 모태로 개원한 이래 국민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부문의 정책연구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

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연구 보고서)

등, 부모와 자녀, 혹은 조부모와 손자녀 등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제자매 갈등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가족 갈등을 가족 '관계' 갈등과 가족 '기능' 갈등,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가족 관계 갈등은 두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욕구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이다. 가족 기능 갈등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 같은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구, 목표, 역할이 주변의 기대와 상충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가족도 결국 각각의 구성원이 모인 집단이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수많은 가족 관련 연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3) 다양한 가족 갈등 해소 방안

①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

5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의 책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에서는 가족의 갈등을 7단계로 풀어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1단계: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우선 문제를 도구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도구적 문제에는 물질적 요인(경제적 어려움) 혹은 책임감의 문제(집안일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의견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등이 있고, 정서적 문제에는 개인적인 방어 행위(부모의 성격이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경우, 부모가 술 혹은 약물에 과하게 의존하는 경우, 아이가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불안에 떨고 있어 움츠러드는 경우 등) 혹은 상호 간의 방어 행위(서로 지나치게 말이 없거나 적대적인 경우)로 인한 갈등 등이 있다. 도구적 문제의 뿌리는 대체로 내면의 정서적 문제에 있다고 한다.

·2단계: 갈등의 소통

-어떤 문제든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족 안에서는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토니 험프리스는 어차피 치료해야 하는 문제라면 빨리 터뜨려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3단계: 브레인스토밍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모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토론 방식이다.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고, 만약 시부모, 장인장모 등 같이 사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역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한숨을 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 또한 절대 금지해야 한다.

·4단계: 해법의 선택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두 번째, 제시된 해법을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결과만 고려한다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성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정서적·관계적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5단계: 해법의 실행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5) <http://blog.naver.com/cauogcr/220254769309>

처음에는 흐지부지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책임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실행 계획에 따라 책임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토론으로 풀어낸다.

·6단계: 실행효과 점검

-계속해서 실행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4단계로 돌아가 다른 해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해법을 계속 도입해 봐도 소용이 없다면 갈등을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야 한다.

·7단계: 해결 방법의 평가

-현재의 문제 해결 경험을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를 가족 갈등을 푸는 노하우로 축적한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방법이다. 만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큰 의지가 없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자꾸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자꾸 주장하면서 가족 내에서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해결 방안을 실행한다 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②교과서 속 해결 방안

중학교 기술과정 교과서에도 가족 갈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과정 도중에 상대 혹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내용이다.⁶⁾

기본적인 수칙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내가 생각할 때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소통이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쪽이 강하면 안 되고, 또 서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무언가 숨기고 회피하다 보면 결국 어딘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갈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말하고 수용하여, 서로 꾸준히 소통해나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의 갈등과 대안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에 가족 갈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이다. 국립 기관인 만큼 정책적인 면의 해결 방안이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족 생활 교육 확대’,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및 서비스의 질 제고’ 등 3가지의 방안과 가족관계별 갈등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해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족 생활 교육이란 ‘건강하고 향상된 가족생활을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족문제의 예방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하는 활동’이다.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예방’인 셈이다. 수많은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가족 갈등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결혼 준비 프로그램, 부모 전이기 프로그램,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가족 생활 교육을 통해 가족 자체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그걸 발휘

6) <http://blog.naver.com/md4060/220230009304>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 친화적·양성평등적인 사회 환경 조성’은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방안이다. 근로시간 정책, 사교육 등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뿐더러 성차별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성차별이 많이 성립되는 곳은 바로 가족 관계이다. 이런 문화는 단순히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교육, 남성 대상 교육,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를 통해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과 관련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육 정책이나 노인 돌봄 정책 등에 비해 항상 예산이 적어 가족관계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또한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 보수 체제나 직급 체제가 부실해서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력의 전문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외에도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교육과 부부상담 강화, 상담을 통한 부부갈등 중재, 황혼부부를 위한 이혼예방 프로그램 확충,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강화를, 가족 내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가족의 탄력도 제고 방안을, 형제자매 갈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치료적 상담 강화, 전통적 가족문화의 개선과 의식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이고 주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내가 참고해서 활용할 만한 방안은 별로 없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 좋을 것 같고,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위의 여러 기관들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2. 내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1) 아빠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는 아주 엄한 분이셨다.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많이 놀려서 살았다고 했다. 또 아빠는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걸 눈앞에서 보는 일이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항상 힘들었다. 하지만 어리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 철없는 딸들과 그런 아이들을 보느라 바쁜 엄마에게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의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혼자서 다 짊어지고 살았다. 그런 아빠가 가끔 엄마와 나, 한슬이, 그리고 그 외의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아빠는 평소의 장난기 많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빠가 많이 무서웠다.

다행히 아빠는 2012년 한 해를 캄보디아에서 보내고, 귀농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아빠의 짐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아빠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겼다. 일단 우리 집을 아빠 손으로 직접 짓는 게 첫 번째 꿈이다. 또 덕산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저런 조건에 걸려 조금 평범하지 않지만 보통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아빠가 현실의 조건들을 얼른 해결하고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더 이상 어딘가에 놀려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아빠는 나나 한슬이가 많이 상처받았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이 미안해한다. 물론 한슬이도 나도 아직 완전히 그 때의 아빠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미안해하지는 말라고 아빠한테 꼭 말해주고 싶다. 완전히 예전 일을 잊었다, 혹은 이제 그만 다 잊자,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아마 그 때의 힘들었던 아빠를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빠가 힘들지 않으려면 나도 아빠도 그 모습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이제 아빠를 이해하고, 전혀 원망하지 않으니까, 많이 놓았으니까 아빠도 빨리 놓아버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에 많이 서툴러서 아빠한테 말로는 잘 못하지만 아빠를 많이 사랑하니까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2) 엄마

이상하게 엄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눈물이 난다.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엄마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 같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슈퍼맨 같고 우리 엄마가 짝이었지만, 간디학교 오고 더 많은 가족을 보고, 커가면서 엄마의 다른 모습들도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많아졌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항상 힘든 집안일도 마치 엄마의 일인 것처럼 도맡아 하며, 성질 더러운 나머지 셋을 다 상대하곤 한다. 물론 늘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 엄마한테 참 잘해야지, 엄마가 일할 때 나도 도와주고 짜증도 덜 내야지,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결심은 늘 오래가지 않는다. 일단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짜증을 내게 된다. 잔소리나 간섭할 때야 누구나 그렇다지만,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도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게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가 나랑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마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싫은 건지도 모른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해 봐, 저렇게 해 봐’ 등의 제안을 많이 할 뿐더러 기대하는 것도 많아 보인다. 그런 게 부담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엄마랑 대화하는 건 뭔가 힘들다.

거기다가 나는 엄마 눈치를 정말 많이 본다. 뭐, 누구나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뭔가 재미있는 걸 보여줬을 때나, 같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나는 이상하게 엄마 눈치를 본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도 자꾸 의식하게 된다. 아빠나 한슬이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엄마랑 있을 때 그렇다.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엄마의 기에 많이 눌린 것일 수도 있다. 엄마는 항상 밝고 당찬 사람이다. 할 일도, 할 말도 모두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에다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잘 하고, 소신과 철학도 뚜렷하다. 그런 엄마를 내가 닮으려고 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번 가족면담 하면서 깨달은 건데,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려고 하고, 우리한테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하고,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우리한테 엄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그 선을 지키라고 한다. 내가 엄마 눈치를 많이 보는 것과 엄마랑 대화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일부분은 엄마가 그어놓은 선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우린 많이 어렸었고. 하지만 나는 엄마가 이제 우리한테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엄마도 부족할 수 있고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우리한테 의지하고 내려놓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엄마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충분히 엄마 같고 많은 힘이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신경 쓰기보단 엄마 자신의 감정과 꿈에 충실하며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짜증을 덜 내면 좋겠다. 엄마는 말투가 원래 세다. 근데 나는 마음이 엄청 여리다.....흠쩍. 엄마가 나나 한슬이한테 말할 때 엄청 강하게 말하거나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할 때가 많다고 느낀다. 물론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엄마도 온화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3) 한슬이

한슬이랑은 그야말로 엄청난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진짜 짜증 많이 내고 톡톡대고, 가끔은 진짜 심한 말도 하지만 그래도 절대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다. 엄마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말마따나 ‘세상에 하나뿐인 자매’니까.

나 혼자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끼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한슬이보다 엄마의 관심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 한슬이가 피겨를 그만두고 나는 계속했을 때부터는 아예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한슬이를 챙기기가 힘들었다. 거기다가 나는 여기저기 나서는 걸 좋아했고, 한슬이는 나에 비해 세긴 해도 나서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스케이트장에 데려다 주고, 간식을 싸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새벽이나 밤에 대관이 있으면 같이 가고, 내가 대회라도

있으면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같이 있어주고.....아무튼 나를 열심히 챙겼고, 엄마가 집에 없는 시간동안 한슬이는 집에 혼자 있기 일쑤였다. 태권도를 배웠지만 집 근처 학원을 혼자 다녔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해놓은 걸 혼자 데워먹었다. 철없던 나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라도 일이 생겨서 버스를 타고 스케이트장에 가야 하는 날이 되면 짜증 섞인 눈물부터 흘리곤 했다.

그런 생활이 3년간 계속되었다. 나랑 한슬이랑 하교시간이 달랐던 5학년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4학년 때와 6학년 때는 우리 둘이 하교시간이 같으니까 엄마가 둘 다 챙길 수가 없었다. 결국 한슬이는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고, 나는 엄마 차를 타고 스케이트장으로 갔다.

한슬이는 아직 혼자 있기엔 어린 나이였다. 그 시간이 한슬이도 모르게(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한슬이한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 이후로 한슬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됐고, 엄마와의 마찰도 더욱 잦아졌다. 또 어쩌다 한슬이 5학년 때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싫다고 적혀있던 부분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엄마는 언니만 좋아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조금 커서 그걸 보니까 왠지 마음이 저렸다. 정말 부끄러웠다. 언니로서 많은 걸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도 해주지 못했다.

많이 미안하다. 그 얘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린 싸워도 절대 사과로 풀지 않는다. 얘기 때야 엄마가 둘이 사과해! 해서 사과하고 풀었다지만, 좀 더 크고 나서는 싸우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하는 게 우리 방식으로 굳어버렸다. 그래서 한슬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대체로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실수로 쳤다거나 실수로 밟았다거나 뭐 그런, 엄청 별 거 아닐 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앞으로도 미안할 거다. 좀 더 철든 언니가 되지 못해서,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더 의지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음만큼은 정말 많이 아끼는데, 표현도 못하는 언니라서 미안하다. 또 고맙다. 말 몇 마디인데도 참 어렵다. 논문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아, 그런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슬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만만하고 싫은 언니라 해도 무슨 말만 꺼내면 ‘어쩌라고’로 일관하는 건 인간으로서 진짜 기분이 나쁜 일이다!!!!!! 웬만한 장난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진짜 말 꺼내자마자 ‘어쩌라고’하며 대꾸하는 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도 좀 의지하면 좋겠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너를 봐왔고 앞으로도 평생 너를 볼 사람이며 누구보다 너를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언니인데 나를 너무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속상하다. 나도 더 노력할 테지만, 나한테 의지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3.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작곡으로 표현하기

1) 아빠

① ‘아빠’ 가사

매일같이 이 문을 나서
기나긴 길을 걸어왔을 그대
배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무거운 짐만 한가득 짊어지고
괜찮아요 나뉘들어요
내 어깨 조금 힘들더라도
그댈 위해서라면
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모두 지나갈 테니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바라며

같은 공간 안에 있더라도
마치 없는 척 모르는 척 지내려했죠
미안해요 힘들지 말아요
이제야 그댈 이해하려 하니까
놓아주세요 그 때의 우리는
걱정 말아요 모두 지나갈 테니

참 오래도 돌아왔죠
고작 이 말 한 마디를 위해
보고픈 그대를 그리며
눈물 어린 미소를 그리며

많이
사랑해요

②‘아빠’ 가사 해석

매일같이 이 문을 나서

-이 부분은 매일 병원으로 향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며 넣은 부분이다. 문은 현관문을 뜻하는데, 상상되는 이미지가 집 문을 나오는 아빠의 모습이라 이렇게 썼다.

기나긴 길을 걸어왔을 그대

-오랫동안 힘든 의사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빠의 모습이 기나긴 길을 걸어온 듯해 이렇게 표현했다.

배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무거운 짐만 한가득 짊어지고

-아빠의 출근 시간은 들쭉날쭉했는데, 주로 나랑 한술이는 없을 시간이었고, 엄마도 바쁘니까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아빠를 배웅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마 어딘가 쓸쓸한 집을 뒤로 하고 혼자 집을 나섰을 것이다. 또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 인생에 대한 고민들, 그런 짐들을 어디 내려놓을 곳도 없이 모두 혼자 짊어지고 그 길들을 걸어왔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의미없는 시간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더군다나 함께 하는 사람, 마음을 연 사람이 별로 없었던 때라면.

괜찮아요 나눠들어요

내 어깨 조금 힘들더라도

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요

-아빠의 짐을 이제는 나도 함께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서도 썼지만, 난 이제 마냥 아이가 아니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예전보다는 아빠를 더 잘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니 아빠 혼자 힘들지 말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을 믿고 아빠의 짐을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걱정 말아요 모두 지나갈 테니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도 모두 지나갈 시간들이니 너무 그것에 갇혀서 걱정하지 말고 더 먼 미래, 행복할 날을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바라며
같은 공간 안에 있더라도
마치 없는 척 모르는 척 지내려했죠

-지난 시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땐 아빠가 어색했고 무서웠다. 그래서 없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내고 싶었다. 아빠가 말을 걸면 내가 먼저 피했고, 빨리 이 어색한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비겁하고 겁 많은 모습이지만 나는 그걸 모두 안기에는 너무 어렸다. 또 한편으로는 그 때의 아빠에게 한껏 화내보고도 싶었다. 왜 나한테 그랬냐고.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아빠도 아빠 나름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써야할 것 같았다.

미안해요 힘들지 말아요
이제야 그댈 이해하려 하니까
놓아주어요 그 때의 우리는

-아빠한테 지난 일들이고 놓아주라고 말하고 싶었다. 글에도 나오지만 이제 다 놓아줄 때이다. 이제야 아빠를 이해하려 하니까 너무 붙잡고 얹매이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지난 날들 내가 줬던 상처에 대해 전부 미안하다고도 전하고 싶었다.

걱정 말아요 모두 지나갈 테니

참 오래도 돌아왔죠
고작 이 말 한 마디를 위해

-여기서 말하는 이 말 한 마디는 여러 가지 말일 수 있다.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다, 이해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각각 한 마디의 말들이지만 한 번 내뱉기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껏 이 말 하나를 하지 못해 많이 돌아왔다.

보고픈 그대를 그리며
눈물 어린 미소를 그리며

괜찮아요 나눠들어요
이제야 그댈 이해하려 하니까
놓아주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앞에 나왔던 후렴구의 가사들을 모두 짝꿍했다. 이렇게 조합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나와서 신기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이제야 아빠를 이해하려 하니까, 그 짐 모두 나눠들자, 그 짐 다 놓아주어라, 뭐 그런 의미이다. 나도 버텨낼 수 있다고.

많이
사랑해요

-곡 구상하면서 마지막에 무조건 넣겠다고 다짐한 말이다. 평소엔 잘 하지 못하는 말인 만큼 노래를 통해서라도 꼭 전하고 싶다.

2) 엄마

① '엄마' 가사

밥을 하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지난 세월 매일같이 밥을 하고

잠이 많은 사람이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밝히던

말한 적 없어도 모두 해주려 하고
가진 것 없어도 모두 다 주려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많은 걸 숨기며 그렇게 살았던

당신 인생의 서러움을
나는 다 알 수가 없어
그저 멀리서 쳐다만 보며
헤아리려 애쓸 뿐

이젠 당신만의 인생을 살길
꺼버렸던 날개도 모두 펼치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도
괜찮을 때가 온 것 같아

당신 손 위에 내가 없더라도
당신 눈에 내가 안 차더라도
내버려둬 언제나 손잡고 함께
할 수는 없으니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이젠 내가 앞에 설 테니

②‘엄마’ 가사 해석

밥을 하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지난 세월 매일같이 밥을 하고
잠이 많은 사람이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밝히던

말한 적 없어도 모두 해주려 하고
가진 것 없어도 모두 다 주려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느끼고 엄마와 이야기도 했던 엄마의 지난 17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엄마는 사실 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고, 잠도 많고 항상 피곤하다. 하지만 늘 먼저 일어나 밥도 해주고 다 주려고 했다. '엄마'라는 이름 하에 할 수 있는 걸 모두 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많은 걸 숨기며 그렇게 살았던

-나는 여태까지 엄마의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논문 전부터 뭔가 불편하고 그랬지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어쩌면 엄마가 많이 눌러왔고 숨겨왔던 건 아닐까 싶었다.

당신 인생의 서러움을

나는 다 알 수가 없어

그저 멀리서 쳐다만 보며

헤아리려 애쓸 뿐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젠 당신만의 인생을 살길

꺼버렸던 날개도 모두 펼치길

-진심으로 엄마가 '나영미'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다. 엄마라는 이름은 지난 17년간 충분히 해 왔고, 더 이상은 그만큼 할 필요가 없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깨달았으니

-엄마가 꼭 무언가 해주고 조언해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도

괜찮을 때가 온 것 같아

-같은 맥락인데 느낌이 조금 다르다. 이제 엄마가 일일이 챙겨주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나를 그냥 놔둬도 괜찮다.

당신 손 위에 내가 없더라도

당신 눈에 내가 안 차더라도

-엄마가 보기엔 내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약할 것이다.

내버려둬 언제나 손잡고 함께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 해도 언제까지 내가 엄마 손 붙잡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도 많은 걸 혼자 해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길

이젠 내가 앞에 설 테니
-엄마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좋겠다. 편해지면 좋겠다.

3) 이한슬

① '이한슬' 가사

젓가락 한 짝 서로 잡아당겨
엄마 팔을 잡아당겨
머리채를 잡아당겨
서로 발길질을 해
이젠 그만하자

우리 어렸을 적에도
우리 좀 더 컸을 때도
매일 치고 박고 싸우고
그게 일상이었지만
진짜 그만하자

열다섯 달 먼저 태어났다고
밥을 7천 그릇 좀 더 먹었다고
어른인 척 했던 거 미안해

이젠 7천 그릇 더 먹은 밥처럼
내가 더 더 더 커볼게
진짜 언니가 될 수 있도록 오오오

혼자인 게 좋은 게 아닌 거란
사실은 이제 너도 잘 알 거라 믿어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많이 미안해

나도 너를 잘 알고 있다고
아니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혼자인 게 좋은 게 아닌 거란

사실은 이제 너도 잘 알 거라 믿어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

이제 너도 알아줄 거라 믿어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많이 사랑해

②가사 해석

젓가락 한 짝 서로 잡아당겨
엄마 팔을 잡아당겨
머리채를 잡아당겨
서로 발길질을 해
이젠 그만하자
우리 어렸을 적에도
우리 좀 더 컸을 때도
매일 치고 박고 싸우고
그게 일상이었지만
진짜 그만하자
-그냥 이제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열다섯 달 먼저 태어났다고
밥을 7천 그릇 좀 더 먹었다고
어른인 척 했던 거 미안해
-언니라고 뭐든 다 위인 것처럼 굴어서 미안했다. 언니가 벼슬도 아닌데.

이젠 7천 그릇 더 먹은 밥처럼
내가 더 더 더 커볼게
진짜 언니가 될 수 있도록 오오오
-진짜 힘이 되고 언니다운 언니가 되는 건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썼다.

혼자인 게 좋은 게 아닌 거란
사실은 이제 너도 잘 알 거라 믿어
-한슬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다 보니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다. 물론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상처나 기억에 의해 외로움을 부러 느끼고 있는 건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한슬이가 그게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많이 미안해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나도 너를 잘 알고 있다고

아니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언니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나를 너무 경계하지 않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혼자인 게 좋은 게 아닌 거란
사실은 이제 너도 잘 알 거라 믿어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

이제 너도 알아줄 거라 믿어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마음을 한슬이가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너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많이 사랑해
-오늘거리지만 이 노래가 아니면 진짜 할 기회가 없을 듯하다.

4.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 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예전엔 단순했다. 내가 볼 때 나는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잘하는 것도 많고, 잘 웃고, 하지만 짜증도 많고, 약간 제멋대로고.....나름 나를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나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트위터를 시작했다. 내 트위터 친구들도 성격이 다 다양하다. 내가 가장 처음 사귀었던 아이는 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 붙임성도 좋고 애교도 정말 많은 아이였다. 처음엔 당황할 정도로 말투도 다르고 이모티콘도 많이 써서 원래 다 이런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귀게 된 동갑내기 트친 몇 명은 좀 더 거친(?) 느낌이었다. 또 좀 조용한 사람도 있는 반면, 하루종일 트위터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욕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욕 쓰는 것도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애교가 많고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말투가 바뀌기까지 했다. 그런데 또 욕을 많이 쓰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험하게(?) 대하게 된다. 그럼 뭐가 진짜 나일까? 다들 뭔가 자신만의 분위기랄까, 캐릭터가 딱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이 여기저기 헝클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누군가와 딱 잘 맞고 정말 친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걸 깨달은 날에 정말 웃길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울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많이 속상했다.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었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일기장에 쓰는 걸로는 모자랐다. 종이가 너무 작아서 답답할 정도였다. 속상한 마음은 자책으로 이어졌다.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혹은 나랑 대화하면 별로 편하거나 재밌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없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지배했다. 참담했다. 죽을까 생각도 했다. 진짜 죽을 생각이었단기보단, 죽으면 이런 느낌을 안 받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었다. 아무튼 진짜 죽도록 우울했다.

왜 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해본 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해보니 일단 붙임성이 별로 없고, 특히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다. 또 실수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도 실수를 맨날 한다. 그게 제일 스트레스다. 실수를 한 번 하면 엄청 밉보일 것 같고, 다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두렵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다(얼마 전엔 알바를 하다가 빨대통을 실수로 쏟아버리는 바람에 죄다 버렸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생각나서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봐 걱정되고, 다신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편하게 대하질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내가 편하질 않는데, 누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겠는가. 그나마 우리 반 여자애들하고 그 벽을 가장 많이 깨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우리 반 여자애들하고 있을 때조차 나를 완전히 놓지 못한다. 그런다고 내가 완벽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나를 가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좋고 완벽한 사람인 건 또 아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차라리 내가 뭔가 하나의 캐릭터이고, 내가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편할 텐데, 나는 생각도 많고 모습도 많아서 절대 그렇게 한 길로 단순하게 살질 못한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한테 놓으라고 좀 말하고 싶다. 제발 나를 놓으라고, 스트레스도 놓고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도 놓고 나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그것도 놓고. 다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니까, 제발 나부터 좀 행복해지라고. 어차피 완벽하지도 못할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말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실행이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나를 그렇게 꼭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더 솔직해져보려고 한다. 내 감정에요, 내 생각에도, 내 고민에도. 그냥 솔직해지면 되는데, 머리로는 쉬운데 마음으로는 참 어렵다.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솔직해지라고, 놓으라고. 그걸 가장 말해주고 싶다.

아직 나는 풀어갈 고민이 많다. 나에 대해 아는 건 여전히 거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한테 아직 시간이 많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5.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작곡으로 표현하기

1) 가사

누구나 완벽하진 못해
아무도 완벽할 순 없어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

너에겐 숨겨진 게 많아
네 앞엔 걸을 길도 많아
힘을 내 조금 더 가다 보면
나올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너만의 것이 아닌 고통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걸어봐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모두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솔직히 모두 털어놔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긴 네 세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너만의 것이 아닌 고통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걸어봐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모두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그래서 너의 문을 모두 열어봐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함께 해 함께 해 함께 해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2) 가사 해석

누구나 완벽하진 못해
아무도 완벽할 순 없어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싶다.

너에겐 숨겨진 게 많아
네 앞엔 걸을 길도 많아
힘을 내 조금 더 가다 보면
나올 걸
-나에겐 아직 시간도 꿈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 초조해하지 말고 힘내서 뭐든 열심히 하자는 다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너만의 것이 아닌 고통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행복한 사람들도 한 때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걸어봐
-그러니까 주저앉아 슬퍼하고 우울해할 바엔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모두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그게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널 완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즐겨보고 싶다.

솔직히 모두 털어놔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긴 내 세상이야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인데 다른 어떤 걸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 가는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고 싶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너만의 것이 아닌 고통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걸어봐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모두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

널 완전히 맡겨
음악이 나오면 널 온전히 놔
그래서 너의 문을 모두 열어봐

-마음의 문, 꿈과 미래의 문, 나는 아직 내 안에 벽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확 다 열어버리고 싶다.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함께 해 함께 해 함께 해

한 번 활짝 웃고 함께 해

6. 공연 및 피드백

1) 가족

가장 먼저 내 작품의 주인공인 가족에게 들려주고 평가를 받았다. 가족 공연에서는 내가 쓴 글도 함께 읽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글과 노래, 두 가지 모두에 중심을 두고 평가를 받았다. 가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느낀 점, 소감
- 내가 쓴 글에 대한 느낌
- 가사와 글이 잘 연결되어 있고, 가사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났나요?
- 노래가 전반적으로 조화로운가요?
-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아빠

-감동적이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슬이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다. 몰랐던 부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게 해준 글이었다.

-가사에 이야기를 잘 담은 것 같다.

-멜로디가 아주 좋았다. 개인적으로 드럼 채보를 해서 같이 연주하고 싶을 정도.

-피아노 반주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

②엄마

-좋았어. 훌륭해. 감동적이야.

-솔직하게 썼다는 게 느껴졌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좋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예슬이가 많이 컸구나, 하는 걸 느꼈다.

글이 다른데 그 글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난다. 가사를 보고 또 한 번 감동이었다.

-조화로웠고, -가사와 무엇보다 경쾌하고 걱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가사에서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숨기다'라는 표현은 몰래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보단 '참는다' 등의 표현을 써주면 좋겠다. 또 '헤아리면'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한슬이

-이상해. 우리 가족이 되게 화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태까지 착각하고 있었다.

-오글거려.....1년 뒤에 보면 이불킥하고 난리날 듯. 솔직하긴 했다.

-응.

-조화롭긴 했지만 세 곡 분위기가 다 똑같고 화음만 주구장창 들어갔다.

-피아노 반주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2) 전문가 평가

내 논문은 가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방학동안 가족 상담을 받은 상담 선생님께 내 글과 가사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가족의 갈등을 잘 풀어냈는지,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등을 여쭙봤다. 아래는 선생님 평가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예슬이에게

소중한 논문과 노래 잘 보았어요.,

삶의 이야기가 노래로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song of life 프로젝트^^

k-pop스타에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하면 "이건 심사가 불가능한 노래"예요!!

지난 번 일기처럼, 예슬이는 말보다 글에서 더 많이 알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의 음들을 듣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자기정체성에 대해 철저히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연구가 더 깊고 넓어지도록 질문으로 피드백 드립니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에 잘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슬이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음악이 울릴 때 잘 공명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 상담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더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저 역시 남성으로, 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아버지 심정이 잘 느껴지네요.. 아버지의 전환과 변화도 인상 깊고요.

실제로 9.11테러라는 큰 사건에서 구조를 담당했던 소방관 중 심리적 후유증이 있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 연결성을 보는 것도 맞지만

예슬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아요. 예슬이는 아직 어리고 자녀예요...

예슬이의 몸 반응과 감정을 더 인정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해요..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말해지는 거라 해도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느끼는 무서움, 예를 들어 말이나 행동이 지금도 알람처럼 소리 내고 굳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자각하고 그럴 때의 나를 토닥이거나, 가능하다면 아버지에게 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어머니

어머니의 아침밥을 짓는 모습은 어머니의 삶 속에 헌신이 잘 그려지네요.. 아마도 어머니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보다 자녀를 위한 역할로 전환하셔야 했겠고

당연시할 만큼 작고 쉬운 것이 결코 아닌 일이죠..

그 에너지의 전환은 때로 자녀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가져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사시는 방향이 둘을 더 행복하게 하는 변화라는 생각에 공감이 된답니다.

둘 사이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지난번 간단한 검사를 상담할 때 공유할께요)

예슬이는 타인에 순응하는 성향과 잘 드러내지 않지만 많이 여리고 돌보는 따뜻한 성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는 자칫 요구적이거나 강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어렵게 되는 요인이기도 해요..

반면 어머니는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반대 성향이 크시죠.. 차이가 틀림으로 지적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키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지죠..

어머니의 성향은 예슬이를 더 현실적으로 보완해 줄 수도 있지만요. 불편한 것이 당연해요

예슬이의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그 바램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은 혼자 만들기 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고 변화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지 내 위치를 잡는 것. 그것을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 이전에 주체로 행복하게 사는 어머니, 아버지를 예슬이가 원하듯 ...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슬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어떨까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가족보다 나의 욕구, 감정 그리고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보는 가사도 좋죠..

타인의 말을 잘 씹어 먹어서 채하지 않고 반대하는 가사도 좋죠

가족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노래되기에 반대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 순서가 바뀌면 예슬이가 사람들의 말과 요구,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 그래서 맘속에서 어머니와 갈등이 있고 지금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해돼요.. 하지만 갈등은 욕구들의 만남이겠죠

타고난 꼴. 여리고 잘 느끼고 현실적이기 보다 꿈꾸고 노래하는 것이 나의 모습. 그 모습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살며 조정도 해야겠고 보완도 해 봐야 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째~ 배째! 미워해도 어째~ 배째!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배째라! 배째라~! 의 가사도 좋죠

선생님의 평가 중 아빠 노래에 대한 평가에서 난 아직도 어리고, 몸의 반응에 더 솔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보고 충격이었다. 물론 내가 이만큼 앞서 생각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에게 솔직해지자고 하면서 아빠 생각한답시고 나를 자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 나랑 엄마랑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신기했다. 나는 내가 엄마를 닮은 점이 많고, 성격도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해왔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성향이라는 게 놀라웠고, 엄마의 강한 성격에 비해 여린 내가 엄마의 현실적인 말에 많이 상처받았고 속상했던 게 밝혀지는 기분이었다.

나에 대해 잘 아시고 또 내 생각도 잘 아시는 분인데다가 전문적인 상담가시다 보니 선생님의 평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3) 간디인 평가

내 논문의 목적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 간디인 앞에서 공연을 하고 평가를 받았다. 노래가 듣기 좋은지와 가사나 분위기 등이 가족에 대한 감성을 깨워주는지 정도가 주요 평가 요소였다. 간디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노래가 조화롭고 듣기 좋았나요?
- ②가사에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나요?
- ③가사에 공감이 되었나요?
- ④노래를 들으며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⑤아쉬운 점
- ⑥전체적인 평가

아래는 질문별로 나온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①노래가 조화롭고 듣기 좋았나요?

-좋았다, 멜로디는 좋았지만 반주가 아쉬웠다. 반주가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전문적이었다 등

②가사에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나요?

-그렇다, 특히 엄마아빠 노래가 공감이 잘 됐다, 그 부분은 정말 잘 됐다, 솔직하게 잘 적은 것 같다, 우리 가족과 여러 가족에 대한 생각을 대표하는 것 같다, 가족 각각의 특색이 잘 담겨있었던 것 같다, 뭉클했다, 잘 담겨있었지만 가사가 신선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전달된 것 같다,

③가사에 공감이 되었나요?

-대박 짱, 조금 공감됐다, 공감됐다, 나랑 상황이 달라 잘 되지 않았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좋았다, 가족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해서 많은 공감은 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되었던 것 같다, 눈물이 포르륵, 공감이 잘 됐고 슬펐다, 나의 일은 아니지만 전달하려는 마음이 와 닿아서 조금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 노래 때 너무 감동이어서 눈물 흘린 뻔 했다, 특히 엄마에 대한 노래를 할 때 공감되었다 등

④노래를 들으며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슬프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그냥 노래가 좋았다, 사실 가족이란 주제를 말 안 해주면 모를 듯,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좋았다, 가

족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힐링이 되었다, 들으면서 가족 생각이 조금 났고 나도 가족에 대해 써보고 싶었다,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다, 울먹했다, 엄마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해본 적이 있었나? 하며 약간 부끄러워졌다, 특성에 맞춰 잘 작곡한 것 같다, 그냥 가족과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엄마아빠 노래를 들을 때 특히 많이 생각났고, 엄마아빠한테 감사했다 등

⑤아쉬운 점

-피아노 연습을 좀 더 했었으면, 풍부하지 못한 사운드, 진지함이 좀 덜한 한솔이 노래에 가족들의 일상이 좀 담겨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약간 긴장한 게 보였다, 가사가 좀 진부했지만 공감은 되었다, 장르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등

⑥전체적인 평가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잘 표현한 듯,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다, 잘 들었다,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듣기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단기간에 쓰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 한 것 같고 무엇보다 가사가 좋았다 등

아쉬운 점으로는 반주와 전체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사운드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은 나 또한 많이 아쉬웠던 점이다.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지적받은 것처럼 애초에 피아노 혹은 기타 하나로 반주를 하다 보니 빈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또한 가사도 좋았지만 진부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생각해보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평가로 받으니 더 실감이 났다. 그래도 가사는 대체로 좋다고 평가해주었다. 그 외에도 장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충격이었지만 돌아보면 그런 것 같다. 내가 작곡하는 장르나 느낌이 항상 비슷하고, 이번 역시 그런 것 같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그리고 주제를 말해주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노래인지 모를 것 같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이 점은 내가 가사를 너무 돌려쓰다 보니 생긴 문제 같다. 사실 약간 노린 부분도 있었다. 가족 노래이지만 다른 상황의 사람에게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고, 또 완전히 모든 걸 직접적으로 쓰려다 보면 가사 같지 않고 너무 현실적인 글이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논문이니 가족 이야기에 더 집중했어도 좋을 것 같다.

또 가족 하나하나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내 가사에 모두가 공감하고 완전히 공감될 수는 없었겠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고 감성을 일깨웠다는 점은 만족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해 주어서 뿌듯했다. 내 논문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 같다.

4)인터넷 평가

보다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안 달았다. 결국 받은 평가는 총 2개이다. 하나는 내 영상을 올린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었고, 하나는 블로그 주소가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한 것에 달린 댓글이었다. 아래는 두 댓글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①작곡은 모두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신경 쓰인 건 동생 곡에 그게 일상이었지만 부분 피아노가 흔들리고 음이 급격하게 떨어진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첫 문단 같은 구절도 조금 그랬구요. 그리고 가사의 경우 아빠는 제가 보기에 아빠라고 공감하고 떠올릴 부분이 안보이고 그냥 힘든 나 자신?으로 대입해도 될 정도로 가사를 돌려서 쓰다 보니 떨어진 것 같아요. 엄마는 조금 풀어쓰셨지만 하이라이트부분이 좀 더 임팩트 있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동생, 나 는 돌려서 솔직하게 표현한부분이 조금 있어서 괜찮은데 아빠나 엄마, 그리고 나의 부분 부분은 너무 꼬아서 가사를 써서 큰 공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ㅠㅠ 트위터를 통해 들어왔는데 들었으니 제 느낌을 말하고 가야할 것 같아서 댓글 남기고 가는 거라 가벼운 개인적 취향차이로 받아들여도 상관 없어요ㅠㅠ 노래 잘 부르시네요! 수고하세요!

②어린 학생이지만 심도깊게 느껴져오는 삶의 내공..이것이 대안교육의 힘인가요? 멋진 시입니다.

평가는 이 두 개의 댓글이 다였다. 그래도 조회 수는 157명이나 돼서 뿌듯했다. 많은 사람이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III. 결론

1. 내가 만든 작품

나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곡으로 표현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풀어 쓴 뒤, 그 글을 바탕으로 가사를 쓰고 음을 붙여 곡으로 완성했다. 또한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 총 4곡을 만들었고, 가족들에게, 전문가에게, 간디인들에게,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거나 가사를 보여주고 평가를 받았다.

2. 평가 및 아쉬운 점

먼저 가장 아쉬운 점은 평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반주 부분이다. 공연할 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작곡에 열중하다 보니 반주를 대충 넘기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아서 피아노 하나를 하는데도 실수를 많이 했고, 애초에 악기 하나로 반주를 하다 보니 사운드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다. 노래를 제대로 즐기 위해서는 반주도 중요한 법인데, 나의 부족함을 많이 실감했다.

또 가사를 너무 돌려썼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도 아쉽다. 가족 논문인 만큼 가족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더 솔직해졌어야 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솔직해지지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감성을 일깨우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족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부분은 80% 이상 달성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간디인 평가 중 ‘가족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본 적이 있나? 싶어서 부끄러웠다’는 평가가 인상 깊었다.

선생님 평가 중에서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주변 사람도 행복할 거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와 닿았다. 이기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 말을 들으며 내가 너무 빨리 철들려고 애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선생님의 말처럼 ‘내 몸의 반응에 솔직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 노래의 주인공인 가족들의 반응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속마음이라 더 복받쳤고, 또 지난 일들과 힘들었던 게 생각이 많이 났다. 내 논문을 통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기억하기 싫어 구석으로 미뤄뒀던 우리 가족의 아픈 부분이 솔직하게 드러나서 좋았다.

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논문이다 보니 아빠, 엄마, 한슬이 노래가 집중적으로 평가됐고, 나에 대한 노래는 많이 평가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가족 노래 중에서도 아빠랑 엄마 노래가 특히 평가를 많이 받았다. 아무래도 한슬이 노래는 좀 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라 감동까진 아니었는데,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는 특히 각자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고 그래서인지 평가가 많았다.

3. 후기

주제를 11월이 넘어 바꾼 건 내가 처음일 것이다. 많이 힘들었다. 왜 진작 바꾸지 못했지, 왜 미리 열심히 하지 않았지, 자책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논문 이야기를 꺼내면 즉시 무시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기 일쑤였고, 특히 엄마가 얼마나.....까지만 꺼내도 짜증부터 잔뜩 났었다. 그만큼 논문은 정말 내 인생에 다시없을 스트레스였다.

그래도 거의 다 쓴 지금 돌아보면, 참 도움 되는 활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손톱 때보다 조금 많이 든다. 사실 아직도 너무 힘들고 지쳐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별 것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논문 덕에 생각 정리도 많이 했고,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해보기도 했다.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오글거리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럽지

만, 그래도 좋았다. 가족들에게 노래를 들려줄 때 아빠가 지었던 표정, 엄마의 울음, ‘이상해’라고 말하던 한슬이의 모습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뿌듯하고, 또 행복하다.

또 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에 고생하는 나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고 다독여준 것 같다. 항상 고민하던 나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언가 내 속에 있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발견한 것 같아 나름 보람찼던 시간이었다. 아직 나에 대해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느껴왔던 감정들, 내가 입었던 상처들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솔직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①아빠

495

잠 오 래도 돌 아왔잖 -
 고작 이 말한 아드를 위해
 보고픈 그댈 - 리며 눈물 어린 -
 미 소름 - 그 리며
 힘 들었 조 힘
 들 지 말 - 아요 이 제 야 그 댈 이
 해하려 하 - 니까 놓아 주어 요 그
 때 의 무 - 리는 걱정 말아요 모두 지 나갈 테니

②엄마

엄마

김기태 작곡



밤을 하 고 싶 었 던 적 - 은 없 - 지만 - 지 난 세
월 때 일 같 이 - 밤 을 하 고 잠
이 많은 사 람이 - 지만 새 벚 꽃 같 이 - 일 어
나 집 을 밝 히 던 말 한 적 없
어도 모두 해 주 려 하 고 가 진 것 없
어도 모두 다 주 려 - 하 고 아
무 것도 - 음 라 던 내 게 많 은 걸 습
- 기며 그 경 계 사 를 - 앓 던 - 2. 너 무
당 신 인 - 생 의 서 러 - 음 을
만 아 해 - 주 피 으 는 어 이

③한슬이

한 슬

이예슬

첫가각한 짝서로 잡아당겨 - 겨 엄마 팔을 잡아당겨 - 버리

채를 잡아당 - 겨 서로 발 갈갈 - 을 해 - 이

제 그만 하자 우리

어렸을 적에 - 도 우리 좀 더 컸을 때 - 도 - 매일

치고 바고 싸고 고 그게 일상이 - 었지만 - 진

짜 그만 - 하자 열 다

식당 먼저 - 태어났 - 다고 밤을 잠도 못 자고 - 다고 어 린

인적 했 - 던 거 미안해 - 이 제

차 한 그릇 - 더 먹은 밥처럼 내가 더 더 더 커 - 보게 지 지

언니가 - 되수 있 도록 우우우 우
 혼자 - 인게 - 좋은 게 - 아님 - 거만 - 사실은
 - 이 제 - 너도 - 잘 알 - 거라 알 - 어
 지금 너 - 에 - 게 한 마디 - 할 수 - 있다면 - 이 열게 꼭 말
 말할 거야 - 많을 10 10 안 할 10
 너를 잘 알 - 고 - 있 - 다고 아니 누구보다 - 잘 - 알 - 다고 장담
 작수 있 - 어날 - 믿 어봐 - 우우우 - 오 P.S. al Code

Handwritten musical score on a single staff system.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written below the notes.

Lyrics: 하고 싶어 오 이젠 너도 - 알아 - 줄게 라 믿 - 어 지금 너 - - 에게 한마달 - 할수 - 있다면 이렇게 말 할 거야 - 만능이 사랑해

나

이예슬

누구나 완벽하진 못 - 해 아무도 완벽할 수 없

어 그러나 이제 걱 정 하 지 마

너에게 숨겨진 게 많 - 아 네 앞에 걸 을 걸 도 않

- 아 힘을 내 - 조금 더 - 가다 - 보 - 면 - 나 올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고 - 민 - 너 만 의 - 것이 아 니 고

토 6 여 기 서 - 좌절 하지 - 말고 - 일 어 나 서 또

걸 어 와 널 - 완 전히 말 - 거 - 음 악 이 나 오 면 널 운

- 전히 봐 - 모두 - 이 시 간 을 즐 - 기고 - 있어 - 한 번 할

- 짜요 - 고 - 상 에 해

Handwritten musical score with lyrics in Korean. The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of music. The lyrics are:

손작히 모두 털어 봐봐 다른 건 신 경 쓸
 - 필요 - 없어 여긴 네 세상 - 이야 -
 누구나 해 D.S.al Coda 널완 - 전히 말 - 겨 - 음악이 - 나오 - 면 널 안
 - 전히 봐 - 모두 - 이 시간을 즐 - 기고 - 있어 - 한번 할
 - 짝 웃고 - 함께 해 - 함께 해 함께 해 함께 해
 한번 할
 - 짝 웃고 - 함께 해

2) 작품일지

1.6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한 일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쓴 것! 엄마랑 한슬이한테 하고 싶은 말도 썼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을뿐더러 분량도 적어서 다시 수정하고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다 보니 그 때 생각이 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1.7

아빠 글을 수정했다. 완전히 솔직하게 쓰자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직 많이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운 건가?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건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도 괜히 두렵다. 아니면 우리 가족 일인데 다 얘기하면 가족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일수도 있다. 아무튼 솔직해지자는 다짐은 지키기가 참 어렵다. 노력 중이다.

1.9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수정 중인데, 어떻게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웬지 하고 싶은 말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정리도 잘 안 돼서 찝찝하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빠 글이랑 한슬이 글은 거의 완성인 것 같다. 굉장히 잘 쓴 것 같다. 뿌듯하군.

1.21

오랜만에 작품일지 쓰는 것 같다.....양쌤 강의 들으러 덕산 갔다가 와서 또 알바하고 어찌느라 바빴다. 상담을 했다. 그냥 작은 아파트? 빌라? 같은 곳의 가정집에 있는 상담실인데, 문 앞에 가족상담 어찌고 써 놔서 처음엔 웬지 불편했다. 거기다가 상담 선생님이 남자라 좀 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나았다. 가서 바로 가족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나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들을 먼저 해서 분위기도 많이 무겁지 않았다.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

1.27

상담을 또 받았다. 오늘도 가벼운 이야기만 했지만 나름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 노력이라는 걸 안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한슬이 노래 멜로디가 생각나서 막 쳐 봤다. 한슬이 곡은 좀 가벼운 분위기로 만들어질 것 같다. 아빠 곡은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아빠 힘내세요의 코드나 전반적인 분위기와 멜로디를 따오려고 한다. 지금 후렴 멜로디만 조금 생각해봤다.

엄마 노래는 아직 글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막막하다. 엄마 글을 빨리 다 써야 가사를 쓰든 할 텐데.....

1.28

노트북이 왔다. 이제 노트북에다 써야지!!!!!!!!!!!!!!!!!!!!!! 존중.....ㅎ.ㅎ

2.3

엄마 글이 마음에 들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수정 중이다.

엄마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엄마한테 내는 짜증과, 엄마한테 하는 행동과, 엄마에게 느끼는 슬픔? 미안함? 같은 감정들, 엄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 내가 어렸을 때.....참 신기하다. 내가 엄마한테 간섭받는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랑, 엄마가 우리한테 엄격하고 엄마로서의 선을 지키는 것,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 사실이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그렇다. 나 자신도 그렇다. 수많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얹혀 지금

의 내가 된 것일 것이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이란 없다.

그래서 풀어낼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아주 사소한 상처가 나를 움아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커다랗다고 생각한 것 뒤에 가려, 나를 이 자리에 붙들어놓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2.4

상담을 받고 카몽(♥)에 가서 노트북을 붙들고 아빠 노래를 대충 작곡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빠 힘내세요’의 코드 진행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 많이 어렵지 않았다. 다만 뭔가 흔한 노래같이 들려서, 부분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웬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한 부분들도 있다. 왜 그런 걸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계속 수정해야 할 것 같다.

2.5

아빠 노래 수정했다. 앞부분이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 듣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후렴 부분은 나름 괜찮은 것 같다. 브릿지를 2절 후렴 끝나고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브릿지는 아직 가사를 안 썼다. 브릿지도 가사를 빨리 짜야할 것 같다.

아빠 노래 수정하느라 다른 노래는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2.6

아빠 노래를 나름 만족스럽게 수정했다. 이제 브릿지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아까 피아노를 치다 우연히 한슬이 노래 악상이 생각나서 대충 앞부분을 짜 봤다. 한슬이랑 나랑 젓가락 가지고 싸우던 게 생각나서 가사도 대충 짓고 막 불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대로 쓰려고 한다.

2.10

오늘 상담에서는 내가 방학동안 쓴 몇 개 안 되는 일기를 보여드렸다. 조금 두려웠다. 정말 내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일한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게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다. 하지만 내 생각은 부끄럽지 않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부끄러움이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고 나니 별 거 아니었다. 썸도 그냥 예술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반응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일기장을 보는 건 여전히 싫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크지 않았나 싶다.

상담이 끝나고 내 글을 썼다. 생각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글도 정리가 안 되고, 도저히 감도 안 잡히던 글이었는데 일기-상담-논문 순서로 차차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많이 뿌듯했다. 논문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싶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결국 논문이니까. 이제 노래 짓는 것만 남았다!!!!

2.11

저번에 막 녹음해놔던 한슬이 노래를 대략 완성했다. 멜로디를 대충 짰는데 괜찮게 나와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가볍고 밝은 분위기여서 대박 편했고 부르기에도 편한 것 같다.

2.13

알바를 갔다 와서 한슬이 노래 가사랑 뒷부분을 수정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슬이 노래 가사 너무 잘 쓴 듯.....ㅎ 뒷부분은 두 키 전조되도록 수정했다. 좀 다이내믹(?)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았다.

2.14

알바 끝나고 카몽에 갔다. 카몽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감의 원천인 것 같다.....!ㅎㅎ가서 엄마 글을 조금 수정하고, 내 글도 조금 수정했다. 글을 계속 수정하게 된다. 곡을 수정해야 될 시간인데.

2.17

집에 와서 피아노를 편하게 쓸 수 있다!!!

엄마 노래는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난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계속 이것저것 쳐보고, 조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가사가 안 떠오른다. 마음에 딱 들어오는 가사가 없다. 그래서 내 노래를 했다.

내 노래는 만들고 나니까 약간 서영은 분위기가 난다. ‘웃는 거야’ 같은....? 좀 희망차고ㅋㅋㅋㅋㅋ 뭐 해봐, 이런 가사가 주라 그런 것 같다. 멜로디도 약간 비슷한...가.....? 똑같은 곡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2.18

내일부터는 설 연휴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내 노래를 다 끝냈다. 중간 브릿지 부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웬지 흔하지 않은 멜로디와 방식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가사도 마음에 들고. 뒷부분은 웬지 팡 터뜨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애드리브로 지르는 걸로 정하고,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하도록 설정해두었다.

2.24

갑자기 노트북하다 엄마 노래가 생각나서 막 했다. 앞 부분 가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차차 수정하면 될 것 같다. 전체적인 멜로디나 후렴은 마음에 든다. 하다 쉬다 하다 쉬다 머리를 정화시키면서 해서 그런지 정리가 잘 됐다. 다음에도 한꺼번에 막 하지 말고 하다 쉬다 해야지. 아무튼 엄마 노래를 했는데, 엄마 노래에도 내 노래처럼 중간 브릿지에서 전조가 된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뭔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건가. 찢든 엄마 노래도 만족스럽다.

2.26

집에 내려왔다. 충주에서 오면서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했다. 속에만 담아뒀던 많은 걸 말했다. 내 감정에 대해 이렇게 쏟아놓은 적은 처음이라 신기했고, 또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그래도 좋았다. 후련했다. 신기했다.

엄마랑 얘기하다 살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가사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막 썼다. 엄마가 밥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17년 동안 밥을 하고 살았다고 한 말을 가사로 그대로 옮겼다. 노래가 잘 나와서 이제 기보만 다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작품일지는 더 안 써도 되는 건가ㅎㅎㅎㅎㅎㅎㅎㅎ반주만 열심히 연습하면 바로 가서 공연할 수 있겠지? 가족 공연은 월요일 제삿날로 잡았다. 빨리빨리 공연 다 하고 평가 받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해야겠다!!!

3.2

가족 공연을 했다. 엄마가 울었다. 아빠는 약간 울 듯 말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한숨이 글을 읽으면서 눌러뒀던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이 막 나왔다. 슬펐다. 그리고 기뻐다. 반주가 잘 안 돼서 아쉬웠다.

3.3

반주 연습이 잘 안 된다. 학교 공연을 해야 하는데 반주가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이야. 민혜쌤하고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3.4

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개똥망했다.....반주가 진짜 후하 완전 망했어.....그래도 노래는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완전 후회된다.

3) ♥

함께 고생한 콩자반, 민혜쌤, 상현쌤, 그리고 논문 세 편 봐준 기분이라던 정환쌤. 내 노래 좋다고 해 준

많은 간디인들과 평가 열심히 해준 간디인들, 내가 올린 공연 영상 공유해주신 분들, 개인적인 일인데도 리트윗 해준 트친들과 그 외 여러 사람들, 또 잘 모르는데도 열심히 듣고 댓글 달아준 네티즌 2분, 마지막으로 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가족들(야무랑 방울이도!). 모두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전혀 모르지만)나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었던 내 님들♥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

내 생각을 담은 글 모음집 만들기

지도교사: 박상현



이름: 이지민

생일: 1999년 10월 26일

소속: 나무밥, 기지개, 여우하품

좋아하는 것: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보며 쉬는 거,
새벽까지 좋아하는 책 보는 거, 늦은 저녁에 산책하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새벽에
혼자 라디오 듣는 거, 본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 루비스팩스, 인셉션, 김종욱찾기, BBC
Sherlock, 오!나의귀신님, 갈색, 초콜릿, 단거, 빵, 과일, 기능적인 거, 지적인 거

싫어하는 것: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 더위, 너무 추운 거, 다리 많고 빠른 벌레,
초조한 거, 쪽팔린 거, 물건 잃어버리는 거, 뭔가 잊어버리는 거, 너무너무 뻘하고
오글거리는 상황

한줄후기:

수고했어, 어떻게, 결국 책 완성했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글을 쓰기 전에
 - 1) 수필이란?
 - (1) 수필이란?
 - (2) 수필의 역사
 - (3) 수필의 종류
 - 2) 도움을 준 책, 강의 및 만남
 - (1) 수필집
 - (2) 강의
 - (3) 만남
2. 나의 글쓰기
 - 1)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
 - (1) 제목과 목차
 - (2) 작품
 - 2) 진행과정
 - (1) 책 펴내기
 - (2) 일지
 - 3) 나누기
 - (1) 인터넷에 글 올리기
 - (2) 독자단의 평가
 - (3) 독자와의 만남

III. 결론

1. 후기
2. 고마운 사람들~!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옛날부터 책을 좋아했고 언젠가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게 어려워 보여서 써보지 못했다. 16살이 되어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도 많아졌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졌다. 이 생각을 어딘가에 글로 기록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논문이 생각났고 '논문으로 내 생각을 표현한 글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을 <혼자 서기>, <세상>, <짜증 '나'>, <일상>으로 나눠 글을 쓰고 그 것을 책으로 묶어 낸다.

2. 연구방법

<참고서적>

반통의 물/나희덕/창비

그건 사랑이었네/한비야/푸른 숲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이문재/호미

<기타>

나희덕시인님 인터뷰

이안시인님 인터뷰

교육 공동체 나다 중고등부 인문학 인문 강의

간디인들의 평가(독자단의 평가), 간디인들과의 만남(독자와의 만남)

II. 본론

1. 글을 쓰기 전에

1) 수필이란?

(1) 수필이란?

어떤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서정이나 사색과 성찰을 산문으로 표현한 문학이다. 수(따를 隨) 필(붓 筆)은 그 뜻대로 '붓을 따라서, 붓 가는 대로 써놓은 글'이다. 무형식이고 글의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필은 그저 담수(淡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본 인생이나 자연을 자유로운 형식에 담은 산문이다. 인생을 통찰하고 달관하여 서정의 감미로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지성의 섬광이 번득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수필은 독자의 심경(心境)에 부딪치기도 하고 사색의 반려가 되기도 하여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하고, 철리(哲理)의 심오한 명상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 서정이 어린 지성의 섬광이 바로 수필의 특성인 것이다.¹⁾

(2) 수필의 역사

수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중국 남송(南宋) 때의 사람 홍매(洪邁)였다. 홍매는 《용재수필(容齋隨筆)》(74권 5집)의 서문에 "나는 버릇이 게으러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으나 뜻하는 바를 따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써 두었으므로 수필이라고 한다"라고 썼다.²⁾

수필이라는 말에 흔하게 대신 쓰이는 에세이(essay)는 프랑스의 몽테뉴가 처음 썼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에세이는 프랑스어인 에세(시도, 시험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몽테뉴의 『수상록』 원제목이 바로 에세(essai)이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2) 두산백과 참조

우리나라 수필의 역사는 한문수필, 국문수필, 근대수필로 나눌 수 있다. 한문수필은 고려에서 조선말까지의 모든 수필을 말한다. 국문수필은 훈민정음 창제이후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쓰여진 수필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문학이 흥성해진 이후 기행문, 일기문 형식의 수필이 많은 것이 국문수필이다. 근대수필은 지금의 수필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기다. 처음에는 단상이나 일기, 기행 등의 형태가 많았으나 후에는 수필잡지도 생기고 수필이론도 생겨서 현재 수필의 형태가 나왔다.

(3) 수필의 종류

수필은 무한한 제재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몽테뉴형의 경수필(輕隨筆)과 베이컨형의 중수필(重隨筆)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경수필은 신변·사색·서간·기행수필 등이며, 대개가 주관적·개인적·사색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서 ‘개인적 수필’이라고 한다. 개인적 수필은 비교적 가벼운 형식으로 개성이 강하게 노출되고, 신변적인 것을 정서적·시적으로 표현하는 주관적·사색적 유형으로서, 이양하(李敷河)·이희승(李熙昇)·피천득(皮千得)·양주동(梁柱東) 등의 많은 수필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수필은 문장의 흐름이 가벼운 느낌을 주고, 표현이 개인적·주관적이며, ‘나’가 겉으로 드러나고, 개인적 감정이 정서로 짜여져 시적이며 신변적이다. 그러나 개인적 수필은 자칫 신변잡기나 지나친 자기노출에 기울어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필은 지성에 바탕을 두고 신비적·정서적인 이미지로 감싸질 때, 철학성과 예술성을 아울러 갖춘 수필문학이 될 것이다.

중수필은 과학·철학·종교 등 주로 사회적인 관심과 객관적·경구적(警句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사실, 사회나 문화에 대한 비평을 사색적으로 서술하고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학자·사상가·교육자 등에 의해 쓰여 진다. 주로 사회적인 수필, 즉 김진섭(金晋燮)·김태길(金泰吉)·안병욱(安秉煜) 등의 수필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수필은 문장의 흐름이 무거운 느낌을 주고, 사회적이며,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보편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짜여져 있어 소논문과 흡사하며, 지적·사색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필은 정서가 메마른 지식의 나열이나 설득과 경구의 과다로 흐르기 쉽다.

여기서 수필의 두 유형이 서로 견인, 조화하여 개인적·정서적 이미지와 객관적·지성적 논리를 함께 함으로써 ‘지성에 바탕을 둔 신비적·정서적 이미지에 의한 문학’이 되어야 한다.³⁾

2) 도움을 준 책, 강의 및 만남

(1) 수필집

수필집이나 산문집, 에세이집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는 나이에 몇 권의 수필집을 읽었다. 수필집은 짧은 글들이 여러 편 있다 보니 다 읽지 않고 수필의 느낌을 보기 위해 몇 편씩 읽은 책도 있다.

<그건, 사랑이었네/한비야/푸른숲>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서점사이트에서 수필집들 중 많이 팔린 순위 10위안에 드는 책들을 뽑아봤다. 그 책들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다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을 고르게 됐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로 유명해진 한비야는 국제구호개발 NGO단체 월드비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활동가였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를 바탕으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잘못된 전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우는 구호단체다. 한비야가 간 나라들은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들이었다.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에 간 한비야는 밝은 에너지가 짝찬 사람이다. 그 에너지로 한비야는 구호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도 많이 썼다.<그건, 사랑이었네>에서는 한비야가 행복해지는 방법, 절망했었으나 절망을 딛고 일어난 것 등을 말해준다. 청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을 통해 한비야를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떠한 일에 절망해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것 같다. 한비야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공감되고 힘이 되기도 했지만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문체가 명령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다. 너무 직설적이고 권고하는 것처럼 말하면 독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통의 물/나희덕/창비>

이 책은 나희덕 작가님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다. 나희덕 작가님은 시인이시지만 이 책을 비롯해서 두 권의 수필집을 내셨다. 시인이 쓴 산문집이라서 그런지 표현들이 섬세하고 서정적이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며 붉은 노을 봤을 때 느꼈던 노을의 아름다움같이 감상적인 것들을 독자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쓰여 있다. 강요하지 않고 작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로 묘사한다. 그 에피소드들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도 작가의 생각을 공감하고, 글을 공감하게 된다.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에피소드들이 서로 내용 연결이 잘 안되서 글의 메시지를 잘 알 수 없을 때도 많았다. 비록 글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작가가 이야기해준 그 에피소드들 하나 하나가 좋았다. <반통의 물>은 독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들지 않기는 했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이문재/호미>

이 책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나에게 선생님이 내가 쓰려고 하는 수필의 내용을 들으시더니 추천해주신 책이다.

이문재 시인은 기자이시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문재 시인이 생각한 것들이다. 이문재 시인은 대중매체에 문인, 시인, 지식인이 칼럼을 쓰는 것은 대중매체에 일기를 쓰는 것이라 한다. 시인은 대중매체에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원고청탁들을 다 받으려 했고 그렇게 여기 저기 실린 글들을 한데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처음으로 읽은 수필집이다. 처음으로 읽은 수필집이지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았다. 차례가 나는 아날로그다, 몸의 노래, 미래 주의보, 이 음식이 어디서 오셨는가. 로 나뉘어져 있다. 차례만 봐도, 아니 사실 제목만 봐도 책의 느낌을 알 수 있다. 제목을 속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다. 제목의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바쁘다. 하루 종일 일하거나 공부한다. 하루 종일 바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못한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루 종일 바쁘지만 게으른 것이다. 이 책에는 게으른 사람들과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은 마구 죽이는 요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아져서 이 책을 읽으며 격하게 공감했다. 나도 도시에서의 삶을 보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왜 도시에서의 삶이 이상한 건지 꼭 집어 말하지는 못했다.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 건지 말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 이야기가 있다.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역까지 조금 걸어가야 한다. 역의 출구로 가는 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의 한 쪽 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을 지나갈 때는 불쾌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난 이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왜 이 건물이 아닌지, 뭐가 아닌 건지 알지 못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채와 에어컨」에서 나는 실외기가 잔뜩 달려 있는 건물이 뭐가 아니라고 아닌 건지 알 수 있었다.

에어컨을 쓰려면 문을 닫아야 한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면 실내는 시원해지지만 실내에 있던 더운 공기는 전부 밖으로 빠져나간다. 에어컨이 생필품이 아니었을 때는 모두 문을 열고 개방적인 상태에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음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된다. 에어컨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었다(아니면 배타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에어컨을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또 실외기를 통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는 것 또한 배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는 유명해서 모두들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에어컨을 써서 문을 닫고 환경을 파괴시킨다.

평소에 나는 환경을 생각하고 개인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어서 실외기가 잔뜩 달린 건물이 켈켈롭게 느껴진 것이었다. 켈켈롭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이 책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내가 왜 실외기를 보고 불편해하는지 알게 됐다. 나는 실외기를 보며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것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에어컨뿐만이 아니다. 돈에 너무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며 든 생각은 「별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버는가」를 보며 더 깊어졌고 도보에 대한 생각은 「건기에 대한 명상」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변했다.

책에 나오는 글들이 모두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좋았다. 주로 시인이 경험하신 것이 많아서 이해하기 쉬웠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의 삶도 많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로선 자연에 가까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초갓집에 살고 우물을 쓰는 일. 21세기에 태어난 나로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어른이 써서인지 등목, 직장, 여행, 동창회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인의 생각을 얘기하니 읽기 편했다.

처음으로 읽는 수필집이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읽다보니 그냥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시인의 얘기와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좋았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나보다 한 발 아니 여러 발 앞서서 고민하시는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일상에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인의 글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2) 강의

<나다>

방학을 이용해 논문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려 했다. 글쓰기를 한번도 배워보지 않아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는 강의를 들으려 했다. 강의를 찾아봤지만 나에게 맞는 강의는 없었다. 청소년 대상 글쓰기 강의면 형식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논술 강의를 대부분이었고 성인 대상 글쓰기 강의는 일에 지친 성인들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쓰는 자전적 글쓰기나 입사 원서 글쓰기 같은 서류 글쓰기 강의를 대부분이었다.

글쓰기를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글쓰기 강의를 들으려고 했으나 나에게 맞지 않는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글쓰기 강의를 듣지 않기로 했다. 글쓰기 강의 말고 생각을 넓혀서 글감 얻는 걸 도와줄 강의를 찾아봤다. 인문학,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로 강의를 찾다 ‘교육공동체 나다’라는 단체에서 여는 방학특강을 찾게 됐다.

나다는 불평등한 사회를 교육이 유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교육공동체다. 나다의 단체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말이다. 나다는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말하는 ‘나다’는 스스로 생각하여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만의 언어로 ‘나는 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공동체 나다는 2000년도에 ‘철학교실 나다’를 열면서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 교육공동체 나다의 로고.

나는 나다에서 여는 방학특강 중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2차’를 들었다. 강의는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진행되었다(8월4일~8월8일). 강의는 변중용선생님이 해주셨고 학생들은 대체로 15명 내외로 왔다. 인문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막연하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강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다에서는 모두 서로에게 반말을 쓴다. 학생들이 쌤들을 부를 때도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이나 이름을 부른다. 그만큼 편한 분위기로 강의는 진행됐다. 한 강의시간마다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다. 1강은 <우리는 왜 꿈꾸

지 않는가?: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이고 2강은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3강은 <대중문화, 가린 것을 벗기고 숨긴 것을 드러내다>, 4강은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5강은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이다.

주제가 정해져 있었지만 강의 내용은 주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다 떠는 것처럼 편하게 진행됐다. 1강에서는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얘기해주셨다. 인문학은 세계관을 다듬는 과정이고 거리를 익히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민이는 풀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민이와 풀 사이의 연관성이 바로 ‘거리’다. 이 거리를 읽는 것이, 세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읽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

2,3,4강에서는 환유, 문화, 광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환유란 무언가 하나로 전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은유의 한가지 방법 중 하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유가 있다고 한다. 부모님 몰래 새벽에 몰کم하는 학생들도 하나의 환유라고 하셨다. 이 상황은 아이들에게 놀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공부만 시켜서 아이들을 성능 좋은 기계로 만들려는 우리 사회의 환유다.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나라에 특이한 전통문화가 생긴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긴 것도 이유가 있다. 보릿고개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고도 살아있는 동물이 개박에 없어서 무더운 여름을 버티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이렇듯 문화를 보면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광고 또한 지금 우리사회의 무의식을 자극시키는 것이어서 숨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변쌤은 인문학이란 거리를 익히는 것이라고 하였고 문화, 광고 등에 숨어있는 우리사회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여주신 변쌤은 마지막 날에(5강) 영화 <매트릭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변쌤은 우리에게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에게 시스템의 진실을 알게 해주는 빨간약과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파란 약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간약과 파란 약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거냐고 물어보셨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 모두 돌아가면서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다. 쌤은 5일 동안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사회의 진실을 얘기해주셨고 우리에게 앞으로 사회의 진실을 알려고 할 것인지 모르는 척 할 것인지 물어보셨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강의였다. 사실 처음 이들은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았다. 강의 때 변쌤이 말씀하시는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학교를 다니며 쌤들께 수다처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가 지루했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강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틀째날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쌤이 강의가 끝날 때마다 나눠주시는 유인물을 처음 읽어봤다. 유인물은 강의마다 정해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변쌤이 직접 쓰신 글이다. 유인물은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회현상의 숨은 의미를 콕콕 집어냈다. 예를 들어 tv광고가 있다. 나는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tv광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었다. 광고가 가족이 화목하려면 tv가 꼭 있어야 한다고 내게 물질만능주의를 속삭이고 있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의 의미를 변쌤의 글은(유인물) 콕콕 집어냈다. 유인물을 읽기 전까지는 강의가 내가 흔히 듣던 사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유인물을 읽고 나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의는 단순히 사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 곳곳에 숨어서 우리에게 불평등을 부추기는 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사회의 부조리한 사람들이 광고나 우리의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작은 문화나 매체에서도 돈많은 사람들이 우리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순간 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에 대해서만 글을 썼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전보다 많이 사회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됐다.

(3) 만남

<나희덕시인님 인터뷰>

시인님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글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썼다. 지금까지 내가 쓴 글들을 읽어보고 나니 내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전문 작가를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가와의 인터

뷰를 하기로 했다. 작가를 고민하던 중 비교적 가까운 작가 분을 알게 됐다. 08학번 홍지인언니의 어머니 이시자 시인이신 나희덕시인님을 알게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다. 몇 번의 연락이 오간 후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8월 22일 금요일, 토지문학관에서 1시간 가량 시인님과 얘기를 나눴다. 시인님께 미리 메일로 질문지와 내가 쓴 글을 몇 편 보내드렸었는데 너무 바빠서 내가 쓴 글은 못 보셨다고 한다.

1. 저는 소설책은 많이 읽어봤는데 시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은유가 많은 시가 좀 낯설어요. 시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시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소설은 이야기가 있어서 쉽고 시는 함축적이고 은유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시의 매력이에요. 논리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은유로 풀어내는 것이 시의 매력이에요.

2. 전 책을 읽다보니까 자연스레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논문주제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참에 한번 열심히 써보자!’해서 지금 열심히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글을 쓰게 되셨나요?

→중학교에서 수업으로 시 한편을 읽게 되었는데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시를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시를 쓰게 됐어요.

3. 저는 다른 사람이 제 글을 읽고 공감해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글을 쓰신다는 것이 언제 가장 좋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쓴 시를 읽고 공감하거나 힘을 얻거나 지혜를 얻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글 쓴다는 게 제일 좋을 때는 그냥 글을 쓸 때예요. 글을 통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작가들은 그냥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글 쓰는 것이 좋아요.

4. 글에는 제 철학이나 가치관이 담겨있어요. 근데 ‘나는 과연 글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을 살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글과 현실을 완전히 같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요. 돈과 명예, 권력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 있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글이 삶을 옥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문학과 삶과 분리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생각을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가들 중에는 현실도 글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아닌 작가들도 있어요. 작가들마다 많이 달라요.

5. 저는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글로 많이 써요. 그런 글을 쓸 때 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꽤 어려웠어요. 꼭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글을 써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작가님의 ‘나는 지금 골목에 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서 너무 빨리 개발되는 속도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어요. 그런데 개발은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문은 논리적인 근거와 사례로 다양한 시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예요. 논리적으로 공박을 당하지 않게 자신과 다른 시각의 비판도 생각하면서 써야 해요. 그런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글에서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말하는 과정이나 태도를 잘 생각해서 써야 해요.

6. 저는 글을 쓰기 싫을 때는 글을 조금도 못 써요. 작가님도 글을 안 쓰고 싶거나 잘 안 써지는데 써야 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시간에 쫓겨서 쓰셔야 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이 잘 안 써지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취미로 글을 쓰면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안 쓰고 싶을 때는 안 써도 되요. 하지만 직업이 작가가 되면 청탁이 들어오는데 청탁을 받으면 기간과 약간의 틀이 정해져 있는 글을 써야 해요. 이렇게 전문 작가가 되면 자신의 내면리듬과 상관없이 글을 써야 해요. 청탁을 받았는데 글이 안 써진다면 나쁜 작품을 만들어서 주기보다 펍크를 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작가가 되면 자기관리를 해야 해요. 나쁜 작품을

내면 작가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써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청탁을 펑크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글이 잘 안 써질 때 산책, 텃밭, 여행, 바느질 등 머리를 비우는 단순한 일을 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것도 생각나요. 단순한 일을 통해 머리를 비우며 잘 쉬는 것도 작가에게는 하나의 노동이에요.

7. 저는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단순한 오타, 어색한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의 어색한 연결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작가님은 퇴고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요?

→퇴고는 하나의 글에 10~20번 정도는 해야 해요. 시의 경우 그때 그때 생각나는 구절을 메모해두고 나중에 그 구절들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요. 시는 원래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의 의미를 주는 것이어서 시가 완성되면 시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줄이는 작업이 바로 퇴고죠. 퇴고는 글에 뭔가를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고 글에서 불필요한 언어들 빼는 과정이에요.

저는 시를 쓸 때 생각나는 구절을 노트에 써요. 그리고 시의 배열이나 낱말을 고민해서 몇 번 바뀌어서 노트에 써봐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노트에 썼던 시를 인쇄해요. 인쇄한 원고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고쳐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언제나 원고뭉치가 있죠.

어렸을 때는 순간 순간 떠오르는 강렬한 감정들에 대해서 써서 시가 제법 빨리 완성됐어요. 요즘에는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들도 별로 없고 생각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져서 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가 돼서 제 스스로 문학의 기준도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쉽사리 시를 못 내놓게 되요.

퇴고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한 문장가가 한유라는 중국시인과 마주했는데 알은 체도 안하고 계속 길을 막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유가 그 문장가에게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냐고 물어봤죠. 그 문장가가 고민하던 것은 시에서 밀 퇴(推)자를 써서 문을 민다고 할지, 아니면 두드릴 고(敲)자를 써서 문을 두드렸다고 표현할지였어요. 그 고민을 듣고 한유는 두드릴 고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글을 고치는 작업이 퇴고가 됐다고 하네요.

8. 제 글을 읽어보신 논문 지도 선생님(박상현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의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부족하다. 글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쓰기보다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해 봐라. 글이 좀 산만하다 등 등... 저도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글이 좀 산만해보였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글의 형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 형식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의 메시지를 드러내놓고 독자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글에 나오는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보여주면 저절로 글의 메시지를 알게 되요. 저자가 글의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면 독자도 어느새 저자와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요. 산만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산만하다는 것은 일종의 자유예요. 산만하다는 것이 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으로 갔다가 저 내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한 거라면 안되죠.

9. 글이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도구 같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비유적인 표현을 습관적으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자식들은 많이 힘들다는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틀에 들어가기 위해 고유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고통을 참기 위해 자식들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유를 쓸 때는 비유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 조심해야 해요. 비유가 전체적인 글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지, 글 안에서 비유와 비유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하나의 글 안에서 비유와 비유가 충돌하면 비유를 안 쓰느니만 못해요. 비유를 잘 쓰려면 독자가 비유를 읽을 때 비유라는 느낌조차 없게 써야 해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비유를 쓰려고 멋있는 문장을 막 써요. 근데 처음에는 멋있는 문장을 쓰기보다는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아요. 비유는 적절한 자리에 들어가야 해요. 어설픈 비유가 들어간다면 글이 실감나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 어설픈 비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빼는 것이 좋아요.

10. 끝나고 해주신 말씀

글쓰기에서 내용과 형식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 글은 내용과 형식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쓰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충분히 생각했을 때 형식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글이 산만하고 잘 안 써진다면 내용이 충분치 않은 지민이에게는 글을 쓸 주제가 아닌 엉뚱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글을 쓸 때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작가가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해요. 지민이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충분히 고민하고 가장 절실한 것,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을 써야 해요.

독서를 많이 하면 글 쓰는데 도움이 되요. 책을 읽을 때 조금 의식하면서 읽어야 해요. 이 작가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풀어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렇게 여러 내용의 책을 의식해서 많이 읽다보면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은 어떤 형식을 써야 하는지 바로 감이 와요.

그리고 한번에 글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안되요. 그건 욕심이에요. 꾸준히 글을 쓰면 좋아요. 모닝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제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무 대상이나 잡고 수첩 한 쪽을 다 채우는 글을 쓰는 거예요. 모닝페이지를 통해 나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에 대상에도 거품 같은 치워야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모닝페이퍼를 통해서 그런 거품 같은 생각들을 모두 토해내면 대상에 대한 나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요. 그렇게 모닝페이지를 꾸준히 하면 모닝페이지가 하나의 생각저장고처럼 되요. 대상에 대한 오만가지 생각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 문장만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모닝페이지 같은 꾸준한 글쓰기를 하면 좋아요.

작가님과 인터뷰를 끝내고 나자 머릿속이 복잡했다. 작가님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글의 형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의 얘기를 듣자 내가 너무 형식에 연연했다는 걸 알게 됐다. 내 글에 형식이 별로 없다는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 대신 왜 나는 글을 써야 하는가 등의 복잡한 고민이 머릿속을 채웠다. 작가님을 만나서 형식에만 연연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작가들의 글쓰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로 작가를 뵙는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작가님이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을 만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고 온 것 같다. 좋은 시간이었다.

<이안 시인님>

여름방학 때와 2학기 때 열심히 글을 썼으나 독자들에게 내가 글에서 하려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독자들에게 내가 하려는 말이 잘 전달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글쓰기에 답답함을 느껴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시는 작가님을 만나서 글을 쓴다는 것, 글 등에 대해서 인터뷰까지는 아니어도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다. 그래서 산청간디학교 교장선생님이자 시인이신 남호섭시인님께 연락을 드렸다. 연락을 드렸더니 남호섭시인님은 나에게 충주에 계시는 이안시인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이안 시인님을 뵙기 전에 내가 궁금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 스스로 정리하고 내 글을 전부 인쇄해서 가지고 갔다. 이안 시인님과 연락해서 10월 4일 토요일에 뵈었다.

이안 시인님은 1999년 『실천문학』에 「우주적 비관주의자의 몽상」 외 4편의 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 동시집 『고양이와 통한 날』과 시집 『치위라, 꽃!』, 『목마른 우물의 날들』등을 내셨고 현재 동시 잡지 동시마중을 펴내고 계시다.

이안 시인님께 우리 학교의 논문, 내가 논문으로 글을 쓰는 것 등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드렸다. 이안 시인님께 글이 잘 안 써져서 답답한 나의 마음과 시인님께서 하나의 시를 완성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여쭙 뵈고 시인님은 내 글도 보시면서 글을 쓰는 방법 등을 이야기 해주셨다.

<해주신 얘기>

1. 글을 쓰는 방법

글을 쓸 때는 내가 이야기 하려는 것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이 산만하고 어지러워지기 쉽다.

글을 쓰기 전에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글은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글은 읽기 쉽고 위로해 주는 글인 경우가 많다. 법정스님, 박

완서, 김영하, 권정생 선생님 등이 있다.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글을 쓸 때는 글감 정하기, 개요 짜기, 쓰기, 퇴고하기. 총 4단계가 있다.

글감 정하기. 글감은 한 순간이라도 내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내가 코스모스가 많이 생각난다면 코스모스에 관해서 무엇을 쓸지 고민해봐야 한다. 처음엔 코스모스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코스모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읽어봐야 한다. 꽃말에 대해서, 또는 코스모스에 관한 시 등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다. 자료마다 코스모스에 대한 나름의 시각이 있다.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각, 코스모스에 대한 나의 시각이 생길 것이다. 코스모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지, 글감이 정해지는 것이다.

글감을 정했다면 개요를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에 꽃말을 먼저 말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모스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먼저 말 할 것인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글의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글의 구성을 만들고 나서 글을 쓴다.

글을 쓰고 나면 글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 번 고쳐야 한다. 글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글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들이 글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지, 이야기가 너무 긴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고쳐야 한다. 소리 내어 읽어봤을 때 자연스러울 정도로 글을 고쳐야 한다.

2. 내 글을 봐주시면서 해주신 이야기

내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봐 주시고 몇 편은 펜으로 써주시기까지 하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셨다.

‘종북좌빨’이라는 글에 관해 이야기 해주셨다. 국정원소모임에 관한 이야기로 도입부분을 썼는데 너무 길고 외부 사람들은 국정원 소모임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도입 이후에는 종북좌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하는 두 문단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후에 비교적 짧게 두 문단 정도에서 현안(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온다. 앞에 도입이 너무 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끝에 나오기는 하지만 너무 짧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다. 글이 너무 극단적이고 단정적이다. 모든 일반학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니 부모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글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도 한다.

시인님이 글을 나눠 보면서 고쳐 보라고 하셨다. 제목을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21세기 아이들’ 이런 식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문장을 나눠보면서 문법이 맞는지 자연스러운지 보기도 하고 문단마다 끊어서 제목과 비교해서 읽으면서 제목과 잘 어울리는지 필요 없는 내용은 아닌지 생각해보기도 해보라고 하셨다.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서 글이 산만한 것이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으라고 하셨다.

3. 시인님의 이야기

시인님은 한편의 시를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어 봤다. 짧게는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셨다. 또 40년 전 기억과 느낌이 지금에서야 시가 되기도 한다고 하신다. 한편의 시를 완성하기까지 30,40번 정도 고치신다고 한다.

글을 쓸 때 느끼는 어려움에 너무 답답했었다. 그런데 시인님이 나와 몇 마디 해보시지도 않고 나의 답답함을 바로 알아차리시고 글쓰기에 관해 이야기해주셔서 깜짝 놀랐다. 내가 답답해했던 부분을 딱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시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제대로 된 단계를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로 글을 써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글을 시인님이 이야기 해주신 방식대로 써 본 적이 없었는데 정리된 글을 쓰기 위해선 시인님이 이야기해주신 방식으로 글을 써보기도 해야 할 것 같다. 시인님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알게 되서 좋았다.

시인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주시고 내가 딱 궁금해 했던, 답답해했던 부분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다.

2. 나의 글쓰기

1)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

(1) 제목과 목차

책의 제목은 책의 내용을 대표하는 말이다. 내가 쓴 글들은 16살인 내가 생각한 것들이다. 16살과 내가 한 생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16살, 나의 생각지도/16살의 공책/16살의 흔적/16살의 생각/16살, 생각하다/생각하다/16살, 내 머릿속 등 많은 제목들을 생각해봤지만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딱딱한 제목이긴 하나 내 글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대표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제목으로 정하게 됐다. 제목 그대로 16살 때 내가 했던 많은 생각들을 말한다.

내가 쓴 22편의 글을 혼자 서기, 세상, 짜증 '나', 일상으로 나눴다. 혼자 서기는 내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금씩 혼자 서기를 하면서 느끼는 힘든 것 등을 이야기한다. 세상은 중학교에 들어오고 부쩍 관심을 갖게 된 사회문제나 시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이야기한다. 짜증 '나'는 내가 나에게 느끼는 짜증나는 부분(성격 등)을 이야기한다. 일상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다.

<혼자 서기>

독립

넌 꿈이 뭐야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집 코너

영화 속 이야기

찰리 채플린

<세상>

종북좌빨

가족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인간-생각=정돈된 현대사회

조그마하고 느린 것

<짜증 '나'>

뒤통땅김

무기력하다

오지랖

주여

짜증이 막

있는 척, 아는 척, 착한 척

<일상>

삼남매, 민남매

시간

하루를 후딱 보낼 수 있는 것

슬픔의 과정

(2) 작품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여러 매체에서 자식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부

모, 그런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부모들은 좋은 뜻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만 자식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켜서 부모를 미워한다.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사랑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모와 자식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고 부모를 미워만 하는 자식들도 안타까

왔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불편한 것 등을 말하고 부모와 소통하면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없어지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과 부모가 소통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어쨌든 자신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인데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공부를 억지로 해서 괴로워하는 자식들이 안타까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 돈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 억지로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학생시절의 경험으로 돈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들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글을 쓰고 보니 글에서는 정작 내가 하려는 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드러난 글을 쓰기 위해 글을 여러 번 고쳐보려고 했다. 하지만 글을 고치려고 할 때마다 글을 고치지는 못하고 글을 새로 쓰고 말았다.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나 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건만 마지막으로 고친 글도 내가 하려는 말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속상했다. 이 글을 고쳐보겠다고 이 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탓에 내가 쓴 글들 중에서 이 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가족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을

보고 문득 의문이 들었다. 가족이 있어야만 하나?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굳이 가족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에 꼬리를 물어 가족에 대한 의문은 더 많아졌다. 가족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궁금해져서 가족의 역사도 조사해봤다. 가족의 역사도 조사해보는 등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국 가족은 한 인간이 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처음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가족이 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근데 실은 나조차도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으려 하니 힘들었다. 대부분의 이야기와 다르게 가족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못 쓰게 되어서 아쉬웠다.

넌 꿈이 뭐야

아주 옛날부터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다. 나

는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나 끈기가 부족해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넘겨버린 것은 아니었던 건지 항상 불안했다. 옛날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것은 큰 고민이었다. 그런 고민과 불안이 쌓여서 이 글로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써서 그런지 술술 써졌다. 쓰고 나서 보니 나의 뉘두리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만족한다.

독립

오랜만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었다. 원인은 말투

였다. 부모님은 말투가 나보다 조금 거칠 으셨고 나는 그 말투에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화를 냈고 부모님은 그런 말투도 듣지 못하는 나를 보고 화를 내셨다. 나에게 화를 내시던 부모님은 나의 말투와 부모님의 말투가 다른 것 뿐 화를 낼 일은 아니시라면서 화를 내시지 않고 나에게 ‘이제 우리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라고 하셨고 나는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 말에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이제는 부모님과 내가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 받은 것이었다. 이 다툼을 계기로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이 다툼 전까지 나는 내가 독립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의 독립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투고 얼마 안돼서 이 글을 썼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글을 써서 글이 산만하다. 다 쓰고 보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쓴 것 같아서 살짝 뻘한 느낌이 들었다.

뒷목땡김

간디학교에 들어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뒷목땡김도 있다. 정확히는 목과 머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땡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 것은 두통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긴다고 한다. 어느 날 숙제를 하려 하는데 또 뒷목이 땡겨서 무척 짜증이 나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수다를 떨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뒷목땡김이 사라졌다. 나는 어쩌면 뒷목땡김 나의 무의식적인 피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쓰면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고 역시나 다 쓰고 읽어보니 이 글은 일기 같은 아주 개인적인 글이었다.

무기력하다

학교에 있을 때 자주 몸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

조금도 움직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집에서도 몸이 무거워지고 웹서핑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방학 때 논문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올 때 그런 기분을 자주 느꼈다. 논문이 너무 하기 싫고 웹서핑만 하고 싶었던 방학 중 어느 날 '이런 기분을 논문 글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그래서 '무기력하다'라는 글을 쓰고 있었고 그와 다르게 또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쓰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하기 싫어지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한 글이었었는데 쓰다 보니 '무기력하다'와 비슷한 것 같아서 합쳤다. 하지만 막상 합치고 글을 마저 다 쓰고 보니 친구에게 수다를 떠는 것처럼 두서없고 가벼운 글이었다.

삼남매, 민남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니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의 게으름을 뉘우치고 글을 더 써보려고 하는데 쓰는 모든 글들이 애매모호하고 산만해서 힘들었다. 글쓰기를 힘들어 하는 나를 보고 상현쌤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아주 구체적인 글감인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써 보는 것이 어떨까냐고 하셨다. 상현쌤의 말을 듣고 우리 남매에 대해 손 가는대로 쓴 글이다.

슬픔의 과정

방학 때 쓸 글감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무빙 때

강정에서 우리 학년이 시위를 한 영상을 보게 됐다. 강정에서 느꼈던 분노와 슬픔을 글로 써 봐도 좋겠다 싶어서 그때의 감정을 글로 썼다. 무빙이 한참 지난 뒤에 글을 써서 그때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시간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쓴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분일초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빠빠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다. 시간을 쓴다는 말을 생각해보니 쓴다는 표현자체가 돈을 쓰는 것처럼 딱딱해보였다. 시간을 이 일, 저 일에 쓰지 않고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글로 썼다.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논문을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글감을 찾는 것

도 너무 힘들었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논문이다 보니 할 것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엔 끝에 힘들어하게 됐다. 나 스스로 계획하고 논문을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사람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미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힘든 것이라 힘들 때 탓할 사람도 없었다. 논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일반학교를 갔다면 힘들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할 것을 찾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어른들이 시키는 단순한 문제집 공부만 하면 되니까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공부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으면 어른들을 탓하면 됐다. 배움을 학생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대안교육 말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공교육을 받으면서 어른들이 명령하는 것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나에게 논문을 하라고 시킨 학교가 미워서 정신없이 썼다.

역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하려고 했으나 집

중이 안돼서 무척 괴로웠다. 나는 집중이 안돼서 괴로웠는데 도서관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이 할 일에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이 부러웠다.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나보다 집중을 잘 하는 것 같았다. 대안학교에서 자유롭게 키워서 집중을 잘 못하는 내가 진심으로 일반학교 학생들이 부러운 마음에 글을 썼다. 사실 한 순간 논문에 집중이 안돼서 부러운 마음을 글로 쓴 것이라 논문한풀이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다 쓰고 보니 일기의 한 페이지를 보는 느낌이었다.

영화 속 이야기

영화 속 주인공은 항상 힘든 위기도 넘기며 자신

이 목표한 일을 성공한다. 힘든 위기를 넘기며 결국은 자신이 목표로 한 일을 성공하는 주인공들을 나는 언제나 동경했었다. 그런 영화 속 이야기를 동경했지만 그런 성공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논문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나도 그런 영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논문을 계기로 글쓰기에 성공해서 글을 정말 잘 써서 대단한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 속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오지랖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하시

기만 하면 불안해했다. 신경 쓰지 않고 내 할일만 해도 되는데 불안해하며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항상 불안하게 지켜봤다. 나와 상관없는 것에 자꾸만 신경 쓰는 오지랖에 대해 썼다.

인간-생각=정돈된 현대사회

방학 때 글을 쓰려고 하니 너무 하기 싫고 드라마

나 영화만 보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 글쓰기를 싫어할까 생각해보니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싫어한 것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끔 된 것은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만 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을 별로 해보지 않아서였다. 나는 내가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 이유를 깨닫고 정말 놀라웠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낸 것에 놀라서 이 이야기를 재빨리 글로 썼다.

있는 척 아는 척 착한 척

무엇으로 글을 쓸지 고민하던 중에 ‘허세’가 생각 나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허세’ 각종 있는 척에 대해 썼다.

조그마하고 느린 것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 중에 『반통의 물』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으로 이 책 역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무거운 주제의 글이 많았지만 글이 무겁지 않고 표현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글들이 많았다. 그런 글들을 읽고 있자니 나도 동화 같은 느낌의 글을 써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엄청 필 받고 써서 정신 없이 후루룩 글을 썼다. 다 쓰고 보니 살짝 뻘한 내용 같기는 하지만 내가 하려는 말이 글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만족했다.

종북좌빨

글감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뉴스를 보게 됐다. 뉴스를 보다 보니 작년에 열심히 활동했던 국정원 소모임 때 자주 봤던 종북좌빨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이 글을 쓰게 됐다. 글을 쓰며 다시 한 번 나 스스로 종북좌빨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렸다.

주여

1학기 때 1학년 때부터 5학년때까지의 일기를 읽어주는 한 5학년 언니의 주여를 들으면서 소심한 행동들을 많이 공감했다. 주여를 들으며 나의 소심한 면을 생각하게 된 것을 글로 썼다. 주여를 들으며 크게 공감했던 것, 소심한 나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기 전에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으나 글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다짜고짜 글을 써서 일기 정도의 글이 됐다.

짐 코너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면서 지구에 도움도 되게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는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하는 건지, 꿈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등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을 때 짐 코너라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됐다. 미얀마에서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였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하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강의를 듣고 나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 나는 방법에 너무 연연하고 있었다. 강의를 듣고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글을 쓰게 됐다.

짜증이 막

방학 때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났다. 뭐라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에 짜증나는 심정을 글로 썼는데 깊게 생각한 글감이 아니라서 핵심이 조금 약한 글이 됐다.

찰리 채플린

나는 논문으로 너무 괴로운 데 다른 아이들은 재

밋게 논문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억울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논문을 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논문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단 걸 알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놀라워하던 중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알게 됐다. 내가 우리 반 아이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나서 느낀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글을 다 쓰고 보니 내가 정말 깊이 느끼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하루를 후딱 보낼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글을 써야 한다고 느꼈던 방학 때 드

라마로 하루를 보내는 나를 생각하며 쓴 글이다. 안 그래도 가벼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써서 일기 같은 글이 됐다.

2) 진행과정

(1) 책 펴내기

다 쓴 글들을 하나의 한글 파일로 모았다. 책의 규격은 흔히 하는 a5와 b6 중 조금 더 큰 a5를 선택했다. 글씨체와 줄간격, 여백 등을 검색해서 알아보거나 여러번 설정해서 인쇄해보고 결정했다.

일러스트를 넣는 작업이 꽤 오래 걸렸다. 일러스트를 넣을 글을 정하고 내 나뭇의 콘티를 짰 후, 콘티와 함께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2명의 간디인이 그려주었고 그 그림들의 잡티, 구겨짐, 배경색 등을 포토스케이프, 워드프로세서, 포토샵으로 보정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잘 모르는지라 그 작업이 예상 외로 오래 걸렸다.

표지로 쓸 사진을 찍었다.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느낌으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내 양손이 브이자를 그리고 있다. 사진찍는 것은 동생이 여러번 셔터를 누르며 도와줬다. 밤하늘을 바탕으로 소녀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 그 그림 역시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해줘서 표지로 그림을 쓸지, 사진을 쓸지 고민했다. 결국 표지로는 그림을 썼고 뒷표지에 사진을 조그맣게 넣고 그 밑에 구매를 위한 안내의 말을 적었다.

표지도 정하고 책 본문에 머리말, 차례, 쪽수 등을 넣고 나니 책으로 출간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인터넷인쇄소 모두카피에서 주문을 했다. 주문을 하고 나니 표지시안, 내지시안을 보여주셨다. 내가 예상한 모습이어서 좋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후 책이 제본되어 왔다.

컴퓨터로 하는 보정과 한글파일의 여러 가지 설정, 인쇄소 주문 등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2) 일지

8.5 화

저번주 글 1, 이번주 글 0. 미치겠다. 지금 『그건, 사랑이었네』 쪽글을 쓰는 중이고 나다 강의를 듣는 중이다. 나다 수업은 대안교육적인 게 많아 익히 들은 내용들을 얘기해주신다. 거기다 아이텍에서도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생각한 거리들이 있다. 아직까진 이 정도이다.

8.11 월

어제 한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해서 무려 3쪽짜리 글 완성! 근데 중심을 못 잡고 헤맨 건 아닌지... 내일 다시 읽어보고 고쳐야겠다. 작가와 하고 싶은 얘기도 부실하지만 10개의 질문을 썼다. 내일은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쓰고 2개 더 쓰고 상현쌤과 연락해야겠다.

8.12 화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못 쓰고 ‘조그마하고 느린 것’을 썼다. 나히덕시

인님의 산문집 『반통의 물』을 읽다 필 받아서 쓴 글이다. 시인님을 좀 따라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썼다. 오늘 상현쌤하고 통화해서 이번주 일요일,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하루 만나기로 했다. 만약 내가 어제 전화 드렸으면 오늘 뵈 수 있었는데... 상현쌤과 통화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로 지인언니네 집전화번호를 학생주소록에서 찾아서 전화했더니 지인언니가 받았다. 너무 긴장해서 지인언니한테 안부도 안 묻고 그냥 용건만 이야기했다. 언니 덕분에 시인님 핸드폰 번호를 얻어서 전화 드렸다. 말을 차분하게 하셨다. 토지문학관에 계신데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시고 시간이 다음주 목, 금이 된다고 하셔서 금요일 날 뵈기로 했다. 나에게 작가가 꿈이냐고 하시는데... 좀 부담되고 긴장된다. 토지문학관에 다른 작가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어떤 캠프나 연수를 하시는 것 같다. 긴장된다. 반통의 물을 더 읽고 있는데 아주 좋다.

8.14 목

오늘 상현쌤을 만나고 오니 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 글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없고 내용은 너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 내용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을 별로 안해서 글이 안 써지는 건지,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글을 못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 글은 자기중심적(자기만을 위한 글)이고 산만하다. 글의 단락, 전략 같은 형식적인 면도 보완해야 하고 소재도 찾아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난 망했어’라고 생각하며 덮어놓고 미루면 망한다.

8.15 금

오늘 엄마께 글을 보여드렸다. 잘했고 문체도 마음에 드는데 이 색, 저 색 영킨 실타래같고 글 하나에서 새로운 글감을 뽑아낼 수도 있고 글 하나를 정리하면서 내용을 더 채워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금 글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책의 구성도 고민해보라고 한다. 오늘 usb 정리를 다 했고 앞으로 일주일 계획을 짰고 ‘가족’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내일 엄청 빠르게 해야 한다.

8.17 일

오늘 논문을 하려는데 하기 싫어서 빈둥대다 퇴고를 해보려고 글을 인쇄한 종이들을 손에 들었다. 제일 옛날것부터 하려고 ‘뒷목땅김’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개인적이라 일기밖에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 ‘주여’를 들었는데 글에서 말하는 게 소심한 나(남 눈치를 많이 보는 나)이지 그런 성격을 고치겠다 같은 건 아니어서 또 이게 과연 일기가 아닐까라는 고민이 됐다. 이 고민을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주여를 퇴고해주겠다면서 한글 파일을 들고 갔다. 주여가 뭔지를 쓰고 독자들에게 친절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성격을 어떻게 하겠다 등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셨다. 주여가 뭔지 소개하는 내용을 쓰다가 엄마가 하는 작업은 퇴고가 아니라는 아빠의 말에 그만두셨다. 밥 먹고 tv를 같이 봤다. 근데 tv를 보고 나니 너무 하기 싫어서 하나도 안했다. 아! 조금만 게 있다면 『반통의 물』에서 2편인가 문체를 분석(?)해 봤다.

8.18 월

오전에 글터서점을 가서 책을 찾아봤다(『그건, 사랑이었네』, 『반통의 물』,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글쓰기 공작소』, 『글쓰기 생각쓰기』). 그 중에서 찾은 건 『그건, 사랑이었네』와 『글쓰기 공작소』였으나 책값이 비싸서 글쓰기공작소만 샀다. 돌아와서 엄마가 어제 피드백 해준 ‘20세기 아이들과 다들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에서 엄마들이 강요하는 공부为啥 잘못됐는지 쓰려다가 아예 새로 써서 엄마께 보여드렸다. 엄마는 내가 쓴 ‘20세기 아이들과 다들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_2’를 읽고 피드백해주셨다. 글이 독자에게 불친절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말하는 지가 적고 결론(방법)이 매우 작다고 한다. 이모의 사례를 얘기해줬다. 이모가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문제의 근거(의료계의 문제로 이모가 대학을 입학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만 장황하고 정작 방법(대학입학)이 안 써져있던 걸 다른 분이 다시 써줬는데 첫 문장이 ‘문제는 질이다’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다. 엄마의 피드백을 듣고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가족은 소통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 가족이 소통이 필요하단 걸 설명하지 않으면 불친절할까봐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엄마가 피드백을 해줬는데 가족의 소통을 설명하는 건 너

무 다른 곳으로 세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더해주고 내 글의 의도를 내가 다시 설명해준니까 엄마가 나에게 얘기해주는 글쓰기 방식이 딱딱한 방식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아빠도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역시 글을 읽다만 느낌이고 내가 말하려던 게 잘 안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

8.19 화

오늘은 퇴고를 하려다가 질문지 수정이 생각나서 질문지를 잡았다. 질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고쳤다. 많은 도움이 됐다. 열심히 고치고 보냈다. 질문지와 몇 편의 글을 더 보낸다는 게 욕심으로 5편이나 보냈다. 읽어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보냈다. 독립,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시간, 조그마하고 느린 것, 너 꿈이 뭐야를 보냈다.

8.22 금

오늘 토지문학관을 가서 나희덕시인님을 인터뷰했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나를 편하게 대해 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다. 시인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글의 형식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 시인님은 큰 대담을 해주셨다. 글의 형식은 내용이 충분하면 저절로 생긴다고, 글을 왜 쓰는지 고민하라고 하셨다. 큰 질문이 되었다. 오랫동안 고민해야 될 질문을 던져주셨다.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다.

8.23 토

입교 전날. 2학기 개학 전전날. 학교 가기 싫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본문도 안 썼고 중간발표ppt도 안 만들었는데.... 모르겠다. 짐이나 썼다. 인터뷰 정리를 했다.

8.25 월

오늘 아이들 열명의 방학논문 ppt를 봤다. 역시나 많이들 했다. 한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 명확하다. 너무 걱정된다. 오늘 상현쌤과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쓸지, 내 글을 어떻게 공유할지 등 정해진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할 것도 많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도 많다. 몇몇 분들이 내 글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나를 아는 누군가(아마 학교사람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기 민망하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것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오늘 상현쌤과 얘기할 때 쌤이 나다 강의 때 변쌤이 쓴 유인물을 가져가셨고 중간발표ppt를 만들었다. ppt는 간결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슬라이드에 조금씩 썼고 끝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적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솔직히 중간발표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만든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일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계획서를 보면서 정리해야겠다. 정리한 다음 대충 계획을 세워야겠다.

8.26 화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을지, 어떻게 글을 퇴고할지 등을 생각해보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절망적인 기분은 벗어나려고 『풀무질』을 읽었다. 『풀무질』을 처음 읽었을 땐 형식(?)이 부족해서 내용이 잘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는지 내용이 잘 들어온다. 내용이 무척 좋다.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아져서 본문부터라도 쓰려고 했다. 서론도 다 못 쓰고 올라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 집중도 안되고 '수필이란?'을 쓰다 너무 종류가 많고 종류의 정의(?)가 많아서 읽다가 멍해졌다.

8.27 수

오늘 방학 논문ppt를 발표했다. 월요일 날 발표를 안하거나 못하고 오늘 발표한 아이들은 비슷한 구석이 있다. 방학 때 논문을 별로 안 썼고 앞으로 할 게 불투명한 아이들, 주제가 바뀌어 혼란스러운 아이들 등이었다. 웬지 모르게 방학ppt에서부터 1,2차가 갈린 느낌이다. 민혜쌤이 나에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논문이 세상을 보는 16세 소년데 글을 쓰기 위해 사전조사나 주기적으로 신문읽기 등등의 것을 한 적이 있냐고 하셨다. 뭔가 민혜쌤이 말씀하시는 16세 소녀가 바라 본 세상은 내 논문과 다른 것 같아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다가 내가 헛갈려서 말을 얼버무렸다. 민혜쌤은 IDEC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었을 거

고 ‘나다’가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쌤의 신문 읽기 등을 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해서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쌤이 조언을 하나 해주셨는데 자꾸 숨기고 담당교사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씀이다. 지금 깨지는 게 낫다. 『풀무질』을 조금 더 읽었고 본문을 쓰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usb인식이 안되서 그전에 별 거 쓴 것도 없는 본문은 버리기로 하고 새로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서론은 접어두고 본론에 ‘수필이란’부터 시작했다. 수필을 검색하다 어제는 찾지 못한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을 찾았다. 완전 자세하게 특성, 역사, 종류가 나와 있다. 수필의 특성 부분이 너무 공감됐고 수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쓴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다 읽다 묵학을 날렸다. 그래서 ‘수필이란?’ 도 쓰다 말고 올라왔다.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미요미회의를 생각보다 오래 해서 못했다. 같은 방 예림언니가 봐주겠다고 해서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따끔하고 중요한 말을 많이 해줬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보고 논리가 없는 사실같다고도 했다. 그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딱 헤아려주는 말을 했다. 글이 이것 저것 건들고 걸돌고 있다가 맥을 못 잡은 것 같다고 글쓰는 게 힘들겠다고 말해줬다. 딱 지금 내 마음이다. 예림언니가 필요한 쓴소리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다. 예림언니한테 보여주길 정말 잘했다. 상현쌤이 왜 나에게 많은 피드백을 안해주시는지 알겠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보여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8.28 목

시은이가 먼저 제안해서 글쓰기 개프를 준비중이다. 개프를 통해 글쓰기를 다른 사람들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도 본문을 쓰려고 묵학을 전산실에서 보냈다. ‘서론’과 ‘수필이란?’을 뛰어넘고 책, 나다, 아이덱, 나히덕작가님 부분을 쓰고 있다. 책 부분을 쓰려고 보니 정말 읽은 책이 별로 없다. 많이 슬프다.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 별로 소개(?) 감상을 쓰는데 『그건, 사랑이었네』는 어찌 어찌 썼다. 그런데 문제는 『반통의 물』이었다. 뭔가 직설적으로 글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조금씩 유도하시는 그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만 쓰게 됐다. 어쨌든 그냥 끝내기는 했는데 『반통의 물』에 대한 글은 좀 그렇다. 아이덱에 대해 쓰는데 정말 내가 왜 아이덱에 갔는지 조금 후회스럽다.

8.30 토

논문을 하려고 학교에 남았으나 하지 못하고 핑가핑가 놀았다. 학교에 내려가서 본문에 넣을 글을 쓰다가 읽어 보았는데 너무 못 써서 창피했다. 그리고 글 쓰는 것(작품)에 대한 막막함이 몰려왔다. 내가 쓴 글들을 읽어 봤을 때 수정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글을 더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논문을 제쳐두고 놀았다. 『풀무질』감상쪽글을 마무리했고 밤에 늦게 본문에 들어갈 나다강의얘기를 수첩에 썼다. 중간발표가 걱정이다.

9.1 월

오늘 상현쌤과 만났다. 상현쌤이 내가 어제 보낸 메일을 다 보셔서 얘기하기 수월했다. 상현쌤이 내가 주관을 잃고 사람들이 하는 조언에 맞추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예림언니에게 보여준 것, 부모님께 보여준 것을 이야기해드렸더니 그러시는 것 같다). 글을 쓰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글을 못 쓰고 쓰기 싫어지고 논문을 쓰기 싫어지는 것 같다고 하신다. 여러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많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다. 상현쌤의 얘기를 듣고 오후에 논문수업을 받고 논문을 쓰는 시간이 있어서 논문을 썼다. 상현쌤의 얘기를 듣고 중간발표보다 중요한 내 논문이 또 생각났다. 오늘은 상현쌤과 만난 거, 논문 수업을 들은 거 말고 한 게 없다.

9.3 수

오늘 중간발표를 했다. 일곱번째였다. 아이들이 나보다 한 게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질문 2개였는데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근데 질문이 2개밖에 없어서 뭔가 찝찝하다. 나중

에 발표 때 많이 까일 것 같다. 중간발표를 끝내니까 허무하다.

9.4 목

이제 타령은 그만하고 쓰려고 했다! 근데 도저히 집중이 안됐다ㅠㅠ. 상현쌤이 ‘삼남매’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그 글을 계속 질질 끌다 밤까지 써서 그냥 어찌어찌 끝냈다. 내일 읽으면 엄청 이상하겠지만 그냥 끝냈다. 논문이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냥 엄청 막막했었는데 오늘 엄청난 걸 깨달았다. 그냥 상현쌤이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한 것처럼 많이 막 쓰는 거다. 하하하. 여기서 이제 귀찮아하지만 얹으면 된다. 내일이 가정학습이다. 화이팅!

9.5 금

오늘은 그냥 막 보내자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뒹굴거리고 드라마보고 놀았다. 가정학습 계획을 짜보니 역시 빡세다. 힙. 열심히 해야지.

9.10 수

입교날. 오늘 집 챙기다보니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졌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쪽글을 썼는데 많이 못 썼다. 밤에 어떻게든 글을 하나 썼다.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

9.11 목

어제 공책에 썼던 걸 비롯해서 공책에 썼는데 컴퓨터에 못 옮긴 걸 오늘 옮겼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감상쪽글을 오늘 다 쓰려고 했는데 못 썼다. 중간발표평가지(?)를 상현쌤께 받았다. 책의 제목, 대상을 정하고 불량이 적절(너무 적으면 안된다)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적은 편인 것 같다. 상현쌤께 평가지를 받으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일단 정말 막 써야 한다.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쌤들도 여러 얘기를 해주신다. 책 쪽글 쓰는 것도 자꾸 밀리고 글 쓰는 것도 자꾸 밀려서 심란하다. 일단 열심히 막 해야 한다.

9.13 토

학교에서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쪽글을 오랫동안 써서 다 썼다. 쪽글을 쓰고 나서 어영부영하다 기숙사에 올라왔다. 별로 못했던 생각에 기분도 안 좋아지고 너무 졸려서 3시간 후에(저녁 아홉시반) 알람을 맞춰놓고 잤다. 깼 후로 개요를 짜서 글을 써보려고 브레인스토밍 비스무리한 걸 했다. 머리가 멍해져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브레인스토밍을 질질 끌다 다하고 글 1편의 개요를 짜다 말았다. 목표치를 다 하지 못했다.

9.14 일

하루 종일 ‘나는 왜 사랑받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 주제에 대해 대충 써버리고 말았다. 나는 왜 사랑받고 싶은가에 대한 개요 짠 걸 보고 글을 써도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왜 자립해야 하는가, 꼭 학교에서 하는 자립기초를 다 해야 할까’란 생각으로 성민이와 서경이에게 마구 질문하며 생각나는 것을 막 적었다. 별로 한 게 없단 느낌이다.

9.17 수

주프시간을 논문 쓰는 시간으로 해주셔서 상현쌤과 못다한 얘기를 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글을 몇 편 뽑아서 한편은 문단마다 중요한 문장을 하나씩 골라내고 한편은 형식이 좋은 건지, 내용이 좋은 건지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문단에서 문장뽑기는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의 ‘부채와 에어컨’을 뽑았다. 내용, 형식을 생각하는 것은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의 ‘최후의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를 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글을 몇 편 뽑아가니까 쌤이 글에 형식에 대해 말한 걸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쌤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거라고 하셨다. ‘나는 형식에 대해

쌤이 말해준 게 이해가 됐는데 그냥 형식이 있는 글을 못 쓰는 것 뿐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9.24 수 & 9.25 목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걸 그냥 막 적고 있다. 내가 남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이 나를 좋아해주길 바래서 하는 행동들 등에 대해 쓰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쓸 수 있었는데 요거 밖에 못 써서 한심하다. 깬플 워드로 썼는데 워드로 쓰는 것도 나름 괜찮았다. 상현쌤을 봤다. 상현쌤께 많이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쌤은 일단 본문부터 쓰라고 했다. 내 성격상 작품을 다 끝내야 본문을 쓸 텐데, 그러면 너무 늦다고 안된다고 하시면서 작품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쓰라고 하셨다. 며칠은 본문에 집중하고 며칠은 글에 집중하라고 하셨다. 이번주 주말까진 계속 본문을 써보라고 하셨다. 본문에 일단 모든 걸 넣어보라고 하셨다. 근데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구조를 갖고 써보라고 하셨다. 그 구조를 논문집들을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논문들을 3~4개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고 짜보라고 하셨다. 아트문패에 대해서 쓴 논문이라도 구조를 따올 수 있으니 말이다. 일단 본문을 써보려고 해서 논문집을 살펴보다 민정언니 논문을 보게 됐다. 민정언니 논문 본문의 형식을 내 논문 본문에 한번 맞춰서 목차를 다시 써봤는데 완전 괜찮다. 다른 논문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9.26 금 & 9.27 토

하린언니 논문 본문 구성도 내 본문에 대입해서 목차를 써보고 10학번 논문집도 훑어 봤다. 그래서 본문 구성을 새로 했다. 새로 하고 보니까 내가 본문목차에서 한 게 정말 없다. 새로 짠 본문에 맞게 본문을 쓰기 시작했다. 7~9월 글을 막 썼다는 것과 글 4편 정도를 넣고 '20세기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여러번 고친 과정설명과 여러번 고친 글들을 본문에 넣더니 22쪽이 됐다. 너무 글을 많이 넣은 것 같다. 나중에 상현쌤께 여쭙봐야겠다.

9.28 일

집에서 농땡이 안 피우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한 게 없어서 허탈하다. 지금까지 쓴 본문을 읽고 고치고 글틴에 글을 올리고 글쓰기 인터넷 카페를 알아봤다. 글쓰기카페가 생각보다 없다. 소셜 쓰는 카페만 많다. 수필을 쓰는 카페도 올리기만 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건 별로 없다. 카페 찾아보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 간디인에게 글을 보여주고 물을 것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9.29 월

아침에 일어나니 감기가 몸살, 목, 코 다 들었다. 목이 너무 아프고 오한이 들었다. 결국 오전 내내 주어도 빠지고 양호실에서 자고 논문수업 시간에 상현쌤과 만났다. 쌤이 나 같은 경우엔 본문에 글이 들어가면 읽기 힘들니까 본문에 작품을 넣지 말고 작품 설명을 하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다. 다양한 학년, 다양한 성별로 20명 정도. 내가 많이 늦은 것 같고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되서 속상하다. 거기다 몸도 안 좋아서 더 슬프다. 묵학 때 글 넣지 않고 글 설명하는 것을 반 정도 썼다.

9.30 화

1,2교시에 작품설명을 마저 하고 3,4교시에 상현쌤을 만났다. 상현쌤이 독자단을 하루 빨리 꾸려서 얘기를 듣고 작은 책이라는 월간지 사이트에 글도 올려보고, 공동체 홈페이지에 글도 매일 한편씩 올려보고, 신문 오피니언에 기고도 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글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단 책 편집을 시작해서 한번 글의 양을 보라고 하셨다. 글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편집을 해야 한단 사실이 쪽팔렸다. 그래서 글을 보여줄 사람들을 정하고, 상현쌤이 요일마다 오피니언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일주일치 오피니언을 한번 쪽 둘러보라고 하셔서 오피니언을 쪽 봤지만 기고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었다. 사실 뽕세게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풀어져서 천천히 느릿느릿했다. 제출 8일 남았다.

10.1 수

오늘이 10월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독자단을 한 학년 당 남녀 2명씩 1~5학년, 쌤들도 생각했다. 독자단에게 보여줄 글을 한번 더 읽어보고 수정했다. 유경, 한결, 한슬, 여자성현, 규동, 시은, 박성민, 어진, 형서, 동현, 예림, 소아, 도운, 준상, 미리강, 희라 쌤, 수진 쌤께 말해서 메일주소를 받았고 최민정, 주열, 승훈, 효연, 형규, 태우, 건산, 종명 쌤께 부탁하고 메일주소를 받아야 한다. 처음 누구에게 어떤 글을 보여줄지 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처음에는 그냥 내 편지상 뭔가 그 글에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을 읽어봐달라고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1~5학년, 쌤들을 여, 남 순서로 쓴 이름들에게 3가지 주제 <꿈>, <세상>, <소소함>으로 임시로 이렇게 나눈 글들을 주제별로 돌렸다. <꿈>에서 생각나는대로 글의 제목을 적고 첫번째 글은 첫번째 사람에게 두번째 글은 두번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눴다. 이렇게 하니 제법 성비가 맞춰졌다. 모두에게 인쇄해서 주려고 부탁하기 전에 인쇄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쇄를 하던 중 종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상현 쌤의 조언대로 메일주소를 받아서 메일로 보내기로 했다. 질문은 잘 읽히는지, 공감이 되는지, 글의 핵심(메세지)이 뭔지 알겠는지, 오타는 있는 지 간단한 질문들을 각 글 뒤에 썼다. 작은 책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작은 책은 노동자들의 글쓰기 모임(?)같은 느낌이었다.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되는 게시판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갑자기 꿈,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필요성 등을 말하는 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일단 시간만 올렸다. 몇 편 더 올려야 할 것 같다. 경향에 기고할만한 글로 중복좌빨을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조금 우리학교 대한 설명 등 수정할게 있는 것 같다.

10.2 목

독자단 모두에게 메일을 보냈다. 주열, 효연 언니, 형규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고 집에 가기 전에 민정, 승훈, 태우 오빠, 건산 오빠, 종명 쌤을 못 찾아서 대신에 다민이, 한울이, 지형 오빠, 한새 오빠, 필 쌤께 부탁했다. 나와 안 친한데도 다들 선뜻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웠다. 간디인 짱짱. 작가를 정말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남호섭 선생님께 전화드렸다. 선생님께선 산청까지 내가 오는 건 너무 무리라고 하시면서(실은 바쁘신 것 같았다.) 충주에 계시는 시인을 소개해주셨다. 남호섭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이안시인께 전화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시인님의 시를 열편 정도 보고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강의하러 가시는 중이라며 내일 11시쯤 전화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시인님과 전화약속을 잡고 하린 언니에게 책 편집에 대해 물어봤다. 언니는 친절하게도 쪽수, 그림비활성화 등 요령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간디인들 진짜 짱이다. 이렇게 오늘은 독자단 메일을 마저 다 보냈고 작가와 연락했고 편집을 물어봤다.

10.3 금 & 10.4 토 & 10.5 일

3일 동안 집에 있었고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약을 먹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너무 졸려서 계속 잤다. 금요일 날 이안시인님과 약속날짜를 잡기 위해 전화해달라고 하신 오전 11시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오후 5시에 전화를 나에게 하셨는데 이번엔 또 내가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결국 토요일 오전 11시에 남산등산로 입구 카페에서 뵙기로 했다. 바로 다음날 뵙자고 해서 조금 놀랐었다. 이안시인님을 인터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안시인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 정리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질문을 적어봤다. 이안시인님을 뵙기로 한 카페가 문을 닫아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 시인님을 뵙서 함께 다른 카페로 갔다. 내가 수필을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인님이 '수필은 본격적인 글쓰기는 아니지'라고 하셨다. 시인님께 내가 글을 쓰는데 느끼는 막막함 등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기침이 나서 민망했다. 이안시인님은 웬지 모르겠지만 살짝 웃으시면서 글쓰기의 단계 등을 말씀해주셨고 내 글도 봐주셨다. 만년필로 내가 글을 프린트해간 종이에 글쓰기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적어 주셨다. 강의하는 교수님 같으셨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침이 자꾸 나와서 민망했다. 이야기를 다 하고 책과 시인님이 편집하시는 동시마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글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알게 돼서 좋았지만 내가 앞으로 논문이 끝나고도 글을 쓰게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조금은 아득하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몸 상태도 안 좋은 대다가 글쓰기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고 너무 막막해져서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졸렸다. '작은 책'에 조그마하고 느린 것, 가족, 20세기 아이들과 다

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올렸고 경향 오피니언에 중복좌빨을 메일로 보냈다. 간디공동체홈페이지 칼럼방에 시간을 올렸다.

10.7 화

본문에서 작품설명 부분을 마저 다 썼고 3,4교시에 상현샘을 봤다. 상현샘은 내가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건지, 쓸 건 있는데 잘 안 써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이안시인님이 말씀하신 건 글쓰기의 일반론이라고 하셨고 내 글이 순전히 나를 위한 글이라 이안시인님이 첨부삭제, 첨삭을 시도했다 포기하신 것 같다고 했다. 나에게 지금까지 쓴 글, 본문 모두 모아서 보내 보라고 하셨다. 예전처럼 또 한 시간 이상 얘기했지만 비슷한 얘기였다. 독자단들에게 메일을 마저 보내달라고 해서 평가를 다 받았다. 독자단이 해준 이야기를 다 읽어봤다. 길게 써준 분들이 너무 고맙웠다. 공동체홈페이지에 가족,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를 올렸다.

10.8 수

제출일. 오전에 이안시인님 얘기를 본문에 넣고 오후에 목차수정하고 독자단 얘기를 본문에 넣기 시작했다. 목학과 밤에 독자단이야기를 다 합쳤는데 합치고 보니 40페이지에 다 달아서 계속 줄여나갔고 제목, 목차 부분 본문을 쓰려고 보니 내가 목차, 제목을 정하질 않아서 쓰지 못했다. 목차, 제목을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막했다. 독자단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1)제목과 목차, 2)진행과정, Ⅲ결론은 못 쓰고 제출했다.

10.11 토 & 10.12 일

발표ppt를 만들려고 보니 내가 작품의 기본적인 목차조차 짜지 않은 상태에서 ppt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전에 잡아 놔던 목차를 기본으로 조금 더 바꿨다. <혼자 서기>, <세상>, <짜증 '나'>, <일상>으로 잡았다. 책의 구성을 생각하다보니 책을 편집해야 한다는 게 떠올랐다. 편집작업을 시작해보지 않아서 편집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급해졌다. 책의 구성과 디자인을 고민하다 보니 책의 표지 사진을 무엇으로 할지 떠올랐다. 막막함을 끝도 없이 느낀 논문을 파란 하늘에 내 손만 있는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다. 내가 생각한 사진은 연한 '하늘색' 하늘을 바탕으로 내 손이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찍어보니 하늘색 하늘보단 파란색 하늘이 찍혔다. 손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둡게 나왔다. 처음엔 가로로 사진을 찍었는데 마지막 즈음엔 세로로 사진을 찍었다. 2~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골랐다. 손의 적당한 길이, 하늘의 색, 구도를 고려해 골랐다. 아빠가 책 편집을 도와준다고 해서 글들을 한번 짚 읽어보려고 읽다 보니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아 보여서 6번째 글(가나다순으로)부터 내가 내 글을 피드백했다. 이후엔 책 편집할 때 설정할 줄 간격, 용지크기, 여백 등을 정했다. 보통 책들은 a5아니면 b6인 것 같다. b6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a5로 정했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실험적으로 해봤다. 용지를 a5로 설정하고 줄 간격을 160에서 240으로 바꿔서 인쇄해 봤다. a5용지로 설정하고 a4에 인쇄했다. 줄 간격이 너무 컸다. 200으로 바꿔서 인쇄해봤다. 딱 적당했다. 책에 비춰서 비교해보니 비슷했다. 보통 책들의 글씨체를 찾아봤다. 바탕체로 하기도 한다고 한다. 바탕체로도 해서 인쇄해보니 깔끔하고 익숙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진 않았다. 혹시나 해서 한초롬바탕체를 다운 받아서 인쇄해봤다. 이것도 나름 깔끔했다. ppt도 얼추 다 만들고 대본도 다 만들고 요약본을 다 만들고 짐을 대충 챙겨놓고 밤을 꼴딱 새고 오후1시쯤 자서 6시쯤 일어났다. 아빠의 도움을 받아 가제본했다. 여백을 위, 아래, 좌, 우 5mm씩 늘려서 인쇄해보니 괜찮았다. a5용지로 여백도 실험해보고 글씨체도 실험해 봐서 결국 한초롬바탕에 여백은 위아래 20mm, 좌우15mm로 하기로 했다. 일단 글을 순서에 맞게 다 합치고 차례를 쓰고 챕터 들어갈 땐 임시로 해움체로 오른쪽 정렬로 중간쯤에 챕터를 쓰는 것으로 했다. 제목은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 부제-다시는 할 게 못되는 16살'로 했다가 맘에 안들어서 엄마, 아빠와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 '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기로 했다. 아빠가 도와줘서 손쉽게 편집을 마치고 나니 106쪽이었다. 인쇄를 하고 표지도 인쇄했다. 엄마, 아빠께 요약본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ppt 연습을 해보니 웬걸 9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고쳐야 했지

만 너무 졸려서 잤다. 일단 민혜쌤겐 9분짜리 ppt와 요약본을 보냈다.

10.13 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ppt에 찰리 채플린을 넣어보니 15분으로 확 늘어서 ppt수정하고 대본을 수정했다. ppt, 가제본 등 상현쌤께 보내고 ppt도 다시 민혜쌤께 보냈다. 머리맡 써서 인쇄하고 한의원을 갔다가 점심때쯤 학교에 와서 오후부터리허설을 봤다. 우리 반이 정말 논문을 안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리허설을 해보니 너무 떨렸고 찰리 채플린을 읽는 것이 낮 뜨겁고 너무 길어서 민망했다. 읽는 글을 짧은 시간으로 바꿨다가 민혜쌤과 얘기해보니 아무래도 내 작품의 대략적인 맥락을 설명할 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넌 꿈이 뭐야’ 바꾸기로 했다. 상현쌤께 얘기를 드렸더니 쌤이 그러라고 하셨고 내가 작은 책에 글 올린 건 간디와 관계없는 외부와 나누는 활동이니 ppt에 넣으라고 하셨다. ppt를 수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기숙사에 올라왔다. 예상질문은, 왜 시인을 인터뷰했죠? 작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기와 다른 게 무엇인가요? 작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를 생각하고 있다.

10.14 화 논문발표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작은 책’ 나누기 내용, ‘넌 꿈이 뭐야’를 ppt에 넣고 대본도 수정하고 연습 한번 해보고 엄마에게 엄마가 어제 전화로 해준다고 한 가제본을 들고 몇시쯤 오는지 물어보고 발표준비를 하러 강당에 갔다. 상현쌤과 예상질문 답에 대해서 얘기했다. 상현쌤은 2,3,4번은 똑같은 질문이고 내가 쓴 답변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잘 맞지 않는다고 근본적인 답은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 하셨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내가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을 볼 수 있게 쓸려고 신경쓰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하셨다. 발표를 시작하고 기온, 진주에게 쌤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발표하기 전까지 너무 떨렸다. 발표를 하면서도 계속 떨렸다. ‘넌 꿈이 뭐야’를 읽는데 너무 쪽팔린 와중에 기침이 자주 나서 콜럭대며 읽었다. 발표를 하면서 긴장이 서서히 없어졌다. 쌤들이 날카로운 질문, 예상질문을 하나도 안하셔서 기쁘게 답했다. 엄마가 나에게 논문이 끝나고도 글을 쓸거냐고 질문해서 지금까지 쓴 게 아까워서라도 쓸 것 같다고 했다. 발표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넌 꿈이 뭐야’를 읽어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싶다. 발표를 끝내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점심 먹고 발표는 내가 발표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계속 졸았다. 아빠는 11시에 맞춰왔는데 내 앞 애들이 생각보다 일찍 끝내서 내 발표 앞부분을 못 봤고 성민이가 토하고 아파서 집에 있는데 성민이 밥 먹이러 내 발표보고 나랑 인사도 못하고 갔다. 엄마는 다 보고 갔다. 성민이랑 유민이랑 합격기원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스티커를 붙인 비닐봉지에 말랑카우, 허쉬 작은 거 등 사탕류를 넣은 손수 제작한 23개 사탕봉지를 만들어서 엄마가 우리 반에 주고 갔다. 감동이었다. 오늘 공동체홈페이지에 열 번째 글 ‘조그마하고 느린 것’을 올렸다.

10.15 수

어제 폭 자서 그런지 발표 때 졸지 않았다. 논문발표가 정말 끝났다. 내일 상현쌤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해보기 위해 목,5교시로 약속을 잡았다.

10.16 목

쌤과 만났다. 글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쌤은 먼저 수정하고 싶은 글을 골라서 피드백을 보며 고치고 그렇게 하나, 둘 하다 되는 데까지만 하라고 했다. 가원언니에게 일러스트를 받아보라고도 하셨고 열심히 해서 이번 달 안에 끝내자고 하셨다. 논문파티를 했다.

상현쌤과 논문심사서(?)를 가지고 얘기했다. 내 글감에 대해 얘기해보는 독자와의 만남을 해야 하고 일러스트 받고 책을 완성해야 한다. 2차 발표 전까지.

10.18 토

오늘 앞으로의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 고쳐 볼 글을 골랐다.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다 고치고 싶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2편(가족, 인간-생각=정돈된 현대사회)을 골랐다. 일러스트 받을 글 10편을 분량과 내용을 생각하며 골랐고 대충 어떤 그림을 그릴지 구상해서 적어봤다. 독자와의 만남 할 글 5편 (독립, 년 꿈이 뭐야,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인간-생각=정돈된 현대 사회)을 골랐다. 5편을 읽은 사람들과 만나 볼 생각이다.

10.20 월

마라톤을 뛰었다. 독자와의 만남을 5편에서 3편 (년 꿈이 뭐야,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인간-생각=정돈된 사회)으로 줄이고 형규오빠, 수진쌤 빼고 다 되는 시간을 물어봤다.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 가원언니, 서경이에게 일러스트 부탁하고 콘티를 짜달라고 해서 다 짰다. 상현쌤을 만나서 계획과 진행을 말씀드렸다. 일단 독자단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고쳐보라고 하셨다. 할로윈 파티를 했다.

10.21 화

오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독자와의 만남을 할 사람들에게 일정을 물었다. 수진쌤은 안되셔서 종명쌤께 부탁드렸고 규동이 시간이 안되서 주열이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주열이가 아파서 일찍 올라와서 자는 바람에 못했다. 서경이와 가원언니에게 콘티를 줬고 '가족'을 고쳐보려 했다. 글을 고치려고 하면서 또 다시 막막함을 느꼈다. 가족에서 내가 하려는 말을 몇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 4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각 문장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씩 써 가고 있다. 일단 이걸 다 쓰고 이 이야기들로 어떻게 읽는 사람이 재밌는 글을 쓸지 생각해 봐야겠다.

10.22 수

오늘 5교시 밖에 쓰지 못했다. 공동체 홈페이지에 끝나는 말을 올렸다. 주열이에게 독자와의 만남을 부탁했더니 싫다고, 정말 싫다고 거절했다. 규동, 수진쌤, 주열이. 간디인들이 쉽게 부탁을 들어줘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 세분이 나의 긴장감을 한층 올려주셨다. 주열이에게도 거절당하고 재성이에게 부탁했다. 거절하려는 재성이를 열심히 설득했다. 서경이에게 일러스트를 월요일까지 달라고 말했다.

10.23 목

독자와의 만남을 해주시는 간디인들에게 시간을 알려줬고 재성이에게 년 꿈이 뭐야를 보냈고 독자와의 만남에서 할 질문들을 적어봤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은 질문이 많은데 '년 꿈이 뭐야'는 적다.

10.24 금

독자와의 만남을 2번 했다. 점심에 유경, 성현, 형서, 희라쌤 이렇게 '21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하러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성현이가 갑자기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3명이 하러 했다가 지나가던 예슬이, 교실에 있던 다민이를 불러 같이 했다. 희라쌤이 계셔서 그런지 이야기가 잘 진행됐다. 1학년 친구들이 공감할 많이 못하는 주제라 그런지 말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다. 묵학 땀 '년 꿈이 뭐야'로 예림, 준상, 재성 이렇게 하려다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하성, 형서도 같이 했다. 이야기가 많은 주젠 줄 알았는데 별로 없었다. 이야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단 걸 알게 되서 좋았다. '가족'을 새로 쓰려고, 하고 싶은 말을 새로 쓰고 그에 맞춰 4가지 항목을 만들고 저번에 써 냈던 2개에 이어 마저 다 썼다. 다 쓰고 순서를 이리 저리 바꿔보며 고치려 했다. 순서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 고치진 못했다.

10.26 일 내 생일 & 10.27 월

'가족' 여러 가지 순서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 순서에 맞춰 글을 쓰고 있다. 반 정도 썼다. '가족'을 마저 다 쓰고 상현쌤께 보내고 가원언니가 그려준 그림들을 포토샵(포토스케이프)으로 전부 보정했다. 포토

삽에 익숙하지 않아서 꽤 힘들었다. ‘가족’은 아직 부족하지만 나름 만족스럽다.

10.30 목

서경이 일러스트 그림들을 전부 뽑아냈다. 서경이가 스캔해서 보내줬는데 확대를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런지 포토샵 할 게 별로 없었다. 가제본을 보며 오타들을 찾았다.

10.31 금

가제본에서 찾은 오타들을 파일에서 고쳤다. ‘영화 속 이야기’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줄여 썼고 ‘삼남매, 민남매’에서 불필요한 문장들을 뺐고 ‘주여’를 주를 여는 시간으로 고치고 언니 얘기를 줄였다. 책용으로 만든 한글 파일에서 글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책 제본용 글 파일을 만들었다. 상현쌤과 간단하게 통화했다. 일러스트를 받아서 보정했다고 말씀드렸고 ‘가족’을 새로 쓴 글은 어땠는지 여쭙봤다. 글에 대해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셨다. 일러스트들을 글에 넣어보니 서경이가 보내준 일러스트 파일들은 괜찮은데 가원언니가 그려준 일러스트들을 스캔한 파일들은 경계가 생겼다. 그림파일의 바탕이 흰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같이라 글에 넣으면 경계가 생기는 것이다. 방법을 검색하던 중 엄청난 방법을 알게 됐다. ppt에 그림을 삽입한 다음 ‘다시 칠하기’에서 투명도로 칠하기를 설정하고 그림의 바탕을 클릭하면 그림의 바탕이 투명하게 된다. 그림 바탕이 투명해진 그림을 한글파일에 넣으면 된다. 원본보다 조금 열린 것 같지만(아빠는 열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ppt로 작업한, 배경이 흰색인 그림들을 한글파일에 넣었다. 처음 계획할 땐 글이 끝나는 페이지 귀퉁이에 작게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별로인 그림들이 많아서 하나, 하나 자리를 새로 잡아서 넣었다. 앞에도 넣어 보고 뒤에서 넣어 보고 중간에도 넣어 보고,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넣었다.

11.1 토

머리말 써 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썼다. 이번 머리말을 쓰는데 오래 걸렸다. 처음 머리말은 ~다. 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요,~습니다. 로 끝난다. 처음 것보단 낫지만 완전히 만족하진 못하겠다. 가족들에게 일러스트들을 보여줬다. 역시나 ‘뒷목땅김’은 조금 어색하다고 했고 ‘있는 척, 아는 척, 착한 척’의 그림은 허세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조금 크게 넣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아빤 ‘조그마하고 느린 것’의 그림을 중앙 넣는 게 어떠냐, ‘삼남매, 민남매’ 그림을 앞, 오른쪽에 붙여서 넣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엄만 ‘조그마하고 느린 것’, ‘삼남매, 민남매’ 모두 괜찮은 거 같다고 했다. ‘뒷목땅김’그림을 이렇게도 넣어 보고 저렇게도 넣어 보다 그림을 윗부분만 잘라서 가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써 봤다. 결국 ‘뒷목땅김’그림은 서경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빼기로 했다. ‘집 코너’, ‘인간-생각=정돈된 현대사회’의 그림이 큰 편인데 글 뒤에 바로 붙어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서 따로 한페이지로 그림을 크게 넣어 봤는데 더 이상해서 그대로 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족’ 퇴고한 글을 넣고 원래 가족을 뺐다. 모두카피에서 책 만들기 주문을 해봤는데 모르는 게 많았다. 주문을 대충해보는 걸 어제 했으면 어제 문의 전화할 수 있었는데 오늘, 주말은 전화를 안 받아서 오늘은 못하고 월요일에나 할 수 있다. 또 뒷표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엄마는 상현쌤, 민혜쌤께 추천의 말을 써 달라고 해서 그걸 뒤표지에 넣어 보라고 한다. 정말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추천말 아니면 본문 내용이다. 성민인 브이하고 있는 손을 내가 그려 넣으라고 한다. 고민해봐야겠다.

11.3 월

3,4교시에 상현쌤과 만났다. 일러스트를 넣은 글 인쇄물을 보여드렸다. 상현쌤이 그래도 이왕 그림을 받은 것이니 ‘뒷목땅김’그림도 넣으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책은 6권(학교 2권, 상현쌤, 민혜쌤, 나 2권) 정도 하려다가 엄마가 10권(학교 2권, 상현쌤, 민혜쌤, 외할머니, 우리집 5권??)하자고 하셔서 10권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 책 제목이(16살, 내가 한 여러 가지 생각) 너무 설명식이라 조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논문의 본문이 아직 완성도 아닌데 너무 길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저기 조금씩 줄이고 독자와의 만남, 독자단의 평가를 다 부록으로 빼서 논문집에 넣을 땐 cd로 빼던가, 독자단의 평가만 부록,cd로 빼던

가, 둘 다 넣던가 3가지 중 하나를 하라고 하셨다. ‘가족’ 고친 게 어떠냐고 여쭙봤더니 나에게 ‘넌 어때?’라고 물어보셨다. 전에 쓴 가족은 글을 쓰면서 갖고 있던 질문이 쓰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갔는데 이번 건 첫 번째 질문에 맞춰서 순서까지 신경 쓰며 쓴 거라 첫 번째 것보단 글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쌤이 웃으시며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쓰던 대부분의 글이 질문이 바뀌고, 핵심내용이 없었는데 이걸 고쳐 쓴 게 아니라 새로 쓴 거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고친 글에서 ‘가족’은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소중한단 걸 이야기하는 문장이 너무 주제가 명시되 있고 급격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고, 사회에 갈등이 없는 가족이 많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단정적이고 스님의 이야기가 내 경험이 아니라 아쉽다고 하셨다. 내 글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였다. 너무 관념적이고 내 경험이 없고 단정적이고 핵심이 없다는 것이다. 쌤은 가족이 왜 소중한지 좀 더 잘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도 된다고 하셨다. 앞으로 논문의 글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로 그만하고 요즘 뻥세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글쓰기를 좀 널널하게 했다가 나중에 또 뻥세게 하라고 하셨다. 독자와의 만남을 했다. 민혜쌤도 앞부분만 같이 하셨다. 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서로 논문 쓰면서 힘든 것도 이야기했다. 정말 수다 같았고 좀 짧았다. 하지만 이런 수다라도 떠나는 게 좋았다.

11.4 화

오늘 오전에 모두카피에 전화했다. 친절하게 전부 설명해주셨다. ‘넌 꿈이 뭐야’ 일러스트 스캔하는데 조금 버벅댔다. 스캔을 하고 제목을 고민해봤다. 16살, 나의 생각지도/16살의 공책/16살, 나의 공책/16살의 흔적/16살의 생각/16살, 생각하다/생각하다/16살, 내 머릿속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 ‘뒷목땅김’ 일러스트를 글 중간 페이지 윗부분에 넣었다. ‘삼남매, 민남매’ 일러스트도 자리를 옮겼다. 글 중간에 페이지 아래쪽에 넣어서 글이 끝나는 느낌을 줬던 걸 글 앞에 넣었다. ‘넌 꿈이 뭐야’ 그림을 보정하려고 애썼다. 은수에게 간단한 포토샵작업도구들을 배워서 약 2,30분 만에 보정이 끝났다. 보정된 그림을 ‘넌 꿈이 뭐야’ 글이 끝나는 페이지 다음에 아예 한 페이지로 넣었다. 책 표지와 뒤표지도 다시 생각해 2가지 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그림을 앞에 넣고 뒤에 조그맣게 사진을 오른 쪽 귀퉁이에 넣고 그 옆에 이 책은 이지민이 썼고 소량 출판했으니 저자에게 구매를 문의하라고 썼다. 두 번째는 사진을 앞에 넣고 그림을 뒤에 넣은 것이다. 가족들에게 물어 봤더니 엄마, 유민인 첫 번째가 좋겠다고 하고 성민이는 두 번째로 하되 뒤표지 그림을 더 키우라고 했고 아빤 외출했다. 오늘 원래 본문을 좀 많이 쓰려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넌 꿈이 뭐야’ 그림 보정작업이 오래 걸려서 본문을 하나도 못 쓴 게 마음에 걸린다.

11.6 목

모두카피에 책을 보내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다. 주문을 하려고 보니 책날개가 생각나서 책날개에 들어갈 내 소개를 간단히 넣고 주문을 하기 위해 폰트파일, 내용 한글파일, 그림파일, 표지파일 등을 정리하고 주문을 하려고 하니 전산실 유저를 풀어야 했다. 왜인지 전산실에서 결제가 안되서 결국 가족회의 전에 주문을 못하고 가족회의가 끝나고 교무실 컴퓨터에서 주문했다.

11.7 금

아침에 상현쌤께 모두카피에 입금을 부탁드리고 모두카피에서 보낸 내지시안을 보고 좋다고 메일을 보냈고 표지시안을 보고 좋다는 메일을 보냈다.

11.8 토

집에서 독자와의 만남 할 때 했던 녹음파일 타이핑 작업하는 걸 하다 지루하면 일지를 옮겨 썼다. 중간에 본문에 들어갈 (1)책퍼내기도 썼다.

11.10 월

일지 옮겨 쓰는 작업을 끝냈다. 일지에 ‘막막하다’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허허허. 녹음파일을 들으며 타이핑하는 작업을 끝냈어야 했는데 끝내지 못했다. 본문이 살짝 많이 걱정이다. 못하면 어

찌지. 조건부에 시간도 많았는데 막판에 와서 이렇게 되니 참 괴롭다. 조금 더 일찍 할 걸. 논문을 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을 지금도 또 하고 있다니. 작품은 모두카피에서 오늘 보내셔서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도착할 거라고 하셨다. 신난다.

3) 나누기

(1) 인터넷에 글 올리기

많은 분들과 내 글을 나누기 위해 간디공동체 홈페이지와 월간지 작은 책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공동체 홈페이지 '배움과 나눔' 방에 있는 '칼럼/기고/만남' 방에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일 한편씩 글을 올렸다. '칼럼/기고/만남' 방은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15학번~09학번 방에 내 논문과 '칼럼/기고/만남'방에 글 올리는 것을 설명하는 광고 글을 올렸다. 총 열 편의 글을 올렸고 주로 1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다. 주로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글쓰기 실력을 떠나서 논문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주제에 관한 책을 읽어 보거나 너무 멋지게만 쓰려고 하지 마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써라 등의 이야기도 해주셨다.

월간지 작은 책은 노동자들의 글쓰기 모임을 열고 노동자들의 글을 심는 잡지다. 작은 책 홈페이지에 있는 '내 맘대로 써보기' 방에 시간, 조그마하고 느린 것, 가족,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을 올렸다. 노동자들의 글을 심는 잡지이다 보니 너 꿈이 뭐야, 찰리 채플린 등 꿈, 미래에 대한 글은 올리지 않았다. '내 맘대로 써보기' 방은 글을 올리시는 분이 많지 않고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은 아니어서 내 글에 댓글은 없었다.

(2) 독자단 평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내 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간디인 1학년~5학년, 쌤들 각각 여자2명, 남자2명 총 24명에게 내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달라고 부탁했다. 읽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당 3편을 부탁했다. 글은 테마별로 한편씩 보여줬다. 질문은 잘 읽히는지, 공감이 되는지, 글의 핵심이 뭔지 알겠는지, 오타는 있는 지로 총 4가지 질문이었다. 오타에 대해선 어색한 문장, 문단, 맞춤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기본적인 맞춤법이야기는 넣지 않는다. 오타에 대해 아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글은 4번 질문을 넣지 않았다.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1. 읽기 편했나요?

-문장부호가 약간 잘못 쓰인 것 같아 읽기 좀 힘들다. '자식' 보단 '자녀' 라는 단어사용이 읽기 좋을 듯.

-주제가 관심이 가고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라서 그런지 더 잘 읽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읽게 되면 문장 하나하나에 빠져서 집중이 잘 되었던 글이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문장이 조금씩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

-술술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운 글은 아니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사실 나한테 적용되는 이야긴 아니었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하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문제의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탓인지 이 글에 공감이 충분이 됐고, 공감이 충분이 가서 글을 읽기도 한편 수월했던 것 같다.

-공감하기 힘들었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조금 집중이 안되긴 하지만 핵심은 알 것 같다. 많이 읽고 퇴고하면 많이 탄탄해질 듯.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청소년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기성세대들과 돈이 없으면 안된다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개성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성세대와 우리세대의 소통이 필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이라고 느꼈다.

-핵심이 약하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 공부만 시키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밖에는 대안을 찾지 못한 힘겨운 세대들이니까. 모두가 정답을 알고 사는 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부모들에게 위기와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부모들도,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이다.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게 아쉬운 글이었다. 그 길이 모두 잘못 된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절대 다수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향해 개성도 자유도 없이 매달리는 현실을 한탄했다면 더 좋았겠다. 틀렸다는 정답을 제시하고 왜 틀린 답인지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4. 오타는 있었나요?

-오타라기보다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문장이 자주 끊기는 것 같다.

가족

1. 읽기 편했나요?

-글의 내용이 빨리빨리 읽혔지만 중간 중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 차가 썩썩 달리다 방지턱에 걸린 느낌이 들었다. (EX-정말 사이가 안 좋아 몇 년씩 서로 안 보고 지내고 ←(두 번 들어가서 읽는데 좀 어색했음)

-내용의 전개가 어딘가 어색해요. 문제제기는 한 것 같은데 적절히 받쳐 줘야할 내용이 좀 부실하달까..^^ 마지막에 글 맺는 부분도 뭔가 갑자기 끝난단 느낌입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많이 공감 된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다. 하지만 계속 사족판의 갈등에 대해 짜증을 내는 듯한 글을 보다가 갑자기 '갈등은 나를 성장시키니까 갈등이 있는 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감사해야한다' 라는 말이 나오니 약간 어색했다. 갈등이 왜 나에게 좋은지 더 써본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란 집단에서 생긴 갈등이 왜 나를 성장시켰을까? 같은 내용을 좀 더 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모습의 가족만 예로 들어서 공감이 안됐어. 이미 너는 가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느낌?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알겠다.

-가족이라는 건 나를 성장시키게 해준 고마운 것이다??? 맞나

-알 것 같은데 좀 약하네요.

넌 꿈이 뭐야

1. 읽기 편했나요?

-재미있다. 읽기 좋았다.

-어린 애들한테 읽어주는 말투와 비유가 되어있어 연령대가 낮아도 쉽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듯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네.

-조금씩 스치듯 공감된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감하게 된다.

-많이 공감된다. 난 그래서 내가 현재 무언가를 했을 때 편한 것, 행복한 것들을 나중에라도 계속 할 수 있으면서 사는 것이 꿈이다. 명확한 직업이나 활동이 아니더라도 꿈의 사전적 의미처럼(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하루에 기타나 책을 2시간이상 읽고 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고 싶더라던지, 내가 좋아하는 선배, 친구, 후배들과 계속 연락을 하며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나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꿈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글쓴이도 별을 따기 위해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조금해하거나 사다리를 올라타려 할 것이 아니라 별의 기준을 좀 더 넓혀서 보며 어찌면 내가 사다리 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아마 학생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이나 여러 장벽에 막혀 못 이룬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 글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핵심을 딱 알 것 같다. 비유적 표현이 재미도 있고 필자의 글에 대한 의도도 드러낸 것 같다.

-같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면 글에서 하는 말이 잘 전해 진 것이지만, 아니라면 잘 모르겠다. 에세이의 목적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감정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에세이로서는 잘 쓴 것 같다. 다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만 더 드러났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4.오타가 있나요?

-이것도 문장부호가 좀 쓰여야 할 듯.

독립

1. 읽기 편했나요?

-독립이란 글을 읽다가 충분히 들어오기도 전에 '무섭다'로 끝난 느낌이다. 글의 전개와 맺음이 좀 아쉽다. 밥 먹었는데 배고픈 느낌이다. ^^

-보통??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술술 읽히지도 않았다.

-이번엔 읽기가 좀 불편했다. 전체적으로 글의 문맥?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고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다. 이 글에 대해 공감이 잘 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일 수도 있겠다.

-잘 읽힌다. 재미있다. 좋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전 개인적으로 뭐든지 스스로 해보고 느끼는 걸 좋아하고 제 주장도 쎈 편이라 크게 공감은 가진 않아요. ^^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어른으로 살아가며 지워질 책임이란 부분을 생각하며 조금은 두려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정말 많은 공감이 됐다. 내가 평소에 하는 고민과 너무 같다.

-평소 내가 생각하던 독립과 이 글에서 나타내는 독립과는 좀 달라서 공감이 잘 가지 않았고 글을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웠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독립을 하는 것이 무섭다?

‘독립을 하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나는 독립을 한 줄 알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헷갈린다. 초반에 ‘나는 독립을 한 줄 알았다.’라는 내용을 읽을 때는 ‘독립은 그런 게 아니다.’, ‘독립이란 무엇일까?’, ‘독립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내용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독립을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독립의 정의?)

-이해가 잘 안되서... 반반이다.

뒷목땡김

1. 읽기 편했나요?

-읽기 편했다. 뭔가 글들이 내 머릿속에 쑥쑥 들어왔다. 다른 때 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잘 모르겠다. 내가 뒷목이 땡긴 적이 없어서 ㅎㅎ

-뭔가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원하지 않아도 몸에 무리가 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싫어하는 거 할 때마다 잠이 몰려 오는 거 같은 거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어느 정도는 알겠다. 하지만 공감은 안된다. 내가 뒷목이 아파본적이 없어서 ㅎㅎ

-하기 싫은 것을 할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것?? 신기방기

무기력하다

1. 읽기 편했나요?

-잘 읽힌다. 그냥 설렁설렁 읽기 편한 글 같다.

-글이 길지도 않고 정리가 되어서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 읽혔던 것 같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거의 대체적으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내용인 듯.

-지민이와 나의 마인드가 달라서일까 크게 공감되지 않는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포인트가 좀 없는 것 같다. 필자가 딱! 어떤 말을 하고 싶은 파악하기 힘들.

-무기력 할 때는 뭘 해도 안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글을 좀 더 본다면 하기 싫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무기력함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느낌도 들었다.

핵심은 많이 약하다. 문제를 쏟아놓고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을 맺은 글이라 다 읽고 나서도 답답했다. 무기력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와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추가했다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그런 시기, 그런 내 모습마저 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험으로 받아들였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기력한 것도 힘들텐데 그런 자기 모습마저 꾸짖는 글 같아서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4. 오타가 있었나요?

-조금 붙어있는 글자들이 많아용. ‘척척척’ 은 ‘척척’이 나올 듯.

-조금도 라는 단어의 중복 사용과 비슷한 문장의 반복 사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삼남매, 민남매

1. 읽기 편했나요?

-초반에는 집중이 잘 되었는데 뒤로 갈수록 잘 안 읽혔다.

-흐름이 무척 괜찮았다. 일기 적인 면이 있었다. 삼남매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겪어보지 못한 얘기

를 들으니 좀 더 집중력이 생기고 삼남매 얘기를 읽는 동안 재미를 느꼈다.

근데 하나만 말하자면 글이 너무 뻑뻑하게 있어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다.

-지민이식의 말투나 문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졌다. 보여줄 대상이 있는 글이라면 읽는 이도 배려하며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문맥이 좀 어색한 곳이 있는데 부지런히 글쓰기 연습을 하다보면 좋아질 것 같다. ^^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동생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었다.

-공감 되었다. 나 같은 경우 또한 누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민이랑 정 반대의 시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짜증나거나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내 반대쪽의 시선을 보아서 좋았다.

-네! 저는 동생들과 티율이 많진 않아 다 공감은 안가지만 어린 동생들 이야기에는 무척 공감이 갑니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알겠다.

-과거, 동생이 있어 힘들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있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슬픔의 과정

1. 읽기 편했나요?

-읽기는 편했지만 제주도 강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왠지 마무리가 어색했다.

-예, 매우 술술 잘 읽혔어요.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공감 되었던 것 같다.

-글을 읽으면서 글의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장면들이 하나 둘 씩 상상이 되니까 나도 화가 나는 느낌? 이었다.

특히 '나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뭐라 소리쳐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무시당할 것 같았다.' 이 문장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 슬픔만 있었다. 폭력이 없고 흥분이 없고 가라앉은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뿐이었다. 화내기도 지쳐서 그냥 나 혼자 강정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다. 슬픔이라는 것은 혼자 조용하게 마음 아파하는 것 같다.'

이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잘 모르겠다. (슬픔? 강정마을?)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웠는데 마지막 의미심장한 문장 때문인지 핵심파악을 잘 못했다.

시간

1. 읽기 편했나요?

-조금 어려웠다. πππ 단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야했다.

-딱히 읽는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뭔가 계속 같은 말이 반복 되는 것 같아 조금 헛갈리는 감이 있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공감이 됐다. 나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 잘 보내고 싶다.

-나는 한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딱히 공감은 못했지만 아무튼 신선하고 새로웠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너무 시간에 쫓겨 살지 말자.

-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 시간을 잘 보내자? 뭐 이런건가?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1. 읽기 편했나요?

-읽기 편했어요. 뭔가 상담해주는 느낌ㅋㅋㅋㅋ

-술술 읽히기도 했고 집중도 잘 났는데 앞부분에서 조금 문맥이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내용 여러 가지가 많아서 내용이 전체적으로만 남긴 하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간디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실수를 해도 모두 내 책임이고, 열심히 안해도 모두 내 책임이고, 아직 그럴만한 능력이 안되는데 나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힘든 건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논문을 발판으로 혼자 뭔가를 해냈다는 경험도 생기고,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잘 살기 위해 미리 실전연습을 하는 것 같은...??

-정말 공감된다. 특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는 부분은 정말 공감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민이가 현재 논문을 쓰고 있어서 인지 논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 것 같다. 공감이 많이 됐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뭔가 어른들이 우리한테 명령하면 나중에 독립했을 때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뭔가를 혼자 해내기에는 아직 내 능력이 부족해서 차라리 어른들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논문이라는 것이 자신이 혼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받는 일이다 보니 부담되고 어렵고 또 내가 하는 일이나 행동에서 모두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차라리 어른들이 시키는 것을 해서 내가 져야하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이라고 느꼈다.

4. 오타가 있었나요?

-오타라기보다는 반복되는 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야기

1. 읽기 편했나요?

-왜인지 문장 하나하나 자체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이해하기 쉬웠다. 아닌 듯 자연스러웠다.

-재미있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멋있었다.

나는 지금 영화 완전 초반에 있는 것이다.- 짱 멋있음!

-살짝 산문의 느낌보단 일기와 가벼운 느낌이 나서 조금 그랬다.

-술술 읽혔다. 흥미 있는 소재이고 나 역시 재밌게 보았던 영화 시리즈였기 때문이다. 앞의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와 스탭업 시리즈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앞의 오디션 이야기에서 돈이나 유명해진 걸 노력의 댓가로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떨어진 사람의 노력도 존중해주었다면 뒤의 영화이야기와 더 잘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잘 모르겠다. 왠지 성공 성공이나 미래 미래거리는 책(예를 들어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많이 봤던 내용

인 것 같아 이해는 되면서도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달까.

-이 글은 너무나도 공감이 잘됐다. 내가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상황이 너무 똑같은 것 같다. 지금은 하고 싶은걸 찾아서 잘 하고 있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열심히 살자. (박력 넘치게 궁서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영화이고 우리들은 아직 영화의 극 초반에 와있다.** 이게 아닐까? ㅎㅎ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있어지고 대단해지고 싶다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는 뜻 인거 같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결과보단 과정이 박수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 좋았겠다.

4. 오타가 있었나요?

-처음 영화 얘기가 나왔을 땐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가 계속 읽다보니 나중에 tv프로그램과 영화를 연관 지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는 글이 너무 긴 것 같다? 아니면 tv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는 걸 조금 더 늘리던가. 비중이 맞아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비슷한 문장의 반복과 ‘엄청난’이나 ‘정말’ 같은 과장된 표현이 거슬리고 괄호 사용도 피했으면 좋겠다.

오지랴

1. 읽기 편했나요?

-잘 읽혔음

-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네

-공감된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네

인간-생각=정돈된 현대사회

1. 읽기 편했나요?

-길어서 그런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긴 하였으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네요. ㅎㅎ

-처음에 나오는 글쓰기의 어려움의 대한 느낌에서 갑자기 부조리한 사회의 대한 느낌으로 넘어 가는 건 왜 넘어 갔는지 모르겠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종류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글을 썼던 사람으로서 펜을 잡았다 놓기, 아무생각도 의욕도 들지 않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봐서인지 지민이의 고민이 다른 글보다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점이 매우 많았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잘못된 사회인식과 사람들의 집단문화, 그리고 이것들을 잘못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바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일까요. ㅎㅎㅎ 사실 잘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주로 사용하는 매체들을 이용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돈, 외모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에 값을 매겨 돈을 버는 사람, 외모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낙오자가 되버린다.’ 가 아닐까?

있는 척, 아는 척, 착한 척

1. 읽기 편했나요?

-술술. 읽기도 편했고 솔직한 글에 집중도 잘 되었어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장과 단어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 조금 어색했습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네. 저도 일반학교를 무시했던 적이 있었고, 또 수많은 ‘척’들을 두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이 되었네요. 어쩌면 저는 지금도 ‘척’을 명품처럼 온 몸에 휘감고 사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민이의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되지만 나도 완전히 ‘척’을 버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자.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은 온갖 품을 잡으면서 그 것을 사람들에게 티내고 싶어한다. 흔히 요즘 말로 말한다면 ‘관종’ 정도일까, 그런 행동을 취할 수록 서로 불편해지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 ‘척’을 버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조그마하고 느린 것

1. 읽기 편했나요?

-동화 읽는 기분으로 읽었다. 조그맣고 느린 것들이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는 조그맣고 느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귀여웠었는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장면부터는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높은 탑 같은 걸 쌓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과정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다.

-읽던 내용을 다시 거슬러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체가 너무 딱딱해서 좀 부드러운 글씨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구어체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 편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같은 느낌?

-잘 읽혔다. 재미있었다. 좋았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조그맣고 느린 것이 크고 빠른 것으로 바뀔 때는 우리나라의 경쟁사회 같은 게 떠올랐었다. 탄 사람에게는 어떨 진 모르겠지만 느리게 살자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던 나라서 동화 같은 글이 포근한 느낌이었다.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까지 경쟁을 했던 적이 없어서 딱히 공감이라 할 것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항상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우리학교에서는 밝고 밀치는 교육이 아닌 서로 의지하며 느리게 가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덜하고 밝고 밀치는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보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다.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 대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

한테는 이 글이 또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과하면 안 된다?

-핵심이 일목요연하지 않네요. 처음에 작고 느린 것 들이 뭉쳐서 힘을 키우다가 경쟁을 하고나니 다시 흩어지고 나서야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글의 결말에 좀 더 주장하는 바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더불어 사는 삶?

-글 자체가 '넌 꿈이 뭐야'편과 말투가 똑같고 비유법도 비슷해서 읽기는 쉬웠지만 '넌 꿈이 뭐야'편과 달리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 이 글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어린애들에게 읽어주었을 때는 부가설명을 해주어야 글의 핵심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전 의 '넌 꿈이 뭐야?'와 '짜증이 막' 편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글이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인지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무엇인지 뚜렷해서 글의 핵심은 알기가 쉬웠다.

-싸우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4. 오타가 있었나요?

-첫 문장만 '자그마한 키에~'로 나오는데 다른 문장에서는 '조그맣고 느린'으로 자주 나와서 반복 되는 게 좋았었으니까 이왕 통일해서 '조그마한 키에~'가 더 좋을 것 같다.

조그맣고 느린 것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한 번 나오고, 어느 조그맣고 느린 것이 꼭대기에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나오니까 빙빙 도는 느낌이였다.

- '~한 것'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지칭대상이 없어 '것'이라는 명사를 자주 쓰는 일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래요.

종북좌빨

1. 읽기 편했나요?

-글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문단을 다시 나눠야 할 듯. 국정원 소모임을 들어가게 된 내용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듯하다.

-힘들었다. 나에게는 많이 어려웠다 πππ

-솔직히 말하자면 편했던 건 아닌 거 같다. 딱히 글을 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그런 것 같다. 조금 더 중립적인 내용(보수의 입장)이 들어가고 그 후에 자신에 생각이 들어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읽기 편했어요. 읽다보니 화남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공감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공감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별 관심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듯.

-이 주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다. 우파의 눈에는 좌파가 병신이고 좌파의 눈에는 우파가 쓰레기인데 나는 항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아예 다 공감은 못 하겠다. 어느 부분이라고는 못 말하겠지만.....

-공감해요. 종북좌빨이 그런 뜻 인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 화남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종북좌빨이란 이런 것인데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사회도 잘못됐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많이 어렵네요. 정부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ㅎ

-역시 잘 모르겠지만 핵심이 좌파가 옳고 우파는 나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자...?는 아니겠지?

-보수성향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서 종북좌빨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나 말하라는 것...???

주여

1. 읽기 편했나요?

-읽기 편했지만 너무 똑같은 뉘앙스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았고 제목을 바꾸는 걸 추천함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매우 공감이 되었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의 대한 불편함을 얘기 하는 듯.

짐 코너

1. 읽기 편했나요?

-음....읽기에 무리는 없었다. 오히려 평소 가지고 있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부터 대뜸 내 삶이 막막하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니 많이 의아했다. 아..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지민 이도 참 고민이 많고, 속이 깊은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어 읽을 때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다. '나는'이라는 말을 덜 써도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라는 게 표현 이 될 것 같다.

'엄마가 없어서 포옹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부분... 왠지 같은 느낌의 말이 반복되는 느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니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미안마나라의 문제라고만 하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행복해보였다. 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 지민이가 짐코너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덱을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써 아이덱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잘 읽혔다. 뭔가 크게 문맥이 이상한 거나 많이 어색한 것도 없고 잘 읽혔다. 문단이 나눠져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글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다가와요. 조금 부드러운 서체로 바꾸면 읽기에 더 좋겠습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어릴 때도, 요즘도 가끔 하곤 하는. 십대의 청소년기에 흔히 하는 고민과 생각인 것 같다. 글을 읽는 내내 옛날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힘내!!ㅋㅋ 강의를 듣고 좋은 목표를 세운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에게 많음으로 이 글 (짐 코너) 은 나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핵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겠구나'하는 목표가 생긴 것 같은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앞을 나아가며 행복을 찾아간다면 공포와 고민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누어 살며 행복을 찾자는 이야기지요?

4. 오타가 있었나요?

-오타는 없었던 것 같고...ㅎㅎㅎ 1번에서 말했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단어? 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해요. 글은 많이 고칠수록 나은 거라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충분히 많이 고친 것 같은데...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못했던 것 같기도!! 글을 쓸 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러요!!ㅋㅋㅋ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네요.

짜증이 막

1. 읽기 편했나요?

-내용도 쉽고 평소에 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쉽게 읽혔지만 중간중간 맞지않는 문장이나 단어 때문에 흐름이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었다. 다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긴 글도 아니고 어려운 낱말이나 문장들도 없어서 읽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동생에 관해서는 논문스트레스로 짜증나는 일이 많으니 공감되었다. 짜증과는 별개인가? 요즘 정말 스트레스 해결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 많이 한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쓰면서도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누구나 살면서 매번 있는 일이라 쉽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다. 이글을 보면서 내가 이 글과 같은 상황일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 내가 짜증을 내고 기분이 좋지 않단 식으로 화를 내었을 때는 내가 화나고 속상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주고 먼저 물어봐주기를 위로해주기를 바랬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나에게 조금 이 순간만큼은 조심히 대해주길 바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화난 이유가 별것이 아니거나 말하기 부끄러울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짜증으로 승화가 되긴 하지만 말이다. 짜증을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안 가게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 것 같다.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 무덤덤해지거나 그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방법밖에 없는 듯하다. 물론 이 방법은 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타이밍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그냥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말이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힘든 일은 나누면 적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짜증을 마냥 참기만 하면 언젠간 그 기억과 감정이 불시에 튀어나와 또 다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해소도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의견들도 듣게 되어 나중에 되풀이 할 일도 적으니 훨씬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만 나에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방법인 듯하다. 주제 자체가 일상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생각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읽기 좋았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짜증이 막 난다.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민폐를 끼치게 된다. 짜증을 풀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흐름이라던가, 공감은 잘 되는 것 같다. 핵심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저분한 느낌?

-이글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이 그냥 감정과 상황만 글에 나타나 있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을 의문문으로 끝나서 독자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의 던져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하고 공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잘 나타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글의 목적은 잘 모르겠다.

4. 오타가 있었나요?

-첫 문단(?)에서 ‘성민이는’이 두 번 나오는 게 어색하다. 그 외 유민이와 아이들 도 문장 다듬기가 필요할 것 같다.

첫 문단 마지막에 ‘짜증이 많이 난다.’는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미 문장을 시작할 때 ‘짜증이 많이 난다.’보다 더 강력한(?) ‘짜증이 막 치솟는다.’를 써서 그런지 흐름이 어색하다.

‘짜증이 막 치솟는다.’보다 더 강한 느낌의 말이나, 아니면 두 문장의 위치를 바꾸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동생들에게 짜증을 냈고 친구들에게 짜증을 냈었다]에서 [짜증을 내지 않으면 눈물이 난다]로 이어지는 게 너무 금방 지나가버린 것 같아. 이건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야!

앞에 [짜증냈었다]라는 내용에 비해 [짜증을 내지 않으면 눈물이 난다],[짜증을 푸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이 쪽의 내용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찰리 채플린

1. 읽기 편했나요?

-술술 읽혔다.

-흥미롭고 집중해서 읽었던 글인 것 같다. 찰리채플린과 자신의 경험? 이런 바탕이 잘 어우러진 것 같다.

-글이 문단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읽기 힘들었다.

-뻘한 말이긴 하지만 잘 읽혔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논문을 안 써 봐서 자책밖에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

-논문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공감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너무 한없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공감되지 않았다.

-나도 논문 쓸 때 한창 자기 비하와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만 보낼 때가 많았다. 그 때 내가 이런 글을 보았더라면, 글쓴이가 깨달은 것처럼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논문을 쓸 2학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핵심 잡는 게 가장 어려운 듯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숨겨져 있지 않고 마지막에 모두 설명되어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정작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또 ‘에이, 다른 사람도 앓하는데 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루고, 또 미루다 결국 망한다.

4. 오타가 있었나요?

-맨 앞의 찰리 채플린의 말은 본문과 좀 띄우고 진한 색으로 강조하면 좋을 듯! 그러면 훨씬 눈에 잘 들어와

하루를 후딱 보낼 수 있는 것

1. 읽기 편했나요?

-짧은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 하는 듯 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읽기는 엄청 편했다.

2. 글이 공감이 됐나요?

-페인같이 보내지 않으면 미쳐버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휴식을 한 기분이라는 대목에는 공감이 가지 않네요.

-하루를 후딱 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가 좋았다. 솔직하고 귀여워요 ㅎㅎ

3. 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글의 핵심)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인가요? 그런데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주관적으로 보입니다.

-네~

4. 오타가 있었나요?

- 남에게 보여주고 공감을 사려면 어법을 지키는 편이 좋겠어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차라리 이해해 주어야 한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편이 좋겠어요.

(3) 독자와의 만남

내가 쓴 글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비평 등이 있다. 나는 그 주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썼다. 그 주제들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내가 쓴 22편의 글 중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글로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넌 꿈이 뭐야?,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편을 뽑았다. 독자단 평가를 진행할 때 이 3편의 글을 읽어줬던 간디인들에게 독자와의 만남을 부탁했지만 간디인들의 사정 상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되는 간디인과 같은 성별, 같은 학년의 다른 간디인에게 부탁했다. 나이, 성별이 다양했다. 쌤들이 계실 때도 있었고 안 계실 때도 있었다. 만남은 주로 40~50분 동안 진행됐고 나를 포함해 5,6명 정도였다. 주제에 대해 간디인들이 무엇을 말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들을 짰다.

1. 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

-겪지는 못한 일이지만 학교 안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 좀 공감했던 것 같아.

-내가 겪기보단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겪은 일이라 절절하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주제를 잘 집은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

-내 주변사람들이나 형제들은 아이를 다 일반학교에 보내고 학원을 보내. 시스템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짱이 두둑한 것이라 일반학교,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나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대안학교가 성공했다는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대안학교를 부러워하지는 않아.

-비가 오는 날 효원이네 집 앞 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큰 삼성배달차가 미끄럽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빨리 달리 길래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바쁘대'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달리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어. 사실 그 사람들을 보고 옆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시스템을 나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인 것 같아.

-친구 중에 이 주제에 딱 맞는 친구가 있어.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데, 친구가 3학년 2학기수학문제집을 일년에 6권을 풀었대. 그래서 50분짜리 시험에서 30분을 자고 20분 동안 허겁지겁 풀었는데도 100점을 맞았다고 해.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그렇게 됐을까 안쓰럽더라. 그 친구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공부만 시키고 특성화고는 절대 안된다며 인문계를 가라고 하셔. 이런 문제로 그 친구는 엄마와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해. 그 친구가 항상 대안학교에 다니는 나를 부러워하는 데 많이 안쓰러웠어. 부모님들이 공부만을 하나의 길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안타까워.

-세상에 직업은 많은데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은 열 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런 부모님들은 공부만 하며 사셨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엄마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항상 혼나고 대화는 끝난다고 해. 서로 제대로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한 5년 뒤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했어. 학교를 졸업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할 거 없이 배회하고 있고 가족들은 항상 학교를 간다거나, 어디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 너희는 할 게 없어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런 생활을 한두달 했는데 그 옛날에 일반학교 다니던 친

구들이 명문대를 가고 유학을 갔다고 해. 지금은 너희가 일반학교 학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때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만약에 내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어, 근데 명문대를 떨어졌어. 그럼 재수생활을 할 텐데 그 재수생활이 제가 간디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는 나태한 생활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는 명문대를 갔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절친이라 맨날 볼 사이야. 그 친구는 방학 때 남자친구랑 독일 여행을 가고 미팅도 한 대. 그럼 부러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너희들 보고 놀아라, 하시는데 20대 때까지 계속 노는 너희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몇이나 되실까?

-내가 일반학교를 다녀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거나 재수를 했으면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계속 들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할 거구. 일반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면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거야. 그런데 내가 이대로 간디학교를 졸업하고 산다면 불안하기만 할 뿐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대에 간 거면 부러워 할 텐데 그냥 서울대를 위해 아무과나 골라서 갔다면 내가 설령 백수라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

-일반학교를 다녀서 대학을 가도 캠퍼스로맨스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대학에 왔다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을 것 같고, 대학의 교육이 재밌지도 않을 것 같아서 별로 안 부러울 것 같아.

-난 캠퍼스생활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만약 대학교를 갈꺼면 내가 한 학년 밑에서 다니는 건 싫어서 인턴쉽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구.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정말 캠퍼스생활밖에 없어.

-사실 난 대학을 가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캠퍼스생활이 궁금해서 대학교 수업을 한번쯤 들어보고 싶어.

-부모님들 중에서도 대학 과와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그래서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어서 대학을 갔어도 그 과의 다른 사람들은 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온 거라 대학에서 나 혼자 겹돌 것 같은 느낌이야.

-사실 1학년이라 검정고시 같은 것, 또는 이런 얘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아.

-3학년이 되면 검정고시를 볼지, 안 볼지 조금은 고민하게 돼.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를 나왔는데 아직까지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면 조금 불안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식의 습관이 쌓이다 보니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알바를 할 때만 해도 학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잖아.

-보통의 부모님들은 계속 공부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까?

-그러게. 우리 부모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 가족끼리 밥 한번 같이 못 먹는 생활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보낼 학교를 찾아보다가 대안학교를 알게 되셨다고 해.

-아빠가 이제는 바쁘시지 않지만 정말 바쁘실 때는 얼굴을 거의 못 봤어.

-주변에 대안학교를 간 사람도 없고 대안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서울의 학원가에서 살았었어. 아빠가 주말농장을 하시다 보니 귀농을 하시고 싶으셔서 귀농학교라는 곳에서 양썸의 강의를 듣고 학교를 알게 됐어. 엄마는 원래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으셨구.

-사실 일반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과 두 친구의 부모님들은 시작이 같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셨어. 그런데 두 친구의 부모님들은 다른 길을 알게 된 거지.

-그 분들은 사실 기득권층을 버린 거잖아,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버린 거잖아.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너희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냐? 나중에 부모님한테 다시 그 직장에 다니시라고 하는 거 아냐? 왜냐면 너네도 크고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 만약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 여기 글(20세기 아이들과 다를 수 밖에 없는 21세기 아이들)에 나오는 분들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 가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가자는 거지.

-최게바라는 열심히 알바를 해서 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정말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 '나는 언젠가 잘못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큰 것 같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최게바라는 단기간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최게바라는 그 단기간의 계획, 예를 들어 6개월의 계획이 끝나도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런 믿음도 있고 사실 최게바라는 의사잖아. 기본적인 힘이 있지. 사실 내가 6개월을 버는 거랑 최게바라가 6개월을 버는 거랑은 정말 다르겠지. 그래서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배부르다는 눈 초리도 있어. 부모들이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어서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귀족학교라는 얘기도 있지. 근데 여기 한 친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잖아.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젊은 언니였어. 살사 동호회를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 열심히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댄스동호인 마을을 만들 거래. 그리고 동물들의 천국(?) 같은 걸 만들 거래.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이지.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도 안하고 언제까지 돈만 벌 거래. 꿈은 참 좋은데 지금 그 사람이 돈을 너무 악착같이 버는 삶은 좋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꿈을 지금 이루면 안되냐고 물으니깐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어. 그런데 과연 돈이 없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까? 동호회 사람한테 회비를 받아서 집을 꾸리고 강아지들을 데려와서 키우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놀라더라고, 충격 받은 것 같았어. 그 꿈을 이루겠다고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어떡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 대학가서 뭐할 건데, 의사 되서 뭐 할 건데, 개업해서 뭐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의사들도 줄 잘 서야하고 어렵더라구. 의사가 되서 과장이 되고 병원장이 됐어. 병원장이 되면 이사장들에게 아부도 해야 돼. 그렇게 계속 꼬리잡기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병원장이 되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해.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굳이 병원장이 되지 않고 결혼해서 가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려도 되는 거고, 아님 모임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부리면 되지. 몇 줌 안되는 그 영향력을 위해 그 사람은 몇십년을 바치는 거야.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꿈을 이루고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돈 없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꿈을 이루라고, 돈은 개의치 말라고 말하기가 조금 망설여져. 사실 내가 그렇게 가난해보지도 않아서. 내가 남의 일이라 쉽게 꿈과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근데 사실 돈을 벌어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별로 없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데 넌 어때?

-난 사실 꿈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어.

-우리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살림하면 남자가 살림한다고,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할 것도 같을 것 같아.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어. 딱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거든.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건 비싼 건데 내가 돈이 없을 때 나는 결국 알바를 하고 싶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은 학생이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하고 싶은 걸 돈 때문에 못하게 될 때 좀 슬플 것 같아.

-옛날과는 다르게 한시간에 5,000원 위로 임금이 오르지도 않아. 50,000원을 벌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은 일해야 하는 거야. 근데 막상 50,000원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금방 쓰게 되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두 시간을 일하면 피자 값은 나와야 하는데 내가 피자집에서 일하면서 피자를 먹으려면 대 여섯 시간을 일해야 하는 거야. 내가 못 먹는 걸 팔고 있다는 게 슬프지 않니?

-구두 가게에서 일하면 구두는 삼백만원 정도는 하거든. 그럼 파는 사람 기분은 어떨겠어.
 -그럼 내가 구두보다 못한 건가? 라는 기분도 들 것 같아.
 -요즘 옷도 너무 비싸. 짠 게 삼만원이야. 난 항상 동네에 있는 짠 집에서 사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말 비싸더라고. 근데 내가 보는 걸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한달에 백만원을 번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데이트 한번 하면 십만원도 우습지 않니? 그럼 한달에 아무 것도 못하고 데이트 열번밖에 못하는 거야.
 -일학년들이 말을 별로 안했네. 너네는 어때?
 -근데 나도 일학년 때 별 생각 없이 놀아서 이런 문제가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
 -일학년들은 간디학교에 온 것에 대해 아직 후회는 없니?
 -집에 가면 친구들이 맨날 시험기간이라고 못 논다고 하는 것 보고 내가 일반학교가면 어땠을까 싶어. 조금 무서웠어.

2. 너 꿈이 뭐야

-나는 3학년 들어서 진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는데 저학년 친구들도 고민이 있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서 여유롭게 생각하기로 했어.
 -나도 그냥 졸업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어.
 -난 여유롭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되거든.
 -벌써 고민할 필요 없어.
 -알바만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활비를 벌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하고 알바만 해야겠지.
 -나중에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 뭔가 큰 걸 찾아다니고 있어.
 -나는 내년에 인턴을 가게 되서 이게 당장 닥치는 문제라 너무 막막해. 인턴이 내 진로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만 파는 성격이라 보는 폭이 너무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내 관심사와 다른 곳을 가고는 싶은데 너무 막막해.
 -인턴하던 곳으로 취직하는 사람은 없나?
 -졸업생중에 무빙, 인턴 3년을 다 한살림으로 가서 한살림에 취직해서 1년 근무하다가 군대 간 형도 있어.
 -근데 졸업생 중에 인턴 때 음식관련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금전적인 부분은 도움이 안되서, 졸업 후에 다른 음식관련 일을 하고 인턴 때 했던 일은 취미로 하는 졸업생도 있었어.
 -혹시 다들 좋아하는, 또는 하는 걸 좋아하는 분야 있어?
 -나는 연극 좋아해. 직업, 진로랑 꿈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직업으로 연극을 하고 싶지만 생활하는 건 꿈인 것 같아.
 -나는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전어도 열개국은 가보고 싶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지금부터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계바라가 여행 갔다 와서 통장에 5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
 -디자인이 꿈이었는데 이 학교를 나온 이상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졸업생들을 많이 만나는 논문을 쓰면서 졸업생들이 많이 말해줬는데 미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학기에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래. 나보고 너무 꿈을 바라보고, 너무 머리로만 하고 있다고 했어.
 -이 주제가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고, 너무 막막한 주제라 얘기하기가 싫어. 무빙은 삼주라 어디를 가든 크게 상관없는데 인턴은 삼개월이라 많이 고민하게 돼.
 -졸업생들 중에 인턴쉽 때 여행을 가서 그게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필리핀이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
 -논문이 내 진로에 도움을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도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논문을 쓰면 그게 싫어진다는 말이 있길래,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어떤 애

들은 논문을 통해서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싫어지면 안 맞는 게 아닐까.

-학교에서 진로나 미래에 대해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해도 답은 없는 것 같아. 많이 해보거나, 무언가 하나를 잡아서 꼭 해보는 게 나올 것 같아.

-기타도 심심해서 치는 거고 시사도 딱히 좋아해서 읽는 건 아니고 내가 딱 빠져들고 싶은 게 지금은 없어. 잡생각이 많아서, 좋아하는 건데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시사에 관해서 무빙도 갔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 경험이 그나마 있으니까 일이 쉬울 것 같아서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을 좋아해서 간 건지 잘 모르겠어.

-꼭 좋아하는 분야로 가야 할까? 좋아하진 않지만 잘하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내 상태가 의심되고 의문이 드니까 뭔가 빨리 결정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는 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같은 것을 말야. 요즘 들어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흥미가 붙는데 조금 힘들다고 흥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일에 내가 흥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논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어떤 형태로든 글을 쓴다면 흥미가 있는 걸 거야.

-이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실 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어.

-결국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제는 말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지금 고민해봐야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뭔가 많이 해봐야 한다’ 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애가 좋아하는 일을 듣고 자신이 그 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일에 흥미가 없는지, 있는지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해줄 수도 있지.

-주위 사람이 영상 찍는 걸 좋아했어. 영상이 괜찮아 보여서 영상을 시작했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어.

-제대로 모르는데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1학년 때 멋있어 보여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나랑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

-다른 주제면 정말 잘 얘기할 텐데, 주제가 너무 막막한 것 같아.

-너무 막막한 사람하고 딱히 별 생각 없는 사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네.

-나는 그냥 대충 살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산다는 게 조금 불안하지 않아?

-지금 고민해봐야 지금 일이 아니잖아.

-지금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고민해서 빨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거지.

-자신이 좋아하는 건 굳이 찾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직 모를 수도 있지.

-난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5년 동안 했던 기타도 내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면 알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겠어.

-좋아하는 걸 꼭 찾으려고 하는 게 약간 강박관념일 수도 있지.

-옆에 친구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없다면 불안한 거지.

-1학년 때 그랬어. 너네는 여우하품 연습하러 가고 나는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1, 2학년 때는 뭔가 바쁘고 싶은데 지나고 보면 쓸 데 없는 것 같아.

-너네는 바쁘고 싶어?

-아니, 딱히.

-잘 생활하고 있네.

-1학년 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과하고 놀고 싶은데 괜히 안 놀고 기타치고 그랬지.

-맞아. 나는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이런 주제로 주위 친구들과 열띤 대화를 해서 그런지, 이 주제로 다들 할 말이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해.

3. 어른들이 차라리 명령했으면 좋겠다.

-여러 주제 중에 왜 하필 이 주제를 정한 거야?

-처음에는 내 책의 챕터 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챕터 중에는 나의 소소한 이야기도 많아. 그런 이야기들은 함께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정했어.

-다른 주제들도 함께 이야기한 친구의 얘기를 듣고 싶어.

-나는 지민이하고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되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

-글에 대해 질문해도 돼? 그래서 지민이는 수동적으로 살고, 중고등 시절에는 조금 명령을 당했으면 하는 거야?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내가 '차라리 명령을 당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시작한 거야?

-사실 제목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고 그냥 정한 거야.

-제목이 임팩트가 있네.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논문을 바라기 보다는 학생이 무언가 하나를 해내는 걸 바란다는 부분이 제일 공감이 됐어. 나완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했어.

-앞에 '3학년이 되면 우리는 논문에 내던져진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지금은 논문이 끝나가서 그런지, 이 글을 쓸 때 내가 정말 논문을 하기 싫어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사실 이 글을 쓸 때가 논문을 정말 쓰기 싫어했을 때였어.

-내년에 2학년들이 공감할 것 같네.

-논문을 진행하는 내내 막막함을 많이 느껴서 논문을 정말 쓰기 싫어했어. 논문을 쓰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유별나게 힘들어 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

-너도 그렇지만 다른 3학년 친구도 그랬을 것 같아.

-쓰기 싫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잘 안 풀려서 힘들기는 했어. 재밌던 것도 많은 것 같아.

-난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고 힘든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논문을 쓰면서 그 분야(?)가 더 좋아졌대. 근데 난 그런 건 없이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 언니는 어땠어?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주제가 명확해서 막막해 하면서 힘들어한 것 없고 몸이 힘든 거였어. 그리고 논문을 되게 재밌게 썼어.

-내가 생각하는 지민이는 뭔가 복잡하고 무언가를 끈기 있게 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이 논문이 지민이의 복잡한 면들도 풀어 주고, 지민이가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냄으로써 조금은 끈기가 생겼지 않을까 싶어.

-논문을 통해서 끈기는 조금 생긴 것 같아. 내 복잡한 면들은 논문을 통해 더 복잡해졌다가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

-5학년 친구는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 친구들이 느끼는 불안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을 느꼈을 것 같아.

-진로에 대한 불안 말이야?

-진로도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불안할 수도 있지. 일반학교에서는 시험점수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는 없지.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밖에 있는 친구들은 누가 원하는 목표건 뚜렷한 목표(아마 대학이겠지)가 있어. 친구들은 뚜렷한 목표도 있고, 대학을 갈 텐데 나중에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지면 밖에

있는 친구들보다 뒤쳐질 것 같았어. 내 동생만 해도 축구를 하는데 나는 명확한 게 없잖아, 그래서 동생을 조금은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내가 명확한 진로가 있길 바랬는데 사람이 많은 날을 살면서 한 가지만 할 순 없잖아.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 보단 지금 당장의 일(인턴쉽이나 과제)에 조금 더 집중하면 언젠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중학생 땐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

-너무 정답만 이야기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어른들도 바람직하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 근데 이 고민이 바람직하다고 덜 힘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어른들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짜증났어.

-근데 사실 나도 논문을 쓴 지 얼마 안됐지만, 너희가 논문발표하는 걸 보면 내가 괜히 대견하고 뿌듯 하더라고, 힘들다고 짜증내는 것도 그때니까 주위 사람들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 나중에 크면 그렇게 옆에서 들어 주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지.

-근데 얼마큼 크면 자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할까?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내가 실수한 걸 다른 사람이 책임져주지 않을 때인 거지.

-우리학교의 아이들이 지민이가 글에 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

-중3, 고등부는 할 것 같은데 너도(2학년) 하니?

-나 혼자 뭘 할 때는 다 하고 나서 뿌듯하고, 누군가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해.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어.

-논문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아.

-1,2학년들은 하다가 안되면 ‘될대로 되라’하면서 놔버리기도 해.

-논문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것(논문)을 2학년 때 경험하면 어떨까?

-3학년 때가 딱 맞는 것 같아. 1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하고 2학년 때는 감정기복이 좀 심해서 잘 안 맞을 것 같아.

-다른 학교처럼 졸업논문을 쓰면 그것에 준하는 성과도 바랄 테니 다른 의미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

-맞아. 졸업논문을 쓰면 내가 살아온 6년을 졸업논문으로 평가하는 기분이 들 거야.

-중3이 논문 쓰는 거랑 고3이 논문을 쓰는 거랑 많이 다르지.

-산돌학교는 고3이 논문을 쓰거든,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더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못 했어. 우리학교도 고3에 논문을 쓰면 그런 생각을 하겠네.

-사실 중3 아이들 논문 중에 논문으로써는 성립이 잘 안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니까 하는 주제들도 있잖아. 중학생들의 논문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졸업논문은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논문이 되게 좋은 기원 것 같아.

제법 재밌었던 것 같다. 간디인들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한 주제도 있었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주제도 있었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알게 되진 않았지만 간디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III. 결론

1. 후기

음.... 어... 후기라. 잘 모르겠다. 열심히 작품을 쓰고, 본문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기는 정말 신나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쓰려고 보니 후기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논문을 하면서 ‘막막함’을 가장 크게 느꼈다. 논문을 하기 전까지 막막함은 나와 친하지 않았는데 논문을 쓰면서 막막함과 너무 친해져 버렸다.

읽기만 했던 글을 나도 이제 써 보자고, 내가 단편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을 어딘가에 기록해보자고 생각하며 논문계획서에 야심차게 글쓰기를 적었다. 계획서 발표를 하고 무빙을 다녀오고 방학이 왔다. 어떤 글이든 쓰긴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났다. 무엇을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논문을 끌어 나가야 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글로 쓰고 싶은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내 글에서 볼 수 있을지 걱정만 많아졌다.

그렇게 막막한 상태에서 쓴 글들을 조금씩 모아 책을 만들고 논문발표를 했다. 논문발표를 하고 책 만드는 작업을 하고 기타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글쓰기는 조금 쉬었다. 조금 쉬엄쉬엄하며 글 한편을 다시 써봤다. 글쓰기에 대한 나의 답답함(주된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읽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조금은 해소됐다. 글이 조금은 나아진 것이다.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글쓰기를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내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 내 글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등 나의 글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논문을 하며 무엇보다 내 안의 복잡함이 많이 가라앉았다. 괜히 이것, 저것 지나치게 생각하고 걱정하던 것이 사라졌다.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힘들고 막막하고 짜증나는 논문이었다. 그런 논문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논문으로 많이 괴로워한 만큼 뭔가 성장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논문이 무사히 끝나서 정말 기쁘다!

2. 고마운 사람들~!

내가 논문으로 이것, 저것을 부탁했는데 들어준 간디인들에게 감동했다. 너무 너무 착한 간디인. 일단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읽고 평가해준 한울이, 한결이, 성현이(여), 주열이, 규동이, 동현이, 어진이, 시은이, 효연언니, 형규오빠, 지형오빠, 한새오빠, 도운언니, 미리쌤, 수진쌤, 독자와의 만남으로 재미없었을 텐데 와준 유경이, 다민이, 한슬이, 하성이, 재성이. 독자단 평가도 엄청 성실히 해주고 독자와의 만남도 해준 소아언니, 준상오빠. 무려 세 번이나 와준 형서. 바쁜대도 와주신 희라쌤, 종명쌤, 전산실에서 “저기 자리 좀~”이라고 말하면 바로 비켜준 간디인들, 뽀신이자 나의 포토샵 선생님이 된 은수, 그림 그려달라고 급하게 부탁했는데 수채화(완전 예뻐!!!)하고 색연필로 완전 예쁘게 그려준 가원언니! 자야했을 텐데 가정학습 때 그림 그려준 서경이, 웬진 모르겠지만 뭔가 써야 될 것 같은 글쓰기 개프~, 내가 논문으로 짜증내고 까불대도 받아주고 꼭 땡스투에 넣어달라는 예림언니ㅋㅋㅋㅋ, 대신 말 없이 청소해준 다민이, 지현이, 맨날 나 완전 잘 꼭 꼭 일어날 때까지 잘 깨워주고 내가 막막해할 때 괜찮다고 해준 박성민, 옆에서 나나나 하는 기중오빠, 진짜 남 몰래 가슴 졸이시고 걱정하시고 밤에 맛있는 거 먹이느라 고생하신 민혜쌤, 막막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나를 차분한 말투로 “지민아~”하며 토닥이고 이끌어 주신 상현쌤, 집에 가도 완전 짜증내면서 안 놀아줘도 내가 힘들어 하면 “누나~ 조금 쉬었다가 해”라고 말해주는 유민이,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내고 컴퓨터 계속 쓰고 힘들다고 찡찡대기만 하는 나한테 아무 말 없이 학교에서 받은 초콜릿 같은 거 준 성민이, 힘들어하고 막막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나한테 엄청 엄청 엄청 엄청 힘이 되준 엄마, 아빠 다들 엄청 엄청

감사해요~~~~♡♡♡♡♡♡♡♡♡♡♡♡♡♡♡♡

길고양이의 문제점과 대안 알리기

지도교사: 양정호



이름: 이진주

좋아하는 것: 고양이랑 라면이랑 초코랑 방금 구운 빵이랑 따스고 야들야들한거랑
이것저것 좋아해요.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고양이
 - 1) 반려고양이
 - 2) 길고양이
2. 사람과 길고양이의 문제점
 - 1)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점
 - 2) 길고양이에게 생기는 문제점
 - (1) 학대 및 범죄 노출
 - (2) 유기동물 보호센터, 안락사
 - (3) 타우린과 여러 가지 영양문제
3. 대안
 - 1) 대안 알아보기
 - (1) 전문가 인터뷰
 - (2) 성기창 원장님 소개
 - (3) 인터뷰 하기
 - (4) 느낀점
 - 2) 대안
 - (1) TNR
 - # 1 TNR을 하는 방법
 - (2) 길고양이 급식소
 - (3) 반려동물 등록제도 대상 확대
 - 3)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 (1) 다큐멘터리 시청
 - # 1 감상평
 - (2) 경험담 듣기
 - # 1 이용한 작가
 - # 2 안녕 고양이 시리즈
 - # 3 감상평

4. 활동하기

- 1) 소모임
- 2) 대자보 홍보활동
- 3) 다큐멘터리 상영
- 4) 책갈피 나눠주기
- 5)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기
- 6) 팸플렛 나눠주기
- 7) 모금활동

III. 결론

1. 앞으로의 계획
2. 느낀점
3. 땀스 투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여렸을 적부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늘 고양이라는 동물이 존재하고, 길고양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궁금해 한 적은 없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주변에 길고양이가 있었고 몇 번쯤 봤던 반려고양이는 쓰다듬고 예쁘다는 생각만 했지 관심이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SNS에서 보게 된 고양이의 행동이 너무 귀여웠고 그 뒤로 고양이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 길고양이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보게 되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길고양이의 힘든 삶은 충격적 이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 논문의 목적

길고양이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싶다.

3. 연구방법

TNR정책에 참여중인 수의사 인터뷰, SNS 고양이 커뮤니티 참고, 현재 활동중인 캣맘 인터뷰

II. 본론

1. 고양이

야생성이 강한 포유류 동물이다. 영역생활을 하는 야행성 동물이며 육식동물이다. 야생에서는 벌레, 설치류, 조류를 잡아먹고 살며 먹기 쉬운 것부터 먹는다. 타우린이라는 영양분을 다른 동물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 주변 환경에 예민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겁이 없는 편이다. 관절이 유연하며 하루의 반을 잠으로 보낼 만큼 잠도 많다.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경우는 힘이 가장 세고 무리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묘가 대장이 된다. 생후 1주~2주 사이 눈을 뜨고 생후 1개월쯤 되면 거의 완벽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 생후 6~9개월쯤 지나면 첫 발정을 한다. 수컷은 발정난 암컷의 독특한 페르몬 냄새와 울음소리에 자극을 받아 발정행동을 시작하는데 보통 생후 8개월에 첫 발정을 하고 딱히 정해진 발정기가 없어 자극을 받을 때 마다 발정을 한다. 교배 후 임신 기간은 60~65일이다. 평균 수명은 반려고양이 15년, 길고양이 3년이다.



1) 반려고양이

반려 고양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고양이를 뜻한다. 애완고양이라고도 불렸으나 ‘동물이나 물품을 아끼고 즐기다’라는 애완의 뜻이 생명에게 부적합하다고 하여 반려자(친구)를 뜻하는 반려동물, 반려고양이로 불리게 되었다. 고양이를 처음으로 가정에서 키우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로 추정된다. 곡물 창고를 습격해 큰 손실을 입히는 쥐의 천적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 뒤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고양이는 바스테트¹⁾로 숭배되어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했

1) 음악과 풍요, 여성의 보호자이자 다산의 여신

으며 고양이를 이집트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대륙을 오가던 선원들에 의해 반려고양이의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반려고양이는 생활하는 공간이 제한되는 고양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양이도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공간에서 산다. 수많은 종의 고양이 중에서도 반려고양이로 살아가는 품종묘는 15종정도 되며 평균 수명은 개체 또는 품종 특성으로 차이가 있다. 고양이는 도도한 성격 때문인지 개처럼 애교를 많이 부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을 주인이 아닌 집사라고도 한다. 반려고양이와 함께 살 집은 넓을수록 고양이에게 좋다. 호기심과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에 예민해 자신의 집에 익숙한 고양이는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산책을 즐기는 고양이도 더러 있으며 새끼의 수는 초산일 경우 대부분 3마리 전후이며 초산이 아닐 경우 4~7마리까지 낳기도 한다. 어미고양이가 주변 환경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새끼의 수가 더 늘어나며 새끼가 태어난 후 주인이 새끼를 관리해주는 경우가 많아 반려고양이의 새끼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크다.

2) 길고양이

길 위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를 뜻한다. 과거에는 반려고양이었지만 유기²⁾되거나 길 위에서 태어난 고양이들이다. 옛날부터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의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해 도둑고양이 또는 야생고양이라고도 불리지만 길고양이가 정확한 명칭이다. 한국의 길고양이는 대부분 코리안 숏 헤어라는 전형적인 한국 고양이이며 줄여서 코숏이라고 부른다. 간혹 다른 품종의 고양이가 있지만 그 고양이들은 유기고양이일 가능성이 크다. 길고양이는 생활하는 공간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길고양이와 싸워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죽는다. 한국의 길고양이 평균 수명은 3년이며 고양이의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길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의 영역에서 주민과의 마찰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보호소에 잡혀 가 안락사를 당하거나 도시화되어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지나다니다 로드킬을 당하거나, 영양문제, 스트레스, 동사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런 길고양이의 상황을 안쓰럽게 여겨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등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캣맘이라고 하며 최근들어 캣맘의 수가 늘어 캣맘들이 모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길고양이의 새끼 수는 보통 5~7마리 정도지만 어미고양이가 주변 환경이 위험할수록 새끼의 수를 늘린다. 태어난 새끼가 살아남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태어난 새끼 길고양이는 생후 3달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1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교배 후 어미고양이 혼자 새끼들을 돌본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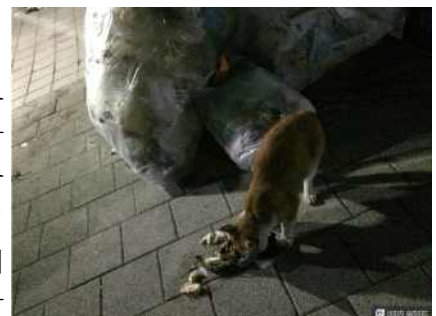
2. 사람과 길고양이에게 생기는 문제점

사람과 길고양이는 살아가는 장소가 겹친다. 그리고 서로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며 소통이 불가능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1)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점

(1) 음식물 쓰레기봉투 훼손

길고양이의 주식은 벌레, 설치류, 조류이며 먹기 쉬운 것부터 잡아먹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냥거리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사람들이 거리에 무방비하게 내놓아 힘들여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났다. 때문에 많은 길고양이들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 먹는다. 길고양이가 음식물을 먹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악취와 보기 좋지 못한 음식물 잔해가 남는다. 그 잔해들은 쓰레기봉투의 주인이 치워야 하며 길고양이의 이런 행동이 잦아 많은 사람



2) 내다 버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3) 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고양이의 역사

들이 불편해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시큼한 냄새나 독한 혼합물로 쓰레기봉투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시청에 길고양이를 잡아가라며 신고를 하기도 한다.⁴⁾

(2) 발정음과 활동소음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다. 길고양이 중 다수는 낮에 햇빛을 받으며 따뜻하게 낮잠을 자고, 밤 10시쯤 활동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냥이나 영역싸움 등 각자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밤에 건물 위로 올라가 빠르게 뛰어다니고 뒹굴기도 하면서 요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하는 영역싸움을 하기도 하며, 발정이 온 암컷고양이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울음소리와 수컷고양이는 구애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길고양이들의 행동은 밤이 되어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암컷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아기 울음소리 같아 공포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2) 길고양이에게 생기는 문제점

(1) 학대 및 범죄 노출

길고양이를 잡아 낚시줄로 거꾸로 매달고 얼굴을 불로 지지고 도망간 “서대문구 길고양이 학대사건”,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의 꼬리를 자른 “노원구 길고양이 집단 꼬리 절단 사건” “압구정 아파트 길고양이 학대” 등 대표적인 길고양이 학대 사건들이 많다. 이슈화 된 사건들 이외에도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학대를 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엄연한 동물보호법의 위법 대상에 포함되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는 처벌까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 제대로 처벌된 건은 하나도 없으며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2) 유기동물 보호센터, 안락사

주민의 피해 신고로 포획된 길고양이는 대부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된다. 많은 보호소에서 잃어버린 주인을 찾기 위해 10일,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 10일 총 20일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동물을 보호하게 된다. 보호소에서는 한 마리당 한 달 사료 값 1만원과 생필품, 관리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받는데 이 금액은 보호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 시설과 위생이 깨끗한 상태로 관리되기가 힘들다. 또 보호소에 오는 동물들 중 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부 보호소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픈 동물을 다른 개체와 분리하고 간단한 약을 먹이는 것이 최선인 곳이 많다. 또 많은 보호소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돌기 쉬운 구조라 가볍게는 피부병부터 치명적인 범백⁵⁾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기도 한다.



4) http://blog.naver.com/ha_pppppy?Redirect=Log&logNo=220189534581

5) 범백: 정확한 명칭은 범백 혈구 감소증이며 줄여서 범백이라고 부른다. 골수(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에 바이러스가 침입함과 동시에 체내의 백혈구(혈액세포의 한 종류로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세포이며 감염성 질환 및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기능을 한다.)를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치사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범백 바이러스는 백혈구 수치를 0으로 만들어 체내의 바범백: 바이러스로 부터 몸을 보호할 수없는 상태에서 합병증, 2,3차 감염 등과 싸워야 하는 병이며 감염된 개체의 분변, 소변과 타액으로 전염된다. 감염 후 70%이상이 1-2주의 잠복기간을 거치고 발병하며 며칠 이내로 50%가 죽는다. 이때 어린 고양이 일수록 더 쉽게 감염이 되며 생후 5개월 미만인 새끼 고양이는 죽을 확률이 60%이상이다. 감염 증상은 구토(피 토), 식욕부진, 고열 등이 있고 재감염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락스나 고온의 화염소독밖에 없다

(3) 타우린과 다양한 영양부족, 염분 과다섭취

타우린은 생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연물질이다. 고양이에게 부족하게 되면 심장병과 실명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조류, 설치류를 통해 타우린을 공급 받았던 고양이가 이제는 도시화로 인해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많은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음식물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다. 대부분 조리가 되어있어 타우린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간이 되어있다. 고양이는 사람의 몸보다 몇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작고 몸에 땀구멍이 적어 사람처럼 땀으로 염분을 배출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을 경우 염분 과다 섭취로 신장, 간에 피해를 주고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에 이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캣맘이 돌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는 어렵다.

3. 대안

사람과 길고양이가 한 곳에 살아가며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 어떤 대안은 개인이 어떤 대안은 정부나 단체가 말하는 문제점들의 대안이다. 또 이 대안들 중에는 실행되고 있는 대안도, 그렇지 못한 대안도 있다.

1) 대안 알아보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간단한 기본지식에 대한 조사를 했다. 많은 블로그와 카페의 게시 글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과 지금 어떤 대안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을 조사했고 내가 가입한 SNS의 고양이 커뮤니티에 질문을 하거나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올린 게시 글의 댓글을 확인하기도 하는 식으로 대안을 알아보았다.



(1) 전문가 인터뷰

간단한 조사 하면서 점점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해 졌는데 내가 바라는 내용의 글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내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아 인터뷰를 했다.



(2) 성기창 원장님 소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박사
전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센터장
전 서라벌대학 애완동물관리과 초방전임교수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 이사
울산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
MBC라디오 애견상담 (1995년~현재)

(3) 인터뷰 하기

Q1. TNR을 말할 때 어떻게 섭외를 받나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 중구에서는 100두 정도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120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지자체마다 TNR실시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은 지역동물병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이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희망병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중 유기동물보호소에 수의사가 있는 곳은 보호소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TNR을 몇 번이나 시술해 보셨습니까?

본 병원에서 2014년에는 20두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60두정도 실시하였습니다.

Q3. TNR을 진행하면서 수술비용이 부족하다 등과 같이 특별히 힘든 점이 있나요?

TNR은 공익적인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의사가 수술비용이 부족해도 실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TNR은 수의사들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Q4. 생후 몇 개월 정도 되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암컷은 7-10개월, 수컷은 6-8개월 정도에 실시합니다. 암컷의 경우 첫발정전에 실시해야 자궁질환과 유선종양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성성숙전에 실시하면 생식기 질환과 고환염 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의 70%를 실시해야 TNR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Q5. 귀 커팅이 고양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귀 커팅은 귀 끝의 1cm 또는 √형으로 표시하는데, 이곳은 말초혈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으며, 출혈 시 빨리 지혈되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를 가장 적게 주고 표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Q6. TNR을 받은 후 염증 등의 부작용으로 죽은 길고양이의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도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가요?

정상적인 의료행위 즉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에서 수술이 실시되었고 특이체질이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요구에 의해 야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환경의 문제로 염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가 병원의 수술실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방사 후 캣맘⁶⁾이 특별히 관리/관찰해야 할 점이 있나요?

캣맘은 수술 후 고양이가 수술 전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고양이는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식욕이 좋지만 문제가 있는 고양이는 식욕이 없고 행동이 둔하며 주변 사물에 반응이 없으므로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아야 합니다.

Q8. 수술 후 회복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보통 수술 후 조직이 아무는 기간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9. 암컷과 수컷의 회복속도 차이가 있나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컷은 수술이 간단하고 외부적으로 돌출된 고환을 제거하기 때문에 핏지만 않는다면 7일정도면 충분히 조직이 정상화 되어 방사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은 복부를 개복⁷⁾을 하여 난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조직의 복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수컷보다 암컷에게 발생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며 회복기간도 1~2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Q10.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오는 사진과 정보는 수술한 병원에서 직접 올리는 것인가요?

수술한 병원에서 직접 올립니다. 그리고 TNR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구청에 수술 부위의 전, 후 확인 사진을 보냅니다.

Q11.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중성화수술이 최선의 대책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6)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여자는 캣맘, 남자는 캣대디라고 하지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캣맘으로 통 일시켜 부르는 경우가 많다.

7) 생명체에게 수술을 위해 배를 갈라서 열다.

길고양이와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TNR이 필요합니다. 사람, 자연,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길고양이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NR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12.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는 TNR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 반려동물등록제도 대상 확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등록제도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TNR을 받지 못한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풍부한 먹이로 개체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Q13. 정부는 반려동물등록제도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마이크로칩 주사 같은 것이 고양이에게는 힘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주사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Q14. 길고양이의 꼬리 끝이 잘린 것처럼 뭉툭하고 지나치게 짧거나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끝이 성냥 모양으로 뭉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 인가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유전적인 모양 2.상처 또는 학대로 인한 절단 3.털이 뭉쳐서
잘 관찰해 보고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15.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들은 타우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생고기 말고 다른 음식으로 타우린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위적으로 타우린이 함유된 약물, 간식, 생선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사료를 줄 때에는 반드시 고양이 전용 사료를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의 사료에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고 개 사료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동물의 사료를 급여하게 되더라도 장기간 급여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사료는 영양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든 차선택이지만 자연상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대안

(1) TNR

TNR이란 trap(포획), Neuter(중성화), Return(방사)를 줄인 말이다. 말 그대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포획한 자리에 방사하는 정부사업이다. TNR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포획 후 방사를 하는 기간까지 포획된 길고양이를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TNR은 길고양이와 사람의 조화로운 삶과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실행되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70%의 길고양이 중성화가 진행되어야 했는데, 정책 시행 초기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잡아들여 중성화를 진행했다. 중성화를 시킨 개체의 수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술 후 고양이의 회복이나 방사를 하는 과정이 소홀해지게 되었고 시행 초반에는 TNR 후 방사가 엉뚱한 곳에서 진행되어 길고양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수술부위의 염증으로 많은 길고양이가 죽기도 했었다. 많은 캣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2014년 9월 1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길고양이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TNR을 진행중인 개체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는 포획된 길고양이의 정보가 포획 후 5일내로 업데이트 되며 중성화 수술 전 수의사가 점검한 해당 길고양이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특이사항 등이 적혀있다. 이로써 TNR을 신청한 캣맘은 길고양이의 현재 상황과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아직 포획날짜부터 정보가 업데이트 되

는 사이의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접속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유기동물. 동물보호소→ 길고양이→ 검색창에 TNR을 신청한 길고양이의 이름을 검색해 고양이의 사진을 찾아 클릭!

TNR을 받은 길고양이는 한쪽 귀 끝을 1cm 또는 v자로 잘라 중성화가 되었다는 표식을 남긴다. 이 표식을 “귀 커팅”이라고 하며 이 곳에 표식을 남기는 이유는 고양이의 귀 끝이 말초혈관이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지혈이 쉬우며 중성화 후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길고양이의 특성상 다시 포획되어 개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눈에 쉽게 띄며 상해를 가장 적게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성화 후 회복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개체와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수술부위를 고양이가 핥지 못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관리했다는 전제 하에 평균적으로 암컷은 8~9일정도, 수컷은 7~8일 정도다.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이라 암컷에 비해 수술 부위가 작고 간단하지만 암컷은 개복 후 난소자궁적출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컷보다 복잡하고 수술 부위가 넓어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중성화 수술을 잘 끝내고 고양이들은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 때문에 더 이상 발정을 하지 않으며 수술 전에 비해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고 온순해지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발정 울음소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영역싸움, 활동을 하며 생기는 소음이 줄어들어 주민과의 갈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1 TNR을 하는 방법

1. 각 시/구청에 TNR관련 부서로 전화를 해 TNR을 신청하고 길고양이를 포획할 날짜를 잡는다.
2. 약속한 날짜에 부서의 사람이 포획 틀을 들고 와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미리 포섭해둔 동물병원으로 이동한다. 수술할 동물병원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부서에서 미리 포섭해 둔다. 해당 병원으로 이동된 후 3일 이내로 수술이 진행되며 5일 이내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수술한 고양이의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3. 수술 후 7~10일정도 회복상태를 수술한 병원에서 관리하며 조직이 어느 정도 아물면 포획한 자리에 방사한다.

※중성화 수술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생각을 해본 후 결정해야 한다.

(2)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는 인터넷 만화작가 강풀의 제안으로 강동구⁸⁾에서 실행되고 있다.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캣맘은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게 급여를 하고 있다. 캣맘이 급식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급식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길고양이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급식소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만드는 비용이 들며 다른 주민이 길고양이가 오는 장소에 급식소를 놓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많은 캣맘은 비둘기나 다람쥐 같은 다른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급여를 한다. 이 때 고양이에게 맞는 고양이 전용 사료를 급여한다. 급여하는 양은 급여 받는 길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급여를 계속 할 수 있다면 반려고양이에게 주



8) 강풀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에 캣맘과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행을 제안했고 동시에 사료그릇 50개와 사료6톤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 후 2013년 2월 강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운행이 시작되었다. 급식소는 강동구의 동사무소 18곳 앞에 놓아 길고양이 급식소를 홍보하고 동시에 훼손을 막기 위한 감시카메라도 설치했다. 사료와 물은 각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캣맘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관리하고 현재는 50여명의 캣맘이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다. 급식소는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방수목 이고 물에 젖지 않게 고무로 짚은 다리를 세운 구조며 지붕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것을 표시하고 급식소가 강동구청의 자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급식소 운행 후 급식소 운행 전 강동구에는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찢거나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급식소 시행 후 점차 사라졌고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는 양보다 10%적게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고양이에게 주는 양의 반 정도만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유는 길고양이가 급여에만 의존해 급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때 사냥에 미숙해져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찢어 음식물을 먹는 행동은 줄어들며 사냥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 밤에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음피해도 줄어든다. 실제로 강동구에서 운영했던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 결과, 소음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문제 등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과 캣맘의 마찰, 급여를 하는 장소에 대한 부담, 날씨의 변화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길고양이에게 급여를 하지 못하는 날, 급식소 운영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해코지가 줄어들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9) 많은 캣맘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강동구 외에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없다.

(3) 반려동물 등록제도 대상 확대

반려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유기사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동물병원을 찾아가 반려동물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 한 뒤 반려동물의 이름, 나이, 거주지, 주인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담긴 목걸이형, 마이크로칩에 정보를 담아 반려동물의 몸 안에 주사하는 마이크로칩형 총 3개중에 선택해 등록해달라고 하면 된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제도의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반려동물의 60%를 차지하는 반려견만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애묘인이 늘어나 고양이를 반려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반려고양이의 주인은 고양이가 집밖으로 나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반려견만이 대상이며 고양이가 야생성이 강해 등록대상에 포함을 시켜도 되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 사례 알아보기

(1) 다큐멘터리 시청

길고양이와 함께 장기간 동안 지내며 실제로 길고양이가 하는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찾게 되었다. KBS 환경스페셜로 방영된 다큐멘터리이며 제목은 <철거촌 고양이>다. 길고양이가 살던 곳이 철거촌으로 변하게 되지만 영역을 쉽게 옮기지 않는 고양이들의 특성상 철거촌에 계속 머무르며 사람들의 위협과 친절, 로드킬, 영양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새끼 길고양이의 시점으로 찍은 다큐멘터리다.



#1 감상평

조사하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TNR, 길고양이도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되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TNR이 길고양이에게는 인간의 위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 주었고 밥을 주던 주민이 철거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면서 급여가 이어지지 않아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던 자리에서 남은 사료조각을 찾는 장면에서 너무 미안했다. “우리에게 무심코 내민 도움의 손길이 이곳을 떠날 수 없게 했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은 내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영상이 너무 생생하고 길고양이의 어려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9) 인용: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3705994044>

1) 경험자의 이야기 듣기

영상으로 길고양이의 입장을 알아보았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의 입장도 알아보고 싶었다.



#1 이용한 작가 소개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적은 몽골>, <은밀한 여행> 문화기행서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 <꾼>, <장이>, <사라져가는 이 땅의 서정과 풍경>, <옛집 기행>등을 펴냈다. ¹⁰⁾

#2 안녕, 고양이 시리즈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 라는 첫 편과 함께 3년 동안 출판된 이용한 작가의 시리즈이다. 캣 대대로 활동하며 작가의 주변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짙막한 에피소드로 정리한 형식이다. 안녕, 고양이 시리즈를 완결하고 난 뒤 <흐리고 가끔 고양이>, <여행하고 사랑하고 고양이하라> 라는 책 2권을 더 냈는데, 그 두 권은 여행을 하며 있었던 길고양이와의 만남을 적은 책이다. 안녕, 고양이 시리즈 3권을 읽으며 내가 조사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활동을 하며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충돌 같은 경험담을 알아보았다.¹¹⁾

#3 감상평

안녕, 고양이 시리즈가 에피소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3권 모두에서 느낀점이 비슷했다. 일단 나는 아직 캣맘으로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야기에 나오는 고양이의 행동이 너무 신기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달라서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았지만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뭐라고 했다던 아저씨의 이야기는 조금 공감이 됐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귀여운 그림, 예쁜 고양이 사진도 하나같이 다 좋았다.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잘하지만 내려오는 것을 못 한다 같은 새로운 사실도 알았고 원장님과 했던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조금 확인했다(성장속도, 습성 등등).

4. 활동하기

1) 소모임

소모임원 모집은 평소에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던 친구들에게 소모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집했다. 부원은 2학년 김태은, 2학년 위하늘이다. 소모임 이름은 길고양이가 맞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바람막이라고 붙였다. 바람막이의 2014년 2학기 활동 목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해주자! 였다. 활동을 할 내용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제점과 대안인 음식물쓰레기 봉투문제, 길고양이 소음 문제, TNR, 길고양이 급식소를 중심으로 잡았다.

2) 대자보 홍보활동

소모임의 활동 계획을 대자보에 써서 앞으로 할 활동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활동을 준비했다. 대자보의 내용은 바람막이 소모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할 활동의 주제인 TNR의 의미와 계기, 길고양이 급식소의 효과를 넣었고 그 밑에는 작은 2주짜리 달력을 그려 활동을 진행

10) 이용한 작가 블로그 (구름과연어혹은우기의여인숙): <https://www.facebook.com/binkond>

이용한 작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nkond>

11)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1편) 2009년 출판

명랑하라 고양이(2편) 2011년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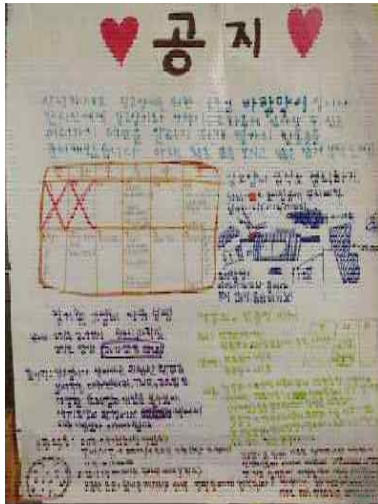
나쁜고양이는 없다(3편) 2011년 출판

흐리고 가끔 고양이 2013년 출판

여행하고 사랑하고 고양이하라 2014년 출판

할 날짜에 활동과 장소, 시간을 썼고 남은 공간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 넣었다. 다 쓴 대자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1층 만광 스탠딩 알람판과 2층 만광 교무실 복도 입구에 1개씩 붙였다.

소모임 평가- 위하늘: 붙이는 위치가 좀 애매했다. 김태은: 많이 못해서 미안해.. 이진주: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자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씁쓸했다.



3) 다큐멘터리 상영

<철거촌 고양이>, <길고양이 함께 사는 방법>, <유기동물 대학생 다큐멘터리> 총 3개의 다큐멘터리를 가져와 소모임 원들과 관심을 보이던 성현이(여), 비아와 함께 본 후 평가했다. <길고양이와 함께 사는 방법>- 이진주: 길이가 너무 짧다. 위하늘: 대안과 문제점이 잘 들어나지 않은 것 같다. 김태은: 캣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신비아, 박성현: ...ㅎ <유기동물 대학생 다큐멘터리>- 이진주: 생각보다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박성현, 신비아, 김태은, 위하늘: 유기고양이에 대한 내용은 유기견에 관련된 내용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철거촌 고양이>- 위하늘, 김태은: 문제점과 대안이 잘 들어났고 다큐멘터리의 길이도 괜찮은 것 같다. 이진주, 신비아, 박성현: 화질이 좋지 않아 보기가 힘들지만 길고양이의 시점으로 주변 환경을 둘러본 것이 길고양이를 이해하기 참 좋은 것 같다. 총 3개의 다큐멘터리를 소모임 안에서 평가했다. 그 후 소모임 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 철거촌 고양이를 상영을 하기로 했다. 11월 27일, 29일 총 2번 상영하기로 했지만 갑작스런 전체일정으로 27일밖에 상영하지 못 했다. 다큐멘터리를 함께 본 사람은 부원을 제외하고 3명이였다.

감상평: 정기은: 다큐에 나왔던 길고양이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안스럽다. 차한비: 길고양이가 이정도로 힘들게 살줄 몰랐다. 김단아: 힘들어 보였다.

소모임 평가: 이진주: 우리가 하는 활동 중 큰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던 활동이 흐지부지 되고 함께 본 사람이 너무 적어 아쉬웠다. 위하늘: 상영한 곳이 너무 추웠다. 김태은: 의외의 일정으로 타격이 너무 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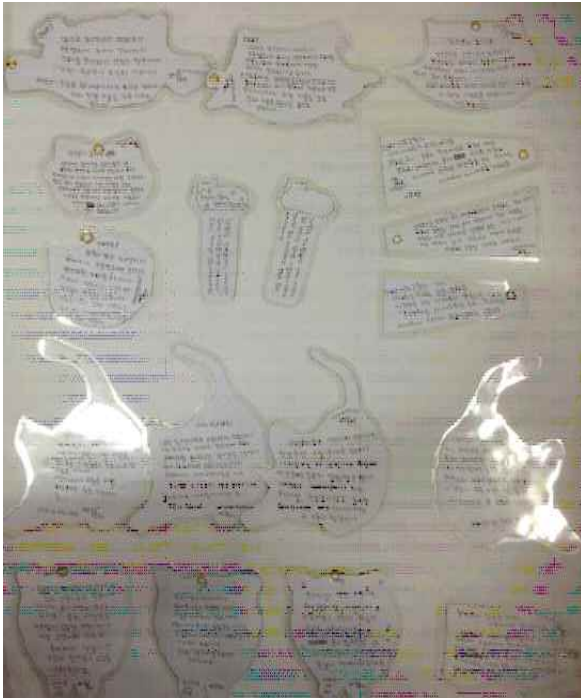
4) 책갈피 나눠주기

적은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길고양이를 떠올릴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다 책갈피가 적당하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 책갈피의 앞면에는 고양이의 그림을 그렸고 뒷면에는 그림에 맞는 글을 썼다. 고양이의 그림은 귀 컷팅이 된 고양이, 못생긴 고양이, 아기 고양이 그림 같이 다 다른 느낌의 고양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 따라 그렸다. 글귀는 못생긴 고양이 그림 뒤에는 유기 고양이에 대한 글을 써 장식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느낌을 주었고 귀 컷팅이 된 고양이 뒷면에는 TNR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써 넣었다. 같은 그림이라도 다른 글귀를 넣기도 했다. 총 17개의 책갈피가 만들어 졌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에게 나눠주며 책을 읽고 난 후에나 전에 길고양이를 떠올려 달라는 말을 했다. 책갈피를 나눠주고 평가를 받으러 다니며 책갈피에 끈이 달려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아 나눠주었던 책갈피를 모두 수거해 모두 끈을 달아 다시 나눠줬다.

평가: 최문형: 고양이 그림이 너무 귀엽다. 유지현: 귀 컷팅 그림이 조금 자극적인 것 같다. 송민혜: 뒤에 써진 글귀가 인상 깊다. 김소아: 끈이 달려 있었다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다. 꼬리 부분이 잘 휘어질 것 같다. 단단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

소모임 평가: 김태은: 나눠주다가 끈을 달려 갈 때 너무 웃겼다. 위하늘: 그림 그리는 작업이 진짜 막노동 이었던 것 같다. 이진주: 그럭저럭 할만했다. 그림그리는거 힘들었는데 재밌었다.



5)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기

길고양이 급식소를 실제로 주변에 만들어 두고, 길고양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느낌과 함께 실제로 주변의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해 보았다. 매달 2명의 캣맘을 선정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무료로 보내주는 길고양이 급식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가토 블랑코¹²⁾에 급식소의 사이즈와 구조를 전해 들었다. 방수목을 구매해 조립을 했다. 위험한 작업이라 많은 작업을 목공 작업장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지붕을 다듬고, 문을 다는 등 간단한 작업을 했다. 급식소 완성 후 방수 락카를 칠해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쓰지 않는 수건을 급식소 안에 넣어 겨울에 길고양이들이 따뜻하게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밥그릇과 물그릇, 고양이 전용 사료를 구매했고 가족회의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동의를 받았다. 위치는 도예실의 옆쪽 벽면이며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불규칙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급여해 길고양이가 사료에 의존하지 못 하도록 했다.

소모임 평가: 위하늘: 만드는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추웠다 손가락 다 터지는 줄. 김태은: 길고양이가 급식소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진짜 뿌듯했다!! 이진주: 많이 만들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밥을 넣어줄 때 뿌듯했다.

6) 팜플렛 나눠주기

TNR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활동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았다. 사람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다. 표지에는 길고양이의 한쪽 귀 끝이 조금 잘린 귀 컷팅 사진을 넣었고, TNR이라고 큼직하게 썼다. 안에는 TNR의 계기와 시행착오, TNR을 하는 방법, 동물보호시스템에 대한 내

12) 고양이 전문 가구 판매 페이지



용을 넣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시도 할 수 있도록 TNR을 하는 방법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썼다. 모금활동을 할 때 쿠키와 함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소모임 평가- 김태은, 위하늘: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거의 한명이 다 했다.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진주: 처음으로 포토샵을 만져봤는데 재미있고 다시 한번 TNR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다.

7) 모금활동

커피타는 고양이라는 고양이 카페에 쿠키를 구워 원가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보낼 예정으로 모금활동을 준비했다. 커피타는 고양이 카페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직전의 아픈 고양이들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데려와 함께 돈을 벌며 고양이를 치료해주며 살고 있는 카페다. 졸업식 전날 초코칩 쿠키60개 정도와 TNR 팸플렛을 받아가라는 글과 커피타는 고양이로 수익금을 보낼 것 이라는 내용을 쓴 판넬을 만들었다. 졸업식 때 판넬을 세우고 쿠키 하나당 1800에 판매해 쿠키를 전부 다 팔았고 순 수익금은 10만 8천원이 나왔다.

소모임 평가- 이진주: 팸플렛을 나눠 주는 것이 진짜 어려웠다. 사람들이 받자마자 괜찮다고 돌려줘서!! 위하늘, 김태은: 앉아서 쿠키를 팔 때 너무 추웠고 다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팔려서 기분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왔다.



III. 결론

1. 앞으로의 계획

소모임을 계속 하며 TNR과 노크 캠페인을 홍보해 볼 것 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 저것 해보고 유기고양이 보호센터에 방문해 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다.

2. 느낀점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여러가지 일도 많았고 싸움도 있었지만 나를 찾아와 길고양이에게 먹여도 되는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생겼고, 자료집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왔다.

길고양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길고양이와 처음으로 눈 인사도 해 봤다. 이제 논문은 끝나지만 꾸준히 활동을 하고싶다.

3. 땀스투

담당 맡아주신 정호쌤, 인터뷰 열심히 해 주신 성기창 원장님, 3학년 담임과 부담임 해서 힘들었을 민혜쌤과 상현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연구와 간디인에게 알리기

지도교사: 김수자



이름: 정기온

한줄후기:

모두모두 수고했어요~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 1) 장애인 이동권이란?
 - 2) 한국 장애인 이동권 현황
 - 3) 한국의 이동권 관련 법령
 - 4)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
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 1)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 (1) 인터뷰
 - (2) 이동권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 조사
 - (3) 현재 한국에서 요구하는 점들
 - 2) 장애인 이동권의 역사
 - (1) 역사
 - (2) 투쟁, 쟁취
3.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간디인에게 알리기
 - 1) 장애인이동권소모임 ‘타요!’란?
 - 2) 소모임 활동
 - (1) 다큐멘터리(버스를 타자!)보기
 - (2) 장애인 체험하기
 - (3) 탐방 갔다 오기
 - (4)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자!’ 틀기
 - (5) 가을축제 활동하기
 - (6) 충주 버스터미널 시설상태 파악하기
 - (7) 지식채널e 동영상 ‘어느 퇴근길’ 상영
 - 3) 활동 평가
4. 활동일지

III. 결론

1. 앞으로 남은 과제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 아저씨를 보았다. 리프트는 부피도 큰데다 혼한 광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그 지체장애인 아저씨를 쳐다봤다. ‘장애인 아저씨는 모두들 자신을 쳐다보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쑥스럽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장애인분들은 다니실 때 마다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는지 마음이 아팠다.

불편함을 겪는 일도 리프트뿐만이 아닐 텐데 정말 장애인분들은 집밖에 한번이라도 나오려면 무섭고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다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이동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든다.

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와 같이 교통약자들은 사회에서 더 배려를 받아야하고 정부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뿐만 아니라 소모임을 만들어 간디인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 3학년 논문을 ‘장애인 이동권 연구와 간디인에게 알리기’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다.

2. 논문의 목적

장애인 이동권과 그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디인에게 알리고 싶다.

이를 위해 소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들 입장을 이해해보기 위해 직접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어떤 점이 불편하고 좀 더 자세히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해본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에 동참해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등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적어도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하고 소모임과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공부와 탐방조사, 간디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실천한다.

그래서 이 활동으로 인해 간디인들이 장애인 이동문제점에 대해 알고 간디인들이 이 논문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프로젝트 논문이다.

1) 참고서적

-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창비)
- 장애인 복지론 (양점도, 김녹현, 박선하, 박영국, 송혜자/양서원)

2) 취재와 인터뷰

- 장애인분들 인터뷰

지체장애 3급 최보기씨(61)

지체장애 5급 김상배씨(51)

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6급 김종규씨(53)

3) 참고 사이트

- 장애인 이동권 연대 (access.jibo.net)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www.sadd.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방문 및 탐방

- 광명시청 장애인편의시설 홍보 전시회
- 충주종합버스터미널
- 장애인 이동권 연대

II.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¹⁾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이고,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동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는 권리중 하나가 이동권이다. 그러므로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 받지 않을 권리다.

2) 한국 장애인 이동권 현황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 안에 설치되어 계단 난간에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는 고정형 리프트, 엘리베이터를 간편하게 하여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또 버스에 타는 곳 밑바닥을 매우 낮게 설계해 길에서 걷는 듯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있다.

하지만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법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리프트를 만들고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의해 장애인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유를 든 장애인은 전체응답자의 54.9%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2,511,159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1,318,358명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시 불편함 때문에 집밖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다.

전국에 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35만 명에 달한다.²⁾

반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버스는 40대 정도로 전체 시외고속버스의 0.4%에 불과하다.

이 말은 장애인의 수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하철 선로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 2014년 4월 현재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 228개 역사 중 69개 역사(30.3%)에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있다³⁾

1) 접근권

-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자막, 점자 및 음성 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시설 이용권 :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이동권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JTBC] 2014-09-02 22:23

이렇게 정부의 턱도 없는 이동편의시설은 더 많아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점들은 없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3) 한국의 이동권 관련 법령

한국의 이동권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했다.

교통약자란 행동의 부자유함으로 인해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교통약자 중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있어 장애인도 포함되고, 교통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한국의 법령에는 ‘교통약자편의 증진법’ 이 있다

한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 1장 총칙)⁴⁾ <개정 2012.6.1.>

제 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교통사업자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 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작성일 :2014-09-22 14:17:49

4)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 5장 보칙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4)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

논문활동에 있는 시설상태 파악하기 진행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를 알아보았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한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가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란 건물을 짓거나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지을 때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치에 맞춰 짓는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는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⁵⁾

가. 설치 장소 및 활동 공간

- (1)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2)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3) 승강기 전면 1.4×1.4미터 이상 공간 확보.
- (4)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새는 3센티미터 이하 설치.
- (5) 승강장 스위치 전면 0.3센티미터 이하 설치.

나. 크기

(1)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

- 폭: 1.1미터 이상 설치, 다만, 신축은 1.6미터 이상.
- 깊이: 1.35미터 이상 설치.
- (2) 13인승 이상 0.8미터 이상 설치 다만, 신축은 0.9미터 이상 설치.

다. 이용자 조작 설비

- (1) 호출, 조작 반, 통화 장치 등(안, 밖) 모든 스위치 높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높이 1.4미터 이하로 설치.
- (2)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 반
 - 높이: 바닥에서 0.85미터 내외로 설치.
 - 위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 형으로 설치. 다만 바닥 유효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반의 형태
 - 버튼 식으로 설치, 다만, 시각장애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버튼에 점자표시를 설치.

라. 손잡이

- (1)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연속하여 수평손잡이 설치하거나, 3센티미터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 (2) 지름: 3.2~3.8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 (3) 이격: 측면에서 5센티미터 이상 설치

마. 거울

- (1) 내부에서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후면에 0.6미터 이상 높이에 거울 설치.

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

- (1) 외부: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설치.
- (2) 내부: 조작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설치.
- (3)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 (4)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줄 것.
- (4)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 경우 바닥에서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 설치.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5)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

있도록 유효 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2)휠체어 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나. 기울기 등

(1)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설치.

다만, 지형 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2)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설치

라. 재질과 마감

(1)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2)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설치

3.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턱 낮추기

(1)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경사로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1)경사로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선으로 된 참을 설치

(3)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다. 경사로 기울기

(1)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2)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라. 경사로 손잡이

(1)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

(2)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

(3)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마. 경사로 재질과 마감

(1)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바. 출입구(문)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1)출입구(문)은 통과 유효 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출입구에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시판

(1)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 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2)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아. 출입문(문) 기타설비

(1)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

4.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형태

(1)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바닥에서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 참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 폭

(1)계단 및 참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2)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타면

(1)디딤판의 너비: 0.28미터 이상설치.

(2)철타면의 높이: 0.18미터 이하 설치.

(3)철타면 기울기: 디딤판의 기준 60도 이상 설치.

(4)계단 코 돌출: 3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

(5)모든 디딤판과 철타면을 균일하게 설치.

라. 재질 및 마감

(1)바닥표면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

(2)계단코에는 줄눈 또는 경질 고무 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 설치.

다만, 바닥 표면 전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4)계단 시작 및 끝 지점 0.3미터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럭 설치.

마. 손잡이

(1)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설치.

(4)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 수평으로 설치.

(5)굵기: 지름3.2~3.8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6)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바. 점자 표시판

(1)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설치.

(2)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 부착.

5.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 폭 및 디딤판

(1)유효 폭: 0.8미터 이상 설치.

(2)디딤판: 양끝지점 3매 이상 수평 설치.

나. 속도 및 손잡이

(1)속도: 분당30미터 이내로 설치

(2)손잡이: -양측 면에 디딤판 속도와 같이 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미터 이상 수평 이동손잡이 설치.

6.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불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규격 및 색상

(1)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2)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4)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점형 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 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점형 블록의 돌출 점은 반구형·원뿔 절단 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 형으로 하며, 돌출 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 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8)선형블록의 돌출 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나. 설치방법

(1)점형 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승강장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선형블록은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이동권 문제

1)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에서 일어난 사고사례들을 알아보고, 장애인 이동권연대의 4가지 요구 점들을 알아봤다.

또 장애인들의 입장으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세 명의 장애인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인터뷰

인터뷰의 목적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개선되면 좋을지 알고자 한다.

인터뷰 질문지

- 1.후천적, 선천적 장애인가
- 2.이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 느껴질 때가 있으신지
- 3.무슨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하시는지
- 4.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5.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
- 6.일상생활에서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한 점
- 7.이동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지(에피소드)
- 8.현재 장애인 이동권이나 복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는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 9.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으실 텐데
-행정적인 변화(법적인 제도)지원은 어떤 것
-비장애인들이 인식변화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 10.비장애인이게 불쾌했던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에피소드)
- 11.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같이
- 12.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지
-어떤 단체,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
- 13.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등산이나 문화생활)

지체장애 3급 최보기씨(61) 인터뷰 내용

일시 8월12일 오후3:30

장소 관악구보건소 난곡 보건 분소

인터뷰시간 33분

Q.후천적, 선천적 장애인지.

A.후천적 장애인이다.

일하다가 척추가 내려앉아서 목하고 발목이 같이 내려앉아서 발목을 못 쓰게 됨.

Q.이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 느껴질 때가 있는지.

A.있다.

젊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런 거를 타고 다니냐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렇게 될 수 도 있지 생각하면서 다닌다.

Q.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다니시는지.

A.힘도 없어 계속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까 항상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전동휠체어밖에 방법이 없다

Q.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모르고 본적도 없다.

Q.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

A.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 6번의 리프트를 탄다. 근데 리프트를 타려고 사람을 불러도 30분을 넘어야 오고, 리프트 속도도 느리고, 위험한데다 소리도 나고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니까 약속시간에도 늦고, 지하철을 탈 때 바닥의 빈공간이 너무 넓으면 바퀴가 빠진다.

버스는 아예 못 탄다, 그렇다고 저상버스도 불편해서 못 타겠고 버스에는 사람도 많아 복잡하고 시선들이 부담스럽다.

Q.일상생활에서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한 것.

A.밖을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너무 힘들다. 하지만 비가 오는걸 알고서도 나가야 할 때는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들은 항상 신경 쓰인다.

Q.이동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 있는지.

A.많다.

어디서나 다 그렇지만 신호등을 건널 때 차나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 부딪친다.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Q.현대 장애인 이동권이나 복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잘 모른다.

Q.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으실 텐데

-행정적인 변화(법적인 제도)지원.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의식변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A.-행정적인 변화.

급수 같은 거 따지면서 지원해주지 말고 다 똑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비장애인들의 의식변화.

살다보면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바라봐주고 욕하지 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Q.비장애인들에게 불쾌했던 느낌을 받은 적 있는지.

A.처음 보는데 반말로 욕하거나 위아래로 훑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쁘다.

Q.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도움을 주는 방법)

A.전동휠체어가 전철사이에 빠질 때 멀뚱히 서있지 말고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서 빼달라고 하고 항상 위험을 안고 다닌다.

Q.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계신지.(어느 단체, 어떤 도움을 받는지)

A.소속되어 있는 곳은 없다.

Q.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A.지금처럼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꼭 급수 따져가면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체장애 5급 김상배씨(51) 인터뷰 내용

일시 8월12일 오후4:20

장소 관악구보건소 난곡 보건 분소

인터뷰시간 19분



Q.후천적, 선적 적 장애인지.

A.후천적 장애이다.

1살 때 소아마비 균이 침투되어 다리가 불편하다.

Q.이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 느껴질 때가 있는

A.없다.

외관상으로는 딱히 티가 안나보여서 평소에는 자신도 잊고 살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나 자리를 권하는 상황이 생길 때 다시 깨닫게 된다.

Q.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다니시는지.

A.많이 힘들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생각은 없다.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 한 거는 병원에 입원할 때 겪었던 건데 문손잡이 열 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몸 전체가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고리가 없어야 되겠군아 그렇게 느꼈다 자동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3급 이상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라서 해당사항은 없지만 지체장애, 절단장애, 악성빈혈로 인해 뜻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정책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자신도 힘이 들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 봐도 아무 소용없다.

Q.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

A.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계단이다.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시내버스 폭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는 턱의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Q.일상생활에서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한 것.

A.보도 폭이 너무 좁고 길이 울퉁불퉁해 비장애인들도 걸어가기 힘든데 장애인은 힘이 없어서 체중을 싫어 넘어지면 위험해 진다.

그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즉각 발견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Q.이동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 있는지

A.위험했던 적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하철 같은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계단이 엄청 많은 곳은 장애인

들은 다니기 엄청 힘들니다.

Q.현대 장애인 이동권이나 복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복지나 이동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Q.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으실 텐데

-행정적인 변화(법적인 제도)지원.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인식변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장애인들의 복지수단이 원3만원씩 나오는데 이제3,4,5,6급은 그 이외에는 어떤 지원이 없고 그거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장애인들이 있어서 경비가 엄청 많이 든다.

또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낸다. 그러므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버스요금을 다운시키던지 이게 정부의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비장애인들의 인식변화

비장애인들의 인식변화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너는 장애인이니까 안 돼’ 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서는 거의 다 비장애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비장애인들에게 불쾌했던 느낌을 받은 적 있는지.

A.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일도 ‘너는 장애인이니까 안 돼.’ 선입견이 너무 센 것 같다.

Q.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도움을 주는 방법)

A.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계간을 접했을 때 아주 난감하다.

그럴 때는 비장애인들이 짐만 가져다주면 좋을 것 같다.

Q.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계신지.(어느 단체, 어떤 도움을 받는지)

A.현재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소속되어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Q.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A.법인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배려 자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싶다.

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6급 김종규씨(53) 인터뷰 내용

일시 8월14일 오후1:30

장소 관악구보건소 난곡 보건 분소

인터뷰시간 32분

대상 김종규(53) 시각장애1급, 지체장애6급



Q.후천적, 선척 적 장애인지.

A.선척 적이다.

치료가 안 되는 야맹증이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원래 다 이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 눈이 이상한지 알게 되었다.

Q.이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 느껴질 때가 있는지

A.외관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못 본채 지나가면 싸가지 없다고 오해를 산다.

Q.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다니시는지.

A.지팡이를 이용해 다닌다.

Q.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밖에 자주 안 나와서 사용 한 적은 없지만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안다.

Q.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

A.잘 이용은 안하지만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이용할 때 잘 안보이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다.

Q.일상생활에서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한 것.

A.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 파란불이 안 보인다.

평소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느낌으로 알지만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다.

Q.이동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 있는지

A.계단에서 구른 적도 있고, 자전거랑 부딪혀 넘어진 적도 있다.

어느 한번은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서있는데 인도에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치일 뻔한 적도 있다. 나는 잘 안보이니까 어디서 차가오는지도 모르고 피하기도 어렵다.

Q.현대 장애인 이동권이나 복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급수마다 지원금이 다르고 관악구가 우리나라인지 경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4번째로 많다.
장애인으로 살다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대충은 안다.

Q.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으실 텐데

-행정적인 변화(법적인 제도)지원.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의식변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A.-행정적인 변화

평평한 길과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장애인들의 의식변화

자기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Q.비장애인들에게 불쾌했던 느낌을 받은 적 있는지.

A.광명 시에서 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팡이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명함을 주며 “등산 갔다 오시나 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지팡이랑 등산용지팡이랑 구분도 못합니까?”라고 화를 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

Q.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도움을 주는 방법)

A.횡단보도 같은데서 현재 건너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 벨을 눌러줬으면 좋겠다.

Q.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계신지.(어느 단체, 어떤 도움을 받는지)

A.소속되어있지 않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

대모 같은 것이 일어나면 나오라고 계속 전화해 귀찮아서 소속되지 않았다.

Q.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A.책읽기, 컴퓨터사용하기

Q.현재 장애인 이동시설에 만족하시는지.

A.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터뷰 결과

개선되면 좋을 점

- 모든 역사에 리프트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
- 장애등급제 폐지(콜택시, 지원금).
-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해결.

불편한 점

- 비장애인들의 시선, 말.
- 비장애인들의 '너는 장애인이니깐 안 돼.'라는 선입견.
- 앞에서는 잘해주면서 뒤에 가면 욕하는 것.
- 리프트가 너무 느리고 무섭다.
- 지하철을 탈 때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사이로 빠지면 난감하다.
- 갑자기 비나 눈이 오면 난감하다.
- 이동할 때 부딪히고 넘어진다.(시각장애)

결론

모든 분이 현재 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느끼신다.

또 편의시설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다.

인터뷰는 예상했던 내용과 비슷했다.

내가 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니까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장애인분들이 뭐가 불편하고 개선되면 좋을지는 다 비슷한 것 같다.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성을 항상 인터넷, 말로만 듣다가 직접 장애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안타까웠다.

인터뷰를 처음 갈 때 더 조심스럽고 실수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예전부터 누구에게라도 불만을 토로하고 싶으셨다는 듯이 인터뷰도 흔쾌히 응해주시고 진심으로 답을 해주셨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아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에 대해 포기하신 듯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도 하셨다.

화가 났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준다면이라도 실행으로는 옮기고 있지는 않을까? 앞으로도 말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해주는 것을 아닐까?

정부가 너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예산문제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장애인분들도 수많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분들은 어떤 더 많은 불만을 안고 살아가실까 생각하니 안타깝다.

하루아침 빨리 수많은 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이동권이 보장 됐으면 좋겠다.

(2) 이동권에서 일어나는 사고사례 조사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 한다.

또 정부의 부실한 시행령으로 인해 각종 이동권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까지 위협했던 아찔한 사고사례에 대해 알아봤다.

-2001년1월22일 오이도 역 수직 형 리프트 추락사고

설치한지 6개월밖에 안된 리프트를 장애인 노부부가 이용하다가 추락해 할머니는 사망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2002년5월19일 발산 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63)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

-2004년11월18일 이수 역 지하철 선로추락사고

시각장애인 이 모 씨가 지하철 선로에서 추락해 사망.

-2006년4월30일 회기 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⁶⁾

지체장애인 2급 오원석씨가 전동스쿠터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다가 추락해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중상을 입음

전동스쿠터에 탄 채로 크기가 작은 휠체어리프트에 올랐는데, 자동 안전 바가 내려오다가 전동스쿠터 바구니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았다. 전동스쿠터 작동해 뒤로 조금 후진해도 안돼서 불편한 몸으로 몸을 숙이고 바구니를 떼어내려고 하다가 그만 전동스쿠터작동 스위치를 건드리면서 전동스쿠터가 앞으로 돌진해 계단으로 추락한 것이다.

당시 공익근무공무원은 전동스쿠터를 잡고 있어서 함께 넘어질 뻔 했으나 옆에 있던 승객이 잡아주어 사고를 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바구니를 철거하는 동안에 공익근무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006년11월16일 서울 역 수동휠체어용 리프트 추락사고⁷⁾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뇌병변(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인이 지하철 1호선 서울 역에 설치된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 탑승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메트로의 휠체어용 리프트 설치·운용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 지체장애우 에게도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해 좁은 리프트 위로 전동휠체어를 이동시킬 경우 사소한 실수로도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서울메트로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전진시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5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1월21일 삼각지역에서 리프트 추락사고

지난 21일 오전 삼각지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던 중증장애인이 계단으로 추락하여 왼쪽 손목골절, 양쪽 발목에 금이 가고 왼쪽 눈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2010년4월25일 무궁화호 탑승과정에서 추락사고

‘롤’형식의 경사로 안정성 및 무궁화호 RDC차량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무궁화 호를 탑승하던 중 경사로 중심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 노컷뉴스 | 입력 2006.05.23 17:06

7)데일리노컷뉴스 | 2006-12-21 08:24



-2014년5월 대방 역 전동차에서 내리던 한 장애여성이 단차간격 등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⁸⁾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승강장 사이의 간격과 단차가 넓은 것을 지적하며 지하철 대방 역, 성신여대역 등에서 탑승시범을 보인 적 있다.

-2014년9월20일 용산 역 지하철 선로추락사고.

시각장애인1급 최 모 씨가 선로에서 추락해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수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 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이 후로도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

빨리 정부에서는 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하는지 정부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 단체에서 답을 오래전부터 주고 있는데 왜 실행을 못시키는지 답답하다.

그리고 한창 2001년도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일어났을 때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도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니 충격적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고들이 세상에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이동권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고 현재 장애인 이동권의 관심을 가져 사회에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3) 현재 한국에서 요구하는 점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⁹⁾의 결성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는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둘,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의하면 올해 6월 현재 고속버스 1875대, 시외버스 7643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 의무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라며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에도 모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 할 것.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 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증진법이나 복지 법에는 이러한 헌법처럼 장애인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8) beminor 장애인의 주홍글씨 |2014.07.14 17:17

9)장애인 이동권 연대란?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며 투쟁, 시위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장애인 단체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기본법(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헌법에는 한군데도 없다.

장애인들이 인단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강제조항을 개정·강화하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들이 좀 더 잘 지켜지고 나아갈 수 있을 듯하다.

넷,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정부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 대중교통 등 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복지와 관련 있다고 하며 보건복지부로 문제를 미루고 보건복지부는 시설문제이니 건설교통부로 문의하라며 서로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2) 장애인 이동권의 역사

(1) 역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간간히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라기 보단 ‘구휼’이라는 명칭으로 포괄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79년 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행동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 1981년에 지금 장애인 복지법의 근본이 되는 ‘심신장애자 복지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지금의 장애인 등록제가 시작 되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성장과 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으로 지역재활서비스를 하게 되는 장애인 복지관등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 그 기점으로 정부가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1980말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 성장하면서 이동권, 장애인 자립생활 등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 투쟁, 쟁취

현재 장애인 이동권 각종사고들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상황을 위해 각종 장애인 단체에서 투쟁을 벌였다.

2002년1월22일



2명의 대학생이 이순신 장군 다리 밑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절규했다. 준비된 전단지가 세종로 밑으로 뿌려지고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싶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동상 아래로 펄럭이자 기자와 경찰들이 몰려들었다.

평화롭던 세종문화의관 앞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날 오후1시 혜화동 로터리에서 시작된 집회는 해가 저물고 눈마저 내리기 시작한 저녁6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그리고 다시모인 광화문 세종문화의관 앞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버스에 오르지도 못하고 또 다시 경찰에 에워싸여지자 그들의 분노가 이순신 동상위에서 세종로 사거리 한가운데서 폭발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세종로 사거리에 모여든 20명의 장애인들은 굵은 쇠사슬로 서로의 목과 휠체어를 이어 묶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과 경찰의 방패에 둘러싸인 그들은 울부짖었다.

“보건복지부에 가면 건설교통부에 가라, 건설교통부에 가면 보건복지부로 가보라 하고 총리실 가면 주무부처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정부는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생존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가 나올 때까지

지 우리는 여기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로에 올려 퍼진 장애인들의 절규-¹⁰⁾

-2003년1월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켜준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서울시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서울 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권 연대 공동대표 박경석은 ‘서울시는 2004년까지 전 역사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¹¹⁾

-2014년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이날 오전 20시20분 서울 서초구 반포 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장애인등급희생자’ 고(故) 송국현 동지 추모 및 420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들을 촉구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 극렬한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부여된 등급에 따라 보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일 뿐 실제 장애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을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오후12시20분부터 1시 사이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20개 노선의 승차권을 구매한 상태로 고속터미널 경부선 탑승 장으로 이동해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장애인차별투쟁단 측은 “정당하게 표를 구매했는데 왜 막느냐”, “장애인은 버스도 못 타냐”, 장애인에게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다“ 등 구호를 외치며 지속적으로 탑승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거세지자 경찰은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측에 최루액을 쏘는 한편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측도 물을 뿌리거나 생수병을 던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¹²⁾

-2014년9월2일



곧 추석을 맞아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5년 제정된 이동 편의증진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10) 장애인 이동권 연대 | 언론을 통해 본 장애인 이동권 투쟁

11)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3-01-24 09:21

12)머니투데이 | 입력 : 2014.04.20 16:11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앞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의 권리 구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고 주장했고,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제한과 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법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국민이자시민으로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 권 보장.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의 차별적 법률 조항 개정.

- 시내버스 법률에 100% 저상버스 도입명시

등을 장애인 이동권으로 제시했다¹³⁾.

-2014년9월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5호선 광화문 역 사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화문 역사는 다른 역사에 비해 승강장이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긴 시간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게다가 휠체어 리프트는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 사건 등 수많은 사건사고로 ‘죽음의 리프트’라 불리고 있다. 한 장애인이 말했다.

‘휠체어 리프트는 매우 느리고 위험하다. 광화문을 갈 때는 인근에 있는 다른 역 승강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 한참 돌아서 가는 방법을 쓴다.’ 고 말했다.

광화문 역은 서울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전철역중 하나로 하루 약9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로인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등 많은 교통이용약자가 이용하는 곳이다.¹⁴⁾

완벽하게 모든 투쟁의 역사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이렇게만 봐도 수많은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투쟁이 일어났으니 후에는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언제까지 장애인 단체에서는 힘들고 길고긴 투쟁을 아무도 몰라준 채로 자신들만의 싸움으로 생각하며 투쟁을 해야 할까? 이 후에 일어날 투쟁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다.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요구하는 점들을 정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이유가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성으로 몰라 한국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서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려면 비장애인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처음에는 투쟁이라 하면 시위하고 기자회견열고 그쯤의 선에서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투쟁했던 역사들을 찾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생각들은 사라져버렸다.

또 기사 사진을 보면서 장애인분들의 불타는 의지를 보게 된 것 같다.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사다리를 목에 끼기도 하고 전선을 목에 감기까지 하시니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또 투쟁 기사나 영상에서 장애인분들이 말하기를 면담요청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해가 안 된다. 말로 설명하겠다는데 왜 면담을 회피할까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도 원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드리는데 비장애인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들은 항상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13)newsis 충북 | 기사등록 일시 [2014-09-02 16:03:52]

14)월페어뉴스 | 데스크승인 2014.09.23 18:05:20

3.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간디인에게 알리기

1) 장애인 이동권소모임 ‘타요!’ 란?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을 간디인에게 알리기 위해 나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버스, 지하철 다 같이 타요! 라는 의미를 담은 ‘타요!’소모임을 만들었다.

소모임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모두 구성하였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다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관심이 있으면 소모임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소모임을 꾸렸다.

결과 소모임 5학년 유준상, 4학년 김민정, 3학년 정기온, 2학년 전선 이렇게 구성되었다.

‘타요!’ 소모임의 목적은 소모임들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자료조사, 공부한 후 간디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모임시간

월 오후6:20~8:30(목학), 목 오후1:20~2:30(점심)

2) 소모임 활동

(1)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자!) 보기

일시 9월1일(월) 오후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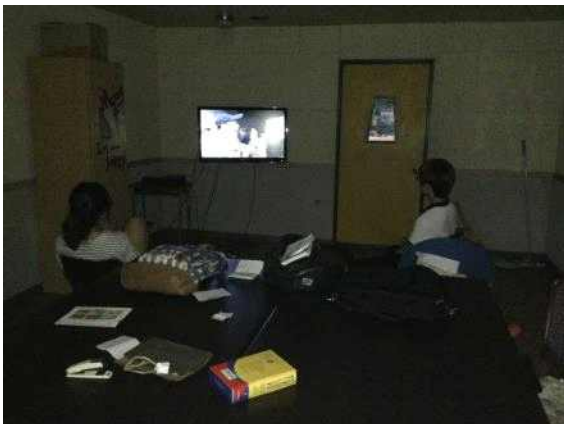
장소 사회과실

일정 오후 6:15 다큐멘터리 볼 기계설치

6:30~7:30 다큐멘터리 감상

7:30~7:40 마무리 모임

인원 유준상, 김민정, 전선, 정기온(소모임)



9월1일 6:30 사회과실에서 준상오빠랑 민정언니랑 ‘버스를 타자!’라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를 봤다. 원래 소모임 활동 계획 세울 때 소모임 안에서 볼만한 영상이 있나 찾아 보고 있었는데 필썸이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되었고, 좀 옛날 다큐멘터리였지만 완전 내가 바랐던 내용이라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 ‘버스를 타자!’ 라는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가 2001년 당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어땠는지,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럼으로써 어떤 많은 투쟁들이 일어났는지 보기 쉽고 이해

가 잘되게 되어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이나 정부기관의 책임 없는 행동 때문에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났다.

또 장애인분들과 단체 분들이 경찰과 맞서 시위하고 몸싸움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경찰을 욕하고 장애인분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2001년도에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이 지금보다 더 잘 안되어 있었구나. 라고 깨달게 해주었고, 이때당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저상버스도 생기게 된 거구나 알게 해주었다.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화났던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이었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단체로 지하철을 탔는데 비장애인들을 이걸로 인해 지하철 시간이 지연 됐다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망정 화내고 욕하고 불쾌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지하철 시간이 지연되어 화나는 것도 이해되고 모든 비장애인 분들에게서 장애인들을 향한 좋은 시선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이동하시려고 노력하는 분들께 티내면서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는 직접 장애인분들을 만나 인터뷰에서 ‘비장애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럽

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를 직접 들어서인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보고 욕하는 다큐멘터리 장면이 신경 쓰였다.

2002년 당시와 현재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을 다큐멘터리를 보며 비교해 봤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2001년 당시 시위한 것들로 인해 많은 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아직까지도 2001년도 당시 정부에서 약속해준 2004년도 까지 모든 지하철 역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2014년 지금까지도 실천되고 있지 않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근데 2001년도부터는 장애인 이동권으로 인해 투쟁이 이슈가 될 만큼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꾸준히 시위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들었다.

‘버스를 타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2001년 당시에는 어떻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되고 있었는지 부제목답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를 잘 풀어낸 것 같다.

다음시간은 소모임원들끼리 다큐멘터리 본 것에 대해 느낀 점을 작성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기대된다.

소모임원의 소감(김민정)

한번 도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었을 뿐더러 알 길이 없었다. 지하철에 항상 있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본적은 거의 없었고,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도 본적이 없었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만 있는 지하철역을 보곤 장애인들은 어떻게 다니지?”

불편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한적 있다. 이번에 기온이 논문을 도와주며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의 삶을 잘 볼 수 있었다. 바깥세상이 두려워 나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고 느리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애인 시설들은 제대로 된 시설들이 필요한 현실인데 아무리 요청하고 항의해 봐도 외면하는 사회라는 공모자들, 화가 났다.

당연한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다. 2001년에 만들어진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과연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고 이번소모임이 기대된다.

소모임원의 소감(유준상)

장애인 이동권의 저변에 6·4선거 때 잠깐 봐서 역사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꽤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이 시설에도 공권력탄압이 심한 모습을 보고 어느 시절에나 약자가 탄압받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다. 어떻게 보면 사회지배구조에서 제일 아래가 장애인일 텐데 그들이 원하는 요구나 권리를 이루려면 일반인에 비해 몇 배나 힘이 더 들고 어려운 현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다큐멘터리가 투쟁하고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그런지 안타까움이 많은 남는 것 같다.

(2) 장애인 체험하기



일시 10월7일

장소 제천간디학교

일정 10월4일~6일 포스터 신청받기

10월6일 신청한 사람 오전, 오후 나누고

체험 종류 정하기

오전8시50분 체험할 장치 착용

8:50~오후1:00 오전 팀 체험

1:10~7:00 오후 팀 체험

인원 김민정, 전선, 유준상, 정기온(소모임)

하루 반나절 동안만이라도 장애인들의 입장을 느껴보기 위해 장애인 체험하기라는 활동을 진행했다.

하루 동안 체험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오전 오후 중 반나절만 체험하기로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다리한쪽이 불편한 것, 팔 한쪽이 불편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를 두어서 체험하기로 했다. 또 소모임 안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디인 모두 같이 체험하는 것이 더 뜻 깊은 것 같아서 10월4일~10월6일까지 포스터 신청서를 만들어 현관에 붙여놓았다.

총 15명의 간디인이 신청했고 걱정했던 것 보다 많은 간디인들이 신청해 주어서 깜짝 놀랐다.

6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신청한 사람 한 명씩 찾아가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정하고 어떤 체험을 할 건지 정했다.

10월7일 오전8시5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체험할 장치를 착용하고 오전 팀의 체험이 시작됐다. 오전 팀 체험은 오후1:00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오후 팀은 기숙사 올라갈 때까지 진행되었다.

나는 오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체험했다. 눈앞에 봉대로 시야가 가려지자마자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방향감각도 없어지고 발 한발씩 다닐 때마다 두렵고 어디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넘어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웠다.

체험한지 30분채도 안됐을 때 이려고 어떻게 점심시간까지 버티지? 답답하고 시간만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눈이 안보이니까 교실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할 수 가없으니 오전 내내 바보가 된 기분? 이었다.

진짜 난관은 점심시간 이었다. 식당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밥도 퍼야하고 밥을 먹어야 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식당까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가고 밥도 친구가 퍼주고 먹는 것도 친구가 도와줘서 겨우 먹었다.

수저를 들고 식판으로 손을 뻗어도 무슨 반찬인지도 모르고 잘 집히지도 않고 정말 밥이 먹기 싫은 적은 처음이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평생 이렇게 밥 먹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사생활을 하시기 정말 불가능하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 짧은 시간동안 만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 기회에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체장애도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이 체험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뭐 3시간30분만 이려고 다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싹없어졌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 재밌기도 했지만 마음이 안타까웠다.

정말 힘드시겠구나, 돌아다니기 무서우시겠구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루하루가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시각장애만 체험해서 시각장애의 불편함 밖에 못 느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번 활동이 정말 간디인과 함께 참여한 활동 같아서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3) 탐방 갔다 오기

일시 7월25일 오전11:30

장소 광명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전시회

일정 오전 10:30 서울시청에서 광명시청으로 이동

11:30 광명시청 도착

11:30~12:10 전시물 관람 및 체험(점심식사)

오후 1:00 해산

인원 유준상, 정기온(소모임)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소모임 활동 중에 방학동안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모두 하고 오겠다. 라며 다짐한 나는 소모임원 준상오빠와 함께 광명시청에 다녀왔다. 원래 소모임 활동 중에 장애인 봉사활동 하기가 있어 관련 일을 하셨다는 2학년 선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다 장애인 분들이 모르고 몸을 만질 수 있어 위험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봉사활동은 가지 않기로 계획에서 취소되었다.

그러면 장애인 봉사활동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준상오빠가 장애인 이동권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면 캠페인을 참석하던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하는 곳이 있나 찾아보고, 7/21~7/25 까지 광명시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보아 25일 날 광명시청에 갔다.

7/25일 오전 11:30에 준상오빠랑 광명시청에 도착해 40분정도 전시회를 둘러봤다.

생각했던 만큼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장애인분들이 힘을 좀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광명시청에는 장애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동하기 불편하고, 장애인들 입장으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편의시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체험용으로 휠체어, 전동휠체어 가 배치되어 있었다.

예상치 못했는데 휠체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번 체험해 봤다.



전동휠체어는 평평한 땅 위에서 걷는 것 보다 편했지만 이걸 타고 밖에 나간다고 하면 밖에 제한된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분명 제한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깐 체험하는 것이지만 장애인분들은 평생 이런 불편함을 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니 상상도 안 갔다.

또 비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고 당연히 여겼던 편의시설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 걱정인 편의시설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잘 안되어 있구나, 게다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불편해 집밖활동을 안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의 관심이 생기지 않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에서도 잘 모르고 장애인들이 이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안하고 모를 수 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문제점을 느꼈다.

전시회를 다 보고 집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 장애인 분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시는 것을 봤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찜찜한 느낌? 이 들었다.

장애인 분은 지하철역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위험과 시간낭비, 사람들의 시선들을 다 감수하고 타시는 건데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고 관심을 끄는 소리도 나고 내가 만약 거기서 리프트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기분도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장애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원한다.' 이 말 이었는데 이 지하철 역 안에도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장애인들에게 더 죄송해지는 기분이었다.



소모임원의 소감(유준상)

「 광명시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시설 복지 회라 해서 규모가 꽤나 클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볼 만한 것이 없었다. 뭔가 ‘우리시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용도??라는 느낌을 받았다.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라는 문제가 6.4선거 때 반짝 떠오르고 나서 많이 사그라졌었고 뉴스에도 잘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내가

괜히 빠돌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휠체어 체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타 볼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타는 것이 재밌었다. 전동휠체어는 심지어 걸어 다니는 것 보다 편했다. 놀이기구 타는 느낌? 나는 장애가 없고 생소한 것이라 재밌었지만 이것이 일상인 분들에게는 밖의 외출하고 집에 오면 온 기운이 다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광명시청에 오면서 오르막길도 있었고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계단 등 모든 것이 일반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는데 나랑 기온이도 올 때 덥고 시청 가는 길이 가팔라서 땀도 나고 했었는데 이것들을 타고 만약 고장이나 넘어지면 답도 없고, 쪽팔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올 때 휠체어 타신 분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레프트 같은 것을 타고 가는 것을 봐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다. 우리 학교가 장애인은 받지 않고 그리고 와도 생활하기 힘든 공간이라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환경인데 기온이의 논문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4)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자!’ 상영

일시 9월17일 오후1:20

장소 사회과실

일정 9월15일 홍보 포스터 만들어 붙이기

오후1:10 다큐멘터리 볼 기계설치

1:20~2:20 다큐멘터리 감상

2:20~2:30 마무리 설명

인원 유준상, 전선, 정기온(소모임)

9월15일 목학, 우리(소모임)는 17일 날 틀 ‘버스를 타자!’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다.

포스터 안에 무작정 보러 오라는 말보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설명과 현재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틀 동안 포스터를 홍보 후 9월17일 사회과실 오후1:20분에 다큐멘터리를 틀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이러한 주제는 재미없을 것 같다는 학생들의 생각 때문에 모으기가 쉽지 않았지만, 6~10정도의 학생들이 와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어 고마웠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주제였을 텐데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 받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다큐멘터리를 감상 후 나는 학생들에게 이동권이란, 현재 장애인 이동권 상황, 사고사례를 설명해 주었고 학생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후 소감을 받으며 활동을 마쳤다.

학생들의 인식이 지금까지 이동권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었다면 이번 활동으로 인해 뭔지 알게 되고 얼마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게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감상평을 받은 쪽지에는 대부분 ‘모르고 살았는데 알게 되었다’, ‘이동권이 이렇게 까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화가 난다’, ‘꼭 이동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생들의 감상평을 보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게 해준 것 같아 뿌듯했고, 꾸준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감상평

- 생각보다 더 대박 충격이었고 투쟁하는 것도 무섭고 힘드셨을 것 같다.
꼭 다 이뤄졌으면 좋겠다.
- 솔직히 장애인 이동권 쪽에는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장애인 이동권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번 다큐를 보면서 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장애인 이동권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되어서 좋았다.
- 2004년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은 화가 났다.
지금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 계단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를 타는 걸 한번도 못 본 것 같다.
- 장애인 이동권이 꼭 보장 됐으면 좋겠다.
- 장애인 이동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못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2001년 영상인데 지금인 14년 까지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데 쇼크다.
- 이런 실태를 사실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다. 내 친척 중에도 하반신 마비하신 분이 계신데 영상을 보는데 그분차를 타고 롯데백화점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서 낭패를 봤던 기억이 난다.
- 이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태워 줬으면 좋겠다.



(5) 가을축제 활동하기

일시 9월27일 오후3:00

장소 운동장 부스

일정 2:30 부스설치

3:00 활동시작

5:00 활동 끝

인원 김민정, 전선, 정기온(소모임)

9월27일 가을축제 타요! 소모임은 부스에 장애인 이동권이란, 현재상황, 요구하는 점, 사고사례 내용이 담긴 피켓을 전시해 놓고 장애인 단체에 자유롭게 후원하면 뱃지나 책갈피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을축제 활동을 진행했다.

-피켓 만들기

가을축제 일주일전 타요! 는 박스와 대자보를 합쳐 피켓을 만들고, 타요! 에서 미리 조사해온 장애인 이동권이란, 현재상황, 요구하는 점, 사고사례 내용들을 최대한 길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4개의 피켓을 완성했다.

이렇게 피켓이 완성되고 뱃지와 책갈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책갈피 만들기

책갈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다'라는 의미를 담기위해 'WE ARE SAME' 이라

는 문구와 '차별하지 말자'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DIFFERENTIATE 단어에×를 친 문구 그 외에도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등 메시지를 담아 책갈피를 만들었다.

그 후 책갈피 내용을 완성하고 다리미를 사용해 코팅을 했다.

이렇게 책갈피16개가 완성 됐다.

-뱃지 만들기

지혜쌤이 뱃지의 부자재를 사다 주셨다.

부자재에 간디자인의 남은 천을 써서 글루건으로 고정시킨 다음 부자재로 천을 덮는 식으로 뱃지를 만들었다.

뱃지가 완성되고 그 위 그림으로 '장애인도 버스를 태워 달라!' 라는 의미를 담기위해 장애인이란 뜻을 담고 있는 DISABLED 단어 아래 버스를 그려 넣은 그림 또 책갈피와 같이 'WE ARE SAME' 문구 등 여러 가지 문구와 그림을 뱃지에 그렸다.

이렇게 뱃지 35개와 책갈피16개가 완성되었다.

-가을축제

9월27일 가을축제 당일 3시부터 부스가 시작이라 타요! 소모임은 2:30분부터 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미술실에서 이젤을 빌려 피켓을 세워놓은 다음 책상위에 천을 깔아 뱃지와 책갈피를 배열해 놓고 그 옆에 후원금 박스와 설명서를 붙여놓았다. 논문부스가 완성되고 3시가 되자 간디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논문에 대해 설명한 후 자유롭게 후원하시고 책갈피나 뱃지를 가져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스에 있다 보면 여러 간디인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말을 덧붙여준다. 자신의 학교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피켓을 열심히 보시는 분, 뱃지나 책갈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는 분, 열심히 하라고 힘을 주시는 분, 잘 봤다고 해주시는 분, 좋은 일에 쓰인다고 후원해주는 분 정말 하나하나가 감사했다.

생각보다 많은 간디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도 열심히 해주셔서 요번 활동 정말 재미있었다.

3~5시까지 부스활동이 끝났다. 뱃지와 책갈피는 남지 않았고 후원금은 114,210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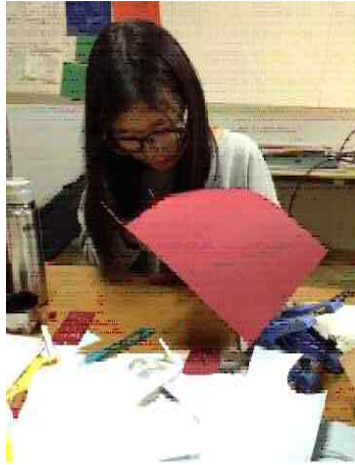
정말 놀랐다. 그냥 단지 장애인 단체에 이 후원금들을 빨리 보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번활동으로 인해 간디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이 많구나.'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활동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책갈피와 뱃지가 있으니 평상시에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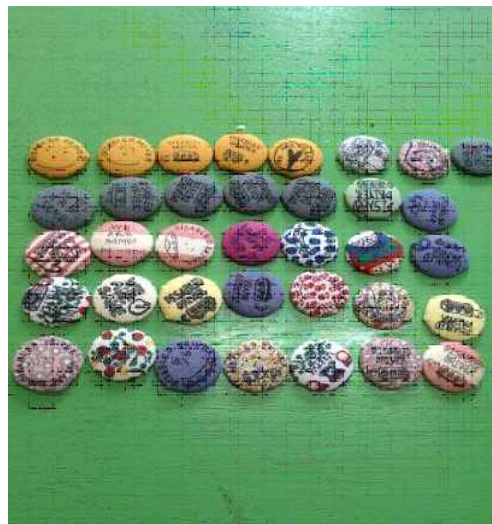
이번활동으로 나도 많은 간디인의 생각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이 후원금이 장애인 단체에 가서 꼭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위)피켓 만드는 사진2



책갈피 만드는 사진2(옆)



(위)뱃지 만드는 사진4





(위)가을축제 활동사진4

(6) 충주 버스터미널 시설상태 파악하기

일시 10월3일 오후2:00~4:00

장소 충주 버스터미널

일정 오후1:30 충주행 버스 탑승

2:10~4:00 시설상태 파악

인원 유준상 ,김민정, 정기운(소모임)

10월3일 민정언니랑 충주 버스터미널에는 시설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오후1:30분차 덕산 에서 충주 가는 버스를 타고 2:10에 도착해 준상오빠를 만났다.

충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충주 버스터미널 시설상태 파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니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막막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내 시설파악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상태를 파악하는데 중간마다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해석하지도 못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이렇게 시설상태 파악을 2시간동안 하고 공책에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 충주 버스터미널 시설상태 파악하기 활동을 마쳤다.

생각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있는 것 같다. 조금 모자라고 미숙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금 모자라고 사소한 거 하나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점을 배려해 버스터미널에서는 빨리 모자란 부분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평소 이런 시설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이런 시설상태 조사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흔하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장소를 다닐 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충주 버스터미널 시설상태가 어떤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또 충주 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시설상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상태 파악 비교결과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가. 설치 장소 및 활동 공간 (1)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2)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3)승강기 전면 1.4×1.4미터 이상 공간 확보. (4)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새는 3센티미터 이하 설	(1)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음 (2)건축물 출입구 끝 안쪽에 설치되어 있음 (3)2×2미터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4)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새는 3센티미터로 설치되어

치. (5)승강장 스위치 전면 0.3센티미터 이하 설치.	있음 (5)승강장 스위치 전면 0.3센티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나. 크기 (1)내부의 유효바닥 면적 -폭: 1.1미터 이상 설치, 다만, 신축은 1.6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 설치. (2)13인승 이상0.8미터 이상 설치 다만, 신축은 0.9미터 이상 설치.	젤 수 없었음
다. 이용자 조작 설비 (1)호출, 조작 반, 통화 장치 등(안, 밖) 모든 스위치 높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높이 1.4미터 이하로 설치. (2)휠체어 사용자용 조작 반 -높이: 바닥에서 0.85미터 내외로 설치. -위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 형으로 설치. 다만 바닥 유효면적이 1.4미터 × 1.4미터 이상인 경우 진입 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조작반의 형태 -버튼 식으로 설치, 다만, 시각장애인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버튼에 점자표시를 설치.	(1)0.98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2)휠체어 사용자용 조작 반 -높이: 바닥에서 0.8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위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 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3)조작반의 형태 -설치되어 있음
라. 손잡이 (1)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연속하여 수평손잡이 설치하거나, 3센티미터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2)지름: 3.2~3.8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3)이격: 측면에서 5센티미터 이상 설치	(1)바닥에서의 높이 0.8미터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되어 있음 (2)지름: 3센티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3)이격: 5.5센티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마. 거울 (1)내부에서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후면에 0.6미터 이상 높이에 거울설치.	(1)거울이 설치되어있지 않음
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 (1)외부: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설치. (2)내부: 조작 총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설치. (3)버튼을 누르면 점멸등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4)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줄 것. (5)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 경우 바닥에서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 설치.	(1)외부: 점멸등은 설치되었지만 음향신호는 설치되어있지 않음 (2)내부: 설치되어 있음 (3)설치되어있지 않음 (4)설치되어있지 않음 (5)문장을 이해 못해 파악하지 못함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1)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2)휠체어 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1)평지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되어 있음 (2)2.05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나. 기울기 등 (1)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설치. 다만, 지형 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2)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기울기가 있지 않음

그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설치	(1)접근로와 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연석, 울타리와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설치되어 있음
라. 재질과 마감 (1)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2)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설치	(1)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설치되어 있음 (2)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 없음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턱 낮추기 (1)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1)턱이 없음
나. 경사로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1)경사로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선으로 된 참을 설치 (3)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경사로는 있지 않음
다. 경사로 기울기 (1)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2)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경사로는 있지 않음
라. 경사로 손잡이 (1)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 (2)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 (3)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경사로는 있지 않아 손잡이가 있지 않음
마. 경사로 재질과 마감 (1)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있음
바. 출입구(문)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1)출입구 통과 유효 폭이 1.96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1)출입구(문)은 통과 유효 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출입구에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고, 출입구의 저면 유효거리는 연속된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2)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음
사.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시판 (1)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 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2)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시판을 부착.	(1)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건축물안 공중화장실에는 출입문옆 벽면의1.2미터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음
아. 출입문(문) 기타설비 (1)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	(1)설치되어있지 않음

4.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건물 안 계단이 없어 비상구를 파악함)

가. 형태 (1)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바닥에서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 참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꺾임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2)1.77미터 이내로 휴식 참이 설치되어 있음
나. 유효 폭 (1)계단 및 참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2)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파악하지 못함
다. 디딤판과 철편 (1)디딤판의 너비: 0.28미터 이상설치. (2)철편의 높이: 0.18미터 이하 설치. (3)철편 기울기: 디딤판의 기준 60도 이상 설치. (4)계단 코 돌출: 3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 (5)모든 디딤판과 철편을 균일하게 설치.	(1)디딤판의 너비: 0.27미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2)철편의 높이: 0.165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3)철편의 기울기: 거의90도로 설치되어 있음 (4)계단 코 돌출: 계단코가 돌출되어 있지 않음 (5)1,2센티미터 정도 조금씩 차이 남
라. 재질 및 마감 (1)바닥표면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 (2)계단코에는 줄눈 또는 경질 고무 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 설치. 다만, 바닥 표면 전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3)계단 시작 및 끝 지점 0.3미터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럭 설치.	(1)미끄러운 재질로 설치되어 있음 (2)설치되어 있음 (3)3.02미터 꺾여있는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마. 손잡이 (1)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설치. (3)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 수평으로 설치. (4)굵기: 지름3.2~3.8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5)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1)설치되어 있음 (2)0.96미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3)문장을 이해하지 못함 (4)굵기: 지름5센티미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5)벽 쪽에 손잡이가 있지 않고 난간 쪽에 설치되어 있음
바. 점자 표시판 (1)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설치. (2)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 부착.	(1)설치되어 있지 않음 (2)설치되어 있지 않음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 폭 및 디딤판 (1)유효 폭: 0.8미터 이상 설치. (2)디딤판: 양끝지점 3매 이상 수평 설치.	(1)유효 폭: 1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2)디딤판: 설치되어있지 않음
나. 속도 및 손잡이 (1)속도: 분당30미터 이내로 설치 (2)손잡이: -양측 면에 디딤판 속도와 같이 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미터 이상 수평 이동손잡이 설치.	젤 수 없었음

6.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규격 및 색상 (1)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2)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4)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점형 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 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점형 블록의 돌출 점은 반구형·원뿔 절단 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 형으로 하며, 돌출 점의 높이는 0.6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 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8)선형블록의 돌출 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 선의 높이는 0.5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1)설치되어 있음 (2)설치되어 있음 (3)황색으로 설치되어 있음 (4)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되어 있음 (5)표준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6)돌출 점의 높이는 0.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7)표준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8)1센티미터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나. 설치방법 (1)점형 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승강장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선형블록은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계단, 에스컬레이터로 유도하는 곳에는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출입문 근처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반대편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엘리베이터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중단시키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있음 (2)설치되어 있음



(7) 지식채널e 동영상 ‘어느 퇴근길’ 상영
일시 10월6일(월)
장소 강당(주를여는시간)
일정 10월4일 영상을 찾아봄
주여 알림시간에 상영함
인원 유준상, 김민정, 전선, 정기온(소모임)

간디인에게 끊임없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간디인 모두 모인 자리 ‘주를 여는 시간’에 간단한 영상을 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0월4일 민정언니와 나는 주를 여는 시간에 틀 영상을 찾아봤다.

찾아보던 중 지식채널e에 ‘어느 퇴근길’이라는 영상을 찾았다.

‘어느 퇴근길’이라는 영상은 시각장애인의 퇴근길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사고사례와 투쟁했던 장면도 있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을 간단히 합쳐 만든 영상인 것 같았다.

10월6일 월요일 주를 여는 시간에 영상을 틀었고 영상틀기 전 간디인에게 영상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 후 영상을 틀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간디인 모두 집중해서 잘 봐주었다. 사고가 일어난 장면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간디인에게도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알려준 것 같은 기분 뿌듯하다.

3) 소모임 활동 평가

-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진행됐다.
- 소모임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이번 소모임 활동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 뻘 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 같다.
- 소모임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한 것 같다.
- 앞으로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장애인을 본다면 도움을 주게 될 것 같다.
- 장애인 체험하는 활동이 제일 좋았고 기억에 남는다.
-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랐다.
- 공부나,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 한정적이었다.
- 소모임들끼리 좀 더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 간디인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이 적어서 아쉽다.

소모임 활동이 생각보다 잘 끝났다.

처음 소모임을 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진짜 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로 걱정되고 이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도 안 갔다.

또 소모임원들이 끝까지 열심히 활동해 줄까? 중간에 재미없어서 나가는 건 아닐까 식의 별 생각들이 엄청 많았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소모임원들도 성실히 참여해 주고 활동할 일들은 무사히 다 끝낸 것 같다.

한 활동을 하려고 몇 일전부터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어색했다. 이런 활동기획을 하는 일도 처음이고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라 정말 새로웠다.

또 활동들이 끝나고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면 몇몇의 간디인들이 와서 열심히 한다고 이번활동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마다 너무 좋았다. 그만큼 간디인들에게 우리 활동이 눈에 띄었다는 뜻이니까.

활동을 하나 진행하려 회의를 할 때는 소모임원들은 무거운 주제여서 졸릴 수도 있을 텐데 지루해 하지 않고 열심히 의견 내주어 밝은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어 정말 매주 회의가 즐거웠다.

하지만 막상 활동 날이 오면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지만 내가 시켜야 하는 느낌? 활동 당일 날 역할분담이 잘 안됐던 것 같다.

가을축제인 경우 논문부스에 있어야 하는데 한명은 바쁘고 한명은 보이지도 않고 부스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소모임원 한명과 나랑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옆에 같이 있었던 소모임원은 가을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다.

한명씩 바뀌가며 활동했다면 다 같이 가을축제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다른 활동인 경우 준비물도 다 같이 구해오고 바깥조사를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준 것 같다.

지금까지 활동들이 간디인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큰 착오 없이 생각대로 잘 진행된 것 같다. 간디인 다 같이 한 활동이 좀 부족할 지라도 소모임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해 배우고 느끼고 활동을 한 것도 충분히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어도 지금 생각해 보니 아쉽게 남는 점이 있다.

-너무 활동에만 비중을 두어 소모임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소모임안에서 활동했던 일에 비해 간디인 모두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이 적었던 것.

-한 활동을 준비할 때마다 시간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하면 좋았을 것.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이 후회는 안한다.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소모임 논문활동을 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워가는 기분이다.

정말 재미있고 좋았다.

4. 활동일지

7.25 (금)

광명시청에서 장애인편의시설홍보전시회를 한다기에 소모임원 준상오빠와 다녀왔다.

도착했는데 의외로 전시회는 크지 않았고 체험할 수 있게 휠체어가 배치되어 있었다.

전시회에 좋은 그림들이 있었고 휠체어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다니는 것이 장애인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 느꼈다.

8.10 (일)

오늘 1학년 하늘이네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인터뷰해야 하는데 하늘이네 아버지가 인터뷰 대상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늘이네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모든 장애인분들이 인터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상을 추려 알려준다고, 정말 감사했다.

빨리 인터뷰 질문지를 완성시켜야겠다.

8.11 (월)

아침에 연락이 왔다.

내일 3:30 14일 1:30 이 시간대에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한명은 지체장애 또 한명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다.

갑자기 내일 바로가게 되다니 혼란스러웠다....이제 질문지를 완성시키고 소모임원들과 엄마, 민혜 쌤에게 의견을 받아봤다. 모두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완전 고마웠다.

수자 쌤에게도 보여드리려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내일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8.12 (화)

오늘 인터뷰할 보건소에 미리 가서 하늘이네 아버지랑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인터뷰 시간을 기다릴 동안 추천해주신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다른 분을 먼저 하게 되었다.

갑자기 정해진 것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보기'라는 아주머니분이셨는데 인상도 좋고 정말 잘 대해 주셨다. 갑자기 인터뷰하신 건데도 기분나빠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이후로도 하늘이네 아버지가 다른 분을 계속 추천해 주셔서 3분을 인터뷰 했다.

그만큼 더 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본다.

8.14(목)

인터뷰 2번째 날이다.

처음보다는 덜 떨리는 것 같다.

학원에 갔다가 시간에 딱 맞춰서 보건소에 도착했다.

오늘 인터뷰한 분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김종규' 라는 분 이셨다.

모든 장애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몸이 불편하다고 모두 우울하거나 까칠하게 대해주지 않으셨고 모두들 친절하시고 인터뷰에도 잘 응해주셨다.

이렇게 인터뷰활동은 끝이 났다. 전봉균 아저씨께 정말 감사하다.

빨리 집에 가서 인터뷰 정리를 해야겠다.

9.1 (월)

소모임끼리 버스를 타자라는 다큐를봤다.

선이는 까먹어서 같이 보지 못했고 민정언니 준상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봤다.

중간에는 진주랑 단아가 들어와 같이 다큐를 보았고 본 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활동을 마쳤다.

9.3 (수)

오늘은 중간발표 했다.

중간발표 때 쌤들에게는 대부분 논문의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뤄내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많아졌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하지 지금은 소모임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중간발표가 끝났다고 속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막막해진 기분이었다.

9.17 (수)

오늘은 소모임 활동으로 간디인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틀었는데 정신없어 죽는 줄 알았다.

틀기 5분전에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실행이 안 되고 사람들은 회의나 재미없어 보인다고 놀리기만 하고 그래도 걱정했던 것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준 것 같다.

6~10정도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거리고 나는 중간마다 사진도 찍고 다큐멘터리를 다본 후 내가 간략하게 설명 후 소감문도 받고 정신을 없었어도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끝나서 다행이다.

9.27 (토)

드디어 가을축제 날이다.

3시부터 가을축제 시작이어서 2:30부터 내 논문부스에 बै지, 책갈피, 피켓, 후원금박스를 배열해 놓았다.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왔고 사람들도 관심을 보여주었다.

직접 만든 것이냐고, 예쁘고 잘했다고, 좋은 일한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정말 감사하고 뿌듯했다.

어쩌다 학부모님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질문을 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 마다 왠지 엄청 떨렸다.

이렇게 2시간이 지나고 부스를 마무리 할 시간이 되자 बै지와 책갈피는 동강이 나있었다.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모여 있어서 놀라웠다. 가을축제 활동 정말 재미있었다.

10.4 (토)

오늘은 시설상태 파악하러 충주에 가는 날이다.

아침에 일찍 내려와 민정언니랑 장애인 체험하기 신청포스터를 만들었고 1시30분차를 타서 2시시에 준상오퍼랑 만났다. 도착하자마자 시설상태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계속하다보니 좀 나아졌다.

2시간동안 활동을 한 후 공책에 총 정리를 해 이번 활동을 끝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0.6 (월)

간디인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을 잊지 않게 하고 오늘 주여 시간에 지식채널 영상을 틀었다.

처음에는 간디인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지루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됐고 정말 많고 많은 영상중 이 영상을 트는 것은 잘한 일일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간디인 모두 생각보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영상보는 모습을 보여줘서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10.7 (화)

오늘은 장애인 체험하는 날이다. 아침열기 때 체험할 사람들 모였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 잘 모였다.

그리고 체험할 장치를 착용해 주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잘 안되고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마쳤고 오전 내내 시각장애를 체험하였다.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밥 먹을 때는 죽는 줄 알았다. 점심 먹은 후 오후 팀이 체험을 시작했고 기숙사 올라가서 체험활동이 모두 끝났다.

사람들이 소감문을 제발 바로바로 줬으면 좋겠다.

Ⅲ. 결론

7월25일~10월7일에 걸쳐 소모임은 총7가지의 활동을 하였다.

논문 활동 뒤에도 간디인들이 책갈피나 बै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

또 장애인 체험하기 활동인 경우 간디인의 체험 후 소감문을 받았는데 간디인들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제대로 느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활동을 끝냈을 때 소모임에서 활동기획만 했지 공부나 자료조사는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간디인 모두 알면 좋았을 텐데 내가 게으름을 피워 시간이 모자란 부분도 있었고, 알려주는 방법에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흔한 방법으로 알려주게 된다면 대자보 붙이기, 알림하기 등이 많은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흔한 활동을 해 아무 관심도 못 사고 종이낭비만 하기보다 최대한 알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번 논문을 통해 나 또한 소모임원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공부하게 된 것 같아 좋다. 처음에는 문제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서 끝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장애인이었으면 이런 장애인 이동시설 갖고는 못 살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또 모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자! 노력이 안 되면 적어도 관심은 가져주자! 라는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생각이 성장한 기분이다.

또 논문활동으로 인해 간디인 중에 나처럼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

이 논문으로나마 간디인들이 장애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는 그 바람들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논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논문은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1) 앞으로 남은 과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금 전달

가을축제 때 배지와 책갈피를 드려 후원금을 받은 것을 은행으로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직접 방문해 관련자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충주버스터미널 건의하기

충주버스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치에 맞지 않았던 곳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건의해볼 생각이다.

용기를 주제로 소설쓰기와 작곡하기

지도교사: 고희라



이름: 차한비

좋아하는 거: 세계평화와 우주평화, 그리고 ufc

싫어하는 거: 폭력

한줄후기:

논문을 쓰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사전 설문조사
 - 1) 설문지를 왜 돌렸나
 - 2) 결과 및 반영
2. 소설
 - 1) 소설이란
 - 2) 소설의 시점
 - 3) 소설의 구성단계
3. 작품소개
 - 1) 형태
 - (1) 선택한 이유
 - 2) 구성
 - (1) 선택한 이유
 - 3) 추가 구성
 - 4) 소설 웃고 있는 구름
 - 5) 1장 히말라야
 - (1) 소설 소개
 - 6) 2장 가짜 양아치
 - (1) 소설 소개
 - 7) 3장 커피 타는 사람
 - (1) 소설 소개
 - 8) 평가
 - 9) 소설을 마치며
4. 음악
 - 1) 음악이란

5. 작품 소개

- 1) 히말라야
 - (1) 노래 히말라야란?
 - (2) 가사
 - (3) 평가
- 2) Be it so
 - (1) 노래 Be it so란?
 - (2) 가사
 - (3) 평가
- 3) 오즈의 마법사
 - (1) 노래 오즈의 마법사란?
 - (2) 가사
 - (3) 평가
- 4) 작곡을 마치며

III.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부록
 - 1) 도움을 준 사람들
 - 2) 참고자료
 - 3) 작품일지, 기록
 - 4) 악보
 - 5) 소설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엔 책이라면... 만화책? 아니면 만화책 같은 소설만 읽었다. 음악도 즐겨 듣긴 했지만 많은 노래는 듣지 못했다. 근데 이 학교에 들어와 난 더 넓은 분야의 소설과 인디, 힙합 등등 더 많은 장르의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근데 난 남들을 도와주는 걸 더 하고 싶었고 간디학교를 다니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간디학교 학생들이 은근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가족회의 때 말 못하고 선배한테 하지 말라고 못하고 고백 못하는 등 그러던 중 문득 용기를 주자는 게 떠올랐고 내가 하고 싶은 남들 도와주기와 책, 노래 만들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생각했다. “그럼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제 소설과 노래를 만들어 용기를 주자!”로 논문은 시작됐다. 실제로 용기를 주는 책, 노래도 추천을 많이 한다. 할 것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

2. 논문의 목적

용기를 주제로 해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한다. 소설은 한편이지만 옴니버스식이라 3개의 단편이라 볼 수도 있다. 3편마다 각각 맞춰 3곡을 쓴다. 모두가 용기는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 마음이 가벼워 지거나 웃음을 자아내거나 만약에 위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3. 연구방법 및 계획

- 1) 설문조사- 학생 설문 용기에 대하여
- 2) 기타- 작품 완성 전 피드백

II. 본론

1. 사전 설문조사

1) 설문지를 왜 돌렸나

용기를 주제로 쓰려 했지만 나도 용기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이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보고 반영도 하려고 돌렸다.

2) 결과 및 반영

(1) 결과

설문지 통계

설문지 응답자 총81명

1.용기가 없어서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예)가족회의 때 의견 못 말하고 위계질서 등등

네: 62명 아니요: 19명

1-1 네라고 답한 사람만 (중복체크가능)

용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받는 느낌

좌절: 7명 우울: 28명 어깨를 피지 못함(수축): 11명

기타: 24명 후회 아쉬움, 울분 분노, 방황, 불안, 멍~~~, 목소리가 작아지고 문장이 물음문 (예)이거일걸요...?, 쑥스럽다

2. 나에게 용기나 힘이 된 책

수호천사, 더 빨강, 그건 사람이었네, 용기, 1cm, 강신주의 감정수업, 어느 짧은 광대이야기, 멈추면 비로서 보이는 것들, 임격정, 체게바라 평전, 내안의 낯선 나, 가시고백, 파페포포시리즈, 무서운이야기, 랩으로 인문학하기, 세상의 중심에 나 홀로 서라, 스티븐잡스, 엄마는 마흔 살, 마시멜로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아홉살 인생, 윙피키드, 공중그네, 어린왕자

3. 나에게 용기나 힘이 된 노래

엑소, 거위의 꿈, 수고했어 오늘도, 시작, 드림하이, 영화 잡스ost, 힙합, 에일리, 아이유, 샤이니, 스펡커스, 슈퍼마리오, 신나는노래, 밝은노래,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루닉no.3(뮤지컬 오디션ost), 그래 우리함께, 의뢰인, 촛불하나, 길, 200%, 윤하노래, 연애소설(가비엔제이), 걸그룹, 선인장, 베토벤 4번 교향곡, 빅뱅, 커피를 마시고, 어찌라고, 새벽 5시 반, 힐더월, I was born, To love you, Only when I sleep, Rosa, hey jube, hero, oasis

4. 나에게 용기나 힘을 준 사람(중복체크가능)

친구: 39명 가족: 52명 쌤: 10명 기타(애완동물, 사물 등등): 14명

5. 용기나 힘이 나는 말

엑소, 사랑 사랑해 널 사랑해, 믿어, 힘내, 걱정하지마, 괜찮아, 니 맘대로 해... 용기를 내서!, 잘했어, 니가 젔 나아, 칭찬, 이봐! 힘내라구!, 나는 항상 니편이야, 넌 다를 뿐이야!, 네가(형이) 최고지!, 이름 불러주는거, 그냥 해봐! 할수있어!, 거짓말이란 시, 잘생겼다, 파이팅!, 안아줄게, 어찌라고 씨발 좆도, 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가장 많이 나온것들은 사랑 사랑해 널사랑해,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6. 나에게 용기란?

엑소, 사랑, 좋은거, 행동하는 것, 힘이 나는 것, 격려, 내안에 숨어있는 것, 어떤 것을 담는 그릇, 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좋은 결과물을 향한 밀거름, 힘을 내는 것,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 나의 주장을 강하게, 잘 밝힐수 있는 것, 사람, 내가 앞을 나아가게 해주는 것, 공평한 것,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나에게 없는 것, 두렵지만 도전하는 것, 원동력, 힘든걸 이겨낼수 있는 힘, 문턱, 용기, 일시적인 자신감, 눈치보지않고 행동하는 것, 꿈을 꾸는 것, 곱씹어보았을 때 뿌듯한 후회를 만들지 않는,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브래들리, 가족

7. 제가 용기를 주제로 노래와 소설을 만든다면 듣거나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72명 아니요: 8명 무응답: 1명

(2) 반영

질문 '용기를 주는 책'에서 나온 공중그네와 강신주의 감정수업을 읽었다. 특히 공중그네는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책의 구성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노래'에서 어찌라고 씨발 좆도라는 노래도 책에 나온다. 나도 알고 있던 노래이다. 책에 등장시키기 좋은 요소라 생각했다. 용기를 주는 노래이니. 그리고 소설을 쓰기 전 구상에도 도움이 조금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문지라도 있으니 도움이 되었다.

2. 소설

1) 소설이란?

소설은 작자가 자기의 눈을 통해 본 현실적 인생을 구성적(構成的)으로 서술한 창조적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자와 작자의 개성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¹⁾

2) 소설의 시점

소설의 시점

하나의 이야기가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되는 방식, 또는 서술자가 작중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인물의 심리에 침투하는가"를 기준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서술자와 인물의 일치-주인공 자신의 심리), 1인칭 관찰자 시점(서술자와 인물의 일치-주인공의 심리 침투 불가능), 전지적 시점(서술자와 인물의 불일치-인물의 심리 침투), 3인칭 관찰자 시점(서술자와 인물의 불일치-인물의 심리 침투 불가능) 등으로 나눌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시점의 가장 상식적인 유형으로 인정받아온 것이다.²⁾

3) 소설의 구성단계

(1) 요약

소설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소설이나 연극의 이야기가 모두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구성의 단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2) 자세한 설명

소설이나 연극의 이야기는 사건을 어떤 질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므로 대개 일정한 구조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발단(發端)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그 배경과 함께 나타난다. 독자나 관객은 여기서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과 그 분위기도 암시받을 수 있다. 발단 부분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전개(展開)의 단계이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인물의 성격이 여러 방향으로 변화를 드러내며, 다른 등장인물과 관련이 이루어지면서 갈등과 분규를 빚어낸다. 전개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복잡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방향과 주제를 통일시키기 위해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에서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부분을 절정(絶頂)이라고 한다. 복잡하게 발전되어온 인물의 성격이 크게 부각되고, 이야기의 흐름에 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진다. 이야기가 끝맺어지는 단계가 결말(結末)이다. 주인공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사건의 긴장이 해소된다. 소설이나 연극의 주제는 대개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암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소설이나 연극의 이야기가 모두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구성의 단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이야기는 그 전개의 과정이 작가의 의도나 주제의 요청에 의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3. 작품 소개

1) 형태

(1) 나의 소설의 형태 중편소설

1) [네이버 지식백과] 소설의 기능 -두산백과 중 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716&cid=40942&categoryId=32862>

2) [네이버 지식백과] 시점 [視點, Point of view, Point de vue]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01&cid=41799&categoryId=41800>

3) [네이버 지식백과] 구성 단계 [構成 段階]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2.2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3744&cid=41708&categoryId=41737>

(2) 요약

단편소설보다 내용이 길고 인물도 많으나 장편만큼 복잡하지 않은 중간적 형태의 소설. 대체로 200자 원고지 400~500매 분량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3) 자세한 설명

대체로 200자 원고지 400~500매 분량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단편소설이 보다 세련된 기교에 의하여 소설의 특징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중편소설은 작가가 택한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서사적 과정을 충분히 전개시키는 특징이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현실적 세계나 풍속적 삶, 또는 이야기의 복잡한 전개가 필요하므로 인물마다 세밀한 묘사가 필요하지만, 중편에서는 그러한 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단편과 장편의 장점을 예술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대표적 작품이며, 한국에는 최인훈(崔仁勳)의 《구운몽(九雲夢)》, 곽학송(郭鶴松)의 《집행인》, 이병주(李炳注)의 《망명의 늪》, 유주현(柳周鉉)의 《죽음이 보이는 안경》 등 많은 중편소설들이 1970년부터 창작되었다.⁴⁾

(4) 선택한 이유

중편소설이라는 형태의 소설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분량이다. 소설을 쓰고 나니 중편소설의 분량 이었다.

2) 구성

나의 소설의 구성은 옴니버스다.

(1) 요약

몇개의 단편을 결합하여 쓴 작품.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개의 단편을 써 결합한 것. 또는 전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다른 역으로 출연하는 것 등.

(2) 자세한 설명

몇 개의 단편을 결합하여 전체로서 정리된 분위기를 내도록 한 작품.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단편을 결합한 것, 또는 전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다른 역으로 출연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하나의 테마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 각기 독립된 줄거리로 엮어서 전체를 일관된 분위기로 나타내도록 구성한 드라마나 쇼. 한 사람이 제작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제작하기도 한다.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흔히 사용된다.⁵⁾

(3) 선택한 이유

한 스토리를 길게 쓰는 것이 힘들고 참고서적인 공중그네, 인더풀을 보며 좋은 구성이라 생각했다.

3) 추가 구성

내 소설은 오즈의 마법사를 인용하였다. 겁쟁이 사자,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이 셋이 어울렸다 생각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 길, 은색 구두 등이 나온다. 그리고 나를 모토로 한 부분이 조금 있다.

4) 소설, 웃고 있는 구름

내 소설의 제목이다. 원래는 겁쟁이 사자,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에서 따와 겁쟁이 허수아비 나무꾼 이

4) [네이버 지식백과] 중편소설 [中篇小說]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781&cid=40942&categoryId=32862>

5) [네이버 지식백과] 옴니버스 [omnibus]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0&cid=42169&categoryId=42169>

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 소설 제목을 생각하던 중 구름을 보았고 구름의 포근함. 또 그때 구름이 웃는 듯한 모양이라서 웃고 있는 구름으로 하게 되었다. 용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5) 1장 히말라야

첫 번째 단편소설의 제목이다. 소설과 연관되어 있다.

(1) 소설 소개 및 평가

주인공 우석 -눈치를 보고 소심함. 낮가림. 말도 잘 못함. 하지만 친하지 않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장 가짜 양아치랑 연결이 되어 있고 권투장과 학교를 다니며 이야기가 흘러간다. 중학교 3학년이다. 권투장, 만석이, 특히 진석이와 지내며 변화가 생긴다. 진석이와 우석이는 둘 다 만석을 좋아한다. 진석이와 조금씩 닮아간다.

6) 2장 가짜 양아치

두 번째 소설의 제목이다. 소설과 연관되어 있다.

(1) 소설 소개 및 평가

주인공 진석 -제목 그대로 가짜 양아치이다. 친구를 잃기 싫어 양아치인척을 한다. 하지만 원래의 자신은 싸움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애다.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장과 같이 권투장과 학교를 다니며 이야기가 흘러가고 중학교 3학년이다. 1장과 연결되어 있다. 권투장, 만석이, 특히 선호, 우석이와 지내며 변화가 생긴다. 우석이와 같이 만석을 좋아한다. 우석이와 조금씩 닮아간다.

7) 3장 커피 타는 사람

세 번째 소설의 제목이다. 동일하게 소설과 연관되어 있다.

(1) 소설 소개 및 평가

주인공 한석 -강박,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일할 때, 결혼생활도 마초같이 한다. 부인에게 존댓말도 쓰게 한다.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움츠러든다. 재능은 있지만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일종의 트라우마의 시달리기도 한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장, 2장과는 많은 연관은 없다. 회사와 권투장을 다니며 이야기가 흘러간다. 권투장, 디자인 부서, 아내, 관장님과 지내며 변화가 생긴다.

8) 평가

겉쟁이 허수아비 나무꾼을 보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용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 이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엉뚱하고 4차원적인 한비도 소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은 것 같다. 만약 이 소설이 한비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봤더라도 위안을 얻을지는 모르겠다. 본격적인 독후감!

전문 소설가가 쓴 소설이 아니어서 그런지 소설 속 상황이나 등장인물들의 생각, 대화가 매끄럽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소설 속 상황이 머릿속에서 잘 펼쳐지지 않았고 주인공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했다. 주인공이 혼자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주욱 이어져 있는 것이 읽기에 불편했다.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읽게 되서 조금 산만한 느낌이었다.

주인공들의 고민은 많이 공감이 됐다. 특히 1부의 우석이편이 많이 공감됐다. 우석이와 진석이, 한석이의 고민, 콤플렉스? 는 친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공감이 잘 됐다. 친구가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우석이가 자신의 소심한 면을 극복하는 과정이 잘 공감되지 않았다. 우석이의 소심한 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한 우석이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다른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였

다. 주인공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주인공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감이 엄청 잘 됐지만 극복해나가는 부분은 공감이 잘 되지 않았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는 무척 현실적 이야기여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부터 어쩐지 조금 뻘한 이야기 같았다. 선효가 있어서 그런지 진석이가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공감이 잘 됐다.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소심한 성격, 센척, 모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좋은 주제인 것 같다.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모습 또한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친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어서 사실적이고 공감이 잘 돼서 좋았다. 주인공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면 더 공감이 잘 될 것 같다. 또 주인공이 혼자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계속 헛갈렸다.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 소개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솔직히 평가함ㅋㅋ80쪽 가까이 쓴건 진짜 대단하긴 한데 먼가 니가 작가가 아니니까 부족한점이 몇몇이 있네 ㅋㅋ 당연한 거 겠지만 읽고 기분나빠하진 않았으면 해ㅋㅋ 용기를 주제로 해서 그런지 각각의 인물이 권투장을 매개로 자신감을 차차 찾아가는 스토리 구성을 잘 짠 것 같은데, 읽으면서 약간 비현실적이 달까? 소설이 비현실적인 일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세한 표현과 주인공들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심리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었으면 소설이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이라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을 주어야 할 텐데, 이 글을 다 읽고 나서는 글쓴이가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용기라는 단어에 걸 맞는 이야기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설에 교훈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일수도 있겠지만 제목과 소설내용의 연관성도 좀 더 알기 쉽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소설을 읽으면서 든다.

1) 읽어봤는데 대화체가 너무 많고 길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 대화체가 많을 경우, 이야기의 흐름을 대화체가 이끌어 갈 경우 독자들은 책을(소설을) 읽을 때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화체는 그렇게 길고 많이 쓰이지 않아. 다만 작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있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의도한 것이 아닌 그냥 쓰다보니 나온 것이라면 대화체를 조금은 줄이고 서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인터넷소설이나 팬픽도 아니고(팬픽도 이렇게 대화체가 많은 것은 보질 못했던 것 같아.) 대화체가 오히려 너의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 부적절해 보이니 이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2)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도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 '~할게'가 아니라 '~할게', '니네'가 아니라 '너네' 등 ~

3) 말줄임표(...)가 너무 잦게 쓰여졌네. 쉼표로 바꾸어도 괜찮은 것들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쉼표로 바꾸었는데도 말이 안된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지우면 되.

한비 소설에 대한 의견

용기를 주는 소설이라니... ㅎㅎ 작품의 목적과 의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쉬우랴. 한비의 소설을 읽었다. 목적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면화 되어 있지는 않다. 또 너무 모호하게 숨겨 두는 형태의 소설도 아니었다. 읽기에 편하고 작가의 마음도 은근하게 잘 전해진다. 한편의 소설을 읽고 용기가 마구 솟기란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의 싹이 돋아나는 느낌이 든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힘, 소설화에 소질이 보인다.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그 이

야기들을 엮어가는 (완벽하진 않지만) 옴니버스 형식은 흥미롭다. 이야기 구성에서 부분부분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운 연결이 있기도 하였으나 아마추어로서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구성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여러차례 받거나 본인 스스로 여러차례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배경의 중요 소재로 사용한 ‘권투’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음이 잘 느껴진다. 구체성과 실재성이 그 장점이다. 1화와 2화의 경우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사건 서술이나 인물의 심리 묘사 등이 성공적인데 반해 3화의 경우 직장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다소 사건 서술이나 인물의 심리 표현, 대화 구성 등이 서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밝고 따듯한 느낌이 좋았으며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좋다. 여러군데 눈에 띄는 맞춤법 오류나 오타는 약간 거슬렸으며, 자칫 처음 창작 이후에 퇴고를 전혀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9) 소설을 마치며

사실상 나는 소설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다. 평가에서도 그렇듯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설을 보여주고 수정하고 평가받고 기뻐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내가 느껴져 뿌듯했다. 내가 쓴 소설로서는 만족한다. 첫 작품이니.

4. 음악

1) 음악이란

<음악>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⁶⁾

민혜샘의 말로는 체계적인 소리, 공통 언어 등등이라 한다. 내게 음악은... 잘하고 싶은 욕심? 재미? 편하게 하는 것.

5. 작품 소개

1) 히말라야

(1) 노래 히말라야란?

소설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노래이다. 산을 오르는 얘기를 다루고 인생이란, 아니면 무언가를 산으로 빗대어 올라가는 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아니 별거 아니라기 보단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노래 중에 가장 감미로운 노래이다. 소설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사에 들어갔다.

(2) 가사

산을 올라야만 한단 편견
그리고 그걸 오르지 못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전거도 못 타네

얇은 다리 새하얀 두 손
이대로 산을 오르면 분명
모두들 이상하게 보겠지
어떻게 오를 꺼난 눈빛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폭폭 꺼지는 눈을 밟고
내안에 따듯함과 함께
물개처럼 박수를 치며
오를 수 있어

6)[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116000>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을 올라 더 빨리 올라
계속 독촉만 하는 너는 아래에
두고 와 올라가다 보니 빨리 가게
되는 게 덜 힘들잖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푹푹 꺼지는 눈을 밟고
니 옆 그 사람과 함께
남이 날보고 비웃으면 너도 가볍게 웃으며
오를 수 있어

히말라야
히말라야
결코 쉽지 않아
그래도 잡담을 떨다보니

와 경치 좋다.
야호~
야 하지마 눈사태일어나.
쩍. 이제 내려갈까?

(3) 평가

마지막 나레이션이 창의성 있다.
억압을 받지 않으려는 얘기, 자유롭게, 남과는 다르게 내 앞길을 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후렴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나레이션 좋음.

2) Be it so

(1) 노래 Be it so란?

Be it so의 뜻은 '그렇다면 좋아' 이다. 바뀌고 싶다면, 그렇다면 좋아.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이런 의미의 가사로도 들어간다. 곡 스타일은 나도 잘 모르겠다. 소설 가짜양아치의 내용이 가사에 들어갔다.

(2) 가사

골목길로 들어가
녹슨 몸을 이끌고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거의 1년 동안
멈춰있는 심장
아무도 모르겠지 내 심정을

모를 거야
그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아무도
진짜 내가 됐으면
Be it so Be it so Be it so 그렇다면 좋아
일단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거야
Be it so Be it so Be it so 그렇다면 좋아
노란 골목길을 따라 노력해야 할거야

나는 원치
않는 춤
을 추고 있네 꼭두
각시도

아닌데 이제 그만
번데기 속
에서 나오고 싶어

Be it so Be it so Be it so 그렇다면 좋아
일단은 진정한 춤을 춰야 할거야
Be it so Be it so Be it so 그렇다면 좋아
문을 두드려 줄테니 열어야 할거야

예전 사진 앨범을 보며
양아치답지 않게

일단 니가 중요해
앞만 보고 달려
아무데나 가봐 마법
구둘 신은 것처럼
니가 하고 싶다면
소리쳐도 좋아
몸에 페인트를 칠해
욕을 해도 좋아
씨발
이렇게

(3) 평가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음율이 좋다.
자연스런 흐름이 안됨.
모든 곡들이 멜로디는 좋은데 화성이 아쉽.
가능성을 보았다.(캐스팅ㅋㅋ)
불나방 스타 쏜세지 클럽이나 악동뮤지션 느낌이 조금 나며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좋았고 코드도 좋고
더럽지만 자연스런 기타도 좋다. 하지만 녹음이 조금 아쉽다.
뭔가 다시 시작하려는 느낌.
희망적, 전에는 우울했지만 이제는 밝게 시작하자는 느낌이 들었다.

3) 오즈의 마법사

(1)노래 오즈의 마법사란?

내 소설 요소 중 하나인 오즈의 마법사. 진석을 양철 나무꾼. 우석을 겁쟁이 사자. 한석을 허수아비로
빚댄다. 동화적인 느낌이 나게 만들어봤다. 오즈의 마법사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사에 들어갔다. 커피
타는 사람 소설에서도 약간 들어갔다. 아마 노래를 들으며 잠시 동안 정신이 없을 것이다. 살짝 다이나믹?
한 느낌이란 어설피기도 해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까? 마지막 기타 연주와 웃음소리 부분은 도로시와 친구
들을 표현한 것이다.

(2)가사

등에는 장대가 꽃히고
넥타인 목을 죄고
까마귀나 쫓는
멀대 같이 서있는
허수아비
우 낭떨어지가 있어도
우 누가 날 괴롭혀도
우 나는 무력해
우 뇌가 없는 걸

첫 번째 장대는 도로시가
사자 나무꾼과 뽀아졌고
겁나기도 녹슨듯도 하지만
땀범벅이 되도 상관없어

가끔 병나발을 불고

해가 뒤로 저도
내가 횃불이 될 거야
왜냐 난 잘 타거든
우 황새 펠리칸
우 백조와 함께
우 물론 개미들도
우 꽃밭을 지나

두 번째 은색 구두를 신고
내 속을 지푸라기가 아닌
자신감으로 세상에
모든 것을 채워 넣어

내가 이 나라에 지배자
이제 까마귀 쫓지 않아
살찐 비둘기를 쫓는 사람
비둘기 보단 잘 날 거야

(3) 평가

다이나믹한 흐름 등은 좋지만 표현하기에 화성적인 부분이 아쉽다.

새로운 장르 같다.

가사를 봤을 때 허수아비가 자기애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두곡과는 다른 분위기로, 두곡들은 가사에 비유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 곡은 직설적인 가사이다. 복잡하지만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곡이다.

4) 작곡을 마치며

작곡 물론 내가 전문으로 하거나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가끔 기타를 치는 것 피아노를 치는 것. 노래를 부르고 듣고 즐기고 감상하는 것을 좋아 했기에 작곡이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 같고 비록 모자라지만 나의 최선,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작곡을 하며 실력이 늘었고 남들에게 내가 만든 무언가를 들려주는 것을 창피해 하던 걸 조금이나마 극복한 것 같다.

Ⅲ.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나의 소설과 노래가 용기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최선을 다했고 다들 만약에 용기가 없다면 음... 힘내시길 바란다. 내가 내 논문을 하며 용기를 받은 것 같다.

2. 부록

1) 도움을 준 사람들

악보를 그리기에 도움을 많이 주신 민혜쌤, 소설을 쓸 때 봐주신 신찬비(복숭아), 노래 평가를 허락해주신 서정민갑 쌤과 정문식쌤, 지도교사 희라쌤, 소설 평가와 노래 평가를 해주신 모든 분들, 엄마, 아빠, 소설에 영감을 준 동혁이랑 형준이, 콩자반, 녹음기기 빌려주신 선호쌤,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걸 허락해 주신 아빠가 아는 분, 내 사랑♥, 수고한 나.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의 논문과 지금 성장한 저는 없었을 것이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 참고자료

10학년 논문집, 인더풀(오쿠다 히데오 지음), 공중그네(오쿠다 히데오 지음), 야구장 습격 사건(오쿠다 히데오 지음), 의식수준을 넘어서(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강신주의 감정수업(강신주 지음)

3) 작품일지, 기록

작품일지

7월 27일

설문지통계를 끝내고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이디어 생각난다.

7월 31일

작품구성은 그 전부터 했지만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설문지통계에 있던 ‘나에게 용기를 주는 책’인 공중그네를 읽기로 했다. 오랜만에 본 책이라 그런지 잘 읽힌다. 분위기를 내보려 카페에서 읽었다. 거의 반은 읽은 것 같다.

8월 2일

본격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술술 써지는 것 같다. 술술 썼지만 3쪽이다.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일 보신단다. 구상은 캐릭터 정도만 했다.

8월 3일

희라쌤이 메일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셨다. 그래도 잘 썼다고 해 기분이 좋다. 글을 조금 썼다. 구상 없이 그냥 쓰려고 한다.

8월 6일

지금은 새벽이다. 소설 시작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거 같다. 글을 좀 더 쓰고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이디어는 아직 머리에 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다. 몇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만 있었다. 아빠가 소설을 대충 읽고 재밌다고 했다. 뭐 아빠니까.

8월 8일

어제 삼촌 생일이라 파티를 하고 사촌집에 갔다. 자고 오늘도 좀 놀았는데 덕분에 영감이 떠올랐다. 엄마 노트북으로 하다 엄마가 써야해서 다른 노트북으로 바꿨다. 소설쓰는데 마우스는 필요없지 라는 명언을 남기고 마우스를 빼고 소설을 썼다. 컴이 인터넷이 안되서 엄마가 오면 보내려 한다. 어제 메일을 보낸거를 희라쌤이 좀 읽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다. 잘 지적해주셨다.

8월 9일

소설을 조금 썼다. 영감이 잘 안 떠오른다.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8월 10일

소설을 썼다. 희라쌤이 피드백을 해주셨다.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소설이 잘 써진다. 엄마에게 연봉, 재개발을 물어봤다. 수정했다.

8월 11일

소설을 썼다. 동혁이랑 놀았다. 자전거를 탔는데 덕분에 영감이 떠올랐다. 내 소설에 나오는 동혁이는 실제 인물을 모토로 한 것이다. 동혁이가 우리 집에서 잤다. 결말 영감을 받았다.

8월 12일

늦게 일어나 동혁이가 자기 집으로 가니 정택이와 아이들이 논문을 하러 왔다. 덕분에 소설은 조금 썼다.

8월 13일

정택이 논문에 동참해 도와줬다. 재밌긴 했지만 내일 부턴 논문만 쓸 것이다.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중 시나리오도 쓰고 하신, 별명 복숭아. 이름 신찬비에게 소설을 보내고 읽어주시면 안되냐고 내가 왜 하는지 등등을 말했다. 읽어주시고 피드백등 시간 되면 만나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 아직 답이 없다. 민혜쌤께 메일도 보냈다.

8월 14일

희라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칭찬이 많아서 좋았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한다. 오늘은 10시부터 9시까지 소설을 썼다. 중간에 밥 먹고 빵 먹고 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소설 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날이다. 잘 진전되는 것 같다. 복숭아가 읽어보겠다고 했다. 다행이다. 혹시 민혜쌤도 소설 읽고 피드백좀 해주시려나? 안 해주시면 해주시라고 부탁해야겠다. 희라쌤에게 메일을 보냈다.

8월 15일

어제 조금 늦게 자서인지. 열심히 소설을 써서인지 너무 피곤했다. 그래도 10시 30분부터 나가서 썼다. 희라쌤이 천천히 읽어보겠다고 했다. 복숭아는 아직 모르겠다.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카페에서 글을 썼다. 어제보다 조금 적게 다 그래도 많이 썼다. 이제 확실해졌다. 소설의 양은 시간에 비례하나보다. 이제 집에 가서 메일을 보낼 것이다.

8월 16일

복숭아를 만나기전 소설을 쓰고 복숭아를 만나 피드백을 받았다. 쓰다 보니 초심을 잃었다. 구상 없이 쓰다 보니 너무 막 써지는데 있지만 잘 써지기는 한다. 다 쓰고 수정하고 이런식으로 해야겠다. 희라쌤은 왜 소식이 없지?

8월 17일

수정수정수정 엄마 피드백 비긴 어게인을 보고 작곡 영감이 떠올랐다.

8월 18일

민혜쌤이 메일 보내주셨다. 피드백? 약간 해주셨다. 희라쌤도 메일을 읽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다. 근데 수정본을 다시 보내야된다. 그전 것을 보냈다. 스토리가 하나 남았다. 2틀정도면 다 쓸 것 같다. 작곡생각도 조금 했다. 일단은 세 개의 곡 주제? 가 잡힌 것 같다. 아직은 확신 못함. 작곡을 위해 영화를 볼생각이다. 오즈의 마법사. 그런데. 곰티비가 빠꾸여서 못봤다. 내일 봐야쥐쥐쥐쥐베베베베

8월 19일

오늘은 치과도 가고 소설은 별로 안 쓰고 책을 봤다. 오즈의 마법사. 영감이 떠오른 것 같다.

8월 20일

피곤하지만! 소설을 썼다. 오늘이 쓰는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제 조금씩만 손보면 될 것 같다. 특히 오즈의 마법사가 도움을 주었다.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뇌) 양철나무꾼(심장) 겁쟁이사자

노란벽돌길

파란색

은색구두

에메랄드 도시

토토강아지

도로시가살던 잿빛

허수아비뒤에잇던 장대

34쪽

한석 부장이 자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나.

저는 보다시피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처럼요.

35
36
38
42
43
46
47
50
53
57
58
60
61
79

오즈의 마법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눈치를 보는지.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겁쟁이 사자처럼. 겁쟁이여서는 안되는 거잖아. 그래도 뭐 어찌겠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것 같은데. 딴 사람들도 겁쟁이일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용감해 지는 건 아니잖아. 넌 토토 같은거야. 나란 겁쟁이 사자랑 친해진.

그럼 내가 개새끼란 거야?

아나 진지 하질못해ㅋㅋㅋ

컵 안에 작은 물을 담고 그물을 흔들어 밖으로 다 나오게 하는건 힘든일이지. 하지만 컵을 뒤집으면 쉽게 물이 다 나와. 진석이 초등왕따 친구가 없어지는 걸 두렵

난 친구가 없어봤기 때문에 알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난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나무꾼이 심장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절실 한거야.

심장을 찾은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놓지 않겠지.

오즈의 마법사를 보며 이러한 메모들을 했고 소설에 도움이 되었다. 내 소설을 읽을 때 오즈의 마법사도 봤으면 좋겠다.

8월 21일

소설 살짝 추가

8월 23일

복숭아를 만났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몇까지 말해줬다. 너무 급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맞는 말이다. 끈기를 갖고 해야할 것 같다. 역시 예상대로 조금 막 써지긴 했지만 후반작업 정도만 하면 된다.

8월 25일

학교에서는 잘 안됨.

8월 26일

전살실에서 수정을 했다. 작곡 작품 구상...(거의 맨날해서 이걸 다음에는 말 안하겠다.)

8월 27일

책을 읽고 수정을 했다.

8월 28일

수정을 거의 다 마무리 했다. 노래 be it so의 후렴이 떠올랐다.

9월 1일

희라쌤에게 피드백을 받고 맞춤법 등을 고쳤다. 수정 끝이다. 노래 히말라야의 후렴이 조금 떠올랐다.

9월 3일

히말라야 멜로디가 조금 나오고 노래 오즈의 마법사도 나온다. 기분이 좋다. 잊혀

9월 9일

오즈의 마법사, be it so멜로디 구상. 오즈의 마법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9월 12일

be it so가 거의 완성됐다. 콜라 먹고 싶어!! 민혜쌤이 후렴 박자가 조금 어렵다고 했다.

9월 17일

be it so완성! 추가악기는 빼고. 그리고 추가악기도 조금 됐다. 특히 후렴이 좋다. 배고팡. 희라쌤이 노래가 괜찮다고 했다.

9월 18일

오즈의 마법사 멜로디 거의 완성인데 조금 혼란스럽다. 다른 멜로디도 떠오르고 뭔가 갈아엎을 뻔

9월 20일

역시나 오즈의 마법사를 갈아엎었다. 20프로 쯤 됐다. 아차 오즈의 마법사 작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꾸벅.

9월 21일

오즈의 마법사를 또 갈아 엎었다. 다른 건 차차 진행되는데 포크레인도 아니고 계속 옆네.

9월 24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히말라야 완성! 역시 추가악기 빼고. 맘에 든다. 희라쌤이 노래들이 다 멜로디가 편하다고 했다. 민혜쌤도 후렴을 잠깐 듣고 괜찮다고 하셨다.

9월 25일

be it so를 조금 추가 수정하고 오즈의 마법사를 드디어 완성했다!!! 제일 많이 옆어서 그런지 추가 멜로디가 많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히말라야도 조금 추가했다. 희라쌤에게 오즈의 마법사는 아직 후렴만 들려 줬다.

9월 26일

민혜쌤이 도와줘서 악보를 그렸다. 기보라고 하나? 어쨌든 하면서 민혜쌤한테 노래도 들려줬는데 잘 만 들었다고 하셨다. 예의상 한말이여도 좋다!!! 이전에 못 썼지만 소설 평가를 이지민, 예림누나, 준상이형, 수진쌤, 상연쌤, 희라쌤, 민혜쌤에게 부탁해서 오케이를 받았고 영서형, 쌤 한분 더 신찬비씨라고 내가 아시는 시나리오도 쓰셨던 별명 복숭아 그리고 음악 평가를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대중음악평론가? 의견가? 서정민갑씨에게 부탁할 생각이고 밴드 여섯 개의 달 리더를 맡고 있는 역시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정문식분에게 부탁을 할 생각이다. 아 방금 정문식씨? 그냥 선생님이라고 할 것이다. 문식쌤에게 그려~라는 대답을 들었다.

9월 27일~ 10월 1일

문식쌤 서정민갑 쌤에게 메일을 받았고 에림누나, 영서형, 하린누나, 한울이에게 수락을 받았다. 악보도 그리고 있고 소설 제본 준비도 하고 있다.

10월 2일

악보를 다 그렸다. 가사만 넣으면 된다.

10월 3일

녹음 준비

10월 4일

아빠가 아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3시간 동안 1곡도 완성 시키지 못 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 내가 모든 작업을 하는게 아니니 조금 답답하기도 하다.

10월 5일

학교에서 녹음을 했다. 하던 중 날라 가서 다시 했다. 1절 녹음은 거의 완성한 것 같다.

10월 6일

곡을 가 녹음해 민혜쌤을 들려줬다. 센세이션? 이라고 했다. 선호쌤도 들려주란다. 내일 들려줘야지. 또한 곡은 들려주지 말란다. 별론가 보다ㅋㅋㅋ

10월 7일

선호쌤에게 들려줬다. 복잡하고 어설피고 퀄리티가 낮다고 했다. 고치고 민혜쌤을 들려줬다. 민혜쌤은 첫 번째께 더 좋다고 했다. 머리 아프다. 작품을 끝내야 되는데~ 녹음만 하면 되는 걸 질질 끌고 있다니.

10월 8일

소윤누나 현준이형 준상이형에게 오즈의 마법사를 들려줬다. 거의 다 비슷하게 복잡하다. 박자 이상함 등 이라고 했다. 곡을 고치고 준상이형을 다시 들려줬다. 베이스 박자만 잘 맞추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오래 동안 끈 이 곡을 어느 정도 성공해 기분이 좋다. 한 곡 더 녹음 하고 평가를 어떻게 받을 지 고민해야겠다.

기록

녹음을 학교에서도 했지만 아빠가 아시는 분이 녹음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 거기서도 했다. 이 사진들은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던 활동사진이다.



4) 악보

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 = 56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그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그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그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그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그 산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되어 히말라야를 이루네.

히말라야
정지영 작곡
정지영 편곡

be it so

논문 작곡 1

♩=105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주께 영광 돌리며 너를 찬양

2014. 10. 10. 10:10



이 원 제

오즈의 마법사

옹적의 마법사

[illegible]

Copyright 2014 <Name>
All Rights Reserved

5) 소설

1. 히말라야

학교종이 치고 시끄럽던 아이들이 자리에 하나둘씩 앉는다. 이번 교시만 끝나면 집에 간다. 청소당번도 아니니 빨리 갈 수 있다. 아이들이 모두 앉는다. 내 옆자리 짝궁 주현이는 나와 옆옆자리 민철이랑 롤 얘기를 한다. 선생님이 들어와 이 둘만 보고 둘만 혼낸다. 왜 나는 안 혼내시지? 존재감이 없어서 인 것 같다.

“주현이 민철이 선생님 들어왔는데 조용 안 해?”

“네~”

“네~”

의미 없는 대답이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한다. 창밖에는 비가 온다.

“야 나 지우개 좀.”

주현이가 말한다. 나는 말없이 지우개를 준다. 그 후 따분한 시간만 흘렀다.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다.

“자 수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바로 가방을 매고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거세졌지만 상관없다.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쯤 되면 전화가 온다.

쿵쾅쿵쾅

요란한 전화벨소리가 울린다. 동혁이다.

“여보세요?”

“형아 놀자.”

“안 돼.”

“왜?”

“안되니까.”

“...”

말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동혁이가 아니다.

“아 놀자...”

“알았어.”

“진짜? 그럼 내가 형 집으로 갈까?”

“응.”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는다.

“저기 학생 길 좀 물어게, 여기서 oo학교는 어떻게 가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고쳐 매며 묻는다.

“아 그냥 쪽 올라가시면 되요.”

“고마워.”

이렇게 길을 묻는걸 보면 신기하다. 나는 카페에서 주문 할 때도 직원이 딴 데를 보고 있으면 볼 때 까지 기다린다. 어릴 때부터 낯을 좀 가렸고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바뀌면 적응을 못했다. 그래도 유치원 때는 잘 지냈다. 활발했다. 초등학교도 규모가 작은 편이라 애들이 먼저 놀자고 달라붙기도 하고 잘 지냈다. 친한 사람에겐 편하게 대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먼 중학교를 배정 받았다. 물론 같이 배정된 사람도 있었지만 중학교로 올라오니 딴 애들과 더 친해져 나랑은 멀어졌다. 그나마 말하는 게 주현이랑 민철이었다. 1학년 때는 자퇴를 생각했었다. 학교 시스템이 발표를 많이 하고 중학교라 그런지 사람도 많아서 애들이 많이 다가오긴 했으나 나는 먼저 말 거는 게 너무 어렵고 새로운 학교라는 곳 자체가 너무 낯설고 힘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같은 학년 애들이랑은 주현이랑 민철이랑 조금 친해지니 자동으로 친해졌고 선배와도 친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그 밖이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내

친구에 친구와 놀거나 아빠 친구를 보거나 할 때 인사하는 것도 잘 못하고 어색하고 벗어나고 싶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주문하는 건 괜찮지만 직원분이 뭘 하거나 땀 데를 보거나 하면 멀뚱멀뚱 서서 메뉴판을 보는 척 한다. 예전에는 한의원을 가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엄마는 들어가서 기다리라 했다. 근데 웬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점심시간인데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역시 주춤하며 앞에서 괜히 핸드폰만 보는 척했다. 엄마가 가다가 앞에서 서성이는 나를 보고 들어가! 라는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었다. 웬지 모르게 안심이 됐다. 그리고 나는 주위를 많이 의식한다.

빹빹빹빹 뽀비비~

집문 비밀번호를 급하게 누르고 들어가니 고양이 밍이가 울며 반겼다. 애완동물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밍이도 낮가림을 많이 한다.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오면 침대 밑으로 후다닥 달려간다. 그르릉 그르릉 볼을 비빈다. 밍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 벨이 울렸다. 동혁이를 태운 차가 후진 할 때 나는 멜로디가 퍼지고 동혁이 목소리가 들린다.

“형아 나야.”

문 열어주고 바로 숨어서 놀래 켜야겠다.

띠리링

계획대로 문을 열고 바로 방으로 숨었다.

“형~”

“워!”

“어 거기 있었네.”

태연한 듯 본다.

“안 놀랐어?”

“만날 하잖아.”

썩썩하게 소파에 앉으니 동혁이가 따라 앉는다. 무한도전 봐야겠다. 티비를 켜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티비. 내 보물 1호 아니 3호안에 들것 같다.

“형 **보자.”

동혁이는 오덕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를 좋아한다.

“무한도전 볼 거야.”

“아양~ 뭐하는 지만 볼게~”

폰으로는 애니를 보면서 말한다.

“알았어.”

“예~스”

채널을 돌린다.

“야 오늘은 라임 피씨방 안가?”

“오늘 권투가야 되 안가면 관장님한테 맞아 죽어. 아 채널 시간표 어떻게 보지? 형 이거 어떻게 해?”

리모컨을 갖고 이것저것 눌러본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권투? 재밌어?”

“어 됐다! 이것도 봤고 이거 진짜 재밌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다.

“아니 권투 재밌냐고.”

“음... 그럭저럭. 여기 리모컨. 무한도전 봐.”

리모컨을 건네준다. 무한도전이... 11번... 됐다.

“나도 해볼까?”

“내가 다니는데 같이 다니자.”

“그럴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 되면 오늘 같이 가자.”

다시 폰으로 애니를 본다.

엄마한테 카톡을... 카톡 옆에 1이 오늘따라 애가 탄다.

까톡

어, 왔다.

그럼~ 되지~ 재밌게 하고 와~

“야 된데”

“그래? 잘됐네. 우석짱과 같이 간다니 설레는데? 으흐흐흐”

“뭘 개소리야. 야, 몇시에 가?”

“아무 때나... 지금갈래?”

“이응”

동혁이는 콜! 이라 외치고 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형 근데 나 버스비 음슴요. 헤헤”

“내가 대주지 허허허”

“청소년 두 명이요.”

버스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에 앉는다.

“야 관장님 많이 무서워?”

“가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 그래.”

“다행이네.”

은근 떨린다. 체육관은 인사가 기본이다.

“형 이번 정류장.”

동혁이가 먼저 내린다. 이제 나도... 어? 문이 닫힌다.

“저기요...”

못 들었나?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가슴, 목에서 걸려 입안만 맴돈다. 웬지 몸이 뜨거워지는 거 같다. 특히 가슴, 목, 입이.

“아놔... 저기요! 사람내리잖아요. 문 열어요!”

교복을 입은 양아치 느낌이 나는 남자가 짜증을 내며 말한다. 문이 열리자 남자가 내린다. 나도 빨리 내려야지. 어? 저 교복 우리학교 교복인데?

“형 가자.”

동혁이가 나에게 빨리 가자는 듯이 재촉한다.

“응...”

걸어가는 동안 핸드폰을 보며 앞머리를 만진다. 엄마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다.

“우리학교에도 형처럼 계속 거울 보는 사람 있어.”

웬지 민망해 팬스레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래?”

“어 여기 골목길로 들어가면 되.”

넓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앞에 아까 그 양아치가 보인다. 걷다가 건물을 보더니 들어간다.

“형 저기야.”

때앵

종소린가? 권투장이 우리 학교 근처네.

“야 저 사람도 권투 다녀?”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를 때 그 양아치는 계단을 다 올라 오른쪽으로 간다.

“몰라~?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계단을 다 오르니 다시 한 번 때앵. 소리가 울린다. 누가 봐도 권투장인 곳이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유의 노래가 들린다.

우~ 이번 주 금요일~

“저기가 관장님 계신 곳이야. 같이 들어가자.”

동혁이가 먼저 들어간다.

“안녕히 계세요.”

아까 그 양아치가 나온다. 잠시 멍을 때리다 뒤따라 들어가니 현빈의 한땀 한땀 저지를 입고 계신 관장님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동혁이가 인사를 한다. 나는 고개만 꾸벅 한다.

“어 그래 근데 이쪽은 누구야?”

“아는 형인데요. 오늘부터 다닌 데요.”

“알았어. 일단 앉아서 이거 써.”

나를 보며 말한다. 앉아서 종이를 보니 생년월일 이름 등등을 써야 하는 거 같다. 글씨를 끄적끄적 다 쓰고 연필을 내려놓는다.

“집에 줄넘기 있어?”

“음... 있.. 아니.. 음...”

“좋은 걸로 하나 사. 그게 제일 나아. 몇 달 할 거야?”

“일단 한 달...”

“엄마한테.....”

듣고 있으니 피곤하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꿈이 뭐야?”

“네?”

깜짝 놀라 말했다.

“꿈이 뭐냐고.”

관장님도 살짝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배우요...”

“배우?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하하하하”

관장님이 크게 웃으신다. 웃을 거면서 왜 물어?

“알았어. 내가 배우의 마인드를 잡아주지. 내일부터 다녀. 오늘은... 동혁이 하는 거 보다 가도 되고.”

“네...”

“저 그러면 오늘만 형 따라서 안하고 가면 안 돼요?”

동혁이가 조심스레 묻는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쪽에 링이 있다.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본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 그 양아치가 안 보인다.

“뭘 오늘만이야! 만날 그럴 거면서. 알았어. 그럼 내일 형이랑 같이 나와.”

돌아보니 동혁이가 때를 쓰고 있었다. 관장님이 때리는 시늉을 하며 허락을 한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도 덩달아 인사를 하고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다시 얼굴이 시리다. 골목길로 가려는데 동혁이가 멈춰 선다.

“왜.”

“형아 붕어빵먹자~.”

그러고 보니 올 겨울에 붕어빵을 별로 안 먹은 거 같다.

“그래. 얼마예요?”

“3개에 천원. 팔으로 줄까 슈크림으로 줄까.”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장사를 하나보다. 괜히 짹하다.

“음.... 뭐 먹을래?”

“팔 두개 아니 팔 하나 슈크림 두개로 하자.”

“저 팔 하나...”

말하기 전에 할머니가 봉어빵을 담아 주신다. 얼른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 물건을 바꾸듯이 봉어빵을 받고 천원을 준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혁이도 덩달아 인사를 한다.

“그래. 잘 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한다. 골목길로 들어가 봉어빵을 하나 먹었다. 팔이네.

“야 너 무슨 맛이야?”

“나? 팔.”

“똑같네.”

“어?”

봉투 안을 보니 봉어빵 2개가 꼬리를 내밀고 있다. 할머니가 하나를 더 주셨나보다.

“왜?”

“야 할머니가...”

“어? 버스다. 뛰어!”

버스가 신호에 걸렸다. 버스 앞에 왔는데 기사님이 못 보셨는지 문이 안 열린다. 이럴 때 보면 문을 두드리던데. 문을 두드리려 하니 손이 나갈 듯 말 듯 주춤한다. 그때 동혁이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세요!”

그제 서야 문이 열린다. 30분이 안됐는지 환승이 됐다.

“하아... 하아... 다행이다.”

이번에도 맨 뒷자리에 앉았다. 오늘 같은 일들,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문 열어 달라 못하고 이런 건 기본이다. 그리고 항상 후회를 한다. 하는 상상만 하곤 하진 못한다. 다시 봉어빵을 바라본다. 뛰어서 그런지 하나가 뒤집혀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역시 길거리 가게가 좋다. 모든 가게가 이렇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 판 곳을 보고 있지도 않고 친절하고 인심 많고...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의 다 와있었다. 이번엔 곤란하지 않게 빨리 내려야겠다. 벨을 누른다. 아 맞다. 왼손잡이 인걸 말 안했구나... 웹툰 ‘그린보이’를 보니 오른손 왼손 따라 하는 거 같던데. 관장님에게 왼손잡이인 것을 말 안한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내렸다.

“형 앞에!”

“오 씨발.”

전봇대에 부딪칠 뻔했다. 이미 한번 박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오버하며 피했다. 신호등이 멈춰있는 사람에서 걷는 사람으로 바뀐다. 흡사 그린라이트 같다.

“오 바로 바뀌네. 오늘 운 좋아.”

“형 나 오늘 형 집에서 잔다.”

“이응”

“예~스.”

동혁이가 뛰어간다. 나도 따라잡으려 빨리 된다. 금세 따라잡았다. 역시 운동하난 잘한다니까... 길을 다 건너고 힘들어 숨을 고르는데 동혁이는 힘들지도 않은지 집으로 뛰어간다. 권투를 해서 그런가? 흠... 권투라... 관장님이라 많이 만나나... 아 당연한 건가?

“어?”

동혁이가 지름길을 나두고 멀리 뺑 돌아간다.

“야! 여기 지름길 있어!”

점심시간이다. 줄이 길게 섰다. 드디어 나다.

“얼마나 줄까?”

“조금이요.”

한 번에 많이 푸는 것 보다 조금씩 푸는 게 귀찮아도 낫다.

“야. 치고 갔으면!”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 한 애의 어깨를 잡아 돌리며 말한다. 한쪽은 양아치인거 같은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쟈 또 그런다. 어제도 그러더니. 어? 그러고 보니 권투장 갈 때 본 애다.

“미안해... 실수로 쳤나봐.”

다행히 때리지는 않네.

“크큭.”

지들끼리 키득대다 간다. 어휴 쓰레기들. 저러면 안 쪽팔리나? 그래도 가끔 양아치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늘도 가위바위보를 하나보다. 재네가 다 먹고 나면 항상 소리가 들린다. 방금같이 양아치들이 괜히 가 오를 잡을 때 나는 항상 방관자다. 식판 반납을 하고 교실로 가기 전에 매점이나 들려야겠다. 항상 음료수를 사먹는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 또 그 양아치들이다.

“야 진석이 또 안 오냐? 한번 갔다와볼게.”

“오키.”

누가 안 왔나 보다. 눈을 쳐다보면 ‘콜아보냐?’ 이래서 시선을 다른데 둔다. 교실로 가 창문을 보니 아까 그 양아치가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조퇴하나? 아플 리가 없지. 재가 진석이라는 애인가 보다. 이 양아치도 꽤 일관성 있다. 어제도 나가는 걸 봤는데. 흉내 내는 것처럼 똑같다. 우리 반은 아니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나랑 별로 친하지는 않다.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만석이가 들어온다. 만석이는 예쁜 보조개와 내가 좋아하는 조금 통통한 체형을 가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도 못 해봤지만...

“자 수업 시작할게요.....”

창문 밖을 보니 눈이 쌓여 있었다. 눈싸움 하고 싶다.

“누가 나와서 읽어볼까... 우석이가 나와서 읽어보자.”

“저...저요?”

“응.”

나? 칠판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물론 아는 문제다. 바로 풀면 애들이 재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짝 고민하는 척 하다 문제를 푼다. 글씨가 이상하지는 않겠지?

“오 잘 풀었어요.”

그냥 살짝 웃고 자리로 돌아갔다. 별로 친하지 않은 쌤이다.

“자 수업 끝.”

애들이 뛰어 나간다. 눈싸움을 하려나 보다. 나도 할까? 밖으로 나가 한 쪽에 서있었다. 그러다 펍. 눈을 맞았다.

“아 쏘리 쏘리.”

고개만 까딱했다. 나도 할까? 주현이랑 민철이가 다시 나에게 눈을 던진다.

“야!”

드디어 껴서 놀았다. 역시 주현이랑 민철이다. 한바탕 놀고 나니 수업을 늦었다. 이런... 별을 서는 건 거의 처음이다.

“들어가. 다음부터 늦지 말고.”

들어가 자리로 앉았다.

“우석이형 오늘도 형네서 자도 됴?”

“그러던지. 너 우리 집에서 하숙 하나?”

“우석짱과 이틀째 밤이라... 흐흫.”

“흐흠은 무슨.”

학교가 끝나고 동혁이와 만났다.

“형아 자전거 탈래?”

“그래.”

집 건너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동혁이랑 가끔 타곤 한다. 내가 좀 못 타긴 하지만.

“악!!”

“어.. 그.. 저.. 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죄... 죄송...”

만날 부딪친다. 그래서 잠깐만 타고 온다. 동혁이는 더 타고 싶어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부딪칠 때 머리가 하얗져서 부딪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다. 너무 부끄럽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무한~ 도전!”

집에 와 티비를 켜다. 자전거보다 집에서 티비를 보는 게 훨씬 눈치도 안 보이고 좋다.

“형 나 배고파.”

“집에 밥 없는데... 어떡하지?”

“시켜먹으면 되지 치킨 시키자.”

“니가 시켜.”

“왜? 내 집도 아닌데. 주소도 몰라.”

“아 나 주문 못시켜.”

“왜??”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말하는 게 더 부끄러워 그냥 내가 하기로 했다.

“치킨 집 좀 찾아봐.”

“비비큐.”

“비비큐?”

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다. 신호가 간다. 언제 받지? 받으면 일단... 주소 말하고...

“지금은 내부 공사 중이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받네.”

속으로 웃었다.

“야 딴 데 찾아봐.”

“잠만... 검색해볼게...”

폰을 꺼내 두드린다.

“딴 데... 교촌? 네네? 굽네?”

“굽네 안 먹어봤다. 번호 뭐야?”

“이 근처에 있어?”

“뭐야 검색한 거 아니었어?”

“그냥 말 한 건데?”

“야.”

“히힛”

결국 내가 찾아야겠다. 냉장고에 붙어있을 것이다. 포레오레다.

“야 포레오레에 시킨다.”

“맘대로.”

또~레오레~

“네~ 포레오레입니다~”

“아 저... 서울강북구우이동.....”

속사포 랩처럼 말했다.

“다시 말해주실래요?”

“그...”

못하겠다.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가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네 우이동이요. 그 다음...”

그때 동혁이가 전화기를 바꿔 말했다.

“형 뭐 시켜?”

“어... 어... 뭐 먹지? 잠만 양념? 후라이드 시키면 소스를 주긴 하는데...”

약간의 선택장애도 있다.

“파닭 하나 주세요~”

고민하는 동안 동혁이가 먼저 시켰다. 살짝 빨쫘하다.

“나 파닭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이 주문 처음 해봐?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아니 그냥... 주문 잘하던데?”

엄지를 치켜세웠다.

“형 나 내일도 와도 되?”

“나 내일 삼촌 생일파티 가야 돼.”

“오키...”

“우석짱...”

티비를 보고 있던 중 동혁이가 만지는 시늉을 했다. 팔을 퍽퍽 때렸다.

“아! 아! 때리지 마! 흥분해 버리잖아! 흥분하는 거 보고 싶어!?”

“뭘 개소리야.”

“아 나 근데 진짜야.”

“뭐가 진짜야.”

헛웃음을 하며 또 때렸다.

“손톱깡이로 째는대.”

“아~ 아~ 미안~”

티비를 보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치킨 왔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돌아가는 알바생의 뒷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었다. 초면에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와 나 파닭 처음 먹어봐.”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닭다리 하나씩.”

쩍쩍. 진짜 처음 먹어 봤는지 파닭인데 그냥 닭만 먹는다.

“어? 파랑 같이 먹는 거야?”

“야 그럼 왜 파가있냐?”

“장식용.”

“푸훗. 아 왜 헤비메탈이 좋아? 보통 드라마 같은데서 보면 막 소심하고 그런 애들이 힙합 헤비메탈 듣잖아.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헤비메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나도 힙합을 좋아한다. 근데 나 같은 애들이 들으면 찌질 이로 볼까봐 어디 가서는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한다.

“음... 그냥 상반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한 거겠지. 음악 듣는 게 소심한 거랑 뭘 상관이야. 그리고 헤비메탈은 막 지르기도 하고... 아 헤비메탈은 아닌데 좋은 노래있어. 노래 제목이 어찌라고 x발 x도야. 즈흐흐하하하하”

“니가 말해놓고 웃냐. 함 들어 봐야지.”

“아 그거 권투장에서 만날 틀어줘.”

날개를 집으며 말한다.

“진짜?”

“응.”

파를 올려 입으로 가져간다. 와 신기하네. 자유로운 곳인가 보다.

“아~ 배불러.”

아까 먹은 날개가 마지막 이었는지 콜라로 입을 행군다.

“야 콜라로 그러면 이 썩는다.”

“그럼 틀니 꺼야지.”

당연한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

“야 나 이제 소셜 쓸 거야. 방해 하지 마.”

“형 소셜도 써?”

물론 배우가 꿈이지만 소셜도 쓰면 멋질 거 같아 소셜을 쓴다. 오즈의 마법사를 모토로 쓰는 소셜이다.

“볼래?”

“응. 형은 이거 봐.”

“가방에서 주섬주섬하더니 만화책을 꺼낸다.

“형 소셜도 혹시 하렘? 이 책도 하렘 막장인데. 봐봐.”

“내가 언제 내 소셜이 하렘 이랬냐?”

서로 바뀌어서 보기로 했다. 책을 펼치니 다행히 일본어는 아니다. 중간 중간 야한 일러스트가 끼워져 있다. 짜식. 보다보니 은근 빠져든다.

“형여기.”

“벌써 다 읽었어?”

“아니. 이렇게 한글문서로 보면 되게 많아보여서 읽기 힘들어. 근데 재밌다. 출판해도 되겠는데?”

“뭐래.”

“아 진짜야.”

또 진짜란다. 빈말이라도 고맙다.

“야 카페가자. 나 집에서 소셜 못 써.”

“카페? 거기서 야동 봐야지.”

“뭘 개소리야. 보면 뒤흔다.”

“아 왜~ 장난이고 ** 볼 거야. 애니는 괜찮잖아?”

거의 누구랑 같이 있을 때만 카페를 간다. 나는 주문하기 힘들다.

카페에서 재즈 풍 음악이 나온다.

“야 나 핫초코.”

“형이 주문해야지.”

“뭘 소리야. 니가 해야지.”

“아 형이 돈 있잖아~”

“그럼 같이 주문하자.”

주문하는 것은 싫지만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 직원이 딴 곳을 보고 있다.

“니가 먼저 말해.”

“저기요. 전 녹차라떼. 형은?”

“핫초코...”

동혁이 에게만 들릴 듯이 작게 말했다. 전해주겠지.

“핫초코 하나요.”

“네~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손으로 진동 벨을 받고 2층으로 올라갔다.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앉아서 노트북을 켜다. 노트북을 키는데 노트북 키는 소리에 놀라 주위를 살펴봤다. 다행히 아무도 못들은 모양이다.

“히쿠미짱!”

동혁이가 이어폰을 안 꼈고 애니를 틀었다. 재빨리 핸드폰을 뺐었다.

“뭐하는 거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꽃기 전에 먼저 틀어 진거야. 줘 꽃게. 꽃게 말고 꽃게. 즈흐하하하.”

동혁이가 큰 목소리로 말한다.

“야. 작게 말해!”

“괜찮아. 저 노랫소리보다 우리 목소리가 더 작아.”

“어....”

그러네... 진동 벨이 울렸다. 주위에서 볼까봐 얼른 갖고 일어났다. 탁. 탁. 탁. 걸어가려는데 신발 소리가 오늘따라 컸다. 둘러보니 다행히도 사람들은 이번에도 못 들은 모양이다. 받으러 내려가니 직원은 주문을 받고 있다. 진동 벨은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하다 그냥 앞에 두고 핫초코와 녹차라떼를 집었다. 손이 따듯하고 간지럽다.

“어 형! 고마워!”

동혁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크게 말한다.

“야! 목소리 줄여!”

“미안해요 형. 보듬어 줘요.”

예휴... 속 편해서 좋겠다. 그래도 동혁이는 남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다. 오묘하게 무시하긴 하는데 무시당하는 느낌은 안 든다. 한창 소설쓰기에 집중했을 때 동혁이가 전화를 받더니 여러 얘기를 한다. 들리는 건 피씨방 밖에 없다.

“야 피씨방 가냐?”

“응.... 가도 돼?”

“왜 나한테 물어. 가.”

“저녁에 올게~”

“야 지금이 저녁...”

동혁이가 급하게 나가 허공에다 말한 격이 됐다.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본다. 이럴 때는 쿨하게 보내주는 척 해야지. 카페에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1~2시간이 더 흘렀다. 이제 어둑어둑 해지네. 직원이 올라와 나를 계속 본다. 핫초코만 시키고 죽치고 앉아 있으니 눈치를 주는 것 같다. 주문은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소리가 나지 않게 노트북을 조심히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눈치를 보는지.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겁쟁이 사자처럼. 나는 겁쟁이다. 그래도 뭐 어찌겠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것 같은데. 딴 사람들도 겁쟁이일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용감해 지는 건 아니잖아? 동혁이는 토토 같은 거다. 겁쟁이 사자랑 친해진. 그렇다고 개라는 말은 아니다. 카페를 나서니 주머니에 있는 폰이 폰을 떨 듯 울린다. 동혁이네.

“여보세요.”

“여보 아닌데요. 즈흐흐하하하하”

“야 어디야.”

“지금? 사거리.”

“집으로 와. 내가 먼저 도착하겠다. 끊어.”

어? 파란불이네. 달릴까 말까. 깜빡이는데... 이럴 때 달리면 다 쳐다보겠지? 그냥 다음에 건너자... 나는 편견을 조금 갖고 있다. 아니 편견이 아니라 초록 불을 파란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편견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됐다. 엄마 아빠는 주위눈치보지 말라 하는데 그게 어디 뭐 쉽나. 다시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건너는 도중 왼쪽을 보니 동혁이가 뛰어오고 있다. 필사적으로 달리는 표정과 머리는 다 위로 벗겨진다. 나는 뭘 때도 앞머리가 안 흐트러지게 땀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한다. 혹시 번호를 따일지 누가 아나. 항상 이런 상상을 하지만 어차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물
어물하다 번호를 주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여자가 답답해서 핸드폰을 뺏던가.

“형아~!!”

벽 뒤로 숨었다.

“어? 여기 있었는데...”

동혁이의 뒤쪽으로 스윽 갔다. 동혁이가 두리번거리다 나를 보고 놀랐다.

“깜짝이야 언제 거기 있었어?”

“아까.”

아싸. 놀랐다. 그런데 가끔 진짜로 사람들이 내가 온지 모를 때가 있다. 말을 안 할 때가 좀 있으니...
옆에 나를 보고 놀라기도 한다.

“가자. 아 음료수 먹자.”

집 앞 슈퍼에 들어가 두유를 사고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집 앞 슈퍼는 많이 와서 익숙하다. 인사도 건네받는 사이다.

“야 마셔.”

“땡큐~”

집으로 들어가니 밍이가 경계를 했다. 그래도 동혁이는 우리 집을 많이 와서 밍이도 조금 익숙한지 도망
가지 않는다. 탁자 위엔 정리하고 가지 않은 파닭이 있었다.

“아 정리 안하고 갔네. 야 먹을래?”

“뭐??”

티비를 켜 애니를 찾으며 대답한다. 자기 집 안방 같다.

“닭 먹을 거냐고!!”

밍이가 깜짝 놀란다.

“응~”

콜라도 같이 갖고 티비 쪽으로 갔다. 여기서 뭘 먹을 때가 많아서 여기도 책상 하나가 있다.

“오~ 이거 못 봤는데!”

흑집사? 새로운 시리즈라 한다. 아 노래나 찾아봐야지. 핸드폰을 꺼내려 하는 동혁이가 또 날개를 집는
다.

“야 그 날개는 내꺼야.”

“HING...”

다른 걸 집는다. 제목이... 어찌라고 x발.....

“어찌라고 x발 x도~ 어찌라고 x발 x도~”

시작부터 욕이네...

“오 이 노래 벌써 다운받음? 올크.”

“이것도 들어봐.”

스윙스의 no mercy를 틀었다.

“마지막에 막 소리 지르는데 완전 좋아.”

내가 못 하는걸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어도 좋다. 나도 날개를 집었다.

“야 딴 거 보자.”

“아... 그래.”

나는 혼자 가사도 쓴다. 욕 하고 자기 자랑하는. 물론 실재론 못한다.

“아 맞다! 권투 가야되지.”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까먹고 있었다.

“어떡해?”

“그냥 내일 가지 뭐.”

“내일 가자고? ...안돼. 오늘 가자. 뭐라고 생각하겠어.”

“알았어. 가자.”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탔다. 동혁이가 오늘은 돈을 가져왔다.

“뒷자리에 앉자.”

“야 너 헤드폰? 어디서 샀어?”

“나? 좀 멀리서 샀는데? 용산 전자랜드.”

머네... 아 삼촌이 거기서 일하는데

“얼마정도 해?”

“80000원.”

비싸네... 삼촌한테 부탁할까? 난 못하겠고 아빠한테 삼촌한테 말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번 정류장은....

“야 내리자.”

똑똑똑

“안녕하세요.”

“어~ 동혁이.”

현빈 저지를 입고 계신다. 나는 고개만 숙였다.

“너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야 배우가 그러면 되겠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 그래?”

“하하.”

그냥 웃었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내가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거다. 나와 다른. 당당하게 연기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학원을 몇 번 다녔지만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

“동혁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동혁이랑 같이 가.”

“네...”

짐을 나누고 구스다운을 벗었다.

“형! 일단 신발 신고 붕대는 이렇게.....”

“아~”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모르겠으면 저거 보고 해.”

벽에 붕대 감는 법이 써져 있었다. 그 뒤로 줄넘기부터 시작해 거울 앞에서 뛰기도 했다. 중간 중간 관장님이 배우배우 거리셨다. 한번은 공지를 크게 읽으라 했는데 조금 읽고 말았다.

“왜 어깨를 그렇게 움츠리고 다녀? 어깨가 좁나? 하하하.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크게! 이렇게!!!”

기차 화통처럼 엄청 크다. 짱 먹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해봐 아!”

“.....”

“해봐! 아!”

“아.”

“아니 크게!”

“아!!”

짜증을 섞어 크게 외쳤다. 초점은 땅을 봤다.

“잘하네. 만날 그렇게 해.”

싫은데.

“네....”

권투가 끝나고 동혁이가 봉어빵을 샀다. 그러고 보니 그 양아치, 진석이는 안 왔다.

“형 슈크림이랑 팔이랑 뭐가 더 맛있어?”

“음... 몰라. 야. 밥 먹고 들어갈래?”

“콜. 뭐?”

“음... 몰라.”

“짜장면 먹자.”

“그래.”

중국집으로 들어갔다. 난 짜장면 동혁이는 짬뽕을 시켰다. 메뉴를 보던 중 술 메뉴가 눈에 들어온다. 고량주? 먹어보고 싶다.... 짜장면을 흡입하고 집으로 왔다. 벌써 시간이 꽤 됐다.

“야 자자.”

“뭘 소리야! 새벽까지 달려야지.”

“학교 늦으면 안 돼.”

“아... 응...”

동혁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먼저 침대에 눕는다.

“잘 자.”

“어억...”

“왜?”

자고나니까 몸이 엄청 빠근했다.

“아 몸 부서진 거 같아.”

“즈흐흐하하. 원래 처음 다 그래.”

아... 학교가기 싫다.

“야 니 학교 안가냐?”

“가야지. 빠빠.”

“응...”

때옹

와 몸이 아파 죽을 뻔 했다. 오늘은 진석이도 오고 어떤 아저씨도 왔다. 몸이 빠근해 만석이를 신경 못 썼다. 내일 보겠지?

음.... 몇 시지? 다행히 학교는 늦지 않았다. 몸도 어제 보다는 괜찮아 졌다. 멍하니 수업을 들었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오늘은 만석이 근처에서 먹어야지.

“수업.... 끝!”

만석이 어디 있지? 응? 보통 여자애들이랑 같이 먹는 만석이가 가방을 매고 밖으로 나간다. 따라가 봐야겠다. 현관 쪽으로 간다. 밖에는 진석이가 있다.

“진석아!”

만석이가 진석이를 부른다. 설마? 애기소리가 잘 안 들린다. 벤치 쪽으로 간다. 그때 만석이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이럴 수가 데이트? 만석이 입 옆에 밥풀이 붙었다. 설마... 안 돼!!

“아~ 진석이 어디 있지?”

진석이랑 같이 다니는 양아치다.

“진석이 봤어?”

“.....”

“왜 말이 없어?”

“바... 밖에..”

“어 땡큐. 진석아~”

양아치가 밖으로 나간다. 용기 내어 말한 게 고작 “밖에 있어.”라니 참. 만석이의 사랑을 방해하면서 까지 말하다니. 어떻게 됐나 볼까?

“오늘은 안 아파. 밥 먹으러 가자.”

진석이가 갑자기 들어온다.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나도 밥을 먹으러 간다. 뭐지? 만석이는 어떻게 하고? 다행히 데이트가 아니었나 보다. 만석이는 혼자 먹고 있을까봐 걱정되지만 보러 갈 용기가 없다. 와서 먹겠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만석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끝내 오지 않았다. 진석이 이 자식 뭘 한거야! 웬일로 진석이기도 가위바위보를 안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나간다. 권투장이나 가야지.

가자마자 동혁이가 줄넘기 하지 말고 거울로 가자 길래 고민하다 갔는데, 진석이랑 아저씨도 있었다. 이제는 붕대 감는 것도 익숙해 졌다.

관장님이 와 큰 목소리로 말한다.

“잠깐.”

걸렸나?

“이제 단합 겸 서로 인사.”

“왜요?”

진석이가 묻는다. 역시 서슴없이 말하는군.

“계속 다니려면 서로 알고 그래야지.”

“아...안녕하세요.”

내가 들어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이름을 알려줘야지. 여긴 진석이 여긴.... 동혁이가 이 중에서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다 우석이가 앞으로 오자.”

“제가요?”

“응.”

부담스럽게 왜 앞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왔다.

“자 앞을 보고. 1명 3명, 이렇게 2팀으로 2번씩 번갈아 가면서 구령 제일 크게 하는 쪽은 내가 붕어빵 쏜다.”

“자 런닝 스탭 시작!”

말이 안 나왔다. 아니 정확히는 작게 말했다. 몸도 안 움직였다.

“우석이 다시!”

“하..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혼자 막 소리 지르기엔 아직...

“크게 크게 안 해? 팔굽혀펴기 10회 몇 회?”

“10회?”

나 때문에 하나보다.

“다시 시~작!”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이번엔 두 눈을 꼭 감고했다. 조금 있다 종이 울렸다. 이번에도 내가 구령을 먼저 외치나 보다.

“하나!”

“아 잠깐. 더 크게 해야지 우석아 배우 한다며. 배우가 목소리가 커야지.”

또 저 소리다.

“하나둘셋넷!!!”

권투가 끝나고 관장님이 내가 나가는데 따라온다.

“수고했다. 우석아.”

“가...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붕어빵을 받고 가려는데 삼촌 생일파티인걸 까먹고 있었다. 붕어빵을 입에 물고 뛰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고기 집에서 파티를 했다. 옷에 냄새 베면 어떡하지? 파티가 끝나고 사촌 집으로 갔다.

“우석아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지?”

조금 꺼려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응...”

일단 피씨 방을 갔다. 대부분 친구들인지 인사를 한다.

“여긴 내 사촌이야.”

사촌 친구들이 나를 보지만 못 본 척 게임을 했다.

“이제 그만할까?”

“그래.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애들 좀 찾고.”

한쪽 구석에 있었다. 어디로 이동한다. 어딘지 봤더니 노래방이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노래를 잘 안 부른다. 주현이 민철이랑 있을 때만 부르는데... 그리고 사촌 친구들이랑 있으니 할 말도 없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큰방 주세요.”

“안 돼. 두 개로 써.”

“얼마면 되요.”

사촌은 노래방 주인과 실랑이를 버린다. 그때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지.

“여보세요? 응... 응~ 야 나 가야 돼.”

뺑을 쳤다.

“아 지금? 알았어.”

“빠이~”

손을 흔들고 나왔다. 사촌이 뒤따라 왔다.

“야 애들이 인사하면 받아 줘야지.”

“아 진짜? 못 들었어.”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 뻔하다.

“저기서 버스타면 돼. 잘 가~”

“응~”

길을 건너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하아 하아... 이렇게 심장이 뛰긴 또 처음이다. 억울하고 후회되고 짜증나는 감정이 뒤섞인다. 그냥 놀걸 그랬나. 아니다. 잘 한 거다. 내가 왜 그렇게 피했는지 억울해 눈물이 살짝 고인다. 갑자기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눈물을 몰래 닦는다. 원래 사촌 집에서 자기로 했지만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오늘 만석이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말 좀 걸어볼까? 오늘 쌤이 중요한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 당당해 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 한번 거는 건 괜찮겠지?

“저기~”

뺑사리가 나버렸다.

“푸하하하하.”

만석이가 웃는다. 재밌나? 따라 웃어야겠다.

“하하하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웃겨줘서 고마워. 근데 왜?”

뭐라 해야 되지?

“어... 그... 어... 기분이 안 좋아보여서 웃겨주려고 그랬어... 근데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어... 그게... 차였다고만 말해 줄게.”

분명 진석이 일 것이다.

“니.. 니가? 왜..? 예쁘고...”

“하하하. 빈말이라도 고마워. 내가 싫나 보지...”

“히... 힘내! 바.. 밥 먹고!”

후다닥 교실을 나왔다. 아 이게 뭐야 짜질이 같이. 히...힘내! 바.. 밥 먹고! 그래도 만석이가 웃겨줘서 좋다. 설마 만석이와 러브러브 되는 건가? 둘이~ 손잡고~

“야! 권투가자!”

권투장을 가는 길 진석이가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저 나쁜 놈. 근데 걸음걸이가 양아치들이랑 있던 때랑 조금 다르다. 진석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침을 뱉고 꺾렁꺾렁하게 걷는다. 뭐야 재. 같은 버스를 탔지만 말은 한 마디도 안 했다. 오늘 아저씨는 안 왔나 보다.

“자 우리 배우. 힘차게! 하나!”

“넵!”

만석이 때문에 기분이 좋으니 구령이 절로 나왔다. 관장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근데 진석이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만석이를 왜...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다.

“자... 이번 주 주말에 뭐 있는 사람?”

“.....”

“그럼 놀이공원가자!”

놀이공원?

“선생님 저...”

“간다고? 알았어. 우석인?”

“....그”

“오케이! 다 가는 걸로. 아 동혁인?”

“당연히 코올이죠!”

“그럼 내가 내일 한석씨한테 말 할게. 잘 가~”

제멋대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 적응을 잘 못한다. 예전에 영어 캠프를 갔었는데 거의 멀뚱멀뚱 피하기만 하다 왔다. 그래도 진석이와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고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몫쓸 병을. 만석이와 만나려면...

아침부터 분주하게 머리를 만졌다. 노래 좀 틀까?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만석이가 이제 날 알아봐 주기 시작했다. 아 좀 이상한데... 물을 묻혀... 아 더 이상해졌잖아. 머리를 다시 헹클어놓고 정돈했다. 처음이 가장 나았다. 밖에 나가 보니 하였던 길가가 원 상태로 돌아왔다. 눈이 다 녹은 모양이다. 군데군데 웅덩이가 조금씩 있고 구석에만 더러운 눈이 조금 쌓여 있다. 학교로 들어와 교실로 뛰어갔다. 만석이도 일찍 등교하던데 있겠지? 어? 교실로 들어가니 만석이가 없었다. 아직 안온 모양이다. 소설 타이밍에선 이럴 때 진석이가 만석이를 가져가지. 그때 노래가 바뀌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조금 불안하다. 아침조회를 할 때 즈음 만석이가 들어왔다. 얼굴에 홍조가 띄워진 채로.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노래 때문이지 더 불안했다. 얼마 후면 헤드폰이 와. 안 쓸 이어폰을 뺐다. 이번 점심시간에도 따라가 봐야겠다. 이번에도 여자애들이랑 같이 안 나가고 혼자 나간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또 밖으로 나간다.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 같다. 안 봐도 뻔하다. 진석이 일 것이다. 난 안 볼 거다.. 볼 용기가 없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도 없다. 갑자기 동혁이가 생각난

다. 핸드폰을 꺼낸다.

“야. 뭐해?”

“나? 학교지. 나 밥 먹어야 됴.”

“그래? 끝어.”

아 동혁이도 학교이겠구나. 노래나 들어야겠다. 팔베개.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지만 지금 들으니 멜로디가 너무 슬프다. 음악을 고르던 중 동혁이가 추천한 노래가 눈에 띈다. 어찌라고 x발 x도... 노래를 듣다. 처음부터 욕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

“씨발...”

사실 차인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세컨드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 보다 더 슬픈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가볼까? 진석이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이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때 만석이가 들어온다. 예쁜 보조개를 하고 들어온다. 밖으로 나가보니 진석이와 그때 그 양아치 한명이 있다.

“.....”

“어? 너 여기서 뭐하냐? 밥 안 먹어?”

진석이가 말을 건다. 지금 누구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응.”

차갑게 말했다.

“어... 빨리 먹어. 선호야 먹으러 가자.”

“그래~”

저 양아치 이름이 선호 인가 보다. 진석이와 선호가 들어간다. 그래. 밥이 잘 넘어가겠지. 배도 고프고 짜증난다.

“아아아악!”

소리를 질렀다. 밥을 먹으려 들어가는데 진석이가 뛰어 나간다. 또 조퇴인가보다. 만석이가 걱정하겠지? 더 짜증난 상태로 밥을 먹으니 밥이 잘 넘어간다. 더럽게 맛있다. 우리학교 급식이 맛있긴 하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아까보다는 짜증이 덜하다. 빨리 먹어서 그런지 물을 먹게 된다. 이럴 때 축복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지만 난 포기 못한다. 그래도 포기 못하면 어쩔 건가. 용기 있는 자가 여자를 차지한다더니 옛말에 틀린 게 없나보다.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었으면.

“야. 권투가자...”

“예~스”

동혁이는 항상 밝다.

어찌라고 x발 x도~

“자 모이세요!”

오늘은 한석아저씨도 온 모양이다.

“이번엔 주먹을 나갈 거예요. 런닝스텝할 때...”

주먹이 나가면 혹시 왼손잡이 인걸 말해야 되는 건가?

“아 저.....”

“왜?”

“혹시..... 외...왼손잡이인거... 말... 해야 되요?”

“당연하지 임마! 그걸 안 말했어? 아 소심해가지고 에이 그럼 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왼쪽으로 해.”

먼저 처음부터 안 물어봤으니 말 안 하는건 당연하다. 소심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낀다는데.

“하...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목소리 크게! 주먹 똑바로 뻗었다 빨리 들어와.”

나는 소심하지 않다.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오우... 잘한다. 다음은 진석이....”

잘하나 보자...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이렇게요?”

“썸... 생각보다 못하는데?”

이로서 권투는 내가 이겼다.

“하나둘셋넷!!!”

기를 누르려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하아... 하아... 흠흠.”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아프다. 물을 마시려는데 진석이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간다. 동혁이와 그냥 나간다.

“놀이공원이요???”

관장님이 아저씨에게 말해주나 보다. 저 아저씨는 뭐지? 권투 할 때도 잘 못하던데.

“야 오늘은 너네 집에서 자자”

“우리 집? 그래.”

오랜만에 동혁이네 집으로 갔다.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

“넌 좋아하는 사람은.”

“몰라.”

“애니 좋아하지?”

“응 ㅋㅋㅋ.”

“야 너 막 애니 보고 그러면 애들 뭐라 안 해? 덕후다 뭐다.”

“그러긴 하는데 뭘 상관이야. 내가 본다는데.”

“야 그래도... 그럼 남이 질투 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

“있어. 근데 질투만 하면 뭐해. 개가 날 질투할 수도 있고 질투만 해서 돌아오는 건 없어. 난 나를 사랑 하거든. 쪽쪽”

자기 팔에 뽀뽀를 한다. 동혁이는 자기를 많이 사랑하나보다. 그리고 자유롭기도 하다. 저번엔 히말라야 도 갔다 왔다. 나한테도 가자했지만 갈 용기가 없었다. 나보다 남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다르게 행동해야 되나.

“아아아아아악!!!”

드디어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 이름이 오즈... 뭐였지? 어쨌든 오즈 어쨌구다. 친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 니 딱히 적응이 안 되지는 않았다. 롤러코스터는 처음 타본다.

“아아아아아악!!!”

옆에 아저씨가 귀 아프게 계속 소리를 짹짹지른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안전 바를 꼭 잡았다.

“어? 저거 해요!”

동혁이가 사격을 가르킨다. 해본적은 없지만 재미있겠다.

“이렇게 조준해서 쏘시면 돼요. 3000점 넘으면 거대인형 드립니다~”

거대인형... 만석이도 인형을 좋아하겠지?

“탕수육 내기?”

“콜!”

탕! 탕! 동혁이랑 관장님이 퍼스트로 쏜다. 나도 쏘볼까? 진석이를 보니 아예 안 쏘고 있었다. 그때 주인이 진석이에게 간다.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탕! 탕! 탕! 진석이가 의외로 못한다.

“탕수육 사세요.”

“와~~~”

꿀지는 퍼스트로 쓴 관장님이셨다.

“그럼 일단 중국집으로 가죠?”

“아 여기 고량주 2병 주세요~”

고량주? 그 고량주를 말하는 것인가?

“관장님 두병이요? 애들도 먹이게요?”

“에이~ 뭐 어때~”

“아니 청소년은 술을...”

어떤 맛일까?

“아아아아!! 탕수육 부으면 어떡해!!”

“먹어. 먹어.”

관장님이 말한다.

“아 네...”

앞에 아저씨가 서운한 표정을 짓는다. 왜 저러지?

“자 한잔씩 건배~!”

“건배~!”

“와~ 우석이 성격이랑 달리 화끈하게 먹는데?”

한 번에 들이켰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나도 화끈한 성격인데.

“너네 한잔만 먹어라. 아주 썸 술이거든.”

“여기 한 병 더요!”

“관장님!”

“관장님... 일어나세요.”

“아이 놔! 임마. 내가 임마. 너 치료 잘해주지 마. 나 덕분이다.”

관장님이 많이 취하신 모양이다. 내가

“으으음...”

진석이가 께다.

“아... 야 여기 어디냐.”

“너네집 가고 있는 중.”

만석이에 대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이 기회야.

“야... 너 만...”

“야 너 만석이 좋아하냐?”

내가 말하려는데 진석이가 먼저 말한다.

“어떻게 알았어?”

“선호가 말해주더라. 근데 포기해라. 선호와 만석이랑 사귄다.”

“선호? 니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선호라면 진석이랑 같이 다니던 양아치다.

“나도 좋아했는데... 놓쳤어... 으흐흐흑.”

갑자기 진석이가 운다. 아 울컥하네.

“울지 마... 으흐흐흑. 만석아 으흑,”

“야... 잘 가.”

진석이네 집에 도착했다.

“응. 동지.”

만석이는 양아치들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야 우석아.”

“응?”

“너도 내가 양아치처럼 보여?”

진석이가 갑자기 우리 반에 와 내 옆에 앉아 말한다. 장난인줄 알았는데 표정은 심각하다.

“왜?”

“사실.....”

진석이가 목소리를 낮춘다.

“진짜? 양아치인척 한 거야?”

들어보니 양아치 인척을 했다는 거다. 근데 흥내는 잘 냈다. 커서 배우나 같이 하자. 나만 주위사람들을 의식한 게 아니었다.

“야 나 좀 도와줘.”

“어떻게?”

진석이의 작전은 내가 진석이를 때려눕히고 진석이의 위상이 낮아져 양아치 흥내를 안내는 뭐 그런 거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의 이목이 우리한테 집중될 것이다. 언제나 이런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지만 진석이는 진짜 괜찮을까?

“야 여기서 하자.”

학교 복도다.

“때려?”

“몰라...”

“야 지금?”

“모..몰라 나한테 묻지 마.”

“한다?”

“해!”

퍽! 헉. 때리는 시늉을 하는 건데 진짜 때려버렸다.

“아!”

진석이가 쓰러진다. 입모양으로 진짜 때리면 어떡하냐고 한다. 나도 입모양으로 미안 이라 한다. 조금 더 액션을 과격하게 하니 애들이 몰려들었다.

“야! 여기 싸움 났다!”

우리를 가운데로 원을 그리며 둘러싼다. 애들이 더 몰려올수록 우리는 더욱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 안 아프게 때리기. 일부러 소리 크게 내기. 이러고 있으니 배우가 된 기분이다.

“야! 너네 뭐해!”

아차. 선생님이 있다는 걸 예상 못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교무실로 불러갔다.

“각자 반성문 써와.”

가짜로 싸워서 인지 진석이에게 상처가 없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좀 허술하게 작전을 실행했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야 이정도면 됐겠지?”

“그런 듯.”

짹. 하이파이브를 했다.

“야 근데 진짜 때리면 어떡하냐. 아 퍽 아파.”

퍽을 문지르며 말한다.

“미안. 실수.”

이제 소문이 날것이다. 소문이 나는 건 순식간이니 진석이도 이제 좀 편해지려나? 그럼 난 양아치를 이긴 의문의 학생이 되는 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권투장에서 봐~”

진석이와 인사를 하고 각자 교실로 돌아갔다. 애들이 날보고 웅성거린다.

“야 너 양아치랑 붙어서 이겼다며?”

“와 대박. 어떻게 이겼냐?”

한 번도 말을 안 해본 애들이 말을 건다. 이참에 친해지자. 나는 되도 안 되는 무용담을 펼쳤다. 개가 주먹을 날렸는데 피해서 카운터를 먹었다는 등. 의외로 하체가 약해서 발차기를 하니 넘어졌다는 등. 그래도 이런 대화가 싫진 않았다.

“야 학교로 와. 만나서 가자.”

동혁이에게 학교로 오라고 했다. 진석이랑도 같이 가야지. 진석을 찾으러 가는 중 화장실에서 선효와 진석이가 나왔다.

“어... 안녕.”

선효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

선효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준다. 전혀 양아치 같진 않다.

“야... 마.. 만석이랑 오래가라!”

한마디를 툭 던졌다. 심장이 빨리 뛴다. 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다.

“하하하. 고마워. 난 만석이 보러가야겠다. 빠이.”

선효가 가고 진석이랑만 남았다.

“괜찮아 보이는데? 만석이랑 사귀어도 되겠어.”

말을 걸어도 진석이가 멍하게 있다.

“야 왜 그래.”

걱정이 되어 물었다.

“어..어? 아냐. 야 양아치가 어떤 거야?”

“양아치? 너 같이 음... 머리 염색하고... 아 근데 양아치 나름이지.”

“그치?”

“형아~”

밖에서 소리가 난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동혁이가 손을 흔들고 있다.

“형아! 나와!”

소리를 지른다. 안 창피한가.

“나갈게!!!”

나도 소리를 지른다. 지르고 나니 재밌었다.

“가자.”

진석이랑 밖으로 나갔다. 동혁이가 흠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야 뭐해. 가자.”

“오키.”

동혁이가 일어난다.

버스에 타 맨 뒷자리에 앉았다.

“누군지 알지?”

진석을 가르키며 물었다.

“당연하지 진석이 형이잖아.”

“야 너도...”

진석이랑 동혁이랑 얘기를 한다.

“야 이번 정류장이다.

때영

“자 모이세요....”

이제는 거울 앞으로 모이는 게 익숙해 졌다.. 할 때 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특히 우석이!”

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지만 대충 알겠다. 멋쩍게 웃는다.

“자 잠깐. 왜 런닝스텝을 배우느냐. 아니 이 훈련들이 다 의미가 있어. 일단 짹 할 때처럼 해봐. 그리고 해봐. 하나둘셋넷 하나. 여기서 한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해봐.”

“하나둘셋넷 하나!”

자동으로 소리가 질러진다.

“오 그렇지.”

맞나보네.

“자 봐봐. 만약에 성추행 범이 너를 덮치려고 해! 그럴 때...”

“관장님 남잔데 어떻게 성추행 범이 덮쳐요?”

동혁이가 묻는다.

“임마. 게이일수도 있고 몰라 알아서 상상해. 다시. 덮치려고 해! 그럴 때 짹을 나가는 거지. 하나둘셋넷 하나! 앞발이 나가면서. 그러면 복부를 치겠지! 그 다음에 어떡해?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가는데 계단을 올라가야되. 그럴 때 런닝스텝 배웠잖아. 그렇게 빨리 올라가서 도망가는 거지. 어때?”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를 했다. 뭐 듣고 보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스파링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스파링이라면 실전경기처럼 연습으로 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책임 안 진다. 얻어터져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스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야 영화 보러 가자!”

내가 이런 걸 제안하기는 또 처음인거 같다. 진석과 동혁이가 흔쾌히 받아줬다.

“내가 표 끊을게.”

동혁이가 말한다.

“야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싶었다. 동혁이에게 내가 한다고 말하고 번호표를 끊었다. 그리고 15세 영화라 동혁이가 하면 안 될 것이다. 111번... 어 나다.

“어.. 저...”

막상 하려하니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래도 해야 한다. 영화표 갖고 찢찢매는 것도 웃기다.

“3명이요!!!”

크게 말했다. 직원이 놀란 듯하다.

“아 저... 무슨 영화...”

아차 영화 제목을 안 말했구나. 영화표를 끊고 팝콘을 산 진석과 동혁이랑 만났다.

“이제 올라가자. 시간 거의 다 됐다.”

와... 영화를 다보고 나니 감동 이었다. 너무 재밌는데? 물개처럼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묵묵

히 나가니 나도 조용히 나갔다.

“야 완전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 결말도 깔끔하고 좋네.”

영화관에 좀 더 있다 오락실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 1시간을 더 놀고 왔다. 그중에서 화면을 보고 발판을 밟으면서 춤추는 게 있었는데 동혁이가 엄청 잘했다. 살짝 우스꽝스럽기 했지만.

“내일봐~”

인사를 하고 다 각자 집으로 갔다. 이번 정류장이네. 문이 닫히려 한다.

“저기요...”

옆에서 어떤 학생이 찢찢매고 있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크게 말했다. 그제 서야 문이 열렸다. 뒤에 학생이 후다닥 내린다. 왜 저러지. 비웃는 듯한 헛웃음이 나온다. 생각해보니 예전 내 모습이 웃기긴 하다.

“자 수업 끝!”

수업이 끝나고 하굣길에 진석이를 만났다.

“야 맞다. 내가 여기 벽 넘다가 넘어졌었다.”

옆에 벽을 가리키며 말한다. 넘은 것도 대단하다. 약간 높은 벽이었다.

“여기서 만석이 한테 욕했었나? 하도 많이 해서...”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야 이제 안 그럼 됐지.”

위로 겸 말했다.

“암마!!!!”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옆 학교 애들이다. 진석이를 보니 표정 굳어있다.

“암마!!! 너!!! 진석 너!!”

진석이를 부른다. 보아하니 친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는 애들이야?”

“야...”

“응?”

“튀어!”

진석이가 갑자기 뛰다. 나도 일단 뛰고 본다. 애들도 따라온다.

“어 갈림길이네.”

“나뉘져서 가!”

나는 오른쪽 진석이는 왼쪽으로 도망갔다.

“허억... 허억...”

숨이 차 뒤를 돌아보니 나한테는 한명밖에 안 왔다. 괜히 죽기살기로 도망쳤다.

“야 너 진석이랑 한패야?”

나보다 키가 꽤 큰 놈이 말했다.

“아니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경직 되서 말했다.

“그래?”

“네...”

돌아간다. 왜 도망쳤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화가 나 돌아가는 놈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 그때 갑자기 멈춰 돌아선다. 재빨리 손을 숨긴다.

“야 너!”

“네?”

그리고 보니 초면에 반말이다. 보아하니 같은 나이인거 같은데.

“진짜 아니지?”

“네...”

“아씨 그럼 왜 따라 온 거야. 재수 없게...”

재수 없게? 재수 없는 건 나다.

“아니 근데 왜 초면에 반말이야....”

“뭐?”

실수인지 고의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말해버렸다.

“뭐라고?”

망했다. 이럴 때는 그냥 썰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반말이냐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물론 꿈쩍도 안한다.

“하 참 웃기는 놈이네. 아 기분도 안 좋은데 잘됐다.”

소매를 걷으며 온다. 아 어찌지.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래 난 권투도 배웠다고. 이길 수 있어. 권투 배운 걸 생각해보니 그것밖에 없었다. 거의 다 다가와 나를 한 대 칠 기세다. 주먹을 쥐고 가볍게 뛰었다. 아랑곳 하지 않고 다가온다.

“아씨... 하나둘셋넷 하나!”

배운 대로 한발은 앞으로 나가며 주먹으로 복부를 쳤다. 아니 복부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키가 커서인지 조금 아래에 맞은 모양이다. 미안하네... 그 놈이 꼬꾸라져 바닥에 누웠다.

“미안!!”

빨리 달렸다. 가다보니 진석이랑 만났다.

“어?”

“어?”

“너 뭐냐.”

“몰라 빨리 달려!”

계속 뛰다보니 뒤에 따라오는 애들을 따돌린 모양이다.

“야 나한테 한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어찌다 싸웠는데 영 안 좋은 곳에 맞았어. ㅋㅋㅋ.”

“그래? 어떻게 됐는데?”

진석이가 웃으며 묻는다.

“완전 꼬꾸라졌어. 와 진짜 제대로 맞았는데 괜찮을까?”

“그러게... 남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ㅋㅋ.”

“야 바로 권투장으로 갈래?”

“그래.”

때옹

“자 모이세요.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한석씨가 오늘까지 밖에 못 다닌 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뽉세게 합니다.”

아 이름이 한석 이였구나.

“자 하나둘셋넷.”

“하나둘셋... 아 맞다 관장님. 저 오늘...”

관장님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엄청 웃는다. 특히 거기에 맞았다는 부분에서 쓰러질 정도로 웃는다.

“하하하하하. 하아.. 하아...”

웃다가 힘든지 숨을 고른다.

“야 그 정도면 스팅도 해도 되겠다. 스팅 할 때도 거기.. ㅋㅋㅋ.”

다시 웃는다. 안 지치나보다.

“야 진석이랑 우석이랑 해볼래?”

“네?”

진석이랑? 그래도 재는 양아치는 아니지만 양아치인척을 했으면 싸움도 많이 해봤을 것이다.

“그러쥬 뭐.”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거니 괜찮다.

“그럼 일주일 뒤에 스팅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하는 게 아니예요?”

“주먹도 잘 못 날리잖아. 일주일동안이라도 연습하고 하는 걸로.”

“안녕히 계세요.”

권투장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자의 자존심에 은근히 불을 지폈다. 집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도 진석이는 양아치였던 애다.

“엄마!”

“왜?”

“닭 가슴살 좀.”

그 이후로 거의 닭 가슴살만 먹어 목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때옹. 드디어 결전의 날....

“자... 시작!”

“그냥 그렇게 시작해요?”

“응!”

시작하고 나니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탐색전인 듯 눈치만 본다. 내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 그때 진석이기도 주먹을 날린다. 유명한 그 한 장면처럼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한명이 쓰러지는... 펙! 진석이가 주먹을 맞고 쓰러진다. 나는 맞지도 않았다. 다시 일어나지만 주먹을 피하지도 못한다. 정말 양아치인 척이었나 보다. 때옹. 결국 내가 이겼다. 일주일 고생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났다. 그래도 수고했다 해야지.

“야 수고했다.”

“그래... 하얏게 불태웠어...”

“뭘래.”

스팡이 끝나고 관장님이 밥을 사준다 해 중국집으로 갔다. 동혁이가 데려가 달라 졸라서 동혁이도 같이 왔다. 이번엔 다 짬뽕 이었다.

“여기 고량주....”

관장님이 또 술을 시킨다. 술 고래인가보다.

“얌마. 알콜테라피라고 들어봤냐? 내가 그걸로 마.”

술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한다. 나도 술을 좋아하지만 그건 아니다. 다행히 쓰러지지진 않았다. 애들이랑 만 있어 그런 거 같다.

“잘 가~”

관장님이 손을 흔들며 권투장 쪽으로 간다. 권투장이 집은 아니실 거다. 어쨌든 다 각자 흩어지기로 했다.

스텝 바이 스텝~ 우 베이베~

교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몇몇 생들이 춤을 추고 있다.

“하아... 하아... 아 힘들어”

밥 먹고 나서 바로 취서 그런지 배가 아프다.

“하아.. 하아... 여보세요?”

쉬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다.

“어~ 우석아! 왜 이렇게 숨이 거치냐? 한석 아저씨 왔어. 한번 놀자! 진석이랑 동혁이도 데리고 와!”

“네~”

“야 진석아. 관장님이 놀이공원 가재.”

“또? 오키.”

진석이는 숨도 안 차는지 잘만 대답한다.

“우리가 자석도 아닌데 왜 너한테 이끌리는 걸까? 나는 너한테 비싼 선물은 줄 수 없지만 꼭 껴안아 줄 수는 있어. 그리고....”

옆에서는 옆 반 애가 만석이에게 고백을 한다. 뭐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만석이랑 선호는 헤어졌다. 웬지는 모른다. 그래서 다시 만석을 좋아하게 됐다. 짝사랑이 운명인가 보다. 권투는 연기 학원이랑 시간이 겹쳐 그만두게 됐다. 그리고 소설이 완성 되었다. 그렇다. 오즈의 마법사를 모토로 한 소설. 권투장을 다닌 덕에 더 잘 써졌다. 7초음엔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자발성이고 이러한 자발성이 성취될 때 숨은 강함과 불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두려운 게 없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거나 그 두려운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자신감 과다증이거나.

“관장님 통이 크시네. 탕수육을 맨날 쏘시고.”

“이상하네...”

오늘도 관장님이 지셨다.

오늘은 비가 와 놀이기구는 많이 못 탔다. 진석을 데려다주려는데 애들이랑 놀러가야 된다고 혼자 갔다. 그래서 동혁이랑 지하철을 탔다.

“야 너 권투 다니냐?”

“아니?”

동혁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왜?”

“그냥~ 내리자!”

지하철에서 내려 내 집으로 갔다.

“오늘도 자게?”

“예~스.”

“야 내일 학교 안가니까 자전거나 타러 갈래?”

“그래.”

동혁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말한다. 이번에는 다른 책이다.

아 형 나 이번에 또 히말라야 가는데 같이 갈래?”

“어? 그거 네팔에 있는 거지.”

“응. 네팔? 즈흐흐하하하.”

“음... 생각해보고~”

저번에 못 갔던 히말라야. 등산보다 몇 배는 힘들겠지? 히말라야... 이미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오즈의 마법인가?

2. 가짜 양아치

퍽 퍽

“씨발!!!”

골목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몇 명이 싸운다.

“허억 허억... 다 덤벼 드루와.”

망했다. 우리 쪽이 수가 딸린다. 그래도 애들 앞이라고 잘난 척은 하는데 딱 봐도 질 것 같다.

“어이! 거기 학생들~”

어? 경찰이다. 지금이다!

“야 튀어! 너네 다음에 보면 뒤흔다.”

이틈을 타 도망간다. 센척하는 멘트도 잊지 않는다. 뛰다보니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갈라져서 도망가기로 했다. 내 쪽엔 두명이나 붙는다. 에휴... 이런데 힘쓰지 말고 더 제대로 된 데에 힘 좀 쓰지.

“거기안서!”

누가 저 말에 대답을 하나. 씹고 더 빨리 달린다. 앞에 담이 보인다. 도움닫기를 한 후 뛴다.

“이얏! 어? 어어어어 비켜!”

담을 넘으니 앞에 우리학교 교복을 입은 긴 머리에 웨이브를 하고 살짝 갈색머리에 사슴 같은 눈, 오톡한 코, 조금 작은 앵두 같은 입술. 그렇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예쁘다고 하는 그 소녀. 내가 좋아하는 만석이다. 이름이 때문에 좀 깨긴 하지만 이름이 뭐 중요한가. 지금 담을 넘어 그 여자 아니 소녀 아니 사랑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시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나오는 위에 딱 넘어져서 로맨틱하게 쪽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가?

“비켜!”

“깽!”

쿵. 떨어졌다. 생각보다 딱딱하다. 옆에 앉아있는 만석이와 만석이의 웃고 있는 나이키 신발이 보인다. 내가 떨어진 곳은 아스팔트 바닥 이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만석이에게 8)크로스라인을 걸었다. 어떻게 일어날지 고민했지만 애들에게 알려진 나대로 행동하면 된다. 벌떡 일어났다.

“아 씨발 왜 앞에있고 난리야...”

나는 바지를 툭툭 털고 다시 뛰었다. 가다가 그 길이 안보이자 멈췄다.

“.....”

말이 안 나온다. 또 맘에 있지도 않은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다 이미지 때문이다. 난 초등학교 때 왕따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놀며 욕, 폭력을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양아치 수준 이었다. 그렇게 중2를 보내고 중3이 되자 정신이 차려졌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되도 안 되는 가오, 입에 붙은 욕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했다. 아니 노력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양아치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고 실제로도 책을 읽고 조금 진지해지니 미쳤냐며 오길래 “그냥 한번 봐봤어.” 라고 변명했었다. 아까 싸움도 원해서 하지 않았고 욕도 진심은 아니지만 입에 붙었다. 집에 있을 때만 원래의 나로 행동하고 밖에서는 양아치로 행동한다. 아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다. 우리학교 사람이나 친구와 있거나 학교 근처에서만 그렇게 행동한다. 학교 근처 음식점이나 가게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한다. 나는 다시 친구가 없어 질까봐 두렵다.

“하아... 집이나 가야지.”

하룻길에 싸운 거라 집으로 가야한다. 책도 읽어야한다. 아 내 집은 반대쪽이지. 뒤를 도는 순간 만석이가 보인다. 만석이도 나를 본 모양이다.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했다. 나는 양아치니까. 자신 있게 살짝 리듬을 타며 걷는다. 이대로 가면 어깨가 부딪친다. 그래도 그대로 걷는다. 툭. 어깨가 부딪친다.

“아!”

만석이가 어깨를 잡는다. 많이 아픈가?

8) 레슬링기술 중 하나로 자신 또는 상대가 로프반동을 한 후 돌아올 때 팔로 목을 강하게 치는 기술.
출처. <http://cafe.naver.com/thewrestling/220870>

“아씨... 짜증나게...”

한번 켜려보고 다시 걷는다.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니 만석이도 다시 길을 간다. 만석이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집에 도착했다. 집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차려주고 나간 밥이 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는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일행들이 갖고 싶은걸 갖기 위해 오즈를 찾으러 여행을 한다. 똑딱똑딱. 시계소리가 크게 들린다. 만석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양아치? 난 그런 애가 아닌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해져 책을 덮는다. 배가 고프다. 반찬은 고등어다. 밥을 다 먹고 드라마 다시보기를 한다. 나랑 친한 애들은 드라마를 안 봐서 얘기를 못한다. 한다면 야동얘기 정도다. 한창 드라마에 빠져 보다 시간을 보니 벌써 1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자야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를 않는다. 잡생각이 너무 많아 문제다. 만석이랑 단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잘해줘야겠다. 눈이 감긴다.

졸린 눈을 겨우 뜨니 시간은 7시 30분이다. 일어나야 되는데 씻기도 귀찮고 너무 졸리다. 그냥 켜고 늦어야겠다. 몇 번 늦었으니 늦어도 또 그러려니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좋은 점이 있다. 아니 좋은 점이 아닌데. 다시 눈이 감긴다.

다시 눈을 뜨니 12시였다. 점심이라도 먹으러 가자. 늦은 김에 샤워를 한다. 따듯한 물이 느낌이 좋다. 다 씻고 나오니 15분이 지났다. 학교도 15분 정도 걸린다. 얼른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밖으로 나가니 흰색의 아름다운 결정들, 마치 만석이가 내리는 듯하다. 다시 집에 들어가 장갑과 목도리를 챙긴다. 시계를 보니 12시 20분. 밥은 먹겠네. 쌓인 눈을 밟으며 가니 뽀득뽀득 소리가 듣기 좋다. 학교에 도착하니 40분이였다. 하얀 곳이 있으면 밟고 오다 보니 더 늦었다. 자연스럽게 교실에 가방을 놔두고 밥을 먹으러 간다. 급식을 받고 둘러보니 애들이 손을 흔든다. 애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 앉는다.

“야 오늘 늦었네. 뭐 한 두 번도 아니지 하하하”

“맞아 이 새끼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늦었어.”

한 놈은 짱 먹으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민다. 한번 웃어주고 밥을 먹는다. 저쪽에 만석이가 보인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 특히 보조개가. 톱.

“아!”

돌아봤더니 이름 모를 애가 나를 치고 갔다. 물론 실수 같다. 하지만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애들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화내야지.

“야.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벌떡 일어나 그 애의 어깨를 잡아 내 쪽으로 돌린 후 말했다. 그 애의 눈동자엔 불안감이 가득하다. 더욱 쏘아 봤다.

“미안해... 실수로 쳤나봐.”

나도 알지. 알아... 아는데 어쩔 수가 없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보고 다녀라.”

일부러 눈을 무섭게 뜬다.

“응... 미안해...”

그 애가 다시 가는걸 보고 자리에 앉았다.

“야 저 새끼 완전 쫄았다. ㅋㅋ.”

“나이스~”

“야 가자.”

하이파이브 하는 걸 받아주고 일어났다. 밥을 다 먹고 거의 가위바위보로 식판 몰아주기를 한다. 빠지려고 하니 계속 하자해 손을 내밀었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아아악!”

“예에에에에!”

함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온다. 가위바위보를 이겨 식판을 놔두고 이긴 애들과 같이 교실로 간다. 교실에 가니 창밖으로 눈이 펄펄 내리는 게 보이고 하얀 별판처럼 눈이 쌓인 게 보인다.

“야 눈도 오는데 매점가자.”

“뭘 개소리야. 미친 ㅋㅋㅋ.”

두 놈이 웃는다.

“쿨.”

피식 웃고 매점으로 향하는 중 주머니를 만지니 지갑이 없다.

“야 나 지갑 놓고 와서 지갑 좀 가져 올게 먼저 가있어!”

교실로 달려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다. 숨을 고르며 창문을 보니 만석이가 눈덩이를 만들고 있다. 친구들이랑 노나 보네. 나도 잠시 밖에 나가 볼까? 애들한테 좀 늦었다고 하면 되니까 밖으로 향한다. 만석이가 친구들이랑 뛰며 놀고 있다. 만석이에게 눈덩이를 한 번에 던지고 다 도망간다. 능청스레 만석이 쪽으로 갔다. 그때 만석이가 내 쪽으로 달려오다 넘어졌다.

“깹!”

“어? 괜찮아?”

친구들도 저쪽으로 가고 아무도 없으니 일으켜도 되겠다 싶어 손을 잡아 주려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 진석아!”

아 설마... 돌아보니 선호다.

“거기서 뭐해?”

다가온다.

“으...응?”

“뭐하냐고.”

옆 까지 왔다.

“응? 그게..”

선호가 이상하게 본다. 지금 만석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니 그럴 수밖에.

“개 손은 왜 잡고 있냐?”

“아~ 이년이 나한테 부딪쳐서 존나 욕하고 있었지. 아 그러고 보니 내 손은 왜 잡고 있어? 기분 나쁘게.”

내가 바도 어색하게 손을 뿌리치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야 기분 풀어.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매점이나 가자.”

선호에게 이끌려 걸어갔다. 다시 만석이에게 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일으켜주고 싶다. 돌아보니 만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지켜보던 친구들이 가서 만석이를 일으킨다.

“야 신경 쓰지마. 재 원래 양아치잖아.”

친구가 하는 말이 얼핏 들려온다.

“야 선호야. 나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쌤한테 아프다고 조퇴하겠다고 좀 전해줘.”

“아 괜찮아? 알았어. 전해줄게. 가서 쉬어라~ 아 너 라이터 있냐?”

“없어. 내일봐~”

“응~”

마음이 착잡하다. 하... 결국 또 만석이에게 안 좋게 대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선호 새끼 때문이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로써 만석이는 나를 완벽한 양아치에 존나 어이없는 놈으로 볼 거다. 집에 가서 드라마나 봐야겠다.

“하하하하하.”

드라마 속은 즐거운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온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하아..... 아 이 병신. 왜 그랬어. 아씨.”

깊은 한숨이 나온다. 잠시 누워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으로 들어가니 만석이 사진이 있다. 예쁘다. 사진을 지운다. 이제 필요 없는 사진이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조깅이나 해야지. 옷을 갈아입고 조깅

을 하러 나갔다. 아까보다 눈이 더 온다. 조금 뛰어볼까? 뛰다보니 거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이대로 쪽 가서 집으로 곧바로 가야겠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뛰려는데 때엥.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곳을 보니 한 건물이 있었다. 건물을 보던 중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뭐 하는데 인지 물어봐야겠다.

“저... 저기가 뭐하는 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권투 다녀요.”

“아... 감사합니다.”

아 권투장이구나. 그린보이 보면서 해보고 싶긴 했는데. 다시 집 쪽으로 뛰었다.

“허억 허억”

다시 뛰던 중 전단지가 보인다.

권투 엔 상담 학생부터 일반주부들까지 할 수 있는 복싱 다이어트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전문 다 드루와.

뭐지. “드루와.”라니. 상담이랑 권투를 동시에 하는 데인듯하다. 잘 보니 아까 거기다. 집이랑 가깝네. 전단지를 한 장 줍고 다시 집으로 갔다.

“도착~~!”

집으로 들어가 씻고 침대에 누워 다시 그 전단지를 본다. 학교근처긴 한데 학교 옆에 권투장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학교 사람도 없고 괜찮겠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 권투 생각에 들뜨긴 했지만 다시 만석이 생각이 난다. 그냥 잊자.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를 했다. 선생님이 양호실에 있으라 했지만 집이 아니면 잘 못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왔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권투장을 어떻게 가는지 보니 버스를 타도되는 모양이다. 몇 정거장 안 되지만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어제 조깅을 해서인지 조금 빠르다. 버스카드 임시 등록기간 지났는지 성인요금으로 찍힌다. 오늘 가서 해야겠다. 자리에 앉아 그린보이를 보니 금방 도착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다. 지금 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류장이다. 내리려는데 지갑이 없다. 지갑이 계속 말썹이네. 지갑을 찾고 내리려는데 문이 닫힌다.

“저기요...”

옆에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찢찢매고 있다. 우리학교 교복이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또 지랄해야겠다.

“아놔... 저기요! 사람내리잖아요. 문 열어요!”

일부러 짜증을 내며 말하고 내렸다. 우리학교 사람은 곤란하니 일부러 빨리 걸었다. 약도를 따라와 보니 어제 그 권투장이 나왔다. 건물로 들어갈 때 또 때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권투장 소리였구나... 계단을 올라 권투장에 들어갔다. 좀 더 들어가니 문이 열려 있는 방이 있었다. 들어가니 30대 중반 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다. 관장님이신가 보다.

“어 무슨 일 땀에 왔어? 권투?”

주먹을 휘두른다.

“상담?”

“아... 권투요.”

“봉대 값도 들고 글로브는 나중에. 그리고 다닐 때...”

정말 말이 많다. 명함을 받고 종이를 줬다. 종이를 훑어보고 서랍에 넣는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그리고 머리가 그게 뭐냐. 니가 무슨 깡패냐?”

“하하하”

그냥 웃는다. 좀 애매해요.

“안녕히 계세요.”

“응~”

나가는데 아까 그 우리학교 학생이 보인다. 아씨... 여길 왜 와... 일부러 문을 쿵 닫고 나간다. 학생이

들어가고 나서 문에 귀를 대봤다. 나랑 똑같은 애기를 한다. 한명 정도면 적당히 시간 봐서 피하면 되겠다. 운동이나 하고 잘까?

배가 고팠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이 왔다. 오늘은 급식 아주머니 분들이 안 바쁘신가 보다.

“얼마나 줄까?”

“보통이요.”

오늘은 늦지 않았다. 더 이상 늦고 싶지도 않다. 애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한 뒤 교실로 갔다. 또 밖에 눈이 펄펄 온다. 애들은 눈싸움 안하나?

“진석아! 매점가자!”

“야 밖에 눈 온다.”

눈싸움 하자 하겠지?

“그래? 아 개 चु겠네. 야 빨리 와.”

이런... 실패다. 애네는 동심도 없나, 눈싸움을 하는 것을 못 봤다. 학교가 끝났다.

“하아...”

지친다. 지쳐. 하지만 난 친구가 없어봤기 때문에 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 나무꾼이 심장을 찾는 것처럼 무엇보다 그것이 절실한 거다. 심장을 찾은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놓지 않겠지. 노란 벽돌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초록색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다시 책을 읽는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노란 벽돌 길이 나온다. 초록 침대도. 하지만 오즈만 없다. 다른 책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초등학교 때 앨범이 있다. 사진을 찍는데 나만 약간 떨어져 있다. 웃음도 어색하다. 일학년 때 사진을 보니 딱 붙어 어깨동무를 하고 어색하지 않은 밝은 웃음을 하고 있다. 앨범을 덮고 티비를 켜다. 티비가 바보상자는 맞나보다. 계속 보게 된다. 하지만 티비를 보면 해피 엔딩이 많다. 그래서 티비가 좋다. 드라마를 두 편 즈음 봤을 무렵 전화가 왔다.

“야! 저번에 개들 있지? 개들이 싸움 걸었어! 빨리 와!”

항상 이렇게 싸우곤 한다. 우리가 자주 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개네가 나타나 비키라고 했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다. 펑! 펑! 골목길에 도착하니 벌써 싸우고 있었다.

“이 씨발! 어? 진석아! 빨리 와!”

사실 난 싸움을 잘 못한다. 그냥 내가 덩치가 좀 크고 힘이 썩 것 같이 보여 싸울 때 상대가 먼저 쫓다. 그럴 때 난.

“드루와.”

이 말만 하면 된다. 그럼 무지하게 쫓다. 그래도 덤비는 애들이 있다. 그럴 때 선호가 도와준다. 선호는 이 학교에 와 처음 사귀 친구다. 선호가 먼저 다가와 쫓고 선호랑 친해지니 다른 애들 이랑도 자연스레 친해지게 됐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양아치들에 비해 심한 편이 아니다.

“어휴... 야 담배 있냐?”

항상 싸우고 나면 다 담배를 핀다. 아마도 다 필 것이다. 나는 몸에 안 좋아 안 핀다.

“야 나 먼저 갈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온다. 권투에 가면 또 우리학교 학생을 만날 것이다. 그냥 오늘은 쉬자. 집이 최고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만석이를 못 본거 같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만나고 싶겠나. 만석이랑 친구 둘 중 선택하라면 친구를 택할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서도 생각했다. 도로시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여행을 계속 했다. 혼자인건 싫다. 그래서 양철 나무꾼이 불쌍했다. 1년 동안 혼자 서있었다니. 아니 내가 더 불쌍한가? 책을 덮고 이불도 덮었다.

“야! 지금 빨리 와!!!”

선호의 다급한 목소리다.

“또?”

무슨 일 있나?

“허억... 허억...”

빨리 뛰어가 보니 애들이 심하게 다쳐있었다.

“야 일단 119 불러.”

한명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한명은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한다. 구급차가 왔다. 많이 심한가 보다.

“뭐야?”

“몰라... 저번에 개네는 아니고 딴 학교 애들이야. 아까 싸우고 나서 계속 골목길에 있었는데 다른 놈들이 와서 싸운 것 같아.”

“.....”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리 내가 양아치인척만 한다 해도 이건 너무 심했다. 재들은 엄연히 내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저렇게...

“자 오늘은...”

어째 만석이가 안보이네... 애들도 보이지 않는다. 입원을 했나 보다.

“선효야. 나 먼저 갈게.”

권투장을 가려는데 딴 학교 애들인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어? 저 교복 어제 우리가 바른 애들 교복 아니냐?”

“크크크. 그런 듯. 개네 완전 울고불고 그만해달라고~ 내 친구들 오면 너넨 끝난다고~ 하다 개네가 끝났지 하하.”

어제 그 놈들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새끼도 불러 볼까? 야! 이리 와봐!”

나를 부른다. 다리도 떨린다.

“야 이 새끼 다리 떠다. 애네 학교는 다 똑같나봐.”

퍽! 순간 나도 모르게 그놈 얼굴을 쳤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그리고 도망쳤다.

“하아... 하아...”

한 대 치니 속이 후련했다. 저런 놈은 더 맞아야 하는데 내가 싸움을 못 하니 이 정도로 만족하자. 애들이 계속 따라온다. 저번에 넘었던 벽을 다시 넘어 골목길로 들어갔다.

“뭐야 어디 갔어?”

다행히 못 봤나 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학생을 만났다. 바로 뒤따라. 아이 또 양아치인척 해야겠네.

“자 일단 줄넘기 하고 거울로 와서.....”

줄넘기를 다하고 거울로 갔다.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 아저씨가 있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권투장에 개가 있으니 조금 건들건들 한다.

“.....”

말이 없다. 뭐야? 제자리 뛰기 빨리하면 되나? 엄청 빨리 뛰었다. 하아... 조금 힘드네.

“누가 그렇게 하래!”

관장님이 오신다. 관장님이 오셔서 다시 알려 주신다.

“무릎을 더 높이고...”

“안녕히 계세요.”

“응~ 양아치처럼 하지 말고.”

무슨 말이지? 내가 양아치인척 하는 걸 안다는 건가?

“네.”

대충 대답하고 나왔다. 한쪽에 봉어빵이 보인다. 하지만 떡볶이가 땡긴다. 골목길을 나오니 분식집이 있

었다. 들어가려 하는데 안에 만석이가 보인다.

“뭐 줄까?”

“오뎅이요...”

그냥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어묵을 시켰다. 어묵 국물을 들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늦어 머리 못 감았다. 황금색 스냅 백을 쓰고 학교에 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툭. 공책을 꺼내려던 중 어떤 쪽지가 떨어졌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와줘... 만석이?? 요즘 누가 쪽지로 한단 말인가. 그냥 장난일 것 같다. 장난이라도 좋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친구란. 무엇일까... 누가 말해볼까?”

“친한 척 하며 구라치는 놈이요!”

“하하하하하.”

“친한 척 하며 구라치는 놈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갈 사랑이랑 또 다른 우정입니다. 잠시 무슨 일로 틀어진다든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뭘 해도 용서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길....”

뭐래...

“자 수업 끝.”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설마 만석이가 오겠어... 그러면서 걸음은 빨라진다. 밖으로 나오니 아무도 없었다. 역시 장난인가 보다.

“진석아!”

설마하며 뒤를 돌아보니 만석이다.

“응?”

“쪽지 때문에 놀랐.....”

내가 무슨 얘기를 놔뒀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혼미하다. 만석이가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만들었나 보다. 낭만적이게 눈이 내린다. 데이트인가? 그때 만석이 입에 밥풀이 붙었다.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간다. 심장이 빨리 뛴다.

“진석아~”

또 선호다. 자동적으로 도시락을 숨겼다. 만석이의 이상한 눈초리가 느껴진다.

“뭐하고 있냐? 오늘도 아파?”

“오늘은 안 아파. 밥 먹으러 가자.”

만석이를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만석이 표정이 안 좋다.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 권투장 갈 때 본 그 애가 있었다. 무시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만석이가 오지 않는다. 가위바위보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다 귀찮다.

“야 라이터 있냐?”

“아니.”

난 라이터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오키. 판 애한테 빌려야지. 어 선호야. 라이터 있어?”

“아니 나 담배 끊음.”

“아 그럼 누구한테 빌리지.”

“야 너 왜 담배 끊었냐? 양아치면 담배도 피워줘야지.”

“뭐래. 그런 식이면 양아치 안한다.”

양아치는 담배를 피워야 하는 줄 알고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해왔는데 꼭 피워야 하는 건 아니었나 보다.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피는데. 선호는 자기만의 법칙, 세상이 있나보다. 그런 식이면 안 하겠다니.

때옹.

“어~ 왔어? 준비해. 저기 짐 놓고....”

줄넘기를 하고 거울 쪽으로 가니 어떤 아저씨가 있었다. 우리학교 애도 온다.

관장님이 와 큰 목소리로 말한다.

“잠깐 그만하고 서세요.”

“이제 단합 검 서로 인사.”

“왜요?”

“말했잖아. 단합 검. 그리고 계속 다니려면 서로 알고 그래야지.”

“이름을 알려줘야지 여긴 우석이.....”

재 이름이 우석이였나 보다.

“진석이 똑바로 해야지!”

우석이 옆이니 건들건들 거렸다.

“애가 왜 흐물흐물 거려? 빨리 해!”

관장님은 날 양아치나 날라리로 생각하지 않나보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석아. 넌 왜 양아치니?”

관장님이 뜬금없이 물었다.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 못하고 나왔다. 당연하다. 양아치가 아니니.

오늘은 등교하기 싫다. 어제를 생각하니 후회된다.

“아 야 나 여친 생김.”

선호가 늦게 등교 해 방금 자리에 앉아 말했다.

“누구?”

“비밀. 내일 알려줄게. 빠이~”

“응~”

선호와 인사를 하고 바로 권투를 하러 갔다. 여친이 생겼다고? 권투를 가려 학교에서 나왔다.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뒤를 돌아보니 우석이가 있었다. 우석이도 권투가나 보다. 자세히 보니 나를 찌려보고 있었다. 왜 저래. 아 맞다. 양아치인척. 일부러 침을 튕 뱉고 걸음걸이를 바꿨다. 지겹다.

“자 우리 배우.”

관장님이 말하신다. 우석이 꿈이 배우인가 보다.

“놀이공원가자!”

물을 마시고 오니 갑자기 놀이공원이 뭔가.

“선생님 저...”

“알았어.”

말도 안했는데 가는 게 되 버렸다.

“야 놀자.”

다 씻고 나오니 애들이 부른다.

“그래.”

나갔다 오면 다시 씻어야 되지만 놀자고 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여 피씨 방에 있다가 노래방을 갔다. 들어보면 잘 부르는 애들은 없다. 그래도 재밌다. 역시 난 이렇게 이 애들과 노는 게 좋다. 이것이 익숙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왕따를 당했을 때 나는 계속 혼자 있었다. 아니 5학년 때 까지는 잘 지냈지만 친구와 불화가 생겼다. 둘 다 쉽게 화해를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런 우리 둘을 보다 나한테서 등을 돌렸다. 다른 친구랑 만 친하게 지냈다. 개랑 더 친했던 모양이다.

“야 뭐해 니 차례야.”

“응?”

멍을 때리고 있다 마이크를 받았다.

“와~ 오늘 겁나 잘 불러진다.”

노래방에서 나왔다.

“담배 피러 가자.”

나랑 선호만 남았다.

“야 너 오늘 왜 학교 늦게 왔냐?”

“응? 엄마랑 아빠가 또 싸워서...”

선호 엄마 아빠는 거의 이혼까지 할 기세다. 선호는 그 중간에 끼여 말리려하지만 선호 말은 듣지 않는다. 선호가 양아치가 된 계기도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부터 계속 싸워왔는데 왜 지금까지 이혼을 안 하는지는 의문이다.

“야 먼저 갈래?”

“그래 문자 남기고 가자.”

애들한테 문자를 남기고 선호랑 먼저 돌아갔다.

“야 너 걸음걸이가 왜 그러냐?”

선호가 걸다가 말한다.

“응? 양아치니까...”

선호가 웃고 먼저 걸어간다.

“그냥 걸으면 되지 그게 뭐냐? 나 간다~”

“응...”

나도 집으로 가야겠다.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나?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연습한 걸음걸이 이다. 아무도 없으니 평소 걸음걸이로 걸었다.

“야 오늘 소개시켜주지.”

선호가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소곤소곤 말했다.

“야... 너 능력 있다.”

나도 소곤소곤 말했다. 얼마 전에 예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번에 또 사귀는 거다. 드디어 점심시간 이다. 선호가 따라오라고 한다.

“짤!”

“안녕..?”

밖으로 나와 여자친구를 소개한... 내가 분명 잘못 본 것이다. 왜 만석이가 앉아있는 것인가. 얘기를 들어보니 만석이가 나한테 그렇게 당할 때 선호가 계속 위로를 해주다 사귀게 됐다고 한다.

“아 그 우석인가? 개 만석이 좋아하는 거 같던데. 너랑 권투 같이 다니지? 니가 좀 말해주라.”

선호가 웃으며 말한다.

“그래. 개 불쌍하다. 하하하.”

억지로 웃는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선호가 말한다. 물론 만석이도 같이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니 우석이가 있었다.

“.....”

“어? 너 여기서 뭐하냐? 밥 안 먹어?”

괜히 안부를 묻고 우석을 뒤로 한 채 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먹으러 가는 길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선호가 좋은 놈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던 애가 옆에서 내 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짜증이 났다.

“야 나 조퇴한다고 좀 알려줘.”

바로 뛰어 나갔다.

“어? 야! 어디 아파?”

우석을 지나쳐 밖으로 계속 뛰어갔다. 내가 양아치인척만 안 했어도... 회색 벽돌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이불속에서 울어보긴 처음이다.

어제 울고 바로 자서인지 눈이 조금 부었다.

“자 모이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한다. 옆에서 우석이가 먼저 한다. 다음은 난가? 딱히 센척할 필요 없다. 제대로 배우자.

“이렇게요?”

옆에는 아저씨와 관장님이 기뻐한다. 저 아저씨 뭐지?

“안녕히 계세요.”

배꼽인사를 하고 나왔다. 오랜만에 웃어본다. 권투 할 때는 그냥 보통 학생 같다. 양아치인척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꼭 양아치가 아니어도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내일 2시까지 놀이공원으로 가야한다. 오늘은 조금 늦게 자도 되겠다. 오즈의 마법사를 다 읽겠어.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탔지만 관람차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사격을 하며 괜히 통명스레 말을 하고 다시 췌다.

“짜장면3개 짬뽕2개요.”

“동혁스 오늘 좀 맞네?”

“예~스”

아 어지러워. 술을 먹으니 졸리다.

“아... 야 여기 어디냐.”

“너네집 가고 있는 중.”

지금 말할까?

“야... 너 만...”

“야 너 만석이 좋아하냐?”

우석이와 얘기를 나누며 평평 울었다. 정말 여러 남자 울린다. 이러면 안 되지만 선호와 만석이가 계속 사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양아치인척 그만해야지. 근데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

“야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니가 날 때려 그러면....”

어제 결국 이 작전 때문에 새벽에 잠을 잤다.

“아!”

우석이가 진짜 내 턱을 쳤다. 정신이 혼미하다. 얼마 안되 교무실로 불러갔다. 이제 소문이 날것이다. 그럼 좀 괜찮겠지?

“권투장에서 봐~”

우석이와 인사를 하고 각자 교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선호를 만났다.

“야 너 우석이랑 싸웠냐?”

“아~ 조금? 내가 졌어.”

“너 원래 싸움 못하잖아.”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선호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작은 걸 해결하고 그냥 나가려는데 선호가 손을 닦는다.

“야 양아치는 손 안 닦는 거 아니냐?”

“그런게 어딴어 병신아. ㅋㅋㅋ.”

선효가 웃으며 나간다. 그런 거였나? 애들이 이러는걸 보고 따라했다. 딱히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우석이가 있었다. 혹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더 과장된 거 아닐까?

“야... 마.. 만석이랑 오래가라!”

우석이가 말했다.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양아치라는 게 정의 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선효가 가고 있었다.

“야 왜 그래.”

우석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동혁이와 만나 버스를 탔다. 동혁이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넌 내가 양아치 같아?”

“몰라. 상관없는데?”

동혁이가 심드렁하게 말한다.

“니가 언제 상관있던 적은 있었냐.”

“언젠간. 즈흐흐하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영화? 좋지”

오늘 권투가 제일 제대로 됐다. 권투가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표는 우석이가 끊고 동혁이랑 내가 팝콘을 사기로 했다.

“야 너 뭐 마실래. 콜라? 사이다?”

“음.... 맥주.”

“뭐래.”

“즈흐흐하하. 콜라.”

“그럼 팝콘은... 갈릭 팬찮아?”

“이제 올라가자. 시간 거의 다 됐다.”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 아니 조금 와 닿았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하고 싶지 않지만 흉내를 내며 산다.

“하나둘셋~ 찰칵!”

좀 양아치 같지 않게 해보려 스티커사진을 찍자고 했다. 사실 찍어보고 싶기도 했다. 애들이 머뭇하더니 찍자고 했다.

“야 잘나왔나 보자.”

사진이 나왔다. 잘 나왔다.

“지갑에 넣어야겠다.”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양아치가 뭘 스티커 사진이냐 라고 누가 말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 오락실에서 1시간을 더 놀고 왔다. 주먹을 날려 강도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었는데 우석이가 이겼다.

“내일봐~”

버스에서 내리려 했는데 문이 닫히려 한다. 이제는 짜증내며 안 해도 된다.

“저기 문 좀 열어 주실래요?”

정중히 말했다. 내리고 나니 성취감에 기뻐다.

“엄마~!”

오늘도 늦게 오나 보다. 아빠는 바빠서 아예 안 올 때가 많다. 침대로 가 앨범을 폈다. 이제 자기 전 이게 일상이 된 거 같다. 그때 왜 그랬지 하는 후회도 있고 배신감도 있다. 내일 말해야겠다. 내가 양아치인 척을 했다는 걸. 이렇게 가다간 뭐도 아니게 된다. 일단 선효한테 말하자. 선효는 이해해줄지도 모른다.

“야 나 사실 양아치인척 했어.”

“언제부터?”

“음... 아마 이번 년도 계속....”

선효에게 내가 양아치인척을 한 걸 말했다. 선효는 놀라지 않고 들었다.

“하.... 안 놀라워?”

“당연하지 알고 있었어.”

“뭐??”

“야 니가 그렇게 과하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모르냐? 야 그렇게 양아치인척 안 해도 병신아 ㅋㅋㅋ.”
알고 있었다고?

“야 수업가자.”

선효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랑 계속 지낸 것이다.

“자 수업 끝!”

수업이 끝나고 하굣길에 우석이를 만났다. 가도 보니 만석이랑 부딪혔던 데가 나온다. 괜히 우울하다.
우석이가 위로하듯이 말한다.

“암마!!!!”

뭐지? 돌아보니 골목에서 싸웠던 애들이다. 망했다.

“튀어!”

우석이에게 말하고 짹짜게 달렸다. 역시 따라온다.

“어 갈림길이네.”

“나뉘져서 가!”

나는 왼쪽 우석이는 오른쪽으로 도망갔다.

“허억... 허억...”

나한테 거의 다 온 모양이다. 이럴 때 일수록 내가 해오던 데로 썸 적이 필요하다.

“이정도면 됐겠지... 후후.”

따라오던 놈들이 따라오다 멈춘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다. 우리끼리만 해결 하자고 피해주지 말고.”

“저 새끼가 뭐래.”

달려온다. 안 통하나 보다. 그냥 도망쳤다. 우석이도 중간에 만나 같이 도망쳤다.

때영

관장님이 아까 얘기를 듣고 웃는다.

“스파링이요??”

아까 그거 했다고 무슨 스파링인가. 그리고 그것을 한건 내가 아닌 우석이다.

“그럼 일주일 뒤에 스파링이 있겠습니까.”

또 멋대로 정해졌다. 그래도 내가 덩치가 더 크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안녕히 계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운동을 했다. 애들한테 싸우는 법도 배우고 권투장도 열심히 다녔다. 운동을 하다 거울을 보니 웬지 몸도 좋아진 거 같다. 이정도면 이길 수 있다. 예전처럼 꺾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속도 있다.

“억!”

주먹을 한 대 맞았다. 다시 일어났다.

“억! 악! 욱!”

여러 가지 신음소리를 내며 계속 맞았다. 때영. 결국 내가졌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졌다.

“그래... 하얗게 불태웠어...”

생각해 보니 이 대사를 더 많이 연습했다. 스파링이 끝나고 관장님이 밥을 사준다 해 중국집으로 갔다.
이 다음에도 애들이랑 약속이 있다. 애들도 알까?

“야~ 애들아~”

“어이~ 가짜 양아치~”

선효가 말했나 보다. 원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뭐래... 그래도 양아치는 양아치거든. 이제 괜찮냐?”

저번에 다쳤던 애들도 왔다. 다행이네.

“그럼 당연하지. 그럼 왜 왔겠냐? 야 놀러가자.”

“그럼 놀러왔지 왜 왔겠냐. ㅋㅋ.”

일단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피하기도 한다.

“야 근데 양아치인척을 어떻게 한 거냐?”

“아... 계속 연구 했지. 알려줄까?”

“응.”

“일단 걸음걸이를 이렇게...”

“야 그게 뭐냐. 푸하하하.”

진심으로 비웃는 거 같다.

“야 얼마나 연습한건데...”

“아 그리고?”

“그리고? 오줌 싸고 손을 안 닦아.”

“그래? 원래 다 그렇지 않아?”

“선효는 안 그러더라고.”

“잘가~”

애들과 다 놀고 집으로 왔다.

“진석아.”

“어? 아빠?”

아빠가 왔다.

“내일 여행가자. 오랜만에 바쁜 아빠가 시간이 된댄다.”

엄마가 말한다. 그런 거면 아빠가 말해야 되지 않나?

“너 그 머리가 그게 뭐니?”

아빠가 보자마자 또 잔소리를 한다.

“아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너 담배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저도 철들었어요...”

“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냐?”

“어휴 참...”

아빠가 말하자 엄마가 말린다. 말릴 필요 없는데.

“이젠 친구 많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스텝바이 스텝~

옆이 계속 신경 쓰인다. 만석이에게 고백을 하다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야 관장님이 놀자는데?”

“오키. 야 담배 피러 가자.”

담배 맛을 알아버렸다. 선효는 만석이랑 헤어지고 다시 핀다. 그래도 다시 만석이를 좋아하게 됐다. 이제는 욕을 하지도 일부러 뿌리치지도 무시하지도 않아도 된다. 만석이가 나를 좋아해줄까가 문제지만. 친구들도 더 사귀었다. 특히 주현이랑 친해졌다. 권투는 스팅을 한 후 엄마가 그만 다니게 했다. 몰래 조

금 더 다녔지만 걸려서 1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 우석이는 소설을 썼단다. 읽어봤더니 재밌다.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읽어보니 더 재밌었다. 아 그리고 머리로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했다.

오즈월드에도 또 왔다. 범퍼카를 탔는데 운전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계속 기둥에 박았다.

오늘도 잤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아니 정말 조금만 마셨다. 내가 만석이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만석아!”

“어?”

만석이를 만났다.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보러왔다. 로맨스영화였다. 엔딩에 여주와 남주가 키스를 했다. 괜히 만석이를 힐끗 보게 된다.

“이제 뭐할까?”

“스티커 사진 찍자.”

이번에도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하나둘셋~”

사진을 찍기 전 만석이에게 조금씩 붙었다. 어깨동무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까이 있는 걸로도 만족했다. 두 번째 스티커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만석아 오늘 따라 예쁘네.”

영화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말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정말 예뻐 보인다.

“지금 작업 거는 거야?”

“그럼 이게 다리 거는 걸로 보여?”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면 좋다고 봤다. 만석이가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웃는다. 이제 진정한 심장을 찾은 느낌이다. 걸어가던 중 한쪽에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학생이 침을 뱉으며 지나간다.

“잘 가 만석아~”

“응~”

만석이랑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갔다. 좋아 내일 좀 고백하면 되려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진석아...”

“누구세요?”

“나야... 김다겸.”

....다겸이? 초등학교 동창 다겸이? 그때 그?

“왜.”

“미안해. 이제야 생각이 났어. 아직까지 화해를 못한걸. 니가 나 때문에 왕따를 당한 거 알아. 사실 내가 그러자고 했거든. 미안해.”

“괜찮아.”

이젠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고마워. 아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모임 있는 거 알아? 애들 다 온데. 예전에 놀던 그 계곡에서 모인다는데 너도 올 거지?”

“당연하지.”

사실은 시원하게 욕을 하고 싶지만 참았다. 이제는 모든 게 잘 되었으니. 노란색 벽돌 길을 따라 집으로 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보가 회색으로 바뀌었다. 다시 앨범을 펼쳐본다. 다시 보니 다겸이가 사진을 찍을 때 나를 보고 있었다. 뭐 초등학교 때는 서로 안 지려고 들 하지... 앨범을 덮고 책장에 꽂으려는데 오즈의 마법사 책이 보였다. 책을 펼쳐보니 중요한 부분만 연필로 그어놓은 표시가 있다. 거의 다 양

철 나무꾼의 얘기이다. 양철 나무꾼이 심장을 얻고 다시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 고백을 했는지 궁금하다. 했으면 좋겠다. 그 여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냉장고를 열어보니 콜라가 없다. 나는 콜라 마니아다. 사와야지.

“암마!”

응? 누구지?

“너 잘 만났다.”

저번에 쫓아오던 놈들이다.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거기서!”

“나 이제 안 싸워!!”

안 들리는지 계속 쫓아온다. 아이씨. 선호한테 전화하자.

“여보세요?”

“야! 저번에 개네! 다른 학교! 개네가 나 지금 쫓아오고 있어!”

“어딘데?”

“여기...”

선호에게 말하고 골목길로 들어서니 막다른 길이었다.

“야 너 잘 만났다. 내 코빼를 부러트려?”

“후... 후후후 이정도 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겠지? 덤벼. 치사하게 다 같이 하지 말고.”

“오~ 좋아 다이다이 콜.”

코빼 부러졌던 놈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거의 다 올 때... 하나둘셋넷 하나! 퍽!

“악!”

복부를 맞더니 꼬꾸라진다. 아니 복부보다 밑인 거 같다. 우석이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다른 놈들이 나를 덮치려고 한다.

“진석아!”

선호 목소리? 선호가 애들을 데리고 천사같이 나타난다. 오 지저스. 후광이 비치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수가 더 많아서 인지 이겼다. 특히 저번에 다쳤던 애들이 제대로 복수를 했다.

“야 나 무서워 뒤흔치는 줄 알았어. 으흐흐”

“야 근데 쟤 왜 그러냐?”

아직도 누워 있었다.

“아... 내가 남자로서 할 도리가 아닌 짓을 했거든.”

“응?”

“있어. 하하.”

“잘가~”

각자 집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우니 바로 잠이 오는 거 같다. 안 꽂아 놓은 책들이 올려져 있다. 다시 종간을 펼쳐 본다. 계곡에서 논 사진이다. 오즈의 마법사 책도 핀다. 양철 나무꾼이 나온다. 양철이라 물놀이 하면 녹슬텐데... 크크. 책을 덮고 이불을 덮었다.

“애들아~”

“어? 진석아~”

3. 커피 타는 사람

한석씨, 커피 좀.

한석씨, 이게 뭐야 다시 해와.

하... 한석씨! 진짜 매번 이럴 거야? 한석씨는 잘하는 게 뭐야?

자네... 우리회사에 커피 타러 들어왔나?

한석씨... 한석씨...

“한석씨!!!!!!”

“죄송해요!!”

어라 여기가 어디지? 분명 회사였는데... 흔들리지 않는 침대위에 일정한 무늬가 있는 누가 보면 어지럽다고 할 벽지로 덮힌 벽, 날 깨운 문턱에 서있는 아내... 분명 집이다.

“아휴... 또 악몽 꾸셨어요?? 나와서 밥 좀 드세요.”

대답을 하려 응이라는 단어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필터링이 잘못됐는지 소리가 선풍기소리에 묻혔다. 한숨을 쉬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몸이 축축했다. 역시 땀을 흘린 것이다. 이제야 알아채곤 옷을 벗었다. 회색 런닝구는 등산이라든가 한 듯 열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워낙 깨끗한 것을 좋아하다보니 몸이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그대로 들어갔다. 집은 30평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예전엔 100평이나 되는 초호화 집에 가평에 별장까지 있었다. 그때 정말 주위눈치 안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졸지에 평범하다 못해 허름한 건물에 잘나지도 않은 상사 놈들 커피나 타고 있으니 이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샤워 실 따로 화장실 따로 쓰던 행동이 몸에 배어 이사 온 뒤로 항상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다 흠칫흠칫 하곤 한다. 옷을 다 벗고 물을 튼다. 아무리 손잡이를 뜨거운 쪽으로 해놔도 물이 차가운걸 보니 또 난방이 고장났나보다. 하긴 아파트가 40년도 더 됐으니. 재계발소리는 1년 전 내가 이사 왔을 무렵 주민들입에서 진작에 사라졌다. 뒤늦게 향의를 해보아도 “합니다. 합니다.” 이 소리밖에 듣지 못했다. 건물주인이 어지간히 잔돌이인가 보다. 다 찢고 나와 예전 회사에서 받았던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 보니 기분이 우울해 진다. 옷을 다 입었을 때 쯤 아내가 내 밥과 반찬을 남겨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작게 감사인사를 한 후 손가락을 들었다. 반찬은 그냥 평범한 밀반찬, 멸치볶음, 김치, 김 등등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아 맞다, 나 오늘 생일이지.’ 제 작년 생일엔 파티도 못할 만큼 바빴는데 작년부턴 생일파티를 할 수 있음에도 함께 해줄 사람은 몇 안됐다. 미역국을 한번 떠먹고 국이 짜다고 말하려고 할 때 쯤 아내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 앞에 앉아 먼저 말을 했다.

“요즘 더 안 좋아지신 거 같아요. 자꾸 다른 생각만 하시는 거 같고”

그러고 보니 요즘 더 안 좋아지긴 한 것 같다.. 난 완벽주의자로 완벽한 학력, 토익점수, 백으로 대기업에 들어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업무실적도 성격같이 완벽했고 연봉도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서 동기들보다 두배는 더 받았다. 이러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내고 대인관계도 완만했던 난 사장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연봉은 하루에 100만원씩 쌓이는 것처럼 점점 올랐고 운동, 노래 모든 걸 잘하던 난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사실 외모 덕도 있다. 그러던 중 이런 내 인생을 소설로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고학력자인 아버지의 서재를 들락날락거리며 밤을 새면서까지 책을 읽었고 이해력도 높아 스토리를 달달 외우고 다녔다. 그래서 회사에는 잠시 소설을 쓰려고 하니 휴가를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 역시나. 보통 회사원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나이기에 가능했다. 흔쾌히 허락을 받고 소설을 쓰기 위해 지은 가평에 있는 별장에 최고급 벤츠를 몰고 갔다. 거기서 지금 아내를 만났고 연애했던 완벽주의였던 난 내 방식대로만 연애를 했고 규칙도 정해 뒀다. 일단 애칭을 쓰기 싫었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걸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았다. 어쨌든 소설을 거의 다 써가며 주말에는 가끔 가평으로 가 아내를 만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소설을 완성했을 즈음 쉽게 찾을 수 있을 꺼라 생각한 아니 오히려 달라붙을 꺼라 생각했던 출판사가 다 내 원고를 읽고 무시하였다. 이 슈퍼 셀러리맨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멈칫 했지만 회사 인맥을 동원해 가장 친한 동기

인 기석이 아내에게 부탁해 책을 냈다. 기석이는 중학교 때부터 쪽 같이 다녔고 석이 두 개이니 두 개의 돌이란 뜻으로 투스톤이란 별명도 붙여졌다. 그렇게 책을 낸 후 돈을 왕창 쏟아 부어 광고를 했고 책이 아직 얼마 팔리지도 않았지만 잡지에도 내 책을 실으려 애썼다. 이제 몇 부 까지 돌파할지를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책은 전혀 팔리지 않았고 실패한적 없는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전혀 문제없는 고칠 데 하나 없는 소설이었기 때문이다. 광고로 들인 돈과 책을 쓰기 위해 지은 별장 등등 돈을 그냥 날려먹은 것이다. 그 후로 악몽도 꾸었고 그것 땀에 불면증까지 걸렸지만 치료됐다. 그래도 악몽은 가끔 꾸다. 그리고 회사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던 나는 더 완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만 못해도 자책을 하며 일을 실행하지 못했고 외국 바이어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렸다.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그 와중에 제일 고생한건 내 아내다. 소설을 냈을 때 아내와 결혼했고 나만의 법칙대로 화목한 신혼을 끝냈지만 소설이 안 팔리면서 나는 아내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로 잠자리도 잘 안됐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나는 회사에서 잘렸다. 벤츠는커녕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던 별장도 팔 수 밖에 없었고 집도 100평에서 50평 30평으로 줄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려 여러 가지 알바를 하였지만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실수를 할 것 같다 생각하니 더 실수하고 불안해 몇일 정도만 지나면 잘렸다. 그러던 중 난 생일을 맞았고 조촐한 생일파티에 와준 건 기석이 뿐 이었다. 그래도 난 기석이 앞에선 기세등등해 보이고 싶어 집을 예전처럼 꾸미려는 부질없는 짓을 했으나 기석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 이었다. 그때부터 였다. 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싫었다. 그렇게 안타까운 듯 보지마. 너도 내가 우습잖아. 웬지 실패자, 겁쟁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들이 싫었다. 여러 회사에 서류도 넣었다. 역시 스펙덕에 서류는 통과하였으나 2차면접때 잘 할 수 있을까?란 생각만 하면 실수하고 못할 것 같아 면접에 안 간적도 있다. 다행이 한군데 합격하긴 했지만 전에 비해 너무 작고 허름한 회사에 합격했다. 이름은 잭코. 이게 뭘 회산가. 그래도 직장 이 없는 것 보단 나았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난 '커피 타는 사람'이다. 그리고 놀이공원도 못 갈까봐 걱정이다. 어릴 때 한번 가보고 연애할 때 한번 가봤는데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다. 놀이기구 까지 못 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난 놀이기구가 무섭다.

“상담이라도 받아 봐요.”

터무니없는 소리다. 상담을 받아서 뭘 리가 있나.

“됐어 괜찮아, 그리고 소용도 없어.”

“그래도 한번만 받아 봐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말도 안되지만 치료를 받고 싶긴 하다. 그리고 가장 절실한 건 아내일지도... 애도 낳고 해야 하니.

“휴.. 알았어. 회사 끝나고 한번 들려볼게...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요~”

“한석씨! 여기 커피 타러 왔어!”

또 저 소리다. 난 저소리가 제일 싫다.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진짜 짜증나게 매번! 자기가 시켜놓고!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다. 이 회사에서도 잘리면 가망이 없다. 그리고 내 밑으로 후배도 있고 미스 최도 있다. 하지만 부장님은 나에게만 커피를 시킨다. 게이라는 소문도 있다. 혹시 날 좋아하나? 싸대기를 날려줄 것이다. 또 지옥 같은 회사가 끝나고 회식이 있지만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항상 퇴근길 지하철엔 사람이 많다. 툭. 그때 이어폰을 꽂고 있는 젊은 여성이 내 어깨를 쳤다.

“아 뭐예요? 아 재수 없어.”

“그쪽이 먼저 쳤잖아요!”

괜히 화풀이를 한 후 지하철에 탄다.

저글링때(게임 스타크레프트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몰려있는 것 같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터덜터덜 가는 길 골목에 상담이라고 써져 있는 전단지가 눈에 띄어 다가간다.

상담과 치료 전문.

희한하게 권투와 상담 치료를 같이 하는데 인가 보다. 내일 한번 가보기로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나왔어.”

“밥 드세요.”

“미안 피곤해서 먼저 잘게.”

이래저래 피곤하다. 하... 권투라... 솔직히 상담은 몰라도 권투는 절대 못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걸 한지 얼마나 됐는가.

“야. 너 뭐 그런 눈으로 봐? 너도 내가 우습냐?”

“뭐... 뭘 소리야 난 그저...”

“내가 없으니까 회사일이 다 너한테 들어오지? 아주 돈도 잘 벌리고 좋겠어.”

“야. 이한석. 그만해라. 그 글자 몇 개 써놓은 게 안 팔려서 그래?”

“글자 몇 개? 글자 몇 개!!! 말 똑바로 해. 그건 내 꿈 이였고 회사보다 중요한 거였어.”

“하... 동기로 들어와서 너만 집중 받고 나도 좇갔잖아. 근데 애가 소설이 안 팔리더니 갑자기 이상해 지 대? 계속 움추려서 병신같이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잘리고.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는데... 그래도 친구라고 걱정돼서 왔다. 근데 뭐? 이제 정신 좀 차리자.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야? 난 100번도 더 해 본 걸 고작 한번 같고 이래? 예휴... 병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하아... 하아...”

또 악몽이다.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뛴다. 잠시 멍을 때리다 씻으러 간다.

“나 갈게.”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상담.”

덜컹덜컹 덜컹덜컹 이번역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기적이.... 가는 내내 꿈 생각만 한 것 같다.

어? 이번역인가? 역에서 내려 조금 걷다가 골목길 하나만 지나니 권투장이 나왔다. 종치는 소리가 여기 까지 들린다. 어쨌든 집에서 많이 안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닐 수도 있겠다.

똑똑똑

“응~ 들어와.”

지극히 관장님 같은 말투다. 군대 같기도 하고... 들어가 보니 코가 약간 높고 쌍꺼풀이 있는 한 30대 초반 같아 보이는 사람이 티비를 보고 있었다. 연예인 누구를 닮은 것 같은데 항상 이럴 땐 생각이 잘 안 난다.

“어 반가워요 권투 다니는 애들인 줄 알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상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쫓다.

“상담이요...”

“여기 앉으세요.”

말없이 가르킨 의자에 앉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본다. 9시 50분. 응? 아 또 시간 설정 잘못됐나보다... 겨울이지만 주머니에 핸드폰을 오래 놔둬서 인지 따듯하네... 라는 생각을 할쯤 남자가 먼저 정적을 켜다.

“말하시면 되요.”

“네... 그...”

상담을 몇 번하면서 상담 할 때 말할 대사는 정해졌다.

“음 그러셨군요... 이런 경우야 많죠. 처음으로 실패의 쓴 맛을 보아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고는 하죠. 그리고 항상 최고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기 힘들죠. 그래도 최선을...”

살짝 웃으며 말한다.

뭐 저렇게 가볍게 말하지? 그것도 웃으면서... 그리고 저런 말은 수십 번도 더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려운 법이니깐요. 일단 그냥 한번 권투를 해보죠.”

앵? 이건 무슨 소리지? 갑자기 권투? 너무 뜬금없다.

“저 갑자기 권투를...”

“네 갑자기 일단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자신감엔 운동도 좋고 그리고 여기 권투하는 곳이에요. 1달에 13만원 계속 들으면 10만원. 이 계좌로 줘요.”

명함을 건네받는다. 지금까지 만나 본 상담사 중에 가장 허접하다. 상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투를 하게 하려고하는 상술인거 같다. 하지만 거절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권투를 하게 됐다.

“구경하고 싶으면 좀 있다 가시고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세요.”

활짝 웃는다.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럼 좀 구경 아니 그냥 가자.

“네...”

나지막히 말한 후 권투장에서 나와 골목길로 향했다.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 봉어빵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예요?”

“3개에 1000원. 총각 잘생겼네~ 내가 하나 더 줄게”

“감사합니다.”

피식 웃고는 봉어빵을 받아 골목길로 향한다. 봉어빵을 하나 집어 입에 넣는다.

“아 뜨거.”

“하아 하아” 입을 열고 봉어빵을 식힌다. 겨울엔 봉어빵 먹는게 낙이다. 아까 받은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본다. 구태희. 이름이 특이하네. 명함을 지갑에 넣는다.

고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언가를 하기 전 항상 그렇듯이 불안하다. 봉어빵을 하나 더 집어먹는다. 먹는 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는 것일까... 내일이 기대가 된다고 보단 걱정된다. 권투라...

“한석씨? 커피 좀.”

“네...”

“아 거 비닐로 젖지 말라했잖아요.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자 봐. 이렇게 스푼으로!”

짜증을 내며 자리로 돌아간다. 부장 몰래 침을 뱉는다. 튼.

“여기요...”

“고맙네... 침 같은거 뱉은건 아니겠지? 하하 커피맛이 좋네. 역시 한석씨야~”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내 엉덩이를 만진다. 뭐지? 진짜 게이였어 이 새끼. 손이 엉덩이에서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 치워 더러운 새끼야!”

“허억.... 허억....”

또 꿈이야... 뭐가 이렇게 생생해? 게이 부장이라니. 악몽을 꾸도 이런 더러운 꿈을 꾸요.

덜컹덜컹 이번 역은...

“아 한석씨 왔어? 이번 프리젠테이션 한석씨가 해줘야 할꺼 같애. 일 오랜만에 하지? 그래 나 커피 좀 타오고 일 시작해.”

“네? 아니 프리젠테이션은 노대리님이...”

“노대리가 아파서 못 나왔어. 그리고 또 한석씨가 능력도 있고.”

내가 무슨....

“...”

“왜 대답이 없어요?”

“네...”

“내가 뭘 능력이야...”

앉자마자 불만을 토한다. 컴퓨터를 켜다. 책상에는 혼자 끄적 된 아이디어들이 있고 컴퓨터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못한 피피티들과 자료들이 있다.

“한석씨 여기 이것 좀 받아가요!”

부장이 말을 한다.

“네~”

“어? 이거 누구 아이디어지? 아 한석씨꺼네... 뭐 가져가도 되겠지?”

자리로 돌아오니 여느 때와 똑같이 상사 중 한명이 내 아이디어를 가져간다. 잘하지도 않은 내 것을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한석씨. 한석씨가 피피티 좀 만들어줘요.”

부장님이 친히 여기까지 와 말하네.

“아 저... 그런 걸 잘 못해서...”

“에이... 한석씨 컴퓨터 좀 봐요. 자 이거..”

내 컴퓨터를 본다.

“오 이것들은 뭐예요?”

“그... 그냥 혼자 아이디어...”

“음.... 괜찮네요. 일단 가져가서 볼게요.”

뭐 가져가 봤자 도움도 안 될 것이다.

“피피티 좀 만들어줘요.”

“네... 이한석 사원입니다...”

분명 피피티는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저... 죄송합니다!”

발표 도중 도망 나왔다. 하아... 하아... 항상 이런 식이니까 커피만 타나보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니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번 피피티 누가 만든 거예요?”

보나마나 욕을 할 것이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주 수준급인데? 아 한석씨? 한석씨 어딴나?”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부장이 앉는다. 또 뭘 소리를 하려고...

“한석씨 디자인부서 어떻게 생각하나?”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한다. 디자인부서...? 난 예술 쪽은 쥐약이다. 소설도 그렇고.

“대단하죠...”

“이번에 회사 로고를 만든다는데 뭐... 어때?”

“네? 무슨 뜻이에요?”

“아 한석씨가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못하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건가? 폭탄 떠넘기듯? 난 선택권이 없다. 어차피 유령사원이다.

“괜찮네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 커피는 이제 안타도 되겠네. 하하하.”

다 먹지도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다.

“먼저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한석씨. 자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나?”

“제가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보다시피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허수아비 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친구인데 말이야... 디자인 부서에 가면 분명 잘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곧 퇴근시간이다.

“자 여러분 오늘 회식은 마음대로 들 하세요. 전 바빠서.”

부장이 말한다. 그냥 야근하라는 거잖아. 오늘 권투는 포기하자. 오늘이 이 부서에서의 마지막 야근이다.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어제 권투 다닌다고 간 사람인데요. 오늘 바빠서 내일 갈게요.”

“네.”

그래... 야근이나 하자. 어차피 일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로고를 내가 어떻게 만드나...

신호등이 켜지고 옆에선 연인들이 사랑을 나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니 가로등이 켜지고 차의 시동도 켜진다. 아이는 방향하며 엄마를 찾는다. 그것들을 지나 소화기를 지나 집 문의 비밀번호를 누른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은 늦게 왔네요. 상담 가셨어요?”

“아니 야근. 그리고 상담이 아니라 권투야.”

아 피곤하다. 침실로 들어간다. 아내가 따라 들어온다.

“일 하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뭘 일이야... 잘 거야.”

“.....”

오늘은 악몽을 안 꿔다. 대신 소설을 쓸 때 꿈이었다. 아니 이것도 악몽인가. 나는 웃고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늦었어요!”

“아 진짜? 나 갈게.”

머리도 못 감고 나왔다.

“한석씨.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디자인부서로 가시면 되요.”

“네...”

“어 한석씨. 어제 나 대신 발표해줬다며?”

노대리다.

“왜 대답이 없어. 어쨌든 고마워.”

“어? 한석씨 어디 가?”

항상 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박과장이다.

“아쉽네...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덕분에 고마웠어.”

욕만 드셨을 것이다. 디자인이라...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데... 근데 회사에 디자인실도 있나? 회사를 돌아다녀본다. 디자인팀이라 써져 있는 문이 있다. 푹푹.

“저기... 여기가 디자인...”

“아 네 맞아요. 이름이?”

“이한석입니다.”

“아 한석씨. 전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우리 회사 공간 중 가장 세련된 거 같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다.

“아 지금 아이디어 회의 중입니다. 한석씨도 참여 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일을 같이 하게 될 이한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앉으세요.”

아이디어 회의에 집중 했는지 건성으로 대답한다.

“이게 좋은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여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만 있을까? 로고 한번 볼까? 응?

“저... 저기요? 이거 완전 애플이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배로 하면 뭐가 달라요?”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우리가 삼성만 써가지고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엔 제대로 된거...?

“.....”

로고들이 다 짝퉁 뿐이었다. 나이키랑 비슷한 한쪽 꼬리가 내려간 로고. 퓨마가 아닌 치타. 용 2마리가 엉켜있는 쌍용 자동차를 연상하는 3마리. 뭐... 뭐지?

“저 아이디어 회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말을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하자는 말이 튀어나왔다.

“하. 그럼 그쪽이 내보시던가요. 이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그렇긴 하다.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닌가? 별론가?

“그럼.... 혹시... 이건 어때요? 회사 이름이 잭코니까. 잭. 살짝 넌센스로 해서 참새. 코는 피노키오...”

“에이~ 그것보다 그냥 피노키오 코 위에 참새가 앉아 있는 걸로 하자. 피노키오가 많이 유명하기도 하니까 친근감도 들것 같고 ”

“제가 말 하려....”

아 됐다. 어차피 만날 뺏기는 데 그리고 이게 될 리가...

“와~~~~~”

어라? 내 아이디어가 된 건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로고들이 별로여서 된 거 같다. 근데 김미영 팀장이란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앞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다른 사람들은 몰래 라도 하지... 회사에 안 다니면 분명히 어디 가서 사기나 치다 잡힐 것이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회의만 하고 끝났다. 이번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권투는 잘할 수 있을까?

때옹. 하나둘셋 하나, 둘둘셋 둘, 셋둘셋.....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현빈 저지가 아닌 검은색 저지다.

“여기에 봉대나 신발 놓으시면 되고 봉대 감는 법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감는 법이 생각보다 어렵다. 역시 이런 것도 못하나...

“까먹으시면 여기 벽에 방법이 붙어 있으니까 보고 하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부터 할게요.”

때옹

“저 종소리 있죠. 저 종이 2분에 한 번씩 올리는데 한번 올리면 30초 후에 다시 올리는데 그때 팔 벌려 뛰기 10회하고 30초 동안 쉬고 다시 2분 동안 하고. 처음엔 몸 좀 풀고 줄넘기부터 그리고 여기서 제자리 뛰기 하고 계단 앞뒤로 올랐다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런닝 스텝이라 하고 그 다음엔.....”

하... 저런 걸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가 1세트 그래서 3세트에서 5세트 하시면 되요. 아직 주먹은 안 나가요. 다 하시면 부르세요.”

“네.”

자 일단 줄넘기부터... 예전에도 해봐서인지 되긴 한다. 물론 잘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도 안 걸리네. 아무도 안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분명 줄넘기를 하고 있는 내 품은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그때 관장님이 나와 이쪽으로 걸어온다. 타악. 그 순간 줄넘기가 발에 걸렸다. 어? 걸렸네. 순간 줄넘기가 버겁고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순간 내가 못나보였다. 때옹 하나둘셋 하나, 둘둘셋.... 좀 설까... 때옹.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바빠서 못 왔어요.”

“어 따라와. 저기 짐 놓고.

저 학생도 오늘 처음 오나? 염색도 하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날라리인가? 똑바로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세요.”

또 학생 둘이 들어온다. 앞에 들어 온 학생이 더 어려보이지만 뒤에 들어 온 학생이 더 눈치를 본다. 이번엔 날라리가 아니네.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빠른 제자리 뛰기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 힘들어 속도가 느려진다. 잘하고 있는 건가? 어? 관장님 나오신다. 잠시 멈춘다. 내 모습을 보시면 혼부터 낼 것이다. 어 탄 사람 봐주시네. 그럼 이제 좀.... 스윙. 옆으로 아까 그 날라리가 온다.

“어떻게 하면 되요?”

건들건들 거린다. 나도 잘 모른다. 그냥 못 들은 척 했다.

“다시 가르쳐 줄게. 무릎을 더 높이 올리고 오른발부터.....”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어 그래 잘하네”

날라리가 운동신경은 좋은 듯 잘 따라한다. 나보다 잘한다. 나도 처음인데.

“한석씨? 한석씨도 무릎을 더 높이 올리고 오른발부터 하나둘셋넷. 해보세요.”

하..하나 두..울 셋 넷. 하나 둘...셋! 네넷...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것인데도 잘 안 된다. 역시...

“오 한석씨도 잘하시네요.”

처음 듣는 칭찬이다. 물론 빈말일 것이다.

“런닝스텝도 아까 알려줬죠? 진석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저 오네. 재 우석이도 가르쳐주세요.”

“네?”

관장님이 방으로 돌아가신다. 우석이라는 학생이 옆으로 온다. 뒤따라 다른 학생도 온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저 우석학생? 이걸 어떻게 하나면...”

“형. 이건 이렇게 오른발부터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계속 반복하면 되. 아니 무릎 더 높이고.”

뒤따라 온 학생이 가르쳐 준다. 내가 하려 했는데... 뭐 차라리 잘됐지. 나도 잘 못하는데. 잘 못 가르쳐 줘서 망신당하는 것 보단 안 가르쳐 주는게... 때앵. 하나둘셋 하나. 둘둘셋 둘. 거울을 보고 팔벌려 뛰기를 한다.

“아 저 이거 할 땐 거울 말고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일자로 하는 거예요.”

또 뒤따라 온 학생이 말한다. 낮가림이 없는 학생이네. 우석이란 학생이 먼저 옆으로 돈다. 날라리도 싫은 척 하며 옆으로 돈다. 나도 돌아야겠다. 하나둘셋 하나. 둘둘셋 둘.... 이렇게 일렬로 서서 하니 아이돌 칼군무처럼 똑같아 보였다.

“안녕히 계세요.”

“네 처음인데 잘 하시네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오세요.”

계속 칭찬을 들으니 잠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빈말일 것이다. 권투장을 나와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다.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한석씨 저 김미영 팀장인데요.”

아 그 디자인팀장. 이 사람이 왜?

“회사에서 로고 한거 있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한석씨가 로고 밑그림 좀 해주세요.”

뻔뻔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제가 그런 걸 잘....”

“일단 해보세요.”

내 말을 끊는다.

“아 저.... 제가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부서로 오기도 했고...”

“뭘 소리에요. 이쪽에 재능이 많아 여기로 왔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고 내일 갖고 오세

요.”

약장수 톤이다. 재능은 무슨... 골목길로 들어 갈 때 봉어빵이 보였지만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집이나 빨리 가야지.

“나왔어.”

“늦으셨네... 오늘도 야근 하셨어요?”

“아니 복싱..... 종이랑 연필 좀 주라.”

“왜요?”

“아 그냥... 나 씻을게 종이랑 연필 좀.”

“네.”

착아아. 또 물이 차갑다. 고치던가 해야지. 다 씻고 나오니 침대에 종이랑 연필이 올려져 있었다. 침대에 책상을 올려놓고 그 위에 종기와 연필을 올려놓는다. 잘 그릴 수 있을까? 연필을 잡고 종이에 나가간다.

“식사 안 하세요?”

빠끗. 종이에 긴 선이 생긴다.

“안 먹어! 그리고 지금부터 나 건드리지마.”

종이를 뒤집어 다시 그림그리기에 집중한다. 종이에 연필이 다가갈수록 손이 떨린다.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선이 뻗뻗뻗하게 그어진다. 역시... 난 예술에 재능이 없나보다. 그림을 포기하고 침대에 눕는다. 하... 소설 때처럼 디자인도 망할게 분명하다. 자고 싶다. 이상한 선만 그어진 종지와 연필이 올려진 책상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다.

“여보 소설 다 썼어?”

“아 여보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존댓말!”

“네... 다 쓰셨어요?”

“거의 다 썼어. 내가 준건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완전 재밌어....요. 계속 쓰면 대박 날거 같은데요?”

“그래? 글도 술술 써지고 아무래도 예술에 재능이 있나봐.”

“자백은...”

“뭐?”

“아니에요. 하하하 나와서 밥 먹어요.”

“이것만 쓰고.”

“.....”

또 소설을 쓸 때 꿈이다. 거의 다 썼을 때. 아내와 내 표정은 밝아보였다. 그래 저때만 해도 재능이 있는 줄 알았지. 일도 완벽하게 했고... 근데 망했잖아? 나는 재능이 없다. 지금은 이런걸 보니 진짜 사장 아들 이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을 못하는데 슈퍼 셀러리맨이라니. 웃기지도 않다.

“안녕하세요.”

“어 한석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제부터 한석씨 자리에요. 어? 근데 왜 손이 빈손이에요? 안 그려 오셨어요?”

“아 저... 제가 잘 못....”

“안 그려 오신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또 말을 끊는다. 일단 따라가야지... 근데 진짜 해본적도 없고...

“여기서 배우시면 되요.”

뭐지?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분이 인사를 한다. 이 사람도 아직 사원인가 보다. 그리고 보니 여기는 나빠고 다 여자다,

“이분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같은 사원이긴 하지만 한석씨가 더 후배예요. 아 이쪽은 한석씨. 이쪽은 황해씨.”

황해씨? 황해? 보이스피싱? 여긴 왜 다 이래?

“황해씨 한석씨가 처음해보는 거니까 기본부터 가르쳐 주세요.”

김미영 팀장이 간다. 둘이면 어색한데.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로 와보세요.”

이 사람도 낯을 안 가리나 보다. 설명을 들어도 도통 모르겠다.

“오 선이 괜찮네요. 그래도 더!”

못 하는데 어떻게 더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및 그림 오늘 배운 대로 그려오세요.”

“네...”

황해씨 때문에 기가 죽었다. 이름부터 커다란 족발 뼈다귀를 들고 있을 거 같은 중압감이 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해... 이제 권투를 간다. 그나마 권투가 제일 쉽다. 특 헤드폰을 끼고 있는 남자가 어깨를 부딪친다.

“아 뭐야...”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없어졌다. 예전 부서와 달리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도 일색이다. 지하철에서 내리고 걸다보니 골목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이제 알아서 하실 수 있죠?”

“아... 아직 좀...”

“벽에 설명이 다 붙여져 있으니까 보고 하세요.”

벽에 붙은 봉대 감는 법을 훑어져라 쳐다본다. 한 군데가 오래 되서인지 잘 안 보인다. 관장님한테 물어 봐야겠다. 푹푹.

“저.... 봉대 감는 법을 까먹어서.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게 한 군데가 안 보여요.”

“아~ 내 거기서 이렇게 감고 또.....”

에휴... 봉대하나도 못 감고.. 봉대를 다 감고 나니 주먹을 꼭 잡으면 손이 살짝 쏠린다. 몸을 풀고... 어제는 발목 위주로 풀었지만 중요한 게 달라졌는지 손목에 더 집중이 된다. 하나둘셋넷다... 줄넘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여서 그런 가? 좀 더 잘... 관장님이 나와 나를 본다. 그리고 다가온다. 탁. 어? 또 걸렸다. 잘되다가 누가 오면 자꾸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라리가 먼저 왔다. 노란머리한곤... 참... 그래도 이번엔 걸음이 꺾렝꺾렝하지는 않다. 봉대를 감다 나와 같은 곳에서 멈춰 한다. 다 처음엔 못 하는 건가? 나와 같게 관장님에게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어제 그 학생들이다. 다시 들어도 우석이라는 학생의 목소리는 정말 작다. 날라리가 관장님에게 가다 다시 꺾렝꺾렝한 걸음걸이를 하며 봉대를 대충 감고 줄넘기를 하러 온다. 교복을 보면 같은 교복인데... 제 앞에서 가오 부리는 건가? 탁. 다시 줄넘기에 걸렸다. 이번엔 줄넘기가 다시 튕겨 턱에 맞았다.

“아!”

옆에서 몸을 풀던 날라리가 덩달아 놀라 나를 쳐다본다.

“죄송해요.... 하하”

때एं. 종이 울린다. 내가 웃으니 날라리도 웃으려다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줄넘기를 한다. 뒤를 보니 우석이라는 학생과 더 어린 학생이 몸을 풀러 오고 있다. 어린 학생은 몸을 당당하게 푸는데 우석이라는 학

생은 계속 눈치를 본다. 그리고 자꾸 얼굴을 가린다. 자세히 보니 여드름이 나있다. 별로 크지도 않은데 자신은 너무나 신경이 쓰이나 보다. 다시 줄넘기를 하려는데 날라리가 먼저 거울 쪽으로 간다. 어?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도 하지 뭐. 줄넘기를 내려놓고 거울 앞으로 갔다. 몸을 풀던 학생들도 얘기를 하더니 눈치를 보며 온다. 어린 학생은 빨리 왔지만 다른 학생은 눈치를 보며 쉽게 못 오는 듯싶다.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어제보다는 잘 되지만 옆이 계속 신경 쓰인다.

“나 어제처럼 침대에 좀 갔다 줘.”

“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그게 뭐예요...”

“씻을게. 아 이거 먹어.”

3개 남은 봉어빵을 주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착아아. 아 차거. 아 깜빡했네. 내일은 꼭 사람 불러야지.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밖으로 나오니 어제와 똑같다 싶을 만큼 침대에 올려져 있었다. 책상 올리고... 이제 해볼까? 배운 대로만 하면 되... 배운 대로... 배운 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못할 거야로 변할 것만 같았다. 배웠는데 못 하면 안 되잖아.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손이 떨린다. 정말 관장님 말대로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될게 없나? 팬이 종이에 달고. 하얀 도화지가 내 마음대로 채워진다. 다 그렸다. 다 그리고 나니 손 옆이 검은색이 됐다. 그림을 보니 내가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그렸다. 내가 그린 게 맞나? 어제는 그냥 포기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아니다. 글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재능이 있었나? 어쨌든 밑그림을 그렸으니 황해씨의 잔소리가 조금 줄 것 같다. 관장님이 조금 신뢰가 간다.

“한석씨... 전 한석씨를 비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땡치지마! 다 비웃을 거잖아. 소설이 안 팔렸다고... 소설이! 내 꿈이...”

“좀 안 팔리면 어때요... 소설을 잘 팔리는 게 꿈이셨어요? 소설을 쓰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거나 그거나! 그래... 광고를 하면 좀 팔리겠지? 어서 잡지사에 전화해야겠다.”

“한석씨... 안 팔릴 수도 있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경험했다 생각하고 다른 걸 하면 되요.”

“여보세요? 고구려일보 광고국이죠? 아 제가 이번에 책을....”

“.....한석씨...”

“...!”

마지막에 아내얼굴이 보였다. 그때 그냥 지나쳤는데... 아내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경험이라.... 다른 재능이라....

“안녕하세요.”

“오 한석씨 밑그림 그려오셨네? 저기 황해씨한테 가세요.”

“황해씨...”

“아 한석씨. 그림 줘봐요.”

“여기...”

“황해씨가 가로채듯 가져간다. 성질도 참 급하네. 한참동안 본다. 왜 이렇게 오래봐?”

“한석씨...”

“네?”

“어...어떻게 이런... 하루 만에 이렇게 잘 그리실 수 있죠?”

진짜 자신감만 있으면...

“라고 할 줄 알았죠? 이게 뭐예요? 선도 엉망이고 디테일은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맘대로 그리고 오늘 교육 2탄입니다. 오래 할 거니까 화장실 같다 오시려면 갔다 오세요.”

역시...

“그냥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스파르타식의 고함 때문에 귀가 아프다. 역시 못하는 걸까?

“아 저...”

“왜요?”

“그 그림 집에 가져가면...”

“안되요.”

“그렇죠? 하하... 계속하죠.”

쩍... 왜 안 된다는 거지. 못 그렸다고 해도 조금 잘 그린... 뭘 소리인가. 내가 잘 그릴 리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다 색감을 넣어 보세요.”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야 아까는 안 된다더니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냥 가질까?

“아 그냥 회사에서 하세요.”

뭐지 이 사람도 생각을 읽나?

“저 왜...”

“왜라뇨 회사에서 야근하는 건 당연한데.”

“저 회사 끝나고 할 일이 있어....”

“됐고 다 되면 불러요. 아 그리고 아직 처음이니까 완벽하게 안 해도 되요.”

처음이어도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권투도 가야한다. 그림도 용기 내어 그린거지만 권투가 소설이 망한 뒤 거의 처음 용기 내서 시도한 것이다. 적응도 하고 붓대 감는 법도 아직 모른다.

“뭘 가만히 있어요?”

황해씨가 노려본다.

“이제 하려고요...”

핵! 돌아 밖으로 나간다. 휴... 아까 배웠잖아. 잘할 수 있어. 의지와는 다르게 손이 떨린다. 입술이 마른다. 심호흡하고 스윙 스윙 색을 칠하기 시작하니 떨림이 조금 멈췄다. 항상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아 근데 이제 권투만 하고 상담은 안하나? 원래 상담 받으러 갔는데 상담이 아니라 상술일 줄은... 어? 아차.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참새를 보라색으로 칠해버렸다.

“뭐야 한석씨! 그렇게 칠하면 어떡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실수할 때만 나타난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입니다. 보라색 퍼플에 영적인 느낌을 담아, 요즘은 기업도 영성이 중요한 시대라....”

일단 되는 데로 말했다. 뭐 변명해도 소용없겠지만.

“느낌?! 에휴... 종이 끝에 이름 써요.”

“네? 왜요?”

“말만 잘하지.... 한석씨가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이름 쓰라고요. 그리고 색 마저 칠해요. 색 다 칠하면 저기다 전시해놓을 테니까.”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 쪽을 가르킨다. 하는 수 없이 이름을 쓰고 싱긋 웃으며 다시 색을 칠하는 척을 했다. 황해씨가 다시 핵! 하고 돌아 나간다. 잠만 전시를 한다고? 그럼 못 그린 그림이 내 그림이란 걸 아는 거잖아?

“에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쉬려 할 때 김미영 팀장이 오는게 보인다. 아... 오지마라... 오지마라... 이제 그만 귀찮고 싶다...

“한석씨. 망쳤다면서요?”

아씨... 좀 저리가라고.

“네.”

“뭐 어차피 로고의 최종 완성은 제가 할 거니까 뭐 맘대로 그리세요. 그럼 이만.”

...날 견제 하는 거야 뭐야... 내가 망친 걸 왜 신경써! 다시 색을...! 갑자기 아까 색을 잘못 칠한 게 생각난다. 왜지?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판생각해서... 판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그런거면 어찌지?

그럼 계속 실수 할텐데... 그럼 더 쪽팔릴테고... 더 쪽팔리긴 싫은데...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망할 것이다. 다시... 또... 정신이 몽롱하다.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주위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다. 색칠을 잘 못하면 그 다음에도 실수하고 위촉되고 다시 실수하고 그러다 자멸...

“이럴줄 알았다... 한석씨! 뭐야... 내 말 씹어? 한석씨!”

“아 왜요!!!”

실수로 짜증을 내버렸다. 황해씨가 놀라 손에 든 커피를 떨어트린다. 회의 하던 사람들도 나를 쳐다본다. 그중에 김미영 팀장은 웃고 있다.

“아...”

“아니... 전 그저... 커피....”

커피를 전해주려 했나보다. 아 어찌지.

“죄송해요. 제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짜증을 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얼른 걸레를 갖고 와 바닥을 닦았다. 황해씨도 커피를 내려놓고 바닥을 닦는다.

“괜찮아요...”

다 닦았지만 바닥이 살짝 얼룩졌다.

“걸레 이리 줘요.”

황해씨 걸레를 갖고 밖으로 나갔다. 저들은 나에 대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뒷담화를 까고 있을 것이다. 걸레를 놓고 다시 돌아갔다. 회의는 다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한사람이 와 커피를 건넸다.

“회사가 처음엔 좀 스트레스 받긴 하지.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나. 이거 먹고 힘내게.”

뭐지? 어리둥절했다. 이 회사에 온 이후로 거의 처음 받아보는 배려다. 황해씨는 앉아 있었다.

“저 황해씨...”

“뭐요. 아까는 아까고 빨리 색이나 칠하세요. 방금 일부러 하신 거죠? 색칠 안하고 전시 안 할려고? 빨리 하세요!”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내 편견이었나? 김미영 팀장만 빼면... 그 덕분인지. 색칠도 갑자기 잘됐다. 나는 아내의 도움을 회피하며 내 맘대로 결정 하곤 했다. 소셜, 광고 등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주위사람들이 따듯하게 해주니 나도 안정이 되는 듯 했다. 황해씨도 안 그런 줄 알았지만 커피를 주려고 했던 걸 보면... 그래도 나의 의지 없이는 안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감...

“한석씨... 한석씨...”

응?

“한석씨!!!”

놀라 옆으로 넘어졌다.

“네??”

“지금 색칠 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어! 제정신이에요?”

어?? 잤다고?? 분명 색칠을.... 아... 자면 항상 꿈을 꾸는데 이번 것도 꿈인가 보다.

“피노키오 하체가 사라졌잖아!”

그림에 침을 흘려 피노키오의 하체가 산신령처럼 뿌옇게 됐다. 또 실수라니... 그래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한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예 하체를 뿌옇게...”

“그건 맘대로 하고 색칠이나 해요. 저도 퇴근하고 싶으니까.”

그러고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대부분이 다 퇴근을 한 상태였다.

“저 제가 사실 주위사람들이 따듯하게 해주면 잘 하는 타입이거든요.”

“잠이 덜 깬나. 빨리 하거나 하세요.”

“네...”

하... 일단 피노키오하체는 망했다 생각하고 뿌옇게 해야겠다. 보라색 참새에 산신령 피노키오까지 되는 게 없다. 난 역시 못하나 보다. 어렵 게 어렵게 색칠을 하고 나니 모두가 퇴근을 한 상태였다. 황해씨에게 사과의 의미로 커피를 사주려 했지만 또 핵! 가버렸다. 역시...

집으로 오니 아내는 자고 있었다. 그래도 밥은 차려놨다. 한번쯤은 먹어줘야지. 계속 사먹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니 맛있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다, 오늘은 씻지 않고 자야겠다. 어차피 찬물만 나올 텐데... 차라리 내일 내가 고치는 게 빠르겠다.

“여보...”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바뀌요.

“.....”

“소설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한번 안 된다고 계속 안 되겠어요? 최고 보단 최선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렇다. 자꾸 소설생각을 하며 그 안에 갇혀 후회만 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나보다. 그러나 결국 행동하는 것은 나다. 내가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한다... 아기 때도 걸음마를 쉽게 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최선을...

꼬끼오~ 꼬끼오~

어제 처음으로 설정해 본 요란한 알람 때문에 잠이 깼다. 이번엔 내가 처음 알바를 했을 때 꿈이다. 저 때 다짐하긴 했지만 알바에서 거의 바로 잘렸지.

“어제 색칠 한 거 있잖아요. 여기를 안했더라고요. 여기 하고 부르세요.”

다시 하니 색을 바꿔서 칠하지는 않았다. 잘 되네...

“한석씨. 더 세심하게 해야 되요!”

잘한 것 같은데 황해씨는 또 뭐라 한다. 아 무슨 완벽주의자라도 되? 한번 못할 수도 있....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이면 또 야근인가?

“혹시... 오늘도 야근...”

“아니 오늘은 아니예요. 저도 힘들어서.”

“하하하.”

“뭘 웃어요. 자 이제 디테일을 배울 거예요. 진도가 쪽쪽 나가긴 하네...”

진짜 재능이 있나?

“복습하고 있어요. 전 저 못난 그림 전시하고 올게요.”

진짜로 하려는 듯 그림을 갖고 나간다. 예휴... 색을 배우고 디테일한 걸 배우니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이려고 있으니 카피라이터라도 된 것 같다.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걸까?

“한석씨.”

“왜요!”

“왜요?? 왜요~? 엄연히 직장 선배에게 왜요~?? 오늘도 야근하고 싶어서 징징대는 거예요?”

아차. 여긴 회사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건들면 가끔 짜증을 내는데...

“아뇨 그게요... 제가 퍽이 있어서... 아 왜요!!! 어 봐봐요 가끔씩... 아 왜요!!!”

“아~ 그냥 야근이나 하세요.”

또 핵! 간다. 오늘은 권투가야 되는데...

“장난이고. 다 익히셨으면 퇴근 하세요”

“예!!!!”

순간 소리가 튀어나왔다. 회의 하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아 퍽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 후 회사에서 나왔다. 예~ 드디어... 하루 안 갔는데 몸이 더 빠르하네. 아 근데 진짜 퍽으로 오해 받는 거 아냐?

“안녕하세요.”

“어 한석씨.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아 야근 때문에...”

“하하. 바쁘신가 봐요? 저번에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요.”

“네...”

어? 오늘은 새로운 저지다. 뭐 새로운 거라고 할 것도 없는 아디다스 저지다. 유행지난지 꽤 된 건 나도 안다. 봉대를 감다 저번 그곳에서 막혔지만 어떻게 하니 됐다. 내가 하다니... 오랜만이다. 이제 관장님이 와도 줄넘기가 안 걸리나 보다. 탁. ...그래도 걸리긴 하네. 저번엔 관장님이 오면 피할 생각까지 했는데 피하지는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학생들은 안 왔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거울 앞에 있었다. 때옹.

줄넘기를 하려다 옆을 보니 줄넘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본적이 있다. 발을 한발씩 번갈아 가면서 한발을 뒤로 접고 피고 다시 반대 발을 뒤로 접고 피고 하는... 저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 해보고는 싶었지만 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둘 탁. 하나둘셋 탁. 몇 번 못하고 걸린다. 그래도 몇 번이도 했으니...

“자 모이세요!”

어제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모이는구나... 거울 앞으로 갔다.

“이번엔 주먹을 나갈꺼예요. 런닝스텝할 때 하나 할 때 오른발이 나가잖아. 그때 오른손 찹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혁이는 알고 우석이 먼저 해보자. 찹은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음이 나다.... 다음이 나아... 어린애들보다 못할 수는 없지... 할 수 있어,,

“자 다음 한석씨. 주먹 쥐어보세요.”

간신히 주먹을 쥐었다.

“런닝스텝 하시면서 뺀고 오고 하나둘셋넷.”

“하..하..하나둘셋넷.”

주먹만 허공을 지르고 런닝스텝이 안됐다.

“괜찮아요. 한석씨가 운동신경이 좋으신 편이니깐...”

“하나둘셋넷”

이번엔 주먹이 안 나갔다.

“일단 우석이가 앞에서 진행하고 있고 한석씨는 개인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석씨가 못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하시는데 지금 자신을 못 믿고 계세요.”

닭살이 돋는다. 그래도 맞는 말이다.

“하나둘셋넷.”

그래도 안된다...

“제 권투교사 인생을 걸고 꼭 해냅니다.”

뭔 인생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뜯기다 만 휴지처럼 살래요?”

뜯기다 만 휴지라... 공용화장실에서 손에 물기를 닦으려고 휴지를 뽑으려 했는데 물기 때문에 계속 뜯기다 말고 나온 적이 있다. 근데 갑자기 웬 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일단 스텝을 해보세요.”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그러다가 주먹 올리고.”

오...올리고... 여기까지는 성공적이다.

“주먹을 뺐어요!”

눈을 감고 주먹을 뺐었다.

“오! 되셨어요. 봤죠?”

눈을 감고 있어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럼 다시 아까처럼 스텝 밟고 주먹 올리고.”

진짜 인생이라도 건 것처럼 나보다 열의에 불타있다. 그래... 나도 해보자!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그리고... 뺨으세요!”

“하나둘셋넷. 하나둘세넷, 오 된다! 하나둘셋넷. 관장님 됐어요!!!”

“봐요!! 최선을 다하니까 되죠? 예!!!! 됐다!!”

서로 껴안고 방방 뛰고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본다.

“자 한석씨가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 짹 짹.”

다들 박수를 치긴 한다.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 애 같다. 웬지 부끄러웠다.

“아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하하”

살짝 과도한 칭찬이 멋쩍긴 하지만 기분은 좋다. 드디어 해내다니. 봐봐 나도 할 수 있어.

“자 이제 한석씨도 합류해서 우석이 구호 크게!”

“하나둘셋넷!!”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되세요?”

“왜요?”

“아 아까 개네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해서요.”

“놀이공원이요????”

남자끼리??? 그리고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네? 갑자기?”

“아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치료에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치료? 치료는 무슨... 그냥 권투가 재밌는 거 같다.

“아이 한번 같이 가요~”

그래 이젠 갈수 있을 거야.

“네.. 알았어요.”

“예~ 그럼 내일 2시까지....”

남자끼리 놀이공원이라니 참... 친구들 이랑도 가본 적 없는데... 한 번도 안 해 본거라... 진짜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게 느껴진다. 내 뒤에 꽂혀있던 장대가 뽑힌 느낌? 아니 그것보다 더 하다.

“할머니 놀이공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붕어빵을 사며 물었다.

“음.... 약간 치매 끼가 있기도 하고... 하도 오래 되서 모르겠네...”

“아 그래요? 이번에 놀이공원 가거든요.”

“그래? 잘 갔다 와. 여기.”

“안녕히 계세요.”

붕어빵을 받고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2000원어치다. 슈크림도 먹어봤지만 옛날 입맛이라 그런지 역시 팔이 입맛에 맞는다. 아 갈 때 공구 좀 사가야겠다. 찬물 때문에 얼 지경이야.

어디서 팔지? 일단 대형마트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기 공구상자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말대로 가니 공구상자가 나왔다. 어... 난방을 고치려면... 아 잠만 난방은 뜯어서 못 고치나? 흠... 아무래도 난방은 좀 어렵겠지? 난방이 아니라 수도관인가? 하다 못하면 뭘 망신이야. 안되겠다. 사람 불러야 되겠다... 아니 한번 해볼까?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이제 물이 따듯해지겠군.

“나왔어.”

“밥은요?”

“밥? 나 이것 좀 고치고.”

“뭐요?”

“보일러.”

“네?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밥 좀 차려놔줘 하고 먹게”

“웬일이래요? 네...”

자 덤벼라.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어떻게 고치는지 나오려나. 망가지는 이유... 아 여기를 이렇게....

“여보...”

“어? 다 고치셨어요?”

“아니. 사람 부르자. 안 된다. 하하하.”

“그럴 줄 알았어요. 밥 먹어요.”

“국이 왜 육개장이야? 누구 죽기라도 해?”

“에이.. 뭘 말을... 그냥 했어요.”

“다 먹었다. 씻을게. 아 나 내일 어디가.”

“어디요?”

“놀이공원. 근데 회사 갔다 가야 돼.”

좌아아.... 고치려다 어디를 잘못 건드렸는지 물이 잘 안 나온다. 못 고치긴 했지만 뿌듯하다. 조금만 더 하면 고쳐졌을지도? 난 만족을 하지만 내 몸은 만족을 못하나보다.

“아 차거!”

“.....”

어라...? 오늘은 조금 다르게 잠에서 깼다. 꿈을 꾸지 않았다. 요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놀라긴 했지만 회사 출근시간에 늦어 놀랄 겨를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일 찬물로 머리만 감고 급하게 집에서 나왔다. 늦으면 분명 그 쌍두마차가 따발총을 쏘 댈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

아무도 없었다. 뭐지? 다들 어디 갔나? 뭐야. 어떻게 된거지?? 호.. 혹시 부서가? 이제 시작했는데...

“안돼!!!!”

“안되기는 뭐가 안되요? 늦었으면 빨리나 올 것이지 옆 부서에 가서 안 돼!!! 소리나 치고 있고 빨리 와요.”

“아... 뭐야... 옆 부서야? 다행이다!!!!”

“아 귀청 떨어지겠다. 뭐 드라마 찍어요? 빨리 와요!”

“네....”

꾸중을 듣긴 했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니 다행이다. 자리로 돌아오니 전시했던 내 그림이 올려 져 있었다.

“저.. 황해씨?? 이걸 왜...”

“아 김미영 팀장님이 디자인 부서가 했다는 게 쪽팔리다고 치우래요. 가지려면 가져요.”

김미영 팀장... 맘에 안 들어... 어떻게 팀장이 된 거야? 뭐 그림은 가져가야지... 그림을 가방에 넣는다.

“김미영 팀장님은 어떻게 팀장이 되셨어요?”

“김미영 팀장님? 사기 쳐서. 원래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승진했데. 쓰레기지.”

“역시!”

“역시?”

“아 아뇨... 자 오늘은 뭐 배웁니까?”

“웬일로 먼저 배우고 싶다하지...? 뭐 켜기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빨리 시작하죠.”

처음 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괜찮아졌다. 배우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런 소소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진짜 치료효과? 그건 아닌 것 같다. 디테일도 배우고 이제는 배울게 없단다. 연습이 최선이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연습만 했을 텐데 이젠 남들과 공유를 한다.

“아 그리고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아이디어 회의에 다시 같이 참석해야 되요. 내일부터 알겠죠? 집에서 계속 연습하세요. 아 그리고 물론 그림을 잘 그리고 색을 잘 칠하고 그래야 하지만 창의성,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의력이예요. 알았어요?”

“네...”

김미영 팀장과 마주치기는 싫지만 뭐 어쩐나.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빼기지 않겠다. 내거니까. 놀이공원... 자연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다. 설마 놀이기구를 못 타겠어.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는 타본 적이 없다. 회전 머그컵이나 회전목마정도?

“아아아아아악!!!”

슈우웅~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아니라 그냥 무섭...

“아아아아아악!!!”

“하아하아...”

놀이기구에 대한 거부반응... 이라기보다 그냥 무섭다. 애들이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 뭇까지 혼자 다 무서워하신 것 같은데?” 라며 놀린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처음 와보는 놀이공원이다. 이름이... 오즈 월드?

“이제 뭐 타죠?”

“어? 저거 해요!”

동혁이가 가르킨 것은 사격 이였다. 사격?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준해서 쏘시면 되요. 3000점 넘으면 거대인형 드립니다~”

뭐 사실 남자들 중에 누가 거대인형을 갖고 싶어 하겠나. 그냥 자존심 싸움이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탕수육 내기?”

“쿨!”

탕! 탕! 옆에서 관장님과 동혁이가 쏘고 있다. 참 망설임 없네... 나도 해야겠다. 조준하고... 쏘면... 쏘.. 쏘면...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 뭐지? 왜 안 되지?

“저기요. 여기 총이 안 쏘지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탕! 총은 아주 잘나가 점수를 획득하고 떨어진다.

“이상하다... 잘 쏘지는데... 다시 한 번 쏘보세요.”

다시 조준하고.... 계속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

“진짜 안 되는데...”

“쥬보세요.”

탕! 이번에는 빗맞았다.

“방아쇠를 쏘게 당기셔야죠.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쏘게!”

탕! 총알이 호기롭게 날아간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조준하고 쏘게...! 쏘... 쏘게! ... 왜 안 되지? 눈 꼭 감고 쏘게! 탕!

“예!!!”

“되죠? 눈은 뜨고 쏘세요.”

쏘긴 쏘으나 눈을 감고 쏘서 총알이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탕수육 사세요.”

“와~~~”

꼴지는 의외로 관장님 이였다. 처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동혁이랑 20점 차이로 졌다.

“그럼 일단 중국집으로 가죠?”

벌써 조금 어두워졌다.

“짜장면3개 짬뽕2개요.”

신기하게도 또 동혁이랑 관장님만 짬뽕이다.

“동혁스 오늘 좀 맞네?”

“예~스”

짹! 하이파이브를 한다.

“아 여기 고량주 2병 주세요~”

“관장님 두병이요? 애들도 먹이게요?”

“에이~ 뭐 어때~”

“아니 청소년은 술을...”

“빼갈도 1병주세요”

“네~”

“이과두주요? 그거 엄청 썬거...”

에휴... 말을 말자.

“와~~ 먹자!!”

“아아아아!! 탕수육 부으면 어떡해!!”

동혁이가 탕수육 소스를 볶자 관장님이 뭐라 한다. 오늘 처음으로 안 맞네.

“일단 먹어요. 먹어. 뭐가 중요하다고. 우석아 너도 먹어.”

우석이가 가만히 있다. 못 들었나?

“먹어. 먹어.”

관장님이 주자 먹는다. 서운하네...

“자 한잔씩 건배~!”

“건배~!”

이거 진짜 먹여도 되는 거야? 우석이가 갑자기 쪽 들이킨다.

“와~ 우석이 성격이랑 달리 화끈하게 먹는데?”

우석이가 살짝 웃는다. 웃는 걸 처음 본다.

“너네 한 잔만 먹어라. 아주 썬 술이거든.”

“여기 한 병 더요!”

“관장님!”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취한 거 같다. 내가 좀 제정신인가...

“관장님... 일어나세요.”

“아이 봐! 임마. 내가 임마. 너 치료 잘해주지 마. 나 덕분이다.”

치료는 무슨...

“뭔 소리예요. 치료는 하나도 안되는 구만.”

“치료가 안 된다고? 너 좀 문제 있다. 나한테 상담 좀 받아봐라 하하하. 우울증에는 운동이 최고야. 하하하 야마 너 이렇게 애들이랑 술 먹은 적 있어? 알콜테라피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놀이공원 가본 적 있냐고~잘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대인관계가 개선되는 거야. 다~ 치료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항~상! 최선을 다 하면 그게 성공한 거다. 잉?”

“그게 뭘 억지...”

그런가? 아무렇지 않게. 마치 해오던 것처럼 놀고 있다. 신경 쓰이지 않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쓴 건가? 하지만... 이렇게 놀 때는 괜찮지만 일할 때가... 쿵. 관장님이 탁자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진다. 예휴... 어? 우석이만 곳곳이 앉아있다.

“우석아 괜찮아?”

“네 헤헤헤 아니 근데 술이 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안주가 좋으니까....”

갑자기 실실 웃으며 말이 많아졌다. 우석이 한테 저런 모습도 있나. 술을 먹으면 진실이 나온다더니 저렇게 행동 하고 싶은 건가? 일단 다 집에 데려다놔야지...

“따뜻한 물 나와?”

“네... 아 근데...”

“씻을게!”

계속 찬물로 씻은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마음을. 너무 들떠 옷을 아무 대나 던지고 물을 틀었다. 따뜻하다. 근데 점점...

“아 뜨거!!”

“괜찮으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물이 따뜻하기는 한데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그래요.”

뭐 이런... 손을 대보니 다시 따뜻해져있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최선이니.”

응? 아니지! 완벽히 따뜻... 물과 수난을 겪으며 물 온도가 달라질 때 물의 썩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 씻고 나니 시간이 꽤 지나있었다. 아 어지러워.

“일어나요... 한석씨.... 한석씨!”

“응?”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아...”

“해장 하실 거 준비해놔으니까 나와서 드세요.”

“응....”

그리고 보니 오늘도 꿈을 안 꿔네. 술 때문인가? 아으... 속 안 좋아... 밖으로 나가보니 해장국이 있었다.

“뭐야? 언제 했어?”

“처음 해보기는 하는데 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던 중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허스키한 목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나도 술을 먹고 난 다음날은 대부분 이렇다.

“아 네 관장님.”

“어제 어떻게 됐어요?”

필름까지 끊었나보다.

“아 어제요? 치료하셨어요.”

“치료?”

“네 치료 지금 밥 먹는 중이라서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탈각

“누구야?”

“응~ 복싱 관장님. 어제 같이 먹었거든.”

“그분도 해장하셔야 될 텐데.

“하하하하”

꺼억. 밥을 다 먹고 트림까지 하고 나니 해장이 되는 느낌이다. 어우... 애들은 괜찮나? 그림 연습이나 해야겠다. 망쳤던 피노키오의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업그레йд 버전으로 그리는 중이다.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이다. 그래도 완벽주의 기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김미영 팀장을 이길 것이다. 선부터 세심하게 지웠다 그렸다 한다. 아 관장님한테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래 관장님 톤으로 돌아왔다.

“어제 뭐야??”

“어제 술 드시고 뺨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집에 바래다 줬고요. 아 우석이는 좀 썬가 봐요. 잘 걸어가던데요.”

“그래? 아 이거 미안하네. 어제 너무 들떠서...”

“괜찮아요. 해장하시고 푹 쉬세요.

“네.”

사실 관장님은 많이 먹지 않았다. 술도 약하면서 왜 술을 하자고. 진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오늘따라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번엔... 황해씨?

“여보세요?”

“어 한석씨. 난데 그 로고 있잖아요. 한 달 뒤에 공모전 한데요. 하시려면 하세요.”

“황해씨는 안하세요?”

“저는 한석씨나 도와주죠 뭐. 대신 더 뽁세게 할 겁니다.”

“네!”

“진짜 각오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할 겁니다.”

“네....”

툭. 꼭 이렇게 사람 기를 죽여 논다. 공모라... 김미영 팀장도 나가나? 아 그걸 안 물어봤네. 내일 회사에서 물어봐야겠다. 부우웅. 아 뭐야. 관장님? 왜 또?

“여보세요?”

“어 한석씨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 책 작가가 한석씨 이름이랑 같은데 한석씨가 쓴거야?”

뭐?

“아.. 네...? 네...”

“아 읽어보고 평 말해줄게. 하하하.”

.평? 보나마나... 그림이나 그리자 그림... 갑자기 그림이 안 그려진다. 공모 생각 때문이야? 뭘 걱정이야. 한 달이나 남고 김미영 팀장을... 한 달이면 뭐해... 소설은 한 달 넘게 썼다. 뭘 생각을 하는 거야. 다와 놓고. 최선. 자신감.

“안녕하세요.”

“한석씨. 한 달 후에 공모 있는 거 알지? 내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어때?”

“네...”

“뭐야... 재미없게.”

“안녕하세요.”

“어 한석씨. 빨리 와요! 공모 준비해야죠. 일단 테크닉이 딸리니까 그림연습이랑....”

좋았어 시작! 근데 자꾸 황해씨가 김미영 팀장님을 본다.

“왜 그래요?”

“아... 공모만 되면 저 인간이 떠올라서.”

응?

“아이디어 뺏긴 후배가 나거든. 저 나쁜 놈. 내가 그때 호구였거든. 아이디어 막 뺏겨도 가만있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네요...”

“뭐 이젠 괜찮아.”

왜 갑자기 반말? 황해씨도 그러셨구나...

“제가 이번에 이겨서 복수하죠. 뭐.”

“빨리 그리기나 해요.”

“네...”

역시나 팬을 잡으니 손이 떨린다. 그래도 이젠 미세한 떨림이다. 그때 황해씨가 손을 잡았다.

“떨지 말고 선을 부드럽게...”

“저... 이거...”

“뭐요.”

“불륜이예요.”

짹! 등짝을 맞았다. 아! 손이 뭐 이렇게 매워...

“자 다시 선 그어 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도안 그려 와요.”

“네....”

하... 진짜 사람 기를 죽이는데 뭐가 있다. 등이 아직도 화끈거린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어~ 한석씨. 1등!”

역시 아무도 안 온 모양이다.

“관장님 의외로 썩썩하시네요.”

“내가 술은 못 마시지만 빨리 깨거든.”

나보다 썩썩한 것 같다.

“자 시작하세요.”

“아 네.”

순간 친구로 착각했다.

“아 혹시 나이가...”

왜 묻지..?

“서른셋이요.”

“오! 프렌드! 하하하”

친근감이 좀 들긴 했지만 같은 나이라니. 내가 동안은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데?

“프렌드 가서 준비해!”

“네.”

“네 노노 응 예스.”

“응.”

“관장님한테 응이라뇨. 아무리 그래도 내가 2살 더 많은데.”

“네?”

아놔. 이런...

“가서 준비하세요.”

“네.”

뭐 저런... 진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붕대를 감고 있을 때 우석이가 들어왔다. 어? 혼자 왔네? 관장님 방으로 들어간다. 뒤따라 동혁이와 진석이가 들어온다. 때옹. 오늘은 몸 좀 풀어야겠다.

“x랄하지 말라고 이미 내 맘은 니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이제 흥얼거릴 정도로 많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라고 x발 x도!!! 라고 하는 것이 속 시원하다.

“어찌라고 x발 x도~”

동혁이가 따라 부르며 킬킬댄다. 우석이도 덩달아 부른다.

“자 모이세요. 술은 쟈지? 마신 만큼 해라! 특히 우석이! 하하하”

다들 킬킬대며 거울 앞으로 모인다.

줄넘기는 안하냐는 우석이.

“응~ 내가 관장이니까 내 맘이지. 근데 내가 일찍 모이라고 안 하면 해야 되.

관장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이제는 줄넘기에 안 걸리는데... 줄넘기를 할 일이 없네 하하.

“오늘은 다른 걸 배울 거예요. 반대편 거울에서 하는 건데 여기 발에 맞춰 서요. 그러니까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나 왔어~... 이게 뭐야?”

“아 이거 한석씨가 썼던 소설....”

“아~ 그건 왜?”

“한석씨가 팬클럽아지는 중이라고 하길래. 소설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까 해서...”

“거기 놔둬. 나 씻을게.”

좌아아. 또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한다. 소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최면은 걸었지만 팬클럽은 게 아니다. 아직 내 소설을 읽은 자신 같은 건 없다. 다시 소설을 쓰라고 하면 못 쓸 것이다. 문서에 한 장을 글씨로 채워나가는 소설. 그 문서를 글이 아닌 그림으로 채워나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실 다를 바가 없다. 점차 나아지겠지. 사실 그 소설은 후속편을 염두 해두고 쓴 책이다. 다 씻고 나오니 침대에 종이와 연필이 올려져 있었다. 오늘은 이정도만 그리자.

“안녕하세요.”

다 회의 준비 때문에 분주하다. 내 인사도 안 받아 주네...

“어. 한석씨. 빨리 와요. 같이 회의 해야죠.”

“아 저도요? 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참가할 것인지...”

“저요!!”

“아...”

뭐지? 다 나를 쳐다본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아 네. 한석씨.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푸하하하하.”

순간 말투를 따라해 버렸다. 김미영 팀장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인데. 말투가 웃기기로 우리 중에서 소문이 났었다. 그걸 듣고 황해씨가 빵 터져버렸다.

“푸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황해씨가 웃다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웃음을 멈춘다. 사실 다 웃음을 참고 있다.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

“아 네. 다시 시작하겠...”

“한석씨 나이스.”

황해씨가 들리지 않게 작게 말한다.

“자 이제 출전할 사람이...”

“저...”

“아 네. 한석씨는 알았고요.”

손을 들려하자 또 그 말투로 짜증난다는 듯이 말한다. 자기도 창피했나보네.

“저요!”

김미영 팀장이 손을 든다. 그래 나가줘야지 사기꾼.

“제 아이디어로 출전할겁니다.”

그러던지.

“아 네. 그럼 김미영 팀장님과 한석씨가 출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연설하는 교장님 같다.

“ 짹짹.”

이제 시작이구나.

“한석씨. 연습하죠. 그러 왔죠?”

“아 그제...”

“안 그려왔어요!?”

“에휴...”

또 꾸중을 엄청 들었다. 그래도 실력은 늘었다며 병 주고 약 준다. 아마 한 달 동안 이 꾸중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뭐 실력만 늘었으면 됐지. 이제 공모기간 전까지 집중을 해야 되서 오늘까지만 권투를 다녀야 한다. 많이 아쉽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한석씨. 오늘은 일찍 왔네. 준비해.”

“아 저 한 달 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자초지종 설명을 했다. 어차피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역시.. 치료의 성과군. 알았어요. 그러면 이별 식을 해야겠네.”

“이별 식이요?”

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 이별 식. 오늘을 제일 빠르게 해주지. 두 시간동안.”

“두 시간이요!?”

“허억... 허억...”

차라리 야근이 낫다. 두 시간동안이나 하니 몸이 녹초가 되었다.

“아 한석씨.”

관장님이 저지를 벗어나며 말한다. 계속 갈아입나 보다.

“소설 재밌던데?”

“감사합니다. 하하”

“잘 있어라. 권투장아. 하하하.”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었다. 길 한복판에서 이러니 쪽팔렸다. 마지막으로 붕어빵 좀 먹어야겠다.

“할머니 붕어빵 1000원 어치 주세요.”

“여기~ 다 팔 맞지? 맛있게 먹어.”

“안녕히 계세요.”

때옹

권투장 종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여긴가? 계단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도니 권투장이 있다. 오랜만에 차려 입었다.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은색 구두를 신었다. 한결같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푹푹.

“응~ 들어와.”

“관장님.”

“어? 한석씨 왔어? 두 달 만이네? 뭐야 한 달 있다 온다더니.”

“아 일이 좀 바빠져서요. 애들은 아직 안 왔어요?”

“아 애들 다 나갔어.

“네?”

“왜.”

“아...”

“한번 모아서 놀까?”

“그러죠 뭐...”

“아아아아악!”

“암마 내가...”

데자뷰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관장님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애들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나왔어~ 어휴..”

“여보 오셨어요?”

“응. 뭐 전화 온 거 있어?”

“이번에 소설 언제까지 줄 거냐고...”

“일주일 뒤에 준다해. 나 씻을게.”

좌아아. 따듯한 물이 잘 나온다. 한 달 전 공모전에서 김미영 팀장이 이겼다. 하지만 나중에 피노키오 로고가 피노키오 저작권 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재판장에 가고 회사도 잘렸다. 아주 썸통이지. 비록 지긴 했지만 그림에세이 제의가 들어왔다. 나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락을 했지만 힘들어 도중에 포기를 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고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에세이는 좀 부담스럽고 가볍게 웹툰은 어떠냐는 아내의 제안에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 계속 연재되고 있다. 황해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며 내 웹툰을 도와주고 있다. 그 중에 부장이 게이로 나오는 편은 가장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요즘은 소설 후속편을 쓰고 있는 중이다. 얼마 후면 마감일이다. 뭐 이 소설이 망해도 나는 상관없다. 한번 해보는 것이니. 다 씻고 나오니 침대 위에 그림과 팬이 올려져 있었다. 그렇다. 완벽하게 해내기 전까지는 그림도 아직 포기 못한다. 그리고 곧 애기도 태어난다. 따르릉 따르릉. 김미영 팀장이다. 전화 할 일이 없을 텐데.

“여보세요?”

“어~ 한석씨.”

말투가 다정하다.

“왜요.”

“혹시... 대출 안 필요해? 내가 아는 데가 완전 짱인데. 계좌만 알려주면...”

푹, 이런 전화는 받으면 안 돼. 김미영 팀장은 진짜 사기를 치나보다. 소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정도 속도면 마감을 할 수 있다.

일주일 뒤.

“여보... 소설이 잘 안 팔리는...”

“신라일보 광고부에 연락해!!”

“여보!!!”

“장난이야. 차차 잘 팔리겠지.”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진로실태 연구

지도교사: 손진근



이름: 최형서

한줄 후기: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알차게!

생년월일: 990924

취미: 잠자기

특기: 줄기

좋아하는거: 민트색, 부링클, 게임, LOVE

싫어하는거: 수업시간에 졸린거, 어디가야 될지 모르는거

마지막으로 할말:

잘자요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제천간디학교란?
 - 1) 제천간디학교의 교육철학
 - 2) 제천간디학교의 교육과정
 - 3) 제천간디학교의 역사
 - 4) 제천간디학교의 졸업생
2.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 1) 재학생 설문조사
3.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뷰
 - 1) 인터뷰 질문지 제작
 - 2) 졸업생 인터뷰 섭외 및 인터뷰일정 잡기
 - 3) 인터뷰진행
4. 인터뷰 내용정리 및 분석
 - 1)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진로 실태 분석
 - 2) 진로실태에 따른 제천간디학교와의 연관성

III. 결론

1.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2. 논문의 한계
3. 논문을 마치며...
4. Thanks to

첨부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나는 학교에 입학하고서 때때로 졸업생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궁금해 했었다.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삶을 알고 싶기도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이 될 나의 진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 했다.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졸업하고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평소에 막연히 내 속에서만 고민하던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항상 마냥 머릿속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졸업을 한 졸업생들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 알고 싶었고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졸업생들의 진로에 관해 논문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2. 논문의 목적

내 논문의 목적은 나와 우리학교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제천간디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조사된 진로실태와 우리학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졸업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진로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된 졸업생들의 진로와 우리학교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 할 것이다. 분석해 나온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학교 사람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에 도움이 되고 나를 비롯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연구 논문이다.

참고서적

- 흔들리며 피는 꽃 간디학교 /저자 /제천간디학교 저 /공리
-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김한성의 14인 저 /글담

참고사이트

제천간디학교 홈페이지 www.gandhischool.org/

취재와 인터뷰

제천 간디학교 졸업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를 파악 할 것 이다. 인터뷰 대상은 고등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한 03학번 졸업생들부터 07학번 졸업생까지 인터뷰를 할 것 이며, 가능한 많은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며 인터뷰한 자료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설문조사

-제천간디학교 재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진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논문으로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자신의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될지, 등을 설문해서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것 이다.

기타

- 학교 자료
- 학교 졸업생 자료

Ⅱ. 본론

1. 제천간디학교란?

제천간디학교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61(선고1리 92-3)에 위치한 비인가 대안학교, 즉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이다. 중고통합 6년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4년 현재 남녀 포함 약 12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교직원인 교장, 교과, 행정, 주방, 강사, 생활 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약 2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 학교를 꾸려가고 있다. 제천 간디학교에서는 매년 입학식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학교에 초대해 학교에 대해 설명하는 방문의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 방문의 날 행사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제천간디학교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제천간디학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간디의 불복종 정신으로 기존 교육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장교육을 중시하며 아울러 21세기의 화두인 생명과 평화 교육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인격적인 배려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또 학생들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위하여 인간적인 규모의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면서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로서 배움을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을의 살림살이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구체적으로 배운다. 배려와 돌봄, 평화와 생명의 가치들을 마을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치 마을을 만들어 가며, 세계와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게 한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 제천간디학교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성격이며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한 제천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교육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제천간디학교의 교육철학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을 교육의 원칙으로 두고 있다.

사랑과 자발성은 우리학교의 교육철학이자 교육원칙이다,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원칙을 바탕으로 철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빌며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은 누군가가 주입하거나 전달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자발성을 가질 때만 그 가치가 있다. 사랑과 자발성은 서로 의존적이다. 사랑에 기초한 교육은 결코 강요되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성을 전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배움과 가르침이 순수한 자발성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랑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제천간디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인적인 교육, 둘째 공동체적 교육, 셋째 자연친화적 교육이다.

먼저 전인적인 교육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머리와 몸과 마음이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지식교육, 감성교육, 몸으로 하는 체육이나 농사나 목공 등의 교육,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배워야만 조화롭고 온전하게 성장한다고 본다.

두 번째 공동체적 교육은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자치적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다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공동체 교육중 하나이며 우리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 가족회

1) 제천간디학교의 방문의 날 행사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학교의 기본적인 성격

의 등을 통해서 간디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공동체교육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아픔과 모순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희망이 된다.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자치적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다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공동체 교육중 하나이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가치를 나누고 실험하는 것이 공동체 교육이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까지 자연과 함께 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며 자연 안에서 자연을 아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우리학교에서 생태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연과 함께 배우는 것이 자연 친화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천간디학교는 방금 설명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꾸려 배움을 얻고 있다. 졸업생들 역시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6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철학 안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졸업생들의 진로와 우리학교의 연관성을 찾아볼 것이다.

2) 제천간디학교의 교육과정

다음으로 졸업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움의 중심이 되었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천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을 살펴 보기 위해 교육방향에 대해 가장 잘 설명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방문의 날 행사 자료를 참고했다.

2)먼저 우리학교에서는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내용이 유리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통합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와 내면적 욕구,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배움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자아와 인격이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교육이 있다 수업을 통해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 문화전체가 주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공동체 안의 생활 속에서도 배움 얻을 수 있으며 공장 시간, 생활관 생활, 동아리 활동, 주를 여는 시간, 움직이는 학교, 간디문화, 일상의 회의(가족회의, 생활관회의, 학년회의, 프로젝트 회의 등), 각종 만남(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등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한다.

다음은 자립과 체득의 교육이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릴 수 있는 기초적인 식의주(농사, 목공, 음식, 옷 만들기, 집짓기 등) 해결 능력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한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 더욱 심화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심화과정과 작업장이 있으며, 나아가 상생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 대안적 길 찾기 과정 등이 있다.

사회 참여를 통한 배움이 있다. 학교에서 수업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움직이는 학교(Moving School), 테마 답사여행, 문화체험, 봉사활동, 사회참여, NGO 체험, 공동체 체험, 인턴십 등이 있다.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학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꾸려진 교육과정이 졸업생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졸업생들의 진로와 우리학교와의 연관성을 알아볼 것이다.

3) 제천간디학교의 역사

제천간디학교의 역사는 1997년 3월 산청에서 27명의 학생들과 간디청소년학교를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리된 연혁을 보자면

- 3)1997년 3월 27명 학생을 맞아 간디청소년학교를 열다.
- 1998년 3월 중학교과정 신입생 19명 입학하다.
- 1999년 3월 제1회 졸업생 9명 졸업하고, 17명 입학하다.
- 2000년 2월 제2회 졸업생 13명 졸업하고, 17명 입학하다.
- 2001년 2월 제3회 졸업생 10명 졸업, 1명 수료, 3월 신입생 21명 입학하다.
- 2001년 6월 양희창 선생 2대 교장 취임하다.
- 2002년 2월 제4회 졸업생 15명이 졸업, 3월 신입생 23명이 입학하다
- 2002년 9월 제천시 덕산면으로 중학교 과정을 분리, 이전 하다
- 2003년 2월 제5회 졸업생 14명 졸업, 3월 신입생 26명 입학하다
- 2004년 2월 제6회 졸업생 14명 졸업, 3월 신입생 22명 입학하다
- 2005년 2월 제7회 졸업생 27명 졸업하다
- 2005년 3월 중고통합과정 신입생 24명 입학하다
- 2005년 9월 제천간디학교로 학교명을 바꾸다
- 2006년 2월 제8회 졸업생 20명 졸업하다
- 2006년 3월 중학교 신입생 24명, 고등과정 15명 편입학하다
- 2006년 5월 신축 생활관 착공하다
- 2007년 5월 신축 생활관 준공하다
- 2008년 3월 25명 입학하다
- 2008년 12월 제10회(고등1기) 고등과정 10명 졸업, 2명 수료하다
- 2009년 3월 22명 입학하다
- 2009년 12월 제11회(고등2기) 고등과정 16명 졸업하다
- 2010년 3월 22명 입학하다
- 2010년 12월 제12회(고등3기) 고등과정 17명 졸업하다
- 2011년 3월 21명 입학하다
- 2011년 12월 제13회(고등4기) 고등과정 13명 졸업, 1명 수료하다
- 2012년 3월 21명 입학하다
- 2012년 12월 제14회(고등5기) 고등과정 12명 졸업하다
- 2013년 3월 22명 입학하다
- 2013년 12월 제15회(고등6기) 고등과정 18명 졸업하다
- 2014년 3월 18명 입학하다

현재 제천간디학교는 2002년 산청에서 제천으로 중학교 과정을 이전하고서 12년이 흘렀으며 2005년 현재와 같이 중고등 통합과정이 되어 2008년 중고통합 과정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4) 제천간디학교의 졸업생

앞의 학교의 연혁을 보면 지금의 학교 과정과 같이 중, 고등 통합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들은 2008년 졸업한 03학번이 첫 번째로 2013년 졸업한 08학번까지이다. 03학번은 졸업 10명, 수료 2명으로 총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04학번은 총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05학번은 17명, 06학번은 졸업과 수료를 합쳐 14명, 07학번은 12명, 08학번은 18명 까지, 제천간디학교는 중, 고등 통합 이후 총 89명의 졸업생들 배출 했다. 지금의 학교과정이기 중, 고등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두 마친 학번을 조사 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 학생들과 학교와 좀 더 관련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08학번의 경우 졸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03학번부터 07학번까지의 졸업생들을 조사하기로 계획 했다.

학번	졸업생 인원
03	12
04	16
05	17
06	14
07	12
08	18
전체	89명

2.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내 논문의 목적과 함께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졸업생들과 같이 미래에 학교를 졸업하게 될 나를 포함한 제천간디학교 재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학생들이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논문으로 졸업생 실태가 궁금한지, 또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설문을 통하여 질문을 던져 보았다.

1) 재학생 설문조사

위에서 설명 했던 설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에게 돌렸다. 1학년에게 설문을 돌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학교에 들어 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1번 질문은 재학생들의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객관식으로 질문을 했으며, 2번 질문은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고 3번 질문에서는 내 논문으로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다.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2. 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3. 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아 설문지를 돌린 결과

2학년은 16명, 3학년은 20명, 4학년은 19명, 5학년은 14명, 6학년은 12명이 응답 했다.

먼저 2학년의 설문 결과다. (16명 응답)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 ① 매우 고민하고 있다-4명 ② 조금 고민된다-12명 ③ 별로 고민 되지 않는다.
④ 관심 없다. ⑤ 기타



2. 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 ① 매우 궁금하다-5명 ② 조금 궁금하다-11명 ③별로 궁금하지 않다. ④ 관심 없다. ⑤ 기타



3. 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① 많이 도움 될 것 같다-8명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7명
③ 별달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④ 관심 없다
⑤ 기타-1명

그 다음 3학년 설문 결과다.(20명 응답)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 ①매우 고민하고 있다-3명
② 조금 고민 된다-12명
③ 별로 고민 되지 않는다-3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1명



2.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 ① 매우 궁금하다-3명
② 조금 궁금하다-16명
③ 별로 궁금하지 않다-1명
④ 관심없다.
⑤ 기타

3.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① 많이 도움 될 것 같다-4명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12명



- ③ 별달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3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

그 다음 4학년 설문 결과다. (19명 응답)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① 매우 고민하고 있다-3명
 ② 조금 고민 된다-15명
 ③ 별로 고민 되지 않는다-1명
 ④ 관심없다
 ⑤ 기타



2. 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① 매우 궁금하다-5명
 ② 조금 궁금하다-11명
 ③ 별로 궁금하지 않다-1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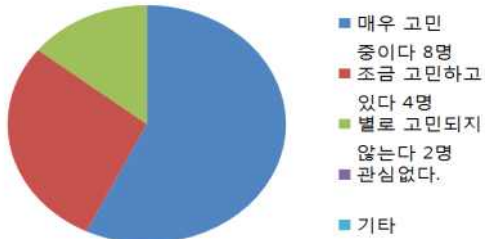


3. 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① 많이 도움 될 것 같다-2명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14명
 ③ 별달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1명
 ④ 관심없다-2명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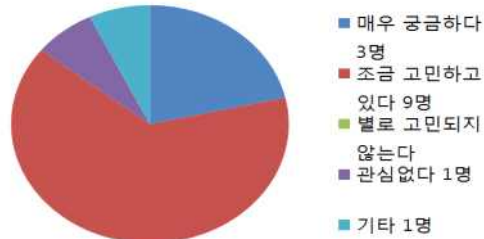
그 다음 5학년 설문 결과다. (14명 응답)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① 매우 고민하고 있다-8명 ② 조금 고민 된다-4명 ③ 별로 고민 되지 않는다-2명
 ④ 관심없다 ⑤ 기타

5학년 설문결과 - 1번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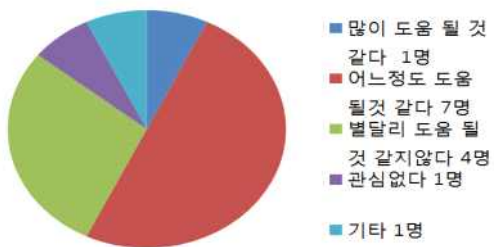
5학년 설문결과 - 2번질문



2. 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 ① 매우 궁금하다-3명 ② 조금 궁금하다-9명 ③ 별로 궁금하지 않다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1명

5학년 설문결과 - 3번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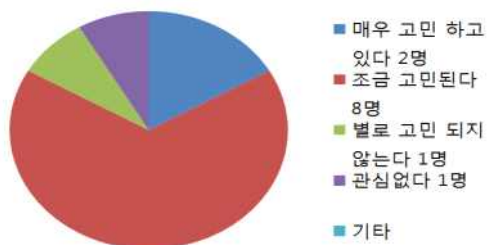


3. 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① 많이 도움 될 것 같다-2명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7명
③ 별달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4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1명

그 다음 6학년 설문 결과다. (12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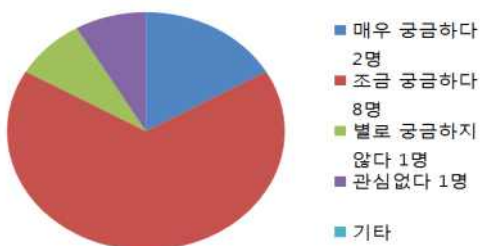
6학년 설문결과 - 1번질문



1.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 ① 매우 고민하고 있다-7명
② 조금 고민 된다-3명
③ 별로 고민 되지 않는다-1명
④ 관심없다
⑤ 기타 1명

6학년 설문결과 - 2번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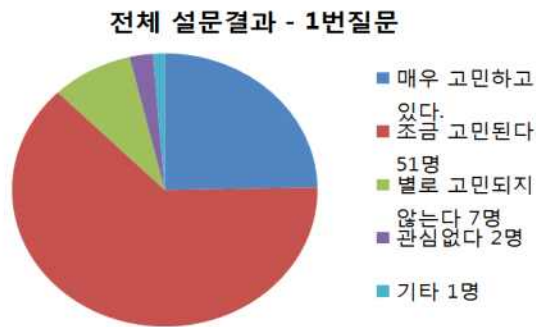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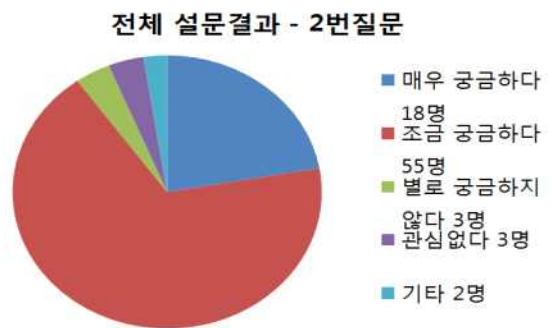


2. 혹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실태(졸업 후 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 ① 매우 궁금하다-2명
② 조금 궁금하다-8명
③ 별로 궁금하지 않다-1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

3. 만약 제 논문을 통해 졸업생 진로 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① 많이 도움 될 것 같다-4명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5명
③ 별달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2명
④ 관심없다-1명
⑤ 기타



학생 응답자 중에서 30% 정도의 학생들이 진로고민을 매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55% 정도의 학생들이 조금씩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5% 정도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각자마다 조금씩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생 진로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번 질문의 답변자들을 보면 진로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 정도 되고 55%의 학생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2% 학생들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로실태가 파악이 된다면 자신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한 나의 결론은 우리학교 대부분의 학생들도 진로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학년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학년에서 진로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논문으로 쓸 내용이 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3.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뷰

졸업생들의 진로실태를 알아보고 졸업생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졸업생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월 14일 방학부터 8월22일 입교 전 방학 기간 동안 졸업생들과 인터뷰를하기로 계획했다. 중, 고등 통합 후에 졸업을 한 03학년부터 07학번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08학번은 졸업을 하고서 현재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학번에 비해 졸업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고 08학번은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적인 방학계획은 방학초반 인터뷰 일정을 잡고 방학 중, 후반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인터뷰는 대체로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인터뷰와 만나지 않고 메일로 질문지를 주고받는 메일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대면인터뷰와 메일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는 논문에 쓰이기 위해서는 인터뷰의 내용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생각 했고 음성이나 글로서 기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인터뷰를 하며 녹음을 할 수 있는 대면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문서로 기록될 수 있는 메일을 택하게 되었다.

1) 인터뷰 질문지 제작

인터뷰 질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졸업 후의 진로 과정, 현재 희망진로, 졸업 후 걱정 되었던 점, 졸업 전과 졸업 후의 진로 변화, 진로에 미친 우리학교의 영향 등이 중심으로 질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각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졸업생 진로 현황은 졸업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지 에 대해 묻는 질문의 주제이다. 그 다음 졸업 후의 진로 과정은 졸업생들의 졸업 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왜 그렇게 지내오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의 주제이다. 그리고 현재 희망 진로는 말 그대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앞의 세 질문이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이 질문으로 졸업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졸업 후 걱정되었던 점은 우리학교를 졸업을 하고 걱정되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이 질문에서 졸업 후의 걱정되었던 점이 우리학교를 졸업했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졸업 전과 졸업 후의 진로 변화에서는 졸업 전 학교에서와 졸업 후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의 방향은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우리학교가 진로 방향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진로에 미친 우리학교의 영향은 우리학교가 현재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방금 설명한 질문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을 할 것이다.

2) 졸업생 인터뷰 섭외 및 인터뷰일정 잡기

인터뷰를 잡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먼저 우리학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이용하는 sns를 이용하여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학교에서 졸업생 명단을 받아 안면이 있는 졸업생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 했다. 그리고 sns로 연락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은 학교 졸업생 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과 문자로 연락을 시도 했다. 7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2주간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을 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연락이 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인터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고 각각 다른 지역에 다른 시간에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장거리에서도 인터넷으로 인터뷰가 가능한 메일 인터뷰를 많이 활용했다.

3) 인터뷰진행

7월 13일 방학을 하고서 2주 동안 03학번부터 06학번까지 연락을 한 결과 24명이 인터뷰하기로 계획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면 인터뷰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메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계획 했다. 이 후에도 방학기간 동안 계속해서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했고 4주차에는 총 32명이 인터뷰 연락이 되었고 6명을 대면 인터뷰를 했으며 14명이 메일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 8월 22일 입교 전까지 03학번부터 07학번까지 총 36명이 연락 되었으며 8명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26명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메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메일 인터뷰가 힘든 2명의 졸업생들은 기타 메신저나 sns 채팅을 이용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용한 질문을 보자면

1. 졸업 후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현재 그렇게 지내게 된 계기/이유)
2. 체천간디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3.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4. 과거 학교생활을 할 당시에 희망했던 진로가 있었나요?
5. 졸업 전 희망진로와 졸업 후 진로는 은 어떤가요? 변화가 있다면 이유는?
6. 6년간의 학교생활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끼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가요?
7. 6년간의 학교 교육과정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끼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현재 또는 앞으로 자신에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총 8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 했다. 질문들 가운데 졸업생들의 진로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후 인터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대면 인터뷰 시간은 보통 짧으면 20분에서 길면 1시간 까지 진행했다. 질문에 따른 답변시간은 평균적으로 20~30분 정도였지만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인터뷰 분위기를 편안하게 잡아가며 진행했기 때문에 총 인터뷰 시간은 답변 시간에 비해 조금 더 걸린 편이다.

4. 인터뷰 내용정리 및 분석

표 1

인터뷰 방식	인원	학번	인원
대면 인터뷰	8명	03학번	6명
메일 인터뷰	26명	04학번	9명
기타 메신저 및 sns	2명	05학번	9명
		06학번	9명
전체	36명	07학번	3명

방학기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총 71명의 졸업생들 중 36명의 졸업생을 인터뷰 완료했다. 전체 36명 중 8명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면인터뷰를 진행했고 26명이 메일로 질문지를 주고받는 메일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기타 메신저나 sns 채팅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했다. 학번 별로 인터뷰한 인원은 03학번 6명, 04학번 9명, 05학번 9명 06학번 9명, 07학번 3명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들은 문서로 기록하고 정리하였고 정리되어 있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와 우리학교와의 연관성을 찾을 것이다.

인터뷰 분석은 졸업생들의 현재 진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1번 질문의 인터뷰 답변을 정리해서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희망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질문한 3번 질문의 답변, 그리고 졸업생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6번,7번 질문을 통해 우리학교와 졸업생들의 진로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한 8번 질문을 통해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진로 실태 분석

먼저 1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현재 진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나눠 통계를 구하고 또 각 직업의 분야별로 나눠 통계를 구하고 인터뷰 질문에서 답변들을 정리해 각 통계의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할 것이다.

표 2

1번 질문 졸업 후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현재 진로 상황		현재 진로 상황
	1	대학생	19	대학생
	2	대안 대학 재학	20	대학생
	3	유학 준비	21	대학생
	4	사회적 기업 직원	22	대학생
	5	대학생	23	제빵 관련 업종
	6	공무원	24	군대
	7	카페직원	25	시민 단체
	8	아르바이트	26	대학생

	9	대학생	27	입시
	10	직장인	28	대학생
	11	커피 관련 업종	29	요리 공부
	12	서비스업	30	군대
	13	공연스텝	31	농사
	14	게임 기획	32	군대
	15	사회적 기업 직원	33	음악 관련 활동
	16	대학생	34	입시
	17	대학생	35	휴식기간
	18	대학생	36	판소리공부

위의 표는 1번 질문 현재 진로 현황에 대한 질문의 현재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의 답을 정리해 놓은 표이다. 위의 표를 보면 총 36명의 졸업생 중 대학생 12명, 직장인 10명, 군대 3명, 관심 분야 공부 2명, 입시 2명, 유학준비 1명, 단체 활동 1명, 대안대학재학 1명, 아르바이트 1명, 진로모색 1명으로 보인다.

표 3

진로 상황	인원	비율	진로 상황	진로 상황	인원	비율
대학생	12	33%	진로 관련 공부	대학생 / 관심 분야 공부 / 대안대학재학 /	15명	42%
직장인	10	27%				
군대	3	8%				
음악관련 활동	2	5%	직업 종사	직장인 / 음악 관련 활동 / 단체 활동	13명	36%
관심분야 공부	2	5%				
입시	2	5%				
유학준비	1	2%	진로 관련 공부 준비	입시 / 유학 준비 / 아르바이트	4명	10%
아르바이트	1	2%				
단체 활동	1	2%				
대안대학재학	1	2%	군대	군대	3명	8%
진로 모색	1	2%	진로 모색	진로모색	1명	2%

통계 결과를 보면 어떠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있는 졸업생이 대학생과 관심분야공부, 대안대학재학을 합쳐 모두 14명이다.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인원이 전체 인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직장인과 음악 관련 활동, 단체 활동을 합쳐 모두 13명이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은 전체인원의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떠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입시, 유학준비, 아르바이트를 합쳐 4명 정도이다. 아르바이트가 진로 관련 공부 준비에 해당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졸업생이 진로 관련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경우는 군대에 복역 중인 3명과, 진로모색 1명으로 전체에 비해 적은 수의 졸업생들이 답했다.

다음으로 졸업생들이 왜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진로 선택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4

	진로상황	진로선택이유
1	대학생	제천간디학교에서 경험 위주의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지식 습득과 학업에 대한 욕구가 생겨
2	대안대학 재학	우리학교를 나온 이상 대학을 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데 졸업 후에도 배움은 얻고 싶어서
3	유학 준비	졸업 후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갯벌관련단체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고 싶어서.
4	사회적 기업 직원	인턴십으로 알게 된 문화예술사회적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원했다.
5	대학생	졸업 후 진로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6	공무원	군대에 가서 행정을 하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됨
7	카페직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적성에 맞아 일을 계속하게 됨
8	아르바이트	공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일하게 되었다.
9	대학생	졸업 후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	직장인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 좋은 먹을거리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1	커피 관련 업종	졸업 전 교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12	서비스업	돈을 마련할 수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회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었다.
13	공연스텝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과 개인적인 스펙 쌓기의 일환
14	게임 기획	좋아하는 일
15	사회적 기업 직원	졸업 전부터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창업 관련해서 경험을 쌓는 중이다.
16	대학생	봉사를 하고 싶었고 도움이 필요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7	대학생	예전부터 희망하던 진로와 관련된 공부라 시작했다.
18	대학생	내가 하고 싶은 공부랑 맞았고 내가 생각했던 진로와 잘 맞아서 선택했다.
19	대학생	국제 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된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 대학교에 입학했다.
20	대학생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1	대학생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흠집을 배우다가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2	대학생	이 나라와 세상 전체가 모순적이고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과, 배운 것을 활용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학을 간 것이다.
23	제빵 관련 업종	입대 전 덕산 누리카페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였고 이제는 타 지역이 아닌 울산지역에서 자리 잡고자 일을 시작하였다.
24	군대	의무라서
25	시민 단체	원래 시민단체 일을 하려고 했었고 인턴십 때 청소년 인권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26	대학생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니 자연스레 대학을 찾게 되었다.
27	입시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을 결정
28	대학생	원래 꿈이었던 의사공부를 중국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9	요리 공부	학교 다닐 때부터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관련 재단을 알게 되어서 하게 되었다.
30	군대	검정고시를 치른 후 유학준비를 하였고 21살 초반에 미국에 갈 예정이었으나 군대 제대 후 가는 것으로 미루고 군인이 되었다.
31	농사	졸업 후에 음악과 농부사이에서 고민을 했지만 제 꿈이 농부가 되는 것이라 부모님과 유기농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32	군대	의무라서
33	음악 관련 활동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음악과 드럼을 하고 싶었고 졸업 후 예도 지속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었다.
34	입시	졸업 후 하고 싶은 공부, 해야 하는 공부가 생겼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진학 선택했다.
35	휴식기간	졸업 후에 마음공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밴드와 함께 마음공부를 접하다가 올 5월부터는 완전히 정토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휴식 기간을 가지는 중이다.
36	관소리공부	졸업 전에 관심이 있었고, 졸업 후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

전체적인 인터뷰 결과를 보면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36%의 졸업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느 한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졸업생들 중 76%의 졸업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춰 진로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24%졸업생들은 차후 진로를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42%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졸업생들 모두는 자신이 관심이 있고 차후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현재 8%의 졸업생들이 군대에 복역 중이고 이 외의 10%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2%의 졸업생들이 진로모색을 하고 있다.

4번 표에서 한 가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졸업생들의 진로 선택이 졸업 후의 경험이나 변화로 진로 선택을 하게 된 경우와 졸업 전의 관심분야나 진로에 대한 선택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우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에서 졸업 전의 희망진로에 대해서 묻는 질문과 졸업 전과 졸업 후의 희망진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살펴보았다,

표 5

	졸업 전 희망진로	졸업 후 진로 변화
1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진로였다.	없음
2	국제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없음
3	기자	기자에서 자연, 갯벌 관련활동가로 바뀌었다.
4	뚜렷한 한가지의 방향, 목표, 진로는 없었다.	없음
5	크게 진로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없음
6	없음	없음
7	춤에 관심이 있어서 춤으로 진로를 생각 했다.	춤에서 커피관련 일로 바뀌었다.
8	독립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다.	없음
9	없음	없음
10	음식 관련 일	없음
11	커피 관련 일	없음
12	대부분 음악과 관련	없음
13	음악 관련한 일	없음
14	펀드매니저	없음
15	없음	없음
16	도움을 주는 삶	없음
17	유아교육	없음
18	방송	없음
19	국제 분쟁 문제와 관련한 삶을 살고 싶었다.	없음
20	음악 관련	관심 분야가 일이 되자 힘들어져 그만두게 되었다.
21	환경보호	없음
22	사회 운동	없음

23	제빵	없음
24	없음	없음
25	시민단체	없음
26	사진작가	없음
27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번역을 해보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	없음
28	어렵קות이 밀그림 정도는 그리고 있었던 것	없음
29	요리 쪽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	없음
30	없음	없음
31	두 가지 진로에서 고민 했다.	없음
32	컴퓨터 관련	없음
33	음악을 하겠다. 고민을 하고 결정 내린 적은 없다. 좋아하는 일이었을 뿐.	없음
34	홀러 가는대로 생각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음.	없음
35	졸업쯤에는 밴드에 재미 붙여 밴드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	없음
36	판소리	없음

위의 표를 보면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36명의 33명이었다. 진로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만 본다면 졸업생들이 졸업 후의 경험에 따라 진로가 결정된 경우는 적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진로에 변화가 없다고 답한 33명중 1,4,5,6,9,15,24,33,34번, 총 10명은 졸업 전 자신이 정한 진로 방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진로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경우와 진로에 변화는 없지만 졸업 전 자신이 정한 진로 방향이 없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36%정도 이고 졸업 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진로를 졸업 후에도 진행시킨 경우는 전체의 약 64%정도이다. 이 결과로 졸업생들 중 졸업 후의 경험이나 변화로 현재의 진로를 선택한 경우는 졸업 전의 희망진로를 졸업 후에 진행시킨 경우보다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보면 졸업생들 중 졸업 후에 정해지거나 진로가 변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졸업 후의 경험도 졸업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졸업 전 희망진로가 졸업 후에 변화한 경우보다 변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 희망진로에 대한 선택이 졸업 후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번과 4번 표에서 또 한 가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기 보다는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등 각 분야의 직업으로 진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난 이것이 졸업 후의 시간의 차이라고 판단했다. 첫 고등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03학번 졸업을 하고 현재까지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07학번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 지금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 학번 별로 졸업 후의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나는 현재 진로의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진로 상황을 학번별로 나눠봤다.

표 6

03 학번	대학생	04 학번	카페직원	05 학번	대학생	06 학번	시민 단체
	대안대학 재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대학생
	유학 준비		대학생		대학생		입시
	사회적 기업 직원		직장인		군대		대학생
	대학생		커피 관련 업종		대학생		요리 공부

	공무원		서비스업		대학생		군대
			공연스텝		대학생		농사
			게임 기획		대학생		제빵 관련 업종
			사회적 기업 직원		제빵 관련 업종		음악 관련 활동
07 학번	음악 관련 활동						
	입시						
	판소리공부						

6번 표를 보면 03학번은 약 30%의 졸업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고 있으며 04학번은 80%의 졸업생들이 직업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05학번은 약 10%의 졸업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06학번은 40%의 졸업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보아서는 현재의 진로의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 시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04학번과 05학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05학번이 대부분의 진로 상황이 장기간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특성상 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로 진로 상황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학번 별로 차이는 있지만 같은 학번 안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학번에 상관없이 다른 학번끼리 개개인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졸업 후 지낸 시간이 많고 적고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졸업생 개개인의 진로 과정의 차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05학번의 비율을 보았을 때 장기간 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 진로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 역시 졸업생이 택한 진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진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비교적 적은 이유는 개개인이 선택한 진로를 꾸리는 방법의 차이와 진로과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어느 분야의 일을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휴식기 표 7

	현재 진로 상황	진로 분야			
1	대학생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9	대학생	국제 분쟁 문제
2	대안 대학 재학	청년교육협동조합	20	대학생	영어영문학
3	유학 준비	자연, 갯벌 관련	21	대학생	건축학
4	사회적 기업 직원	문화예술사회적기업	22	대학생	자율전공학부 (철학과 사회학 공부)
5	대학생	심리학과 (유학)	23	제빵관련 업종	제빵 관련
6	공무원	공무원	24	군대	군대
7	카페직원	커피 관련	25	시민 단체	청소년 인권 단체
8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26	대학생	사회복지과
9	대학생	사회복지과	27	입시	외국어 공부
10	직장인	음식 관련	28	대학생	중의학 (유학)
11	커피 관련 업종	커피 관련	29	요리 공부	요리관련
12	서비스업	보안 서비스업	30	군대	군대
13	공연스텝	문화 공연 스텝	31	농사	농사
14	게임 기획	게임 기획 관련	32	군대	군대
15	사회적 기업 직원	문화예술사회적기업	33	음악관련 활동	음악 관련
16	대학생	사회복지과	34	입시	사회학
17	대학생	상담심리학	35	휴식기간	-
18	대학생	예술경영과	36	판소리공부	음악 관련

간이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졸업생들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표 8

분야	비율	분야	비율
사회복지 관련	8%,	예술경영	2%,
외국어 관련	8%,	공무원	2%
군대	8%,	인권관련	2%,
음악관련	5%,	제빵관련	2%,
문화 예술	2%,	국제 분쟁 문제	2%
요리/음식관련	8%,	게임관련	2%
심리학 관련	5%,	농업	2%
서비스업	2%	갯벌관련	2%
사회학	5%	대안대학	2%
중의학	2%,		

각 분야 별로 정리 해본 결과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8%, 외국어 관련8%, 군대8%, 음악관련5%, 문화 예술2%, 요리/음식관련8%, 심리학 관련 5%, 서비스업2% 사회학5% 중의학2%, 예술경영2%, 공무원2% 인권관련2%, 제빵관련2%, 국제 분쟁 문제2% 게임관련2% 농업2% 갯벌관련2% 대안대학 2% 이를 보면 졸업생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 되는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과정으로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졸업생들이 답한 진로 선택 이유를 보면 일부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선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졸업생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졸업생 모두는 각각 다른 분야의 진로를 택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역하는 중인 졸업생을 제외한 졸업생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위해 현재의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학교에서 추구하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원칙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들었다.

방금 전의 경우처럼 우리학교와 졸업생들의 진로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졸업생 진로에 우리학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2) 진로실태에 따른 제천간디학교와의 연관성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와 우리학교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졸업생들의 진로에 우리학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졸업생들의 진로와 우리학교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을 나누어 우리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나누기로 했다.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설명된 우리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우리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향이나 교육과정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았다.

4) 1. 자립 교육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간디학교에서는 자립 기초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여 중학 과정에서 모두 경험하게 하고 고등 과정에서는 작업장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험을 가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릴 수 있는 기초적인 식의주(농사, 목공, 음식, 옷 만들기, 집짓기 등) 해결 능력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한다.

2. 삶과 하나 되는 교육

수업을 통해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 학교의 문화전체가 주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공장 시간, 생활관생활, 동아리 활동, 주를 여는 시간, 움직이는 학교, 간디문화, 일상의 회의(가족 회의, 생활관회의, 학년회의, 프로젝트 회의 등), 각종 만남(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등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한다.

3. 자기 주도적 교육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우기 위해 중등에서는 주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 학습이 이루어지고, 필수 교과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중등 과정의 마지막인 3학년 때 쓰게 되는 논문 역시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운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키우기 위해 학생 본인이 계획하여 학습할 수 있고 중고등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 수업과 인문학 훈련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

학교에서 수업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고등과정의 움직이는 학교(Moving School), 테마 답사여행, 문화체험, 봉사활동, 사회참여, NGO 체험, 공동체 체험, 인턴십 등이 있다.

5. 공동체적 교육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자치적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다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공동체 교육중 하나이며 우리학교에서는 중등과정인 주제 프로젝트에서의 협동을 비롯하여 기숙사 생활, 가족회의 등을 통해서 간디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공동체교육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아픔과 모순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희망이 된다.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자치적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다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공동체 교육중 하나이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가치를 나누고 실험하는 것이 공동체 교육이다.

6. 자연친화적 교육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까지 자연과 함께 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며 자연 안에서 자연을 아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학교에서 생태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연과 함께 배우는 것이 자연 친화적 교육이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농사, 등산, 자연 관련 수업, 생태체험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보았다. 이 여섯 가지의 기준에 따라 졸업생들의 답변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에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 분석 할 질문의 답은 6번 질문인 현재 졸업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와 진로의 방향에 대한 질문의 답을 통해 우리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받았는지를 분석 할 것이며 7번과 8번 질문인 졸업생들이 생각 했을 때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학교생활에서의 영향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영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석 할 것이다.

먼저 졸업생들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희망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질문의 답이 정리 된 표를 살펴보았다. 졸업생들의 희망진로와 진로방향을 앞에 설명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나눠 우리학교의 어떠한 교육과정이 졸업생들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표 9

	희망 진로	방향
1	외교전문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분쟁지역 활동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에서 활동 할 것이다.
3	자연, 갯벌 관련 활동가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의 최상위 목표로 만들어 활동할 것이다.
4	예술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5	놀이치료사 (유아상담치료사)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6	군청공무원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싶다.
7	커피관련 직종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8	고민 중	나는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를 알아가는 중이다.
9	사회복지사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내가 목표하는 것이다
10	요리 관련 직종	앞으로 학문적인 부분의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다.
11	카페컨설팅 회사 창업	전국의 학생, 대학생들 에게 커피교육과 직업적인 측면을 떠나 여가생활의 중요한 커피를 올바르게 의미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2	현장기능직	진정 좋아하고 즐거운 그 느낌을 직업으로 받아드려 일의 스트레스를 주며 하기 에는 정말 좋은 그 감정이 가려질 거 같아서 일 따로 좋아하는 것 따로 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13	문화 예술 활동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 예술 활동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공연하고, 기획하면서.
14	게임기획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15	많은 경험	여러 가지를 즐기고 싶고 체험을 더 하고 싶다.
16	아동 복지	지금 당장은 전국재단에 들어가서 국내 아동과 해외 아동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17	아동심리치료사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18	예술관련 사업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싶다.
19	분쟁지역 활동가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다.
20	통역사	통역사가 나의 많고 많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다.
21	공공건축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도리를 실천하는 건축을 하고 싶다.
22	법조인	사회변혁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23	제빵 관련 업종	빵에 대한 2가지 길에서 고민 중입니다.
24	극단	극단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25	시민단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관련 일을 십년쯤 하다가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귀찮아서 살려고 한다.
26	사진심리치료사	좋아하는 일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고, 관심 있는 일은 사람의 심리였어요. 이 두 가지 섞여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27	외국어 공부	일본과 일본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더 공부하고, 번역에도 관심이 있다.
28	의사	의학기술을 가지고 해외봉사단에서 활동 하고 싶다.
29	요리 관련 직종	나의 최종목표는 내가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을 차리는 것이다
30	여행, 관광 관련 일	여행이나 관광에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다.
31	농부	농사지으며 자급자족도하고 노래도 부르며 재미나게 살고 싶다.
32	컴퓨터 관련 업종	컴퓨터 관련 업종
33	음악 활동	지금 하고 있는 음악 더 열심히 하고 내 음악도 만들고 음반도 내고 바쁘게 활동하며 살고 싶다.
34	사회운동	사회운동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35	음악 활동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
36	판소리 공부	판소리를 계속 배우고 싶다.

졸업생들의 희망진로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진로와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진로와 진로방향을 통해 우리학교의 영향성을 분석한 결과는 순전히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철학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특정한 한 가지 기준에 맞춰 구분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졸업생들의 희망진로와 진로방향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나눠 분석하는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희망진로와 진로 방향으로 우리학교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한 자료는 논문의 맨 마지막에 첨부하였다.

그래서 희망진로와 진로방향을 조사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진로실태를 조사한 부분과 연계하여 졸업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 역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직업들을 희망하고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 국한 되는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희망 진로의 분야를 살펴보면 아직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의 분야를 정하지 못한 졸업생이 2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분야	비율	분야	비율
예술 관련	19%,	사회운동 관련	2%,
국제 분쟁 문제	5%,	제빵 관련 진로	2%
요리 관련	5%,	법조계 관련	2%,
심리 치료	8%,	건축 관련	2%,
컴퓨터 진로	2%,	통역 관련	2%
농업 진로	2%,	아동 복지 관련	2%
여행/ 관광 진로	2%,	게임 관련	2%
의학 관련	2%	현장기능직	2%
외국어 관련	2%	창업 관련	2%
인권 관련	2%,	사회복지 관련	2%

커피관련	2%	공무원	2%
외교 관련	2%	자연/ 갯벌 관련	2%

나머지 졸업생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예술에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는 졸업생은 7명이었으며 국제분쟁문제에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는 졸업생 2명, 요리 관련 2명, 심리치료 관련 3명 이외에도 컴퓨터 진로, 농업 진로, 여행, 관광 진로, 의학 관련, 외국어 관련, 인권 관련, 사회운동 관련, 제빵 관련 진로, 법조계 관련, 건축 관련, 통역 관련, 아동 복지 관련, 게임 관련, 현장기능직, 창업 관련, 사회복지 관련, 커피관련, 공무원, 외교 관련, 자연, 갯벌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예술분야가 19%로 비교적 많지만 예술 분야 안에서도 음악, 연극, 예술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의 현재 진로 상황의 결과 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졸업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진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의 결과와 진로 방향을 봤을 때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한가지의 분야에 국한 되는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졸업생들의 희망진로로 우리학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택한 방법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본인 생각하기에 자신의 진로에 학교의 어떤 부분이 또 어떠한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진로에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먼저 학교생활에서 현재 자신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문한 7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다.

표 11

	학교생활	이유
1	해외체험학습	당시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생활전체	간디에서의 생활이 내 청소년기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3	책을 읽는 것	간디에서는 지금의 진로인 자연과 관련된 게 없었다.
4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들	지금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5	인턴십	지금의 진로를 꾸리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된다.
6	없음	없음
7	학교 철학	지금의 일을 할 때도 돈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많은 것 같다.
8	생활 전체	내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감을 준 것 같다.
9	학교 철학	나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10	생태적인 교육	음식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좋은 먹거리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건 학교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11	교사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가르침을 받았다.
12	사회에 나가 현장을 봐 온 것	우린 계속 밖에 나가 현장을 봐왔고, 많은 활동들을 했었기에 어디에 가든 쉽게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13	밴드 부 활동	밴드 부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14	경쟁 보다는 협동	학교의 교육, 그리고 6년간 생활하면서 얻은 것들이 사회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5	학교철학	대안적 삶이 라던가 대안적 소비 같은 것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16	친구들과 논 것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같다.
17	전체적인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을 통해 한 여러 가지 경험	전체적인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자신의 대해 알아갔던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18	남들이 안하는 걸 많이 해본 것	남들이 안하는 걸 많이 해본 게 가장 큰 것 같다.
19	학교에서의 프로그램들	학교에서의 프로그램들로 꿈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20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수많은 영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1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고 다른 생명들과 소통하는 관점을 중시했던 교육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고 다른 생명들과 소통하는 관점을 중시했던 교육이 영향을 주었다.
22	다른 시각을 제공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23	교육과정 전부	내 꿈을 위한 공부 하는 것이 그런 공부를 찾아가고 맞추어가는 과정 전부가 꿈의 기반이 된 것 같다
24	인턴십	‘노플’이라는 극단을 알게 해준 것이다.
25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대안학교생활에선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분노하고 내가 할일이 뭘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26	생활전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 생활에서 생각까지.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특정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27	대안학교를 나왔다는 것	대안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안대학과 사회현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28	다양한 활동	다양한 것들을 하며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했던 것 같다.
29	자연 친화적 교육	농사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환경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농사를 지어서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30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31	농사를 지어 본 것	도시에서 머리 굴리는 법만 파고들었다면 농사는 영원히 교과서 속 한 장면으로만 인식했을 것이고 중요한지도 몰랐을 것이다.
32	없음	없음
33	수업	쌤 한분이 하신 수업 때문에 제가 음악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좋아 하는 취향이 많이 형성 됐다고 볼 수 있다.
34	전체적인 학교생활	6년 동안 생활을 하고, 학교운영 (수업, 동아리, 그 외 활동 등)도 어떤 철학에 의해 만들어지고 짜이기 때문에, 계속 접하다 보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5	대학진학여부	공교육속에서 공부만 했으면 지금쯤 적당한 과를 잡아 대학에 갔을 텐데, 일단 대학을 안 갔다는 것이다.
36	생활	공동체 생활로 다져진 생활력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7번 질문의 답변의 결과를 보면 35번 답변은 학교의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 자신이 영향을 받은 부분을 답했기 때문에 다른 답변들과 함께 분석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제외했다.

표 12

학교생활	번호	인원	비율
교육과정에 관련한 영향	1,5,10,12,23,24,29,30,33	9	25%
전체적인 학교생활에서의 영향	2,8,17,26,34,36	6	17%
학교 철학에 관련한 영향	7,9,14,15,16,21	6	17%
학교에서 한 다양한 경험이나 프로그램의 영향	4,13,17,18,19,28,31	7	20%
기타	22,11,27,3,20,25	5	14%
영향 없음	32,6	2	5%

이외 다른 답변들을 보면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답변은

1,5,10,12,23,24,29,30,33번에서 나왔고 총 인원은 9명이었다. 전체적인 학교생활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은 2,8,17,26,34,36번에서 나왔고 총 인원은 6명이었다. 학교 철학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은 7,9,14,15,16,21번으로 총 인원은 5명이었다. 학교에서 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은 4,13,17,18,19,28,31번에서 나왔고 총 인원은 7명이다. 학교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 답변은 25번에서 나왔고 이 외에 기타로 22번, 학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다는 답변과 11번 학교 교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학교가 대안학교라 진로와 관련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27번에서 나왔다. 책을 읽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답변은 3번에서 있었고 20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수많은 영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학교생활에서 현재 자신의 진로에 영향이 없었다고 답한 경우는 32번과 6번에서 나왔다.

7번 질문의 답변을 정리 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과정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경우가 20% 정도이며 전체적인 학교생활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경우가 17%, 학교 철학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17% 정도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각각 답한 기타경우가 14%정도가 있다. 학교생활이 지금의 진로와 관련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5%정도였다.

이 결과를 보면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전체적인 학교생활과 학교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별로 영향을 받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교안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은 정도의 차이가 큰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들의 진로에 학교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다음으로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졸업생들의 진로에 어떠한 교육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8번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해 살펴보았다.

표 13

	교육과정	이유
1	해외체험학습 인턴십	세상에는 무척 다양한 문화권과 사람들, 생활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보다 넓은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	인턴십 해외체험학습	산간지역이나 분쟁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평화학교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이다.
3	인턴십	
4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영향을 주었다.
5	인턴십 개인무빙	밖에 나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도 많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6	없음	학교에서의 생활이 일상 속에 배여 있긴 하지만 지금의 진로와는 관련이 없다.
7	없음	
8	학 교 전 체 와 선생님	학교공간과 선생님들에게서 받은 에너지가 영향이 컸다.
9	동아리 활동	나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과정이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
10	인턴십 개인 무빙	밖으로 나가서 용기도 내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단체도 찾아가본 것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11	개인 무빙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은 일에 아무생각 없이 도전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부분이다.
12	논문 인턴십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뭔가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영향을 주었다.
13	동아리	동아리가 제일 재밌었고,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4	동아리 인턴십	여러 가지 지원금, 행사 등 운영적인 부분 리더쉽 등 동아리를 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쌓은 듯하다.
15	없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기 때문이다.
16	철학 수업 학교 전체	철학수업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계속 생각하게 했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진로가 더욱 더 뚜렷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
17	개인 무빙	현장을 경험해 보면서 희망하던 진로의 대한 확신이 생겼다.
18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19	인턴십	인턴십에서의 경험은 책으로 읽는 것과는 다른 감동을 주었고 보다 더 실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20		‘어느 한 가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없다. 세상엔 수많은 다양한 선택들이 있다.’를 가르쳐 준 것 같다
21	인턴십 인문학 캠프	인턴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었고 인문학캠프에서 그를 위한 지식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앞일을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2	학생회	학생회장 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다.
23	학교 전체 교사	몇 가지라기보다 학교 전체가 진로에 영향력이 있다. 그래도 학생들을 품어주신 선생님들 덕에 더 많은 공부와 삶의 지혜가 생긴 것 같다.

24	인턴십	인턴십으로 극단에 간 것이 인연을 맺게 해줬다.
25	개인 무빙 인턴십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6	학교생활	좋아하는 일을 인정받으면서 한 것이 저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내가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삶이 혼합되어서 내 꿈이 생겼다.
27	개인 무빙 인턴십	무빙스쿨이나 인턴십에서 만난 단체와 사람들이 많이 인상 깊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영향을 주었다.
28	인턴십	졸업하기 바로 직전 활동이고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기획해본 인턴십이었기 때문이다.
29	농사수업 환경 프로젝트	농사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에서 환경을 선택하게 되어서 지금의 최종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다,
30	논문 인턴십	제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했었기에 제가 원하는 직업을 미리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31	논문	자신이 책을 찾아서 읽고 거기서 발췌도 하며 뱃속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
32	없음	
33	동아리	밴드 동아리에서 밴드를 한 것이다.
34	인턴십 인문학 캠프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살아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35	농사수업	농사수업에서 생태, 평화에 대해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36	학교전체	6년 동안의 과정은 지금의 나와 내 생각들의 절반 이상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표 14

교육과정	답변 인원 (46개의 답변)	비율	전체인원 비율
인턴십	15	32%	41%
동아리 활동	5	10%	13%
개인 무빙	6	13%	16%
해외 체험학습	2	4%	5%
인문학 캠프	2	4%	5%
농사수업	2	4%	5%
교사	2	4%	5%
학교전체	3	6%	8%
프로젝트 수업	1	2%	2%
학교생활	1	2%	2%
철학 수업	1	2%	2%
학생회 활동	1	2%	2%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	1	2%	2%
관련 없음	4	8%	11%

8번 질문의 답변의 결과를 보면 졸업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에 대해 1~2가지의 교육과정을 답했다. 인터뷰의 질문에서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의 수를 제한해 두지 않았고 제한해두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교육과정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 하는데 는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 표를 보면 총 42개의 답변 중 인턴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졸업생은 15명이고 고등 과정의

개인무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졸업생은 6명이다. 동아리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졸업생은 5명이며 해외체험학습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졸업생은 2명, 인문학 캠프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졸업생은 2명이다. 농사 수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명, 교사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졸업생은 2명, 프로젝트 수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은 1명으로 보인다. 학교전체가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졸업생은 2명, 학교생활이 영향을 주었다는 졸업생 1명, 철학수업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졸업생 1명, 학생회 활동이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졸업생 1명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졸업생은 4명이다.

정리된 결과를 보면 인턴십이 35%로 답변 중 가장 많았으며 개인 무빙이 10%로 두 번째로 많았고 동아리 활동이 13%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영향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정도이다. 해외체험학습, 인문학 캠프, 농사수업, 교사, 학교전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2%씩이며 프로젝트 수업, 학교생활, 철학 수업, 학생회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1%씩 차지했다.

졸업생 인원수에 맞춰서 각 답변에 대해 비율을 맞춰보면 인턴십이 41%를 차지했고 개인 무빙이 16%를 차지했으며 동아리 활동이 13%를 차지했다. 관련 없음이 11%를 차지했고 해외체험학습, 인문학 캠프, 농사수업, 교사, 학교전체가 각각 5%, 프로젝트 수업, 학교생활, 철학 수업, 학생회 활동이 각각 2%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보면 6학년 과정에 있는 인턴십이 교육과정 중 가장 졸업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뒤로 개인 무빙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답은 비교적 적은 수로 일부 졸업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답한 교육과정이 인턴십인 것을 보아 현재 졸업생들에게 인턴십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졸업 후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턴십과 마찬가지로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 중 하나인 개인 무빙도 비교적 많은 수의 졸업생이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걸로 보아 사회 참여를 통한 교육이 졸업 후 졸업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십 과 개인 무빙 다음으로 많이 답한 동아리 활동은 답 한 이유를 보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동아리를 이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실행 해볼 수 있어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교육과정 역시 지금의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는 없다. 학교에서 이뤄 놓은 교육과정을 밟아가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일부의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수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한 졸업생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교육과정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진로에 관련한 결정을 할 때 등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 졸업 전 잠시나마 사회에 나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과 학교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내용은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먼저 답변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자연과 갯벌을 위해 일하고 싶다.
지속 가능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인생에 있어서 무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관객을 만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예술 적인 표현을 하며 아름다운 것을 쫓으려 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 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놀이치료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하고 싶고 앞에서 말했듯이 배울게 되게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이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배워가면서 지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내가 목표하는 것이다.
요리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싶으나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열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 학생들과 아동, 잠시 직업이 없으신 분들, 또는 진로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다.
일과 하고 싶은 것을 분리해서 살아갈 것이고 목표를 잡은 나 자신을 보며 과정과 보람으로 먹고 살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 예술 활동만 하면서 살고 싶다.
게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게임과 관련된 진로는 마무리 하고 싶다.
군 생활 끝나면 극단을 가든 뭐든 해볼 생각
창업 관련해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진로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배우고 있는 것을 통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로 어려운 사람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다.
미래의 진로에 대한 생각 보다는 지금 당장 내일이나 한 달 후, 다음 학기에 뭐할 건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대 후 IT 분야 관련 공부
국제 분쟁 문제에 관련된 활동이라면 어떤 것도 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역사가 되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나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공부를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건축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사회변혁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싶다.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간디학교를 지낸 그때의 느낌이 그림기에 앞으로 내 삶은 그때 그 느낌을 찾으려고 할 것 같다. 그 느낌과 생각과 삶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간디학교는 아마 내 평생 영향을 줄 것 같다.
진로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할 예정이다. 할 수 있는 만큼 그 선에서 즐겁게 활동 할 것이다.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준비하던 유학을 가서 언어도 배우고 여행도 많이 하고 지금은 항공서비스와 관광 분야를 생각하고 있지만 또 새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에 갈 생각이다. 농사지으며 자급자족도하고 노래도 부르며 재미나게 살고 싶다.
빵에 대한 두 가지 길에서 고민 중이다.
현재 하는 게 곧 미래인 거고 현재 제가 음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 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성장해나가는 시기 인 것 같다.
내 능력껏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음악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판소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무엇을 하는 가 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핵심이다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정리한 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서는 졸업생의

앞으로의 삶이나 진로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는데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진로의 방향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졸업생 개개인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각자 마다 희망하는 진로, 진로를 진행하는 방식, 개개인의 시각과 생각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답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학교에서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논문의 앞부분에 설명한 제천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립,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마다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것 모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배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학교의 교육과정 아래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역시 각자가 자기 주도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진로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진로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며 우리학교가 졸업생들의 진로와 생각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졸업생의 진로는 개개인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Ⅲ. 결론

1. 우리학교 졸업생 들은...

제천간디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개개인의 진로의 과정과 진로 분야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졸업생들은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난 개개인이 진로를 진행하는 과정의 차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거나 대학을 가는 것은 그 과정을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진로 방법이고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진행하는 사람도 그 과정을 택한 사람이 선택한 진로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졸업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진로의 관련된 진로와 졸업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정한 분야의 진로에 국한되거나 두드러지게 한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지도 않았다. 앞의 결과들을 봤을 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학교 졸업생들은 각자 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진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진로를 진행하는 방식 역시 자신의 주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졸업생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로의 분야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졸업 전 학교에서 선택한 희망진로를 진행 시킨 경우와 졸업 후 경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우로 나뉘었는데 결과를 보면 졸업 후의 경험도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졸업 전 희망진로를 선택했던 졸업생들의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희망진로에 대한 선택이 졸업 후에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포함해 졸업생들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우리학교의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원칙을 비롯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방향중 하나인 자기주도적인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학교가 졸업생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 졸업생들의 진로에 학교생활에서 교육과정에 관련한 영향과 전체적인 학교생활 전체에서의 영향, 학교 철학에 관련한 영향, 학교에서 한 다양한 경험이나 프로그램의 영향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중 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답변에서 나왔다. 하지만 위의 답변 중에서도 특정 한 부분이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어떠한 부분이 졸업생들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였다. 부분별로 영향을 받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교안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큰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보면 졸업생들의 진로에 학교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영

향을 미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은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중 하나인 인턴십과 개인 무빙으로 보여졌다.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인턴십과 개인 무빙 외 다른 교육과정이 지금의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는 없다. 학교에서 이뤄 놓은 교육과정을 밟아가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일부의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수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한 졸업생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교육과정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진로에 관련한 결정을 할 때 등 졸업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 졸업 전 잠시나마 사회에 나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인턴십, 개인무빙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과 학교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나의 결론은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는 한가지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결론의 이유를 나는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배움을 얻고 자신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아 졸업생 개개인이 서로서로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졸업생들은 자신의 진로 역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리게 된 결론이다. 졸업생들의 진로 선택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답한 학교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 인턴십을 비롯한 개인무빙, 동아리 활동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는 우리학교의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교육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배움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내 논문의 결론이다.

2. 논문의 한계

내 논문의 한계는 우리학교가 졸업생들을 배출한 후의 기간이 사회에 정착해 어떠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졸업 후 직업을 갖춰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본다면 졸업생 개개인이 진로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보면 대학생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졸업생을 배출하고의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두 번째로는 내가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졸업생이 한정적이었던 것이다. 졸업생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 할 방법이 없는 졸업생들에게는 연락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졸업생이 한정적이었다. 많은 수의 졸업생들을 인터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반화가 제한적이었던 것 역시 내 논문의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심층 인터뷰하는 과정이 적었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서 한 인터뷰가 22% 정도로 비교적 적었다. 심층 인터뷰가 적었던 만큼 다양하고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좀 더 많은 졸업생들을 심층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논문을 마치며...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긴 동기에서 말했듯이 나의 진로 고민에서부터였다.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졸업 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민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졸업생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들으며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머리로만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던 나를 발견 했고 졸업생들이 말해주는 것

또 그들이 생각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나갔다. 그렇게 나는 내 진로에 대한 나만의 결론을 내놓았다. 졸업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얻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결론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미래를 떠올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그 하고 싶은 것을 함에 있어서 먼 미래까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지, 다음 학기에는 어떤 것을 하면서 지낼지에 대해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물론 이것 역시 내 머릿속에서 던져진 하나의 과제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나의 의지와 마음의 문제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논문을 쓰기 전 내가 이때까지 진로에 대해 했던 고민과 생각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로만 움직이고 있었던 나의 몸을 나의 진로를 위해 움직이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나는 내 논문에서 소중한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논문을 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얻은 것이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준 것 같아 고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논문을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준 논문인 것 같다.

4. Thanks to

먼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졸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누굴 적어야 데나!!! 우리 202호 방사람 들부터 적어보지. 논문 1차해서 동기부여해주 준상이형, 기숙사 올라오면 다가와서 애교 부리던 채성이, 잠버릇 심해서 가끔 잠 깨우던 승훈이, 아 그리고 논문 쓰느라 아줌마 아저씨 된 쿡자반, 아 맞다 담당교사 손쌤, 졸업생 자료를 비롯해서 계속 도움주신 종명쌤, 인터뷰 분석하는 법 가르쳐주신 정호쌤, 회장하는데 잘 도와주는 민경이, 툭툭 데면서 모든 것을 해준 채현누나, 논문 때때 힘들어서 걸어가다 보면 안녕~하고 인사해주던 예림누나, 사진 너무 잘 찍어준 진 누나, 옆에서 은근히 계속 챙겨준 산이 형, 회장하는데 계속 응원해주던 성민이형, 집행부 회의 잘 참여 해준 소윤누나, 가끔 어깨 넓다고 해주던 우정누나, 학생회 이끄는 데 힘들 때 기를 넣어준 소아누나, 홈스테이인데 회의 때 매일 올라와주던 태우 형, 회의 끝나고 항상 같이 올라가던 지담이랑 서경이, 앞에 말했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난 조건부라며 허세 부리던 하지만 은근 의지되는 우리 누나, 집에서 농땡이 불러도 항상 응원해주고 의지되는 우리아빠, 논문 쓰라고 재촉안하고 의지되었던 우리엄마, Thanks To 쓰는데 배고파~해준 은수, 마지막 우리 담임 부담임 민혜쌤!!!!!! 상현쌤!!!!!! 애틋 나 논문 쓰는데 옆에 있어 줬던 사람들 모두 고마워요~~~

첨부

희망진로와 진로방향의 표에 정리된 내용을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나눠 보았으나 논문의 결론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택하지 않은 자료이다.

표 16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1	공동체적 교육	13	자기 주도적 교육	25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
2	공동체적 교육	14	관련 없음	26	자기 주도적 교육
3	자연친화적 교육	15	관련 없음	27	자기 주도적 교육
4	자기 주도적 교육	16	자기 주도적 교육	28	공동체적 교육
5	공동체적 교육	17	공동체적 교육	29	자연친화적 교육
6	관련 없음	18	공동체적 교육	30	관련 없음
7	자기 주도적 교육	19	자기 주도적 교육	31	자립 교육
8	자기 주도적 교육	20	관련 없음	32	자기 주도적 교육
9	공동체적 교육	21	공동체적 교육	33	자기 주도적 교육

10	관련 없음	22	자기 주도적 교육	34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
11	공동체적 교육	23	공동체적 교육	35	자기 주도적 교육
12	자기 주도적 교육	24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	36	자기 주도적 교육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답변을 나눠서 정리해 보았다. 결과를 보면 자립 교육이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총 1명이었고 삶과 하나 되는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없었다. 자기 주도적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총 14명이었고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총 3명이었다. 공동체적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총 10명이었으며 자연친화적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총 2명이었다. 그리고 우리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6명이었다.

기준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자기 주도적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체적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이 27%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답변이 16%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8%로 비교적 적은수를 차지했으며 자연친화적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5%정도였고 자립교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2%정도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 주도적 교육이 졸업생들의 진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고 다음으로는 공동체적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부는 우리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참여 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 자립 교육은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졌다.

감정들을 간디인들과 사진으로 소통하기

지도교사: 유아름



이름: 하늘찬

성별: 남자

생년월일: 990529

혈액형: O형

사는 곳: 대전

한마디:

와 드디어 논문 끝났다.

수고했어!!! 모두들

목차

I .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방법

II . 본론

1. 감정이란
 - 1) 감정의 정의
 - 2) 감정의 종류
 - 3) 감정의 중요성
2. 나는 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진을 택했는가?
3.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감정 알아보기
4. 작품
 - 1) 사진 찍기
 - 2) 사진들 추리기
 - 3) 사진집 구성
5. 작품설명

III .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2. 논문의 한계점
3. thanks to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많은 사진장비들이 있었다. 아빠는 대학 때 사진동아리를 하시면서 사진을 배우셨다고 했다. 사진장비로 사진을 찍는 아빠를 보고 자랐다. 아빠 카메라는 내가 쓰기에는 너무 비싸서 나는 주로 내 아이팟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게 되었다. 나는 그 여행에서 아빠에게 처음으로 DSLR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하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나는 여행 중 사진을 계속 찍어 사진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다. 여행 이후에도 사진에 흥미를 느낀 나는 학교에서 사진수업도 듣고 사진들을 계속 찍어나갔다. 뷰파인더로 보이는 장면들과 그것이 찍혀 나온 사진들을 보며 ‘사진에도 감정을 담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내가 행복하고 좋았다.

사진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감정들에 대해 소통해보고 싶었다. 특히 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즐겁거나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했던 시간들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다. 그 과정을 통해 간디에서의 중등과정 3년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고등과정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 논문의 목적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산다. 나도 지난 3년간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한 시간도 있었으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감정 때문에 학교가 좋기도 했고 감정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다. 중등과정을 마치면서 그 감정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었다.

감정을 정리하는 매체로 나는 사진을 택했다. 사진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 중 하나였다. 사진수업에서 숙제로 추색(秋色), 가을에 색깔을 흑백사진에 담아오라는 숙제와 함께 ‘계속 그런 연습을 하면 자신의 사진에 스타일이 생기고 사진에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 낼 수 있다’라고 윤하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수업 이후로 나는 사진 속에는 감정이 있고 사진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생활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나타내보려고 한다. 논문을 위해서 학교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다. 어떤 장면을 보고 내가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보았던 감정이 있었다.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았더니 찍었을 때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다. 사진들을 고르고 사진들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내가 간디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이 사진집이 간디인들과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3년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작품 논문이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서 감정을 찾아서 글로 적어 사진집을 만든다. 감정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감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참고서적

필립 퍼키스의 사진강의 노트 / 필립 퍼키스 / 박태희 옮김 / 안목출판사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 함철훈 / 교보문고

사진구도 / 정승익 / 한빛미디어

반가워! DSLR / 심은식 / photonet

사진(photography) / 바바라 런더 & 존 입턴 / 이준식 옮김 / 미진사

생각의 시작 어린이를 위한 감정수업 / 유재화 지음 / 자유로운 상상

아이의 정서지능 / EBS <엄마도 모르는 우리아이의 정서 지능> 제작팀 지음 / 지식채널

공감대화카드 / 연구개발 초등상담나무 /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어린이 감정 요리법 / 마크 네미로프, 제인 아눈지아타 지음 / 그림 크린스틴 바투즈
감정 백과사전 / 글 메리 호프만 / 그림 로스 에스퀴스 / 최정선 옮김

2) 영상 및 사진

열화당 사진문고시리즈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 유진 스미스, 에드 반 데르 엘스켄)

3) 참고 사이트

www.4zine.net

4) 방문 및 탐방

조던 매터 사진전, 한금선 사진전

8월 20일에 나는 두 사진전을 다녀왔다. 기본적으로 사진에 관한 논문을 쓰려면 사진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또,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있어서 다녀왔다.

조던 매터의 사진전은 좀 신기했다. 사진전에 사진작가가 촬영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 있었는데 사진작가가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들과 촬영을 해서 사진작가의 사진들이 내가 찍기에는 힘든 사진들을 찍은 것 같다. 하지만 몇 사진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사물을 강조시키는 사진이 있었다. 나도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다.

한금선 사진작가의 사진전은 꺾르뻔니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라는 제목이었다. 러시아어 꺾르뻔니는 우리말로 팬찮아 혹은 참아야해 라는 뜻이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목적지도 모른 채 기차에 몸을 실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6천 킬로미터가 넘는 긴 여정이었다. 이 강제이주 기간 동안에만 1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어린 자식이 죽으면 열차 미달이문 밖으로 시신을 버리며 갔다. 도착을 해서도 굴을 파고 살거나 마구간에서 살며 굶주림을 견뎌 냈다. 간신히 살려온 자식을 이리가 물어가기도 했다. 기차에서도 죽지 않고 이리에게도 물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지금의 고려인 1세대들이다. 이주에서 정착까지의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 오는 동안, 이들은 꺾르뻔니, 꺾르뻔니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서로를 부축했다. 그것은 2세대들에게도 유전이 되어,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삶의 어느 힘겨운 순간과 마주치면 꺾르뻔니, 꺾르뻔니라고 말한다. 사진가 한금선 의 4번째 개인전 <꺾르뻔니>는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초여름, 대구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 구슬기록과 사진기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을 만났다. 양 니콜라이, 강 라이사, 박 알렌산드로. 성명에도 알 수 있듯이, 몸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지만 적은 조선에 둔 사람들,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들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들의 현재를 사진에 담았다. 사진전은 작은 규모로 전시되어있었고 사진도 몇 장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 속에서 감정이 느껴졌고 내 사진집에 담고 싶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전을 보면서 나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조금 영감을 받았다.

5) 설문 조사

간디인들이 내 사진을 보고 공감을 하려면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감정들과 간디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4일에 설문지를 돌렸다.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 그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게 된 이유, 어제 가장 크게 느끼신 감정이나 기분, 그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게 된 이유의 총 4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를 각 학년과 멘토반에 돌려 1학년 18명, 2학년 15명, 3학년 19명, 고등부 21명, 썸 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멘토반에서는 설문지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고등부로 합쳤다. 여기서 나온 감정들을 통계내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6) 초상권 동의받기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하거나 싫어하는 표현들을 했다. 그래서 나는 사진집에 내 마음대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 사진집에 들어가는 사진 중에 간디인이 들어가 있는 사진에는 직접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를 받기위해 직접 그 사람이 찍혀 있는 사진을 들고 찾아가 보여 주며 동의를 받았다.

II. 본론

1. 감정이란

1) 감정의 정의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¹⁾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있다. 교내에 같은 곳에서 같은 장소 또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한다. 어쩌면 당연한 것 이지만 이런 일상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에는 심리학에서 감각과 감정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J.워드와 W.분트라는 분은 감각은 객관적이며,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라 구별하였다.²⁾ 감정과 지각(知覺)이 합쳐진 상모적 지각(相貌的知覺)이라는 현상도 있다.³⁾

2) 감정의 종류

감정의 종류는 엄청 나게 많다. 희로애락(喜怒哀樂)처럼 격렬하고 강하지만 폭발적으로 표현되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 그런 감정들을 '정서(情緒)' 또는 '정동(情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표현이 억제되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감정을 '정취(情趣)'라고 한다. 그 밖에도 가치의식이 가해진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를 '정조(情操)'라 한다. 이렇게 감정을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⁴⁾

희(喜) - 기쁨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감사한, 고마운, 고무적인, 기쁜, 고전적인, 날아갈 듯한, 놀라운, 가벼운, 눈물겨운, 든든한, 만족스러운, 몽클한, 반가운, 벅찬, 뿌듯한, 살맛나는, 시원한, 싱그러운, 좋은, 짜릿한, 쾌적한, 통쾌한, 포근한, 푸근한, 행복한, 환상적인, 후련한, 흐뭇한, 흔쾌한, 흥분된

노(怒) - 노여움

가혹한, 고통스러운, 골치 아픈, 괄씸한, 구역질나는, 기분이 상하는, 꼴사나운, 끓어오르는, 나쁜, 노한, 짧은, 모욕적, 무서운, 배신감, 복수심, 복받침, 분개한, 분노, 불만스러운, 불쾌한, 섬뜩한, 소름끼치는, 속상한, 숨 막히는, 실망감, 쓰라린, 씹쓸한, 약 오르는

애(哀) - 슬픔

가슴 아픈, 걱정되는, 고단한, 고독한, 고민스러운, 공포에 질린, 공허한, 괴로운, 구슬픈, 권태로운, 근심되는, 기분 나쁜, 낙담한, 두려운, 마음이 무거운, 멍한, 몽클한, 미어지는, 부끄러운, 불쌍한, 불안한, 불편한, 비참한, 비탄함, 서글픈, 암담한, 앞이 캄캄한, 애석한, 애처로운, 애태우는, 애통한, 언짢은, 염려하는, 외로운, 우울한, 울적한, 음울한, 음침한, 의기소침한, 절망적인, 좌절하는, 증오하는, 지루한, 찻찻한, 참담한, 창피한, 처량한, 처참한, 측은한, 침통한, 패배스러운, 한스러운, 허전한, 허탈한, 허한, 황량한

1)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 [feeling, 感情] (두산백과) 인용

2)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 [feeling, 感情] (두산백과) 참고

3) 인간의 외양으로 내적 성격, 정서, 태도 따위를 지각하는 일. 또는 무생물도 보기에 따라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다고 느끼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4)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 [feeling, 感情] (두산백과) 참고

락(樂) - 즐거움

가벼운, 가쁜한, 고요한, 기분 좋은, 담담한, 명량한, 밝은, 산뜻한, 상쾌한, 상큼한, 숨 가쁜, 신나는, 유쾌한, 자신 있는, 즐거운, 쾌활한, 편안한, 흥분한, 황기 있는, 활발한, 흐뭇한, 흥분된, 희망찬

애(愛) - 사랑

감미로운, 감사하는, 그리운, 다정한, 따사로움, 묘한, 뿌듯함, 사랑스러움, 상냥한, 순수함, 애뜻한, 열렬한, 열망하는, 친숙한, 포근한, 호감이 가는, 화끈거리는, 흡족함

오(惡) - 미움

고통스러움, 괴로움, 구역질나는, 귀찮은, 근심스러운, 끔찍한, 몹서리치는, 무정한, 미운, 부담스러운, 서운한, 싫은, 싫증나는, 쌀쌀한, 약속한, 알미운, 억울한, 원망스러운, 죄스런, 죄책감, 증오스러운, 지겨운, 짜증스러운, 차가운, 황량한

욕(慾) - 바라다

간절한, 갈망하는, 기대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애끓는, 절박한, 짹짹한, 초라한, 초조한, 호기심, 후회스러운, 희망하는

3) 감정의 중요성

인간은 순간순간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간다. 그리고 누구나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들, 즉 특정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데 정서를 다루는 정서조절능력은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가 이러한 감정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풀어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⁵⁾

2. 나는 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진을 택했는가?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표현수단은 많다. 예를 들어보자면 연극, 영상, 그림 등에 표현수단이 있다. 각 표현수단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술 같은 것들은 붓이나 연필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작가가 대상화 하는 소재를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수단들은 모두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것들에 예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사진 외의 것들은 교내에서 보이는 감정이나, 느낌들을 완벽히 표현하기에 내 실력과 흥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사진은 나에게 하나의 관심분야이고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사진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진기로 찍은 그 순간에 사진은 피사체가 찍은 그대로 나와서 감정을 담아내거나 표현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3.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감정 알아보기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감정들과 또, 간디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사진을 찍을 때 감정을 잘 나타나게 찍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간디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의 사진을 찍으면 간디인들이 내 사진을 보고 공감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진 속의 감정이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간디학교 생활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간디인들이 내 사진을 보고 공감을 하려면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감정들과 간디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4일에 설문지를 돌렸다. 총 4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5) 아이의 정서지능 26쪽

설문지

안녕하세요, 논문을 쓰는 3학년 하늘찬입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감정들이나 기분들을 알아보고 합니다. 성의껏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3개)

()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시나요?

()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셨나요?

()

바쁜 시간에도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은 학교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알아보려고 했다. 사진을 찍을 때 감정을 잘 나타나게 찍어야 되는데 되도록 간디인들이 공감할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다.

2번째 질문은 간디인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은 하루에도 많은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질문을 했다.

설문지 통계분석

설문지에 적힌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1학년 (18장)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짜증6, 기쁨3, 행복2, 복잡2, 슬픔2, 외로움2, 우울2, 즐거움2, 혼란, 피곤, 옛 같음, 부러움, 귀찮음, 신남, 화남, 몰라, 그저 그럼, 어이없음, 심심, 지루, 힘들다, 졸림, 불안, 성취, 안도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셨나요?

큰일을 끝냈을 때(불안, 성취, 안도), 기쁘고 슬프고 피곤한 일이 있었을 때(기쁨, 슬픔, 졸림), 산 탈 때(즐거움, 힘들다, 짜증남), 연애하는 사람 볼 때(외롭다), 혼자 있을 때(심심, 지루, 짜증), 몇몇 반 남자애들이 12월 때, 때릴 때(짜증남, 어이없음), 하루에도 감정이나 기분이 크게 바뀔 (답답함), 감정이나 기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음(우울, 기쁨, 그냥 그렇다), 몰라요(몰라요), 잘 모르겠다.(우울, 즐거움, 외로움), 친구가 뭐라 할 때(짜증, 슬픔, 화남) 모르겠다.(복잡함), 몰라 (귀찮음, 짜증, 신남), 이상한 애를 바라볼 때 (옛 같다, 부럽다, 슬프다), 일이 많을 때 (피곤함), 청소할 때(짜증, 행복, 복잡), 평소엔 그냥 일상적으로 (혼란, 행복, 기쁨)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짜증4, 즐거움3, 힘들다3, 기쁨2, 행복함2, 피곤함, 귀찮음, 신남, 슬픔, 화남, 즐거움, 몰라, 혼란, 외롭다, 아픔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유 없다(짜증), 아팠다(아픔), 그냥(즐겁다, 힘들다), 형들이 연애하러 나가서(외롭다), 등산 갔다 와서(힘들다), 남자애들한테 맞아서(짜증남), 오픈하우스(즐거움, 힘들다), 너무 정신이 없었다(혼란), 몰라(몰라), 오픈하우스(즐거움), 친구가 뭐라고 해서(짜증, 슬픔, 화남), 등산과 오픈하우스 때문에(힘들), 몰라(귀찮음,

짜증, 신남), 오픈하우스(기쁨),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함),친구와 함께 있는 것 좋았다(즐거움), 그냥(기쁨 행복), 오픈하우스(행복)

2학년 (15장)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1인 3개의 감정

짜증6, 행복4, 사랑2, 설렘2, 힘들다2, 피곤2, 웃김, 심심, 집에 가고 싶음, 두려움, 소망, 우울, 기쁨, 멘붕, 좌절, 허망, 걱정, 신남, 피곤, 혼란, 졸림, 상쾌함, 웃음 (감정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을 한 적도 있다)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셨나요?

정말하기 싫은 것을 할 때(짜증), 친구들이랑 놀 때(웃김), 아무것도 안할 때(심심), 아침에 일어날 때(짜증),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사랑, 설렘), 요즘(행복, 피곤, 웃음), 지금(졸림, 피곤, 상쾌함), 언제나(피곤, 혼란, 짜증), 재미있을 때 빼고(힘들다, 걱정, 신남), 기숙사에 있을 때(힘들다), 언제나(멘붕, 좌절, 허망), 아침에(우울, 기쁨, 짜증) 잘 때(소망, 사랑, 행복), 요즘 따라(설렘, 행복, 두려움), 항상(짜증, 집에 가고 싶음), 매일(걱정, 행복)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행복2, 피곤, 집에 가고 싶음, 소망, 우울, OTL, 힘들다, 자책, 설렘, 짜증, 재미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오픈하우스(재미), 아침에 일어날 때(짜증), 좋아하는 사람이라 있을 때(설렘), 행복해서(행복), 너무 흥분해서 (자책), 감기때문에(힘들다), 그러게요(OTL), 몰라(우울), 좀 있으면 가정학습이여서(소망), 오픈하우스가 즐거워서(행복), 내 오른팔에 흑염룡이 잠들어있어서(집에 가고 싶음), 졸려서 (피곤)

3학년 (19장)

1.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짜증6, 무기력5, 우울4, 기쁨3, 분노2, 후회2, 귀찮음2, 불안2, 즐거움2, 행복2, 슬픔, 설렘, 피곤, 신남, 막막함, 배고픔, 걱정, 기대, 혼돈, 답답함, 궁금함, 소외감, 외로움, 절망, 자괴감, 지침, 사랑, 허전함, 만족, 다급함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셨나요?

논문을 할 때(다급함, 즐거움, 불안함), 연애할 때(사랑, 허전함, 만족), 논문, 장난칠 때(지침, 기쁨), 일이 잘 안 풀릴 때(자괴감, 우울, 무기력), 논문을 쓸 때(절망, 무기력, 짜증), 요즘의 일상(우울, 무기력, 행복), 지금(분노), 교실에 혼자 있을 때(우울, 외로움), 논문을 쓸 때(짜증), 짜증날 때(짜증), 친구들과 다 같이 있을 때(소외감, 불안함, 즐거움), 주제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걱정(혼돈, 답답함, 궁금함),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기대는 가정학습이 올 때(분노, 걱정, 기대), 피곤하고 신나고 배고플 때(피곤 신남, 배고픔), 언제나(귀찮음, 기쁨, 후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짜증, 우울, 기쁨),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진다고 생각 될 때(슬픔, 행복, 설렘), 논문이 끝난 직후(귀찮음 무기력), 논문(짜증, 무기력, 후회), 논문 쓸 때(짜증 막막함)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짜증2, 설렘, 짜증, 분노, 피로, 쪽팔림, 슬픔, 후회, 귀찮음, 피곤, 실망, 답답함, 짜증, 화남, 기쁨, 즐거움, 고통, 재미, 혼란, 무기력, 힘들다, 허전, 공허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글쎄(공허함), 허전해서(허전), 논문 때문에(힘들다), 몰라(무기력), 개인적인 일로(혼란), 오픈하우스(재미),

글썸(고통), 오픈하우스이여서(기쁨 재미), 주제 프로젝트 때문에(짜증), 짜증날 때(짜증), 애들이 그래서(화남), 소통이 잘 안되어서(답답함, 짜증), 오픈하우스 때 방에 사람들이 많이 안와서(실망), 몰라(피곤), 일이 많아서(귀찮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후회),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 한다는 생각에 내가 못나보여서(슬픔), 게나(k나연과의 애칭) 때문에(쪽팔림), 논문, 오픈하우스(짜증, 분노, 피로), 오늘 충주를 가서(설렘)

고등부 (21장)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외로움4, 그리움3, 기쁨3, 행복3, 무료함3, 우울3, 졸림3, 배고픔2, 들뜸2, 자괴감2, 사랑, 환희, 쓸쓸함, 따뜻함, 부러움, 지루함, 여유, 우울, 평온, 화남, 평화, 걱정, 심란, 즐거움, 사랑, 슬픔, 짜증, 흥분, 기쁨, 질투, 피곤, 배고픔, 후회, 설렘, 나른함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셨나요?

먹을 때(기쁨, 화희, 행복), 밤에 (외로움, 그리움, 사랑), 언제나 (우울, 기쁨, 외로움), 작업장, 3,4교시, 언제나(졸림, 배고픔, 외로움), 평소에, 가끔, 학교만 보면(졸려, 보고 싶다, 따뜻하다), 연애하는 사람 볼 때마다(외로움, 부러움, 그리움), 수업이 없을 때(지루함, 나른함, 여유), 평소에(우울 평온 평화), 학교 다닐 때(미래에 대한 걱정 무료함, 화남),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답답함2, 즐거움2, 신남2, 들뜸, 짜릿함, 피곤, 무료함, 짜증, 우울, 슬픔, 편안함, 행복2, 허무함, 추움, 설렘, 고통, 허무함, 설렘, 고통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방 사람들과 춤추고 놀아서(즐거움), 오픈하우스(신남),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겨서(설렘), 옆에 누가 없어서(추위), 오픈하우스 때문에(신남), 말을 하지 못해서(답답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여서(즐거움, 행복), 시간이 별일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가서(허무함), 우울해서(우울), 슬퍼서(슬픔), 친구와 오랜만에 같이 있어서(편안함), 집에 가니깐(들뜸), 사고를 치다가 아찔한 순간을 잘 넘겨서(스릴), 오픈하우스, 감기 때문에 쉬지 못해서(피곤), 할 일이 없어서(무료함), 일이 너무 많아서(답답함),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짜증나서(짜증)

썸 (6장)

1.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은 무엇인가요?

바쁨, 기쁨, 힘들다, 졸림, 집에 가고 싶다, 무기력, 우울, 허전, 당당, 피로, 무력감, 자포자기, 피곤, 행복, 외로움, 답답함

1-1. 언제 가장 그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느끼셨나요?

일이 많아서, 일이 없어서(기쁨, 바쁨), 회의 끝나고, 아이들 퇴소시킬 때(힘들다, 졸림, 집에 가고 싶다), 일이 잘 안될 때(무기력, 우울), 요즘(허전, 당당, 피로), 회의 (무력감, 자포자기, 답답함), 자주(피곤), 애기들이랑 학생들 볼 때(행복), 가끔(외로움),

2. 어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즐거움, 피곤, 황당, 피곤 귀엽다, 홀가분, 위로, 피로, 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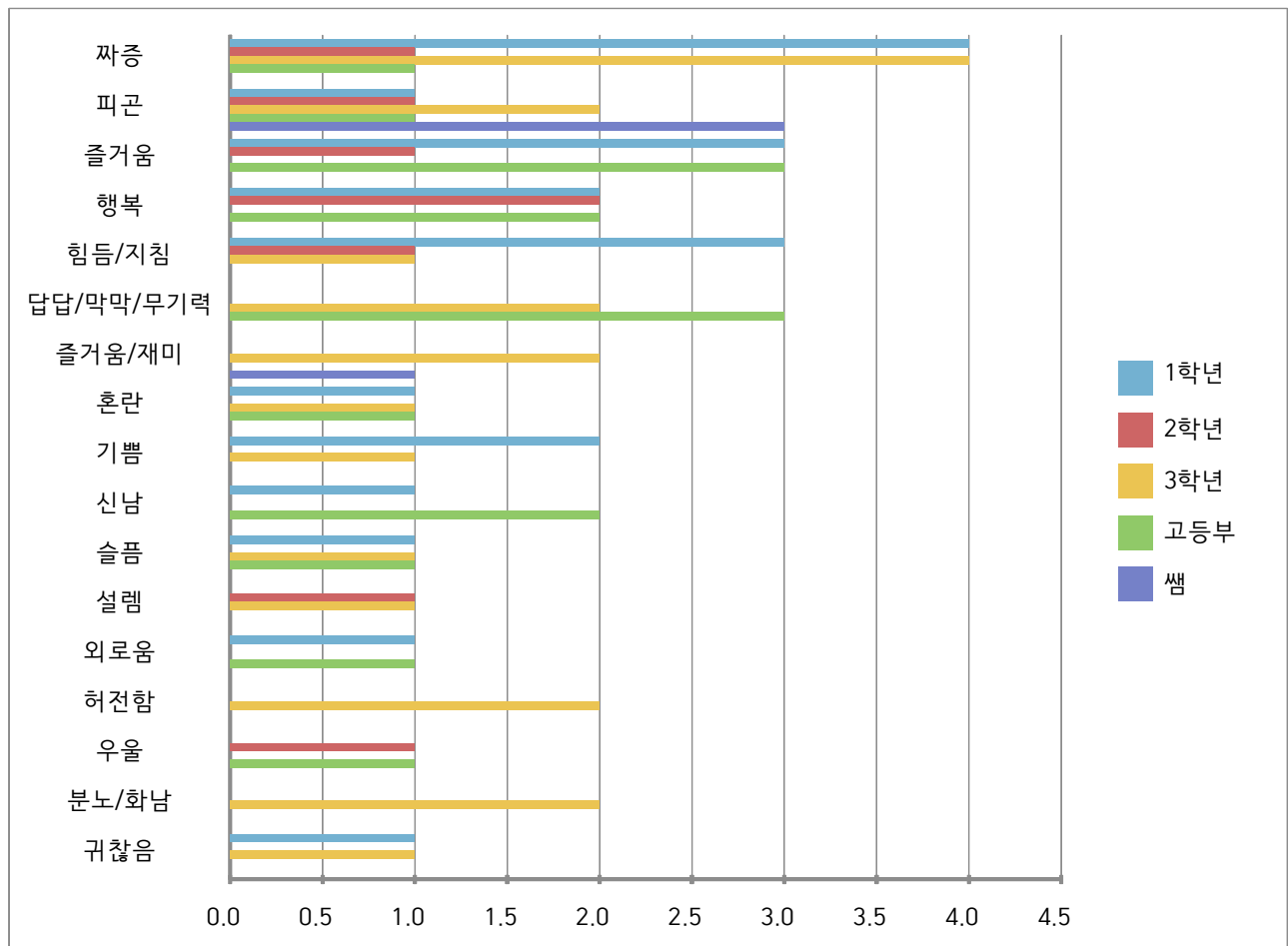
2-1.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셨나요?

오픈하우스와 떡볶이(즐거움), 낮 시간에 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쉬어서(피곤함), 일이 황당하게 돌아가서(황당), 짐 날라서, 정이안 때문에(피곤, 귀엽다, 홀가분) 누군가와 공감하고 소통하였다는 것을 느껴

서(위로), 수면부족(피로, 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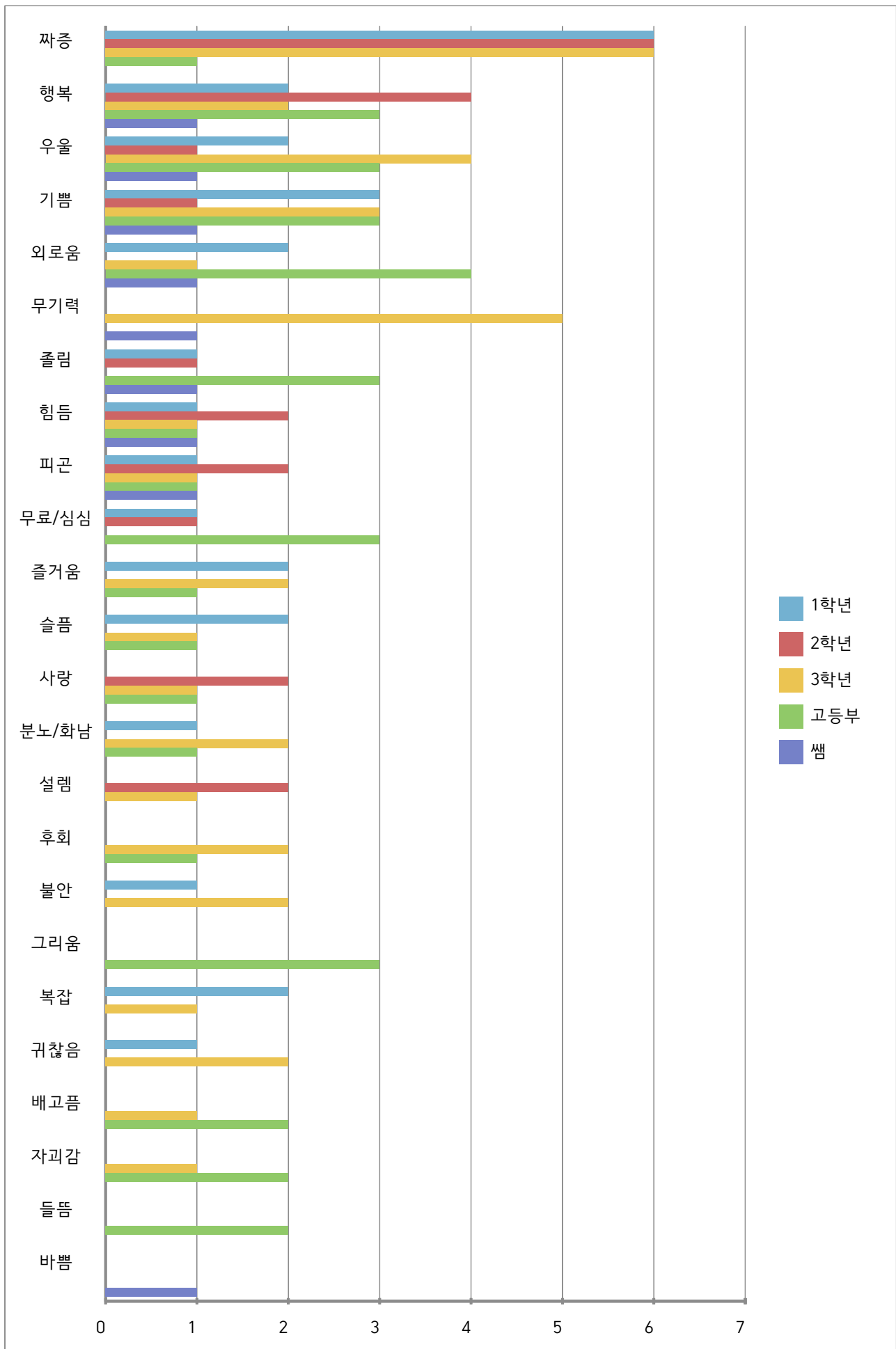
이 응답들을 응답수가 가장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보았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부	쌤	총계
짜증	6	6	6	1	0	19
행복	2	4	2	3	1	12
우울	2	1	4	3	1	11
기쁨	3	1	3	3	1	11
외로움	2	0	1	4	1	8
무기력	0	0	5	0	1	6
졸림	1	1	0	3	1	6
힘듦	1	2	1	1	1	6
피곤	1	2	1	1	1	6
무료/심심	1	1	0	3	0	5
즐거움	2	0	2	1	0	5
슬픔	2	0	1	1	0	4
사랑	0	2	1	1	0	4
분노/화남	1	0	2	1	0	4
설렘	0	2	1	0	0	3
후회	0	0	2	1	0	3
불안	1	0	2	0	0	3
그리움	0	0	0	3	0	3
복잡	2	0	1	0	0	3
귀찮음	1	0	2	0	0	3
배고픔	0	0	1	2	0	3
자괴감	0	0	1	2	0	3
들뜸	0	0	0	2	0	2
바쁨	0	0	0	0	1	1



설문을 보았을 때 전날에 이루어졌던 오픈하우스 때문에 행복, 기쁨, 즐거움, 사랑, 설렘, 들뜸 같이 긍정적인 감정들이 일부 나왔지만 이는 전체 응답의 1/3에도 못 미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여서 그런지 긍정적인 감정들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중등과정에서는 짜증이라는 감정이 다른 어떤 감정보다 많이 나왔는데 고등부나 교사에게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짜증은 중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다. 내가 속한 3학년은 다른 학년들과 비교해볼 때 짜증뿐만 아니라 우울, 무기력, 분노, 후회, 불안, 귀찮음 등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높았다.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논문과 연관되어 있어, 논문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역시 간디학교에서 논문은 큰 스트레스인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는 전날 있었던 회의 때문에 피곤한 감정들을 많이 느낀 신 것 같았다. 어제 느낀 감정을 분석해보아도 순서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부	쌤	총계
짜증	4	1	4	1	0	10
피곤	1	1	2	1	3	8
즐거움	3	1	0	3	0	7
행복	2	2	0	2	0	6
힘듬/지침	3	1	1	0	0	5
답답/막막/무기력	0	0	2	3	0	5
즐거움/재미	0	0	2	0	1	3
혼란	1	0	1	1	0	3
기쁨	2	0	1	0	0	3
신남	1	0	0	2	0	3
슬픔	1	0	1	1	0	3
설렘	0	1	1	0	0	2
외로움	1	0	0	1	0	2
허전함	0	0	2	0	0	2
우울	0	1	0	1	0	2
분노/화남	0	0	2	0	0	2
귀찮음	1	0	1	0	0	2



4. 작품

1) 사진 찍기

나는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간디학교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간디인들을 상대로 감정이 잘 나타나게 찍으려고 노력하며 사진을 찍었다. 매일 사진을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짬짬이 학교를 계속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은 총 436장을 촬영했다.

2) 사진들 추리기

사진추리기는 총 3번을 추렸다.

첫 번째 추리기는 총 436장의 사진들 중에서 흔들린 사진이나 피사체가 비슷한 사진들을 추리는 작업을 했다. 나는 차근차근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150장으로 사진을 추렸다.

두 번째 추리기는 아름쌤과 함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사진들을 중심으로 사진들을 추렸다. 사진들을 수차례 다시 보면서 거침없이 사진들을 추렸다. 한 60장이 남았을 즈음에는 더 이상 사진들을 추리기 어려웠다. 어떤 사진은 감정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미 비슷한 감정이 사진이 있어서 추려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 46 장의 사진을 선택했다.

세 번째 추리기는 아름쌤과 추린 사진들을 프린트 하여 대자보에 사진들을 붙이고 각 사진 옆에 내가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적었다. 그리고 간디인들에게 감정이 잘 나타나있거나 사진에 나타나있는 감정이 공감이 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만약 사진과 감정을 보았을 때 다른 감정이 느끼면 펜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을 수 있도록 대자보작업을 하였다. 대자보의 참여율을 조금 저조했다. 그렇지만 나는 한명도 참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논문을 진행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각 사진 옆에 감정을 적지 않았더라면 간디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적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스티커가 많이 붙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총 35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사진집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사진집 구성

사진집의 구성은 열화당 사진문고를 참고하여 구성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열화당 사진문고 책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참고를 했다. 이유는 책이 작아서 아담하고, 편리한 것 같아서 책으로서 좀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집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indesgi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indesgin은 리아쌤께 사용법을 배웠다. indesgin의 사용법이 간단하고 또, 한글문서파일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처음 배운 것치고는 편리하게 이용했다.

5. 작품설명

나는 논문주제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감정이란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인데 감정을 느끼는 종류는 다양한 것 같다. '지루함', '상쾌함'과 같이 자신이 혼자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반면에 친구랑 싸울 때 느끼는 '분노' 같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감정도 있다. 또, 무언가 협동하여 같이 이루어 내서 느끼는 기쁨은 집단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다. 간디학교는 생활공동체여서 학교생활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오고갔다. 그런 감정들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다.

나에게는 감정의 좌우충돌이었던 간디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사진을 찍을 때 감정이 잘 나타나게 찍고 싶었다.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도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사진에는 내가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본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소통이 일어났다. 소통이 일어나면 또 감정이 생긴다. 소통이 잘 되어서도 감정이 생기고 안 되어서도 감정이 생긴다. 사진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감정을 나눠보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35장의 사진들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간디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반영하여 각각 그리움, 사랑, 안정감, 순수함, 설렘, 즐거움, 바쁨, 불편함, 배고픔, 지저분함, 지루함, 심심함, 긴장, 힘듦, 피곤함, 분노, 허전함, 아쉬움, 감정을 흘려보냄, 고민, 외로움, 진지함, 의지, 몰입감, 노력, 협동심, 소통, 도움, 공통관심, 밝음, 자신감, 상쾌함, 편안함, 행복, 희망이라는 제목들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감정의 흐름으로 나열해 보았다.

Ⅲ. 결론

1. 논문을 마치며

나는 논문을 쓰는 동안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았다. 웬지 나는 실패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았다. 매 발표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져와 까일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허접한 주제들로 내 논문의 중심을 못 잡았던 것 같았다. ‘논문을 쓰면 느끼는 것이, 얻는 것과 배우는 것이 많다.’라는 사람들에 말은 이해가 안됐다. 나는 주변반응과 혼자만의 혼란 속에 빠져 논문 쓰는 내내 힘들게 지낸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로 논문을 쓰면 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진기를 들면 즐거워하고 설렘이었던 내가 논문을 쓰면서 사진기를 들면 스트레스였고 무엇을 찍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속 학교를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꼭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 웬지 모를 압박감도 있었다. 평소 사람들이 찍을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논문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깐 계속 찍을게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는 것을 피해 다니고 또, 논문을 잊어버리려고 하염없이 농구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른 친구들이 통과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지나간 나의 시간들이 후회되었다. 나는 논문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성장할 수도 있지만 나는 꼭 논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들은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조금씩 조금씩 논문을 써 나아갔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도 논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논문을 쓰면서 나는 내 중등 3년 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 속에서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을 같이 나누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우리학교가 낸 책의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나는 논문을 쓰면서 책제목이 공감되었다. 여전히 나는 감정들 속에서 흔들리며 지낸다. 하지만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2. 논문의 한계점

나는 논문의 주제를 너무 늦게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고 그래서 무리하게 마무리를 하였다. 주제를 가다듬을 시간이 없이 어렵게 논문을 진행했다. 사진을 찍을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부족한 시간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간디학교 속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사진에 잘 담지 못한 것 같다.

3. thanks to (고마운 사람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루니, 내가 속을 썩여도 함께 울고 웃으며 1년을 보내온 미안하고 고마운 나의 담당교사 아름쌤, 우리 반을 이끌어준 민혜쌤과 상현쌤, 뒤에서 나를 도와준 정상쌤, 논문도 도와주고 같이 웃으며 지낸 리아쌤, 철없는 나와 같이 지내온 우리 콩자반, 초상권을 허락해준 간디인들,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조언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형들, 같이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웃을 수 있는 그냥 mountain (산이 형)과 this is mountain (건산이 형). 형들이 있어서 내가 산다!!!

<콩자반 논문집을 마치며...>

3학년때 담임 약장수가...

2016년.

드디어 논문집을 내다! 조금은 쉼피할 거야 그치?

지금은 5학년! 2년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너희의 결과물이 이제야 탄생하다니!!

고생도 엄청했지? 그 노력에 항상 박수를 보낸다.

지금은 너희가 그때의 너희가 아니라서 조금은 서운하기도 해.

벌써 너무 커버렸다...

아직도 나에게는 푹푹의 콩자반이거늘...

여튼, 잘 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 너무 게으르긴 했다?

본의 아니게 13시반 친구들에게는 너희의 따끈한 논문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12,13의 3학년 담임이었던 나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구나.

이런 과오를 13시반은 답습하지 않아야 할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빠빠라바빠빠반이 너희의 논문을 참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지 뭐야.

14학번에게는 천만다행 천운 이라고 해 두자. 이렇게 고 퀄리티의 논문을 참고 할 수 있게 된 것 말이야.

3학년때의 논문을 2년이 흐른 뒤에 받아보는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편집일에 수고해준 시은이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야 창피함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고치려 노력했던 너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전할게.

이제 나도 너희를 털어낼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지내자고~

콩자반 파이팅!!!

<편집후기>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와하하!!!

모두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12학번의 논문집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거 기록 갱신으로 보이는데 과연 다음 학번 애들은 언제 나올지를 생각하면 참 두근두근해집니다. 켈헬헬헬. 이제 논문을 써야할 14학번 친구들, 논문집을 편집해야할 13학번 친구들 모두 수고하세요!!! 이제 논문 진짜로 끝났다!!

-12학번 한글 서틀 시은 적다